영통동

수원시 최초의 신도시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1. 『이의동지』(2003)
2. 『율전동지』(2005)
3. 『구운·금호동지』(2006)
4. 『화성안 마을지』(2010)
5. 『북수원지』(2010)
6. 『세류동지』(2010)
7. 『고등동지』(2012)
8. 『서둔동·탑동지』(2013)
9. 『문밖마을』(2014)
10. 『광교산이 품은 두 마을과 연무대 옆 마을』(2015)
11. 『연못마을 골목마을 벽화마을』(2016)
12. 『화서동 : 빛나는 서쪽마을』(2016)
13. 『영화동 : 손님을 맞이하는 마중 마을』(2017)
14. 『매산동 : 수원의 관문, 수원역이 자리한 마을』(2018)
15. 『인계동 : 수원시 최대 업무지구, 행정 중심지』(2019)
16. 『매교동 : 개발이 지나간 자리, 남겨진 기억을 모으다』(2020)
17. 『망포동 : 태장면의 중심지에서 수원 신흥 주거지로』(2021)
18. 『고색동 : [1] 공동체 문화가 풍성한 마을』(2022)
19. 『고색동 : [2] 수원시 대표 산업지대』(2022)

비매품/무료

ISBN 979-11-6819-123-5
ISBN 979-11-90343-99-2 (세트)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특례시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20
영통동
수원시 최초의 신도시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 최초의 신도시

1997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영통지구는 쾌적한 거주환경은 물론, 상업과 여가, 교육시설을 풍부하게 갖춘 수원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첫 번째 입주민이 영통신도시에 들어선 뒤 어느덧 25년 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났다. 그런 지금이야말로 영통신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문화를 되짚어 보기에 적합한 시점이기도 하다. 영통지구 첫 입주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영통신도시 주민들이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1997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영통지구는 쾌적한 거주환경은 물론, 상업과 여가, 교육시설을 풍부하게 갖춘 수원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첫 번째 입주민이 영통신도시에 들어선 뒤 어느덧 25년 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났다. 그런 지금이야말로 영통신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문화를 되짚어 보기에 적합한 시점이기도 하다. 영통지구 첫 입주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영통신도시 주민들이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영통동

수원시 최초의 신도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CONTENTS

I 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마을 변천

01. 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007
02. 근대 변혁기 영통리 해주 오씨가 사람들의 세 가지 길 059
03. 택지개발 전후 영통리 주민들의 생활 변화 087
04. 격변의 세월을 거친 영통동경로당의 두 친구 119

II 영통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공간

01.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개 141
02. 영통동 아파트 공간의 탄생 181
03.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223
04. "아동들의 행위 공간은 장소가 된다." : 영통동 아파트 외부공간에서 아동들의 장소 253

III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01.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289
02.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323
03.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361

IV 영통역 상업지역의 공간과 문화

01. 영통역 상업지역의 공간구조 393
02. 영통역 중심상권의 형성과 변화 433
03. 영통동 학원가의 형성과 운영 475
04. 영통동 대학가와 지역사회 509

V 더 나은 영통동을 위하여

01. 살기 좋은 주거·생활환경을 가꾸는 일 : 영통동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535
02.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 활동 551
03. 영통동 주민들의 소통마당, '영통주민모임터' 601
04.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 617
05. 푸른 쉼터, 영통동 공원 649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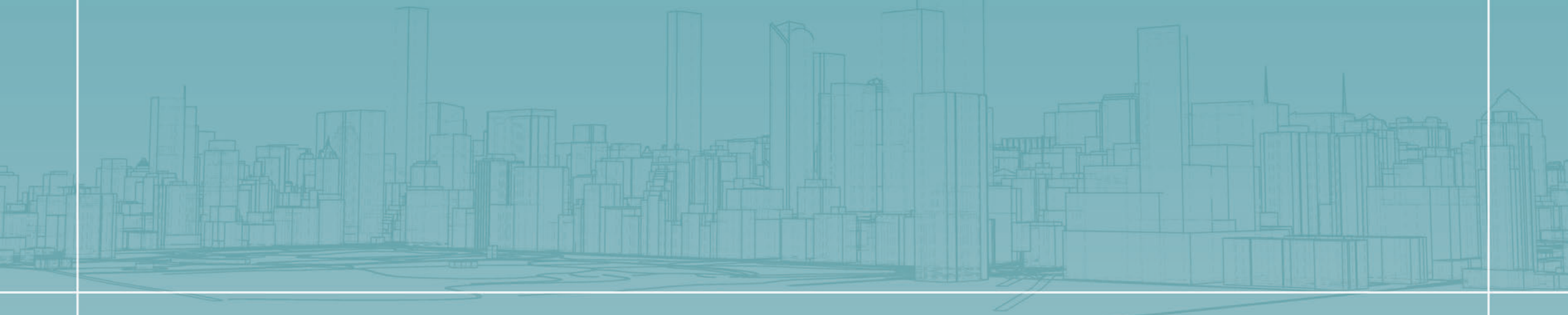


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마을 변천

I

01 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02 근대 변혁기 영통리 해주 오씨가 사람들의 세 가지 길
03 택지개발 전후 영통리 주민들의 생활 변화
04 격변의 세월을 거친 영통동경로당의 두 친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수원시 동남부에 건설된 계획도시

1) 3개의 법정동과 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된 시가지

영통동(靈通洞)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마을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사용해온 마을의 법정동 이름이기도 하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대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수원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영통처럼 오래전부터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지역은 그 곳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통이라는 마을의 공간 범위가 다소 넓다. 그러나 택지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지역이 확장하면서 영통동에는 3개의 행정동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의 개념에서 영통동을 알아보았다.

수원시의 동남부에 자리한 영통동은 수원의 주변부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용인시 기흥구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도시 주변부는 비도시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면서 인접 도시와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통동과 용인시 기흥구에는 일부 산지를 제외하면 비도시적 경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시가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연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두 도시의 실질적인 행정경계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영통동에 있는 청명산이 있어서 그나마 두 도시의 경계가 뚜렷한 곳도 있다.



① 신동 ② 매탄동 ③ 원천동 ④ 영덕동
⑤ 곡반정동 ⑥ 망포동 ⑦ 서천동 ⑧ 하갈동

수원시 동남부에 자리한 영통동과 그 주변 지역

경계를 형성하는 행정구역은 영통동의 북쪽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동쪽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과 하갈동, 남쪽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등이다. 용인시와 마주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수원시 영통구의 원천동, 매탄동, 신동, 망포등 등과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영통동은 화성시에 대규모로 개발된 동탄신도시와 매우 가깝다. 영통동은 수원시에서의 위치만 고려하면 주변부적 성격을 가지는 시가지이지만, 인접한 지역에 자리한 시가지나 신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수원의 동남부에서 수원과 인접 도시를 연계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수원 동남부의 도시화를 선도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영통동의 행정동은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으로 구성되며, 이 중 영통2동은 법정동 신동과 망포동의 일부 구역을 포함한다. 가장 북쪽에 설치된 영통1동은 청명로 이북에서 국도42호선이 통과하는 중부대로에 이르는 구역이며, 청명산·달님어린이공원·영흥숲공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이 공존하는 주거지역의 성격이 강하다. 가장 남쪽에 설치된 영통2동은 법정동 신동을 포함하므로 그 경계가 원천리천까지 이어진다. 영통2동의 망포역 동북쪽은 주거지역의 성격을 보이지만 일부 구역은 중대형의 제조업체·주택·상가 등이 혼재하는 곳이다. 영통3동은 영통1동과 영통2동의 경계를 조정을 통해 신설되었기에, 영통1동과 영통2동의 중간지대에 자리한다. 영통3동은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영통구보건소 등을 비

법정동



행정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곳이며, 수인분당선의 영통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과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직녀광장과 구름광장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행정동별 면적은 영통1동 1.69㎢, 영통2동 1.36㎢, 영통3동 1.72㎢로, 인접한 매탄동이나 망포동에 설치된 행정동에 비해 넓은 편이다.

2) 택지개발로 수원시에 편입된 마을

영통동은 택지개발 이전까지 수원의 영역이 아니라 화성과 용인의 영역에 속했지만, 1994년부터 실시된 택지개발과 함께 수원시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영통동은 본래 수원에 속했다가 화성으로 변경된 후 다시 수원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더불어 본래의 소속으로 복귀한 셈이다.[1] 여기에서는 영통동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표 1> 영통1~3동(행정동)에 편제된 법정동의 행정구역 변천

시기	영통동		신동	망포동
1895년	수원군 장주면 영통리	용인군 지내면 영통/덕동	수원군 장주면 신촌	수원군 태촌면 망포리
1914년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	용인군 기흥면 영덕리	수원군 태장면 신리	수원군 태장면 망포리
1949년	화성군 태장면 영통리		화성군 태장면 신리	화성군 태장면 망포리
1963년	화성군 태안면 영통리		화성군 태안면 신리	화성군 태안면 망포리
1985년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화성군 태안읍 신리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
1994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수원시 팔달구 신리	수원시 팔달구 망포리
1995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수원시 팔달구 신동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2003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수원시 영통구 신동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영통동은 본래 수원군 장주면(章州面) 영통리(靈通里)에 속했으나,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수원군 태장면(台章面) 영통리 소속이 되었다. 태장면은 당시 수원군에 속했던 태촌면(台村面)과 장주면, 그리고 남부면 일부가 통합된 행정구역이다.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시로 승격하지 않은 수원군의 나머지 지역이 화성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통은 화성군 태장면 영통리가 되었다. 1963년 화성군 태장면과 안룡면(安龍面)이 병합되면서 화성군 태안면 영통리가 되었고, 1985년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가 되었다.

용인시 영덕동의 전신인 영덕리는 본래 용인군 지내면(枝內面) 영통(靈通)과 덕동(德洞)으로 나뉘어 있다가, 1914년 기흥면 영덕리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5년 기흥읍 소속이 되었고, 1994년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구역이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영통이라는 지명은 지금의 영통동뿐만 아니라 청명산 주변을 아우르는 명칭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1994년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될 당시 화성군 태안읍에 속했던 신리와 망포리, 그리고 용인군 기흥읍에 속했던 영덕6리(지금의 수인분당선 청명역의 북쪽에 자리한 황골마을 및 청명마을)도 개발지구에 포함되었다.[2] 신동은 본래 수원군 장주면 신촌(莘村)이었다가 1914년 수원군 태장면 신리가 되었고, 망포리는 수원군 태촌면 망포리(網浦里)에서 1914년 수원군 태장면 망포리가 되었다. 신리와 망포리는 1949년 화성군 태장면 소속으로 변경된 후 1963년 화성군 태안면 소속이 되었다. 이후 화성군 태안읍을 거쳐 1994년 수원시 팔달구로 이관되었다. 면적이 넓었던 영통동은 1994년 수원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법정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신리와 망포리는 이듬해인 1995년 4월 20일 법정동으로 지정되었다. 2003년 6월 9일 법정동 신동 일부가 법정동 영통동에 편입되었으며, 2009년 2월 16일 신동 일부가 매탄동으로 편입되었고 망포동 일부는 신동에 편입되었다.

택지개발이 진행될 당시 개발의 단위지구는 행정구역상 리를 경계로 설정되었으며, 수원 시가지와 접해 있는 동시에 개발 가능지가 많았던 수원시·용인군·화성군 등 3개 시·군의 경계가 맞닿은 곳이 사업 대상지로 획정되었다. 3개 시·군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수원시가 택지개발의 중심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수원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모두 수원시로 편입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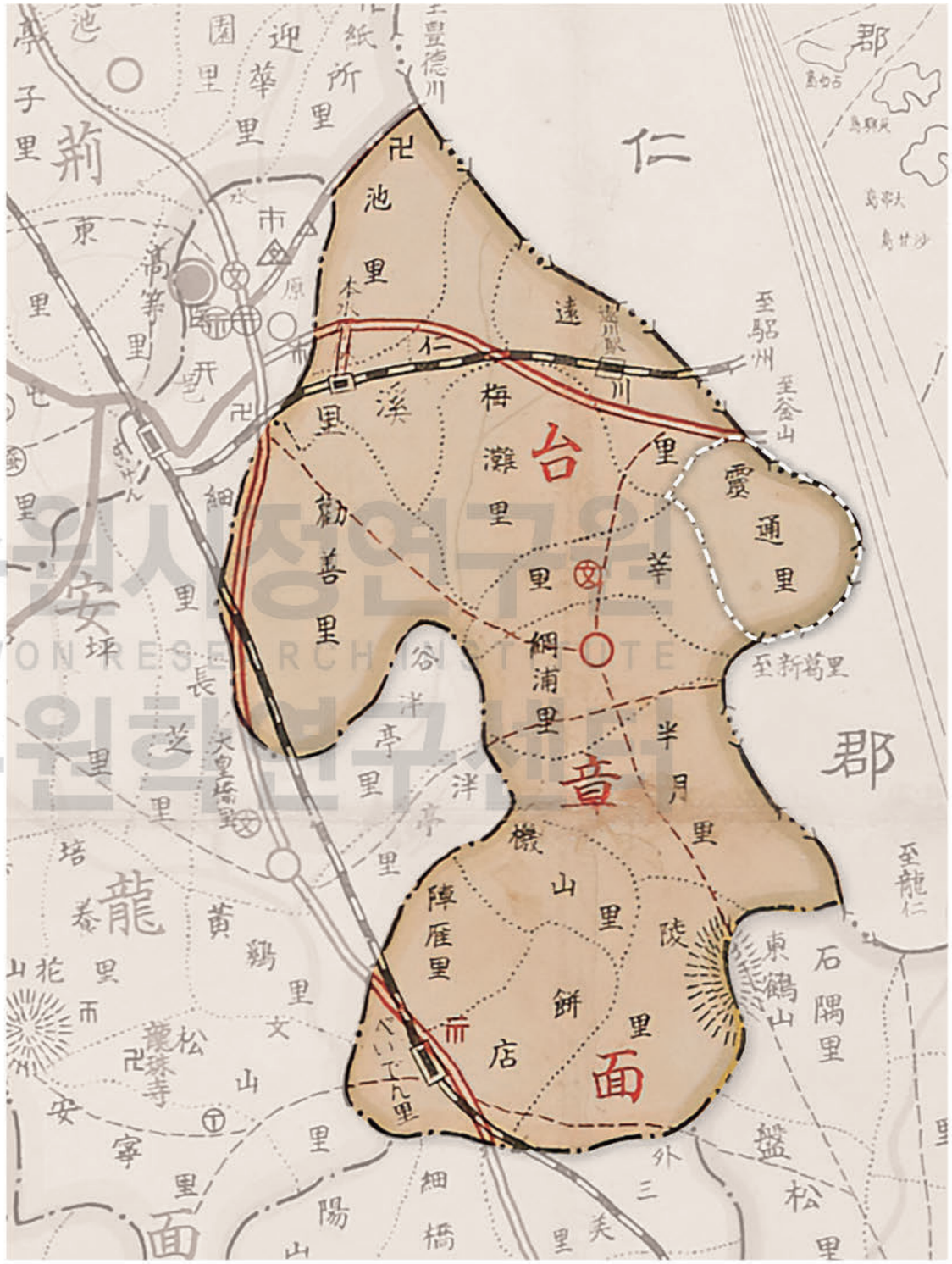
영통동, 신리, 망포리 일부의 행정업무는 1994년 원천동에서 담당했지만, 법정동 신동과 망포동이 신설된 1995년 4월 이후에는 매탄3동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 1998년 3월 6일 영통동에 접한 매탄동 일부와 원천동 일부가 영통동에 편입되었다. 1998년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 10월 1일 행정동 원천동이 원천동과 영통동으로 나뉘면서 행정동 영통동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은 2000년 6월 26일 영통1동과 영통2동으로 분동되었다. 2017년 12월 26일에는 행정동 태장동이 관할했던 법정동 신동 전 지역과 망포동 일부 구역이 영통2동에 편입되었으며, 영통1동과 영통2동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고 영통3동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통동에는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에 이르는 3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었으며, 이들 행정동은 법정동 영통동 전 지역과 신동 전 지역, 그리고 망포동의 일

SW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부읍지」에 나타난 태종면과 장주면(장죽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1914년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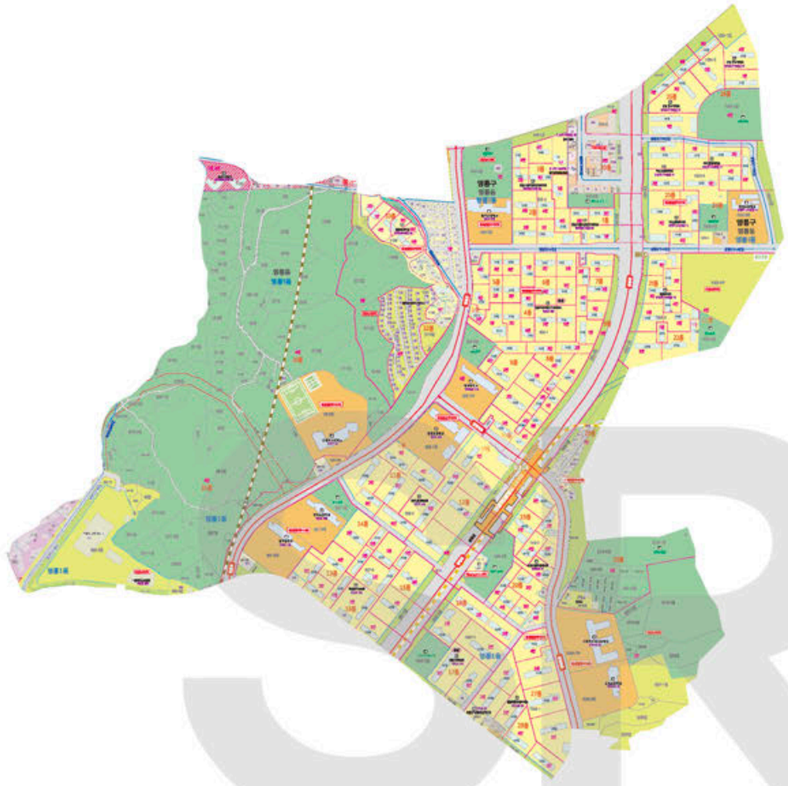
『해동여지도』 용인현 지도에 나타난 지내면(국립중앙도서관 제공)



1914년 용인군 기흥면 영덕리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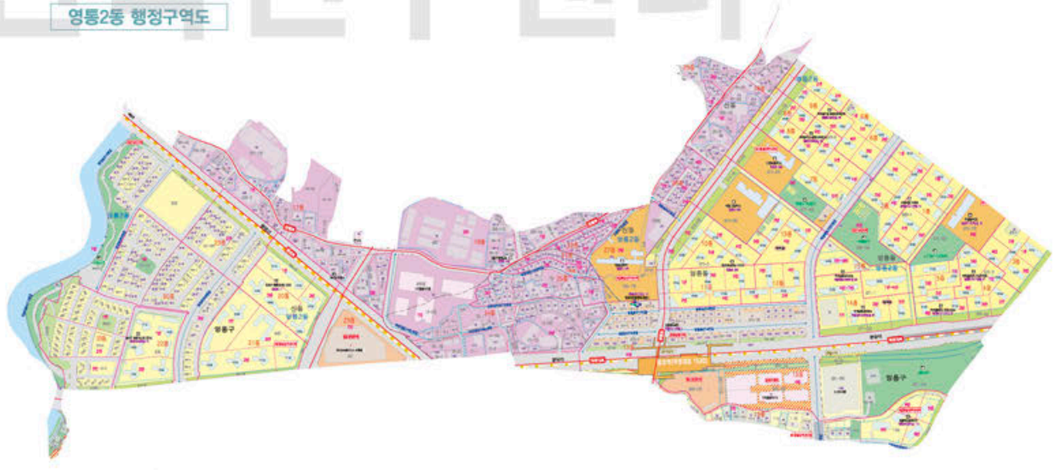
영통1동 행정구역도



영통3동 행정구역도



영통2동 행정구역도



부 구역을 관할한다. 법정동 망포동 가운데 영통2동의 관할구역은 망포역삼거리의 북동쪽에 자리하며, 도로 기준으로는 덕영대로의 북쪽이다. 망포동의 나머지 구역은 망포1동과 망포2동에서 관할한다. 영통동의 행정 경계는 용인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관계로, 2007년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두 도시 사이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지금의 도시 간 행정 경계가 획정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8월 13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부가 영통동에 편입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낮은 산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졌던 마을

1) 청명산 주변의 터전

'영통'은 오래전부터 청명산의 서사면에 있던 자연마을을 대표하는 이름이었다. 일찍이 영통리에는 큰말(大村), 뒷골(後谷)로 불리던 자연마을이 형성되었고, 영통리 남쪽으로는 신리(莘里)와 망포리(網浦里)가 있었다. '영통'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 번째는 청명산 산봉우리(嶺)의 중심부(몸통)에 자리한 마을이라 '영통리'로 불렸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산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이 일대의 지형이 염통과 같은 모양이라는 데에서 영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靈)과 통(通)하는 곳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영통리는 과거에 산지촌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1920년대에는 산간벽지로 인식되기도 했다. 1973년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영통리의 산지에서 수종 개량, 산림 조성, 산림녹화를 통한 농촌 연료림 확보 등의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영통리는 산지와 농경지가 주요 구성 요소인 농촌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던 마을이다.

영통동은 택지개발 이전까지만 해도 도시화의 물결이 거의 침투하지 않고 농경 활동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농촌지역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해발고도 200m 이내의 구릉성 산지를 비롯해 산지 사이를 흐르는 소하천, 소하천 주변과 계곡 사이에 펼쳐진 농경지와 자연마을, 멀리 원천리천 일대의 넓은 농경지와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의 마을이 있었다. 동쪽에는 청명산(191.9m)이 있으며, 이 산에서 남북 방향으로 뻗어 용인시의 아람산(143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용인시 기흥구와 경계를 형성한다. 영통동의 동쪽을 감싸는 듯한 청명산은 광교산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세가 구조선에 의해 단절된 형태이며, 완만한 기복은 해발 100m 내외의 구릉지로 발전해 산 곳곳에는 경사가 완만한 산록면이 발달하였다.[3] 그러나 청명산의 서쪽 사면은 택지개발과 더불어 원래의 모습을 상실해서 과거의 지형적 특징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청명산의 해발고도가 그리 높지 않아 구릉성 산지의 사이에 농경지가 형성되었다. 이 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로 인해 영통동은 중앙부에 해당하는 청명산 정상의 서쪽에 자리한 영통사 앞쪽(이곳에는 택지개발 이전에 자연마을 큰말이 있었음)의 고도가 높고, 영통동의 북쪽 경계 및 남쪽 경계로 향할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지형적 특징을 가진다. 영통동의 주요 지점별 해발고도는 북쪽의 영덕고가차도 근처가 약 60m, 청명역사거리와 영통사 일대가 약 70m, 망포역 일대가 약 30m이다.

택지개발 이전의 마을은 산지 사이에 조성된 산비탈의 밭과 평지의 논을 배경으로 사람



1950년대 영통동 일대 지형



청명산에서 바라본 영통리 전경(1993년)

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주변의 임야가 조화를 이루던 전형적인 농촌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청명산과 중앙의 산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경사도가 15% 이하인 저평한 구릉성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4] 전체적으로는 남쪽으로 향할수록 해발고도가 미세하게 낮아지는 북고남저의 형태이므로 사람들의 생활에는 장애 요소가 많지 않았다. 완만한 경사를 갖춘 지형적 특징과 수원의 기성시가지에 인접한 미개발지였다는 점은 택지개발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영통동에 있는 산지는 대부분 해발고도가 낮아서 험준하지 않은 저산성 산지이다. 특히 봉영로 서쪽에 자리한 산은 야산의 성격을 보이며 산줄기가 뚜렷하게 연결되지 않은 잔구성 산지의 특징도 가진다. 이러한 산지는 산사면이 평지와 만나는 지점에 가옥을 입지시킬 수 있고 마을 앞쪽으로는 넓은 농경지가 바라다보이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므로 과거 영통동의 농경지는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집 앞에 펼쳐진 문전옥답의 성격도 가졌다.

청명산은 산 정상에서 사방으로 30리가 훤히 보일 정도로 사방이 확 트여 있다는 데에서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주변에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가 없고 대체로 고도가 낮은 야산이나 평평한 농경지가 분포했기 때문에 이 산의 정상에서 주변지역을 조망하기가 유리하였다. 청명산 이름의 또 다른 유래는 옛날에 군인들이 천명(天命)을 이어 가는 유명한 산이라는 데에서 천명산(天命山)으로 불리다가, 이후 시간이 흘러 지금과 같은 청명산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청명산은 예로부터 기우제를 지내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수원 지방에 가뭄이 들면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냈으며,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꼭 비가 내렸다고 한다. 산의 봉우리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전해지는 보물이 있었다고 한다. 이 보물이 영(靈)과 통(通)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청명산 주변 마을을 영통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5] 1900년대 초반, 영통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 청명산의 서쪽에 자리했던 큰말(大村)이었던 점도, 영통리의 지명유래가 청명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영통동의 산은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곳이다. 청명산은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 코스로 이용되며, 도시숲생태공원과 청명공원 등의 휴식처를 가지고 있다. 청명산의 서쪽에는 독침산(109m, 독지미산으로도 불림)을 중심

산사면에 형성된 영통리 농경지(1993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으로 조성된 영통독침산둘레길을 비롯해 독침산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영통중앙공원과 북쪽의 영흥숲공원 등이 주민들의 등산 및 휴식 코스로 기능하면서 도심 속 활력 충전소로 활용되고 있다. 영통동의 시가지 곳곳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지와 공원을 활용한 녹지공간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청명산을 비롯한 이 일대의 산지에는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2) 큰 하천이 통과하지 않는 마을

영통동은 수원의 4대 하천 가운데 하나인 원천리천을 경계로 권선동과 마주하지만, 영통동에 포함되는 원천리천의 구간은 백년교에서 곡반정교까지 약 700m에 불과하다. 이곳은 법정동 신동에 속한다. 광교산에서 발원한 원천리천은 원천저수지를 지나 영통구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흐르며, 수원비행장 남단의 대황교동에서 황구지천에 합류한다. 원천리천의 양옆으로는 오래전부터 넓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벌터(坪村)라 불리던 자연마을도 있었지만, 수원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농경지는 대부분 시가지 또는 공업단지로 바뀌었다. 넓은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벌터는 일제강점기에 농사를 짓기 좋은 평평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동뿐만 아니라 원천리천 서쪽의 매탄동에 자리한 농경지까지가 벌터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했다.

원천리천의 동쪽 배후지에 자리한 신동도 2010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지역이 농경지였지만,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농경지가 지금과 같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하천변에 조성된 신동수변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산책 장소로도 이용된다. 2017년 원천리천의 물길을 그대로 살려 구불구불한 공원길로 조성된 신동수변공원(2만 4,000여㎡)은 자연 속에서 더위를 잊는 수원의 여름 명소 10선에 선정되었고 매년 여름 수국정원으로 꾸며지고,[6] 봄철에는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행정 경계를 이루는 원천리천을 제외하면 영통동을 흐르는 하천은 그 규모가 아주 작았으며, 택지개발 이후에는 대부분의 물길도 사라졌다. 영통동의 골짜기와 농경지 사이를 흐르던 소하천은 주민들의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통동에서는 수원의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선사시대는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거주 흔적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아,[7]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역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청명산에서 발원해 골짜기를 흐르던 하천은 망포동의 중앙에 자리한 농경지를 관통해



하천이 통과하지 않는 영통동(수원시 자연하천도)

신나무실(지금의 신동)을 지나 방죽머리 방향으로 흘렀지만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물길은 사라져 버렸다. 청명산에서 흐르는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되기도 했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르던 물은 좋은 우물을 만들어 주었다. 영통사에 있는 우물도 청명산에서 땅속으로 흐르는 물이고, 영통1동에서 영통2동으로 향하던 큰 고개를 찬우물고개라 부른 것도 청명산에서 내려오는 차고 좋은 물에서 유래하였다.

공동주택단지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황골, 신나무실, 살구골 등은 과거에 있었던 자연마을의 명칭이다. 이들 마을은 구릉지 또는 산사면의 끝자락에 자리했었기에, 마을을 통과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청명산에서 발원한 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영통리(1993년)

는 하천이 없었다. 인간 거주에 물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인데,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영통동에서 일찍부터 다수의 자연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영통동은 산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은 물론,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가 잘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통동에는 독침산 북쪽의 여우우물, 독침산 북쪽 논 가운데의 옻우물, 영통초등학교 근처의 오리우물, 청명산 서쪽의 중의우물 등 여러 개의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통동에 물이 풍부했음은 1950년대 수원 남쪽 태안평야의 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신나무실 5단지 아파트의 서쪽에 방죽이 축조되었던 점, 그리고 좋은 샘이 있다는 데에서 마을 이름을 샘말로 불렀던 점 등으로도 알 수 있다.

3) 신시가지 개발로 일부만 전해지는 옛 지명

영통동은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옛 모습을 대부분 잃어버렸지만, 지금의 시가지는 과거 농경지와 자연마을이 있었고 사람들의 생활터전으로 기능했던 곳이었다. 특히 산지 사이의 완사면과 평지에 조성된 농경지를 기반으로 농경활동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영통동에 속하게 된 마을(1971년)
영덕리 황곡, 영통리 큰말·뒷골·신영동·느티나무, 신리 신나무실·샘말이 현 영통동에 해당한다.

집단적인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이는 유서 깊은 자연마을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통동에는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다. 1925년 기준 영통리와 신리에는 각각 75가구, 망포리 전 지역에는 79가구가 거주했고, 당시 태장면에 거주하던 인구가 1,329호에 7,792명이었다.[8] 따라서 1호당 평균 가구원수는 약 6명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당시의 인구 규모를 추정하면, 영통리와 신리의 인구는 대략 450명 내외였을 것이다. 이후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택지개발 이전인 1990년 말 기준 영통동에 거주하던 주민은 약 2,000명이었다.[9] 인구 증가는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 이외에 새로운 마을이 영통동에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택지개발 이전 영통동에 존재했던 자연마을에는 황골, 양지말, 뒷골, 큰말, 느티나무골, 신나무실, 새터말, 샘말(천죽, 天竹) 등이 있었다.[10] 여러 곳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은 시가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지 개발로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새롭게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도시 내 시설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황골마을, 청명마을, 살구골마을, 신나무실, 벽적골이 영통동에 있던 자연 지명이다. 봉영로를 가로지르는 황골육교, 청명육교, 느티나무골육교, 신나무실육교를 비롯해, 황골공원, 벽절골공원, 살구골공원 등의 이름도 옛 지명을 계승한 것이다. 주요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11]

황골

청명산의 북서쪽에 있던 마을로, 황곡(凰谷 또는 黃谷) 또는 황동(凰洞)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마을 이름은 큰 봉황이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데에서 생겨났다. 이 마을이 있던 곳은 영통동에서 가장 북쪽에 해당하며, 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용인에 속하였다. 지금은 수인분당선 청명역 북쪽의 주공아파트, 벽산아파트, 쌍용아파트 등이 자리하고 있다. 관련 지명으로는 황곡초등학교, 황골공원, 황골육교 등이 있다.

청명골

청명산의 서사면에 있던 골짜기이다. 수인분당선의 청명역 남쪽에 벽산삼익아파트, 주공아파트, 건영아파트, 삼성아파트 등이 자리하고 있다. 관련 지명으로는 청명초등학교,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 청명역, 청명육교 등이 있다.

큰말

영통사 아래쪽에 있던 마을이며, 한자로는 대촌(大村)이라 표기하기도 했다. 영통동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형성되었던 아주 오래된 마을이었다. '큰말'이라는 이름은 영통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큰말이 있던 자리에는 수원가정법원을 비롯한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살구골

경희대학교 캠퍼스의 서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이 일대는 현재 평평한 땅처럼 조성되어 있지만, 신시가지 개발 이전에는 낮은 경사를 가진 산사면이 있었고 그곳에 살구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데에서 이름이 생겨났다. 지금은 살구골 동아아파트, 살구골 현대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으며, 살구골공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신나무실

독침산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의 남서쪽에 있던 마을로, 개나리가 많다는 데에서 개나리 신(莘)자를 쓴 신나무실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법정동 신동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과거에는 장죽 또는 신촌(莘村)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1980년대에는 개나리가 신나무실의 동네 나무로 지정되기도 했다. 신나무실에는 동산말·양지말·샘말·아랫말 등의 이름을 가진 자연마을이 있었고, 마을마다 15호 내외가 거주했다고 한다. 지금은 신나무실 5단지와 6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영통동에 남아 있는 옛 마을 지명

봉영로를 건너는 신나무실육교에도 이름이 남아 있다. 신나무실에는 탐진 최씨(耽津 崔氏) 부호군파(副護軍派)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성촌이 있었다.[12] 1950년대에 간행된 『경기도지(京畿道誌)』에 따르면, 당시 신리에는 30호가량의 탐진 최씨가 살았고 마을의 역사는 약 500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택지개발 이전인 1994년까지 탐진 최씨 집성촌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13]

벽적골

신나무실의 남쪽에 있었던 골짜기로, 여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 가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데에서 이름이 생겨났다. 다른 유래로는 여주에 있는 신륵사에 사용할 기와를 이곳에서 구웠다는 설도 있다. 실제 벽적골에서는 기와 조각이 다량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지금은 벽적골 8단지와 9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중앙에는 벽적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느티나무골

큰말의 남쪽에 있던 마을로 느티마을 또는 앞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300년 이상의 수령을 지닌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이라는 데에서 이름이 생겨났다. 봉영로를 건너는 느티나무골육교에 이름이 남아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동에는 사람들의 거주 역사가 수백 년 이상 되었음을 알려 주는 보호수가 2곳에 있다. 대부분의 보호수는 마을 주변에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해 온 마을 공동의 나무로 기능하며 마을의 상징이기도 하다. 영통동의 보호수는 모두 느티나무이고 1982년 10월 15일 수원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영통사 남쪽(청명로 100) 단오어린이공원 내부에 있는 느티나무(경기-수원-11호)는 나무의 나이는 500년이 넘는다. 그리고 청명중학교 서쪽(청명북로 118)에 있는 느티나무(경기-수원-18호)는 높이가 21m에 420년 이상 자란 보호수이다. 청명중학교 옆의 보호수 느티나무는 택지개발 계획에서 나무가 있던 자리에 도로가 통과하도록 구상되었지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를 분리하여 개설함으로써 도로의 중앙에 남아 있다.

단오어린이공원에 있는 느티나무는 본래 높이가 23m에 달했지만, 2018년 6월 비바람으로 훼손되어 지금은 후계목을 생장시키고 있다. 택지개발 계획에는 나무가 위치한 곳이 도로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해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옷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영통청명단오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영통청명단오제의 명맥은 택지개발로 원주민들이 떠난 자리에 외지인이 유입되면서 기존 마을 공동체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이 2005년부터 단오어린이공원의 느티나무에서 당산제를 지내면서 유지되고 있다.[14]



청명중학교 서쪽에 있는
느티나무(이용창 제공)

3. 택지개발을 통한 계획적 시가지 개발

1)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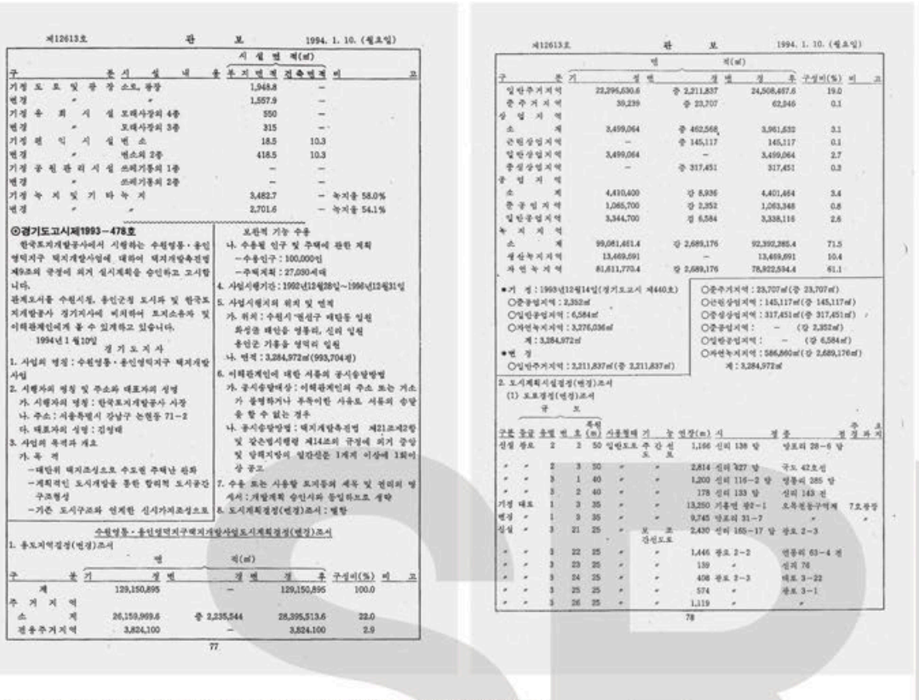
수원시에서는 1967년 도시계획을 결정한 이후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년 12월 서울-신갈 간 개통), 경기도청 이전(1967년 6월), 공업화 등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6월 재정비계획(건설부고시 제336호)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당시 화성군 태안면에 속했던 영통리가 수원시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다.[15] 1993년 12월 28일에는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3-478호)이 공식적으로 고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대 초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시기에 영통동의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영통지구 개발은 인접한 용인 영덕지구와 함께 실시됨으로써 대단위의 택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영통지구 서울대도시권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서울로 집중하는 인구를 서울 주변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에 의해 개발되었고, 또한 서수원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수원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 동수원 개발사업과 연계됨으로써 수원의 도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원의 중추적 기능을 분담하도록 구상되었다.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 영덕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최초 지정된 시기는 1989년 10월이다. 개발 예정지 면적은 1989년 10월 27일 지정된 영통지구가 256만 7,000㎡이었고 이에 앞서 1989년 10월 14일 지정된 용인 영덕지구는 62만 7,000㎡로, 모두 319만 4,000㎡이었다. 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은 1992년 12월 28일 328만 4,972㎡로 변경되었다. 당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공동주택(109만 4,912㎡)과 단독주택(11만 3,349㎡)을 합쳐 120만 8,261㎡에 달했으며, 수용인구는 세대당 평균 인원을 3.7명으로 계산하여 모두 2만 7,030호에 10만 명이었다.[16]

1980년대 말 수원의 도시공간은 지금과 같은 다핵이 아닌 단핵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원은 수원화성에서부터 시가지가 발달해 수원역에 이르는 구간을 중심으로 도시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제12613호 관 보 1994. 1. 10. (월요일)

시 설 별 적(㎡)

구 분	시 설 내 용	지 번 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도 로 및 광 장 소, 광장		1,946.8	–	
변경 〃 〃		1,557.9	–	
기정 유 희 시 설	모래사장외 4종	950	–	
변경 〃	모래사장외 3종	315	–	
기정 편 익 시 설	변 소	18.5	10.3	
변경 〃	변소외 2종	418.5	10.3	
기정 공 원 관 리 시 설	쓰레기통외 1종	–	–	
변경 〃	쓰레기통외 2종	–	–	
기정 녹 지 및 기 타 녹 지		3,482.7	–	녹지율 58.0%
변경 〃 〃		2,701.6	–	녹지율 54.1%

◎경기도고시제1993－478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용인군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여 도시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용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1994년 1 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 :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다. 대표자의 성명 : 김정래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대량의 택지조성으로 주도된 주택난 완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합리적 도시공간 구조형성
   －기존 도시구조와 연계한 신시가지조성으로 도시기능의 확장
   나. 개 요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인구 : 100,000인
   －주택계획 : 27,000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92년12월28일～1998년12월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원
   화성읍 태안읍 영통리, 신의 일원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원
   나. 면적 : 3,284,972㎡(993,704평)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용의 공시송달방법
   가. 공시송달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확거나 주특이한 사유로 사용의 승낙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증앙 및 당력지방의 일간신문 1회의 이상에 1회이상 공고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 : 개발계획 승인시와 동일하므로 생략
8.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 별첨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계	129,150,895		–	129,150,895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26,159,969.6	증	2,235,544	28,395,513.6	22.0	
전용주거지역	3,824,100		–	3,824,100	2.9	

77

제12613호 관 보 1994. 1. 10. (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일반주거지역	22,295,630.6	증	2,211,837	24,508,467.6	19.0	
준주거지역	39,239	증	23,707	62,946	0.1	
상 업 지 역						
소 계	3,499,064	증	462,568	3,961,632	3.1	
근린상업지역	–	증	145,117	145,117	0.1	
일반상업지역	3,499,064		–	3,499,064	2.7	
중심상업지역	–	증	317,451	317,451	0.3	
공 업 지 역						
소 계	4,410,400	감	8,936	4,401,464	3.4	
준 공 업 지 역	1,065,700	감	2,352	1,063,348	0.8	
일반공업지역	3,344,700	감	6,584	3,338,116	2.6	
녹 지 지 역						
소 계	99,081,461.4	감	2,689,176	92,392,285.4	71.5	
생산녹지지역	13,469,591		–	13,469,591	10.4	
자연녹지지역	81,611,770.4	감	2,689,176	78,922,594.4	61.1	

■기 정 : 1993년12월14일(경기도고시 제440호)
○준공업지역 : 2,352㎡
○일반공업지역 : 6,584㎡
○자연녹지지역 : 3,276,036㎡
계 : 3,284,972㎡

■변 경
○일반주거지역 : 2,211,837㎡(증 2,211,837㎡)
○준주거지역 : 23,707㎡(증 23,707㎡)
○근린상업지역 : 145,117㎡(증 145,117㎡)
○중심상업지역 : 317,451㎡(증 317,451㎡)
○준공업지역 : －　(감 2,352㎡)
○일반공업지역 : －　(감 6,584㎡)
○자연녹지지역 : 586,860㎡(감 2,689,176㎡)
계 : 3,284,972㎡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종별	류별	번호	폭원(m)	시점	종점	연장(m)	시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신설	광로	2	3	5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1,166	신의 138	번	영프리 28－6	번	
〃	〃	2	3	50	〃	〃	2,814	신의 327	번	국도 42호선		
〃	〃	3	1	40	〃	〃	1,200	신의 116－2	번	영통리 285	번	
〃	〃	3	2	40	〃	〃	178	신의 133	번	신의 143	전	
기정	대로	1	3	35	〃	〃	13,250	기흥역 광2－1		오목천동구역계		7.도청경
변경	〃	1	3	35	〃	〃	9,745	영프리 31－7		〃		〃
신설	〃	3	21	25	보조간선도로	〃	2,430	신의 165－17	번	광로 2－3		
〃	〃	3	22	25	〃	〃	1,446	광로 2－2		영통리 63－4	전	
〃	〃	3	23	25	〃	〃	139	〃		신의 76		
〃	〃	3	24	25	〃	〃	406	광로 2－3		대로 3－22		
〃	〃	3	25	25	〃	〃	574	〃		광로 3－1		
〃	〃	3	26	25	〃	〃	1,119	〃		〃		

78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결정조서(경기도고시 1993-478호)

기능이 확장되었지만, 시가지를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 및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인하여 시가지의 외연적 확장이 쉽지 않았으며 도시 중심부의 흡인력도 강력하게 발휘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시가지를 둘러싼 개발제한구역, 공군 비행장 등은 수원의 도시개발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수원시의 도시기능 확대에 따른 시가지의 외연적 확장에 장애물이었던 셈이다.

이에 반해 수원은 수도권에서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으며, 서울에서 분산된 일부 기능과 경기도의 주요 행정기능을 수용함으로써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원역에서 수원화성의 팔달문에 이르는 구간이 수원의 중심지로 기능했다면, 1990년대에는 수원역의 동쪽에 새로운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수원의 도시공간이 다핵화의 길에 진입하게 되었다. 수원의 시가지는 지금의 수원시청이 자리한 인계동을 중심으로 권선동 및 매탄동 일대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수원 시가지의 확장이 동쪽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개발된 마지



영통·영덕 신시가지 조성사업 조감도와 사업개요(수원박물관 제공)

막 구역이 바로 영통지구라 할 수 있다. 영통지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원의 동쪽에서 도시화 수준이 낮은 미개발 상태의 농촌적 성격이 강했고 일부 구역에 소규모의 제조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었던 만큼, 시가지 확장을 위한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수원에서는 주택부족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수원의 주택보급률은 1980년 56.4%에서 1990년 57.8%로 증가하는 데 그쳤을 정도로,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수원의 인구 규모는 31만 757명에서 64만 4,968명으로 증가했고, 세대당 인구는 5.6명에서 3.8명으로 줄었다. 수원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회적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원에서의 주택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다. 한정된 토지자원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필수적이었다. 영통지구에 최초 계획된 2만 7,000여 호가 수원의 주택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주택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었다.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영통지구 개발사업 공사현장(1995년, 수원박물관 제공)



영통지구 개발사업 공사현장(1995년, 수원박물관 제공)

ORI 수원학연구센터

2) 농촌적 토지이용을 대체한 도시적 토지이용

택지개발은 주택공급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도시문제의 발생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영통동과 함께 1994년 수원시에 편입된 망포동과 신동은 영통지구에 맞닿아 있음에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됨에 따른 스프롤(sprawl) 현상을 노출하게 되었고, 이는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 등의 도시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 신동과 망포동에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수원시 인구 증가 및 도시 성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통동에 인접한 망포동과 신동에서도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영통동에 접한 지역에서도 영통 또는 신영통이라는 장소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영통동은 택지개발을 통해 주거단지를 비롯한 도시적 시설물이 들어서고 도로망 역시 기존 수원의 도로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영통동의 변화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도로 및 건축물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도시경관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지목 구성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이다. 여기에서는 법정동 영통동과 신동을 대상으로 지목 구성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일부 구역만 영통동에 포함되는 망포동은 제외하였다.

지목이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의 지목 구성을 통해 도시적 요소 또는 농촌적 요소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목별 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은 한 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택지개발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1994년은 물론 시가지 개발이 마무리되기 이전인 1997년만 해도 영통동과 신동의 지목 구성은 농촌적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신동에서는 제조업의 발달도 탁월하였다.

<표 2> 법정동 영통동과 신동의 지목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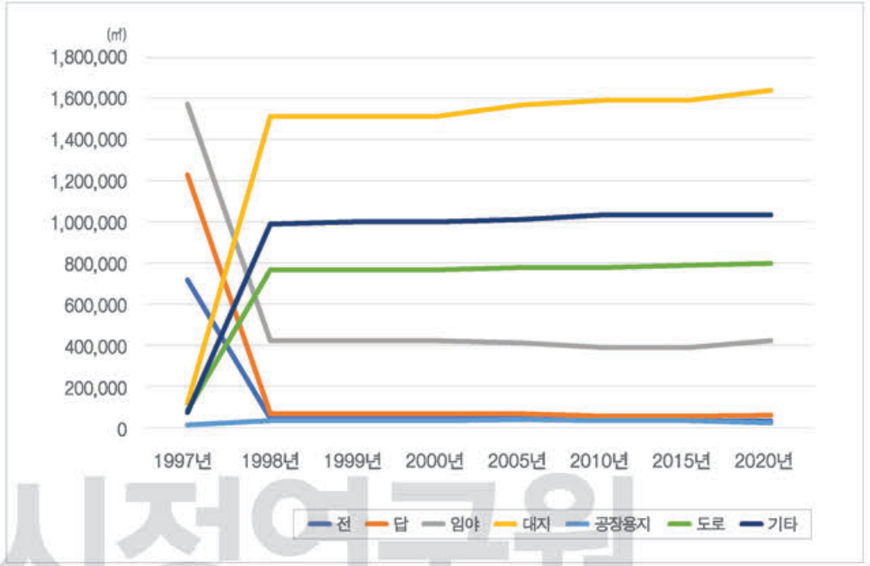
(단위 : ㎡)

시기	법정동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도로	기타
1997년	영통동	3,823,490	720,176	1,231,583	1,573,991	120,958	14,950	85,922	75,910
	신동	1,352,948	121,290	276,992	57,117	115,554	613,171	59,225	109,599
1998년	영통동	3,866,917	50,015	72,410	429,542	1,515,673	33,585	772,967	992,724
	신동	1,352,273	120,646	274,097	57,117	111,316	618,035	59,268	111,794
1999년	영통동	3,865,661	45,916	72,410	424,902	1,516,707	33,585	773,123	999,017
	신동	1,224,732	104,086	172,625	56,754	110,168	626,596	57,841	96,662
2000년	영통동	3,865,600	45,296	72,410	422,316	1,519,825	33,585	773,150	999,017
	신동	1,225,972	89,000	146,717	56,053	107,537	640,102	89,411	97,152
2005년	영통동	3,938,268	48,283	68,511	414,977	1,569,838	40,646	781,476	1,014,536
	신동	1,154,099	54,334	134,212	37,776	91,712	659,728	84,945	91,392
2010년	영통동	3,938,272	38,367	62,339	395,200	1,588,182	33,985	782,821	1,037,377
	신동	563,575	43,153	142,004	17,271	95,293	116,308	71,847	77,699
2015년	영통동	3,938,270	38,367	62,339	391,442	1,593,598	33,985	787,109	1,031,430
	신동	563,387	2,340	3,259	2,728	233,932	99,176	114,720	107,232
2020년	영통동	4,024,550	34,190	62,288	424,102	1,641,859	26,551	800,880	1,034,680
	신동	607,663	1,680	3,199	2,721	254,373	102,085	128,004	115,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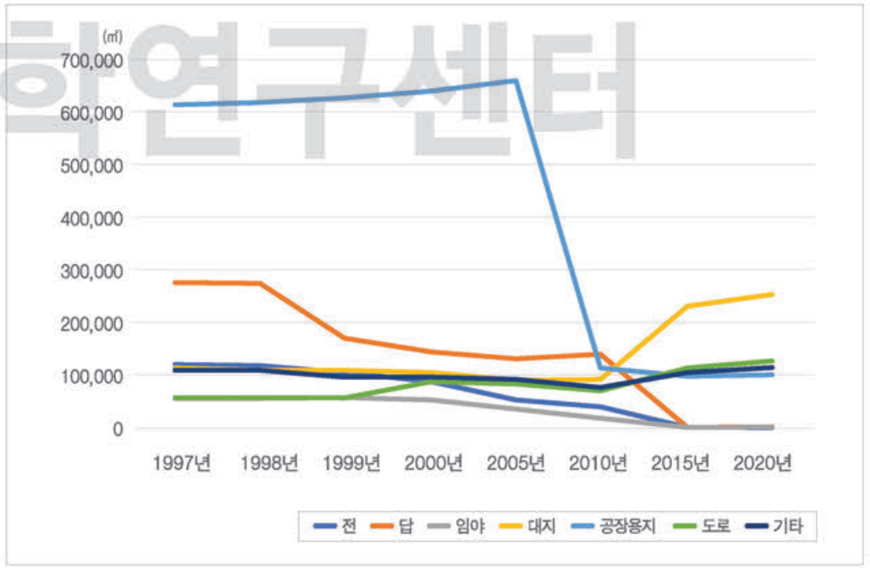
자료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택지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인 1997년 지목 구성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것은 전체 면적의 41.2%에 달하는 임야이고 그 뒤를 이어 답(32.2%), 전(18.8%)의 순이었다. 임야는 청명산을 비롯해 독침산과 그 주변에 넓게 분포했었다.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을 보여 주는 대지(3.2%)와 도로(2.2%)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았다. 본래의 영통동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1차 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곳이었으므로, 상주인구의 규모도 크지 않았고 주택이나 도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수밖에 없었다.

신동의 지목 구성은 1997년 기준 공장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5.3%로 가장 높았고 답(20.5%), 전(9.0%), 대지(8.5%) 등의 순이어서, 영통동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신동은 북쪽의 매탄동 및 권선동의 시가지와 접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도시화의 물결이 영통동에 비해 일찍 침투한 곳이다. 즉 신동은 영통택지개발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수원의 도시화가 외연적으로 확대되는 최전선에 자리했으며, 이는 신동이 농촌적 성격과 도시적 성격이 공존하는 지역이었음을 의미한다. 영통동은 신동보다 더 외곽에 자리하므로 도시화의 진



1990년대 후반 이후 영통동 지목 구성 변화



1990년대 후반 이후 신동 지목 구성 변화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새롭게 변화된 영통(2023년, 김승일 제공)





공장용지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신동(김승일 제공)

행이 미비한 농촌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영통동과 신동은 1997년까지만 해도 도시적 성격이 미약했지만 1998년 들어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택지개발지구의 서쪽에 자리한 해발고도 100m 내외의 일부 산지는 시가지로 개조되었고, 주변의 농경지는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도로 등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영통동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급감했고 전과답의 비중도 각각 1.3%와 1.9%로 줄었다. 반면 주택·사무실·상가 등의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의 비중은 39.2%로 상승했으며, 보행자나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로 급증하였다.

영통택지개발지구에 접해 있지만 개발이 느리게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동에서는 1999년 5월 준농림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통해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의 입지가 활발해지면서 공장용지의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신동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면서 2008년 디지털엠파이어2에 300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입주하기도 했다. 한편 신동의 면적은 2008년 115만 42㎡에서 2009년 55만 7,546㎡로 감소한 이유는 삼성전관(지금의 삼성SDI)과 삼성코닝 등의 공장부지가 신동에서 매탄동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며, 신동의 공장용지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신동에서는 2008년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신동지구 개발은 수원시 주변에 자리한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적용함으로써, 영통지구에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도시 수원의 발전축을 형성하고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신동은 일련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지의 면적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논으로 이용되었던 곳은 주거지, 상업시설, 직교형의 도로 등이 지배적인 장소로 변화하였다.

3) 양호한 주거여건을 갖춘 도시브랜드, 영통

영통동은 1994년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의 주거단지가 조성된 후,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의 중산층들이 이주해 오고 삼성전자 수원공장과 접한 시가지로 발전하면서 수원시의 고급 주택지역 또는 부자들의 마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영통동은 2000년대 들어 수원의 동남쪽에 자리한 신흥주거단지인 동시에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의 장소성을 지니게 되었고 시가지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영통동에 인접한 망포동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서도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영통이라는 브랜드는 행정구역이 영통동에 포함되지 않는 망포동 및 용인시의 공동주택단지 이름에 사용될 정도로 지명이 가지는 장소성의 공간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개발지를 가리키는 지명은 단순히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하면서 장소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따라서 영통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농경활동을 하며 거주하던 농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을 비롯해 교통망이 잘 구비되어 전체적인 생활환경이 양호한 신시가지로서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영통의 이미지는 수원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거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고착화하였다. 이로 인해 영통동에 인접한 지역에서도 영통이라는 장소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영통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기존 영통지구에 접한 주변지역이 신영통으로 불리기도 한다.

4) 주변지역으로 잘 연결된 교통여건

택지개발을 통해 신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영통동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여건도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영통동 중심상권(김승일 제공)

크게 개선되었다. 택지개발 이전에는 영통동 일대를 관통하는 도로망은 폭이 좁은 도로로 구성되었지만, 개발 이후에는 증가한 인구와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망이 확충되었고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여건도 크게 향상되었다. 도로망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중로와 소로가 직교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맨발공원 서쪽의 영통로 건너편에서부터 원천리천을 건너는 백년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영통로, 덕영대로, 권선로 등에 둘러싸인 구역은 계획적 요소의 개입이 두드러지지 않아 과거의 경관을 유지한 채 미로형의 도로로 남아 있다.[17]

영통동에서는 청명산이나 독침산과 같은 자연적 경관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개발됨에 따라 산줄기 사이를 따라 시가지가 조성되었고, 시가지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왕복 10~12차로의 대로인 봉영로(국도43호선)가 간선도로로 기능한다. 도로명으로만 보면 영통로가 영통동을 대표하는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영통동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는 봉영로이다. 봉영로가 영통로를 대표하는 간선도로인 이유는 수원시 도시계획과 일치하도록 도로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도43호선이 통과하는 도로의 이름이 봉영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영통동의 서쪽 경계에서 국도42호선(중부대로)과 교차하는 도로는 영통로이며, 영통로 파생된 영통로200번길은 영통동의 동남쪽에서 망포동 및 용인시와 경계를 이룬다. 영통동의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는 대부분 봉영로와 교차한다. 봉영로와 교차하는 도로에는 영통로541번길, 청명북로, 청명로, 반달로, 매영로, 청명로1517번길, 덕영대로 등이 있다.

<표 3> 영통동의 주요 도로 및 파생도로

주도로	파생도로
봉영로	봉영로1482번길, 봉영로1492번길, 봉영로1517번길, 봉영로1744번길, 봉영로1759번길, 봉영로1770번길
영통로	영통로200번길, 영통로213번길, 영통로214번길, 영통로 217번길, 영통로218번길, 영통로241번길, 영통로290번길, 영통로345번길, 영통로351번길, 영통로501번길, 영통로514번길, 영통로525번길
덕영대로	덕영대로1471번길, 덕영대로1483번길, 덕영대로1499번길, 덕영대로1556번길, 덕영대로1673번길, 덕영대로1681번길
매영로	매영로269번길, 매영로310번길, 매영로345번길, 매영로365번길, 매영로393번길, 매영로415번길, 매영로425번길
영일로	영일로6번길, 영일로21번길
반달로	반달로35번길
청명로	청명로21번길, 청명로43번길, 청명로59번길
청명남로	청명남로50번길
청명북로	청명북로7번길, 청명북로15번길



영통동의 주요 도로 및 파생도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동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봉영로(김승일 제공)



영통동과 매탄동의 경계를 이루는 영통로(김승일 제공)



영통동 북쪽의 동서로 놓여 있는 중부대로(김승일 제공)



영통동 남쪽의 동서로 놓여 있는 덕영대로(김승일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2년 11월 30일 수인분당선 개통일 청명역(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신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북쪽으로는 국도42호선이 동서 방향으로 통과했으며, 이 도로는 수원과 용인에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왕복 8차로로 확장되었다. 이 도로의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수원신갈IC가 설치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수원의 도심으로 연결된다. 영통동의 중앙을 관통하는 국도43호선은 영통동의 북쪽에서 국도42호선이 통과하는 영덕고가차도와 교차하면서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준다. 국도43호선은 남쪽의 망포동을 지나 화성시로 이어지고 주변지역으로 연결되는 일반지방도와 교차함으로써 남북 방향으로의 접근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통동의 북쪽으로는 용인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흥덕IC가 개통되어 있어서, 영통동에서 인접 지역은 물론 서울 등지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영통동의 교통여건에서 수인분당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수인분당선은 서울의 청량리역에서 수원역을 지나 인천의 인천역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노선으로 2020년 9월 12일 전 구간이 개통했지만, 영통동을 통과하는 기흥역-망포역 구간의 노선은 이미 2012년 12월 1일 분당선 구간으로 개통하였다. 망포역에서 수원역 구간의 노선은 2013년 11월 30일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로써 분당선 전구간이 개통되었다.[18] 일제강점기인 1937년 개통한 수인선 협궤열차가 사라지고 그 노선을 대체해 새롭게 부설된 수인선은 인천역에서 수원역까지의 노선이었다. 수원역까지 운행하던 기존의 분당선과 수인선 철도는 개별 노선으로 운행했지만 2020년 9월 12일 하나의 노선인 수인분당선으로 통합되었다.

수인분당선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수원에서 서울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 주고 수원 서부의 안산과 인천 등지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의 간선철도망으로 기능한다. 수인분당선은 영통동을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영통동에는 청명역, 영통역(경희대), 망포역 등의 지하철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동에서는 원천리천을 건너 매탄동에 설치된 매탄권선역까지의 거리도 가깝다. 영통동의 어느 곳에서든 이들 전철역까지 도보로 15분 내외의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노선버스를 이용한 교통은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수원 도심을 비롯해, 영통동에 인접한 화성시와 용인시 등지로 연결되고, 광역버스는 모두 서울로 향한다. 광역버스는 5개 노선이 봉영로를 따라 영통동을 관통하는데 그 가운데 4개 노선은 수원신갈IC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의 강변역, 신논현역, 서울역 등지로 운행하고, 1개 노선은 수원시 내를 경유해 사당역으로 향한다. 또 다른 2개 노선은 영통동 동남쪽의 덕영대로를 경유해 서울의 신논현역과 강남역으로 운행한다. 다만 영통로의 일부 구간(난방공사사거리-망포역사거리)은 노선버스가 전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도 하다.

화성시 동탄에서 안양시 인덕원으로 연결되는 복선 전철(동탄인덕원선)이 영통동을 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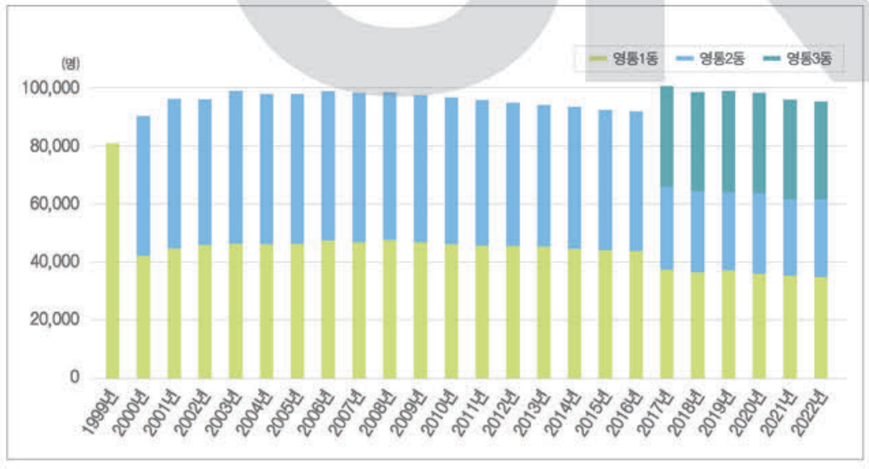
과하는 것도 영통동의 교통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 전철은 광교·영통·동탄 등 대단위의 택지개발에 따른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탄인덕원선은 영통역에서 수인분당선과 교차한다.

4. 영통동의 인구 구성과 생활권

1) 외지인의 전입으로 빠르게 증가한 인구

영통동의 인구는 1999년 8만 779명이었다가 이듬해에 9만 명을 넘어섰다. 2000년부터 2011년에 이르는 동안 인구규모는 9만 5,000명을 상회했으며, 인구 규모의 정점은 2006년의 9만 8,841명이었다. 2006년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영통동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지만, 2017년 법정동 신동이 영통동의 관할에 들어오면서 2017년(10만 702명)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영통3동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 규모는 2017년 이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감소해, 2022년 6월 말 기준 9만 4,994명이다.

영통동의 인구 변화는 수원시의 인구 변화 패턴과 다소의 차이점을 가진다. 수원시의 인구가 2002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영통동의 행정동별 인구 규모의 변화(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통계로 보는 수원」)
매년 12월 31일이 기준이고 2022년은 6월 말 기준이다.



영통동 초등학교 앞 풍경

전환한 것과 달리, 영통동의 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감소하였다. 즉 수원시의 전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영통동에서는 인구의 감소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2006년 이후 영통동의 인구 규모 변화가 수원시의 인구 증가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음은 택지개발 직후 영통동의 인구 증가가 수원시의 인구 증가에 미친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영통동의 인구가 수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8.9%에서 2022년 7.8%로 감소하였다. 2017년 이후 3개의 행정동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세대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2만 4,154세대가 거주해 세대당 평균인구가 3.3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세대수가 3만 9,612세대로 증가했음에도 인구가 감소해 세대당 평균 인구는 2.4명으로 줄었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개발 대상지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고, 새롭게 조성된 시가지에는 원주민보다 외지인들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택지개발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0년 말 기준 영통동에는 약 2,000명이 살고 있었다.[19]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된 2001년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이 진행되었던 수원의 여러 개발지구 가운데 영통동은 외지에서 전입한 사람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당시 서울에서 전입한 사람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비율은 영통동이 11.9%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원의 택지개발 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었다.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에서 영통동으로 전입한 사람의 비중은 율천지구 다음으로 높은 32.0%를 기록하였다.[20] 다른 택지개발지구로 전입한 사람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입한 사람의 비중이 전체 전입자의 30%에도 미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당시 영통동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주민은 이동성이 양호한 30~40대 젊은 연령층이 많아서, 영통동이 속했던 영통구는 2003년 주민의 평균 연령이 29.0세로 우리나라의 시군구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의 지위를 차지했으며,[21] 영통동도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도시 영통'의 장소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었다.[2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영통1동과 영통2동의 평균 연령은 모두 26세로, 이는 수원시의 평균 연령(30세) 또는 전국의 평균 연령(33세)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러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영통동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영통1동 38.2세, 영통2동 34.9세, 영통3동 36.8세 등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연령은 42.9세이고 수원시의 평균 연령은 40.2세인 것과 비교하면 영통동의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신규의 택지개발이 진행되었던 광교1동과 망포2동의 평균 연령이 각각 35.1세와 34.2세이었음을 고려하면, 택지개발의 시기가 오래된 영통동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수원-화성경제조정편입주민음악회에
참석한 영통동 주민
(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표 4> 5세 간격 연령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

(단위 : %)

연령층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유소년	0~4세	6.4	5.8	4.1	3.7	3.7	3.5	3.3	3.3	2.2	2.1
	5~9세	7.2	6.5	5.3	4.5	3.8	3.4	3.3	3.0	2.6	2.5
	10~14세	4.5	4.1	5.8	5.0	4.9	4.3	3.6	3.3	3.1	2.8
	합계	18.1	16.4	15.2	13.2	12.4	11.2	10.2	9.6	7.9	7.4
청장년	15~19세	2.5	2.4	3.7	3.3	4.8	4.3	4.2	3.8	3.1	2.9
	20~24세	1.8	1.8	2.8	2.7	2.8	2.8	4.0	4.0	4.0	3.8
	25~29세	3.4	5.1	3.5	4.0	3.0	3.4	3.2	3.3	5.7	4.5
	30~34세	6.8	7.9	5.9	6.4	4.9	5.2	4.4	4.7	4.9	4.3
	35~39세	8.0	7.0	6.1	6.6	5.7	6.1	4.8	4.9	4.3	4.1
	40~44세	5.6	3.8	6.4	5.6	5.6	5.9	5.1	5.1	4.2	4.5
	45~49세	2.1	1.4	4.1	2.7	5.1	4.4	4.9	4.9	4.7	4.7
	50~54세	1.0	0.7	1.5	1.0	3.1	2.2	4.1	3.6	4.1	4.2
	55~59세	0.5	0.6	0.6	0.6	1.1	1.0	2.6	2.1	3.4	3.2
	60~64세	0.4	0.5	0.5	0.6	0.7	0.7	1.0	1.0	2.2	2.0
	합계	32.1	31.2	35.1	33.7	36.8	36.0	38.3	37.4	40.6	38.0
노년	65~69세	0.3	0.5	0.4	0.6	0.5	0.7	0.6	0.8	1.0	1.0
	70~74세	0.2	0.4	0.3	0.5	0.4	0.7	0.4	0.7	0.6	0.8
	75~79세	0.1	0.3	0.2	0.3	0.2	0.5	0.4	0.6	0.4	0.7
	80~84세	0.1	0.1	0.1	0.2	0.1	0.3	0.2	0.4	0.3	0.6
	85세 이상	0.0	0.1	0.0	0.1	0.1	0.2	0.1	0.3	0.2	0.5
	합계	0.7	1.4	1.0	1.8	1.3	2.4	1.7	2.8	2.5	3.6

자료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영통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은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영통동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특히 15세 미만의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4.5%에서 2020년 15.3%로 급감했으며, 65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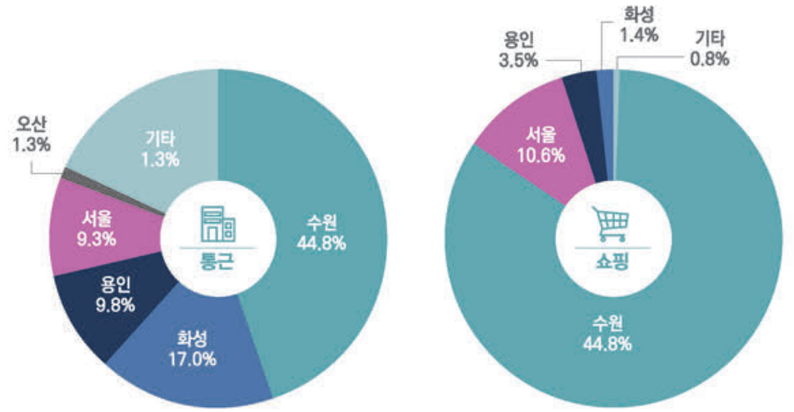
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2000년 2.1%에서 2020년 6.1%로 상승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장년층의 비중은 2000년 63.3%에서 2020년 78.6%로 크게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연령층은 2000년의 35~39세층과 30~34세층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25~29세층과 45~49세층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속성의 변화는 평균 연령의 상승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조만간 영통동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임을 의미하며, 젊은 연령층의 진입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시에 출산율이 낮아졌음을 보여 준다. 영통동의 성별 인구 구성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2) 주민들의 생활권

영통동은 서울로 집중하는 인구를 서울 주변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의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조성된 신시가지이므로, 1990년대 이후 서울대도시권에서 본격화한 주거지 교외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주거지 교외화는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된 탈도시화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직장은 서울에 그대로 두고 주거지만 서울 밖으로 빠져 나가면서 직장과 주거지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영통동의 초기 입주자들은 수원시 내부에서의 이주보다는 서울을 비롯한 수원시 외부지역에서 전입해 온 젊은 연령층이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양호한 집단이므로 수원 이외의 지역에 직장을 두고 주거지만 영통으로 옮긴 경우가 많았다. 즉 영통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권은 수원의 기성시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권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영통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근통행 및 구매 행위를 위한 쇼핑통행의 일일 이동패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통근통행과 쇼핑통행의 도착지 순위에서 상위에 자리한 도시는 수원, 화성, 용인, 서울 등 4개 지역이 동일하지만, 통행목적에 따른 도착지별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통근통행은 대체로 인접해 있거나 가까운 거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영통동 거주자가 가장 많이 향하는 도착지도 수원시이다. 영통동에서 수원시로 향하는 통근통행의 비율은 전체의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화성시(17.0%), 용인시(9.8%), 서울시(9.3%) 등이었다. 수원에서는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의 순으로 이동이 많았다. 한편 인접 도시인 화성에서는 영통동의 남쪽에 개발된 동탄신도시와 뉴타운이 개발된 향남읍으로 향하는 비율이 높았고, 용인에서는 영통동에 인접한 서농동, 영덕동을 비롯



2020년 영통동 주민의 통행목적별 도착지 분포(국가교통 DB)

해 기흥동 등지로 향하는 통행의 비율이 높았다. 영통동 거주자의 통근통행권은 수원시를 비롯해 인접한 용인 및 화성시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영통동에서 거리는 멀지만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서울로의 통근통행률도 높게 형성된 특징이 있다.

영통동 주민들의 상품 구매를 위한 생활권은 통근통행권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수원시(83.6%) 내부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시(10.6%), 용인시(3.5%), 화성시(1.4%)의 순이었다. 수원시에서는 영통구 내부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용인시나 화성시로 쇼핑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쇼핑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형성된 것이 통근통행과의 차이점이다. 영통신도시 개발 초기인 2002년에 영통동 주민의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생필품인 채소와 생선 등은 영통지구 내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의류 및 가전제품, 레저용품, 귀금속 등은 영통 이외의 수원시 또는 성남시 분당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였다.[23]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영통동 거주자의 구매활동은 동수원 생활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고가의 물품일수록 구매를 위해 수원시를 벗어나 먼 곳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성남시로 구매활동을 떠나는 빈도가 크게 감소한 반면, 서울로 장거리 구매활동을 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역 중심상가 입구와 직녀광장(김승일 제공)

5. 노후 시가지 정비를 통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영통동

도시화의 흐름이 거의 스며들지 않은 채 농촌적 모습을 간직해 왔던 영통동은 1994년부터 본격화한 택지개발이 마무리되면서 전혀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과거의 영통리가 청명산과 그 주변의 구릉지, 산사면에 자리한 옛 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넓은 들판, 한적한 전원적 성격을 가진 고즈넉한 마을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면, 지금의 영통동은 고층의 주거단지와 많은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넓고 반듯한 직교형의 가로망,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보유한 계획적인 시가지라는 특징을 가진 도시로 변모하였다.

시가지 개발로 과거의 생활터전은 대부분 사라지고 그곳을 점유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마을을 떠났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온 이주자들의 새로운 생활터전이 만들어졌다. 수원 도심과 인접 도시는 물론 멀리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었고, 다양한 도시기능의 입지는 사람들의 생활 편익을 증가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영통동은 수원시의 도시화 영역을 외연적으로 확대한 동시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용인시 및 화성시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영통동의 일부 구역은 여전히 노후 시가지로 남아 있고 도시환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영통동 전체의 도시공간은 효율성이 감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택지개발로 조성된 신시가지만 영통으로 간주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인 영통동은 신시가지는 물론 신시가지에 접한 지역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영통동이 살기 좋은 도시 또는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친화적인 공간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남을 필요가 있는 한편, 영통동 서쪽의 시가지에 대한 공간 재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시가지와 삼성전자의 중간 지대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점이지대적 성격을 동시에 나타낸다. 도시 내에서 토지이용이 혼재된 노후 시가지는 여건이 열악한 슬럼(slum)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므로, 예방 및 개선 활동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노후 시가지의 도로망과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신시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영통동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주

1.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로 인해, 영통택지개발지구에 연관된 화성과 용인은 세력 축소 및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영통의 수원시 편입을 반대했었다.
2. 영통리와 신리는 1987년 수원시 행정구역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땅값이 폭등해, 한때 부동산 투기 상설조사반 설치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의 지리적 환경』, 흥익문화사, 34-35쪽.
4.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55쪽.
5. 수원문화원, 1999, 『수원지명총람』, 온누리기획, 139쪽.
6.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자연 속에서 더위 잊는 수원 여름 명소 10선(選)」, 2022년 8월 9일.
7. 한신대학교박물관, 1993, 『水原靈通·龍仁靈德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한신대학교박물관, 125쪽.
8.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수원시사』, 125쪽.
9.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62쪽.
10. 수원지명유래(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1052).
11. 수원문화원, 1999, 『수원지명총람』, 온누리기획, 484-492쪽.
12. 탐진은 지금의 전라남도 강진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13. 수원시, 2006, 『수원의 동족마을』, 시은기획, 285쪽.
14. 수원시, 2019, 「수원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상이디자인, 35쪽.
15. 수원시, 2012,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64쪽.
16.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5쪽.
17. 이 구역은 행정구역상 영통1동과 영통3동의 서쪽 경계부에서 시작해 영통2동의 북쪽을 통과하는 구간이다.
18. 이후 분당선의 청량리역-왕십리역 구간이 2018년 12월 31일 개통됨에 따라 분당선의 구간은 연장되었다.
19.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62쪽.
20. 이건원·김세용, 2010,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1996~2006년의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5권 제1호, 12-13쪽(7-20)
21. 「고령화사회로 '고속질주'」, 『문화일보』, 2004년 9월 25일.
22. 정다미, 2011, 「'장소성' 기반의 도시문화공간 연구-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49쪽.
23. 조기주, 2001, 「영통신도시 주민의 구매활동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27쪽.

02 근대 변혁기 영통리 해주 오씨가 사람들의 세 가지 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1. 영통리에 터 잡은 해주 오씨가

영통리 해주 오씨는 수원과 용인과 경계지역에 세거해 왔다.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와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일대의 유력한 문반 가문이다. 영통리와 서천리는 서로 길 하나 차이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먼내, 즉 원천(遠川)을 젖줄로 하는 원천문화권이다. 수원과 용인의 경계지역인 영통리와 서천리 일대에 세거하던 해주 오씨들은 지역의 유력한 가문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영통리 해주 오씨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14세 추탄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의 후손들이다. 이에 해주 오씨 추탄공파(楸灘公派)로 불리는 영통리 해주 오씨들은 오윤겸의 3자인 15세 오달조(吳達朝, 1604~1689)의 직계로 이어졌다. 특히 오달조는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3명이 무과 급제자였다. 이래로 16세부터 23세의 8대에 걸쳐 16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며 명문가의 전통을 이었다.[1] 특히 22세 오원묵·오창묵·오정묵·오성묵 4형제 모두 무과 출신으로, 무반으로서의 해주 오씨 가문 위상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영통리 해주 오씨의 번영을 이끌었다. 이후 막내인 오성묵(吳成默, 1832~1904)의 경우 5명의 아들 가운데 오석선(吳奭善, 1862~1934)과 오성선(吳性善, 1872~1950) 2명이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의 전통을 이어 갔다.

해주 오씨 추탄공파 세계도

14세 允謙 (1559~1636, 문과, 영의정, 묘 용인 慕賢村) → 추탄공파 파시조

15세 達天(묘 慕賢村) 達周 達朝(庶, 1604~1689, 宣教郎, 묘 慕賢村) 達遠(庶) 達士(庶)

16세 道立 道存(무과) 道規(무과) 道近(1650~?, 1676 무과, 1699 慶尙將軍呂島萬戶, 묘 용인 오산리)[1]

17세 遂國(1688~?, 부사과, 1713 무과, 묘 용인 서천리)[2] 遂楷(1692~1774, 가곡면) 遂完(1695~1733, 묘 서천리)

18세 命三(1709~?, 1738 무과, 통훈대부군기시판관, 묘 서천리)

19세 彦訥(1736~1820, 통덕랑, 묘 서천리)[3] 彦好(1739~1811, 묘 서천리)

20세 泰新 泰義(묘 수원)[4] 泰協 泰德[5] 泰學[6]

21세 心秀(系)[7] 心秀(出) 英秀 翼秀(出) 斗秀 寬秀 翼秀(系, 1799~1871, 증호조참판, 묘 오산리)

22세 升默(무과) 龍默 元默(무과)[8] 昌默(무과)[9] 定默(무과) 成默(무과)[10]

23세 興善 直善(무과)[11] 鼎善(무과)[12] 榘善(무과) 喆善[13] 奭善(무과)[14] 赫善[15] 性善(무과)[16] 晩善[17]

24세 得泳[18] 德泳[19] 舜泳 桓泳[20] 恩泳 倬泳

25세 陽根(系) 陽根(出) 彰根 在根 碩根 宣根 亨根

26세 日煥 文煥 平煥 利煥 甲煥 國煥

1) 아들 수국이 분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어 통정대부병조참의에 오름.
2) 1726년 통훈대부군기시주부, 1739년 성환찰방, 이인좌 난에 자원 출전하여 안성에서 적을 격파.
원윤의 목을 베어 통정대부에 가자, 분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 방답첨사 지냄.
3) 『해주오씨추탄공파세보』에는 언눌의 생년이 병인(1746)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동생 언호의 생년(1739)과 맞지 않으므로, '병인(1746)'은 '병진(1736)'의 오기가 아닐까 판단된다(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해주오씨추탄공파세보』, 農經出版社, 1979).
4) 1770~1848, 묘 태장면 청명산.
5) 1761~1852, 증통정대부, 묘 서천리.
6) 1770~1854, 1800년 무과, 1842년 동래수군우, 증좌승지, 묘 가곡면.
7) 1788~1829, 묘 영통리.
8) 1818~1890, 1846년 무과, 1880년 훈련원첨정, 1893년 자헌대부에 가자(『고종실록』, 고종 30년 8월 26일), 묘 일왕면 광교리.
9) 1820~1881, 1852년 무과, 1856년 절충, 1867년 운봉현감, 1879년 가선대부, 묘 태장면 원천리.
10) 1832~1904, 1856년 무과, 1884년 선전관, 1887년 자인현감, 1895년 함양군수, 묘 용인 부아산.
11) 1875~1947, 1887년 무과, 1898년 육군참위, 1900년 부위, 1901년 정3품, 묘 하갈리.
12) 1854~1911, 1876년 무과, 1879년 절충, 1891년 격포첨사, 묘 원천리.
13) 1857~1927, 1887년 전보국주사, 오위장가설, 1888년 훈련주부가설, 1897년 중추원의관, 1900년 시종원분시종, 1906년 통정대부에 가자, 묘 용인 보라리.
14) 1862~1934, 1882년 무과, 1889년 절충장군, 오위장, 1894년 충장위장, 첨지중추부사, 묘 영통리.
15) 1867~1935, 1888년 소경원수봉관, 1905년 승육, 1929년 전북 군산부, 익산군 직원, 묘 반월리.
16) 1872~1950, 1893년 무과, 1897년 시어, 1900년 상의사주사 판임관 6등, 돈녕원주사, 1902년 승육, 중추원의관, 묘 서천리.
17) 1901~1963,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부 졸업, 묘 영통리.
18) 1880~1957, 호 화은, 육군부위, 통훈대부, 묘 용인, 문집 『화은시집』.
19) 1887~1965, 일본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졸업, 태장초등학교 창설, 묘 영통리.
20) 1904~1972, 일본 주오대학 경제학부 졸업, 경기도주사, 기흥면장, 묘 농서리.

조선 후기 양반사대부라 하더라도 문과 출신과 달리 무과 출신자들은 상업적 진출과 경제적 부의 축적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도와 과거제도가 철폐되는 상황과 연결되면서 수원 지역 상업의 발전이 무과 출신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영통리 해주 오씨 중 오성묵의 아들 5형제, 즉 오철선(吳喆善, 1857~1927), 오석선, 오혁선(吳赫善, 1867~1935), 오성선, 오만선(吳晩善, 1901~1963)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형제들과 오철선의 아들인 오득영(吳得泳, 1880~1957), 오덕영(吳德泳, 1887~1965)과 오성선의 아들 오환영(吳桓泳, 1904~1972) 등은 지역 유지로 활동하며 수원의 근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일제하 지역 유지들은 "근대 이행기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재산(토지)과 사회활동 능력을 가졌던 이들, 다시 말해서 재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직 활동을 통해 당국의 신용(信用)과 사회적 인망(人望)을 획득한 재지 유력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이런 점에서 영통리 해주 오씨가는 재산과 사회활동 능력과 명망성에서 다른 가문을 압도할 수 있었다. 근대적 학문의 수용, 특히 일본 유학을 통한 사회활동 능력 면에서 최상위 가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영통리 해주 오씨가 3대에 걸친 3명의 인물을 통해 근대 변혁기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제하 지역 유지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인물 유형으로는 영통리 해주 오씨 오성선을 꼽을 수 있다. 오성선은 1892년(고종 29) 무과에 급제했는데, 과거제도가 폐지되는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마지막 과거시험 세대였다. 과거시험을 통해 대한제국기에 관료생활을 시작했던 오성선은 근대적 변혁기에 개명 관료로 활동하면서 농촌계몽과 개발에 헌신한 삶을 살았다. 둘째로 오득영은 대한제국기 무관학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교 출신의 군인이자 관료였다가 낙향해 지역 유지로 한시를 읊으며 안빈낙도를 꿈꾸었던 마지막 조선 선비의 삶을 살았다. 끝으로 일본 유학을 하던 내지(內地)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감옥에서 고통을 견뎠던 오덕영의 아들 오창근 등의 삶은 해방 뒤에도 진보적 사회주의자의 길을 걷다가 북쪽을 선택하였다.

특히 오성선과 오득영은 무과 출신의 관료로 입신하였다. 이는 영통리 해주 오씨의 전통을 잇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오성선의 큰형이자 장자였던 오철선(吳喆善)의 둘째 아들 오덕영(吳德泳, 1887~1965)은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정학부 경제과를 졸업함으로써 영통리와 서천리 일대 해주 오씨 집안에서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오성선의 이복동생 오만선(吳晩善, 1901~1963)이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을 졸업하였고, 오성선의 큰아들 오환영(吳桓泳, 1904~1972)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오덕영의 장자인 오양근(吳陽根)은 일본 호세이대학, 2자인 오창근(吳彰根)은 일본 도호쿠대학(東北大學), 오순영(吳舜泳)의 아들인 오석근(吳碩根)은 일본 센슈대학(專修大學)을 졸업했는데, 이들 모두 어김없이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일본 유학과 '경제학 전공'이라는 범상하지 않은 사례는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이 경제적 가치와 실질을 숭상하는 가풍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 중심의 일본 유학의 전통은 이들 가문이 새로운 시대,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입장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할 할 수 있다. 국가적 정치권력이 이민족에게 빼앗기고, 전통적 문화예술의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서 삶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 근거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의 오성선, 오득영, 오창근 등 해주 오씨 3대에 걸친 3명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수원 근대사와 이들이 격동의 근대사를 어떻게 구성해 나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오성선, 관료에서 농촌 계몽운동가로

1) 개명 관료 오성선

영통리 해주 오씨들은 수원 지역의 근대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우서(又西) 오성선(吳性善, 1872~1950)이다.[3] 오성선은 농촌계몽운동과 실질적인 농촌갱생의 길을 열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즉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피폐한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일생을 바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농촌 개발의 선구자', '빈농구제의 아버지'로 불렸던 것이다.


우서 오성선(1872~1950)

오성선은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출신으로 1892년(고종 29)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가문의 전통을 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오성선은 1895년 경성사범학교를 수료하면서 근대적 학문을 통해 개명관료로 입신하였다. 이후 시종원(侍從院) 시어(侍御), 영희전령(永禧殿令), 교방사(敎坊司) 주사, 상의사(尙衣司) 주사, 순창원(順昌園) 봉사(奉事),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을 역임하였다. 1904년 12월 2일 양근군 임시우체 주사를 임명받았는데 부임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04년 말 이후 관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어 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자료는 1907년 관계를 떠나 기흥면에 귀향한 후 지방 개발과 산업 개량에 진력하였다고 적고 있다.[4]

한편 오성선은 1908년 9월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會社) 설립위원(33명)으로 선발되었다. 1908년 8월 26일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 순종황제의 재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9월 5일 동양척식주식회사 한국인 설립위원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1품 이호성 등 5명, 정3품 한상룡 등 11명, 6품은 오성선을 비롯하여 7명, 9품 문영관 등 10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가운데 실무적 일은 오성선을 비롯한 6품(7명)과 9품(10명)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척식회사(동척)는 한국 농업의 발달을 도모하며 미간지(未墾地)를 개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선전되었다. 준비위원들은 동양척식회사 정관을 만들고 주주를 모집하고 사무소를 열었다. 회사가 설립되자 설립위원회의 업무는 1908년 12월 30일 종료되었다. 오성선은 3개월 동안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하면서 한국인 설립위원들과 일본 시찰을 다녀왔다.

1908년 9월 일본시찰단(日本視察團) 참여는 오성선에게 문화적 충격과 반성을 가져오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일본 시찰을 통해 오성선은 조선 농촌의 낙후된 현실에 비해 일본의 농촌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농촌진흥은 무엇보다도 농업 개량과 자금과 곡식을 저리 융통에 있다고 여겼다. 즉 국가 발전의 초석은 농촌 개발에 있음을 깨닫고 이후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펼쳤기 때문이다.

SK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2) 농촌 개발과 계몽운동에 나서다

일본에 다녀온 뒤 느낀 바가 컸던 오성선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듬해인 1909년 우선 농업연구회(農業研究會)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각 마을 사람들을 힘써 농사짓게 하며, 농업연구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답을 살펴 비료와 땅을 갈고 김매는 일 등을 일일이 감독하였다. 또한 자신의 토지를 은행에 저당하여 자금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저리로 나누어 준 금액이 200여 원에 이르렀다. 그 효과는 매우 커서 1915년 조합원은 400명에 이르렀다.[5]

농업연구회를 창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농계(農契), 저축조합(貯蓄組合), 흥농조합(興農組合), 양위자금조합(養慰資金組合), 장학계(奬學契), 양잠조합(養蠶組合), 가마니조합(筵叺組合), 공동구입계(共同購入契), 기업조합(機業組合), 저수지 제언 축조 등의 농촌 개발사업에 헌신하였다. 1929년 6월 마을 안에 농사용 저수지 성화제(性和堤)와 만선제(滿善堤) 두 개를 파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했다.



1915년 용수농계 곡식 저장 창고
(수원박물관 제공)



용수흥농주식회사 전경(『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용수흥농주식회사 임원(『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특히 어려운 농촌 현실에 직면하여 1927년 용수농계 금융부와 용수저축조합을 합병하여 용수흥농조합을 조직했다가 주식회사로 발전시켰다. 즉 1928년 5월 10일 지역주민들과 자본금 20만 원의 용수흥농주식회사(龍水興農株式會社)를 설립해 농촌 개발과 빈농구제를 조직적으로 펼쳤다.[6] 농업자금 융통과 농촌 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대표적 주식회사로 발전시킨 것이다. 대주주로 참여한 주요한 인물은 오성선, 오득영과 수원읍내의 양성관(梁聖寬), 홍사훈(洪思勛) 등을 꼽을 수 있다.

용수흥농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오성선은 『용수흥농주식회사20년지(龍水興農株式會社二十年誌)』(1929년)와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龍水興農株式會社沿革)』(1935년)을 발간하였다. 이는 당시 지역에서 발간한 최초의 사례였다.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 관련 책자는 일본인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수원이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발전하는 수원(發展せる水原)』(1914년), 『화성의 그림자(華城乃影)』(1915년), 『수원(水原)』(1923년) 등 3책을 발간하였다. 수원군청과 조선총독부 등 관공서에서 『수원군지지(水原郡地誌)』(1929년)와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수원군』(1929년)을 발간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 박성근(朴晟根)이 편찬한 『태장향토사(台章鄕土史)』(1932년)가 발간되었을 뿐이다. 또한 오성선은 1932년 경기도에 「농촌개선에 관한 의견서」, 동아일보사에 '농촌구급책'에 관한 기고문을 제출하며 농촌 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3) 지역 유지 오성선의 길

1909년 『황성신문(皇城新聞)』(1909년 5월 11일)에 오성선의 농업연구회를 비롯한 농촌계몽운동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농촌개발 사업의 미담은 1911년 조선농회(朝鮮農會) 수원지회 상의원과 1921년 조선농회 경기도 평의원으로 활동하게 만들었다. 당시 조선농회 수원지회 지회장은 수원군수 김관현(金寬鉉)이었고, 오성선은 상의원(常議員)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상의원은 대개 관리, 권업모범장 기사, 수원농림학교 교수, 동산농장 지점장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10명의 상의원 가운데 오성선은 조선인으로 유일한 존재였다. 이미 널리 알려진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던 셈이다.

조선농회의 운영과 사업은 식민지 농정과 표리일체를 이루며 전개된 측면이 있지만, 오성선은 지역에서 농촌사업가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기에 조선농회 임원이 된 셈이다. 더욱이 오성선은 산림조합과 축산동업조합을 농회로 합병하고 군 농회를 관공서인 군청에 예속시키지 말고 독립적인 민간단체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조합에서 저리


高利驅逐
각종조합설립
【龍仁吳性善氏】

동아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농촌사업 공로자'로 표창된 오성선(『동아일보』 1930년 4월 9일)

자금을 농회를 통해 조사하고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등 농회를 식민농정의 말단기관이 아닌 농민을 위한 기구로 활용되기를 소망했던 인물이다.

한편 오성선은 1924년 경기도평의회(京畿道評議會) 용인군 민선의원이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협조로 이해될 수 있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표방하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도평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때 각 지역 유지들이 대거 도의원으로 진출하였다. 당대 지역 유지들의 현실 참여방식이자 관로(官路)가 막힌 조선인 명망가들의 또 다른 탈출구였다. 그러나 이는 일제 식민통치를 위한 친일행위이자 일신의 영예를 위한 명예심의 발로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1924년 당시 경기도평의회 민선 25명 가운데 경성부 4명을 제외하고 각 부군(府郡)의 민선의원은 1명씩이었다. 수원군은 한상봉(韓相鳳)이었고, 용인군은 오성선이었던 만큼 도평의회원의 위상은 막강한 것이었다.

한편 오성선은 지역에 보통학교가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계(學契)를 조직하였고, 1916년 장흥의숙(章興義塾)을 설립하였다. 지역 유지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역 유지로서 활동은 1928년 큰 가뭄이 들어 이재민이 발생하고 기흥면 전체 80%가 피해를 입었다. 구제책을 강구해야 할 정도였는데, 오성선을 비롯한 기흥면 유지 수십 명이 구제회(救濟會를) 조직하였을 때 솔선해서 3,000원을 빚을 내서 동리별로 이재민 비율에 따라 나눠 주는 선행을 베풀었다.[7]

이러한 다양한 활동으로 오성선은 193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농촌사업 공로자'로 표창되었다. 이에 기흥면 주민들이 공적을 기려 1930년 5월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에 기념비를 세웠다. 지역민들이 오성선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또한 1932년 『경성일보(京城日報)』(1932년 6월 23일)에 '농촌개발의 선구자, 빈농구제의 아버지 오성선 씨'라는 글이 실렸고, 1934년 경기도에서 발간한 『농촌진흥 경기의 빛』이라는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오성선 기념비 건립 기념(1930년 5월, 수원박물관 제공)

책자에 「마을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하다」는 오성선 소개 글이 실리게 되었다.[8] 이는 용수흥농주식회사 사장, 용인군 농촌진흥위원회 위원, 서천리 농촌진흥회장으로서 오성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수흥농(龍水興農)주식회사를 창설하고 사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농촌 개발사업에 종사한 업적을 높이 산 것이었다.

한편 오성선은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기념 표창자(5,292명)가 되었다. '지방 개발과 산업 개량에 진력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것이다. 농촌 개발과 지역에서의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미 오성선은 1930년 4월 동아일보사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농촌사업 공로자'로 표창을 받았고, 1934년 경기도에서 농촌지도의 미담사례로 '마을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한 인물로 현창되었기 때문이다.

오성선의 농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1935년 4월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으로 농촌사업 부문 공로자로 다시금 표창되었다. 즉 조선어문(9명), 체육(4명), 농촌교육(8명), 농림사업(15명) 등 36명을 표창하였을 때 농촌사업 공로자 1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9] 조선어문(朝鮮語文)의 공로자는 김두봉·권덕규·최현배·이윤재 등 9명이었음에 비해 농림사업 공로자는 오성선 등 1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었다. 이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과 농촌 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성선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친일의 행적은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인 대지주로서 양심적 지역 유지로서 농촌구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공적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국방헌금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 유지들은 군용기 경기호 및 수원호 건조에 상당한 금액을 헌납하였다. 수원 지역의 대표적 국방헌금은 애국기(愛國機) 수원호(水原號)의 헌납이었다. 1937년 9월 21일 양성관과 차유순 등 수원 유지 70여 명이 모여 애국기 수원호에 대한 조성기금을 1만 5,000원을 출연하여 기부하였다. 웬만큼 산다는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에 1937년 군용기 경기호(京畿號) 건조에 용수흥농주식회사 이름으로 100원을 헌납하였다.[10] 이는 오성선 개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는 적어도 친일의 오명을 개인 오성선의 이름으로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마지막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던 같다.

지금 볼 수 있는 오성선의 사진에는 웃음기 없는 옹골찬 얼굴로 등장한다. 이는 고민 많은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이다. 오성선은 1910년 국망 이전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일제 식민지 관료의 길을 포기한 셈이다. 그리고 1908년 일본 시찰 이후 나라가 쇠잔해지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현실에서 농촌갱생의 길이 애국의 길이라는 신념으로 고향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3. 오득영, 안빈낙도를 꿈꾼 조선 선비의 길

1) 가문의 전통을 잇는 무관이 되다

오득영(吳得泳, 1880~1957)은 오철선(吳喆善)의 장남으로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의 적장자였다. 호는 화은(華隱)이다. 대한제국의 무관으로 육군 부위(副尉)로 재직하였고, 1906년 통훈대부가 되었다. 오득영은 1899년부터 1900년까지 내장원 소속으로 수원군 영화역둔(迎華驛屯)과 서원둔(書院屯) 사음을 지냈다. 그러나 1900년 7월 23일 20세의 나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오득영의 대한제국 군복(수원박물관 제공)



1909년 수원측량학교 졸업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사 오득영

이로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생도로 뽑혀 보병과(步兵科) 수업을 받고 1903년 9월 20일 졸업하였다. 무관학교 졸업 이전 1902년 7월 육군보병 참위(參尉)로 보직되었고, 1902년 8월 14일 혜민원 주사가 되었다. 졸업 후인 1904년 1월 진위대(鎭衛隊)에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1906년 7월 20일 육군보병 부위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오득영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낙향하였다.

군대해산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오득영은 수원 북부면 영화동에 거주하면서 수원측량학교(水原測量學校) 교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1909년 9월 오산 원동에 위치한 천도교 수원교구 교리전문강습회에도 참여하였다. 제1회 천도교 수원교구 특별지도 청년강습(特別指導青年講習)에 참여한 15명은 오득영을 비롯하여 송재은(宋在恩), 김명식(金命植), 박하원(朴夏遠), 장인수(張仁秀), 윤준구(尹俊求), 김유경(金有卿), 임영환(林永煥), 이종환(李鍾煥), 천윤근(千潤根), 구영서(具玲書), 장재건(張載健), 박영호(朴永昊), 진덕희(陳德羲), 이병헌(李炳憲) 등이었다. 이들은 이후 수원과 용인의 천도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하였다.

오득영이 천도교 교리 강습에 참여한 것은 새로운 시대와 사상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남달랐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럼에도 오득영은 이후 천도교와 관련한 적극적 활동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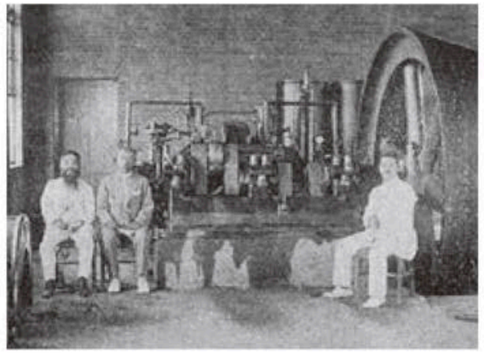
1917년 아버지 오철선의 회갑일에 무관 관복을 입은 오득영과 양복을 입은 오덕영(수원박물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천도교는 몰락한 양반층 또는 가난한 농촌의 각성된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는 점에서 유력한 지주 집안의 오득영은 더 이상 진전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근대 회사의 주주로 활동하다

오득영은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의 유지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주식회사에 투자하며 선도적인 경제인으로 활동하였다. 1913년 7월 6일 수원 지역 유력자들이 수원전기주식회사(水原電氣株式會社)를 만들 때 주주로 참여하였다. 전력 공급과 전등 및 전기 기구 판매 및 대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원전기주식회사는 수원의 일본인 유력자들과 수원 지역의 유지들이 결합된 주식회사였다. 회사 중역으로 전무이사는 일본인 곤도(近藤虎之助)가 맡았고, 이사로는 일본인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사카데 쥬사브로(坂手重三郎)와 조선인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지주였던 홍건섭(洪健燮), 양성관(梁聖寬) 등이 참여하였다. 감사는 일본인 노

오득영이 주주로 참여했던 수원전기주식회사(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수원군』)

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와 조선인 한상봉(韓相鳳)이었다.[11] 주주는 일본인으로 사도 히데미츠(佐渡秀光, 115주), 덴니치 쓰네지로(天日常次郎, 100주), 가야마 히로시(84주), 사카데 쥬사브로(66주), 노나카 스에요시(60주), 마나베 키요사쿠(眞鍋喜代作, 57주) 등과 조선인 주주로 한상봉(韓相鳳, 80주), 홍민섭(洪健燮, 60주), 오득영(57주) 등이 참여하였다. 당시 수원의 최고 부자라 할 수 있는 양성관과 홍건섭 및 한상룡(韓相龍)의 형인 한상봉이 중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득영의 지역적 위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과 남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조선인 유지들과 함께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의 오득영이 참여한 셈이다.

또한 1918년 5월 29일 설립된 수원인쇄주식회사(水原印刷株式會社)에도 주주로 참여하였다. 수원인쇄주식회사는 전무이사를 맡은 가야마 히로시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주도한 회사였다. 이사 3명(戶田正夫, 坂手重三郎, 吳得泳) 가운데 조선인은 오득영이 유일하였다. 주식은 가야마 히로시 342주, 도다 마사오(戶田正夫) 200주, 사카데 쥬사브로 100주, 그리고 오득영을 비롯한 4명이 각각 60주씩 출자하였다. 주주 7명 가운데 조선인은 오득영이 유일하였다. 당시 오득영은 근대적 주식회사를 통한 경제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유력한 경제인으로 부상하였던 셈이다. 오득영은 작은아버지 오성선이 주도하여 1928년 설립된 용수흥농주식회사에 이사로도 참여하였다.

한편 1937년 오득영은 군용비행기 수원호 헌납에 300원을 기부하였다.[12] 1937년 9월 30일까지 헌금자 가운데 김광현(1,000원), 홍사헌(400원), 정영덕·오득영(300원), 윤태인·이경의(250원), 이광현·이철영(150원), 박기양(100원), 임병구(50원), 조긍환(40원) 등이 참여하였다. 군용비행기 헌납은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는 당시 수원 유지들의 대표적 친일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오득영의 삶에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3) 낙향과 일사(逸士)의 삶

1937년 중일전쟁으로 더욱 군국주의적 착취와 친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오득영은 공주로 피신하는 길을 택하였다. 오득영은 1939년 봄 공주읍으로 이사하였다. 이는 군용기 수원호 헌납 등 친일적 행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낙향을 통한 은둔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주로 낙향한 결정적 이유는 병약했던 양자 오양근과 관련이 깊다. 오양근(吳陽根, 1910~1940)은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오양근은 원래 오덕영의 장남이었으나, 아들이 없는 오득영의 양자가 됨으로써 영통리 해주 오씨 적통을 이은 셈이다.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오양근은 고향 영통리에서 논산 출신 권태정(權泰正)과 결혼해 살았다. 그러나 몸이 약해 공기가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자 공주군 남부면 봉황리(현 공주시 봉황동)로 옮겨 가 살게 되었던 것이다. 오양근은 공주에 살면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병약했던 관계로 끝내 1940년 5월 29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오득영은 1939년 봄 공주로 이사한 지 1년 만에 아들 오양근이 요절하자, 나이 어린 손자들을 건사하며 살았다. 그가 공주로 이사해 살았던 시기는 1937년 만주사변,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일제의 군국주의적 만행으로 고통을 받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1937년 군용기 수원호에 헌금을 강요받은 이후 이러한 군국주의적 상황을 벗어나고자 1939년 공주로 낙향한 이후 1945년 해방을 그곳에서 맞이하였고, 뒤이어 터진 민족상잔의 6·25전쟁까지 공주에서 겪어야 했다.

한편 동생 오덕영과 이름이 비슷해 사람들이 오득영과 오덕영을 착각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공주 봉황리에 거주하던 오득영은 아들 오양근의 죽음 이후 1940년 11월 9일 오대영(吳大泳)으로 개명하였다. 1950년 전쟁을 공주에서 맞이했던 오득영은 1951년 여름 온 가족을 이끌고 수원 영통리 본가로 돌아왔다. 이후 1957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한시를 쓰는 문학적 삶을 살았다. 죽음 전날 친한 벗인 한봉교(韓鳳敎)가 문병을 왔을 때에도 한시를 지을 정도였다. 유고로 『화은시집(華隱詩集)』이 있다.[13]

『화은시집』에는 오득영과 교류한 6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한다. 오득영이 남긴 약 300수의 시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친구 또는 친척에게 쓴 시였다. 오득영은 수원과 용인의 친구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을 탐방하며 생활의 활력을 찾았고, 조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오득영의 문집 『화은시집』 중에서 영통리에 대한 내용인 영은대와 영통노규기

선의 마지막 선비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과 예절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살았다. 삶 속에서 부딪치는 모든 것을 시의 주제로 삼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또는 일본과 관련된 시가 한 편도 없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던 해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일본과 관련한 시가 한 편도 없다는 것은 오득영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조선 성리학과 학문 정신을 지키며 실천한 인물들과는 약간 다르지만 이를 지향한 삶으로 볼 수 있다.[14]

4. 오창근, 조선의 독립과 새 나라를 꿈꾼 진보주의자

1) 일본 유학과 독립운동

오창근(吳彰根, 1915~?)은 오덕영의 둘째 아들이다. 오득영의 큰아들 오양선(吳陽善)은 큰아버지 오득영(오대영)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따라서 둘째 오창근이 오덕영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아버지 오덕영(吳悳泳, 1887~1965)은 화성 궐리사 등에서 『소학(小學)』 등 한학을 공부하였고,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경제



영통리 해주 오씨 사람 중 첫 일본 유학생이었던 오덕영의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경제학과 졸업기념(수원박물관 제공)

학을 공부하였다. 이로써 영통리 해주 오씨 집안에서 일본 유학의 물꼬를 텄던 인물이다. 특히 경제학이 가학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즉 오덕영이 일본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래 영통리 해주 오씨는 모두 6명의 일본 유학생을 배출하였다. 오득영·오덕영보다 나이가 어린 막내 숙부 오만선(吳晩善, 1901~1963)이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오성선의 큰아들 오환영(吳桓泳, 1904~1972)은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오득영의 아들 오양근(吳陽根, 1910~1940)도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오덕영의 아들 오창근



오덕영의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경제학과 졸업증서(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修業證書

吳彰根

大正四年六月十日生

右者普通學校第三學年ノ課程ヲ修了セシコトヲ證ス

大正十五年三月廿四日

台章公立普通學校

第一〇號

오창근 태장공립보통학교 수료증서(1926년)



卒業證書

吳彰根

大正四年六月二八日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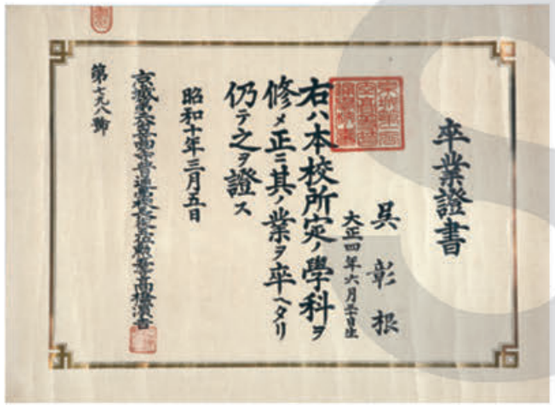
普通學校修業年限六箇年ノ全教科ヲ卒業セシコトヲ證ス

昭和四年三月二十五日

學校名普通學校長津田豊作

第一七九號

오창근 기흥공립보통학교 졸업증서(1929년)



卒業證書

吳彰根

大正四年六月十日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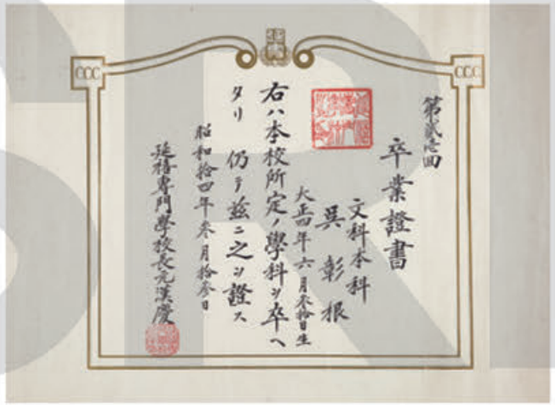
右八本校所定ノ學科ヲ修メ正ニ其業ヲ卒ヘタリ仍テ之ヲ證ス

昭和十年三月五日

京城第二公立高等普通學校長

第七九八號

오창근 경성제2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증서(1935년)



卒業證書

文科本科

吳彰根

大正五年六月廿四日生

右八本校所定ノ學科ヲ卒ヘタリ仍テ之ヲ證ス

昭和拾四年參月拾參日

延禧專門學校長元漢慶

第貳拾四回

오창근 연희전문학교 졸업증서(1939년)



1935년 오창근과 윤길안의 혼례(수원박물관 제공)

(吳彰根, 1915~?)은 일본 도호쿠제대(東北帝大)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또한 오득영의 동생 오순영(吳舜泳, 1889~1950)의 아들 오석근(吳碩根, 1916~2005)은 일본 센슈대학(專修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이들 3대에 걸친 6명의 일본 유학생들은 한결같이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용적인 것을 숭상하는 영통리 해주 오씨의 가풍을 반영하는 증표라 할 수 있다.

오덕영은 메이지대학을 졸업한 조소앙(趙素昻, 1887~1958)과 같은 나이로 친분이 깊었다. 조소앙의 글씨가 집안에 남아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소앙은 해외로 망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오덕영은 조소앙과 함께하기로 한 중국 망명 약속은 때마침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3년상을 마치면서 흐지부지되었고, 결국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때 한성은행을 다녔지만 1년도 채우지 않은 채 직장을 그만둔 오덕영은 숙부인 오성선이 설립한 용수흥농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실질적 운영자가 되었다. 또한 태장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했지만, 대외적으로 나서거나 친일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아버지 오덕영의 교육열 덕에 오창근은 서울로 유학해서 경성공립제2고등보통학교(현 경복중고)와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39년 4월 교토(京都)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중도 퇴학하고, 다시 1940년 4월 도호쿠제국대학 법문학부 경제과에 입학하였다. 이는 영통리 해주 오씨들이 일본 유학을 하면서 모두 경제과를 선택한 가문의 전통을 따른 셈이다.

일본 센다이시(仙台市)에 거주하며 도호쿠제국대학 법문학부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1년 12월 9일 오창근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경에 검거되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미야자기현(宮城縣) 경찰은 오창근을 비롯한 도호쿠제대 학생들의 동향을 예의

수원학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오창근에 대한(조선독립운동 관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판결」

주시하다가 일제히 검거에 나섰던 것이다. 이에 오창근, 민태곤, 황채연, 이건호, 이용조, 박호준, 김태철 등 7명이 검거된 것이다. 일제는 '도호쿠제국대학 조선인학생 민족공산주의그룹' 사건, 또는 '센다이 조선인학생 민족주의그룹' 사건 및 '재도호쿠제대학생 조선민족독립운동그룹' 사건으로 불렀다.[15] 이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41년 12월 9일 검거 구속되어 조사받았다. 이듬해 1942년 11월 25일 기소되었고, 1943년 9월 18일 재판에서 오창근과 황채연은 징역 2년형,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일제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오창근은 민족주의적 교육을 받아 민족적 의식이 강하고 일본의 통치가 조선민족에 대하여 현저하게도 차별적임을 실감하고 불만을 품게 되어 일찍부터 조선으로 하여금 독립국가가 될 것을 염원하였다는 것이다. 도호쿠제국대학 법문학부 입학 후 각종 좌익문헌을 탐독하여 신사상(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고 식민지 해방을

확신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그 신념을 강화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를 완수하는 데에 이바지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1941년 11월 센다이시 재류 조선학생과 연락 회합하여 조선독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간에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단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객관적 정세에 적응한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 협의하는 등 제반 활동을 지속했다는 것이다.[16]

오창근·황채연(黃彩淵)·민태곤(閔泰崑)·이건호(李建鎬) 등 4명이 주동이 되어 박호준(朴鎬俊), 이영조(李榮祚), 김태철(金太喆) 등을 동지로 획득하였다. 오창근은 같은 학교 황채연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현재 정세를 파악하고 조선독립 방침을 강구하였다. 당장 독립할 가망이 희박하므로 서로 연락을 강화하고 문화운동을 통해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조선역사를 연구하기로 했다. 일본의 국력은 중일전쟁 이래 피폐된 것으로 보면서 객관적 정세에 유의하면서 일본에 혁명이 도래할 경우에 조선독립을 위하여 곧바로 궐기하기로 했다.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은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는 민족말살정책이라고 보면서 조선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유문화의 유지 발전에 있으며, 이에 한글 사용금지 정책과 창씨개명 제도에 반대함과 동시에 민족의식 계몽에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른 당면과제로 충남 공주군 공주읍 소재 실업학교에서 조선인 자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교육을 시행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는 할아버지 오덕영이 공주에 살고 있었고, 큰형 오양근이 공주에 살면서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도호쿠제대 독립운동그룹에서 차지하는 오창근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또한 일본과 소련이 전쟁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보고, 소련의 원조에 따라 조선의 독립을 실현하고, 조선독립이 실현된 뒤에는 삼민주의적 정치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협의하였다. 오창근을 비롯한 동북제대 독립운동그룹의 국제정세 인식과 현실에 대한 안목은 이후 역사적 전개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오창근은 결국 1년 10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셈이다. 이후 복학과 졸업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적어도 2년을 더 공부해야 졸업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1945년 8월 조국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2) 해방공간과 언론운동

1945년 8월 해방된 조국에서 오창근은 해방통신사(解放通信社) 기자로 활동하였다. 해방통신(解放通信)은 해방 후 최초로 나온 일반통신으로 1945년 8월 17일 일제하의 일본 도메이통신(同盟通信) 경성지사에 근무하던 김진기(金鎭琪)를 중심으로 20여 명의 한국인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오창근(수원박물관 제공)

사원들이 도메이통신 사옥(소공동 테일러빌딩)과 통신기기 및 집기 일체를 인수받아 하루 2편(便)씩 우리말로 발행한 통신이다. 외국통신사와 외신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단파수신기로 외신들을 무단으로 수신하여 신문사에 제공하는 형태였다.

해방통신사 대표는 김진기, 총무는 홍종생(洪鍾笙)·백병흠(白秉欽), 외신은 송영훈(宋永勳)이 담당하였다. 운영자금은 홍종생이 출자한 3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8월말 국내 정치의 혼란과 좌우익 갈등 속에서 김진기·백병흠·송영훈 등은 좌익노선, 홍종생은 중립노선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였다. 결국 9월 김진기 등 좌익계열은 학병동맹(學兵同盟) 그룹의 지원으로 단파수신기 한 대를 떼어 장소를 옮겨 해방통신(解放通信) 이름으로 계속 통신을 발행하였고, 잔류파인 중립계는 통신 이름을 국제통신(國際通信)으로 바꾸었다. 오창근은 김진기 등 좌익노선의 입장에 서 있었다.

오창근이 언제부터 해방통신사 기자로 결합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10월 말 전조선신문기자대회에 해방통신사 기자로 참여하고 있다. 즉 해방통신사 기자 오창근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1945년 10월 조선신문기자회 결성식이었다. 즉 전조선신문기자대회가 1945년 10월 23일 오후 4시 중앙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전조선 신문사 24개사를 대표하여 150여 명의 현역 기자와 전임 기자들이 모여 개최되었다. 조선통신사 이종모(李鍾模)의 사회로 신조선사(新朝鮮報社) 양재하(梁在廈, 1906~1966)의 개회사, 해방통신사 김진기(金鎭基)의 경과보고, 자유신문사 정진석(鄭鎭石)의 강령규약 발표, 조선인민보(朝鮮人民報) 김정도(金正道)의 선언문 낭독으로 조선신문기자회가 결성되었다.[17]

이튿날 전조선기자대회 제2일차 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24개 신문사 기자 150명이 참석해 의안을 가결할 때 오창근이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 즉 의안 2호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결의' 건을 한효(韓曉, 人民報), 오창근(吳彰根, 해방통신), 이갑기(李甲基, 釜山民衆報) 등이 "역사적 현 단계에서 우리 민족의 완전 통일의 길은 인민의 총의를 반영한 인민공화국의 지지로서 완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전국신문기자회는 인민공화국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가결하였다. 또한 북위 38도 문제의 시급한 해결은 조선통신(朝鮮通信) 대표로부터 민족통일전선과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가결하였다.[18] 오창근은 해방통신사 기자로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의견을 회의석상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명확한 인식과 태도를 견지했던 셈이다.



社會實情調査團出發
激勵의 一·一將代 쓰시

민전 사회실정조사단에 참여한 오창근
(『자유신문』 1946년 4월 5일)

그리고 이듬해 언론인들의 단결과 협조를 도모하고자 조선신문기자회 주최 제2회 전국신문기자대회를 1946년 4월 25일 서울 천주교 강당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이때 대회준비위원장과 각 부서(총무부, 연락부, 선전부, 경비부) 및 기초위원 등이 결정되었다. 준비위원장 이종모(李鍾模)를 비롯해 오창근은 연락부(부장 배은수) 부원(5명)으로 활동할 만큼 주도적이었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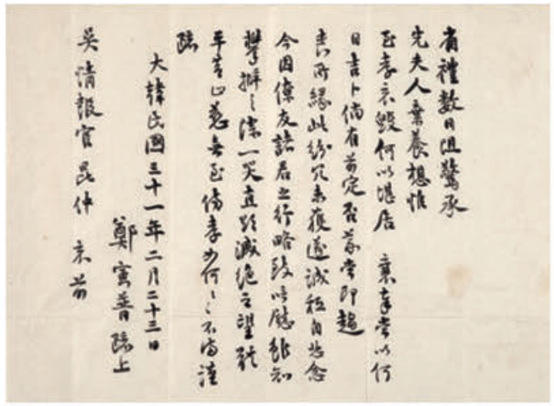
한편 민전 사회실정조사단에도 참여하였다. 민전(民戰)은 1946년 2월에 남한의 좌익 정당, 사회단체 29개가 결집하여 과도정부 수립에 참여할 목적으로 결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의 약칭이다. 조직은 여운형(呂運亨)·박헌영(朴憲永)·허헌(許憲)·김원봉(金元鳳)·백남운(白南雲) 등 5명의 의장과 10명의 부의장이 있었다. 의장단을 포함한 상임위원 73명, 전국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305명으로 구성되었다.

민전은 23개 사회단체 대표로 1946년 3월 28일 '사회실정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조사단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제1반 호남선을 중심으로 한 충남과 전라도, 제2반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충북과 경상도에 걸쳐서 약 20일 동안 사회·문화·의료 등 각 방면을 조사하기로 했다.[20] 4월 4일 사회실정조사단이 출발했는데, 오창근은 기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신문기자단으로 오창근은 해방통신사 기자였지만 '기자회' 이름으로 조사1반에 참여하였다. 해방통신사의 이문연(李文衍)이 2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사정조사단은 해방통신사가 큰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민전의 사회사정조사단 구성은 좌익적 색채가 강하였다. 그러나 1947년 10월 18일 해방통신사는 군정법률 제7호 '해방통신 폐쇄' 명령에 따라 당일 폐쇄 조치되었다. 해방통신사가 강제 폐쇄됨에 따라 오창근은 해방통신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48년 오창근 감찰위원회 정보관 임명장



1949년 감찰위원회 위원장 정인보가 오창근에게 보낸 편지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감찰위원회 활동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정부는 1948년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보처에서 명단을 발표하였다. 감찰위원회 위원장은 위당 정인보(鄭寅普, 1892~?)였다. 1948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감찰위원회 직제가 승인되고, 8월 31일 '감찰위원회 직제'가 대통령령 제2호로 공포되었다. 감찰위원회의 업무는 "공무원의 위법(違法) 또는 비위(非違)의 소행(所行)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로 직제는 위원장 1인, 감찰위원 8인, 감찰관 10인 이내, 이사관 1인, 비서관 1인, 서기관 5인, 정보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21] 이에 따라 1948년 11월 5일 감찰위원회는 감찰관(8명), 정보관(15명), 서기관(3명)을 임명함으로써 감찰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오창근은 1948년 11월 5일 감찰위원회 정보관(15명)으로 임명되었다.[22]

감찰위원회 활동은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비리공무원과 장관의 비리까지 밝히며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오창근의 감찰위원회 정보관으로서 활동은 자료 미비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찰위원회는 이후 감사원으로 발전하였다. 오창근은 6·25전쟁 때 북쪽을 선택해서 월북하였다.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분명한 자기 결정을 강요받았던 시절의 선택이었다.

5. 맺음말

근대 변혁기 영통리 해주 오씨들의 삶을 통해 다양한 근대를 만날 수 있었다. 영통리 해주 오씨는 무과 출신의 양반가문으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영통지역의 대지주로 역할하며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적 번영을 꿈꾸었던 오성선, 안빈낙도를 꿈꾸며 한시를 짓는 조선의 마지막 선비의 오득영, 일본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진보주의자 오창근 등 세 명의 결이 다른 삶을 살펴보았다.

1894년 과거제도 폐지되면서 이전에 전통적 학문을 배우고 과거를 통해 출사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이라는 자의식이 강하였다. 특히 대한제국기 관료를 지냈던 이들은 고종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 주었고, 친일과는 결이 다른 근황주의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오성선은 1892년 무과를 통해 관리가 된 인물로 조선의 마지막 양반사대부였다. 이들 조선의 마지막 과거시험 세대들의 자부심은 근대적 학문을 배운 후배들과는 다른 역사의식과 동류의식을 만들었다. 한시(漢詩) 모임을 통한 풍류와 문학적 소양을 중요하게 여겼고, 자연친화적 삶의 지향을 통해 자연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의 삶은 신산한 것이었다.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가 되었다는 자부심은 이후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국망(國亡)을 목도하며 '참담하고 노여운 시대'를 견뎌내야만 했다. 일제강점기는 '유랑과 방랑과 추방의 시대'였다. 오성선은 식민지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1908년 일본 시찰 이후 격렬한 자의식으로 조선의 농촌현실을 타개하고 잘사는 농촌의 실현과 마을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고 대한제국기 개명한 관료였고, 지역의 대표적 지주였던 오성선은 일제강점기에도 힘들게 애쓰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안락한 삶보다 농촌의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부단히 마을사람들을 계몽하고 함께 노력해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였다.

오득영은 오성선과 비슷한 듯 다른 삶을 살았다. 무관학교 출신의 군인이자 대한제국기 관료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오성선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오득영은 수원읍내의 지역 유지들과 더불어 근대적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며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였다. 영통리 해주 오씨 소종의 종손으로 상당한 토지자산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오성선과 오득영은 전통 한학을 통한 입신을 꿈꿨던 세대였기에 한문과 한시에 능하였다. 그럼에도 오득영은 오성선에 비해 한시를 짓는 문학활동을 통한 안빈낙도의 삶을 보다 강하게 꿈꾸었고, 이를 실천하였다. 자식이 없어 양자(오양근)를 들였으나 일찍 요절하면서 손자들(오일환, 오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환, 오평환)을 키우면서 갖게 된 인생무상과 자연을 관조하는 삶의 태도였다.

이에 비해 새로운 세대를 대표했던 오창근은 일본 유학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투쟁을 통한 새나라 건설에 분투하였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독립운동으로 구속되었고, 이러한 경력은 해방공간에서 강한 존재감과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에 좌익적 색채의 해방통신사 기자로 활동하며 활발하게 언론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 관리를 감독하는 감찰위원회 정보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6·25전쟁 때 북쪽을 선택해 월북함으로써 한국 근대사의 파격적이고 역동적인 장면의 주인공이 되었다.

지역의 유지 집안으로 상당한 토지를 소유했고, 영통 지역에서 영향력을 지니며 친일적 행위로 지탄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그러나 영통리 해주 오씨의 대표적 인물 3명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친일을 통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통해 삶을 구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촌 개발을 꿈꾸었던 지역 공동체를 우선했던 오성선, 식민지 경제의 탐욕보다 안빈낙도의 삶을 선택한 조선의 마지막 선비 오득영, 이른 시기 일본 유학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영통리 해주 오씨들,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며 시대의 변화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지녔던 오창근이 걸었던 고난의 길은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이었다. 아직도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3명이 걸었던 길과 그리 다르거나 멀지 않은 셈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주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해주 오씨 추탄공파의 수원정착과 오성선의 농촌진흥사업」, 『수원시사 18-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2. 지수걸, 2010,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56~180쪽.
3. 한동민, 2017, 「용수흥농주식회사와 오성선-농촌갱생의 꿈」,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우서문화재단; 서상목, 2022, 「우서 농촌 구제책의 시대적 의미」, 『모정에 홀로 앉아』, 우서문화재단.
4. 조선총독부, 1935, 『조선총독부시정 25주년기념 표창자명감』, 936쪽.
5. 酒井政之助, 『華城乃影』, 1915; 이창식 역, 2011, 『화성지영』, 수원박물관, 45쪽.
6. 이송순, 2014, 「일제하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활동」, 『수원시사 5-수원의 토지소유구조와 농업경영』.
7. 「三千圓得債 罹災民에 分配, 龍仁 吳性善氏가」, 『동아일보』 1929년 3월 11일.
8. 「村人を家族の如く愛す」, 『農村振興 京畿の光』, 京畿道, 1934.
9. 「各界功勞者褒彰」, 『동아일보』 1935년 4월 26일.
10. 「軍用機京畿號 建造費醵金者」, 『동아일보』 1937년 10월 3일.
11. 中村資良, 1921, 『朝鮮銀行會社要錄』, 東洋經濟新報社, 122쪽.
12. 「'水原號'에 凝集하는 郡民의 愛國丹誠, 누계 2만4천원 돌파」, 『매일신보』 1937년 10월 7일.
13. 진성규·한동민, 2021, 「『화은시집』 해제」, 『역주 화은시집(華隱詩集)』,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14. 문희순, 2017, 「경회(景晦) 김영근(金永根)의 한시연구-강진에서 간도까지 『원유일록(遠遊日錄)』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39, 한국시가문화학회.
15. 內務省 警保局, 1943, 「在留朝鮮人運動日誌」(1943~1944), 『特高月報』, 601쪽(『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5권);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3, 「時局關係の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續刊』.
16. 「오창근에 대한(조선독립운동 관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예심종결결정(吳彰根に對する(朝鮮獨立運動關係)治安維持法違反被告事件豫審終結決定)」.
17. 「전조선신문기자대회 개최, 조선신문기자회 결성」, 『자유신문』 1945년 10월 23일.
18. 「전조선신문기자대회 이틀째」, 『자유신문』 1945년 10월 26일.
19. 「제2회 전국신문기자대회 개최 예정」, 『서울신문』 1946년 4월 17일.
20. 「사회사정조사단 일행, 남조선 실정 조사차 출발」, 『서울신문』 1946년 4월 5일.
21. 「監察委員會職制, 大統領令2號」, 『동아일보』 1948년 9월 2일.
22. 「監委會 人事發令」, 『경향신문』 1948년 11월 6일; 「監察委員會 人事」, 『조선일보』 1948년 11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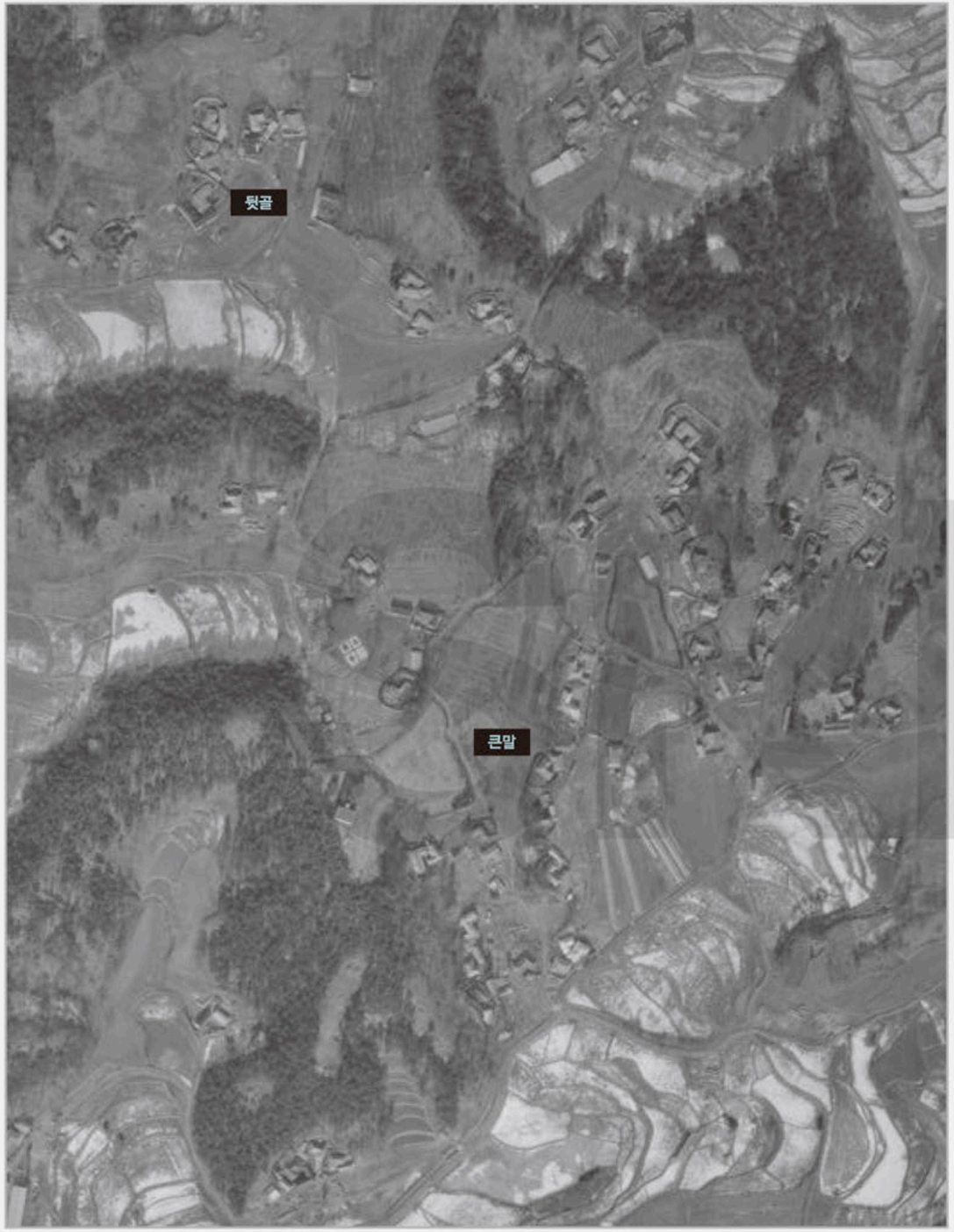
03 택지개발 전후 영통리 주민들의 생활 변화

이승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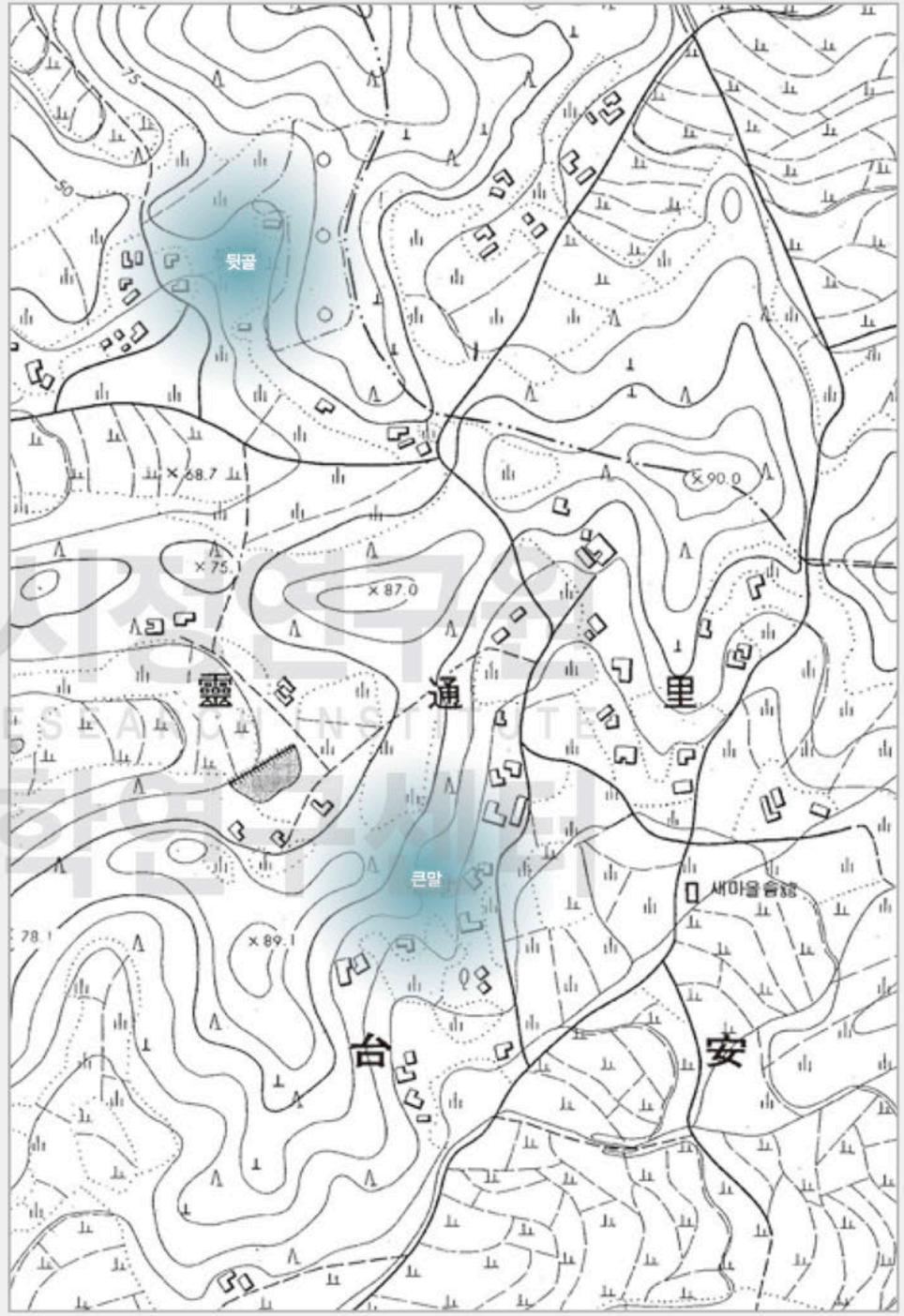
수원의 '영통'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수원의 강남, 젊은 도시, 삼성전자, 높은 소득 수준, 대학가, 강한 교육열, 학원 밀집가 등 여러모로 '살기 좋은 동네', '신도시' 라는 특징이 떠오른다. 현재 영통동은 수원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자,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지역으로, 학원과 상권의 중심지이자 대기업 배후도시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외관을 갖추게 된 지는 채 30년이 안 되었다. 영통동은 원래 농사를 짓던 전통적인 촌락공동체로, 수원과 화성의 경계이자 외곽 지대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1992년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수원영통·용인영덕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동족마을이 해체되고, 토박이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였다. 1997년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지금과 같은 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영통동 변화상을 살펴보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될 만큼 변천이 심하다는 뜻의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과거의 영통동은 어떤 마을이었을까?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생업은 무엇이었을까? 도시 개발과 시대 흐름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수백 년간 영통을 지켰던 토박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영통 마을 주민들의 과거 모습과 생활 변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영통의 토박이, 마을 사정에 해박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만나 현장조사와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여 마을 역사를 구성해 보겠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0년 영통리 큰말과 뒷골



1983년 영통리 큰말과 뒷골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리 마을 이장을 지낸
이정우(1943년생)



영통청명단오제보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오이환(1947년생)

<표 1> 구술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출생연도	지역 활동	현재 거주지
이정우	남성	1943년생	• 영통리 '뒷골말' 전주 이씨 집성촌에서 출생 • 영통리 마을 이장 역임 • 농협대의원, 농지위원회 위원, 민방위대장으로 활동	매탄동 주택
오이환	남성	1947년생	• 영통리 '큰말' 해주 오씨 집성촌에서 출생 • 영통 지역 대지주로 꼽힌 오덕영의 손자 • 영통청명단오제보존위원회 위원장, 고문 역임 • 수원박물관, 한신대학교에 영통 관련 유물 기증	망포동 아파트

대대로 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은 한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다. 영통리에 거주하던 주요 성씨는 해주 오씨, 전주 이씨, 청주 한씨, 경주 김씨 등이다.

이정우는 영통리 '뒷골'에서 13대째 거주한 전주 이씨(全州 李氏) 견성군파(甄城君派)의 후손이다. 그는 1943년생인데,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약 6년간 영통리 마을 이장을 지냈다. 이 시기는 새마을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기에, 그는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오이환(1947년생)이 나고 자란 영통동 '큰말'은 해주 오씨(海州 吳氏)가 오랫동안 세거한 마을이었다.[1] 오이환은 영통구의 대표적인 축제 겸 주민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은 영통청명단오제를 시작한 인물이다. 영통리에서 천석꾼으로 불린 조부 오덕영의 메이지대학 재학 당시 사진, 각종 상장, 호패와 도장 등 과거 영통 지역을 보여 주는 경제자료와 교육자료 등을 박물관에 기증하는 등 영통의 역사를 거론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중반 택지개발로 전통적인 집성촌 마을이 해체되는 시점에 마을을 떠났다. 이들은 기존의 영통 마을에서는 떠났지만, 여전히 영통구에 머물고 있다. 이정우는 현재 매탄동의 주택가에, 오이환은 망포동 아파트촌에 거주하면서 예전 토박이들과 교류하고,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맡으며 마을의 큰 어른이자 터줏대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영통의 과거 생활상, 마을의 변화,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경계지역 농촌마을의 풍경과 주민 삶

영통동은 택지개발 전까지 농촌마을이자, 화성과 용인의 경계에 있던 지역으로, 교통 오지에 속하던 곳이었다. 택지개발 전까지 영통은 행정구역상으로 한동안 수원이 아닌 화성군 태장면 소속이었다가, 1994년 영통지구가 개발되면서 수원시로 편입되었다.[2]

1914년 4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영통동은 '영통리'라는 동네였다. 영통리는 큰말, 뒷골, 새터말, 안영통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대부분 자취가 사라진 상태이다. 토박이들은 '영통리', '영통동'보다는 '영통'이라는 지명을 주로 사용한다. '큰말'은 본래 영통리가 생겼을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마을로, 영통사와 반야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3] 영통리에는 지주 집안인 해주 오씨들이 많아서, 한때는 전체 60~70여 호 중 해주 오씨가 30여 가구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청주 한씨, 전주 이씨, 경주 김씨 등이 거주하는 집성촌이었다. 해주 오씨 종손인 오이환의 집터에서 직선거리로 70m 정도 떨어진 지역부터 용인군에 소속되었으니, 수원에서도 변방 지역이었다. 영통리는 용인시 서농동과 영덕동, 화성시 반월동에 가까워서 이들 지역과 공통된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오이환 영통이 옛날에 화성군이었어요, 태장면의. 화성군하고 용인군의 경계. 우리 집에서 집터에서 직선거리로 한 70m 정도가 그 용인군. 직선거리로 그렇게 돼요. 저보다 더 가까웠던 집이, 저기 김진흥 영통구청장 초대 했던, 진흥이네 집이 오히려 우리 집보다 더, 진흥이네 집은 한 40m 정도. 저도 중학교를 수원에서 다녔거든요. 수원북중을 다녔는데. 수원 사람이 그때는, 수원이 여기가 수원이었으니까. 수원시가 수원군 수원읍이었는데, 수원 인구가 돼서 이제 시(市)로 승격을 하다 보니까. 수원군 수원시, 어! 이상한데? 그래 갖고 수원시를 또 달리 이름 하기도 그러니까 수원시라 그러고, 수원군이 화성군이 돼 버린 거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택지개발 전 영통리 큰말(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택지개발 전 영통리 뒷골(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SW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택지개발 전 영통리는 주로 논농사를 짓던 지역이다. 밭에서는 약간의 콩, 보리, 수수, 잡곡류 등을 생산했으며, 과수원은 없었다. 농경지가 넓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낙후된 편이었다. 빗물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던 천수답(天水畓)으로 운영하다가, 1970년대 농업용 관정을 파고 펌프를 설치해 물을 구하였다. 물이 부족한 동네의 경우, 서로 물을 사용하려고 집안들끼리 물싸움도 하곤 하는데, 영통리는 천수답이 잘 되어 있어 주민들끼리 사이가 좋았다.

영통리에서 큰 지주로 꼽히던 이는 오이환의 조부인 오덕영(1887년생)으로, 천석꾼으로 불렸다. 토지를 갖고 있는 대성(大姓) 집안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라서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통리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인근의 태장초등학교로 진학하였다. 태장초등학교는 1922년 공립보통학교로 설립하였는데, 오덕영이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고 동네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내어 1919년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4]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태장초등학교는 영통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태장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면 학생과 학부형뿐 아니라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흥겹고 떠들썩한 마을 행사가 되었다. 영통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과 화성의 경계지역이었지만, 생활권,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수원과 훨씬 밀접하였다.

오이환은 태장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원북중학교를 거쳐, 서울 경동고등학교, 고려대학교에 진학하였다. 해주 오씨와 청주 한씨 후손 중에는 수원이나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이가 꽤 있었다.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심해졌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분위기가 가속되었다. 1930년대 30여 가구에 달하던 해주 오씨 집안은 택지가 개발될 당시인 1990년대 중반에는 6~7가구만 남아 있었다.

> 오이환 과수원은 없었고, 논농사, 밭농사. 농지가 많지 않았어요. 확실히 농경지가 많지는 않은 동네였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는 좀 낮았죠. 여기 이제 대성(大姓)으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실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죠.

영통리는 땔감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먼 산에 가서 땔나무를 마련하는 '먼산나무'를 했다. 아침이면 밥과 짠지를 넣은 도시락을 메고, 용인 삼가동의 부아산에 가서 땔나무를 마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973년, 영통리 산 1번지 일대에서 농촌연료를



朴대통령은 25일 경기도화성군의 농촌 연료채취교육장을 시찰했다.

"樹種개량·燃料林확보·山林조성 一挙三得 효과얻게"

朴대통령 指示

【水原=李鎔昇記者】朴正熙 대통령은 25일상오10시 京畿道華城군台안면鷺通리山에 서있은 농촌연료채취 교육장을시찰, 林野廳산림청장으로부터 농촌연료채취방법등에관해 보고받았다。

朴대통령은 이자리에서 『治山녹화10개년계획의 첫해인만큼 관계관은 정부 시책을 전국농민에게 철저히 인식시켜 산림녹화계획 을착수하고 첫도및도별의 연료채취는 규모있고 짜임 새있게 벌채토록 특별지도 를하라고 지시했다。

朴대통령은 『농산물에서나 임산물을 연료화하는방법 을강구하고 첫도및도별의 연료채취는 규모있고 짜임 새있게 벌채토록 특별지도 를하라고 지시했다。

朴대통령은 이날 金오내무장관 孫산림청장의 안내로 잠욱숭아내기, 가지치기, 잔벌작업장, 연료채취교육장 을 40분간시찰하고 가지치기작업을 몇이고있는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날 교육장에는 내무부산림청직원들과 各道산림주장및 산림조합연합회 지부장 各市道郡산림과장 京畿道내 시장군수 현지부락민등 5백여명이참석했다。

영통리 산1번지(영흥산)에서 실시된 농촌연료 채취 교육에 참석한 박 대통령(『경향신문』 1973년 10월 25일)

채취하는 시범 교육이 있었다. 여러 지역에서 참석한 산림 관계관에게 가지치기, 솎아내기, 추풍령식 벌채에 대해 연료 채취 방안을 가르쳤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내무장관, 산림청장, 경기도지사, 각 시도 관계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큰 규모였기에 화제가 되었다.[5]

오이환 영통에서만 땔감을 하는 게 부족해 가지고 '먼산나무'라는, 그냥 먼 산 나무하러 간다고. 아침에 밥은 그때 도시락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사발 이렇게 탁 엎어 가지고. 밥이지, 뭐 밥만이지, 그 다음에 짠지, 이런 거 뭐 한 몇 조각, 그걸 싸 가지고. 용인에 '부아산'이라고 있어요. '어깨산'이라고도 그러는데. 어린애를 이렇게 안아,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세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 정확한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또 어떻게 영통이 시범 지역이. 그때는 영통 전역은 아니었고. 지금 영통 /번지, 산 /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영흥공원이라고, 이 공원 자리가 있어요.

논농사로 바쁜 중에 잠시 한가한 틈인 망중한(忙中閑)에 주민들은 개울가에서 고기를 잡아 매운탕과 수제비를 끓이고, 빈대떡을 만들어 나눠 먹었다. 마을에 크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늘이 크고 시원하여 어른들은 여름이면 그 밑 멍석을 깔고 앉아 쉬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나무속이 사람 4명 정도 들어갈 크기로 비어 있어서, 영통리의 아이들은 느티나무 안을 들락거리며 술래잡기를 했다. 영통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던 이 느티나무는 지금 단오어린이공원(영통동 1047-3) 안에 있다. 아이들은 '박판서'라고 불리던 사람의 묘지 터에 가서 뛰어 놀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문 근처에 '옻우물'이 있었는데, 옻이 오를 때 이 물을 마시면 나았다. 영통도서관 주차장 자리에는 독침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영통리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했던 느티나무
(영통동 1047-3번지, 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작은 옹달샘이 있었는데, 여우가 마셨다고 하여 '여우물'이라고 불렀다. 영통리 토박이들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우물이나 지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추억들이 줄줄이 나온다. 개발로 대부분 사라지고 없기에, 그만큼 아쉬움도 크다.

오이환의 집은 대지가 940평에 이르는 넓은 집이었다. 정원을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아, 택지개발 전까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이환의 집 근처로 소풍을 가서, 집을 구경하기도 했다. 그의 집은 '큰말'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있으며, 동네의 끄트머리 높은 곳에 위치했다 하여 '구석집'이라는 옥호(屋號)가 붙었다. 동네 남성들, 노인들은 오이환의 조부인 오덕영의 집 사랑방에서 담소를 나누며 어울렸다. '박 서방'이라는 사람이 사랑방에서 옛날 소설을 읽어 주고, 사람들은 이를 함께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주민들은 상조계(相助契)를 조직하여 혼사나 장례를 치를 때 쌀 한 말씩을 내고 같이 음식을 해서 나눠 먹으며 도움을 주고받았다.

영통리는 인구가 많아 북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마을이 아니었다. 수원, 화성, 용



오이환이 거주하던 영통리 큰말 구석집(1993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인에 접해 있어 어느 지역에서도 중심지가 아닌 변방지대였으며 다소 소외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소박한 가운데도 서로 간에 예의와 인정이 넘치던 곳이었다. 대성가문의 나이 지긋한 남성들이 마을의 중심이 되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였다. 농사를 짓는 일반 주민들끼리의 관계도 원만하였다. 택지개발 전까지 영통리는 소박하고 정겨운 농촌 마을로,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던 공간이었다.

2. 마을 이장 중심의 공동체

이정우의 고향인 영통리 '뒷골말'은 독침산 북동쪽에 있었던 마을로, 현재 영덕초등학교와 영덕중학교가 들어서 있는 자리이다. 영통리에서 가장 후미진 곳, 혹은 큰말에 비해서 뒤에 생긴 마을이어서 '뒷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6] 뒷골말은 태안, 수원, 용인, 오산 등 어느 지역의 중심지에서도 20~30리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교통이 좋지 않고, 시장을 보러 다니기에도 꽤 불편한 마을이었다.



영통리 자택(영통리 136번지)에서 이정우와 자녀들(1985년, 이정우 제공)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이정우 원래 이 동네는 다, 왜냐하면 영통이라는 데는 또 다른 데보다도 오지 마을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입이 더 힘든 지역이라서 그렇죠. 영통이라는 데가 아주 오지 마을이었거든.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동네가 있고. 이제 '큰말'이라는 데가 제일 큰 동네고, 그다음에 '뒷골말'이라고, 우린 이제 '뒷골말'이야. 거기 이제 거기가 경계가 용인시하고 같은 경계에요. 수원시도 경계가 되고, 화성군도 경계가 되고, 거기에서 들은 데가 영통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안농협의 태안면에서 제일 오지였어요. 42개 부락에서 제일 오지였어요. 내가 이장 볼 때 42개 리(里)가 있었어요. 영통이 아주 빈곤했었어요. 토지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고개를 넘는다는 게 어떻게 조그마한 산이에요. 나무도 막 있고, 이렇게 길만 이렇게 뚫려서 넘어가면 한 마을이 있고, 또 고개 넘어가면 또 한 마을이.

이정우는 태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다가, 군 복무 후 서울에서 10여 년간 장사를 하다가, 결혼하고 영통리에 돌아왔다. 마을 이장은 보통 그 마을에서 오래 거주한 중년 이상의 남성이 맡는다. 30대 중반이 되어 이정우가 마을에 복귀하자, 노인들은 그를 환영하며 젊은 사람이 이장이 되길 희망했기에, 다소 이른 나이에 이장이 되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다시 서울로 갈 준비를 하고자 했던 이정우의 삶은 이장이 되면서

크게 달라진다. 1970년대 후반 농촌, 그 중에서도 오지에 속하던 영통리에서 마을 이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장의 업무와 일상을 살펴보면 당시 영통리의 특징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려볼 수 있다. 이정우는 이장이 되면서 집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였다. 앰프(음향기기)를 통해 아침마다 마을 소식, 새마을사업에 대한 공지, 각종 주의사항,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방송하였다. 집에 머물거나 논밭에서 일하던 주민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들으며 마을 소식을 접했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였다.

> 이정우 (방송 장비가) 이장 집에 있었어요. 이장이 아침이면 민원 같은 거 주민들이 알리게 방송을 다 해 주고, 또 무슨 뭐 행사 같은 게 있으면 행사 같은 거 전부 방송으로 해서 이제 새마을사업 하면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오늘은 뭐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달라." 내지는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 하고.

이정우가 이장을 맡았던 시기는 1978~1984년인데, 당시 농촌 이장은 큰 권한과 의무를 가진 마을 책임자였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이장이 해야 될 일도 많았다. 이장이 출생 신고, 전출입 신고까지 담당했기에 그의 집은 지금의 주민센터와 동일한 기능을 했다. 교통의 오지라서 면사무소와 시내 출입이 어려웠기에 주민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볼일을 보러 나가는 이장에게 개인적인 대소사도 부탁하였다. 주민들 중 결혼식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된
영통리 새마을회관
(이정우 제공)





새마을사업을 추진 중인 영통리 주민과 이정우(이정우 제공)

이 예정된 사람이 있으면, 이장이 수원 시내에 가는 길에 인쇄소에 들러 청첩장 인쇄를 맡겼다. 요즘은 친척이 예식장에서 방명록과 축의금 관리를 주로 하지만, 당시에는 마을 이장이 접수대에 앉아 이러한 일들을 직접 담당하였다. 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온갖 경조사까지 이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보니 이장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이정우의 집은 주민등록 서류를 비롯한 온갖 문서의 사본으로 가득했고, 출퇴근 시간의 구분 없이 일을 처리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의 방문으로 북적였다. 앰프와 확성기를 통해 마을 전체에 소식을 전달했기에 그의 집은 작은 지역 방송국과도 유사한 역할을 했다. 1970~1980년대 마을 이장은 영농회장, 농지위원회 위원장, 예비군 소대장 직책을 겸임했기에 이 업무도 모두 이정우의 몫이었다. 외부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 토지를 구입하거나 팔더라도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 줘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택지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러 왔고, 이정우는 일일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느라 더욱 분주해졌다. 요즘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이나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 이장, 통장, 반장들도 마을에 누가 살고 있고, 누가 떠나며, 어떤 이에게 어떤 소식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리 마을 잔치(이정우 제공)

영통리는 지형적으로 오지 마을에 해당되어 전기가 늦게 가설된 편이다. 1974년경 전기가 들어왔는데, 오이환이 직접 발로 뛰어가며 전기를 신청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집성촌 대성가문에서 똑똑하고 적극적인 이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행동하며, 다른 마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다.

오이환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전기사업 들어오고 그럴 때. 도저히 안 되겠어. 아유. 내가 어떻게 하면, 발로 재 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몇 m. 그러면 20m 하나씩 해서 큰 전주, 그다음에 작은 전주 몇 개, 큰 전주 몇 개, 그다음에 전선을, 외선은 전기회사에서 해줘요. 그다음에 집에 안에 내선, 그거 다 집집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면 그리고. "우리도 전기 좀 해 달라!" 고. 74년이었나?

영통리 토박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으며 멀리 나무를 베러 가고, 함께 묘목을 심고, 새마을사업에 참여하였다. 마을방송을 통해 농사일에 관한 소식, 경조사, 우환 등을 공유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돈독한 유대감과 친목을 쌓았다.

3. 공연과 행사를 통해 화합하던 주민들

지금처럼 각종 오락, 쇼핑, 관광 등이 다양하지 않던 시기, 영통리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농업을 생업으로 하던 이들은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한가한 시기에는 행사와 공연 등을 가지며 망중한을 즐겼다. 오이환은 마을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단오제(端午祭)와 공연을 꼽았다. 음력 5월 5일 단오는 양력으로 6월 중순~말쯤에 해당한다. 파종을 하고 모를 낸 후 잠시 숨 돌릴 여유가 있는 기간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다지며, 재액을 예방하고 풍년을 기원한다. 영통리 성인 남성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새끼를 꼬아 큰 밧줄을 만들어 그넷줄로 삼으면, 여성과 어린이들은 그네를 탔다. 영통리와 용인군 하갈리를 연결하던 고개를 '옻고개'라고 불렀는데, 남성들은 이 고개를 넘어 저수지나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고 놀았다.

오이환 내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거기 느티나무 밑창이 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이제 여름에는 멍석 깔아 놓고들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됐잖아요. 느티나무가 이렇게 가장이가 아주 이렇게 쭉쭉, 거기에다 그네를 매주신다고요. 이렇게 꼬아서. 그 동아가 짚으로 이렇게 하면 돌려 하는 게 있어요. 뒤에서 돌아가면서 꽈져. 그러면 꼬아 가지고 기다랗게 해서 한번 다시 세 번을 꼬면 완전히 동아 밧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굵은. 어른들이 하지, 나는 못 꽈 봤어요. … 단오라는 게 그 농촌에서 보리타작 하고. 그다음에 모내고. 모내기까지 끝이 나면 그다음에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요. 망중한이지. 논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망중한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논을 매어야 하는데. 논을 세 번을 보통 매거든요. 초벌, 세 벌. 그다음에 마무리해서. 그걸 훔친다고. 마무리는 그러죠. 그 사이에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네도 타고, 그다음에 천렵도 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오이환의 부친인 오창근의 주도로 동네에 무대를 만들어 〈원술랑〉, 〈화랑 관창〉 등의 연극을 공연했다고 한다. 화랑은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내놓고 조국을 구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원동력이 된다. 암울한 시기 민족정신과 의지를 표현하고, 이를 동네 주민들에게 암암리에 고양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주제의 공연을 했으리라고 오이환은 해석하였다. 아버지와 그의 지인들이 극본을 각색하였고, 동네 젊은이들이 배역을 맡아 며칠씩 연습하였다. 지금의 영통사(영통동 1048-4)에서 40~50m 떨어진 언덕배기에 묘지가 있고, 주변에 평평하고 넓은 땅이 있다. 주민들은 절 부근의 큰 소나무 한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무대를 만들었다. 집집마다 대문을 떼어내 이어 붙인 후, 그 위에 멍석을 깔아 무대를 만들었다. 집마다 공출한 멍석의 귀퉁이를 꿰매어 휘장처럼 사용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추석 때 밝은 달 아래에서 열리던 공연에는 영통리는 물론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합하여 100여 명씩 관람하였다. 동네 어른들은 다 같이 먹을 간식거리를 준비하였다.

> 오이환 아래쪽에다가, 우리 동네는 아주 오랜 전통으로 일정 때 우리 아버님들이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연극을 각본을 쓰고, '원술랑', '관창' 이런 거를.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 해서. "너는 관창을 해라!", "너는 아무개를 해라!", 해서 각 대본 다 줘 가지고, 몇 날 며칠 연습을 시키고, 분장도 하고. … 동네 어른들, 청년들, 다. 무대를 만들면 기둥은 소나무 세 개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쪽은 기둥이 없으니까 기둥 하나 세우고. 이제 가로다지를 나무들 갖다가 하고. 밑창에 깔판이 문제잖아요. 온 동네 대문이란 대문은 다 떼어다가. 그날은 대문 공출이야. 기억이 나는 게 '원술랑', '화랑 관창' 이런 거였는데. 아버님이 처음에 시작은 아버님이 하셨대요. 그때는 일정 때고 그러니까 우리 것, 우리 것 하느라고. 우리 민족혼, 뭐 등등 이런 거를 암암리에 고양하고 하는 어떤 목적 때문에.

오이환의 아버지가 작고한 후, 오이환의 사촌 형과 누나들이 이를 계승하였다. 이들은 모여서 15일씩 연습하며 준비하였다. 친척 형 중 수원농고(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다니던 이가 밴드부 활동을 하던 친구를 마을에 데려와 3~4년간 트럼펫 연주를 하게 했다. 주민들은 농촌에서 쉽게 보기 힘든 금관 악기를 구경하고, 음악을 들으며 신기해하였다. 공연의 시작은 마을의 몇몇 엘리트 남성들이 주도했지만, 어느새 동네 주민들이 모두 준비하고 즐기는 축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공연을 주도하던 해주 오씨들이 서울로 유학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하며 공들여야 하는 연극 공연을 지속하기 힘들어졌다. 대신 노래 자랑 형식의 동네잔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택지개발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가 와해되기 전까지,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러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4. 영통지구 택지개발과 주민 삶의 변화

소박하고 정겹게 살아가던 농촌마을 영통리는 199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맞이한다. 1993년 9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도권 택지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일원,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신시가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38만여 평의 부지 위에 아파트 2만 6,490가구와 단독주택 540가구 등 모두 2만 7,03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여 10만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4만 1,800여


부동산

水原 영통
龍仁 영덕

『제2신도시』 조성

모두 百萬평 96년까지 택지개발

고속도로변 교통요지·전원풍경등 立地조건 '만점'

소형위주로 2萬7千여가구 건립

신도시 단독택지 채권금지 검토… 이달 아파트 용주8개구 공급

분양정보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지구 개발사업(『경향신문』 1993년 2월 1일)

평에는 각종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다.[7]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대도시지역의 주택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영통리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 했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던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을 꽤 받았다. 그런데 영통리는 농경지 규모가 작고, 땅을 많이 가진 이도 드물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삶의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쫓겨 나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토지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나머지는 연리 11%의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하고 현지 지주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나머지는 연리 10.5%의 1년 만기 채권으로 각각 지급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지구 내 가옥 소유 주민들은 3,000만 원의 현금과 감정평가에 의한 약간의 건물 보상비로는 이주 가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현금 지급 한도액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영통에서 해주 오씨 집안은 토지를 많이 소유했기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비상대책위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지낸 이는 오이환과 같은 해주 오씨 일가인 오유환이다. 오유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토개공이 보상금 지급원칙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특히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부실해 공사착공과 함께 주민들이 이주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8] 오이환도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영통의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는 데 힘썼다.

주민들이 받은 단독주택지는 지금의 영통2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앞이다. 오이환은 개발 전, 3,000평 규모 대지의 주택에 살면서, 정원에 온갖 나무와 꽃을 심어 관리하였기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오이환 집 앞으로 소풍을 와서 정원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등 마을의 명소로 꼽혔다. 그런데 당시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이렇게 넓은 주택도 60평 규모의 대지를 받을 뿐이었다. 그는 영통동이 개발되는 시기에 매탄동 한국1차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망포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하지만, 택지개발로 대대로 살던 넓은 집을 떠나게 된 것에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이정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된다니까 사실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보상을 받으니까 좋은데,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이환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사는, 여기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사요. … 또 단독주택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거기 살던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사는데 팔 때는 평당, 무슨 이를테면, 10만 원을 얻은 게 다 택지개발하고 도로 다 해놓고 나니까 평당 200만 원이요.

평생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며 받은 보상금을 밑천으로 장사를 하거나, 수원 혹은 인근 지역의 공장 일용직 노동자, 건물 경비원 등으로 취업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원래 살고 있던 영통리에서 가까운 지역인 매탄동 주택단지로 많이 이주하였다. 영통리 이장을 지낸 이정우도 매탄동에 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를 놓아 그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주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확정된 후, 마을회관 등 공동재산에 대해 받은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영통리 뒷골말에서는 사무실을 하나 지어 주민들의 모임터로 갖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각각 어느 동네로 이주하게 될지 모르고, 훗날 누가 다시 마을로 돌아올게 될지, 사무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부분이 없었기에 사무실 설치는 무산되었고, 토박이들의 모임 공간도 사라졌다.


1995년 영통택지개발지구 건설현장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정우 주민들이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서 이제 마을에도 인제 마을회관이 있고, 동네 그 자본들이 있으니까.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어디 가서 토개공(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서 시위도 해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땅 많은 사람들은 다 찾아가. 없는 사람들만 갖다 들어 와요. 무슨 효과가 있어? … 거기다가 여기 와서 사무실을 하나 하자. 사무실 하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거기에 또 반대가 많은 거야. 각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뭐를 지어 놓고, 누가 사후 관리하나? 그다음에 그 혜택을 또 볼 사람들이 여기에 살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충돌이 있어 가지고서 나중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지한 거예요.

개발은 마을 주민들의 삶에서 큰 변환점이 되었다. 오지마을이 개발됨으로써 토지보상금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임대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도 생겼다. 다른 지역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는 이도 있다. 이들은 비록 고향이 사라지고 삶이 달라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윤택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농사꾼에게 갑자기 보상금으로 현금이 들어오자 외지에 나가 살던 형제나 일가친척 등이 돈을 빌려 달라거나, 나눠 달라고 요구하며 분란이 생기고, 사이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했다가 돈을 모두 잃고, 노년을 궁핍하게 지내기도 한다. 순진한 마을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이 접근했고,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오이환 영통 토박이들로서 영통에 나중에 다시 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것도 안 돼. 10% 정도였거든요. 그때 입주 시기에. 이제는 15% 될 거야, 아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을 사면은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돈 받은 거를 보고 무슨 친척에다, 뭐 형제다, 무슨 뭐다, 와서, "나는 뭐 없냐?" "오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참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집도 제대로 … 그러다 보니까 영통에 다시 들어와서 산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997년 영통지구 택지개발이 완공된 후, 주민 중에서 다시 영통동에 입주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10% 정도였고, 지금은 조금 증가하여 15%쯤 된다. 영통지구의 주택가나 아파트에 다시 들어와 살더라도, 과거 살던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지 고향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동체가 해체되었고, 평생 유지해 온 생업이 바뀌었으며, 마을의 경관과 익숙하던 생활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실향민(失鄕民)'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에서 실향민은 주로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을 일컫는데, 영통리 주민들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존치된 영통사(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오이환 시골 옛날, 그 머릿속에 있는 고향, 마을 도랑 등등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제 경우는 그 실향민들, 지금 남아 있는 거라고는 저 청명산 밑에 저 반야사하고, 영통사. 영통사도 뭐, 새로 이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거지. 그나마 거기가 거기다, 라는 정도로.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 있는 게 없어. 느티나무 하나 있었는데 느티나무가 저기 그냥 그 바람에. 완전히 '실향민'이라니까. 그냥 이 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고향 풍경은 모두 사라졌다. 오이환을 비롯한 영통 토박이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일찍이 촬영해 두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화하던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집을 떠나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잔치, 졸업식 등 특별히 기념할 만한 행사 때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사는 집, 이웃집, 논밭, 산천, 일상을 카메라에 담는 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과거 영통리를 상기시키는 존재로서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청명산 아래의 반야사(영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2017년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에 선정된 영통동 느티나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통구 청명북로 66)와 영통사(영통구 봉영로 1658) 사찰이다. 수인분당선 청명역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가까이 들어섰기에 두 곳 모두 도심 속 절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것은 영통동 단오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이 나무는 500년 가까이 영통리를 지키던 명물이자, 주민들의 일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존재이다. 느티나무는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되고, 2017년 5월 '대한민국 보호수 100選(선)'에 선정되면서 원주민은 물론 영통신도시에 새로 들어온 주민들에게도 자부심을 안겨줬다.

그런데 2018년 6월 강풍과 폭우에 나무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영통 마을 주민들의 상실감도 대단하였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남성들은 새끼 꼬기를, 노인들은 휴식과 담소를, 부녀들은 그네타기를 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일상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영통동 느티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닌,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상징적인 존재였다. 수원시는 보호수 밑동을 보존해 밑동 주변에 움트고 있는 맹아(萌芽, 새로 돋아나오는 싹)와 실생묘(實生苗, 씨앗에서 새로 난 묘목)를 키워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9] 밑동만 남아 있는 나무이지만 다행히 살아남은 가지와



2018년 6월 26일 태풍으로 부러진 영통동 느티나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20년 영통동 느티나무 후계목(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학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뿌리 쪽에서 새 촉이 올라와 이제 제법 자란 상태이다. 자라나는 느티나무를 보면서 주민들은 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대견함과 수원시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오이환 느티나무에 대한 상실감이 참 대단히 커요. … 실생(實生), 저 떨어져 가지고 싹 난 게 이만했던 거 자라는 거 보니까 그놈이 오히려 더 튼실해. 그래서 "야! 실생이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대견해.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시(市)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5. 청명단오제, 영통의 역사를 잇다

1960~1970년대 영통리 젊은이들이 도시로 유학을 떠나고, 전국적인 이농현상과 맞물리면서 영통리의 인구수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1969년 삼성전자가 매탄동 일대에 자리 잡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도 함께 변화하였다. 생산라인의 근로자들이 증가했고, 이들이 공장 근처에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였다. 1980년대에는 월세 방을 구하는 사람들, 표준주택을 구입해 들어오는 이들,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로 영통리 주민 수가 늘어났다. 수백 년간 조용한 집성촌 마을에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 마을 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태어나 성장과정을 지켜봤으며, 혈연관계로 얽혀 있었고, 태장초등학교 동문이라는 학연으로 연결되었다. 경조사를 공유하고, 새마을사업에 참여해 마을 발전을 이끌고,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끈끈한 결속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영통동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토박이들과 가까워질 명분도 없었고, 상조계와 같은 기존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개인의 삶에 집중하였다.

오이환 영통이 가구 수가 좀 있다가, 좀 줄었다가, 그게 이제 이농현상 등등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다고 그랬었잖아요. 한동안은 그렇게 뭐 별 변동이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변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영통에 이제 가구 수가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려가서 한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80년대, 그쯤 됐을 거예요. 80년대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방 구하기도 그렇죠. 힘든 그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흘러 흘러 영통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조그맣게 집을 새로 짓, 그냥 단독 주택에다가 방 하나 놓는 거 형태인 거죠. 아니면 집을 새로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농가 개량된 농가 주택을 보급을 하고 그랬었어요. 표준주택들, 농가의 표준주택들이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얻어 가지고 집 없는 분들이 그걸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여러 채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오이환은 집성촌 토박이이자 대지주의 후손으로서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였고, 공동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주민들은 그러한 오이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민 전체가 서로 속속들이 알고 지내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서로 인사도 없이 지나치며 마을 분위기가 점차 각박해지는 것에 오이환은 속이 상하였다. 과거 영통에서는 청년 한 명이 입대를 하거나, 누가 이사를 떠날 때도 일일이 챙겨 주는 문화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분위기를 이어 가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마을 단합을 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하던 끝에 그는 단오절 행사를 추진하였다. 음력 5월 5일인 단오는 농사가 한창 바쁜 시기이다. 농업은 개인이 아닌 마을별로 협동이 필요하기에, 마을 단위로 만든 공동 노동조직인 두레가 있었다. 두레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농악인데, 힘



1980년대 중반 영통리 두레 풍물
(이정우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 두레패 깃발과 악기(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든 농사일을 북돋기 위해 작업을 하러 갈 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깃발인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풍물재비들이 장구·꽹과리·북을 치며 일터로 간다.[10] 영통리는 마을 두레의 수준이 높아서 다른 마을에서 "영통 두레를 못 이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때 태장면의 대표로 선발되어 화성군 두레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정우 서로 진짜, 하다못해 군대를 가도 송별식을 꼭 했고, 누가 이사를 가도 다 가서. 딴 두레들은 영통 두레를 못 이겼어요!

과거 두레패를 이끌던 노인들은 고령으로 작고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했고, 젊은 층 중에는 이를 제대로 물려받은 이가 없었다. 오이환은 먼저 한국민속촌에 가서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숙소에 가서 동네 상황을 설명하며 주민들에게 두레 농악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지를 수소문하였다. 이에 풍물패를 지휘하는 상쇠가 직접 영통에 와서 주민들에게 몇 달간 장단을 가르쳤다. 오이환과 가깝게 지내던 동네 남성들은 이를 함께 배웠고, 영동시장에 가서 옷과 음식을 장만하였다.

단옷날과 가까운 일요일 아침, '영통의 허파'라고 불리는 청명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에 내려와 느티나무에서 고사를 지냈다. 주민들은 마을의 평화, 주민들의 화목,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 마을 행사가 있다는 고지를 들은 이주민들도 아침부터 마을이 종일 떠들썩하자 하나 둘 모여 들었고, 이를 계기로 토박이들과 인사하고 통성명을 했다.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자연스레 어울리게 되었다. 한번 친교를 맺게 되자, 직장을 다니는 이주민들과 농사를 짓는 토박이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마을 분위기도 좋아졌다. 도시화와 주민들의 이주로 기존 마을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다시 등장하여 큰 역할을 한 셈이다. 단오제는 영통리청년회에서 맡아서 1983년부터 10년 넘게 지속하면서 영통의 결속과 화합을 다졌다.

오이환 영통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이웃사촌처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 "'화목'이 첫째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어느 시골이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외지에서 다른 데서 오고, 저 단오제를 다시 한 이유도 이제 그중에 하나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잘 이렇게, …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래도 같이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한 동네가 또 없잖아? 영통 말고는! 또 어디 있어요?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영통리 주민들은 1994~1995년에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공사가 끝나고 원주민들의 일부는 영통으로 돌아왔지만 소박하고 정겨웠던 농촌 마을은 세련되고 웅장한 신도시로 변모한 상황이었다. 이주자 택지 혹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끔 자신들이 살던 영통을 지나가던 이들은 낯설게 바뀐 경관과 소멸된 기존 공동체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

이에 영통동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영통청명단오제보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과거 단오제와 마을 공연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오이환이 초대 보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영통청명단오제를 준비하였다.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전문가에게 정식으로 자문을 받아 전통제례의 원형에 근접하게 당산제향을 고증하고 의식을 복원하였다.

2005년부터 재개된 영통청명단오제 행사는 2022년까지 벌써 16회째 이어지고 있다.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다. 2018년 6월 느티나무가 폭우에 쓰러지자, 느티나무가 없어진 영통동 단오어린이공원 대신 장소가 넓은 주변의 영통사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당산제가 아닌 대동기원제를 지냈다. 2022년부터는 다시 느티나무가 있던 영통동 단오어린이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대동기원제를 지냈다. 장마로 쓰러진 뒤 밑동만 남아 지역 주민들을 참담하게 했던 느티나무 주변으로 새끼나무가 많이 자라 아름드리나무의 밑동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11]

영통청명단오제는 이제 영통구는 물론 수원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수원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구청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산신제와 대동제를 포함한 제례의식 외에 개막행사, 공연한마당, 참여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 번화한 아파트 도심 한복판, 초여름 햇살 속에서 치르는 단오제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주부들, 장기자랑에 직접 참여하거나 응원차 나온 중고생들, 마을을 떠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2009년 제5회 영통청명단오제 당산제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08년 제4회 영통청명단오제 행사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원주민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관람하러 온다.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통의 역사와 변화상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이다. 하지만 이들은 행사의 기원과 성격을 기재해놓은 리플렛을 살펴보거나 축사와 기념사를 들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영통이 어떤 지역인지, 왜 이곳에서 단오제가 열리는지 알게 되고, 그 의미를 한 번씩 되새기게 된다.

1980년대 마을 분위기를 통합하기 위해 시작된 단오제는 택지개발 후, 신구 세력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고 영통동을 널리 알리는 지역축제로 변모하였다. 청명산을 누비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를 뛰고, 오지 마을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애쓰던 영통의 원주민들은 폭우에 꺾인 후 다시 자라는 느티나무의 생명력을 보면서, 신도시를 활기차게 다니는 주민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7년 청명단오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주

1. 수원문화원, 『수원사랑』, 2016 겨울 Vol. 258, 2016, 28쪽.
2. 1796년부터 수원군 장주면 영통리 소속이었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해 수원을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되었을 때 화성군 태장면 영통리로 편제된 후, 1994년 영통지구가 개발되면서 수원시 원천동에 편집되었다. 1999년 원천동에서 영통동이 분동되고, 2000년 영통동에서 영통1·2동을 분동하였으며, 2003년 영통구 개청으로 팔달구 영통1동에서 영통구 영통1동으로 개칭되었다.
3.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65쪽.
4. 「영통해주오씨가의 살과 영통의 개발」,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4』, 수원박물관, 2010, 17~18쪽.
5. 「박대통령 참석 가지치기 솎아내기 벌채등 농촌면료채취 시범교육」, 『조선일보』 1973년 10월 25일 ;「농촌 연료 채취 시범교육 박대통령 참석 화성군 영통리서」,『매일경제』 1973년 10월 25일.
6. 수원시,『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67쪽.
7. 「수원(水原) 영통(靈通). 龍仁 영덕(靈德)지구에 1백만 평 규모 신시가지 건설」,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994.
8. 「영동(靈通)·영덕(靈德)지구 토지보상금 지급방법에 주민 반발」, 「연합뉴스」 1994년 1월 14일.
9. 「강풍에 쓰러진 영동 느티나무 복원」,『일간경기』, 2018년 10월 23일.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레' 참고.
11. 「영통의 축제, '영통청명단오제' 열리던 날, 코로나로 멈췄던 단오제 행사에 지역 주민들 웃음꽃 활짝」, 『e 수원뉴스』 2022년 6월 12일.

04 격변의 세월을 거친 영통동경로당의 두 친구

조항인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 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영통동경로당의 두 친구

1937년 용인 기흥면의 백현마을에서 나고 자란 한영옥은 태장면 신리 신나무실 유일의 방앗간 집 오형제 중 넷째 아들과 결혼하였다. 유년 시절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동네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고, 시집온 뒤로는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싶을지언정 배곯을 일은 없었다. 방앗간과 논밭을 오가며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저층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삼게 되었다.

같은 해 신리에서 태어난 박순덕은 남달리 학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 갔다. 당시 집 근처에는 중학교가 없었으므로 일하는 사진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남문으로 학교를 다녔다. 24세에 시집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고향 땅에서 마냥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았던 박순덕은 삼성에 입사해 직장인으로서 커리어를 쌓았다. 바쁘게 회사를 오가며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저층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삼게 되었다.

이 둘은 동네의 가까운 동갑내기 친구로 만나 오랜 시간을 함께해 왔다. 적막한 영통동경로당(영통구 매영로 421-7)에는 '진짜' 영통동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현재 남은 구성원은 한영옥과 박순덕뿐이다. 물론 이 둘 외에도 경로당을 찾는 주민들은 있지만, 두 친구만큼 매일 출석하는 사람은 없다. 그저 평범하고 무던하게 살아왔다고는 하나, 한영옥과 박



한영옥



박순덕

순덕이 영통동에서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 동안, 삼성이 들어서 온 동네가 들썩였고, 밭 매던 곳의 맞은편에는 경희대학교가 들어섰으며, 분당신도시의 후발대로 영통신도시가 자리 잡아 지금의 저층 공동주택 단지가 마련되었다. 이 세월을 겪으며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관리인이 된 한영옥과 박순덕의 기억을 통해 영통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원 깊은 산골짜기와 신나무실

1959년 한영옥이 23세의 나이로 신리 신나무실에 시집왔을 무렵, 이들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일대에는 야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영옥과 박순덕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 큰 야산이 밀리고 자신들이 그 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 줄 꿈에도 몰랐다. 산을 갈고 밭을 닦아 만든 현재의 확장된 영통동과 달리, 두 친구가 살던 신리 신나무실에서는 영통리야말로 '진짜 산골'이라 생각하였다. 도로망이 확충된 현재와 달리 신나무실 사람들이 영통리에 가려면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야 했는데, 영통리에는 감이 많이 열려 '감 줏어 먹으러' 가는 곳이었다. 지금은 신나무실을 당연스럽게 영통동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당시의 주민들은 영통리를 청명산 아래의 지역만으로 한정해 일컬었고, 영통리의 어린이들은 신리 신나무실 위를 지나 망포리(현 망포동)에 있는 태장국민학교에 다녔다.

한영옥 자전거가 어디야, 산 고냥, 산 위로 길이 이렇게 나 가지고 우리 집 위로 지나갔지. 많이 지나갔지.

박순덕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서는, 거기 산 바로 밑에가 집이 있는데, 큰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산이 고냥 허물어진 거야. 무너져 가지고 그 집을 고냥 다 덮었어. 그래서 애들이 죽었어.



영통동의 1966년 당시 행정구역

박순덕은 인명 피해가 날 정도로 무서운 골짜기에 위치했던 영통리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를 청명산에서 찾는다. 청명산이 인근에 있는 가장 큰 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영험함이 남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녀는 청명산에서 현재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여우를 만나 영험함을 경험했다고 설명하였다.

박순덕 청명산 밑이거든 영통이. 거기는 더 산골이었어. 그래 가지고 그 청명산에서 여우가 막 이렇게 뛰어오는 거야. 마당에 거기다 멍석 깔아놓고 앉아 있으면은, 그 위에 거기 동생네 산에 소나무 하나가 큰 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6년 신리 신나무실

있어 하나. 그냥 여우가 막 거기로 올라가는 거야. 소나무, 참나무. 참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막 여우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난리 나고, 6·25사변 날부터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

박순덕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른들은 청명산의 호랑이 이야기를 해 주기도 했다. 영통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배고픈 밤에 동네로 내려오던 호랑이도 여우도 사라졌다. 영험한 청명산에서 사라진 것은 호랑이와 여우뿐만이 아니었다. 박순덕은 과거에는 있었던 도깨비며 팔신까지 다 없어졌다고 말한다. 신나무실과 달리 무서운 큰 산 아래 있었던 영통리는 주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파이고 덮인 청명산은 이전보다 작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

영통역 옆에 있는 느티나무도 청명산만큼이나 사랑받았다. 감나무가 많이 열려 감나무골로 불리던 곳의 한 주민은 박순덕에게 느티나무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봤다는 상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2018년 장마에 느티나무가 부러지고 말았지만 한영옥과 박순덕은 분명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주민들에게 신나무실은 당연히 영통동에 포함된다. 지금의 관공서 및 주거 밀집지가 위치한 곳은 야산이었고 느티나무 인근과 경희대학교 맞은편, 그리고 신나무실 아파트가 위치한 곳에 민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영옥은 방앗간 집 넷째 아들에게 시집왔는데, 방앗간은 마을의 온갖 곡식과 작물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자원이 1차로 가공되는 중요한 장소였다. 방앗간 집 며느리의 일과는 그 누구보다 공사다망하였다. 손님 접대와 식사 준비, 각종 집안일은 물론이고 고춧가루나 벼를 빻는 일, 그리고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도 지어야 했다.

한영옥 새벽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고, 밥 먹고 나가서 또 해야 하고, 점심 먹고 또 해야지. … 우리는 방앗간도 하고 농사도 많았어. 농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 해 주니까. 밭도 안 그만 했어 … 밥 먹는 거. 맨날 먹을 거 해줘요. 방앗간은 방앗간대로 하고 농사는 농사대로 하고 그랬어.

시댁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밭을 매거나 방앗간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밥 짓는 일의 연속이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큰 땅을 다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꾼을 고용했는데, 대가족에 더해 일꾼들의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다. 그러던 중 1969년 한영옥이 젊은 날을 보내던 신리 신나무실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움트고 있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신리(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신리 신나무실(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한영옥이 살았던 신나무실 집

3. 논밭의 바깥으로

1969년 영통동과 맞닿아 있는 매탄동에 삼성전자가 설립되었다. 방앗간 경영과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한영옥과 그 가족에게 삼성전자의 설립은 남의 일로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많은 영통 주민들이 그렇듯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을 만나게 되었다.

박순덕 옛날에는 삼성전자 지금 거기가 다 논이었어. 논. 그랬더니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날 들어와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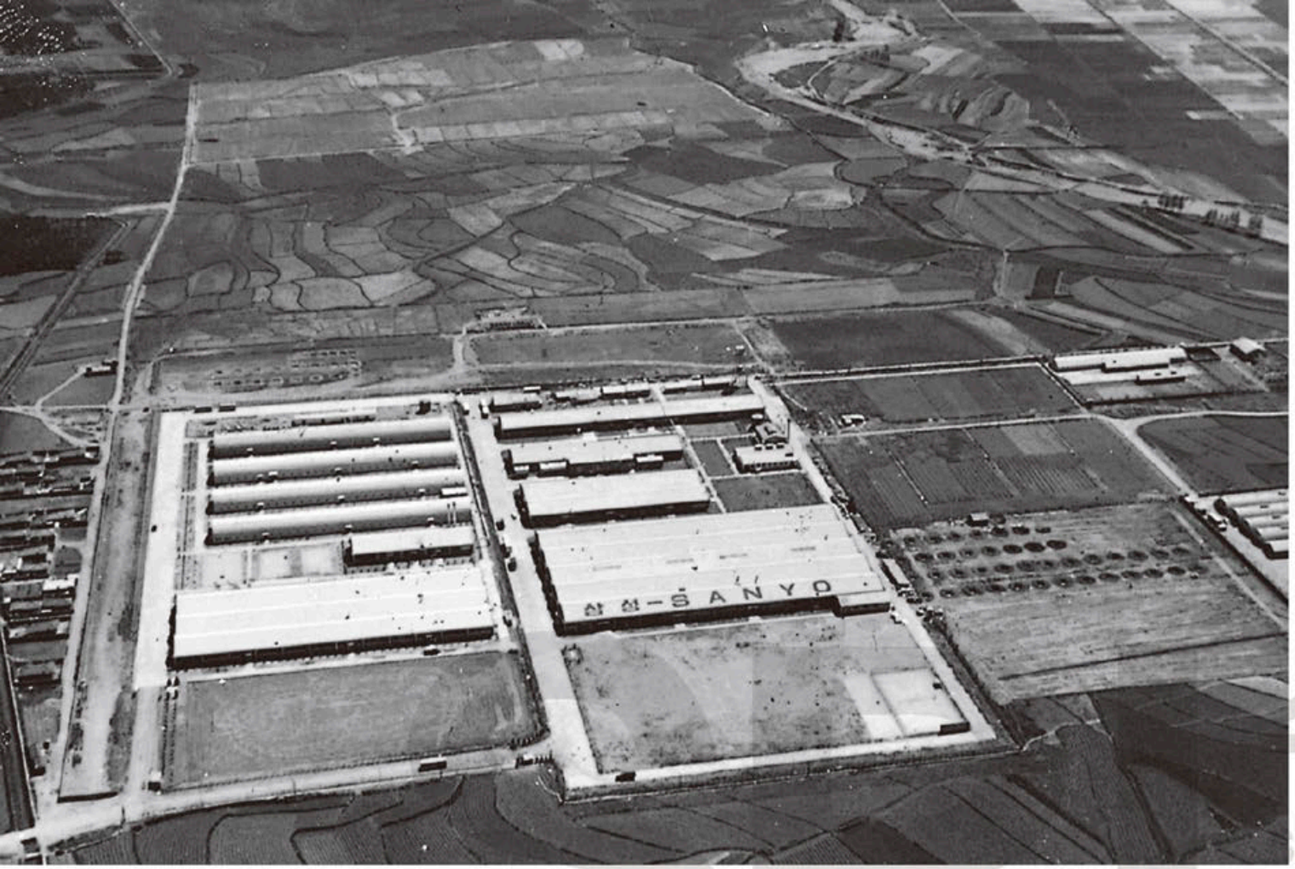
한영옥 이렇게 풀 심어서 그거 매러 댕기고, 중앙개발이라고. 이제 저기 조금 짓고 그러고서… 나도 거기 꽤 댕겼어. 그때. 짓기 전에 땅에다가 잔디를 심었다 이거야. 잔디. 감독도 없어 그걸 우리 맨날 풀 뽑고 매번 저녁 때 또 와놓고 돈 주고 그랬잖아. 중앙개발에서 거기 일을 놔도 꽤 댕겼어. 집에 일하면서 또 그거 돈도 벌려고.

동네에서 소가 있는 사람이라면 너도나도 모여 공장 관련 부지에 잔디를 심으러 갔다. 다른 곳보다 임금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다. 주업은 그대로 농사를 짓는 일이었지만 영통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의 변두리에는 영통 주민들의 손길이 담겨 있다. 밭의 바깥으로 나오는 일은 한시적일 뿐이었다. 한영옥은 아이들의 방학 동안 잔디 심는 일을 다녔다고 기억한다. 시댁 농사를 돕는 일꾼들이 한영옥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처럼, 삼성 공장에는 기숙사가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기업 노동자와 만나거나 교류할 일이 많지 않았다.

박순덕 그때는 초등학교만 나고 애들도 다 그냥 데려갔어. 공부 더 안 하는 애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 지방에서 다 전라도 충청도 다 그런 데로 벌써 뽑으러 다녀 사람을. 애들을 뽑으러 다녀 거기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오고, 이제 각 학교로다가 상고 애들 그렇잖아. 걔네들 그냥 막 그냥 줄을 세워서 와. 상고 애들.

공장이 등장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근로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후 상업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뽑아 왔다. 조용한 마을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면서 전에 없던 활기가 생겼다. 특히 월급날에는 수원 남문 일대 시장이 '덜컥덜컥'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회사 앞으로 택시가 길게 늘어섰고 맛있는 냄새 나는 시장으로 직원들을 이끌었다. 시장의 호황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탄동 농경지에 들어선 삼성

마을에까지 소문나서 "누가 수지를 맞았다."라든지, "삼성 때문에 먹고산다."든지의 말이 돌기도 했다.

삼성 직원 중에 수원 시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였다. 기존의 농사를 이어 갔던 한영옥과 달리 박순덕은 공장에 입사하였다. 1970년대 다시 돌아온 고향 땅에서 박순덕은 2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 특히 박순덕은 단순 제조업무가 아닌 총무과에서 근무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컬러TV 후생보조팀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 등을 지급·관리하였다. 직장생활을 하게 된 탓에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박순덕은 구직을 위해 시내로 나가야 했던 이전과 달리 집에서 통근하는 '직장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가족끼리 경영했던 방앗간을 접고 형제들의 밭을 나눠 가진 뒤 새로운 일을 구하고자 했던 한영옥의 남편은 결국 농사짓기를 그만두고 삼성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2,000평 넘는 큰 땅을 놀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한영옥이 농사일을 혼자 도맡게 되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농사 이외의 일들을 하게 되었다. 단순하게는 잔디를 심는 일부터 공장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까지, 신리와 인접한 매탄동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밭에서 멀어졌다. 산업화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흐름에 발맞추어 신리도 자연스럽게 변화의 시류를 타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재직 당시 박순덕

박순덕 경희대가 더 먼저 들어왔거든요. 개발되기 전에 아산 있을 때부터요.

한영옥 내가 그전에 저 밭에 경희대 이제 우리 집에서 가면은 경희대가 이렇게 바로 보였지. 시집오고 나서 경희대가 들어왔어.

박순덕 여기 길 건너면 서천리거든. 그 서천 윗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됐지 또. … 삼성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또 그랬지. 그러니까 이 근처 사람들이 부자가 됐지.

삼성만큼이나 영통리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준 곳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이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정부의 서울 인구 억제정책에 따라 1979년 이전이 발표되고 1980년대 중반부터 공대, 산업대, 체육대 등의 단과대가 옮겨 왔다. 영통동과 맞닿아 있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설립되자, 서천동 주민들은 한영옥과 박순덕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들은 밀려드는 학생들의 하숙이나 자취방을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조용한 농촌마을에 혈기 왕성한 학생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주민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마주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에는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방 천지에 최루탄 가루가 즐비하였다. 한영옥의 텃밭은 경희대학교에서 길 하나 건너면 도착하는 곳에 있었는데, 작물을 관리하러 갈 때면 당최 눈을 뜰 수 없는 공기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최루탄 가루는 작물에 치명적이라서 밭에 나가는 것을 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영통동에는 농사짓는 사람들과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막는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뒤섞여 있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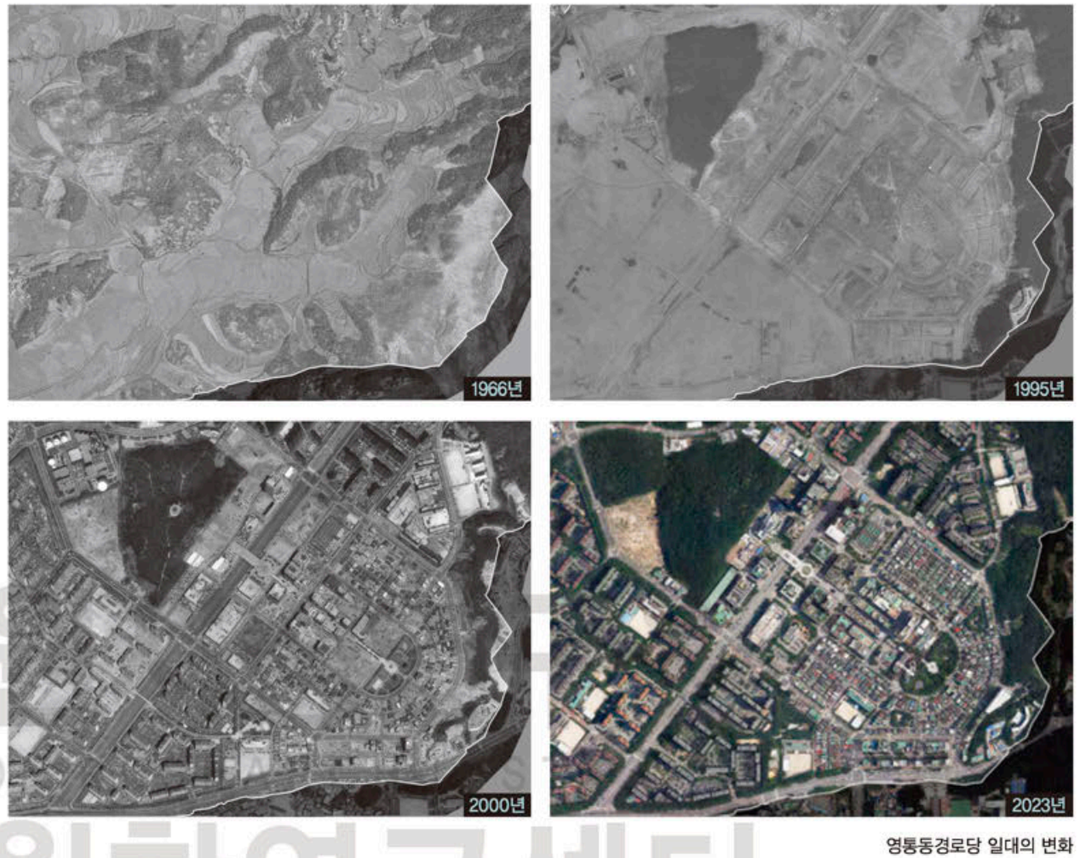
4. 新도시 영통으로

1993년 박순덕이 삼성에서 은퇴할 무렵 영통에는 신도시의 바람이 불었다. 영통신도시의 개발 기간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로 계획되었고, 1989년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1992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그다음 해인 1993년 12월에는 보상 착수와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되었다. 한영옥이 1980년대까지 트랙터 없이 우경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1990년대 신도시 개발은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큰 변화였다. 박순덕과 한영옥은 가진 땅을 팔았고 택지를 얻었다. 두 친구가 단짝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웃한 택지를 받았고 여기에 저층 공동주택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한영옥 수용되고 그거 어디 떨어지고 이제 짓는 거지 다. 봐 가지고. … 8년 동안 이걸 짓고서 들어온 거. 김대중이 이북 가는 날이야. 가는 날.

한영옥 부부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8년 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다 마침내 이사하게 된 날은 2000년 6월 13일이었다. 2000년 6월 13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날이었는데, 이들 부부는 지금까지 6월 13일의 기쁜 추억을 잊지 못한다. 두 친구가 영통동에 남아 저층 공동주택을 짓기로 마음먹은 데는 노후 대책의 이유가 컸다. 박순덕과 한영옥의 남편은 회사를 은퇴한 상태였고 늘어 가는 나이 때문에 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와 경희대학교의 인접 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직장인, 학생 대상의 원룸 월세 관리의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여생을 적당한 일과 적당한 벌이로 살아가고자 했다. 신도시 계획 아래 저층 공동주택은 획일적으로 지어졌는데, 일반적으로 한 층에 원룸 4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총 16개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방 내부 구조와 사이즈 또한 비슷하다. 16가구는 지어질 수 있는 최대의 가구 개수였다. 이 때문에 지대가 무른 한영옥의 건물에는 지하층을 두지 않고 3층으로 건설해, 총 12개의 가구를 수용한다. 2002년 주차공간 확보 의무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의 특징이 된다. 신축 건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필로티가 없다는 특징은 영통이 '신'도시가 된 지 20년을 훌쩍 넘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두 친구가 영통에 남기로 결심한 것과는 달리 1990년부터 2000년을 전후로 많은 주민이 영통동을 떠났다. 한영옥 남편의 형제자매 중 지금의 자리에 남은 가족은 한영옥의 가족뿐이다. 누군가는 택지를 팔고 수원 중심부 건물을 매입해 더욱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보상받은 돈을 투자했다가 재산을 날리기도 했다. 그사이 큰 도로를 낀 인근에 각종 고



영통동경로당 일대의 변화

층 건물이 들어섰으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동수원세무서, 수원가정법원 등의 관공서가 몰려들었다. 관공서를 둘러싼 저층 공동주택에는 직장인과 학생이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의 일상을 위한 작은 가게들이 입점하였다. 두 친구의 건물이 있는 반달공원 뒤편에는 상가주택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오로지 거주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영통동의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영통동 토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이 경로당을 왔다 갔고, 많은 대학생과 회사원들이 원룸 월세 집에서 살다가 나갔다.

영통동은 택지개발을 통해 1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유입된 수원의 대표 신도시이다. 특히 영통동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1년 기준 전체 전입지 1만 5,595개 중 서울이 11.9%, 경기도 32%를 차지하며 율천동에 이어 타 시·도 유입 2위를 차지하였다.

수원학연구센터

2000년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일대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김승일 제공)

박노선 정말 또 집도 싸게 샀죠. 그때 IMF 때 애들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살다 보니까 노후 대책으로 괜찮아. 이 건물 노느니 하는 거지. …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퇴직이 된 거예요. 명퇴 있어 명퇴. 그래 가지고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 그래 가지고 여기서 경희대 가깝잖아. 완전 다 걸어 다니죠. 우리 딸 때문에 그냥 아들은 네가 좀 고생하자.

두 친구와 함께하던 동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두 친구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인 박노선은 영통동 아파트로 재산을 불려 현재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관리자가 되었다. 박노선과 두 친구는 영통동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저층 공동주택 소유주 중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주인은 많지 않다. 학교 인근의 작은 원룸 월셋방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오랜 기간 주민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건물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마저도 서울 등에 사는 외부인이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 이전부터 영통에 살았던 두 친구는 2000년도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을 마냥 반기지는 않았다.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김승일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박순덕 그냥 살 집만 …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통째로 사 가지고 오는 사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룸 통째로 사갖고 온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요.

물론 두 친구가 처음부터 새로운 이웃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물었을 때 박순덕은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지만, 좀 더 깊은 이야기까지로 내용이 진전되었을 때 '오래 만나지 않아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60년 이상을 영통에서 살아오며 오랜 시간 감정적으로 교류하던 기존 주민처럼 깊은 사이가 되기 어려웠다. 이들은 새로 유입된 사람들의 '조금 살다가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사례가 반복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친해질 겨를도 없이' 떠난 이들에 대한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박순덕 명징하게 처음에는 아주 참 재밌었어. 이제 우리네 또래가 말아가지고 재밌었는데 그 사람들 다, 다 가버렸어요. 공원에 가서 뭐 여기서 밥 해다 먹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

버렸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팔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안 그래 팔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사고 또 팔고 그래서 자꾸 그걸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게 특인가 봐. 여기서 팔면 좀 남으면 팔고 또 딴 데 가서 사고 그래들. 나는 한 번 사면은 그냥 언제까지 그냥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도시개발 이전부터 영통에 살았던 주민들이 생각하는 영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마땅했던 인간관계가 사라졌던 요즘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차라리 과거가 나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두 친구는 과거의 영통을 추억하며 방앗간에서 짜낸 기름과 농사지은 작물들을 수원 시내에 내다 팔았던 경험을 늘어놓았다. 너무 오지라서 6·25전쟁 당시 숨어 살기 좋았던 곳이라는 점에서의 영통이나 감나무골에 감을 따러 갔던 추억까지, 자신의 역사와 영통의 역사를 함께 켜켜이 쌓아 나갔다. 이 때문에 언뜻 봤을 때, 자신과 함께 발전해 온 영통에 투자를 목적으로 잠깐 왔다가는 사람들이나 대학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들렀다 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지역 내에서 어떠한 관계 맺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박순덕과 한영옥 서로만큼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나, 여기에는 상대적인 정도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영통동이 본격적으로 신도시로 번성하기 시작한 2000년도에 새로운 주민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지나간 20여 년은 결코 짧다 하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이다. 개발과 함께 들어온 복지기관이나 종교시설은 주민들을 더 다양한 장소로 이끌었다.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에서 경로당을 찾는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영통동에서 살아온 두 친구 정도에 그치지만, 이 둘도 경로당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라서 박노선과 같은 새로 유입된 주민과 교류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한편, 저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를 주고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나,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이기도 하다. 두 친구뿐만 아니라 박순덕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사적 관계도 맺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위해, 직장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받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저층 공동주택 소유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가치를 쥐어 주는 사람 정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직업이나 상황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성공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될 때는 함께 기뻐하며 자랑이 되기도 했다. 박순덕은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세입자의 집에 봉투에 담긴 떡을 걸어놓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한영옥은 예쁜 단풍잎을 선별하고 말려서, 세입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전시하듯 올려놓기도 하고 산뜻한 그림이 그려진 액자를 함께 두기도 한다.





영통동 중심상가 일대에 건립된 원룸형 공동주택

SO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동 중심상가 일대에 건립된 상가주택

5. 두 친구의 역사와 영통동



영통동경로당에 있는 한영옥과 박순덕

한영옥과 박순덕이 말하듯, 영통동을 노후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투자 목적으로 이사 온 사람도 있으며 현재의 저층 공동주택을 구매하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영통동 내에서 부동산을 투자해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영통동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해서 영통동 주민으로서 관계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이를 이어 가는 동시에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에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이다. 저층 공동주택을 소유한 새로운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은 '영통'이라는 한 공간 속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며 나름대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존 공동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변화한 영통의 저층 공동주택 공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시각으로 영통을 바라보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

공간과 그 의미는 오가는 사람들과 정책,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역사 속에서 변화한다. 두 친구의 60년 인생 속에서의 영통동은 진짜 산골부터 공장 노동자들이 모이는 도시, 그리고 학생들이 역동하는 공간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였다. 1960년대에 한영옥과 박순덕이 현재의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영통동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는 쉽게 추측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두 친구가 영통에서 살아온 인생을 통해 지금까지 영통 주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는지, 시대의 변화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변화에 마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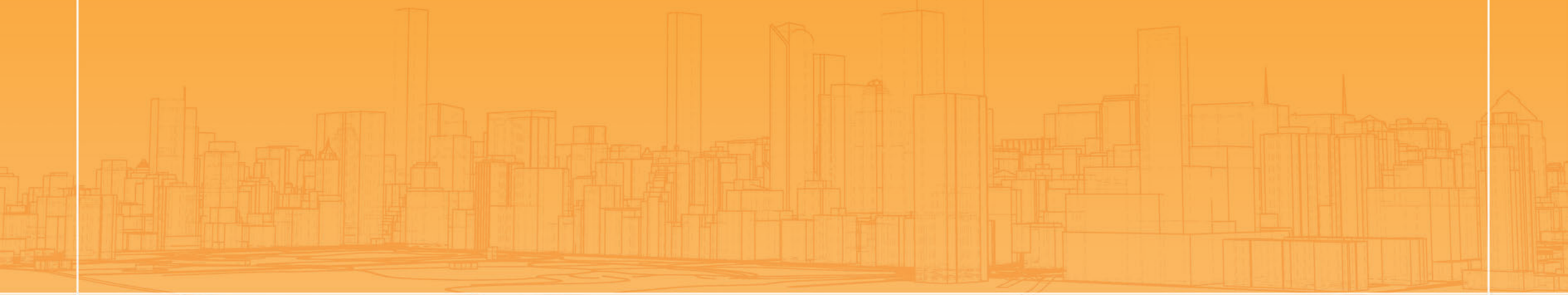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영통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공간

II

01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개
02 영통동 아파트 공간의 탄생
03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04 “아동들의 행위 공간은 장소가 된다.”
: 영통동 아파트 외부공간에서 아동들의 장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개

정헌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교수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배경

수원시 동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단지인 영통지구, 이른바 '영통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하나이다. 이른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배경에는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 확산이 놓여 있었다. 1970년대 개발이 진행된 서울의 강남을 넘어, 1980년대 들어 목동과 상계동, 중계동 등 서울 각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었지만 치솟는 주택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욱 집중되고 1980년대 이른바 '3저(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현상'에 힘입은 경제 호황으로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결국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유례없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1]

이에 1989년 4월 개발이 발표된 분당과 일산과 함께, 1988년 말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평촌과 중동, 산본이 포함된 '5대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에 수십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 신도시 다섯 곳이 건설되던 1989년부터 1991년 초까지는 신도시에 대한 환상이 역설적으로 부동산 열풍을 더욱 부추겨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2] 하지만 신도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


200만 가구 건설 "順航"

88년이후 112만戶 건설

목표대비 56%나 달성

6월현재

<88년부터 시작된 주택 2백만가구의 5개년건설계획 기간중 중간시점인 지난 6월말 현재 건축허가실적은 1백12만가구로 56%의 진척률을 나타냈다.

200만 호 건설 현황을 알리는 신문기사(「매일경제」 1990년 8월 7일)

며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어 이후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까지 이어졌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주택공급이 크게 늘며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영통신도시(영통지구)도 그중 하나로, 신도시 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만 6,000여 호의 주택과 10만 명을 수용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영통신도시는 2000년대 중반 수도권 제2기 신도시로 개발된 광교신도시 이전까지 수원시에서 시행된 가장 대규모의 택지조성사업이었다.[3]

택지개발사업은 크게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 시행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첫 번째 단계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택지개발지구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집단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민공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예정지구 지정대상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을 공고하여 일반인이 서류를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지구와 관련이 있는 주민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실시계획 승인 단계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에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시행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 등을 포함해 고시한 후, 이를 시행자 및 시장에게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시행 단계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또는 수용 절차를 통해 택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이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된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된 개발 이후 1998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영통신도시는 수원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 중심의 신도시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비록 광교신도시 개발 이후 수원시 내부에서 영통신도시의 주거지 위상이 예전만 같지 않다고는 하나, 여전히 영통신도시는 수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20여 년 동안 수원의 중산층 다수가 거주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영통신도시는 지금도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단지이자 교육 서비스와 소비의 중심지로 많은 수원시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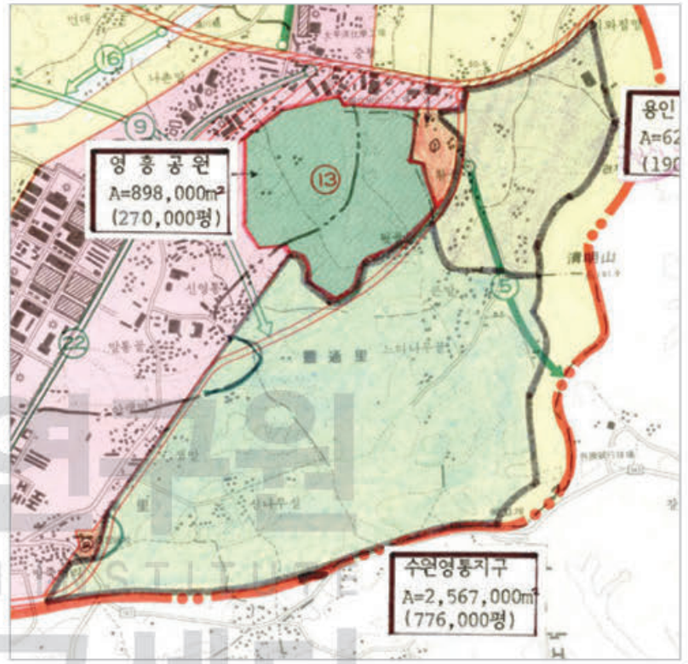
1990년대 개발 전 청명산에서 바라본 영통리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2.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



1989년 10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 영덕지구

영통지구의 경우 1989년 10월 14일 용인 영덕지구가 예정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27일 수원 영통지구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어 1992년 12월 28일, 건설부는 '건설부고시 제1992-772호'를 통해 수원 영통·용인 영덕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각각 수원 영통지구(건설부 고시 제621호, 1989년 10월 27일)와 용인 영덕지구(건설부 고시 제588호, 1989년 10월 14일)로 나뉘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을 합쳐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원 영통지구의 256만 7,000㎡(77만 7,000평)과 용인 영덕지구의 62만 7,000㎡(19만 평)에 추가로 9만 972㎡를 더해 총면적 328만 4,972㎡, 대략 100만 평의 대규모 대지에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게 되었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중심축과 생활권이 결정되었는데, 중심축은 영통지구의 형상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중심지로의 원활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으로 배치하였다. 생활권의 경우 영통지구가 동수원대생활권에 속하므로, 동수원대생활의 필요시설을 사업지구에 배분하되 상업지구가 중심이 되도록 주기능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북측과 남측의 2개 중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소생활권은 공공시설물, 학교 등의 배치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주거용지는 공동주택지와 이주자택지(단독주택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지는 건축평형에 따라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중심상업지역 및 대중교통수단과 인접한 지역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고밀 주거지로 계획하였다. 공동주택지의 경우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권 및 적정밀도 배분 등을 고려한 단위 가구(街區, 250×250㎝)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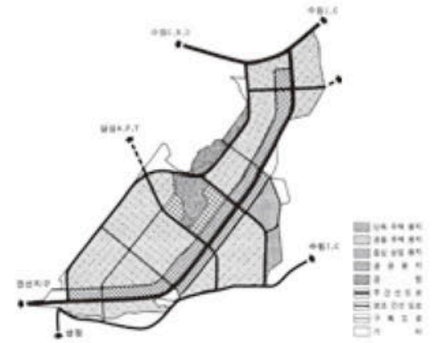
중심상업용지는 지리적으로 사업지구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입지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 지구 내 간선도로와의 결절점에 인접하도록 하였다. 근린상업용지는 사업지구 주진입로인 국도 42호선과 사업지구 간선도로의 교차점, 태장국민학교(현 영동중학교) 남측부,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접지에 입지시키도록 하였다.

계획지표 설정 단계에서는 계획인구 규모, 상업용지 수요 추정, 도입시설 및 공간 수요가 확정되었다. 먼저 계획인구 규모는 10만 명과 11만 명을 검토한 끝에 10만 명으로 결정되었다. 상업용지의 경우 공간 수요 예상결과 4만~4만 5,000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입시설의 경우 학교시설은 유치원 20개소와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원시설은 전원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구 내 양호한 수림군(樹林群)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생활권별로 유치(誘致)거리를 고안하여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자 했다.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6만㎡(1인당 0.6㎡)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용청사는 구청청사, 소방파출소, 변전소, 전화국, 세무서, 동사무소, 경찰서, 경찰파출소, 우편국, 등기소 등을 수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계획지표 설정 후 대안 설정 단계에서는 세 가지의 기본방향이 결정되었다. 첫째, 중심상업 및 공용청사는 지구 중심에 집중화시켜 중심성을 제고하며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둘째, 지구 중심부를 기준으로 남북의 2개 단위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각종 편익시설 및 교육시설 등을 구상한다. 셋째, 국도 42호선과 지방도 343호선을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주간선도로를 골격으로 하여 가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정하였다.

대안Ⅱ는 토지이용 효율성이나 도시 우회도로 개발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영통산 절취라는 어려운 점이 따르며, 대안Ⅰ은 간선도로변을 따라 각종 중심시설이 배치됨에 따라 주간선도로의 부하량 증가가 예상되었다. 주간선도로와 직교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그와 연결하여 각종 중심시설이 배치되는 대안Ⅲ은 주거환경 보호, 보행자 안전 및 신시가지의 쾌적한 공간 창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Ⅲ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4]

<표 1> 영통지구 개발 대안 설정

구분	대안 개념도	공간구조와 동선체계
대안 Ⅰ		– 공간구조 • 남북 방향의 주간선도로를 따라 중심상업 및 공공업무시설 배치 • 지구 중심의 영통산을 중앙공원으로 개발하여 상업용도와 연계 개발 – 동선체계 • 남북방향의 2개 노선을 근간으로 도로망체계 형성 • 중심지역 주변으로 일방차선체계 도입 • 주간선도로와 직교하는 상징도로(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대안 Ⅱ		– 공간구조 • 지구 중심의 영통산을 철취하여 기하구조적 공간체계 형성 – 동선체계 • 격자형의 도로망체계 도입 • 지구 동측에 우회도로 설치
대안 Ⅲ		– 공간구조 • 남북 방향의 주간선도로와 직교하는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그와 연계하여 중심상업 및 공공업무시설 배치 – 동선체계 • 남북방향의 주간선도로와 Loop형의 보조간선도로체계 형성 • 영통산–지구 중심–경희대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구상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83~85쪽.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2> 영통지구 개발 대안 발전단계

단계	내용
발전단계 Ⅰ→ 발전단계 Ⅱ	① 상업지역 이면도로계획 : 지구 내 주간선도로에 접한 상업용지의 필지규모를 약 900~1200평으로 세장비는 1.5로 예상 ② 상업용지 위치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상업용지계획 ③ 근린상업용지 위치 변경 : 분당선 연장 수원시 전철 인입 노선이 국도 42호선을 따라 계획될 것을 대비하여 근린상업용지 위치 변경 ④ 교차방식 변경 : 본 사업지구 개발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국도42호선과 지구 진출입로인 50m도로와의 교차점을 당초 이체처리에서 3지 평면교차방식으로 변경 ⑤ 단독주택지 가로망계획 : 상업용지 및 단독주택지 주변으로 Loop형의 가로체계를 계획하고 단독주택 획지분할(평균 평형 60평) ⑥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용하여 각종시설을 적정규모로 계획
발전단계 Ⅱ→ 발전단계 Ⅲ (개발계획승인)	① 공동주택용지의 아파트 배치계획 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형태 일부 조정 ②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선형 변경 ③ 북측 배수구역의 우수처리를 위해 저류조가 필요, 따라서 근린공원 위치 변경하여 지하부 활용 ④ 주차장계획 변경 : 도로 중앙에 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은 주차 효율 저하, 교통안정 저감 등 불리한 점이 나타나므로 상업용지 내부에 주차장계획 ⑤ 주민의 운동공간 확보 및 대학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와 인접하여 사회체육시설부지 계획 ⑥ 적정규모의 종교시설부지와 유아원부지를 생활권별로 분리 배치
발전단계 Ⅲ→ 발전단계 Ⅳ (개발계획 변경승인)	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지구 내 도로 확장 및 노선 변경 ② 국도42호선과 지구 중앙도로 접속부에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국도42호선 확장(8→10차선) 부지 확보 ③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에 따라 지상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을 위한 인입철탑부지의 면적 확대 및 지하선 확보를 위한 위치 조정 ④ 지하처리장 동측 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면적 확대 및 지구 내 도로 선형 변경 ⑤ 지구 내 계획된 버스정류장의 제원변경에 따라 완충녹지 조정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91~93쪽.

기본구상을 마친 후 1992년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는데, 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상업용지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등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표 3> 영통지구 계획지표 및 기본계획

부문		계획지표	기본계획
인구 및 주택		– 수용 인구 : 100,000명 – 수용 가구 : 29,730가구 – 인구밀도 : 760인/㏊ – 획지배분 • 단독 : 10% 이하 • 공동 : 90% 이상	– 인구밀도 및 가구 • 단독 : 176인/㏊, 540가구 • 공동 : 895인/㏊, 26,490가구 – 획지분할 • 단독 : 113,349㎡ • 공동 : 1,094,912㎡
상업용지		– 시설별 건폐율 – 50~70% 기준	– 상업·의료·기타시설 등 : 135개소 138,233㎡
교통		– 교통량 분석	– 광로 : 4개 노선 5,358m – 대로 : 11개 노선 9,315m – 중로 : 14개 노선 5,029m – 소로 : 49개 노선 8,367m – 보행자전용도로 : 29개 노선 4,203m
공원·녹지		– 자연공원 – 근린공원 500m 이내(10,000㎡ 이내) – 어린이공원 250m 이내(1,500㎡ 이내) – 완충녹지 – 경관녹지	– 자연공원 : 1개소 21,781㎡ – 근린공원 : 7개소 22,5021㎡ – 어린이공원 : 13개소 67,909㎡ – 완충녹지 : 32개소 150,510㎡ – 경관녹지 : 10개소 51,420㎡
공공시설		– 주변지역 고려 – 학교시설기준령	– 행정시설 : 23개소 93,172㎡ – 교육시설 • 유치원 : 8개소 9,449㎡ • 초등학교 : 8개소 9,6461㎡ • 중학교 : 5개소 60,950㎡ • 고등학교 : 4개소 65,416㎡
공급처리시설	상수도	– 도시기본계획상 지표 수용	– 급수인구 : 103,000인 – 1인 1일 평균급수량 : 500ℓ – 일 최대급수량 : 51,500,000ℓ – 급수관망 : 격자형
	하수도	– 도시기본계획상 지표 수용 – 오·우수 분리식	– 1인 1일 최대오수량 : 451ℓ – 배수관망 : 격자형
	전력	– 전력 총수요량 추정	– 총소요량 : 147439KWA – 변전소 : 지구 북측 국도42호선
	통신	– 도시기본계획상의 전화 보급률 및 소득수준 고려	– 총전화 회선수 : 56,956회선 • 가정용 : 40,545회선 • 업무용 : 12,441회선
	열에너지		– 도시가스 • 가정용 : 48,654㎥/일 • 업무용 : 12,441㎥/일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26~127쪽.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표 4>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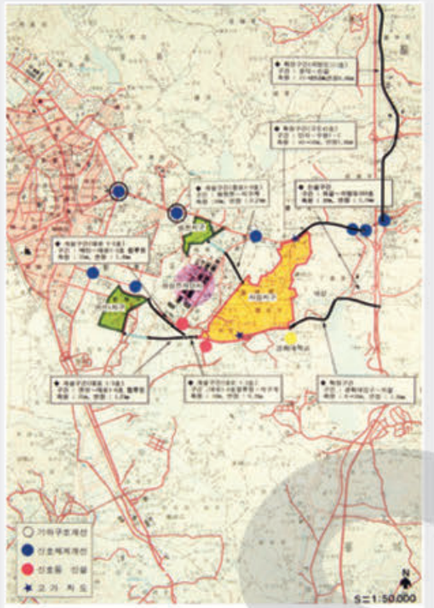
구분		1992(당초)		1997(완공)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3,284,972	100.0	3,260,533.9	100.0
주택건설부지	소계	1,236,680	37.7	1,226,333.2	37.6
	단독주택	113,349	3.5	106,788.7	3.3
	공동주택	1,094,912	33.3	1,090,852.4	33.4
	근린생활시설	28,419	0.9	28,692.1	0.9
상업업무용지	소계	138,233	4.2	133,584.2	4.1
	중심상업	85,404	2.6	85,384.7	2.6
	근린상업	52,829	1.6	48,199.5	1.5
공공시설용지	소계	1,910,059	58.1	1,900,616.5	58.3
	도로	770,182	23.4	764,141.2	23.4
	광장	10,327	0.3	10,303.0	0.3
	주차장	23,755	0.7	23,709.0	0.7
	공원	314,711	9.6	342,689.0	10.5
	녹지	201,930	6.2	203,800.2	6.3
	공공공지	22,262	0.7	15,854.1	0.5
	학교시설	231,984	7.1	230,839.6	7.2
	공용의 청사	93,172	2.8	93,109.8	2.9
	종합의료시설	31,523	1.0	31,376.0	1.0
	사회복지시설	7,200	0.2	7,193.1	0.2
	사회체육시설	4,649	0.1	17,484.8	0.5
	종교시설	7,308	0.2	7,790.6	0.2
	수도시설	26,054	0.8	26,496.3	0.8
	하수도시설	63,055	1.9		
	열공급시설	40,589	1.2	40,537.1	1.2
	전기공급시설	3,856	0.1	11,329.0	0.3
	통신시설	6,002	0.2	5,981.1	0.2
	가스공급시설	11,078	0.3		
	폐기물처리시설	29,764	0.9	37,272.6	1.1
	자동차정류장	8,854	0.3	9,247.0	0.3
	주유소	1,804	0.1	1,809.0	0.1
	공장용지			19,664.0	1.0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27쪽;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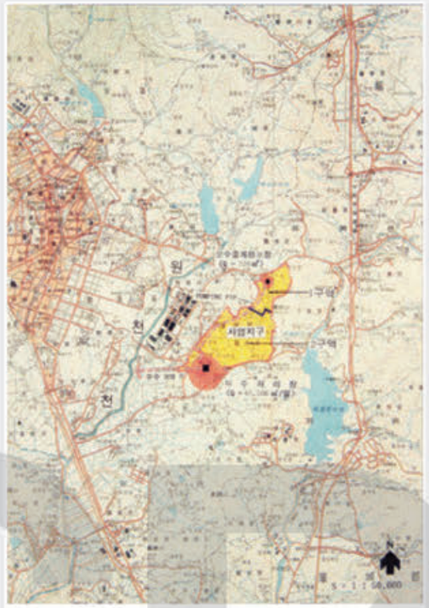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도(1992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지구 종합개선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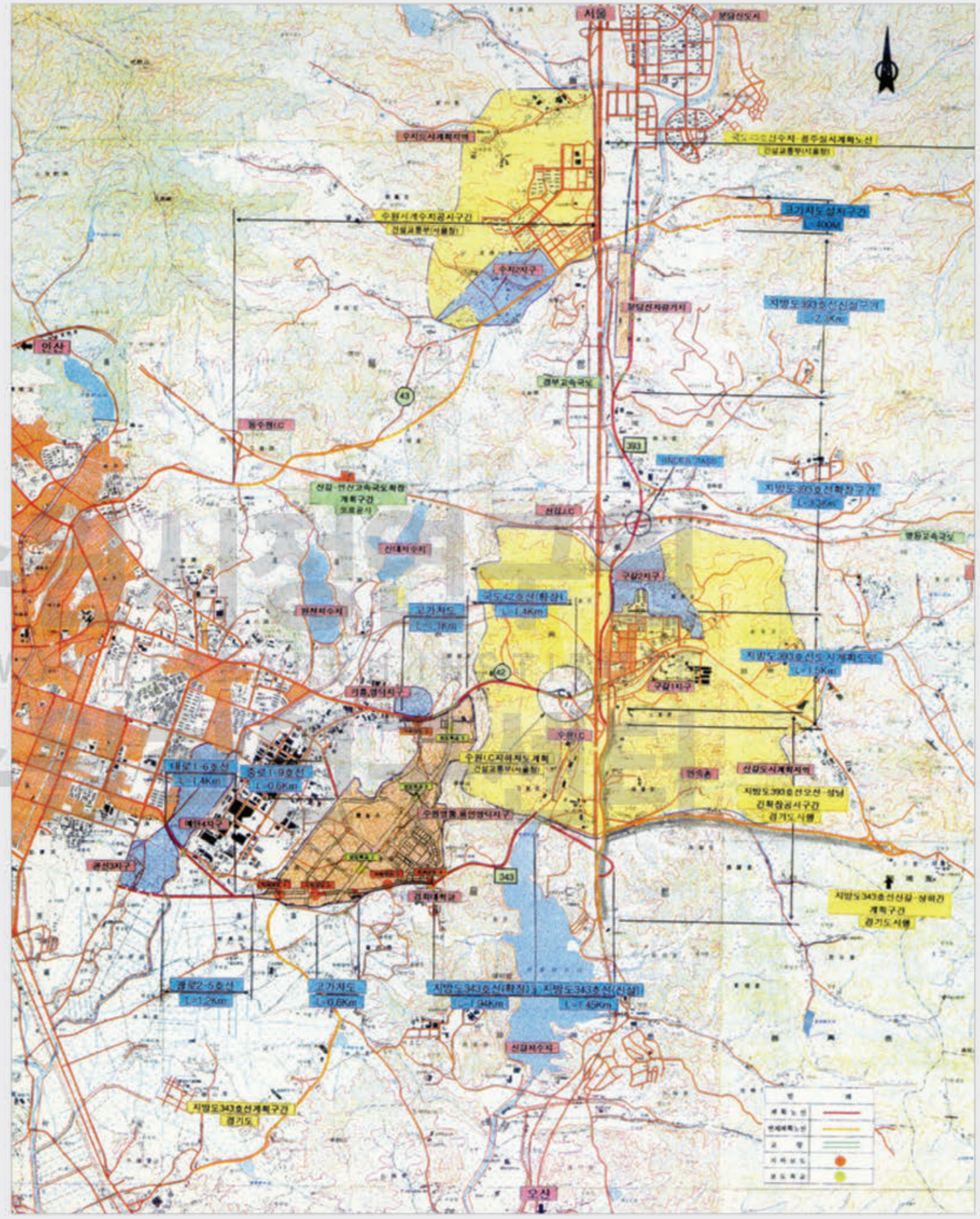
영통지구 하수계획계통도



영통지구 상수계획계통도



영통지구 기타시설 배치계획도



수원 영통지구 주변 도로 위치도

<표 5> 영통지구 택지개발계획의 변경

구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사업면적(㎡)			3,284,972	–	3,286,325
사업기간			1992.12.28.~ 1996.12.31.	–	–
사업비 (백만원)	계		711,537	840,917	–
	용지		426,537	536,517	–
	조성		285,000	304,400	–
수용인구계획(인)			100,000	–	99,492
주택계획(호)			27,030	–	26,893
토지 이용 계획 (㎡)	주택 용지	계	1,237,572	1,208,261	1,198,110
		단독	113,838	113,349	106,774
		공동	1,123,734	1,094,912	1,091,336
	근린생활		21,911	28,419	28,291
	상업용지		138,230	138,233	135,397
	공공시설		1,887,259	1,910,059	1,923,837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도로폭원 조정 – 국도42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	– 개발면적 변경 (감 647㎡) • 기정 3,284,972㎡ • 변경 3,286,325㎡
고시일 (고시번호)			1992.12.28. (건설부 제722호)	1993.9.15. (건설부 제353호)	1995.9.7. (경기도 제315호)
3차 변경			4차 변경	5차 변경	6차 변경
–			–	3,286,775	3,260,534
–			–	1992.12.28.~ 1997.12.31.	–
840,917			–	–	–
430,800			–	–	396,600
410,117			–	–	444,317
–			–	99,479	–
–			–	26,890	–
–			–	–	1,197,641
–			–	–	106,789
–			–	–	1,090,852
–			28,981	28,771	28,692
–			135,366	142,462	133,584
–			1,923,868	1,917,432	1,900,617
–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한 행정구역 조정			– 토지이용계획 변경	– 개발면적 변경 – 예정지구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증 452㎡) • 당초 3,286,325㎡ • 변경 3,286,775㎡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감 26,241㎡) • 당초 3,286,775㎡ • 변경 3,260,534㎡
1995.10.28. (경기도 제364호)			1996.2.29. (경기도 제30호)	1996.11.26. (경기도 제327호)	1997.12.22. (경기도 제470호)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28~129쪽.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계획이 1992년 12월 28일 승인되었으나, 1992년 승인된 당초 개발계획은 영통지구 준공 이전까지 총 6차에 걸쳐 변경되었다. 1992년 당초 개발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2만 6,490가구와 단독주택 540가구 등 모두 2만 7,030가구의 주택을 1996년 12월까지 건설하여 가구당 3.7명 기준으로 1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체 면적 328만 4,972㎡ 가운데 주택건설용지는 123만 6,680㎡로 37.7%를 차지했고, 상업용지가 13만 8,233㎡로 4.2%, 도로와 공원, 학교, 녹지, 각종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용지가 191만 59㎡로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후 1997년 12월에 승인된 6차 변경계획에 따르면 개발 면적은 당초의 328만 4,972㎡에서 326만 534㎡로 감소했으며, 수용 호수는 2만 6,890가구로, 수용 인구도 9만 9,479명으로 소폭 변경되었다.

영통지구는 그 개발 목적이 주택문제 해결을 통해 수원 지역에 집중된 도시 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고 인접지역 즉, 서울·용인·화성 등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어서 주택용지의 비율은 기존의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지만 다른 용도의 구성 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가운데 개발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분당(1,968㏊)이고 영통지구(326㏊)는 규모면에서 분당의 17%에 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개발지역이다. 영통지구 토지이용의 용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은 분당(32.2%)보다는 상회하고 평촌(37.7%)과 비슷한 비율인 37.6%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상업 또는 업무용지 비율은 기존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평균 비율인 7.7%보다 낮은 수준인 4.1%의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영통지구의 공공시설용지 비율은 58.3%로 기존 신도시의 비율인 59.4%보다 약간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

도로율의 경우 중동, 영통, 평촌 지역이 높았는데 이 지역은 지형조건이 평지이고 기존의 시가지와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으로 인해 도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원녹지 비율은 일산이 23.6%로 높게 나타났는데, 일산은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호수공원과 같은 공원과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영통지구의 용적률은 220%로 비교적 높지만 중동(225.6%)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결적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도시미관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로 대규모 택지개발 시 중소도시의 경우 150~180%를 적정 용적률로 제안하고 있는데, 영통지구는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당과 일산은 자족적 신도시로서 적정 용적률로 계획되어 용적률 측면에서 쾌적성을 확보하였다.[5] 건설되는 아파트 평형은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1만 6,500가구, 18평 초과 25.7평 이하가 4,750가구, 25.7평 초과가 5,240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구로 계획되었다.[6] 전체적으로 18평 이하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다룬 신문기사 (「한겨레」 1993년 1월 14일)

한국토지개발공사[7]가 주도하는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계획이 1992년 승인되며 이듬해인 1993년부터 이 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에 이어 수원 영통·영덕지역에도 1백만 평 규모의 수도권 신도시가 생긴다. […] 건설부는 최근 토지개발공사가 만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신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 99만 4천 평 등 수도권 3개 사업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토개공은 연초부터 수원 영통·영덕지구에 7천1백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6년 말까지 택지를 조성한 뒤 10만 명이 살 수 있는 2만 7천 30가구(단독주택 5백 40가구·공동주택 2만 6천 4백 9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개공은 특히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전체 건설 주택용지의 50% 이상을 18평(60평방㎡) 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에 할당하고 국민학교 8개, 중·고교 9개 등 교육시설은 물론 병원·공원·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수원 영통·용인 영덕 등 100만평/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중앙일보」 1993년 1월 13일)

기사들은 이 지역을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8]로 주목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주택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수원에 대한 배후지원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9]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그 이전에 개발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가 서울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된 반면,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는 서울과 맞닿아 있지 않은 수원시 동남부 지역을 배경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매수를 위해 1993년 9월부터 토지평가를 시작해 같은 해 안으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1994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외지인에게는 3,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한다."는 토지수용법 개정 내용이 처음 적용되는 지구라는 사실도 있었다.[10] 이후 실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과정은 계획보다 다소 늦게 진행되어 1994년 4월 말까지 약 94%의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11]

<표 6> 영통지구 보상 대상 토지

(단위 : ㎡)

구분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수용 · 사용할 토지				합계	
			국공유지(유상)		사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61	129,972	7	2,300	1,701	3,154,504	1,869	3,286,776
전			1	721	529	680,005	530	680,726
답			4	1,362	584	1,192,451	588	1,193,813
대					145	110,891	145	110,891
임야			1	85	384	1,149,909	385	1,149,994
도로	132	78,438			34	3,902	166	82,340
하천	8	11,531					8	11,531
구거	21	40,003	1	132	3	1,589	25	41,724
잡종지					2	1,940	2	1,940
기타					20	13,817	20	13,817
소유자	건교부 외 6인		건교부		오인환 외 1,097인		오인환 인 1,105인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31쪽.

<표 7> 영통지구 보상 대상 지장물

구분	종류	건수	구분	종류	건수
건물	소계	367	기타	소계	109,799
	가옥	276		분묘	12,111
	축사	58		한전주	362
	공장	30		체신주	226
	종교시설	3		수목	108,000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31쪽.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 영통 · 용인 영덕지구 시군 경계도(『한겨레』 1994년 8월 3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와 신리 2.54㎢와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0.67㎢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또한 영통동 일대는 행정구역상 본래 수원부 장주면에 속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로 불렸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면이 수원시로 승격된 후 영통리는 화성군 태장면에 속하였다. 이어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의 태장면과 안룡면에 속해 있던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 태장면과 안룡면에 남은 지역을 통합해 태안면에 편제시켰는데 이때 영통리도 태안면에 편제되었다.

이처럼 영통지구를 대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 1990년대 초까지도 영통리 일대는 행정구역상 화성군에 속한 지역이었다. 사실 영통리는 이미 198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후 1992년 12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및 신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원에 위치한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며 영통지구의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당초 영통지구의 개발계획은 수원시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영덕·영통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개발 예정부지 100만 평 중 약 30%는 용인군, 그리고 약 68% 정도가 화성군에 속해 있었으며 수원시의 관할 아래에 있는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였다.[12] 따라서 수원시가 중앙의 개발계획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 수원시는 영통지구(공식적으로는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개발 예정지 일대의 행정구역을 대폭 개편하였다.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일원이 신리, 망포리 일부와 함께 수원시 원천동으로 편입되면서 영통지구는 화성군을 떠나 수원시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개발이 완료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1997년 12월 8일,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천동사무소 산하 '영통민원중계소'를 신설하고 영통지구에 2개소를 개소하였다.[13]

그 후 주민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1999년 10월 1일, 드디어 영통동이 원천동으로부터 분동·신설되었다. 유입 인구의 증가에 따라 10개월 뒤인 2000년 6월 26일 영통동



1994년 택지개발 초기 영통지구



1994년 12월 22일 영통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95년 1월 19일 영통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94년 영통지구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6년 3월 19일 삼성아파트 건설현장(수원박물관 제공)

이 영통1동과 영통2동으로 분리되었고, 2003년 11월 24일에는 영통구가 신설되면서 영통지구 일대는 이전의 팔달구에서 영통구로 소속이 바뀌기에 이른다.

영통지구가 수원시에서 주목받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명성을 얻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며 그에 따른 행정 수요가 증가하자 영통동의 분동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었다. 결국 2017년 12월 26일 태장동(현재의 망포동)이 관할하던 법정동인 신동 전역과 망포동 일부 지역(덕영대로 북부)이 영통2동에 편입되고, 기존 영통1동과 영통2동의 일부가 분리되는 방식으로 영통3동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1990년대 개발된 영통지구는 행정구역상 영통1동, 영통3동, 그리고 영통2동의 동쪽 일부(벽적골 8단지와 벽적골 9단지)에 해당한다. 주거단지를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서부터 황골마을(1단지와 2단지)과 청명마을(3단지와 4단지), 신나무실(5단지와 6단지), 살구골(7단지), 벽적골(8단지와 9단지)이라는 5개 마을에 9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3·4단지와 6·7단지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상업지구인 영통 중심상가를 아우르는 지역이 영통지구, 즉 영통신도시라 불리는 지



1996년 3월 19일 건영아파트 건설현장(수원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역인 셈이다.

한편 당초 '수원 영통·용인 영덕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불린 이 일대의 사업명은 앞서 언급한 행정구역 변화와 함께 이름이 바뀌게 된다. 수원시 매탄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및 신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원이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일원으로 재편되며 1995년 9월 15일, 기존의 택지개발지구의 명칭이 '수원 영통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바뀌었다(경기도 고시 제1995-315호).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약칭의 '영통지구'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영통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첫 분양은 1995년 봄 이루어졌다. 1995년 즈음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 아파트를 거의 찾기 어렵고 수도권 5개 신도시 역시 입주를 완료한 시점이었다.[14] 이런 상황에서 그때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을 끈 지역이 바로 수원 영통지구였던 것이다. 개발계획 발표 당시부터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수도권 5대 신도시에 버금가



수원시 미분양아파트 위치도(『매일경제』 1996년 3월 22일)
영통지구는 주택공사, 쌍용건설, 신명주택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

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소개되어 온 영통지구는 '한수 이남의 명당', '수도권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 지구'[15]로 주목받았다.

이어 1995년 6월 1일, 수원 영통지구 2차 동시분양이 실시되었다. 삼성건설과 태영, 동삼건영, 신명종합건설, 삼호건설, 동보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한 2차 동시분양에서는 32평형과 33평형 등 2개 평형의 아파트 2,596가구를 공급하였다. 이어 1995년 10월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공분양과 근로복지 가구를 합쳐 4,000여 가구를 분양했으며, 이때의 분양은 23평형과 25평형대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후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영통지구의 첫 입주는 1997년 12월 11개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졌다.

영통지구 입주가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1990년대 건설된 아파트는 주로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들이었는데 그에 걸맞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층의 증가가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며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수도권 각지에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던 상황이었다.[16] 그런 와중인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외환위기의 발발은 주택시장에 한파를 몰고 왔다. 영통지구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1997년 9월 2일 영통지구 공사현장 순시(수원박물관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수원·용인지역 대규모 단지 아파트 입주권 가격이 폭락사태를 빚고 있다. 최근 IMF 한파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대량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수지지구 등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가파른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등 거래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 1월 말까지 1만 5,374가구의 입주가 시작된 수원 영통지구 아파트는 최근 입주율이 20%에 그치면서 입주권 프리미엄은 50%가량 폭락한 상태다.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3,600만 원까지 거래되던 24평형 아파트 입주권은 최고 2,200만 원까지 떨어진 1,400만~2,200만 원을 호가하나 매수 문의가 일체 끊겼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수원·용인 아파트입주권 가격 폭락」, 『매일경제』 1998년 1월 5일)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신도시로서 영통지구의 정상적 작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한 기사에 따르면, "영통신도시 내 신설 13개 초·중학교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입주가 늦어져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17]된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1997년 12월 영통지구의







1997년 11월 28일 영통지구 아파트와 공공시설 공사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97년 11월 28일 지역난방공사와 상가 건설현장(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세일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99년 7월 21일 영통도서관 개관(수원박물관 제공)



2004년 7월 영통사회복지관 개관(수원박물관 제공)



1999년 10월 5일 영통동사무소 개소(수원박물관 제공)



2000년 7월 1일 영통2동사무소 개소(수원박물관 제공)



2017년 12월 26일 영통3동주민센터 개청(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첫 입주에 발맞추어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에 걸쳐 영덕중학교와 영일중학교를 비롯한 총 13개의 학교가 개교하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입주가 늦어지며 학교마다 학생 부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이후 오래지 않아 경기가 회복되며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가 추진되면서 영통지구는 '부촌'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18] 1997년 한 해에만 1만 2,246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2002년까지 2만 3,000여 가구의 입주가 진행되었다. 전체 9개 단지로 이뤄진 영통지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입주가 진행된 아파트는 벽적골 9단지 롯데아파트로, 2002년 3월 입주가 시작되었다.[19] 2000년대 중반의 한 기사는 수원 토박이인 주민의 입을 빌려 "당시 매탄동 현대와 삼성아파트, 권선동 등 구시가지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부자가 대거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촌이 형성"[20]되었다고 다루기도 했다.

영통지구의 현재 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원 영통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간 범위가 현재의 영통1~3동과 대체로 일치하기에 3개 동의 인구를 통해 영통지구에 거주하는 인구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1]에 따르면 영통1동 3만 3,985명, 영통2동 2만 6,038명, 영통3동 3만 2,201명으로 전체 9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만 2,224명의 인구가 행정구역상의 영통1~3동에서 거주하고 이다. 영통2동의 서쪽 지역(법정동 신동과 망포동 일부)을 제외하면 대략 9만여 명이 현재 영통신도시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수원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영통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여건 변화, 법 개정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2011년 11월 8일(수원시 고시 제2011-201호) 수립하여 도시 기능·미관 및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마련하였다.

영통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11년 326만 1,397㎡이었으나 2022년에는 326만 7,538.6㎡(증 6,141.6㎡)로 증가하였다. 영통지구 용도지역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125만 5,331.6㎡로 38.5%를, 자연녹지지역이 86만 1,715.6㎡로 26.4%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37만 5,629㎡로 11.5%를 차지한다. 용도지구는 대로3-36호선과 대로3-39호선, 대로3-42호선 등의 주변으로 미관지구, 광로2-6호선과 대로3-34호선 등의 주변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표 8> 영통지구 용도지역

구분		2011년		2022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3,261,397.0	100.0	3,267,538.6	100.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47,067.0	4.5	147,067.0	4.5
	중심상업지역	317,451.0	9.7	317,451.0	9.7
	일반상업지역			18,349.6	0.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7,601.0	1.2	37,601.0	1.2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1,047.8	7.7	254,393.8	7.8
	제2종 일반주거지역	375,629.0	11.5	375,629.0	11.5
	제3종 일반주거지역	1,255,331.6	38.5	1,255,331.6	38.4
자연녹지지역		877,269.6	26.9	861,715.6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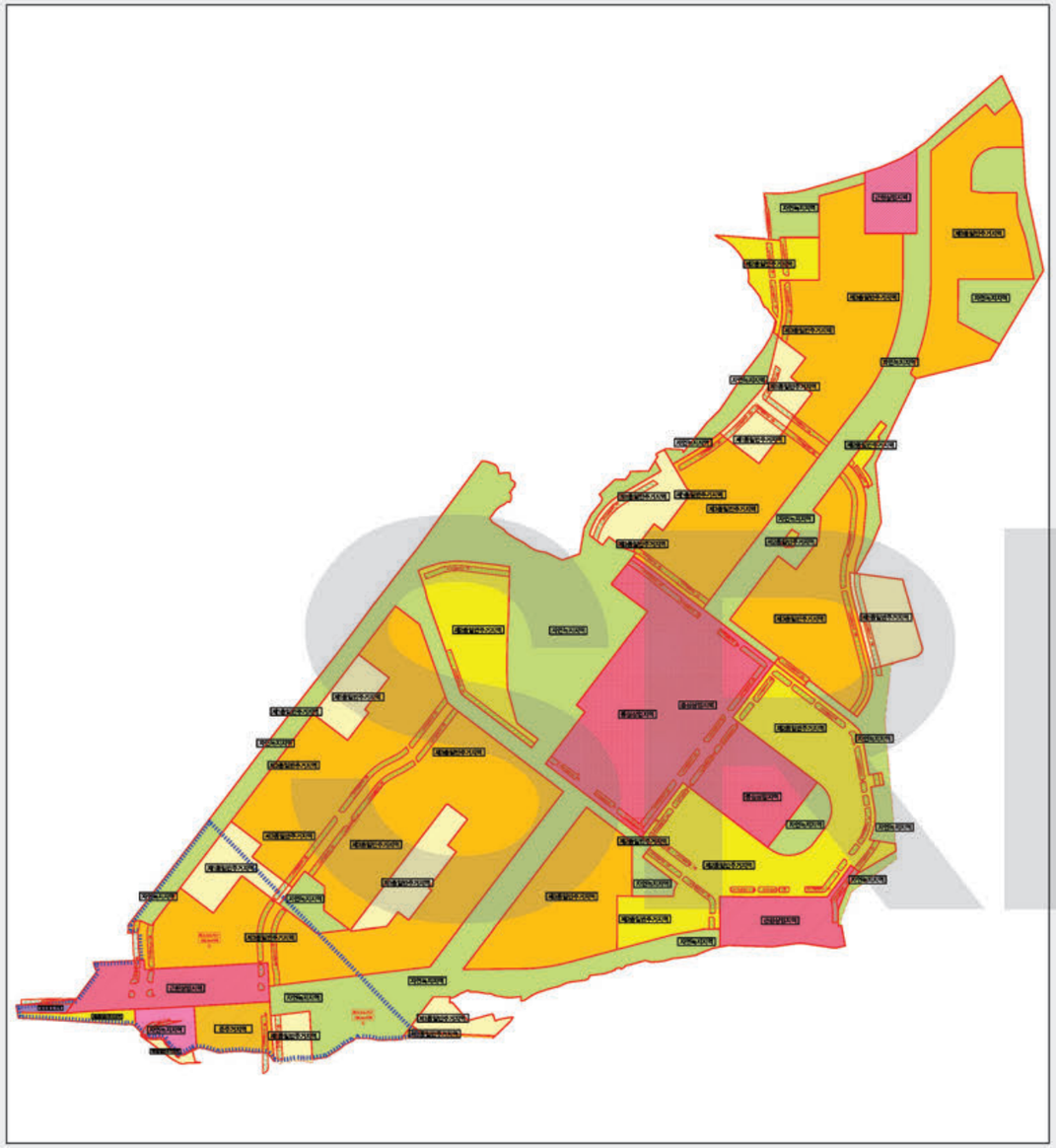
<표 9> 영통지구 용도지구(2022년)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미관지구	-	140,612.2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최고 고도지구	영통동 973-3일원	359,250.0	제1,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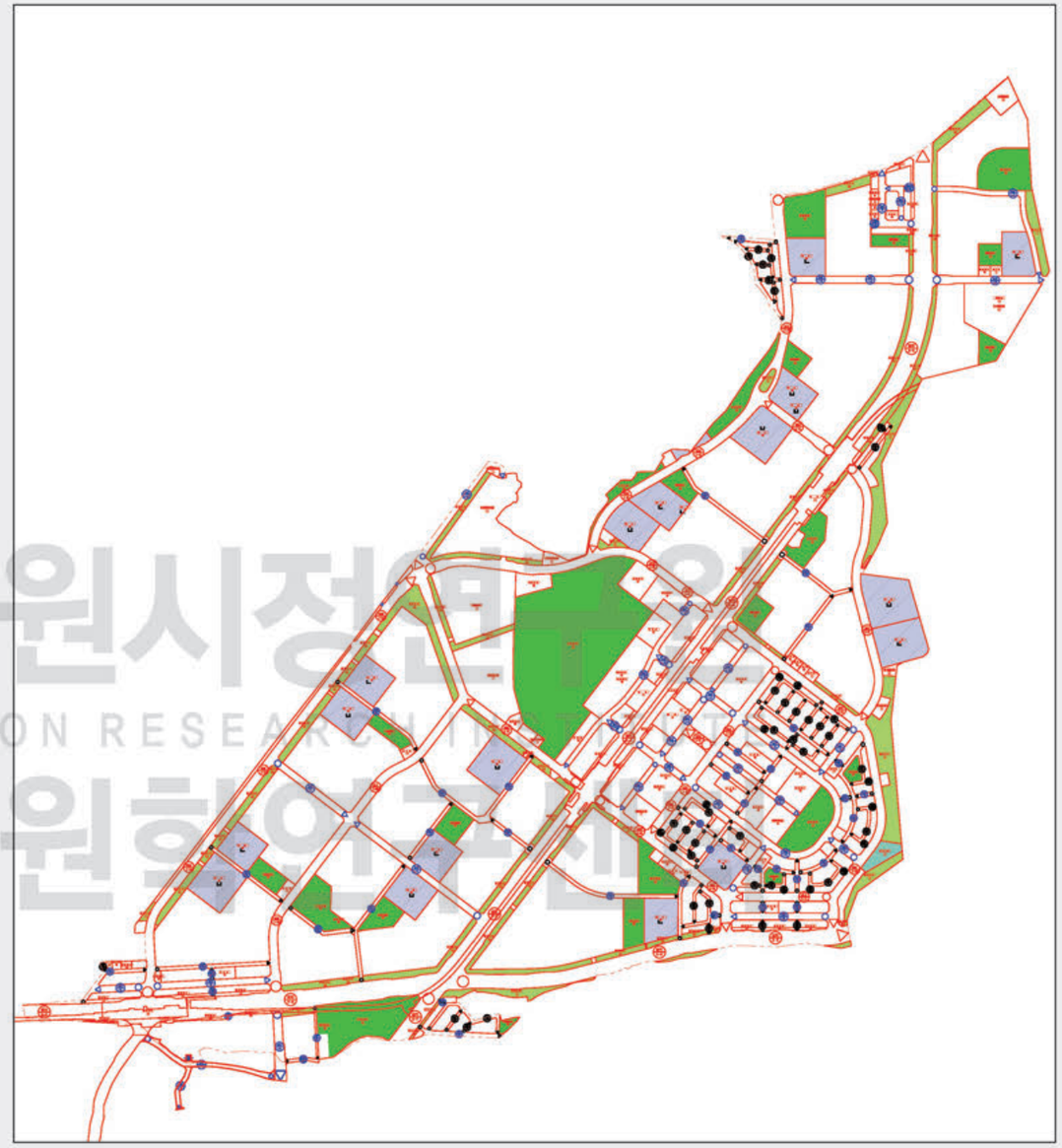


영통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영통지구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 통 지 구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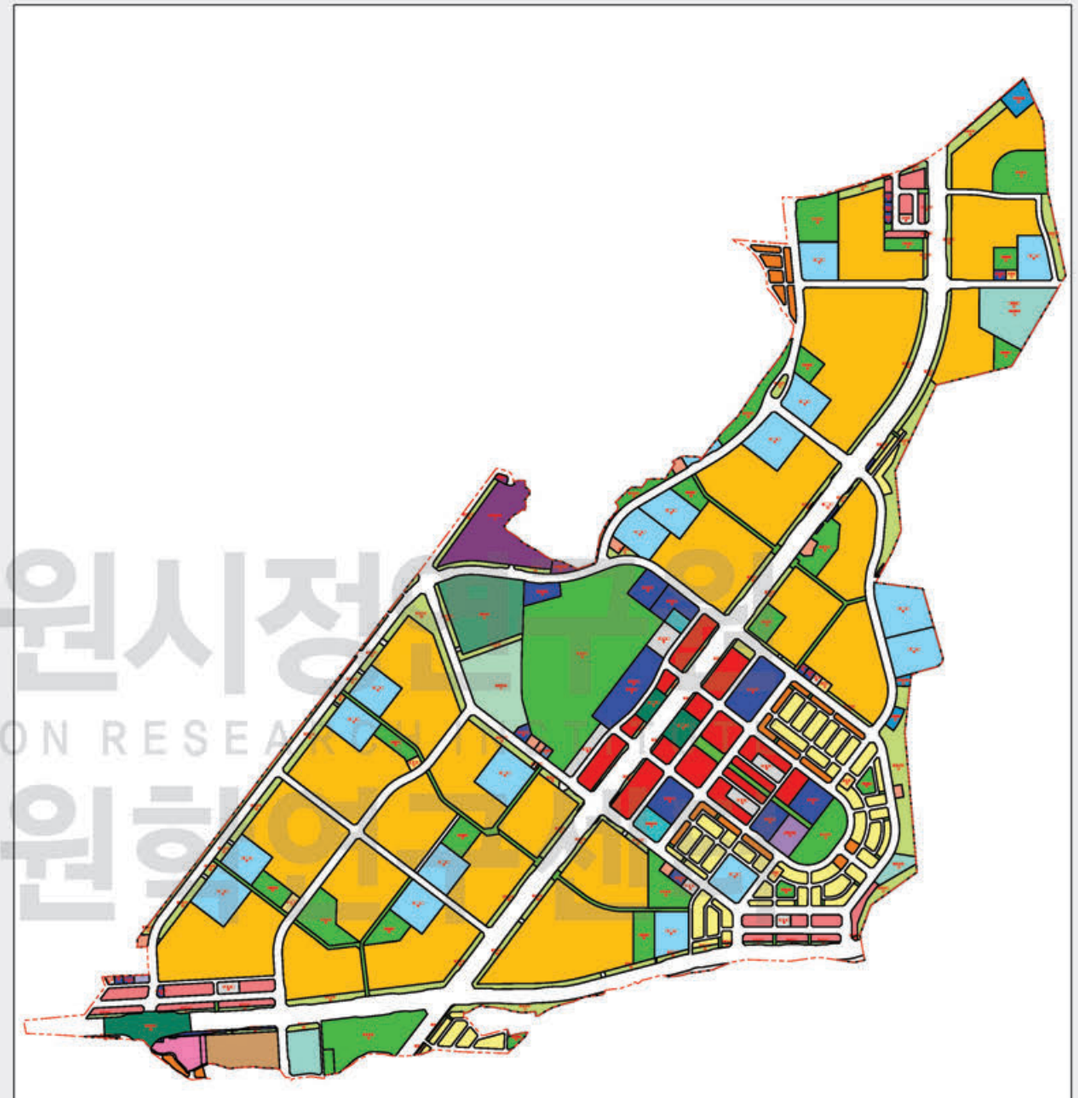
가구·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공동주차 출입구
가 구 번 호
획 지 번 호
건 축 한 계 선
가 구 경 계 선
지 적 선

표지이름	세부사항
상한용적률	최고층수
기준용적률	최저층수
건폐율	용 도 (적용 / 허용 / 불허)

SCALE None
0 50 100 200M

영통지구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영 통 지 구
지구단위계획

토 지 이 용 계 획 도

SCALE None
0 50 100 200M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도로는 광로 3개 노선(일부 편입), 대로 12개 노선, 중로 27개 노선, 소로 90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다. 학교 및 유치원 24개소, 공공청사 20개소, 공공공지 22개소, 전기공급설비 3개소, 주차장 10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등이 결정되어 있다. 또는 공원 및 녹지의 경우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4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10> 영통지구 도로(2022년)

구분		합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합계	노선수	132	3	12	27	90
	연장(m)	35,005 (32,781)	7,117 (5,357)	9,225	7,021 (6,947)	11,642 (11,252)
	면적(㎡)	752,954	262,404	255,227	131,668	103,655
1류	노선수	55			18	17
	연장(m)	11,102 (11,028)			4,482 (4,408)	6,620
	면적(㎡)	159,673			92,975	66,698
2류	노선수	61	1	1	9	50
	연장(m)	12,486 (11,112)	5,025 (4,038)	90	2,539	4,832 (4,445)
	면적(㎡)	282,780	205,516	2,700	38,693	35,871
3류	노선수	16	2	11		3
	연장(m)	11,417 (10,641)	2,092 (1,319)	9,135		190 (187)
	면적(㎡)	310,501	56,888	252,527		1,086

<표 11> 영통지구 공공시설(2022년)

구분	개소	면적(㎡)	구분	개소	면적(㎡)
학교	18	225,812.9	전기공급설비	3	8,506.3
유치원	6	6,962.0	사회복지시설	1	7,878.1
공공청사	20	88,275.0	청소년수련시설	1	737.7
공공공지	22	17,474.3	체육시설	1	4,650.9
광장	3	26,903.0	종합의료시설	1	31,376.0
열공급시설	1	40,537.1	폐기물처리시설	2	41,736.0
수도공급시설	1	26,496.3	주차장	10	23,709.0
방송통신시설	1	5,981.1	공원 및 녹지	74	529,468.5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영통지구는 쾌적한 거주환경은 물론, 상업과 여가, 교육시설을 풍부하게 갖춘 수원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첫 입주민이 영통신도시에 들어선 뒤 어느덧 25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났다. 그런 지금이야말로 영통신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문화를 되짚어 보기에 적합한 시점이기도 하다. 영통지구 첫 입주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영통신도시 주민들이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주

1. 정현목, 2017,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재건축 열풍에서 아파트 민주주의까지, 인류학자의 아파트 탐사기」, 반비, 71쪽.
2. 정현목, 2017,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재건축 열풍에서 아파트 민주주의까지, 인류학자의 아파트 탐사기」, 반비, 3쪽.
3.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영통,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51쪽.
4.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 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85쪽.
5. 강혜정, 2007, 「신도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수원 영통지구와 광교지구예정지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16쪽
6. 「수원 영통영덕 택지개발 본격화 – 2만 6천가구 10만명 수용」, 『한국경제신문』 1994년 5월 11일.
7.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 중 하나인 한국토지공사의 옛 이름으로, 1975년 설립된 토지금고가 1979년 명칭이 바뀌며 영통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인 1992~1993년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라 불렸다. 1996년 한국토지공사로 다시 이름이 바뀐 뒤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해 지금의 LH가 되었다.
8. 「수원 영통영덕 택지개발 본격화 – 2만 6천가구 10만명 수용」, 『한국경제신문』 1994년 5월 11일.
9. 「수도권 남부 대규모 새 도시 조성/수원 영통·용인 영덕」, 『한겨레신문』 1993년 1월 14일.
10. 「수원 영통·영덕지구 – 100만 평에 주택 2만 7천가구 건설」, 『한국경제신문』 1993년 9월 27일.
11. 「수원 영통지구 백만평 개발」, 『국민일보』 1994년 6월 17일.
12. 수원시, 2019,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69쪽.
13. 수원시, 2019,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0쪽.
14. 박해천, 2019, 「낀 신도시의 사반세기 생애: 영통 지구에 대한 메모」,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3쪽.
15. 박해천, 2019, 「낀 신도시의 사반세기 생애: 영통 지구에 대한 메모」,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4쪽.
16. 정현목, 2017,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재건축 열풍에서 아파트 민주주의까지, 인류학자의 아파트 탐사기」, 반비, 82쪽.
17. 「영통지구 학교 운영 차질: 입주 늦어져 13개교 학생 크게 부족」, 「조선일보」 1998년 1월 14일.
18. 박해천, 2019, 「낀 신도시의 사반세기 생애: 영통 지구에 대한 메모」,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5쪽.
19. 수원시, 2019,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1쪽.
20. 「수원 영통-수도권 남부 고급아파트촌 각광」, 『헤럴드경제』 2006년 3월 10일.
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김형아
설낭 대표

02 영통동 아파트 공간의 탄생

1.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영통신도시 조성은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건설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영통지구는 1989년 10월 1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강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200억 원의 사업비 추가부담 및 도로 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수원시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자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건설부로부터 1992년 12월 28일 서둘러 개발계획을 승인받는다.[1]

<표 1> 영통지구 주택건설용지 공급

구분		1994년(계획)			1997년(준공)		
		면적(㎡)	세대수	인구수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계		1,208,261	27,030	100,000	1,226,333.2	26,890	99,479
단독주택지		113,349	540	2,000	106,788.7	506	1,872
공동주택지	소계	1,094,912	26,490	98,000	1,090,852.4	26,384	97,607
	60㎡ 이하	556,044	16,500	61,050			
	60~85㎡	212,862	4,750	17,570			
	85㎡ 초과	326,006	5,240	19,380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영통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한국토지공사, 1997, 「수원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보고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공동주택 배치 계획도

개발계획에 따르면 영통지구에는 120만 8,261㎡의 주택지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중 단독주택지가 11만 3,349㎡이고 공동주택지가 109만 4,912㎡였다. 공동주택지는 60㎡ 이하가 55만 6,044㎡로 50%, 60~85㎡가 21만 2,862㎡로 20%, 85㎡ 초과가 32만 6,006㎡로 30%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영통지구는 원거주민을 위해 계획된 소규모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택용지를 공동주택지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의 집중적 이용을 위해 15층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설용지로 설정하였다.

영통지구는 1기 신도시 입주 이후 다소 늦게 계획됨에 따라 미분양사태가 한창일 무렵인 1995년에 분양이 시작되었다. 미분양 위험에서 다소 유리한 지점은 기존 신도시와 달리 분양가에 채권가격을 더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이다. 매수 희망자들은 더 많은 채권을 산 사람에게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적절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정된 34개사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고려해 가변형 벽구조를 시도하거나 조경 또는 건축 자재를 고급화하며 입주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짓기만 하면 엄청난 경쟁률로 분양이 마감되었던 과거와 달리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쏟아졌고, 인근 용인 수지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되면서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5개 신도시 개발 이후 100만 평에 달하는 가장 큰 규모의 택지개발지구 중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지방과 달리 상대적으로 분양이 용이할 것으로 여겨졌다. 신문에는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전원도시로 서울에서 분양받기 힘든 중대형 평수가 많아서 일부 몰릴 것이라는 기사가 실린다.[2]

1995년 2월에 첫 분양을 시작으로 4월과 6월 1~2차 동시분양에서 일부 평형이 수원 거주자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대부분의 물량이 수도권 거주 청약 1순위에서 끝날 정도로[3] 미분양 사태와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1995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한 주공아파트는 2,700가구 중 2,000여 채가 미분양되었다. 민간건설사의 경우 집의 크기가 클수록 건설비가 낮아지는 효과와 소비자들의 큰 평형 아파트 선호현상을 반영하여 국민주택 규모에 근접한 크기 또는 그 이상의 건설물량을 가져갔다면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는 나머지 소형 아파트 물량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 후 1996년에 분양한 대형 평형대의 현대아파트는 3일 만에 완료되는 등 큰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히 높았다.

분양 희망자의 눈을 맞춰 쓰인 기사와 달리 사실 영통지구는 소형 평형 아파트의 천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준공 이후 작성된 영통지구 주거환경수준 평가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한 과다한 배분으로 다양성과 개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평가는 공간설계의 다양성 부족을 차치하더라도 제도적 한계 안에서 계급 간의 위화감을 고려해 단위면적이 달라도 같은 수준의 인구밀도를 계획하고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중심가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1992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선 후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임대제도가 잠시 사라졌다가 미분양 물량 해결과 다시 급등하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임대제도가 부활하였다. 영통지구에서도 하이웨이유통과 뉴타운개발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부도로 백지화되었고, 5년 임대 후 분양은 대한주택공사의 600세대가 유일하였다.

국가에서 주도한 주택 200만 호 건설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목적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영통지구아파트 분양계획

단지번호	업 체 명	가구수	분양면적	분양예정
①	주택공사	1,224	18평이하	97. 3
②	명진 한국	1,068	〃	95.12
③	삼호 동삼건영	980	〃	〃
④	쌍용건설	904	〃	〃
⑤	주택공사	3,252	〃	미 정
⑥	대우동신주택	1,024	25.7평이상	95.12
⑦	삼익 벽산건설	1,254	18~25.7평	95. 3
⑧	주공	977	18평이하	미 정
⑨	건영건설	523	25.7평이상	96.12
⑩	삼성생명보험	759	〃	〃
⑪	신성 신안 진흥 남광	1,744	18평이하	95.12
⑫	주택공사	1,523	〃	미 정
⑬	신원 미주실업	577	25.7평이상	96.12
⑭	신명 동보건설	868	18~25.7평	95. 3
⑮	㈜건영	449	25.7평이상	96.12
⑯	삼익 극동건설	783	18~25.7평	〃
⑰	주공	1,559	18평이하	미 정
⑱	태영 삼성건설	865	18~25.7평	95.12
⑲	건영종합	1,327	18평이하	96.12
⑳	하이웨이 뉴타운	1,044	〃	95. 6
㉑	한신 두산 우성	1,878	〃	95. 2
㉒	고려산업개발	660	25.7평이상	95.12
㉓	성지 서광 진덕 공영	1,248	〃	95. 3

영통지구 아파트 분양계획(「동아일보」 1995년 1월 21일)

에 부합하는 성공을 이룬다. 특히 1기 신도시 개발 목적 중 하나인 서울의 인구 분산과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로 인한 저소득층 및 도시 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기본계획에서 영통지구가 서울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기능을 분담하여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듯이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전입한 입주민의 비율 중에 인근 수도권 다음으로 서울 거주자가 많았다. 또한 주춤했던 수원시의 인구 증가는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순이동 증가율이 5%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입주는 IMF 경제위기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미분양 적체에 빠진 민간건설사들이 연쇄 부도를 맞아 일부 아파트는 건설 일정이 미루어졌고,[4] 입주자는 높아진 금리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예전에 살던 집의 매매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입주를 못 하게 되었다. 당시 입주율은 20%를 밑돌았다.[5] 이에 많은 양의 아파트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주변 용인 수지와 수원 도심 아파트보다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교통난과 상업시설 및 의료기관[6]이 제때 유치되지 않는 등 도시환경 미비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살구골 진덕서광성지동아아파트 건설공사 현장(1996년 3월 19일, 수원박물관 제공)



신나무실 미주아파트와 신원아파트 건설공사 현장(1997년 11월 28일, 수원박물관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2> 영통동 아파트 건설 현황

사용승인일	아파트명	건설사	세대수	동수	저층/고층	주차 대수	세대당 대수
1997.12.10.	벽적골(8단지) 주공	주택공사	1,548	18	18/20	1,211	0.78
1997.12.12.	청명마을 주공	주택공사	946	11	18/20	812	0.85
1997.12.12.	벽적골 삼성태영	㈜삼성물산, ㈜태영	832	12	16/18	832	1.00
1997.12.12.	청명마을 벽산삼익	㈜벽산, ㈜삼익	1,242	14	17/20	1,277	1.02
1997.12.12.	황골마을 벽산풍림	㈜벽산	928	10	17/20	983	1.05
1997.12.15.	신나무실 주공	주택공사	1,504	18	15/20	1,216	0.80
1997.12.16.	황골마을 주공1단지	주택공사	3,129	39	15/20	2,783	0.88
1997.12.16.	신나무실 신성신안쌍용진흥	㈜신성 외 3	1,616	16	16/20	1,649	1.02
1997.12.16.	신나무실 동보신명	㈜동보건설, ㈜신명종합건설	836	8	18/20	890	1.06
1997.12.16.	벽적골 두산우성한신	㈜두산건설	1,842	18	18/20	1,503	0.81
1997.12.31.	황골마을 신명한국	㈜신명주택건설, ㈜한국산업개발	952	8	16/20	1,043	1.09
1998.01.26.	살구골 진덕서광성지동아	㈜진덕산업 외 3	1,248	18	16/20	2,171	1.73
1998.03.10.	황골마을 쌍용	㈜쌍용건설	872	10	16/20	885	1.01
1998.05.28.	살구골 현대	㈜고려산업개발	612	10	18/20	1,115	1.82
1998.06.23.	청명마을 대우동신	㈜대우, ㈜동신	984	12	18/20	1,764	1.80
1999.02.18.	청명마을 건영1차	㈜건영	502	6	16/19	923	1.83
1999.05.03.	황골마을 주공2단지	주택공사	1,190	14	15/20	1,198	1.00
1999.11.10.	벽적골(9단지) 주공	주택공사	1,265	15	15/20	1,275	1.00
1999.12.29.	신나무실 신원미주	㈜신원종합개발 외 1	574	7	17/20	976	1.70
2000.07.20.	신나무실 건영2차	㈜건영	470	7	16/17	791	1.68
2000.10.11.	신나무실 극동풍림	㈜풍림건설	776	10	17/20	798	1.02
2001.10.30.	청명마을 삼성	㈜삼성물산	714	9	16/20	1217	1.70
2002.03.30.	벽적골 롯데	㈜롯데건설	1,040	6	16/20	1,040	1.00
2002.10.25.	영통풍림아이원3차	㈜풍림산업	494	5	16/25	596	1.20
2006.07.28.	영통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12	2	26/28	219	1.03
2007.08.03.	영통e편한세상	㈜대림산업	230	5	13/15	243	1.05
2008.06.02.	영통하우스토리 (주상복합)	남광토건	98	1	30/31	168	1.71
2008.06.09.	대우월드마크 (주상복합)	㈜대우건설	208	2	36/36	364	1.75
2013.06.04.	청명센트레빌	㈜동부건설	233	3	19/20	294	1.26
2017.09.26.	영통라온프라이빗	㈜라온건설	351	4	24/28	392	1.11

200만 호 공약에서 비롯된 영통신도시의 건설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땅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 승인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택지보상 양도세 시행이 급하게 통과되었지만 택지보상금을 일부 채권으로 준다는 바람에 한바탕 언론에 오르내렸다. 또한 당시 과열된 건설 경기로 공급물량이 최정점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분양이 우려되었다. 게다가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준공과 입주가 늦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등 각종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럼에도 영통지구는 서서히 도시의 틀을 잡아 나갔고, 아파트 단지도 완공되어 갔다.

한편 1990년 수원의 주택 유형별 공급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42.1%, 아파트 40.1%, 연립주택 9.7%,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기타 주택이 8.1%로 여전히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어진 지역은 매탄동과 구운동 일부 지역이었으며, 매탄동은 수원화성과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단핵구조에서 벗어나 동수원생활권을 만

입주를 앞둔 신나무실 신안아파트
(1997년 11월 28일,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지구 첫 입주민(1997년 12월 12일, 수원박물관 제공)

들기 위한 신시가지 계획안에 함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주택 유형은 압도적으로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영통동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중에는 수원 매탄동 아파트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권선동 단독주택지에 살았던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이주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매탄동 아파트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더 큰 주거공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편리성의 경험은 다음 주거 유형으로 다시 아파트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분양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전세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청약제도를 통한 아파트 분양이 새집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주택 유형이었다. 김영실은 인계동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고쳐 주인세대로 20여 년을 살다가, 2004년에 영통동 아파트로 이사 왔다. 김영실은 인계동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고 남문시장이 가까워 생활하는 데 편리했음에도 자식들을 위해서 아파트 생활을 선택한다.

김영실 생활권은 이제 옮겨 가도 되겠다. 대학교 다닐려면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애들도 결혼시켜야 되는데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결혼도 생활권이 바뀌어야지 그 인계동 거기서는 좀 그렇잖아. 올라가는 길이라도 좀 보기에 그렇고 애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김영실은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남 보기에 괜찮은 주거형태가 아파트였기 때문에, 새장 같아서 아파트 생활을 반대했던 남편을 어렵게 설득하여 이주하였다. 이미 아파트는 판타지가 가미된 꿈의 공간이었다. 김영실은 영통동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도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만들어진 관계망을 좇아 구도심의 남문시장에서 장을 보고 미용실을 가고 사람들을 만났다. 생활권은 여전히 구도심이었다.

아파트가 집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과정 안에 있기도 하지만 거꾸로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 중산층에게조차 아파트는 한 번쯤 살아봐야 하는 상징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장소성을 넘어서서 신도시 자체가 중산층의 욕망으로 자리 잡기까지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을 이루고자 한 국가의 제도가 강력한 영향을 끼친 탓이다.

아파트 대단지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페리의 근린주구론은 도시의 스프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인 교외 거주지의 구성원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가구 단위를 계획한 미국의 주택단지에서 한국의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면, 사회학자 허버트 갠스의 레빗타운 묘사인 "안락하고 편리하고 사회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 공간(일상적 욕구에 맞게 기능할 수 있는)"이라는 말을 붙여도 그리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풍족한 커뮤니티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 상점과 도로의 접근성, 가까운 종교시설과 공원시설은 지금도 아파트 대단지의 편리성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영통지구도 편리성에서 도로와의 근접성과 인구 10만 명 규모로 인해 자족적인 도시 환경을 위한 상업시설의 높은 비율이 편리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역으로 말하면 근거리에 형성된 다수의 상업시설 덕분에 굳이 단지를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구도심과 동떨어진 섬과 같은 생활방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구역이라는 의식까지 더해지면서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좁은 영역만 지칭하게 된다.

영통동도 기존의 신도시처럼 '영통'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수원의 정체성을 앞서서 생겨난 장소이기도 하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는 기존 도시의 공간구성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족적인 규모로 인해 원도심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타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만큼 지역 정체성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99년에 영통동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게 된 박은아는 수원과 연고가 없었던 사람으로, 전업주부에서 직장을 가지게 되어서야 영통동이 아닌 수원의 다른 동네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박은아는 결혼 후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인천에서 충북 음성의 근로자 아파트를 거쳤고, IMF 경제위기 때 회사가 부도나면서 여러 번의 우연을 통해 영통동에 오게 됐다. 원래 서울에 주거지를 구하려 했으나 높은 집값에 포기하였고, 영통동이 괜찮다는 친구 말을 듣고 둘러보다가 부동산중개인이 된 또 다른 친구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테니 집을 사라."는 말에 계약하게 됐다고 한다. 10동밖에 없는 근로자 아파트에서 외딴섬처럼 지역 사람들과 교류 없이 답답한 생활을 하고 온 뒤인지라,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 생활은 꽤 만족스러웠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10동뿐인 근로자 아파트에서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거주지가 변했을 뿐, 이전과 똑같이 영통동이 아닌 수원의 다른 장소에 나가 본 적도 교류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웃과의 커뮤니티는 같은 동에 사는 아이 엄마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2.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구성과 배치

영통동 아파트는 1997년 12월 10일 사용승인된 벽적골(8단지)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2002년 준공된 벽적골 롯데아파트까지 23개 아파트가 5개 마을(황골마을, 청명마을, 신나무실, 살구골, 벽적골), 9개 단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1~9단지 아파트는 총 296동 2만 5,622세대이다. 9개 단지 외에 2002년 사용승인된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부터 2017년 승인된 영통라온프라이빗까지의 7개 아파트는 총 22동 1,826세대이다.

<표 3> 마을별·단지별 영통동 아파트 현황

마을	단지	아파트명	마을	단지	아파트명
황골마을	1단지	주공1단지, 주공2단지	벽적골	8단지	두산우성한신, 주공
	2단지	쌍용, 벽산풍림, 신명한국		9단지	삼성태영, 주공, 롯데
청명마을	3단지	대우동신, 벽산삼익	기타		영통풍림아이원3차, 영통아이파크, 영통e편한세상, 영통라온프라이빗, 영통하우스토리(주상복합), 대우월드마크(주상복합), 청명센트레빌
	4단지	건영1차, 주공, 삼성			
신나무실	5단지	주공, 신성신안쌍용진흥			
	6단지	신원미주, 건영2차, 극동풍림, 동보신명			
살구골	7단지	진덕서광성지동아, 현대			



영통동 공동주택지역 마을 및 단지 구분

영통동 아파트 단지 배치 원리는 크레어런스 페리(Clarance Arthur Perry)의 근린주구론(neighborhood unit)과 맥이 닿아 있다. 페리는 근린주구의 적정 인구 규모를 5,000~6,000명으로 보고, 1,000~1,200명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1개소를 주거지 800m 안에 두었다. 특히 근린주구 단위 중앙에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함께 연계되어 있다. 간선도로는 모두 외곽에 있으며 블록의 모서리에 상점이 있다.

영통지구는 한 블록 안에 한 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1,000m 내외로 통학거리를 두었다. 계획 당시 2,500세대당 1개교 설치를 기준으로 학생수 1만 2,000명, 8개 학교를 설정했으며 이는 한 초등학교당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황골마을 1~2단지(김승일 제공)



신나무실 5~6단지와 벽적골 8~9단지(김승일 제공)



청명마을 3~4단지(김승일 제공)



살구골 7단지(김승일 제공)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페리의 근린주구단위

1,500명에 블록 거주인구 규모는 8,000~1만 2,000명으로 정하였다. 영통지구의 한 블록 인구 규모는 대략 2,000~3,000세대로 조성되어 있다.

블록 모서리 또는 외곽에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상가가 들어서 있는 점도 페리의 근린주구론과 많이 닮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구밀집도가 높고 학교의 위치가 중앙이 아닌 블록의 외곽 도로에 접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통과기능을 하는 보조 간선도로를 통하지 않고 한 블록 내부에서 통학할 수 있는 중심에 있거나 블록과 블록 사이의 내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는 경우 블록을 합치면 중앙에 학교가 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라 중로를 한 번 건너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다. 여기에 커뮤니티센터 대신 어린이공원으로 대체하면 부모와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원에서 커뮤니티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근린주구론의 배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20년대 미국에서 계획된 근린주구론이 1990년대 중반의 한국의 아파트 단지 계획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페리의 근린주구론 개념도가 주변 환경과 단절된 폐쇄적인 생활권을 이루게 된다는 비판지점도 똑같이 적용받게 됨을 시사한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의 주동 배치와 한국의 법률 제도가 어떻게 폐쇄성을 더 강화하게 됐는지 들여다보자.

과거 일률적으로 –자형 평행 배치는 격자형의 ㅁ자형 배치로 변화한다. 특히 1990년대 가장 많은 아파트 배치 유형은 ㅁ자형 배치로, 영통지구도 –자 주동(판상형) 형태에 배치는 ㅁ자형, ㄷ자형이다. 주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의 배치 유형은 동일하며 도로 패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 단지 외곽 또는 내부에 차도 패턴이 원을 그리는 순환형으로, 벽적골(9단지) 주공아파트의 경우 보행자전용 공간인 공원 또는 놀이터, 어린이집, 체육시설이 ㅁ자형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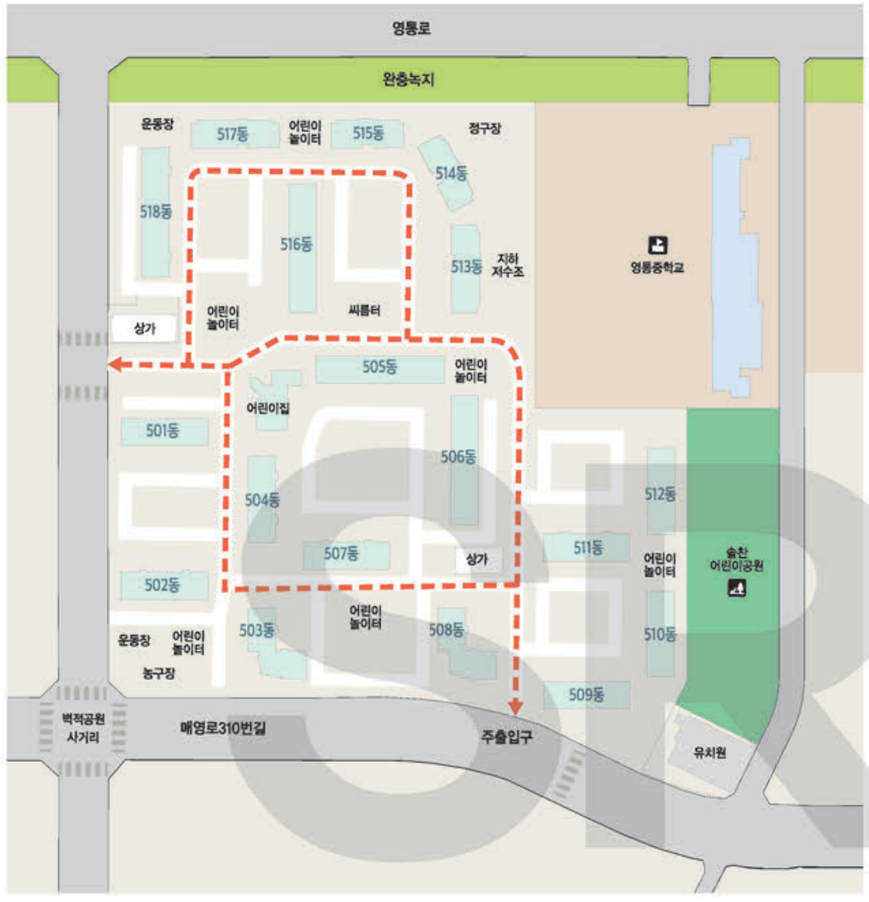


살구골(7단지) 진덕서광성지동아아파트 배치도

전체 단지 규모 안에서 차도와 분리된 중심공원과 놀이터를 배치했으나 적극적인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보행로 조성과 동과 동 사이에 울타리를 치고 단 차이를 두는 등 공간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였다. 민간아파트는 삼성태영아파트의 도로패턴처럼 주출입로가 하나인 컬데삭형이 많이 보이며, 살구마을의 경우 도로를 가운데 둔 관통형 패턴도 보인다. 주공아파트과 민간아파트 모두 끝부분은 ㅁ자형 배치 안에 클러스터를 두어서 지상주차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두었으며, 화단 또는 놀이터를 두고 빙 돌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민간아파트 놀이터는 일부 주공아파트와 비슷하게 ㅁ자형 클러스터 가운데에 배치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단지 외곽 순환도로가 없는 이점을 활용하여 보행로만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외곽에 조성하였다.

하지만 휴게시설 공간이 적고 놀이터도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을 배치하고 남은 땅에 조성한 느낌을 배재할 수 없었다. 커뮤니티 공간을 비교하면 민간아파트 단지보다는 주공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신나무실(5단지) 주공아파트 배치도

파트 단지가 순환도로와 연계해 놀이터 및 휴게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소극적이지만 보행로를 연결해 단지 중심공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조금 더 커뮤니티 기능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모두 ㅁ자형 배치로 주거동 공간 이외에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주거동 전면부 주차장, 출입구, 놀이터 및 휴게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활한다. 각 동 앞의 클러스터를 한 묶음으로 단절성이 강화되는 형국이다. 이는 박은아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자녀의 학급 학부모와의 모임도 있지만 주로 같은 동에 사는 또래 아이들의 학부모와의 커뮤니티가 더 친밀했다고 한다.



ㅡ자 주동(판상형) 형태에 ㅁ자형 배치를 보이는 신나무실(5단지) 신안아파트(1997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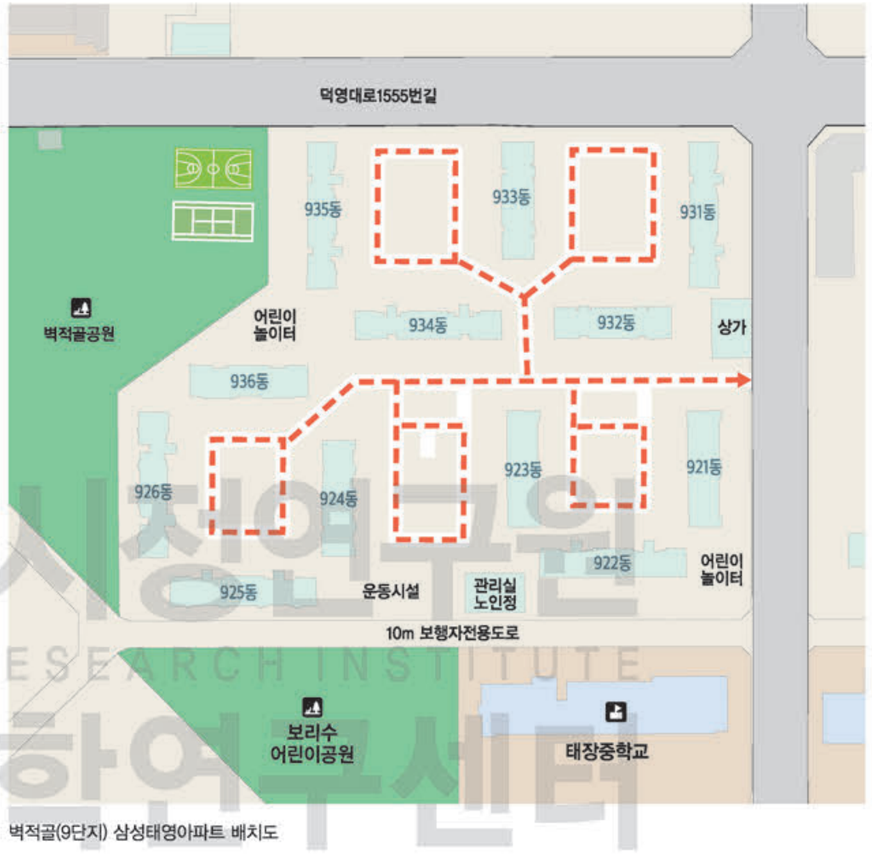
게다가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 단지 안에 전용면적 차이가 큰 동을 섞어서 배치하기보다는 60㎡ 이하, 60~85㎡, 85㎡ 초과 세 단계로 나눠 단지를 조성했고, 거주자들의 경제적 상황도 균질해지면서 동질성을 확보한 단지마다 폐쇄성을 띠게 되었다. 구분이 뚜렷한 공간 구성으로 옷지 못할 일도 일어난다. 김영실은 영통동 청명마을로 오면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성당으로 옮기게 되었고 성당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평수에 따라 사람이 나뉘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김영실 나는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가는 거야. 근데 내가 활동을 해보니까 한군데서 딱 만나도 큰 평수는 큰 평수로 뭉치고 작은 평수는 작은 평수로 뭉치고. 그래서 이거 아닌데, 내 생각에. 반 기도회는 반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봉사를 했어요. "그럼 밥을 먹읍시다." 하고 장소를 정하잖아. 그러면 딱 갈라져서 가. 차가 딱 갈라져. 어우 희한하더라고.

박은아도 황골마을(1단지)에서 살다가 큰 평수대의 청명마을로 옮기고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속상한 일을 겪었다. 청명마을의 주공아파트를 제외한 건영아파트와 삼성아



벽적골(9단지) 주공아파트 배치도



벽적골(9단지) 삼성태영아파트 배치도

파트는 큰 평수대로 블록은 부촌과 부촌이 아닌 단지로 갈리는 곳이었다. 그 안의 신성초등학교는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고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노골적으로 아이를 구분하고 차별하였다. 게다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단지 내 커뮤니티는 전업주부가 아닌 경우 소외되는 구조로, 당시 박은아는 직업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 박은아 정말 황골마을하고 천지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여기서 너무 학대를 받은 거지. 교육청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를 해봤자죠. 꼬리표만 붙고.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힘들었어요. 막 애한테 함부로 하고 그 동네 애들이 진짜 명품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애들은 형이 입던 너덜너덜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애를 너무 무시한 거지.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시작된 단지계획은 블록 내부로 자족적인 주거단지를 이루는 폐쇄성과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촉발된 주택 공급 시스템의 영향하에서, 단지별로 선명하게 구별되는 평수에 따라 배타적인 커뮤니티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동일 주거동의 반복배치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표준설계체제로 정착되면서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아파트들은 구별 짓기에 훨씬 더 용이하기도 하다.

그리고 경유 도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컬데삭 유형의 도로 패턴은 ㅁ자형 배치 안의 클러스터 공간 외에 활동 반경을 제안함으로써 같은 동 안에서의 교류만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기존의 –자형 배치는 주로 거주자들이 남향을 선호하고 아파트 생활이 생소하였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주동 형태와 똑같은 배열의 단지를 조성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잠실 주공아파트와 유사한 ㅁ자형의 배치는 단지 내 커뮤니티를 증진하기 위해 중정 안에 휴게시설과 놀이터를 확보한 것이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하지만 궁극적으로 건설사들에게 ㅁ자형의 배치는 기존의 –자형 배치보다 용적률을 더 늘릴 수 있는 유리한 배치였으며 실질적으로 ㅁ자형의 외부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이 아닌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1992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일조권 규제기준인 동 간격이 1배에서 0.8배로 완화되어 주어진 대지 안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ㅁ자형 배치와 건축법 완화는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건축법 완화라는 유리한 환경[7]을 건설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택 공급량을 유지했고 건설사들은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되 주거의 질보다는 이득이 되는 방향이 거주자들에게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3. 영통동 아파트의 평면 유형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에서는 2,094개 주호 평면을 분석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미세한 치수의 차이 외에는 동일한 유형의 평면이 반복되고 규모의 고정화 현상이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전 시대의 큰 평면 규모에서 나타난 유형이 작은 평면으로 하향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8]

영통지구만을 대상으로 평면 유형을 분석해도 동일한 평면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쓰는 평면 유형이 하향화되거나 2000년대에 주로 많이 쓰인 평면계획이 혼용되어 나타났다. 영통지구 아파트의 내부 평면 유형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8㎡, 49~50㎡, 59~60㎡, 75~85㎡, 99~102㎡, 117~120㎡, 134~135㎡, 164~165㎡으로 나눌 수 있다. 75~85㎡를 제외하고 각 단위면적은 모두 최대 크기에 근접해서 계획되었다.[9]

영통동에서 가장 작은 면적 A타입은 38㎡로 벽적골 롯데아파트 한 곳이다. 1987년부터 40~45㎡의 면적 크기에서 주로 나타난 유형이다. 입주일을 기준으로 2001년에도 평면계획이 쓰이고 있으며 더 작은 면적에 적용되었다. 50㎡ 이하 면적 단위는 민간에서 롯데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했으며, 38㎡ 평면에서 조금 더 커지고 거실 겸 침실을 방과 거실 2개로 나눴다. 5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평면으로 1,495세대가 이 유형으로 쓰였다.

2000년대까지 소형 평면은 전면이 좁고 세로로 깊은 유형이 다수였다. 특이하게 B타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세로로 깊이가 있는 유형이 아닌 가로로 길고 방 2개와 거실이 전면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 면적 배분

에 있는 3bay로 앞면에 전면 발코니를 설치하고 후면에 현관이 있는 평면을 시도한다. 전면이 가로로 길어진다는 의미는 기둥과 기둥 사이 구획인 bay가 옆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기둥이 아닌 내력벽 구조로 내벽과 내벽 사이의 구획을 지칭하며 전면에 발코니 설치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발코니에 접한 거실 또는 방의 개수에 따라 bay를 칭한다. 50㎡ 단위면적까지 복도형으로 되어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4>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의 면적 및 구조

구분			아파트명	면적정보	공급(㎡)	전용(㎡)	세대수	방/욕실(개)	현관구조	용적률(%)	건폐율(%)
황골마을	1단지	1	주공1단지	65	65.91	49.44	28	2/1	계단식	215	16
				68	68.96	49.76	489	2/1			
				77	77.29	59.80	180	3/1			
				82A	82.55	59.94	96	3/1			
				83B	83.14	59.99	2,336	3/1			
		2	주공2단지	68	68.96	49.76	76	2/1	계단식	218	17
				76A	76.8	59.39	15	3/1			
				77B	77.29	59.80	195	3/1			
				82B	82.62	59.99	830	3/1			
				82A	82.59	59.94	74	3/1			
황골마을	2단지	3	쌍용	81A	81.57	59.79	512	2/1	계단식	219	17
				81B	81.98	59.80	360	3/1			
		4	벽산풍림	109A	109.31	84.96	464	3/2	계단식	220	18
				109B	109.14	84.84	464	3/2			
		5	신명한국	81A	81.36	59.95	392	3/1	계단식	219	20
				82B	82.82	59.99	560	3/1			
청명마을	3단지	6	대우동신	124	124.70	99.87	440	4/2	계단식	217	16
				162	162.71	134.64	392	4/2			
				195	195.66	164.76	152	5/2			
		7	벽산삼익	96(벽산)	96.42	73.79	158	3/1	계단식	220	12
				96(삼익)	96.42	73.79	158	3/1			
				109(벽산)	109.1	84.96	463	3/2			
				109(삼익)	109.1	84.96	463	3/2			
	4단지	8	건영1차	110	110.99	84.99	64	3/2	계단식	219	18
				125	125.5	99.96	74	4/2			
				163	163.29	134.81	364	4/2			
		9	주공	68	68.96	49.76	114	2/1	계단식	218	17
				82A	82.55	59.94	76	3/1			
				82B	83.14	59.99	756	3/1			
		10	삼성	126	126.91	92.23	258	3/2	계단식	219	16
				155	155.48	119.87	228	4/2			
				174	174.95	134.23	152	4/2			
				212	212.11	164.94	76	5/3			
신나무실	5단지	11	주공	73	73.95	49.59	360	2/1	복도식	219	17
				77	77.45	59.96	120	3/1	계단식		
				82B	82.62	59.99	984	3/1			
				82A	82.55	59.94	40	3/1			
		12	신성신안 쌍용진흥	80	80.8	59.96	1,616	3/1	계단식	21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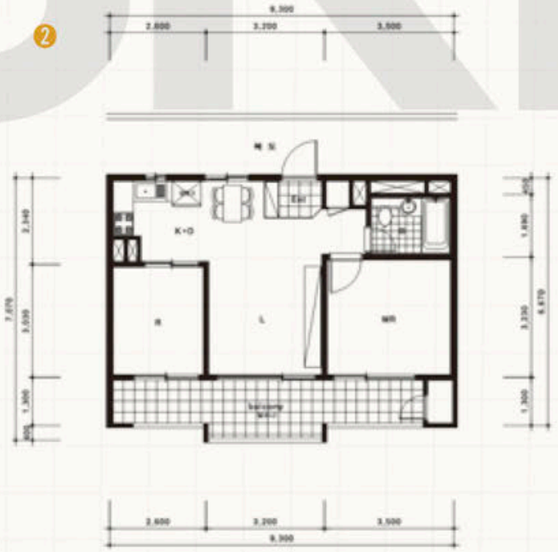
구분			아파트명	면적정보	공급(㎡)	전용(㎡)	세대수	방/욕실(개)	현관구조	용적률(%)	건폐율(%)
신나무실	6단지	13	신원미주	127A	127.06	101.71	160	4/2	계단식	218	16
				127B	127.28	101.99	120	3/2			
				143	143.23	117.61	3	3/2			
				145	145.23	118.97	1	3/2	복합식		
				164B	164.8	134.99	173	4/2	계단식		
				164A	164.14	134.78	117	4/2			
		14	건영2차	111	111.03	84.99	68	3/2	계단식	219	19
				125	125.61	99.96	198	4/2			
				163	163.42	134.81	204	4/2			
		15	극동풍림	98	98.7	75.69	296	3/2	계단식	219	16
				108	108.93	84.9	480	3/2			
		16	동보신명	106	106.68	84.9	836	3/2	계단식	219	17
살구골	7단지	17	진덕서광 성지동아	126	126.33	101.25	728	4/2	계단식	219	16
				163	163.01	134.88	360	4/2			
				197	197.52	164.85	160	5/2			
		18	현대	120	120.41	99.58	220	3/2	계단식	219	16
				162	162.95	134.76	312	4/2			
				199	199.38	164.89	80	5/2			
벽적골	8단지	19	두산우성한신	80B	80.54	59.84	1,482	3/1	계단식	220	16
				80A	80.39	59.73	360	2/1			
		20	주공	73	73.95	49.59	600	2/1	계단식	196	13
				82B	82.59	59.99	912	3/1			
				82A	82.59	59.94	36	3/1			
	9단지	21	삼성태영	107A2	107.82	84.88	308	3/2	계단식	218	18
				108A1	108.3	84.84	208	3/2			
				109B1	109.49	84.93	208	3/3			
				109B2	109.96	84.91	208	3/2			
		22	주공	68A	68.31	49.63	42	2/1	복도식	218	17
				68B	68.6	49.57	38	2/1			
				73	73.43	49.26	119	2/1			
				80A	80.96	59.39	938	3/1	계단식		
				81	81.74	59.39	90	3/1			
				81B	81.01	59.34	38	3/1			
		23	롯데	50	50.57	38.16	208	2/1	복도식	193	21
				65	65.88	49.71	416	2/1			
				79	79.46	59.96	416	3/1	계단식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60㎡는 영통지구에서 가장 많은 단위면적으로 총 1만 3,414세대이며 52%를 차지한다. A타입 평면 단위는 유형이 계단실형 코어에 앞뒤 전면 발코니를 가지고 있으며 3LDK에 화장실은 1개이고 거실과 안방이 전면에 있는 2bay이다. 전면 폭이 좁고 깊다.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공간 구성으로 1980년을 기점으로 전용면적 85㎡에서 처음 적용되었으며 점차 하향하여 1990년에는 수도권 신도시의 60㎡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10]

영통지구에서 가장 많이 쓰인 공간 구성으로 60㎡ 주호의 80%인 1만 752세대가 같은 평면이다. A타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B타입 공간 구성도 함께 나타난다. B타입은 1990년대에 85㎡에 쓰인 전형적인 평면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타입이다. 이 평면은 하향화되어 60㎡에도 적용되었으며 면적의 한계로 화장실은 1개이다. 주방을 길게 쓸 수 있는 이점 덕분에 A타입 평면보다 여유 있는 ㄱ자형 싱크대를 둘 수 있다. 495세대에 쓰였으며 많이 채택되진 않았다. 이 외에도 C타입은 주공에서 B타입에 거실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2면이 발코니에 접한 평면 시도를 했으며 60㎡라는 좁은











❶ 벽적골 롯데아파트(14평형)
전용 38㎡, 공급 50㎡, 복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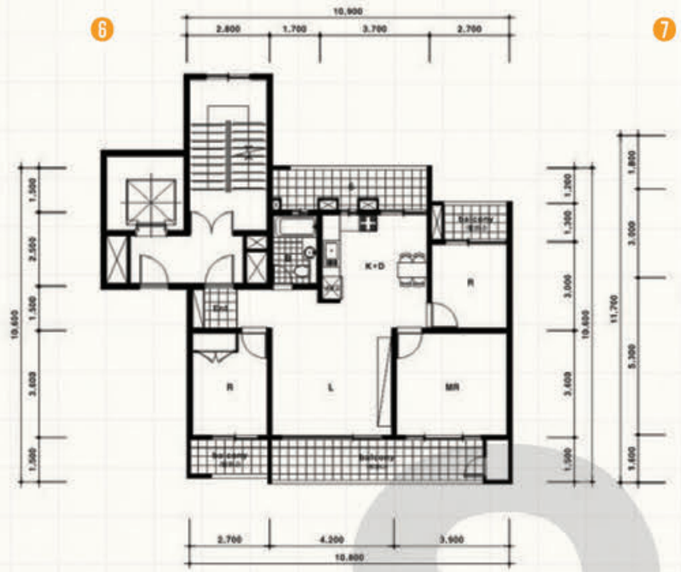
❷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20평형)
전용 49.7㎡, 공급 69㎡, 복도식

❸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24평형)
전용 59.99㎡, 공급 82㎡, 계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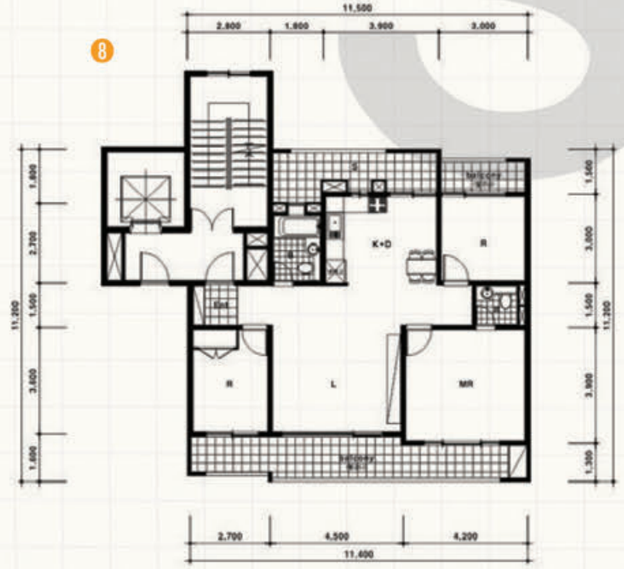
❹ 신나무실(5단지) 주공아파트(23평형)
전용 59.96㎡, 공급 77㎡, 계단식

❺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23평형)
전용 59.99㎡, 공급 50㎡, 계단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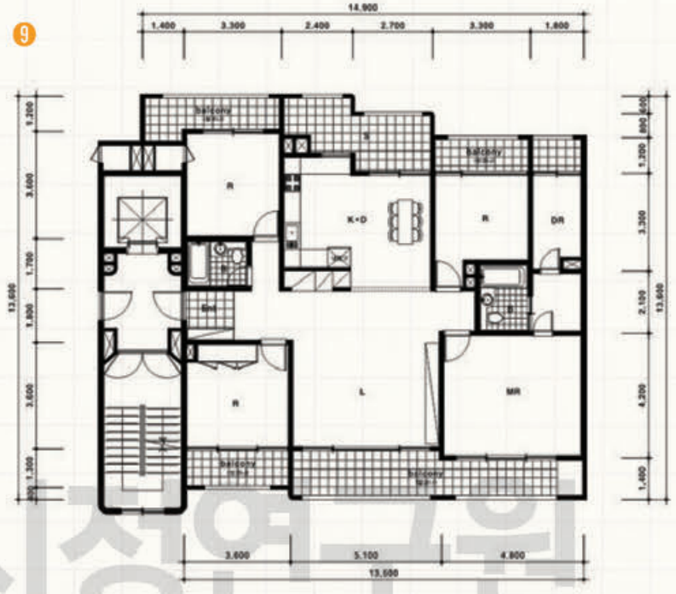
6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29평형)
전용 73.79㎡, 공급 96㎡, 계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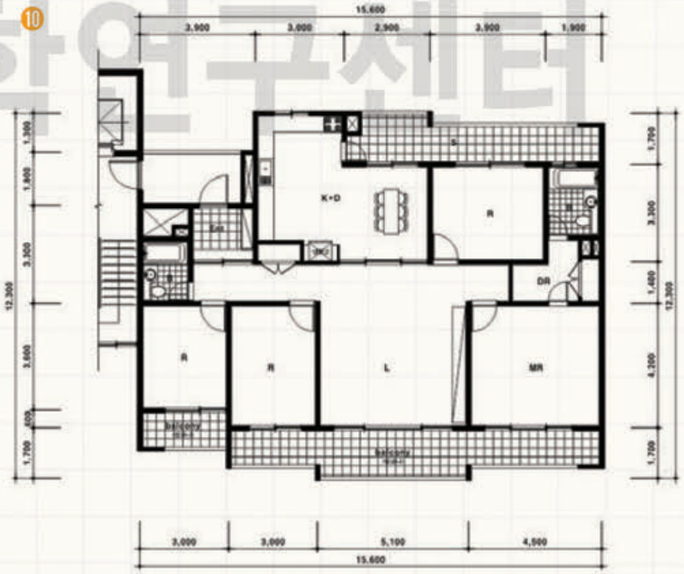
7 신나무실 극동아파트(32평형)
전용 84.8㎡, 공급 108㎡, 계단식

8 황골마을 벽산아파트(33평형)
전용 84.96㎡, 공급 109㎡, 계단식

9 건영아파트(49평형)
전용 134.8㎡, 공급 163㎡, 계단식

10 살구골 현대아파트(50평형)
전용 134.7㎡, 공급 163㎡, 계단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공간에 확장된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전용 85㎡ 미만 평면 단위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규모로 국민주택의 기준이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크기이다. 1990년대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지어진 규모이지만 영통동에서는 총 4,746세대로 18.5%만 지어진다. 85㎡에 근접한 규모만 따지면 16%까지 줄어든다.

85㎡에 근접한 전용면적 단위부터 화장실이 2개이며 방 3개, 거실(L), 식당(D)/부엌(K)인 3LDK이다. 시기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1990년대 주류인 A타입과 2000년대 주류인 B타입이 혼재되어 있다. 영통에서는 32평이 A타입, 33평이 B타입으로 나타난다. 영통지구에서는 B타입이 더 많이 지어진다. 드물게 75㎡인 29평형 612세대가 지어졌으며 A타입과 B타입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있다. 하나는 A타입이 치수만 작아진 똑같은 평면이고, 두 번째 B-1타입은 전면에 거실과 방2개가 배치된 3bay이지만 면적의 한계로 화장실은 하나이다.

85~135㎡ 미만 중 135㎡에 근접한 평형은 49평형, 50평형으로 A타입과 B타입이 있으며 방 4개와 화장실 2개, 전실과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다. 차이점은 A타입은 3bay, B타입은 4bay이다. B타입은 1990년대에 140㎡ 이상에서 나타나는 평면 유형으로 A타입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면 형태라면 B타입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평면이다. 2010년대 들어서면 85㎡ 평면 단위에서도 발코니 확장을 통해 방 3개가 전면에 면한 4bay 유형이 하향화되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영통지구는 135㎡ 평면 유형에서 현대아파트와 삼성아파트, 신원미주아파트에서 시도되었다. 102㎡ 미만은 37평형과 38평형으로 3bay에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이다. 주방·식당과 거실이 중앙에 앞뒤로 마주보는 구조로 개방감을 주었고 방 4개가 각 4면 모서리에 위치한다. 120㎡의 43평형과 135㎡ 미만의 49평형 A타입과 동일한 평면 유형으로 차이점은 안방에 화장실과 전실, 드레스룸의 유무이다. 102㎡ 미만 중 현대아파트 85㎡ A타입을 미주와 삼성아파트가 85㎡ B타입 드물게 적용했고 신원아파트는 전면에 방 1개와 거실·홀, 주방·식당을 가로로 길게 배치한 후 후면에 방 3개를 배치한 새로운 타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가장 큰 크기는 165㎡에 근접한 면적 크기로 59평형, 62평형이 있으며 4bay에 방이 5개, 화장실 2개 또는 3개, 전실과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다. 135㎡ B타입에 후면에 방이 하나 더 있는 형식이다. 대우동신아파트,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가 같은 유형으로 총 468세대(1.83%)가 지어졌다.

4. 영통동 아파트 실내공간 활용

영통지구의 평면단위 유형은 국민주택 규모(85㎡)보다 적은 60㎡ 단위면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영통지구의 가장 대표적인 단위면적인 60㎡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실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서서 가전제품이 늘어나거나 대형화되면서 60㎡ 크기로 생활하기 불편하였다. 신나무실(5단지) 주공아파트에 살았던 송혜숙은 4인 가족으로 당시 좁았던 부엌·식당을 이야기하였다.

송혜숙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주방이 좁아. 내가 볼 때 부부와 아이 하나 정도. 딱이야. 4인 식탁을 놨을 때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 싱크대하고 붙여서 3명 정도는 앉을 수 있어도 4인 가족이 나올 구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냉장고를 베란다에 놨어. 둘 수밖에 없어.





신나무실(5단지) 주공아파트(24평형) 가구배치

평면계획을 했던 1990년대 초중반에는 김치냉장고가 필수 가전제품이 아니었다. 1995년 후반 만도기계에서 나온 위니아 딤채가 아파트 생활을 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주부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가전제품 1위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송혜숙은 좁은 부엌·식당에 김치냉장고를 두었고 1990년 초부터 다용도실의 기능으로 변모한 후면 발코니에 세탁기와 냉장고, 또 다른 김치냉장고를 두었다. 좁은 발코니에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연달아 배치하면서 부엌에서 냉장고까지 가는 동선보다 방을 거쳐 재료들을 가져오곤 했다고 불편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기존의 냉장고 자리는 작은 냉장고 용량에 맞춰 빠듯하게 계획된 탓에 김치냉장고가 자리를 대신하고 냉장고는 발코니로 빠지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양문형 냉장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부엌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박은아도 부엌에 식탁을 놓는 대신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단지에 사는 동안 비싼 가격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로 양문형 냉장고가 아닌 사이즈를 조금 키운 일반 냉장고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송혜숙과 박은아 모두 2010년이 돼서야 양문형 냉장고로 바꾸었으며 박은아는 2009년 135㎡ 크기의 건영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부엌에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다.

현재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와 벽적골 롯데아파트에 사는 두 신혼부부는 제한된 크기에서 어떻게 부엌을 꾸몄을까? 황골마을 1단지에 사는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로 수지에 사는 친정과 가까워 영통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부는 기존 냉장고가 있던 자리까지 싱크대를 확장해 짧은 ㄷ자로 만든 후에 정수기와 커피머신, 아이의 간식을 올려놓을 수 있게 했다. 싱크대를 ㄱ자형에서 ㄷ자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식탁을 놓기에 비좁아졌지만,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 수 있는 홈바 기능을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거실 발코니를 확장한 후 전면 창 쪽에 2인용 테이블이 놓아 식사공간 겸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문형 냉장고는 후면 발코니 오른쪽 끝에 배치되었고 왼쪽 끝에는 현재 유행하는 세탁기·건조기가 일렬로 세워져 있다.

같은 면적의 롯데아파트에 사는 오상미는 맞벌이 부부로, 자녀 한 명을 둔 3인 가구이다. 남편과 본인의 직장 중간 지역이고 친정 근처라는 요인이 작용하여 영통동으로 이사하였다. 부엌·공간의 싱크대는 기존에 쓰던 -자형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2인용 식탁과 의자, 선반이 놓여 있다. 냉장고는 후면 발코니 오른쪽에 배치했으며, 왼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다.

두 집 모두 용량이 커진 냉장고를 후면 발코니로 옮겨 부엌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식탁의 유무는 싱크대에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된 홈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카페 문화가 발달하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홈바 기능이 추가되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김치냉장고가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면 2020년대 초반에는 애초에 냉장고가 후면 발코니로 이동하고 냉장고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홈바가 추가되었다.

거실과 방의 위계, 배치는 또 어떻게 다를까? 2020년대 영통동 거주자들의 거실은 이제 막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를 위한 용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두 집 모두 2인용 쇼파가 있다. 한 집은 쇼파 맞은편에 텔레비전을 놓았고, 다른 집은 책장을 놓았다. 현관 옆 작은방은 두 집 모두 옷방으로 사용하였으며, 한 집은 작은방을 발코니 공간까지 확장하면서 넓어진 공간에 컴퓨터를 놓았다. 다른 작은방에는 두 집 모두 장난감을 정리해 두었는데, 한 집은 발코니 확장 자리에 책상을 놓았으며 앞으로 자녀 방으로 꾸밀 예정이다. 2개의 작은방 중 1개는 발코니 공간까지 확장하였고 확장한 공간에는 모두 책상이 놓였다. 안방은 침대와 아기 침대, 화장대를 놓았으며 이 또한 같았다.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23평형) 가구배치



벽적골 롯데아파트(23평형) 가구배치

두 집 모두 안방은 부부침실, 작은방은 자녀방과 옷방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옷장은 사라지고, 방 전체가 행거와 서랍장이 놓인 옷방이 되었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발코니 확장을 했으며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발코니와 방의 경계 벽이 두껍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짐은 많고 창고 공간이 부족해 보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 영통동 거주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닐 무렵 이주하였다. 생애주기에서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송혜숙은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2004년에 영통동으로 이사 왔다. 남편 직장이 화성시에 소재하였기 때문에 신혼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화성시 남양읍 소재 사원아파트에서 생활했지만,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화성시 봉담읍으로 한 차례 이사를 했다. 그 후 자녀가 수원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 싶어 하여 급하게 영통동으로 이주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왔다. 봉담읍 아파트는 전 집주인이 해놓은 인테리어 덕분에 꽤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저수지가 훤히 보이고 그 당시 유행하던 체리몰딩이 아닌 흰색 몰딩이었고, 현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현관 중문과 거실 발코니 확장을 통해 발코니 끝까지 마루를 깐 예쁜 집이었다. 급하게 구한 영통동 아파트는 쾌적한 환경보다는 자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활공간을 정하였다.

송혜숙 엄청 버렸지. 좁은 데로 간 거니까. 새로 장만한 건 컴퓨터야. 봉담에서부터 2대를 놔 줬어.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한다고 텔레비전을 버렸어. 내 거까지 컴퓨터가 3대였어. 안방을 아이들을 줬어. 그리고 가구를 모듈러 같은 가구로 다 맞췄어. 책상도 다 칸막이로 쌓을 수 있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걸 다 샀어. 책상도 큰 상판을 놓고 바퀴 달린 서랍 놓고. 공부방을 큰 안방으로 주고 작은방에서 부부가 자고 다른 작은 방은 형제가 자고 그랬어.

송혜숙은 "30대에는 남편 직장 위주로 집을 정한다면, 자녀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학교를 위해 주거환경을 맞춘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 배치도 자녀를 우선순위에 놓고 위해 정하였는데, 부부가 쓰는 안방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꾸몄으며 거실은 텔레비전을 치우고 서재로 만들었다. 송혜숙 본인도 논술을 가르치는 직업 특성상 작업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실에 컴퓨터와 책상을 놓고 일을 했다. 송혜숙의 교육방침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남편도 안방을 자녀에게 주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안방 외에는 방의 역할을 따로 두지 않았고, 침대가 없었으며 원하는 방에서 때에 따라 잠을 잤다고 한다.

박은아는 자녀가 3명이고 성별이 달랐기 때문에 공부방과 침실을 분리할 순 없었는데, 셋째가 자란 후에는 첫째와 방을 같이 썼다. 그리고 안방을 제외한 방들은 좁아서 침대를 두지 않았고 각각 책상을 놓았다. 두 집 모두 기본적으로 자녀가 둘 이상이기 때문에 옷방을 두거나 물건을 둘 창고 기능의 방을 따로 둘 수 없었고 후면 발코니 또는 전면 발코니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였다.

아파트 실내공간 활용에서 과거 영통동에 거주했던 두 집과 현재 영통동에 거주하는 두 집의 차이는 자녀수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현재 영통동에 사는 두 집은 모든 생활공간이 육아에 맞춰져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자녀가 한 명이기 때문에 아이 방이 하나 있고, 부부침실과 아이 방의 위계가 바뀌어 있지 않았다. 물론 공간에 여유가 많진 않았고 방 하나는 무조건 드레스룸으로 쓰이고 있었다. 20년 전과 달리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기본적으로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이 보편화되었고 그만큼 라이프스타일 감각이 달라진 것이다. 1단지에 사는 부부의 경우 화장실에 아이 욕조가 자리를 차지하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방(원형 유지)



기본(1차) 수리한 주방(126동 주민 제공)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기본(1차) 수리한 실내공간(126동 주민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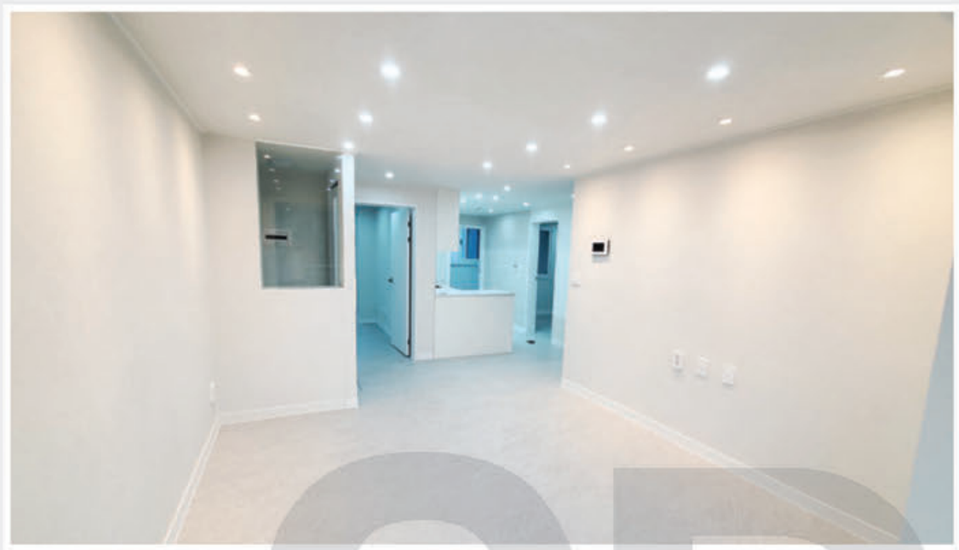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기본(1차) 수리한 실내공간(126동 주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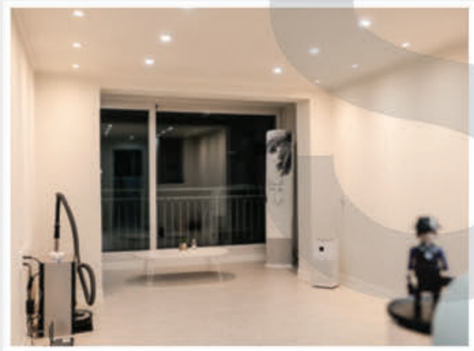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인테리어(2차 수리) 시공 후 실내공간(126동 주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인테리어(2차 수리) 시공 후 실내공간 활용(126동 주민 제공)









청명마을 신명한국아파트(82B㎡) 실내공간(최인경 제공)

면서 부부침실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였다.

아파트 실외공간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에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하였다. 아직 생애주기에서 부부가 중심에 있고 자녀 양육은 교육보다 돌봄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확장되기 전 상태이기도 하다. 또한 2000년대의 경우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같은 단지 내에 많았다면, 현재는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고 맞벌이 부부라는 요인이 단지 내 커뮤니티 참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5. 영통동 아파트 거주 주부들의 커뮤니티 활동

2000년대 영통동 주부 커뮤니티는 부녀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특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PEC스포츠아카데미 광고(PEC스포츠아카데미 제공)

히 영통동 주민들의 교육열은 강남 다음으로 심했다고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였다. 마치 현재 동탄맘 커뮤니티가 막강한 것처럼 영통동에 사는 주부들의 커뮤니티가 교육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공교육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학원이 많았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거라고 말하였다. 박은아도 그 당시 영통동에 있는 학원비가 대치동 수준으로 고가였다고 기억한다.

영통동은 일반 교습학원도 유명했지만 PEC축구교실도 인기를 끌었다. PEC축구교실은 1999년 영통동에서 창단되었는데, 2004년에 PEC스포츠아카데미로 명칭을 바꾸어 스포츠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박은아는 청명마을에 이사 오면서 교류가 마땅치 않은 차에, 자녀가 PEC축구교실에 들어가면서 축구교실 학부모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다달이 돈을 내고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치와 함께 축구를 하였는데, 클럽당 참여인원이 제한되었고 유니폼까지 갖춰져 있었다. PEC축구교실은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활성화되어 남자 아동 2~3명에 1명꼴로 PEC축구교실에 가입할 정도였다.

박은아 약간 매니아들만 하는 문화라면 영통동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세고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구도로 홍보를 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도 나도 하고 대회를 벌이면 엄마들이 와서 자기 아들 이기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주말마다 대회니까 나는 피곤한 거야. 왜냐면 쫓아가서 응원을 해야지 다른 집 애들은 간식이만큼씩 싸오고 소풍 온 것처럼 하는데 우리 애만 보낼 수 없잖아. 그러게 막 가랑이 찢어지게 했던 거죠. 저도. 재미도 있었어요.



자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영통동 주부들의 교류

PEC는 스포츠클럽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축구에서 농구로 옮겨 가기도 했으며 학원의 의지보다는 엄마들의 힘으로 클럽 인원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스포츠로 바꾸고 아이들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주요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옮겨 가고 자연스럽게 스포츠클럽을 그만둔다. 유행처럼 번진 스포츠클럽 때문에 집집마다 등번호가 쓰인 유니폼 하나쯤은 걸려 있었을 정도로 영통동만의 문화이기도 했다.

맘카페나 SNS가 활성화되기 전 아파트 문화는 단지 내 학교 또는 같은 동에 사는 또래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울리는 주부들의 입소문으로 만들어졌다. 2000년대 중반까지 공동체 생활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주부로 지내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리면서 밥도 해 먹고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나 그랜드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청명산으로 운동하러 가는 등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영통동 부녀회도 잘 조직되어 있어서, 부녀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저렴하게 요가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알뜰장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시립 스포츠센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박은아는 2000년에는 개방적인 교류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나 점차 개별 문화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특히 광교신도시와 동탄신도시 등 주변에 신도시가 완공된 후 주민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영통동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전까지 삼성 자치구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622세대의 인구 규모와 잘 갖춰진 상권,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등 영통동 아파트 단지 자체는 안정적이고 살기 편한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송혜숙은 자녀들이 모두 졸업한 후 망포동으로 이주했고, 박은아는 아이들이 크면서 좀 더 넓은 서천동으로 이사 갔다. 김영실도 아파트 생활을 한 후 현재는 서천동에 빌라를 지어서 살고 있다. 각자 생애주기의 한 시절을 지낸 후 영통동 아파트에서 나와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고 모두 다 멀지 않은 곳에 터를 잡았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영통동에서의 삶이 편하고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 영통동으로 들어온다. 오래된 아파트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들도 서울과 교통이 가깝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입소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구매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에 참여할 시간도 부족하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 이는 아파트 공간에서 비롯된 문제만은 아니다. 기존의 돌봄과 가사는 그림자 노동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복지가 강화되기보단 서비스 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쓰면 편리하게 해결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는 다시 되먹임 구조로 순환하며 복지의 영역도 공동체가 나누지 않고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성질로 고착화된 것이다.

결국 사회가 사라진 자리를 개인이 짊어지면서 돈으로 환산되는 공간에 대한 집착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국가가 소극적으로 관여한 주택 공급 제도가 공간 경험 자체를 편협하게 바꾸어 놓은 점도 한몫하였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사회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끼치고 인식을 변화시키며 궁극에는 라이프스타일로 경험한 아파트 생활 자체가 사회와 제도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에 아파트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부모세대가 살았던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고 살아간다.

영통신도시는 1990년대 끝자락에 생겨났다. 태생적으로 서울과 5대 신도시에서 유행하던 아파트 공간이 똑같이 재현되었고, 개성이나 수원의 지역성이 드러날 수 없었다. 수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인들이 이주·정착하여 신도시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해 간 장소이다. '영통'이라는 장소는 서울로 통하는 교통과 질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입지적 장점에 학군을 보강함으로써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적 경험이 무엇인지 주택 공급자들에게 힌트를 주었다. 또한 2000년대까지 작동했던 4인의 정상가족 외벌이 신화는 영통동 아파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리고 현재는 오래된 주민들과 젊은 부부, 1인 가구의 사람들이 영통동 아파트의 역사와 1990년대 제도가 남기고 간 흔적을 안고서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다.

참고자료

박철수, 2017, 『박철수의 거주박물지』, 집.
박철수, 2021, 『한국주택유전자』 2, 마티.
박해천, 2015, 『아수라장의 모더니티』, 워크룸프레스.
세진기획, 2001, 『아파트백과-수원시편』,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2000.
엄동근·김종배, 2015,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반비.
임서환, 2005, 『주택정책반세기』, 기문당.
김수암 외, 1997,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5-1, 한국주택학회.
박인석 외, 2014, 「전용면적 산정기준 변화와 발코니 용도변환 허용이 아파트 단위주거 평면 설계에 미친 영향」,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5-2, 한국주거학회.
박철수 외, 1999, 「한국의 주택공급제도가 단위평면계획에 미친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10, 대한건축학회.
백혜선, 2003,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의 일상생활공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진, 2019,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의 배치형태와 주동평면형태의 변화 양상과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임동근, 1980, 「500만호에서 5개 신도시까지」, 『한국현대생활문화사』, 창비.
최권종 외, 2015,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아파트평면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6-5, 한국주거학회.
한국토지공사, 1994,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 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한국토지공사, 1997, 「수원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거환경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아파트 주거 환경통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

1. 「수원영통 용인영덕 제2신도시 조성」, 『경향신문』 1993년 2월 1일.
2. 「수원 영통-영덕지구 다음 달부터 분양」, 『조선일보』 1995년 1월 16일.
3. 「수원 영통—용인지구 아파트 대거 분양」, 『동아일보』 1995년 9월 14일.
4. 건영은 1차 부도 이후 회생 기간을 거쳐 분양에 성공하지만 뉴코아 계열 건설사 하이웨이유통과 뉴타운개발은 최종 부도처리 후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시행을 맡아 롯데건설에 시공을 맡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신탁마저 2001년 부도 처리되면서 시공이 늦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5. 「대출 길 막히고 전세도 안 나가 아파트 계약포기-미입주 속출」, 『조선일보』 1998년 1월 5일.
6. 계획한 의료기관 부지는 26년간 방치 끝에 2023년 아파트 단지로 토지계획을 변경한다.
7. 당시 건설 경기 과열로 1991년 건설경기진정대책, 1992년 총건설량 50만 호 제한 등을 발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다.
8. 김수암 외, 1997,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5-1, 한국주택학회.
9.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김수암 외, 1997, 『주택연구』 5-1, 한국주택학회)에서 1974~1996년 수도권에 공급된 2,094개의 주호평면 분석을 기준으로 삼았다.
10. 김수암 외, 1997,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5-1, 한국주택학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03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김진희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 비율이 절반 이상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8년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주택단지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영통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아파트 공급의 증가와 함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은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고,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공간으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개개인의 삶과 생활행위가 담겨진 커뮤니티 시설들이 조성되며 정부나 건설업체에서는 거주민들 간의 교류와 커뮤니티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세대와 세대, 세대와 단지, 단지와 지역 등 더 넓은 범위까지 확장되어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고 동시에 거주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을 구현한다. 또한, 거주민들의 문화, 경제, 사회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의식을 개선하고 공동생활을 지원하여 구성원들이 교류활동을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

수원시 내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주거지역인 영통동은 신도시의 위상을 지닌 주거지역으로 20년 동안 자리를 지켰으며, 최근 건설된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수원시의 주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게 변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동 아파트 단지 전경(김승일 제공)

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오랜 시간 영통동을 지켜온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의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고,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와 기존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엮어 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생적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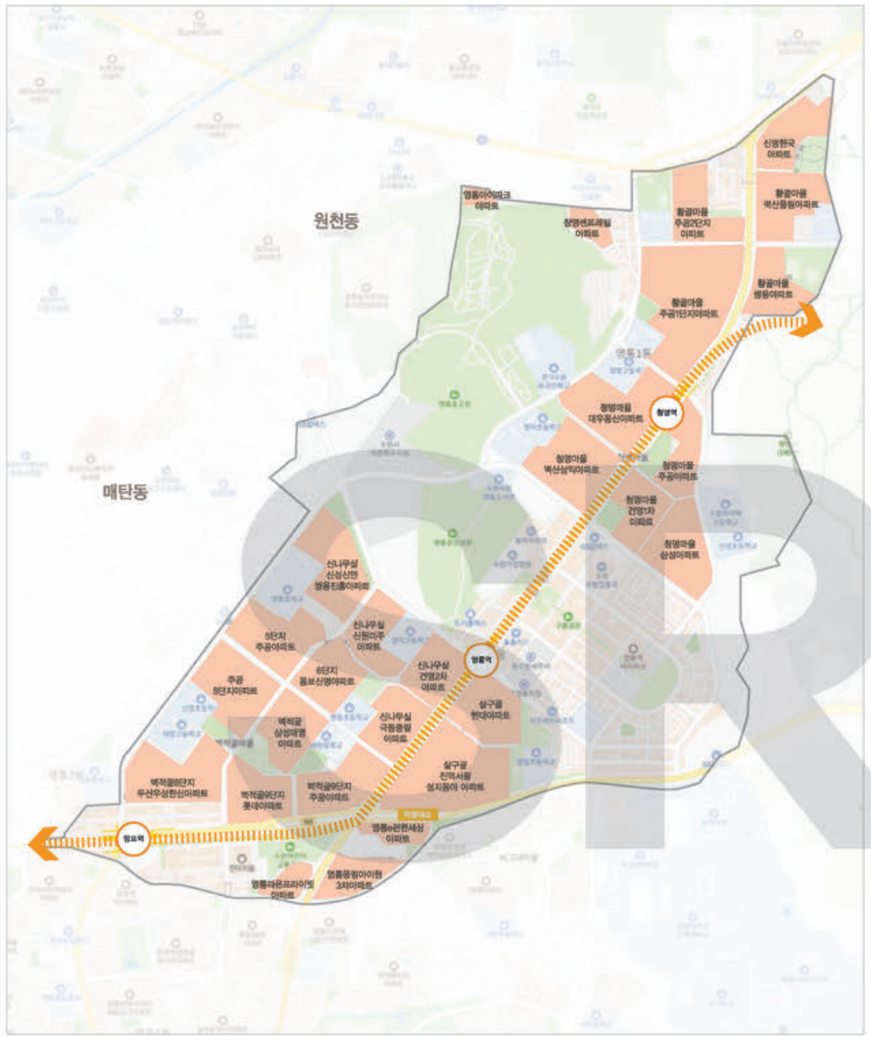
1) 1990년대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영통동 아파트 단지들의 대부분이 1990년대 후반에 건설되었다.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세대수만 봐도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양적 공급에 치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1979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화되었고,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당시 아파트 단지 건설 목표는 개별 단위주호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커뮤니티 시설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들이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를 양산해 왔을지도 모른다.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영통동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 계획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위한 시설들이 갖춰졌을 것이며 실제로,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특정계층을 위한 시설들로 계획되었다. 이는 단지 내 거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의 효용성과 기능성이 미흡한 실정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 영통동 아파트 단지 현황

아파트명	지번	세대수	동수	사용승인일
황골마을 주공1단지	영통동 955-1	3,129	39	1997.12.16.
황골마을 주공2단지(영통센트럴파크뷰)	영통동 948-4	1,190	14	1999.05.03.
황골마을 쌍용	영통동 1052-2	872	10	1998.03.10.
황골마을 벽산풍림	영통동 1053-2	928	10	1997.12.12.
황골마을 신명한국	영통동 1054-3	952	8	1997.12.31.
청명마을 대우동신	영통동 956-2	984	12	1998.06.23.
청명마을 벽산삼익(영통에듀파크)	영통동 957-6	1,242	14	1997.12.12.
청명마을 건영1차	영통동 1047-1	502	6	1999.02.18.
청명마을(4단지) 주공	영통동 1048-2	946	11	1997.12.12.
청명마을 삼성	영통동 1046-1	714	9	2001.10.30.
신나무실(5단지) 주공	영통동 964-5	1,504	18	1997.12.15.
신나무실 신성신안쌍용진흥	영통동 1048-2	1,616	16	1997.12.16.
신나무실 신원미주	영통동 965-2	574	7	1999.12.29.
신나무실 건영2차	영통동 966-2	470	7	2000.07.20.
신나무실 극동풍림	영통동 967-2	776	10	2000.10.11.
신나무실 동보신명	영통동 968	836	8	1997.12.16.
살구골 진덕서광성지동아	영통동 988-2	1,248	18	1998.01.26.
살구골 현대	영통동 989-2	612	10	1998.05.28.
벽적골 두산우성한신	영통동 973-3	1,842	18	1997.12.16.
벽적골(9단지) 주공	영통동 970-3	1,265	15	1999.11.10.
벽적골(8단지) 주공	영통동 973-2	1,548	18	1997.12.10.
벽적골 삼성태영	영통동 969-1	832	12	1997.12.12.
벽적골 롯데	영통동 971-1	1,040	6	2002.03.30.
영통풍림아이원3차	영통동 1093	494	5	2002.10.25.
영통아이파크	영통동 1153	212	2	2006.07.28.
영통e편한세상	영통동 987-1	230	5	2007.08.03.
청명센트레빌	영통동 1166	233	3	2013.06.04.
영통라온프라이빗	영통동 1154	351	4	2017.09.26.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동 아파트 단지 현황(저자 작성)

영통동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영통동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시작하면서 1997년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고, 그 중 이 글에서는 벽적골 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와 신나무실 5단지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벽적골 두산 804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단지 전경
(김승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벽적골 두산 804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단지 전경
(김승일 제공)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 배치도(저자 작성)



담으로 단절된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 보행자전용도로

계성을 살펴보았다. 근린공원과 면하여 어린이놀이터가 배치되었으나 아파트 단지의 경계부는 담을 통해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울어린이공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는 차량 유입이 불가한 보행자전용도로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서 공원으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조성되어 있어 보행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접촉과 커뮤니티 활동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를 통해 본 커뮤니티 시설은 주변시설 및 도시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절된 공간구조의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공간구조는 지역커뮤니티의 부재와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와 같은 시기에 준공된 신나무실(5단지)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는 총 16개 동, 1,616세대로 이루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주요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있다.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는 커뮤니티 시설 배치 형태와 단지 주변 공원이 위치해 있는 등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공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신나무실(5단지)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 전경
(김승일 제공)





신나무실(5단지)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 배치도(저자 작성)

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은 단지 외곽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솔찬어린이공원과 맨발공원에 맞닿아 있다. 맨발공원과 솔찬어린이공원은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맨발공원에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3곳의 출입구를 제외하면 높은 수목과 담장이 아파트 단지를 단절하고 있어 맨발공원에서 보았을 때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은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솔찬어린이공원과 아파트 단



단절된 맨발공원과 신성신안쌍용아파트



맨발공원–신성신안쌍용아파트 출입구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높은 수목과 담장으로 차단된 쌍용진흥아파트와 솔찬어린이공원

지는 완충녹지 및 펜스,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원에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차단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이 근린공원과 연계되어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장녹지 등을 통해 폐쇄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내 시설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별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시설이 주변 지역과 연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별 단지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기준과 면적기준만을 포함하고 있어 주변 인프라 시설들과 커뮤니티를 고려할 수 있는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영통동처럼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연접해 있을 경우, 획일화된 커뮤니티 시설들이 반복적으로 설치됨으로써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발생하게 된다.

2) 2000년대 이후 건립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아파트 단지들은 점차 브랜드화되고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전환되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화·고급화되었다. 사회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여가생활의 증가와 함께 아파트 외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외부 공간의 계획도 중요해졌다. 영통동에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와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는 이처럼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단지와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 단지 전경
(김승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단지 배치도(저자 작성)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는 총 5개 동, 230세대로 2007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ㄷ'자 형으로 주거동의 배치로 단지 내부에 중앙광장을 형성하고 있다. 단지 중심부 광장은 공원 시설로 계획되었고 차량 진입이 불가한 보행공간으로 거주민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살펴본 1990년대 아파트 단지들과 달리 지상주차장의 감소로 단지 내부의 차량 진입이 제한되었으며, 그로 인해 옥외시설 및 활동 공간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점적으로 분산하여 위치하던 커뮤니티 시설들이 점차 단지 중심에 조성되고 거주자들의 생활동선과 연계하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계획이 단지계획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이전 아파트 단지들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중앙광장과 휴게공간, 수경시설 등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실제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의 중앙광장은 놀이공간, 운동공간 등은 다양한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경시설 주변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거주민들이나 산책로를 통해 단지 내부와 외부를 산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전과 다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아파트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단지 중앙광장 및 보행공간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단지 수변공원 및 휴게공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 단지 전경(김승일 제공)





영통라온프라이빗 아파트 단지 배치도(저자 작성)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아파트는 점차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 단지는 총 4개 동, 351세대로 2017년 9월에 준공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동선을 외곽으로 분리시켰고 단지 중심은 보행광장을 도입하여 거주민들을 위한 중심생활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단지 내 광장을 중심으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높은 곳에 공원과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아파트 단지 전체가 커뮤니티 활동의 장소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각 주거동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계획으로 주거동과 커뮤니티 시설간의 연속되는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며 외부 공간의 개방감과 시각적 연속감을 주고자 하였다.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 단지는 영통동 아파트 단지 중 공원과 휴게공간이 잘 조성된 곳으로 꼽히고 있다. 녹지공간의 일부를 텃밭으로 조성하여 체험형 공간을 만들고 분수와 실개천 같은 자연과 전원시설을 도입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와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조경공간과 휴식공간을 가진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위치하며 벤치가 있는 주민쉼터와 인접해 있어 엄마들이 아이들을 주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계획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 단지 중앙광장 및 보행공간

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외곽은 힐링을 테마로 한 산책로가 조성되며,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전체 곳곳에 접근할 수 있다.

영통동은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 자녀를 가진 세대수가 많다. 수원에서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부분 영통을 대답하기도 한다.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 단지에는 이러한 영통동의 지역적인 특성과 거주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커뮤니티 시설로 키즈 카페가 있다.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시설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며 거주자들의 장기적인 활용성이 기대된다.

이처럼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 단지는 거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 여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행기반의 커뮤니티 시설계획으로 거주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유도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 단지 수변공원 및 휴게공간



영통라온프라이빗아파트 단지 외곽 산책로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2. 수원시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영통동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건립된 지 20년 이상 된 곳으로 커뮤니티 시설도 획일화된 모습과 공간의 활용도가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재를 인식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이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취임하면서 지역문화와 마을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수원형 마을 만들기'라는 구상으로 추진되었다.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르면 마을르네상스는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주민 스스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원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커뮤니티 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사람과 사람이 머무는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의 '북카페'

2012년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현 영통센트럴파크뷰) 주민들은 공모사업 제안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로 북카페를 조성하였다. 북카페가 조성되기 전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을 음악회나 여러 축제 및 행사로 아파트 주민들과 화합하는 장을 만들어 왔다. 아파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이 모이거나 담소 나눌 마을공간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수원시 마을 만들기 사업인 '마을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매주 토요일 8시간(9~17시) 동안 5주간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으며 총 17명이 마을학교를 수료하였다.

지경숙 당시에 마을학교를 이수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5주라는 기간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마을학교를 이수하면서 마을을 만들기는 왜 해야 하는 건지,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활동을 왜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저희 부녀회나 하고자 하는 의지들과 생각들이 훨씬 많았던 상황이었으니까 20명 중 총 17명이 교육에 끝까지 참여하면서 수료하게 된 거죠. 저희 북카페와 같이 이런 마을공간이 10만 원이 필요하다면 단 1만 원인 작은 구실 하나만 들어와도 돌아갈 수 있어요. 100% 관리비만으로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이니 만큼 "우리 돈 100%가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으로 사업비가 들어오는 거니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북카페가 조성된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 15명을 구성하여 북카페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5명의 카페지기들이 무보수 관리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 북카페 운영 초기에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스토리텔링 등의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북카페 공간이 점차 공부방처럼 사용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생겨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경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교체했다고 한다.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 전경 (김승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지경숙 공부가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블록놀이도 운영하고 엄마들 대상으로 뜨개질 교실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영화상영도 했어요. 추석이나 가래떡데이(//월 //일) 같은 경우에는 송편 만들기 등 가족 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공부하러 오는 느낌으로 공간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면, 무작정 이 공간에 오면 신나게 놀 수 있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또 관리소 앞에 아이들 학원차량이 멈춰서 아이들을 태우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카페가 생겨나면서부터 아이들이 학원차량 기다리면서 여기서 놀고 쉬다가 내려가서 학원차 타고 학원가고, 엄마들도 안심하고 의도치 않게 육아까지 하게 되는 공간이 되었죠.(웃음)

북카페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민수요조사를 통해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발굴하여 연령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주민들 개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도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페지기들은 하루 2시간씩 각자 정해진 타임에 맞춰 북카페를 지켰으며 직장인들을 고려하여 10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기도 하였다. 북카페는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 주민 외 인근 주민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북카페를 도맡아 운영해 온 지경숙은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한다.

지경숙 북카페가 2층에 생기고 나서 중고등학생들이 북카페에 들어오지는 않고 계단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희도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북카페에 와이파이가 되다 보니 아이들이 와이파이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공간에 자기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먹던 간식도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니 어른들이 있는 공간 안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어른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모습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먼저 찾아오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게 저는 제일 뿌듯했어요.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 북카페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마을에서도 벤치마킹된 사실이다. 지경숙은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북카페 공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며, 공간이나 시설에 매몰되지 않고, 운영의 미를 살리는 방법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북카페 공간을 조성하면서 운영 활동이 항상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공동체 공간보다는 수익사업에 관심을 갖거나 아파트 외관 및 입구환경 조성 등에 사업비를 사



2016년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 '북카페'에서 개설한 다양한 프로그램(내일신문 제공)

용하고자 하여 부녀회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작은 공동체 활동이 조금씩 아파트 내에 정착하고 그다음 세대나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마을 공간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마을 공간과 공동체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사업비 전부를 수원시에 다시 반납하기도 했다. 현재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의 북카페도 이러한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운영이 중단된 마을 공간은 순수하지 못한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공간을 영리사업으로 바꾸려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물론 모든 마을 활동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을 활동에 대해 모르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분들이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면서 마을 만들기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조성되는 커뮤니티 공간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속력을 갖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경숙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마을활동을 하는 이유는 다음세대, 우리 자식세대가 조금 더 편안한 세상 사람냄새 나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 냄새 안나요. 마을 만들기가 많이 퇴색이 돼서 이전보다 운영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경제적인 것만 해결돼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것만 돼서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흥이 나는 취미 공간, 황골 벽산풍림아파트 단지의 '음악동호회실'

영통동 사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인 봉영로 양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들어서 있다. 봉영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황골마을은 오래되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황골마을(2단지) 벽산풍림아파트 단지는 보기 드문 커뮤니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음악연주실이다.

입주 초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송성돈은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음악동호회실을 제안하였다. 아파트 입주 초기에 색소폰 부흥으로 아파트 내 악기연주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다고 한다. 이웃 간의 불화와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음악실을 조성을 제안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 음악동호회실을 조성할 마땅한 커뮤니티 시설이 없던 탓에 송성돈 노인회장은 유휴공간을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 지하주차장의 램프 하부공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음악동호회실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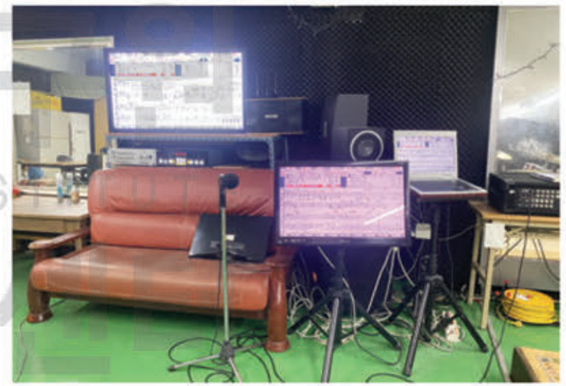


황골(2단지) 벽산풍림아파트 단지
(김승일 제공)

송성돈 내가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이해시켜 가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을 바꿀 순 없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예 안 쓰는 공간, 방치된 공간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비하고 내 사비를 조금 보태서 바닥이랑 방음공사를 하게 된 거죠. 또 음악동호회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관리비 문제로 민원을 넣을 수 있으니까 공간을 만들 당시에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가 사용한 건 우리가 내자."라고 했죠. 동호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서 관리비 내고 하는 거죠.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웃음)



황골(2단지) 벽산풍림아파트 단지 음악동호회실



황골(2단지) 벽산풍림아파트 단지 음악동호회실 음향장비

음악동호회실 공간을 조성하고 1년간 아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지만 악기를 파트별로 구성하려다 보니 참여가 적어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동호회실에서는 사물놀이, 합창단, 색소폰,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주민들 스스로 가르치며 배우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오는 가을 음악회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로당에서 음악 재능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음악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야유회도 가며 악기연주발표도 했다. 벽산풍림아파트 음악실의 장점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 아무 때나 와서 음악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 맞는 회원들은 모여서 연습하거나 개인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은 새벽에 혼자 와서 연습하기도 한다.

송성돈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성향에 맞춰 연습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을 한 거죠.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참여 연령대도 다양해요. 25살 직장인부터 노인 분들까지 악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습하고, 또 집에서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없는 악기연주를 여기 와서 편안하고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아쉬운 것은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침이 나올 수 있는 악기연주나 목소리를 내는 사물놀이와 같은 활동은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 운영을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벽산풍림아파트 음악동호회실은 단원들의 개별 연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였다. 음악동호회실 이용이 중단되어 있을 동안 송성동은 음악동호회실에 노래방기계를 비치하였다고 한다.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을 운영할 계획이며, 동호회 회원들과 빠른 시일 내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 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3) 온기 가득 열정 가득, 신나무실 신원미주아파트 단지의 '신원미주문화센터'



신나무실(6단지) 신원미주아파트 단지의 신원미주문화센터 공간

2000년도 1월 입주를 시작한 신나무실(6단지) 신원미주아파트의 관리동 지하에는 문화센터 공간이 현재까지도 자리 잡고 있다. 20년이 넘는 시간으로 인해 문화센터 공간은 낡고 오래된 시설이 되었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신원미주아파트 공동체는 문화센터 공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수원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응모하였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약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었던 환기·방음시설과 냉난방기 설치와 바닥재 교체를 통해 3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되었다.

공간 개편 후 프로그램도 다변화되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에어로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댄스스포츠, 요가, 에어로빅, 키즈 음악줄넘기 등의 여러 취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다양한 연령대와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센터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었다. 신원미주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직접 강사들을 섭외하고, 요일과 시간대를 나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센터 공간은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공간 대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악기를 불고 싶은데 소음이 걱정되는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화센터 공간을 대여하여 악기연습을 할 수 있다. 문화센터의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총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공동체가 팀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신원미주아파트 단지를 오랫동안 관리해 온 박옥금 관리소장은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들께서 잘 이용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박옥금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전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나바다 행사나 벚꽃축제 등을 진행했었는데 문화센터공간을 개선하면서부터 아파트 축제나 행사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공동체 활동 하셨던 주민들이 축제나 행사날에 부침개를 부쳐서 원가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한 번은



신나무실(6단지) 신원미주아파트 단지 전경 (김승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신나무실(6단지) 신원미주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옆 북카페 공간



신원미주아파트 힐링 텃밭

벚꽃축제날 저희 문화센터 댄스스포츠 팀의 참여해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음악줄넘기 공연도 하면서 대상도 받았어요.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운영이 조금 힘들더라도 좋아하시는 주민들을 보면 보람도 있고 또 주민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 주세요.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의 합이 잘 맞아서 지금까지 잘 활용되는 것 같아 감사 할 따름입니다.(웃음)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운영을 중단했지만 개별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공간 대여를 신청하여 이용하기도 했다. 2022년 5월에는 문화센터 운영을 재개하였다.

문화센터 개선 후 활용이 높아진 것을 체감한 박옥금은 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사무소 옆 운영이 저조하던 문구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집에 손님이 오거나 주민들끼리 모여 수다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현재 코로나 유행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 마을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로 북카페 공간에서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도 했다. 또 다른 활동으로 2022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아파트 힐링텃밭 교육 참여사업에 지원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있는 마을텃밭을 조성하고 텃밭 가꾸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박옥금 저희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이 주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간 사용하지 못했던 북카페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앞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원미주아파트 주민 공동체와 관리사무소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신원미주아파트의 문화센터와 북카페, 힐링텃밭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 되면서 이웃 간의 교류에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 정을 느끼고 있으며 신원미주아파트가 가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3.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

: '마을을 기록하는 아파트 속 마을 방송국'

영통동 아파트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이어받아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자체적 공동체 활동으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다. 청명마을(3단지) 벽산삼익아파트(현 영통에듀파크)에 사는 입주민들 몇몇이 모여 아파트 공동체인 '한뼘'을 결성하였고 라디오를 통한 마을미디어 활동을 꿈꿔 나갔다. 하지만 그 당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와 공간이 없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공간을 알게 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득해 관리동 지하에 공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뼘은 공동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얻은 뒤, 회원들과 함께 직접 공간을 청소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시작한 커뮤니티 활동은 어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였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거나 비누 만들기, 역사공부, 뜨개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을 넓혀 나갔다.

한뼘이 진행한 여러 활동 중 대표적인 활동은 라디오특강이었다. 수원미디어센터를 통해 1주일에 1회 총 8회차 동안 마을미디어 심화교육을 받으면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한뼘은 2019년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의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라디오영통'을 개국하게 되었다. 라디오 부스로 활용되는 공간은 방음벽이 설치되고 라디오 방송 장비 등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라디오 부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 최초 아파트 단지 내 방송실이 조성되었다. '라디오영통'은 4개의 팀(나의 사춘기에게, 비정상회담, 그림책라디오, 즐거운 영통생활)으로 구성되며 각 팀이 주제에 맞는 대본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송을 제작하고 나머지 팀은 방송 준비나 기타 도움을 주는 방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마을라디오 영통 방송실(『아파트관리신문』, 2019)



한뼘 활동 게시판(『아파트관리신문』, 2019)

으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라디오 방송은 팟빵, 유튜브, 페이스북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방송에 참가하는 게스트는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지인들의 소개로 섭외하며 아이들이 라디오의 게스트로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뽐내기도 한다.

'라디오영통'은 방송만 제작하는 방송국만이 아니라 마을미디어 활동을 주체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무엇보다 '라디오영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영통동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되고자 하였다. 한뼘이 커뮤니티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을 해에는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주최한 '201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에서 영상부분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한뼘의 '라디오영통'은 영통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삶과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디오영통'만의 또 다른 특별한 경험으로는 영통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제5회 커피축제'에 부스를 배정받아 공개방송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영통 차 없는 거리 축제'와 '반달공원 커피축제' 등의 수원시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활동을 이어 갔다. 한뼘 회원들은 축제의 전반적인 음악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송도 진행하며 주민들과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청명마을 벽산아파트의 '한뼘'은 영통동 아파트 마을공동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더 많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 수원시는 더 많은 지원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공간들의 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영통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람 냄새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남길 희망해 본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4 "아동들의 행위 공간은 장소가 된다."

: 영통동 아파트 외부공간에서 아동들의 장소[1]

허현태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사업부 부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아동들의 행위 공간과 장소 조사

산업화 이후 태어나서 자라던 곳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게 되었다. 도시인 대부분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나는 직업의 특성상 주민들을 만나 도시와 마을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많다. 그들에게 마을과 도시에 대해 '어떻게 해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는 것이었다. 특히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는 '고향의 봄'은 몇 소절 부르면 여러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와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삶을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남아 있는 장소가 있다. 함께했던 사람들, 동물 또는 혼자만의 사색을 위한 장소 등 각양각색의 공간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고향이 있다.

아파트는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는 2020년 공동주택이 약 73.7%이며, 특히 아파트가 전체의 59.1%로 주요한 일상생활 공간이 되었다. 아동들의 경우 사회·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요 활동 공간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아동들이 또래집단과 다양한 행위를 하며 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들을 만드는 것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의 변화는 아동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고, 이러한 행위의 변화는 장소의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년 전에는 없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PC방이 대중화된 시대에 아동들의 몇몇 행위들은 영향을 받고 사라졌을 것이다. 어떠한 아동들의 행위들이 아파트라는 주거지에서 나타나고 장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데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영통동 아파트 거주 아동들의 행위와 장소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대상지인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는 인근에 영통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안에는 근린공원과 중앙에 어린이공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1990년대 조성되었다.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1,616세대와 신나무실마을 주공아파트 1,504세대로 총 3,12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 영통초등학교는 2015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특수학급(1)을 포함하여 29개 학급 총 77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2022년 특수학급(1)을 포함하여 20개 학급 총 486명으로 2015년 대비 63.1% 수준으로 학생수가 줄었다.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김승일 제공)





영통동 신나무실(5단지) 위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2
3 4
5 6

1.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광장 2.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농구장 3. 531동 옆 놀이터
4. 광장에 면한 놀이터 5. 단지 내 상가 6. 관리사무소 및 어린이집








1. 보행자전용도로 2. 배드민턴장 3·4. 근린공원
5·6. 영통동 신나무실 6단지 놀이터 전경

1 2
3 4
5 6

<표 1> 2022년 영통초등학교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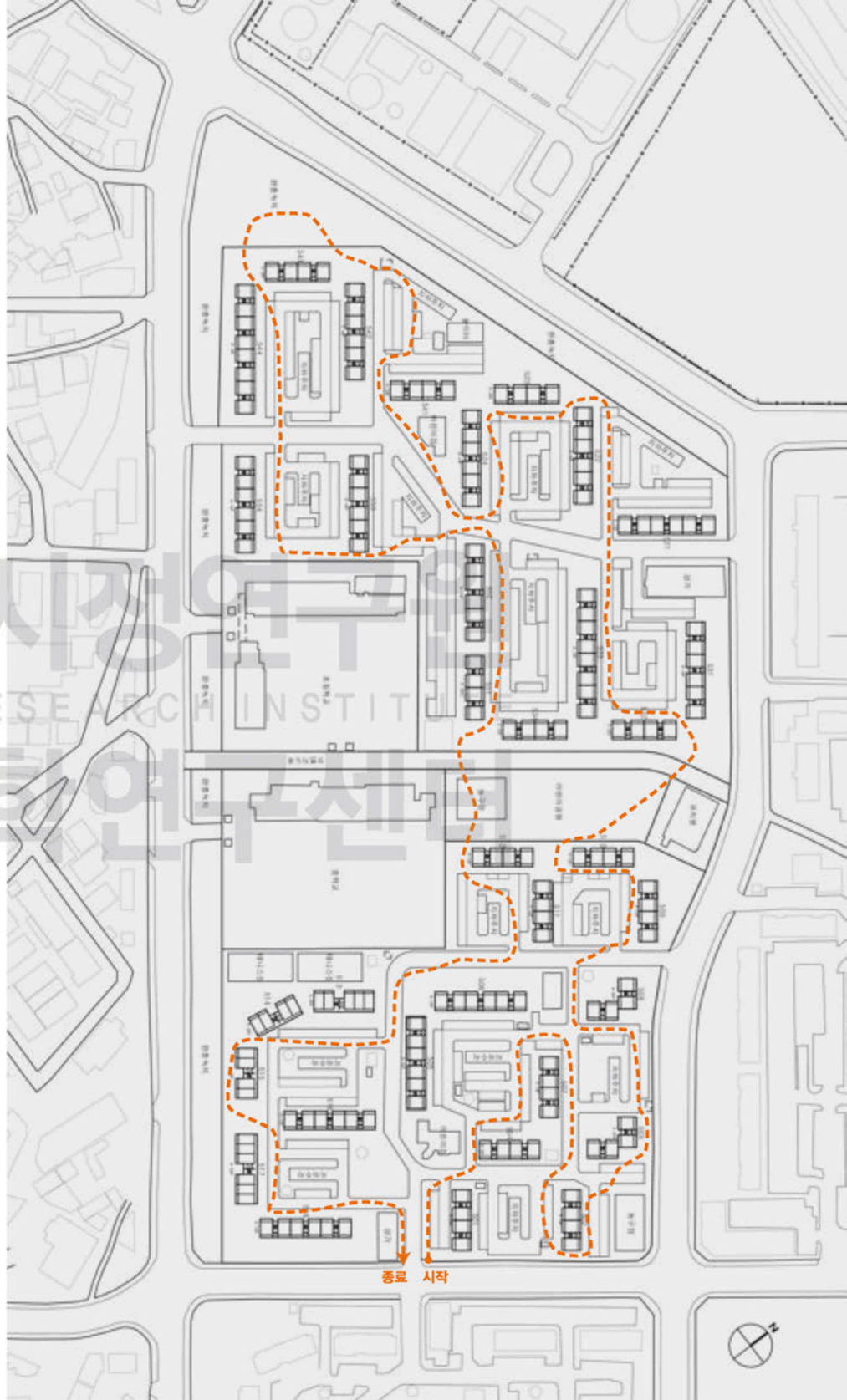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특수학급
학급수		3	3	3	4	3	4	20	1
학생수	남	46	43	35	49	38	48	259	2
	여	33	38	32	39	35	44	221	4
	계	79	81	67	88	73	92	480	6

자료 : 영통초등학교 홈페이지.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여 커다란 물리적 환경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다만 인근 영통동 신나무실 6단지에 소재한 대규모 어린이공원으로 인하여 아동들의 장소와 행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다음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아동행위관찰과 인터뷰 자료가 있는 대상지와 이 여건과 비슷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아동행위 관찰조사를 수행하였다. 관찰은 행위지도와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외부공간의 모든 부분을 시각적으로 관통하는 행위관찰경로를 결정하는 관찰경로법(observation route method)을 택하여 경로를 따라 단지별로 매회 한 차례 관찰 및 자료기록, 관찰시기를 달리하여 총 5회 반복하였다. 행위 관찰을 구체적으로 2015년 6~9월에 14~19시, 2022년 11월 토요일 오후 관찰하였는데 단지 관찰시기 및 경로의 임의배분(time sampling, route sampling)을 하였다. 단지 배치도에 행위 위치를 표기하고 행위 메모, 사진 촬영, 아동의 연령 및 성별을 표기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실에서 주제에 대한 토의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현장에서 연구자에 따른 상이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아동들에게 중요한 장소와 그 이유에 대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단지 외부공간에서 놀이를 하거나 단순통행 또는 등하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개별 접근하여 연구목적 설명 후 개별 면담을 시행하였다. 각 개인별 20분 내외의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크게 3개 문항 면담 및 필요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면담 문항으로는 "단지 내외부 여러 곳 중에서 일상생활에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가 있는가?",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응답에 따라 배치도에 위치를 파악하여 기록 및 표기하였다. 다음 질문으로는 "왜 그 장소가 중요한가?"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 하였다. 이는 각 장소에 대한 아동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소를 조사하는 데 여러 가지 용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가치 있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 의미 있는 장소, 중요한 장소 등을 조사하였다. 장소를 연구하는 데에 이러한 용어들은 엄밀하게 사전적, 인식론적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관찰 경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아동들에게 이는 모두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Korpela의 경우는 좋아하는 장소를 조사할 때 연구대상들에게 그들의 중요한 장소를 기술하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고,[2] Gustafson의 경우에는 중요한 장소를 조사하고 이를 다시금 의미 있는 장소들로 치환함으로써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3]

이 조사의 주된 방법은 가장 자연스럽게 현실감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인터뷰의 형식은 개방식 면담(open ended interview) 형식을 취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직접 기록하였다.

2.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들의 행위

행위관찰은 사전에 아동들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고, 평일과 주말로 요일을 구분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을 배분하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2015년 총 199건의 행위를 관찰하였다. 2022년 주말인 토요일 오후 관찰로 32건의 행위를 추가 관찰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행위 관찰은 행위변화를 직접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주변 환경 변화와 함께 대략적인 경향을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분석한 자료는 2015년 조사에 한정되어 있다.

관찰된 아동들은 남성이 124명(62.3%)이며, 여성이 75명(37.7%)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8~10세)의 아동들이 주거지 외부공간에서 전체의 78.4%로 나타났으며, 특히 8세 아동들이 40.2%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표 2〉.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들의 행위관찰에서 혼자서 하는 행위가 56.3%로 나타났으며, 2명이 30.2%로 2명까지 행위인원 규모가 86.4%로 나타났다〈표 3〉.

총 199건의 행위 중에서 단순 이동이 77건(3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탈것을 타는 놀이가 53건(26.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성이 강한 2건의 행위가 128건(6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행위가 28건(14.1%)로 나타나고 있다〈표 4〉.

행위를 함께한 동료들을 살펴보면 혼자서 하는 행위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와 하는 행위가 38.2%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형제들인 가족은 20.1%로 나타났다〈표 5〉.

<표 2>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관찰 대상 연령 및 성별

구분		연령						전체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남	빈도수	39	32	19	16	13	5	124
	비율(%)	19.6	16.1	9.5	8.0	6.5	2.5	62.3
여	빈도수	41	9	16	5	2	2	75
	비율(%)	20.6	4.5	8.0	2.5	1.0	1.0	37.7
전체	빈도수	80	41	35	21	15	7	199
	비율(%)	40.2	20.6	17.6	10.6	7.5	3.5	100.0

<표 3>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행위인원 규모

구분	빈도수	비율(%)	누적 비율(%)	구분	빈도수	비율(%)	누적 비율(%)
1명	112	56.3	56.3	6명	2	1.0	98.0
2명	60	30.2	86.4	7명	1	0.5	98.5
3명	13	6.5	93.0	8명	2	1.0	99.5
4명	6	3.0	96.0	9명	1	0.5	100.0
5명	2	1.0	97.0	합계	199	100.0	

<표 4>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관찰 결과

구분	빈도수	비율(%)	구분	빈도수	비율(%)
공놀이	11	5.5	자연놀이	4	2.0
놀이터 놀이	28	14.1	장난감 놀이	7	3.5
사회모임	17	8.5	탈것	51	25.6
역할놀이	2	1.0	휴식	2	1.0
단순 이동	77	38.7	계	199	100.0

<표 5>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행위 동료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가족	형제	9	4.5	친구	76	38.2
	부모	31	15.6	혼자	83	41.7
				계	199	100.0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2.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탈것
3·4.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장난감 놀이
5·6.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단순 이동








1·2.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놀이
3·4.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공놀이
5·6.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사회모임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2.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탈것
3·4.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사회모임
5·6.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장난감 놀이






1·2.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이동
3·4.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놀이터 놀이

행위하는 아동들의 성별에 따라서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자 아동의 경우는 공놀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 아동의 경우는 놀이터 놀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6〉.

연령에 따른 아동들의 행위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학년(8~10세)는 놀이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8세 아동은 놀이터 놀이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9세 아동은 장난감 놀이와 탈것, 10세 아동은 탈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학년이라 할 수 있는 11세에서 13세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이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11세 아동들은 공놀이가 상대적으로 높고, 12세 아동들은 사회모임이 높게 나타났다〈표 7〉.

<표 6>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성별에 따른 아동 행위

구분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 모임	역할 놀이	이동	자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	휴식	전체
남	빈도수	11	6	8	1	52	4	6	35	1	124
	비율(%)	8.9	4.8	6.5	0.8	41.9	3.2	4.8	28.2	0.8	100.0
여	빈도수	0	22	9	1	25	0	1	16	1	75
	비율(%)	0	29.3	12.0	1.3	33.3	0	1.3	21.3	1.3	100.0
전체	빈도수	11	28	17	2	77	4	7	51	2	199
	비율(%)	5.5	14.1	8.5	1.0	38.7	2.0	3.5	25.6	1.0	100.0

<표 7>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연령에 따른 아동 행위

구분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 모임	역할 놀이	이동	자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	휴식	전체
8세	빈도수	1	20	8	1	28	1	2	19	0	80
	비율(%)	1.3	25.0	10.0	1.3	35.0	1.3	2.5	23.8	0	100.0
9세	빈도수	3	4	3	1	11	2	4	13	0	41
	비율(%)	7.3	9.8	7.3	2.4	26.8	4.9	9.8	31.7	0	100.0
10세	빈도수	2	2	3	0	14	1	0	11	2	35
	비율(%)	5.7	5.7	8.6	0	40.0	2.9	0	31.4	5.7	100.0
11세	빈도수	4	2	0	0	11	0	1	3	0	21
	비율(%)	19.0	9.5	0	0	52.4	0	4.8	14.3	0	100.0
12세	빈도수	1	0	3	0	7	0	0	4	0	15
	비율(%)	6.7	0	20.0	0	46.7	0	0	26.7	0	100.0
13세	빈도수	0	0	0	0	6	0	0	1	0	7
	비율(%)	0	0	0	0	85.7	0	0	14.3	0	100.0
전체	빈도수	11	28	17	2	77	4	7	51	2	199
	비율(%)	5.5	14.1	8.5	1.0	38.7	2.0	3.5	25.6	1.0	100.0

행위를 함께한 동료에 따라서 행위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모와 함께하는 경우는 사회모임과 이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형제의 경우는 놀이터 놀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 함께하는 경우는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모임이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인 경우는 이동과 탈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8〉.

행위 참여인원에 따른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혼자인 경우 이동과 탈것이 높게 나타나며, 2인의 경우 놀이터 놀이, 3인의 경우는 공놀이가 높게 나타났다〈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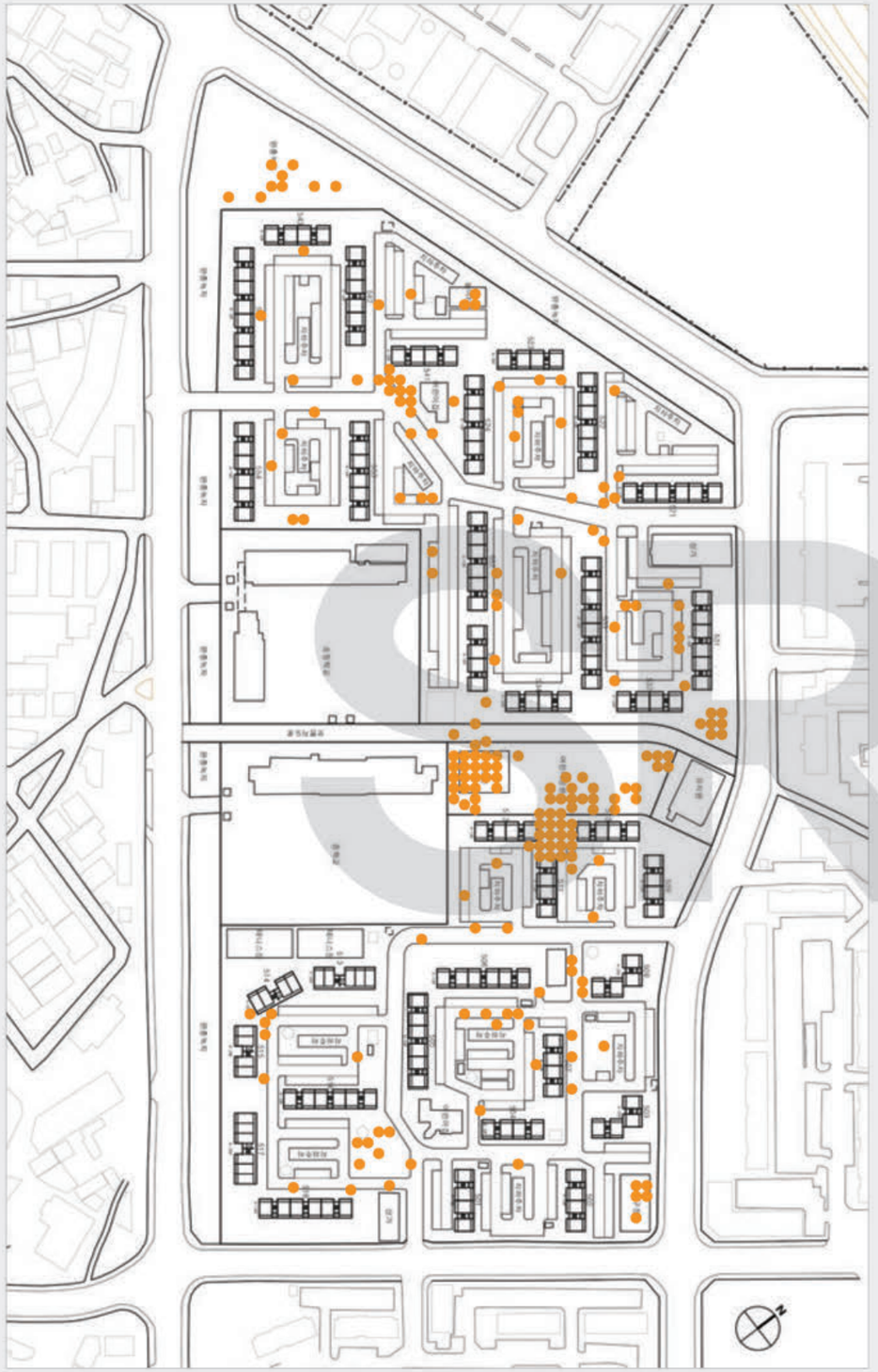
<표 8>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함께한 사람에 따른 아동 행위

구분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 모임	역할 놀이	이동	자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	휴식	전체
가족	부모	빈도수	0	3	6	0	19	0	0	3	0	19
		비율(%)	0	9.7	19.4	0	61.3	0	0	9.7	0	100.0
	형제	빈도수	0	5	1	0	2	0	0	1	0	9
		비율(%)	0	55.6	11.1	0	22.2	0	0	11.1	0	100.0
친구		빈도수	10	18	10	2	20	3	4	8	1	76
		비율(%)	13.2	23.7	13.2	2.6	26.3	3.9	5.3	10.5	1.3	100.0
혼자		빈도수	1	2	0	0	36	1	3	39	1	83
		비율(%)	1.2	2.4	0	0	43.4	1.2	3.6	47.0	1.2	100.0
전체		빈도수	11	28	17	2	77	4	7	51	2	199
		비율(%)	5.5	14.1	8.5	1.0	38.7	2.0	3.5	25.6	1.0%	100.0

<표 9>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참여인원에 따른 행위

구분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 모임	역할 놀이	이동	자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	휴식	전체
1명	빈도수	1	5	5	0	54	1	3	42	1	112
	비율(%)	0.9	4.5	4.5	0	48.2	0.9	2.7	37.5	0.9	100.0
2명	빈도수	3	20	8	1	19	0	2	7	0	60
	비율(%)	5.0	33.3	13.3	1.7	31.7	0	3.3	11.7	0	100.0
3명	빈도수	4	2	0	0	3	2	0	1	1	13
	비율(%)	30.8	15.4	0	0	23.1	15.4	0	7.7	7.7	100.0
4명	빈도수	1	1	1	0	1	1	0	1	0	6
	비율(%)	16.7	16.7	16.7	0	16.7	16.7	0	16.7	0	100.0
5명	빈도수	0	0	2	0	0	0	0	0	0	2
	비율(%)	0	0	100	0	0	0	0	0	0	100.0
6명	빈도수	0	0	0	0	0	0	2	0	0	2
	비율(%)	0	0	0	0	0	0	100	0	0	100.0
7명	빈도수	1	0	0	0	0	0	0	0	0	1
	비율(%)	100	0	0	0	0	0	0	0	0	100.0
8명	빈도수	1	0	0	1	0	0	0	0	0	2
	비율(%)	50.0	0	0	50.0	0	0	0	0	0	100.0
9명	빈도수	0	0	1	0	0	0	0	0	0	1
	비율(%)	0	0	100	0	0	0	0	0	0	100.0
전체	빈도수	11	28	17	2	77	4	7	51	2	199
	비율(%)	5.5	14.1	8.5	1.0	38.7	2.0	3.5	25.6	1.0	100.0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 발생 위치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 발생 위치

SU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들의 장소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총 58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103곳의 장소를 중요한 장소로 도출하였다. 남자 아동 28명(48.3%)과 여자 아동 30명(51.7%)을 대상으로 도출되었으며, 평균 1.78개의 장소를 응답하였다. 최대로 응답한 아동은 4곳의 장소를 응답하였고,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9.8세 이다.

<표 10>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인터뷰 대상 일반 현황

구분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전체
남	빈도수	7	6	7	1	4	3	28
	비율(%)	12.1	10.3	12.1	1.7	6.9	5.2	48.3
여	빈도수	10	6	2	6	4	2	30
	비율(%)	17.2	10.3	3.4	10.3	6.9	3.4	51.7
전체	빈도수	17	12	9	7	8	5	58
	비율(%)	29.3	20.7	15.5	12.1	13.8	8.6	100.0

58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장소인터뷰 결과 총 103곳의 장소가 아동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아동들의 중요한 장소는 집(26.2%)이며, 다음으로 학교(14.6%)가 높게 나타났다. 중앙의 어린이 공원이 5.8%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앞선 두 곳과 비교적 차이가 나고 있다.

<표 11> 인터뷰 데이터

구분	성별	나이	인터뷰 내용
1	여	10	중요한 장소에 그냥 놀이동산이요. 에버랜드 같은 데요. 집안에 강아지랑 놀아요. 2살이에요. 집 말고는 없어요.
2	남	10	집이요. 집에서 민서랑 장난감 가지고요. 딴데 있죠. 놀이터요. (8번구역) 민서랑 같이 놀아요.
3	남	10	집이요. 동생이랑 같이 티비요. 아빠 회사요. 아빠가 회사에 안 나가면 월급이 없으니깐요.
4	여	11	집이요. 그냥 놀아요. 학교? (영통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노는 거요.
5	여	11	화장실이요. 볼일 봐야 돼서요. 놀이터. 아무놀이터나 학교요 (영통초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서요.
6	여	11	학교요 (영통초등학교) 친구랑 같이 노는 거요. 학원이요. 태권도 학원. 1년 넘게 다녔어요.
7	남	10	학교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거요. 집앞 놀이터? (5번구역) 친구들이랑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놀아요.
8	남	10	집이요. 혼자 컴퓨터 하면서 놀아요. 롤이요 (게임이름). 저도 학교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거?
9	남	10	학교 축구장이요. 친구랑 같이 축구하는 거요. 없어요.
10	여	8	피아노 학원이요. 피아노 칠 수 있으니깐요. 일주일에 3번가요. 집이요.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11	남	9	학교? (영통초). 친구들이 많아서요. 학교 말고는 집앞 놀이터요 (10구역). 그냥요 (웃음). 그네 타면서 놀아요.
12	남	7	(12번 동생) 놀이터요. 저기 뒤 놀이터요 (10구역) (재질문) 집이요. 형이랑 같이 놀아요.
13	남	13	중요한 장소면 집? 집엔 가족들이 있으니깐요. 컴퓨터 해요. 아파트 안에서는 저기서 많이 봐요. (23구역) 친구들이랑 거기서 자주 봐요.
14	여	11	집? 집 말고는 학원? 미술학원이요. 친구들이랑 그림 그리는게 좋아요. 학교도 좋아요 (영통초) 친구들 때문에요.
15	여	11	공원이요. 저기 끝에 있는 공원이요. (17구역) 엄마랑 자주 나가요. 놀이터? 집 옆에 놀이터요. (27구역)
16	남	8	태권도 학원이요. 태권도 배울 수 있어서요. 공원이요. 저쪽 공원이요. (9, 22구역) 자전거 탈 수 있어서요.
17	여	9	학교랑 집이요. 집은 쉴 수 있고 학교는 가야 돼서요. 놀이터? 그냥다요 (특별한 데 있어?) 몰라요.
18	남	7	놀이터요 (8번구역)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요. 슬래잡기요. 주차장이요. 아빠차가 있어서요 (22구역)
19	여	12	학교요. (영통초) 친구들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요.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해요. 집? 가족이 있으니깐? 강아지랑 같이 놀아요.
20	남	8	학교(영통초). 집. 학교는 공부하니깐. 집은 우리가 사니깐. (재질문) 없어요.
21	남	7	집. 그쪽에 장난감이랑 엄마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는 없어요.
22	남	7	유치원. 거기에 선생님이랑 장난감이 있어서. 아파트에는 없어요.
23	여	9	집. 가족들이 있어서.
24	여	7	유치원. 친구들. 엄마 아빠 놀이. 다른 데 모르겠어.
25	여	9	집. 가족들이 있어서. 놀구 책보고. 놀이터. 저기 (9번구역) 친구들과 그네타고 철봉해요.
26	여	8	집이요. 언니랑 엄마 아빠가 있어서요. 우리집 앞 놀이터요. (8번) 친구들이랑 미끄럼틀
27	남	11	학교요 (영통초) 학교에는 친구들도 많고 축구도 할수 있어서요. 다 른데요? 저기 놀이터요. (어머니 : 공터!) 공터요. 아빠랑 야구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해요.
28	여	13	집. 집에서 잠. 티비도 볼수 있어서요. 별로 없어요.
29	여	13	전 에버랜드요. 엊그제 가족끼리 갔다왔어요. 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깐? (재질문) 몰라요.
30	남	9	집. 당연히 아늑하니깐. 친구집이요. 집에서 닌텐도 할 수 있어서요.
31	남	9	터닝메카드요 자동차요. 장난감이요. 집에서 닌텐도. 별의 커비(게임이름)
32	여	10	학교요. 아니 아니 학원이요. 피아노학원. 피아노 칠 수 있으니깐? 집 주변엔 없어요.
33	여	9	놀이터 (19구역) 놀 수 있으니깐. 친구들이 있어서.
34	남	9	집. 엄마아빠가 있어서. 여기 (놀이터 19구역) 재미있으니까. 그네가 재미있어서.
35	남	8	영동이요 (강원도 영동인 듯) 강아지가 있어서. 학교 안전하니깐. 부엌 밥 먹으니깐. 나무공원 나무공원은 아무도 모름.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와도 못 찾음. 줄넘기장 (8구역) 줄넘기 하는 것이 좋아서.
36	남	8	음식점. 밥 먹으니깐요.
37	남	12	집이요. 가족이 있어서. 포근한 느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구분	성별	나이	인터뷰 내용
38	남	12	진주. 태어난 곳이어서. 롯데마트. 가장 좋아하는 곳. 초록공원 농구장 놀이터 가 있어서. 매일 놀아서.
39	여	12	부여. 할머니가 사는 곳이라서. 학교.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고백을 해서.
40	남	12	놀이터요.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요.
41	여	12	수영장이요. 수영을 좋아해서요.
42	남	12	축구장이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43	여	8	신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깐 (신천에서 살다가 옴) 놀이터 (24구역) 모래도 있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아서. 학교.
44	여	8	인천. 살다 온 곳이어서. 집이요. 가족이 있어서? 또 맨발공원이요. 내가 좋아하는 물도 있고 그러니까.
45	여	8	연무동. 많이 살다왔고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집. 가족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어서.
46	남	8	저 뒤에 (23구역) 많이 놀아요. 풀이랑 그런것들. 바닷강. 물속 안에서 놀았음.
47	여	8	에버랜드. 재미있고 수영장에 장애물이 많아서.
48	여	8	없어요. 재미있는 곳이 없어요.
49	여	8	에버랜드. 놀이터 재미있어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이 있어서. 한국민속촌. 옛날 영화를 봤었음.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50	여	8	미술학원. 재미있어서.
51	여	8	맨발공원 물놀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음.
52	여	11	놀이터요. (5번구역) 친구들이랑 자주 오고 놀 게 많아요. 집이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요.
53	남	10	학교 축구장이나 여기요 (5번구역 농구장) 친구들이랑 축구나 농구를 할 수 있어서? (재질문) 학교요.
54	남	10	집이요. 집이니깐? 가족들이랑 같이 사니깐요.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깐.
55	남	8	공원. 저기 위요. (맨발공원) 자주 가요. 엄마 아빠랑. (재질문) 몰라요.
56	여	9	외할머니 댁이요. (서울)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서. 놀이터. 집앞이요. (10구역)
57	남	7	유치원. 장난감이랑 친구들이 많아서요. 집. 엄마 아빠가 있어서요.
58	여	12	학교요. 친구들도 있고 공부해야 돼서. 아파트에선 모르겠어요.
59	남	13	인계동이요. 거기서 살다오고 친구들도 많아서. (재질문) 다 좋은 거 같아요. 딱히 없어요.
60	남	13	전 학교요. 친구들 때문에요. 하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다 같이 놀 수 있어서. 맨발공원. 그냥 보기 좋아요.
61	남	9	산이요. 아빠가 산을 좋아해서 자주 가요. (이름은 잘 모르는 거 같다) 공원? (8, 23구역) 놀 수 있으니깐? 자전거 타요.
62	여	9	집이요. 가족들이랑 있을 수 있고 자고 먹고 할 수 있어서요. 놀이터? 그냥 아무데나요.
63	여	8	놀이터요! (8구역) 놀게 많아서요. 집이요. 집이니깐.
64	남	7	유치원 ㅋㅋ 장난감이 많아서. 주차장. 자동차가 많아서.
65	남	9	학교랑 집이요. 학교는 친구들이 많아서고 집은 내가 사는 곳이니깐요.
66	여	7	집이요. 집이 좋아서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가 있어서.
67	여	7	놀이터요 (9구역) 놀게 많아서. 그네 타요. 유치원? 친구들이 많아서.
68	남	7	저기 공원 (23구역) 축구 할 수 있어서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장. 저번에 아빠랑 축구 보러 갔어요.

<표 12>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장소

연번	장소	빈도수	비율(%)	연번	장소	빈도수	비율(%)
1	503뒤 놀이터	2	1.9	21	연무동	1	1.0
2	503뒤 농구장	1	1.0	22	영동	1	1.0
3	510옆 놀이터	4	3.9	23	외할머니집	1	1.0
4	517옆 놀이터	1	1.0	24	유치원	1	1.0
5	531옆 놀이터	1	1.0	25	음식점	1	1.0
6	554앞 놀이터	2	1.9	26	인계동	1	1.0
7	나무공원	1	1.0	27	인천	1	1.0
8	놀이동산	4	3.9	28	주차장	1	1.0
9	놀이터	2	1.9	29	진주	1	1.0
10	도시	1	1.0	30	집	27	26.2
11	마트	1	1.0	31	초록공원	1	1.0
12	맨발공원	5	4.9	32	축구장	1	1.0
13	미술학원	2	1.9	33	친구집	1	1.0
14	민속촌	1	1.0	34	태권도 학원	2	1.9
15	산	1	1.0	35	피아노 학원	1	1.0
16	수영장	2	1.9	36	학교	15	14.6
17	신천	1	1.0	37	학교 운동장	4	3.9
18	아빠 회사	1	1.0	38	학원	1	1.0
19	어린이공원	6	5.8	39	화장실	1	1.0
20	어린이공원 옆 놀이터	1	1.0	합계		103	100.0

장소 유형을 살펴보면 집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동체시설 27.2%로 나타났다. 내부 장소라 할 수 있는 집과 시설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공간인 놀이터 및 운동장, 공원 및 녹지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13>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장소 유형

장소유형	빈도수	비율(%)	장소유형	빈도수	비율(%)
공동체시설	28	27.2	놀이터 및 운동장	19	18.4
공원 및 녹지	18	17.5	집	35	34.0
기타 오픈스페이스	3	2.9	합계	103	100.0

아동들의 응답을 민병호 외(2006)의 연구에서 분류한 장소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장소의 의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23.3%)이며, 다음으로 소속감과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21.4%로 나타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14>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장소 의미

장소 의미	빈도수	비율(%)	장소 의미	빈도수	비율(%)
자주이용	6	5.8	원하는 행위에 적합	22	21.4
생활에 중요	10	9.7	소속감	22	21.4
장소에서 놀이가 즐거움	8	7.8	물리적 특성 의존	9	8.7
재미있는 요소 존재	2	1.9	합계	103	100.0
심리적으로 중요	24	23.3			

장소의 유형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동체 시설의 경우는 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과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원 및 녹지의 경우는 자주이용과 행위를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놀이터 및 운동장의 경우는 장소에서 놀이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중요성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5> 장소 유형에 따른 장소 의미

구분		공동체 시설	공원 및 녹지	기타 외부공간	놀이터 및 운동장	집	전체
자주이용	빈도수	1	5	0	1	0	6
	비율(%)	3.6	29.4	0	5.3	0	5.8
생활에 중요	빈도수	5	0	0	0	5	10
	비율(%)	17.9	0	0	0	14.3	9.7
장소에서 놀이가 즐거움	빈도수	3	1	0	4	0	8
	비율(%)	10.7	5.9	0	21.1	0	7.8
재미있는 요소 존재	빈도수	0	1	0	0	1	2
	비율(%)	0	5.9	0	0	2.9	1.9
심리적으로 중요	빈도수	1	2	1	0	20	24
	비율(%)	3.6	11.8	20.0	0	57.1	23.3
원하는 행위에 적합	빈도수	4	4	2	5	7	22
	비율(%)	14.3	23.5	40.0	26.3	20.0	21.4
소속감	빈도수	12	1	1	6	2	22
	비율(%)	42.9	5.9	20.0	31.6	5.7	21.4
물리적 특성 의존	빈도수	2	3	1	3	0	9
	비율(%)	7.1	17.6	20.0	15.8	0	8.7
전체	빈도수	28	17	5	19	35	10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장소 위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아파트에서 아동 행위와 장소 변화

: 분당 아파트와 영통동 아파트 비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는 시대가 흐르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일까? 개인의 일상적 삶에서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들은 변화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상징성이 강할수록 의미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주거지 일상생활 공간에서 장소들은 달라질 것인가? 이는 개인들의 중요한 공간들로 일부 친구 및 주변의 지인들과 그 의미를 공유하는 장소로 존재하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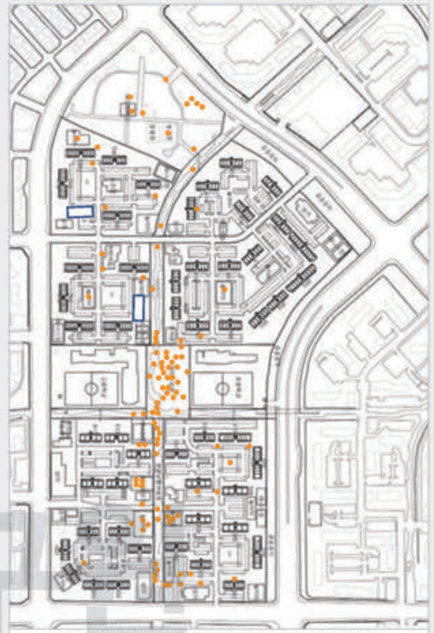
민병호 등의 연구[4]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와 장소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장소의 변화에 대해서 이석환 등의 연구[5]에서는 장소와 시간과의 관계는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장소의 성격은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건물과 경관의 변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시간은 결국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지영 등의 연구[6]에서는 농경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놀이의 형태와 문화가 다중적인 방향을 가지고, 잉여에너지의 소모나 자연스러운 실체 활동인 동적 놀이에서 정서적, 인지적 형태의 문화로 놀이가 변화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행위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해경은 공원의 장소성 연구[7]에서 활용적 관점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장소성이 변화되거나 재생산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주체와 이용자들의 요구의 주장으로 장소성이 변화하고, 왜곡되는 과정을 겪기도 함을 주장하였다. 공원의 장소성 연구를 통하여 행위와 장소에 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 아동의 행위 변화

분당구 한솔마을 행위 발생의 건수가 2006년 조사에서는 222건의 행위를 관찰하였으며, 2015년에는 104건의 행위를 관찰하여 약 절반에 가까운 행위를 관찰하였다. 과거에 비하여 현재 아동들의 행위가 근린공원(능골공원)과 8자 놀이터(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그 빈도가 높지 않았지만 분산되어 있는 여러 놀이터에서의 행위들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및 정자 등에서 아동들의 행위를 관찰할 수가 없었다. 행위 위치를 살펴보면 보다 개방되고 놀이공간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또한 몇 개의 놀이터와 정자에서는 노인



2006년 분당구 한솔마을 아동 행위 발생 위치



2015년 분당구 한솔마을 아동 행위 발생 위치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행위 발생 위치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행위 발생 위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분당구 한솔문구 앞 아동 행위(상 2006년, 하 2015년)

과 장애인들이 항시 앉아 행동하는 모습들이 관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것이 몇몇 공간에서 아동들의 행위를 관찰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과거 활발하게 행위가 관찰된 7단지 상가 주변의 공터와 주차장은 새로운 임대주택이 증축되면서 그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 그 공간에서 아동들의 행위가 사라지게 만든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구점 앞에서 주로 관찰되던 다수의 아동들이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는 전자오락기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한명이 오락을 하면 그 뒤에서 구경하며 이야기하는 아동들의 행위들은 더 이상 관찰할 수가 없었으며, 문구점 주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몇 번 오락기를 내놓았지만 아동들이 이용이 없어 치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게임의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과거 근린공원의 넓은 광장은 게이트볼장과 농구장 그리고 운동기구들의 설치로 인하여 자전거 등의 탈것을 타는 놀이가 해당 지역에서 현격하게 줄고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이용한 운동들이 관찰되고 있다. 근린공원에서 달라진 또 하나의 행위는 물놀이장의 설치로 인하여 유아와 저학년들이 여름철 물놀이가 관찰되는 것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연놀이가 과거에 비하여 그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외부 공간에서 자유롭게 하는 놀이(레슬링, 뛰기 등)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경의존적인 행위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환경독립적인 이동과 탈것의 행위의 비중이 현재에 와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표 16> 분당구 한솔마을 행위 유형 변화 결과

구분	과거 빈도(%)	현재 빈도(%)	구분	과거 빈도(%)	현재 빈도(%)
공놀이	19(8.6)	9(8.7)	역할놀이	13(5.9)	1(1.0)
자연놀이	36(16.2)	5(4.8)	이동	21(9.5)	28(26.9)
놀이터 놀이	27(12.2)	16(15.4)	탈것	23(10.4)	18(17.3)
장난감 놀이	24(10.8)	7(6.7)	레슬링 뛰기 등 놀이	19(8.6)	–
사회모임	22(9.9)	17(16.3)			
휴식	18(8.1)	3(2.9)	계	222(100.0)	104(100.0)

2006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장소에서 행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행위는 공놀이와 놀이터 놀이, 자연놀이, 장난감 놀이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장소에서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는 행위는 공놀이 하나의 행위 유형만 나타났다. 자연놀이와 장난감 놀이는 과거의 연구와는 다르게 장소 외부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행위들은 환경에 보다 의존적인 행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 연구에서 장소 외부에서 행위는 환경에 독립적인 이동과 탈것과 레슬링, 뛰기 등 놀이들이 관찰되었으나, 2015년 관찰에서는 장소 외부에서 이동, 자연놀이, 장난감 놀이, 휴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환경에 독립적인 이동이 과거와 같이 장소 외부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장소에 따른 행위 유형에서 과거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공놀이와 이동이라 할 수 있겠다. 다르게 나타난 자연놀이와 장난감 놀이는 과거 연구에서 특성을 환경의존적인 행위로 구분하였으나 그 구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난감 놀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은 특별히 장소의존적인 행위로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과거의 물총놀이나 전자게임과는 다른 형태의 장난감 놀이의 등장이 이러한 특성 구분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당구 한솔마을 공간 변화(근린공원)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분당구 한솔마을과 비교(2006 vs 2015)하면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는 2015년과 비교하여 2022년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8]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상당한 행위 위치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아동들의 장소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수준과 간략한 약식 관찰 조사에서 유추할 때 행위 위치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2년 영통 초등학교 학생수가 2015년에 비하여 63.1% 수준으로 줄었다. 아동들의 절대 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의 인구구조에 변화(특히 노년층의 증가)가 오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록 현재는 영통3동이 수원에서도 평균 나이가 젊은 축에 드는 지역[9]이나 앞서 살펴본 한솔마을과 같이 인구구조에 따른 외부공간의 변화(고령층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등)를 겪을 수 있다.

<표 17> 2015년 한솔마을 장소에 따른 행위 유형

구분			in	near	outside	전체
activity	공놀이	빈도수	7	1	1	9
		비율(%)	77.8	11.1	11.1	100.0
	놀이터 놀이	빈도수	7	0	9	16
		비율(%)	43.8	0	56.3	100.0
	사회모임	빈도수	6	3	8	17
		비율(%)	35.3	17.6	47.1	100.0
	역할놀이	빈도수	0	0	1	1
		비율(%)	0	0	100.0	100.0
	이동	빈도수	1	3	24	28
		비율(%)	3.6	10.7	85.7	100.0
	자연놀이	빈도수	1	0	4	5
		비율(%)	20.0	0	80.0	100.0
	장난감 놀이	빈도수	1	1	5	7
		비율(%)	14.3	14.3	71.4	100.0
	탈것	빈도수	6	8	4	18
		비율(%)	33.3	44.4	22.2	100.0
	휴식	빈도수	0	1	2	3
		비율(%)	0	33.3	66.7	100.0
전체		빈도수	29	17	58	104
		비율(%)	27.9	16.3	55.8	100.0

비고 : 카이제곱=44.01, 자유도=16, p<0.01

2) 아동들의 장소 변화

우선 과거의 아동들의 장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2.44곳의 장소를 그들의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로 응답을 하였으나, 2015년 1.34곳을 장소로 응답하였다. 한 명의 아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에 있다. 장소유형을 살펴보면 놀이터 및 운동장은 과거에 비하여 조금 낮아지고 공원 및 녹지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타 오픈스페이스는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낮아지는 폭이 크며 공동체시설은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다.

놀이터 및 운동장에서 과거에는 8자 놀이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놀이터들이 아동들의 장소로 응답하였으나, 2015년은 몇 개의 놀이터 및 운동장으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놀이터 및 운동장이 아동들로부터 의미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지의 문구점과 상가들이 중요한 장소로 언급이 되었으나 그러한 응답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문구점 1, 상가 1). 이는 문구점과 상점들이 아동들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들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구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상점 주변의 공터가 놀이터였던 시절과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구점의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전자오락기가 사라지고, 상점 옆의 공터와 주차장 역시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찾아온 변화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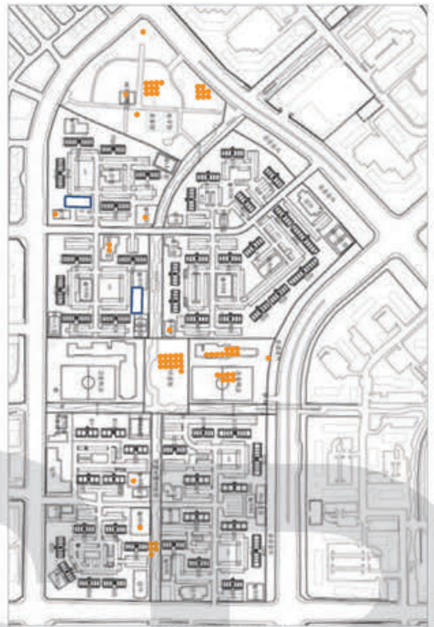
우선 한솔마을 아동들의 행위를 살펴본 결과 이동(26.9%), 탈것(17.3%), 사회모임(16.3%), 놀이터 놀이(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독립적인 행위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관찰된 행위들은 4개 단지의 중앙에 위치한 8자 놀이터에 집중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중심으로 행위들이 관찰되었다. 친구와는 주로 사회모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와는 놀이터 놀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부모와 혼자서 하는 행위는 주로 움직이면서 하는 행위인 이동과 탈것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아동들의 행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사한 조건의 대상지로 선정한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들의 행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환경에 독립적인 움직이면서 하는 행위인 이동(38.7%)과 탈것(25.6%)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에 의존적인 놀이터 놀이(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솔마을 아동들의 장소는 65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총 87곳의 중요한 장소를 도출하였으며, 아동을 각각은 평균 1.34곳의 중요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곳은 8자 놀이터(18.4%)이며, 다음으로 능골공원(12.6%)과 학교(12.6%)로 나타났다. 장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놀이터 및 운동장(39.1%), 공동체시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2006년 한솔마을 장소



2015년 한솔마을 장소

장소 변화

(21.8%), 공원 및 녹지(19.5%), 집(11.5%), 기타 오픈스페이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장소의 의미로는 소속감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21.8%)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에서는 주로 생활에서 중요하고 심리적 중요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년에서는 원하는 행위 그리고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소유형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공동체 시설의 경우 생활에서 중요하거나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놀이터 및 운동장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행위위치는 과거에 비하여 능골공원과 8자 놀이터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관찰되었던 단지 내 소규모 놀이터에서의 행위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상가 주변(공터와 주차장)에서의 행위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행위그룹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행위를 지원했던 자원의 소멸, 그리고 아동 인구의 감소를 생각할 수 있다.

행위 그룹 간의 충돌은 과거 아동들의 행위가 주로 관찰되었던 정자와 공원에서 다른 그



문구점 옆 공터에 들어선 건축물

룹인 노인들의 행위가 주로 관찰되는 데 있다. 주로 7단지 내의 정자와 놀이터, 그리고 능골공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찰된다. 능골공원은 중앙의 광장을 게이트볼장과 운동시설의 설치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 개의 정자는 노인그룹과 장애인 그룹이 상주하는데서 있으며, 그와 인접한 놀이터에서도 아동들의 행위를 볼 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동과 노인 그룹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간의 디자인과 함께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할 때 세대 간 공간을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위를 지원했던 자원의 소멸의 가장 큰 것은 문구점 전자오락기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조그만 오락기에 오락하는 친구와 이를 뒤에서 구경하는 모습은 이제 관찰을 할 수 없다. 전자오락기가 사라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은 스마트폰의 보급에 있다.

한솔마을 아동행위를 관찰하는 동안 아동들의 행위 빈도가 낮았다. 같은 시간과 횟수를 시행한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의 경우는 199건의 행위를 관찰한 반면, 한솔마을은 104건의 행위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원인에는 아동인구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지 아동들을이 과거 연구에서는 4개 단지에 약 1,000명이 넘는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분당구 한솔마을 708동 옆 정자 행위(좌 2006년, 우 2015년)



분당구 한솔마을 공간 영역화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공간 영역화

로 언급하고 있으나, 2015년 한솔초등학교에 258명이 등록된 상태로 절대적인 아동들의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단지에서 아동들의 중요하거나 의미 있게 생각하는 장소들은 과거에 비하여 위축되었다. 우선 아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수가 줄어들었으며(평균 2.44에서 1.34로 줄어듦), 각 유형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개별 장소들이 위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앞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인구구성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해당 대상지의 아동들의 전체 인원이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놀이문화(휴대폰 게임 등)으로 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대상지 아동들의 인구수 변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또한 노인인구와 장애인의 외부공간 점유가 과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는 민병호 등이 밝힌 바와 같이 행위와 장소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0] 주거동 주변 정자는 전동휠체어가 항시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몇 개의 놀이터와 정원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고 노인들이 상주하고 있다. 과거 아동들의 행위가 관찰되었으며, 장소로 지목되었던 곳들이 서로간의 영역 다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은 그렇게 몇 개의 장소를 상실하고 대안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간 영역화에 대한 흔적이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에서도 2022년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문화적 변화에 의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인터넷게임 문화의 발달과 휴대폰게임의 발달로 상가와 문구점에 있는 전자게임기가 사라지면서 그러한 장소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는 환경에 독립적인 행위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서 특정한 외부장소보다는 공동체 시설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가 된다.

아동들의 중요한 장소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이를 지원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 즉 행위를 지원하는 자원과 연계가 되어 있다. 아동들의 행위가 위축되고 그들의 장소가 한정되는 것들은 적절한 자원의 지원을 통하여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할지라도 영역다툼에서 상대적 약자인 아동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이 살기 편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주거지가 결국 주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것이다.

주

1. 「아파트 외부공간에서 아동들의 행위와 장소 변화에 관한 연구」(허현대, 2015, 수원시정연구원)를 바탕으로 2022년 악식 행위관찰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 Korpela, K.,1992, "Adolescent's favorite places and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 pp.249-258.
3. Gustafson, P., 2000, "Meanings of place: Everyday experience and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pp.5-16.
4. 민병호, 1996, 「주거단지 외부공간구조와 아동놀이: 상계동 2개 단지 비교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제5호), 대한건축학회, 39-50쪽.
5. 아석환&황기원, 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2권(제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69-184쪽.
6. 박지영&김명수, 2009, 「인지활동을 지향하는 실외놀이구조물 연구: 초등학교 어린이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제22권(제3호).
7. 김해경, 2010, 「효창공원의 장소성 형성과 변화 해석」, 『서울학연구』 제39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79-117쪽
8. 주변 6단지에 대규모 놀이터가 재단장했다, 차량이 통행하는 행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비교적 거리가 있음에도 보행자전용도로의 연계와 새로운 놀이 시설 등으로 인하여 여러 그룹의 아동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9. 2022년 기준 영통3동 평균 연령은 36.9세로 수원시 전체 6번째로 젊은 동에 해당한다.
10. 민병호, 1996, 「주거단지 외부공간구조와 아동놀이: 상계동 2개 단지 비교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제5호), 대한건축학회, 39-50쪽.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III

01.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02.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03.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정혜빈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석사 수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1997년 12월,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첫 입주자를 받기 시작하였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봉영로의 청명역사거리부터 황골사거리까지 중부대로 방면을 향했을 때 왼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단지의 끝과 끝까지 도보로 약 10분이 소요되는 대단지이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121동부터 159동까지 39개 동 3,129세대로 구성된 소형 평형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조성한 첫 작품이었다. 1995년 영통지구의 분양 홍보 당시, 타 도시와의 차별성으로 내세운 교통, 규모, 교육, 주거환경, 이 네 가지 장점은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신갈IC가 반경 2.2㎞ 내,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흥덕IC가 반경 1.6㎞ 내에 위치해 타 지역, 특히 서울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2012년에 150번대 동 근처에 수인분당선인 청명역이 개통되면서 인천과 분당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주거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뒤편에는 공원, 음식점, 학원, 병원, 편의시설 등이 들어차 있다. 이 중 아파트의 주민들이 꼽는 으뜸은 단지의 숲길이다. 단지 입구부터는 곧게 자란 나무들이 단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듯 초록빛의 터널을 만들어내고 그 밑에는 알록달록한 꽃들과 널찍한 도로가 자리한다. 이 단지의 나무도 꽃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모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다. 초대 입주자인 구희선은 단지가 공

황골마을 전경(김승일 제공)



아파트 단지 내 가로수길

터에서 오늘날의 꽃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하였다. 1997년도에 입주한 그는 1998년도부터 약 5년간 부녀회로 활동하면서 단지 내 화단과 공터에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화를 심었다. 하지만 연산홍, 옥잠화, 줄장미 등과 같은 음지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 버려 관리하기가 까다로웠다. 이후 매년 새로운 식물들을 심어보고 단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와 꽃들을 찾아 아파트의 화단을 조성해 나갔다. 구희선과 부녀회의 애착과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의 푸르른 단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학군도 빼놓을 수 없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이점이다. 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유치원, 황곡초등학교,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다. 2000년에 입주할 당시 4살이었던 이지은은 황곡초등학교,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를 졸업해 어엿한 유치원 교사가 되었고 현재도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그는 당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별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어 황골 주공1~2단지아파트 거주자는 황곡초등학교만 진학이 가능했다고 한다. 동네 친구가 반 친구가 되고, 동창



황곡초등학교 전경



청명고등학교 전경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황골 주공1단지 아파트
❶ 65㎡ ❷ 77㎡ ❸ 82㎡ ❹ 83㎡

이 되는 경험 속에서 이지은은 1단지 또래 친구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더라도 "한솥밥 식구"라는 느낌을 받았다. 분위기도 비슷하고 사는 수준도 비슷한 친구들인데다가 이사 가는 경우도 적어서 함께 초·중·고를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지은의 학창 시절에 동탄신도시와 광교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했지만 이지은의 부모님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황골에서 굳이 이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지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바로 옆에 산다고 한다.

한편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황골에서 다른 단지 사람들로부터 듣던 아쉬운 소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2000년대 들어선 대형마트 홈플러스와의 거리가 멀어 장보기가 힘들 것 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알뜰시장, 화요장을 모르는 소리였다. 주민들도 홈플러스와 이제는 사라진 그랜드백화점의 푸드코트에서 짜장면을 후루룩 먹던, 첫 브랜드 운동화를 갖게 되었던 추억들이 있지만 그건 다른 단지 주민들 모두와 공유하는 추억이었다. 반면 알뜰시장에서의 추억은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만의 추억이다. 구희선은 알뜰시장이 서는 날이면 홈플러스와 인근 마트의 매출이 떨어졌다고 한다. 품목 선정과 상인들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알뜰 시장을 일으켜 세운 구희선은 지금의 화요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처음부터 지정된 상인들이 나란한 천막 밑에서 나란히 각기 다른 품목을 진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체계가 잡힌 알뜰시장은 오늘날까지도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밥상에 신선한 식재료와 야식을 올리고 소소한 생활용품을 조달한다. 주민들은 화요장의 으뜸은 값싸고 싱싱한 야채와 채소, 그리고 파인애플 탕수육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한다. 실제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바로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도 화요일이 되면 채소와 파인애플 탕수육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 하지만 주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이 열리는 화요일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롯데마트와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으며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과 단지 뒤편에 위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봉영로 쪽에 위치한 '장바구니' 등이 알뜰시장의 빈자리를 메워 주기 때문이다. 결국 장을 보기 위해 홈플러스까지 갈 필요가 없기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황골 마을"의 모습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2.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주민들에게 영구적인 보금자리이기도,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도 하다. 보통 이곳을 영구적인 보금자리 삼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정착한 경우로 노년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반면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대체로 젊은 편이다. 신혼부부가 자가를 마련하기 전에 잠시 머물기도 하고, 젊은 부부가 가족 수가 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대형 평형대의 아파트로의 이사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1단지가 30대가 반, 70대 이상이 반이라고 한다. 소형 평형대라는 공간적 특성이 주민들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이 조직하는 주민 단체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리된다. 이 민주적인 절차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30대의 반란"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 글에서는 주민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고 연대하며 아파트를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민 활동 : 부녀회와 노인회의 이야기

오늘날의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를 만들어낸 주역은 이곳의 주민들이다. 아파트가 세워진 199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필요에 따라 단체가 생겨났고 상황에 따라 사라지기도 했으며 또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자율방범대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었지만 그중 부녀회와 노인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아파트처럼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도 부녀회가 있었다. 구희선은 당시 부녀회로 활동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며 아파트에 대한 애착을 키워 갔다고 한다.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부녀회장까지 도맡게 되었는데 그의 큰 업적은 엉망이었던 알뜰장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당시 알뜰장에서 판매를 허가하는 권한은 부녀회장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부녀회장에게 뇌물을 주고 알뜰장에 들어오려고 했다. 그때를 구희선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구희선 그전에는 막 이제 와서 이 담 밑에 쭉 그 사람들 자면서 막 부녀회장한테 들여보내 달라고 하면 부녀회장이 지목하는 대로 들어와서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정리도 안 되고 상인들이 자기 안 넣어 주면 막 이렇게 해요.

알뜰장은 부녀회의 주요 활동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비리와 부패에 의해 입주자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알뜰장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알뜰장

표회의와의 갈등과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부녀회장이 된 구희선은 알뜰시장의 체계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고, 상인들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계약제로 전환하여 오늘날의 안정적인 알뜰시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전에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은 회계 처리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서 해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여느 아파트처럼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갈등은 부녀회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부녀회의 활동이 덧없는 것으로 남지는 않았다. 부녀회 덕분에 1단지는 풍요로운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부녀회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아파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몇몇은 입주자대표회의로 옮겨 아파트와 주민들의 삶을 위해 힘써 왔기 때문이다.

현재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은 투표를 거쳐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처음부터 이러한 평화로운 방식을 갖추고 있던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이진아는 처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민원을 넣어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의아함을 가진 이진아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직접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회의에 참석한 첫날부터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토박이, 주로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때마침 "아파트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젊은 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진아를 포함한 몇몇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진아는 당시를 "30대들의 반란"이라고 회상한다.

이진아 사실 젊은 층들이 원했던 거는 이 아파트는 소통이 안 된다. 이게 가장 컸어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 뭔가 민원을 넣어도 즉각즉각 해결해 주지 않고. 이때 황골 아파트가 약간 유명하긴 했어요. 좀 약간 문제 있는 아파트. 일단 문제 있는 아파트. 한 일간지는 영통이 할렘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진짜 화가 난다. 아파트 바꿔야 된다. 이래서 정말 그때 정말 30대들의 반란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에 젊은 동대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젊은 동대표들이 아파트는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필요한 공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록과 운영비 지출 내역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관리비를 둘러싼 의견도 분분하였다. 가령 젊은 동대표들은 관리비를 2,000원만 올려 노후한 시설을 보수해서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기존 동대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동대표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 기존의 동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들은 대부분 노년층이었기에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없었고 대다수가 자녀들의 용돈과 연금 등으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아직 고장나지 않은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 혹은 경비원의 명절 선물을 위해 관리비를 2,000원씩이나 인상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또한 관리비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랐다. 젊은 동대표들이 요구하는 장부는 컴퓨터로 정리된 엑셀 혹은 한글 파일이었는데 컴퓨터와 거리가 먼 기존 동대표들에게는 이는 자신들에게 불가능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서로의 속사정을 알기 전까지 두 집단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하지만 안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며 두 집단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았고 그동안의 소통방식을 반추하게 되었다. 이제 젊은 동대표들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빠르게 안건을 접수하고 현안을 파악한다. 기존 동대표들은 삶의 지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 역할이 뚜렷하게 분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집단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아파트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 2022년 10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단지에 변화를 꾀한다. 또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다 보니 연령대별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 안건도 고르게 선정된다. 20대는 주차문제, 30대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시설, 40~50대는 아파트 시설 문제, 60대는 공원, 70~80대는 복지와 쉼터, 90대는 건강 등 다양한 사안들이 제기된다. 이처럼 30대의 반란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 않고 모두를 승자로 만들며 막을 내린 사건이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은 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소통하며 하나가 된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소형 평형대인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주로 30대와 70대 이상이 주를 이룬다. 카톡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30대의 소통의 장이었다면, 노인회는 80대 이상의 노인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친목의 장이다. 약 44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아파트의 노인회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단순히 노인인 주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노인회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구희선이 새로운 총무가 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 균형 잡힌 식단이 생겨났다. 입주자대표회의로 15년을 활동한 구희선이 노인회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70세인 자신은 노인회에 들기에는 너무 젊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6시 반, 주민들이 구희선의 집에 찾아와 노인정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구희선은 결국 상황을 살필 겸 노인정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다. 거절할 수 없어 간 사무실에서 구희선은 우리 아파트 노인들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한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카풀 표지판


아파트단지 내 산책로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노인회 친목 프로그램과 운동 프로그램



노인회 일지

구희선 무슨 내가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일할 저기가 안 돼요. 구청에서 주는 돈은 아주 너무 복잡해. 안 되는 건 또 안 되고 뭘 다 맞춰서 석 달에 한 번씩 정산에 들어가잖아. 그거 하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하실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도 하고, 와 보니까 진짜 어르신들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해서 다 이제 저거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업무 추진하는 거 뭘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동대표를 쭉 이제 오면서 알기 때문에 노인정 사정을 잘 알거든요.

이렇게 노인회의 젊은 총무가 된 구희선은 새로운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이전에는 없던 감사장과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관리사무소의 지원금인 매달 50만 원과 구청의 33만 원은 어르신들의 밥상과 활동비에 쓰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정에서 취식이 어려웠던 때에는 지원금으로 두유와 떡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못 오시는 분께는 직접 배달을 해 드렸다. 한번은 구청에서 코로나 기간에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자 색칠놀이 책 20부를 보내 왔다. 구희선은 그냥 배부를 하면 어르신들이 안 하실 게 눈에 훤해 완성하시는 분께는 상품을 드리겠다고 홍보를 했다. 구희선은 직접 남문시장에 나서 어르신들의 속옷을 구매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고 색칠된 작품들은 노인정에 전시되었다. 막내인 75세 젊은 총무 구희선의 정성이 마음에 닿자 어르신들은 너도나도 자식들에게 아파트의 노인정에 대한 자랑을 했다고 한다. 자식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인정에 각종 과일들을 보내 물가가 치솟던 2022년의 여름도 달콤하게 보낼 수 있었다.

구희선은 노인정의 막내지만 75세로 세련된 보고서와 형식적인 일지를 작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노인정에 있었던 모든 일은 그의 스타일대로 기록된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프린트로 출력해 오리고 붙인다. 그 밑에 구희선은 한 글자, 한 글자 그날의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록한다. 자신들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구희선을 보며 노인회 회원들은 "우리 총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도와주자"고 하며 구희선의 곁을 지켜줬다. 이런 끈끈한 유대에 반응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은 노인정 리모델링과 필요한 가구를 힘이 닿는 대로 지원하였다. 처음에 노인회의 지원금액을 올리는 것에 반대했던 한 동대표는 노인정에 가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이후 그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노인정의 일에 임하며 지원금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그래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여느 단지와 다른 특별한 곳이다. 진심이 오가는 사람들의 두 눈으로 반짝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2) 젊음을 유지하는 노후 아파트의 비결

올해로 26살이 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비교적 고령의 아파트이다. 하지만 아파트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 고령의 아파트가 여전히 찬란한 젊음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깔끔하게 도색된 외벽에 투명한 현관 자동문, 출입 차량에 맞춰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차차단기, 내리치는 빗물을 막아 주는 정자와 쉼터들. 이 아파트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곳의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상생이다. 주민들은 "우리 관리사무소만큼 일을 잘하는 곳이 없다"며 칭찬한다. 사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대단지이자 오래된 아파트로 관리하기가 쉬운 대상은 전혀 아니다. 3,129세대, 한 가구당 두 사람이 산다고 가정을 해도 최소 6,258명이라는 인원을 21명의 직원과 67명의 경비원과 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천화수 관리소장은 대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에는 전기, 설비 등의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사무실의 직원들도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사무실 내에서도 업무 후 피드백을 거치기에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중 약 70%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위탁관리는 아파트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회사에서 연중 계획, 아파트 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소장을 해당 아파트로 파견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치관리가 있는데,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소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관리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아파트가 위탁 관리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그 많은 위탁 관리 회사 중 가장 큰 '우리관리'라는 위탁회사와 함께하고 있다. 300여 개의 단지를 관리하는 우리 관리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 회사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도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본래 각 세대의 몫인 수도꼭지나 변기와 같은 잔 고장들을 관리사무소가 해결해 주기도 한다. 어르신들에게는 수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번거로운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천화수 이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해피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바로 여기서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세대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관리 주체인 소장이나 직원이 가면 우리 직원이 얼마만큼 친절했는지 또 요구한 만큼 만족했는지에 대해서 본사의 시스템에서 피드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어떤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얼마만큼 잘 소통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관리가 돼서 아무래도 주변에 평가들이 이제 낫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천화수 소장과 직원들에게도 즉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곤 한다. 가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공고는 사무실의 몫이다. 문제는 대단지에 대규모 인원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 터, 문제 제기나 반박은 결정을 내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주차차단기와 단지 내 외부차량 방문 시 안내 현수막

고를 낸 사무소로 들어와 곤욕을 치를 때가 종종 있다. 또 아파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품이 단종되거나 회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천화수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다. 자신들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천화수 *이제 여기에 하나의 히스토리를 보면 1997년 아까 말씀드린 12월 16일 날 사용 검사를 대면서 승강기가 이게 이제 한양 엘리베이터라는 회사에 승강기가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승강기가,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보통 승강기는 법적으로 부품은 15년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1997년에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지니까 20년이 되면서는 부품도 구하기 힘들고.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이 인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장이 났는데 이제 부품이 생산이 안 되니까.*

결국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계속 생길 때마다 부품과 기술자를 구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언제든지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대기업인 현대 엘리베이터와 계약하였다. 이처럼 부품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설 전체가 말썽인 경우도 있었다. 급수 형태의 문제였다. 상향식 급수 형태는 직접 세대로 들어가는 형식이고, 고가수조의 형태는 저수지의 물이 옥상에 올라간 후 옥상에서 내려오는 형식인데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고가수조의 형태로 지어졌던 것이다. 고가수조는 초기비용이 적게 들지만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저수지에서 옥상으로 물을 올릴 때 필요한 펌프가 자동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이 펌프가 녹슬면서 물의 양을 조절하지 못해 옥상에 물이 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계속 수도가 말썽을 일으키자 2012년에서 2013년경에 상향 조정이 되는 부스터 방식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설 전환은 이전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더 깨끗한 물을 각 세대에 공급해 줬기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입장에서도 잘된 일이었다.

말썽을 부리지 않은 것들도 때가 되면 주민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파트에는 장기수선계획이 있는데, 그중 외벽 도색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통 아파트는 5년마다 새 옷을 입기로 되어 있지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을 벌이고 있던 때라 시설물에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소송이 끝나고 13년 만인 2010년도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단지는 새 옷을 입게 되었다. 새 옷은 알뜰하게 입혀졌다. 도색과 지하주차장의 하자 공사까지 포함해 약 2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최대한 싸게 해 달라고 부탁해 6억~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리사무소의 알뜰함은 여기서 끝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아파트 단지 곳곳에 위치해 설치된 경비실과 ATM기

아니다. 다른 대단지의 경우 조경관리를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맡기지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직원이 직접 해서 그 예산을 더욱 필요한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한다. 이전 동대표였던 김혁수는 이런 관리사무소의 알뜰함을 한편으로 걱정한다. 경비를 쓰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인색해져 자신들의 근로환경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김혁수 *트럭 조그마한 트럭이 하나 있거든요. 트럭에 에어컨이 올 여름에 고장 났었는데 그거를 안 고치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에어컨이 고장 난 지 오래됐는데 도저히 못 견디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리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진작에 얘기를 안 했냐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소극적으로 하시냐. 꼭 필요한 거는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껴진 예산은 아파트의 구석구석에 스며들며 아파트의 젊음을 유지시킨다. 현관 지붕을 보수해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고 노후 아파트의 문제인 누수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노인들이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안전바와 보안을 위한 자동문을 설치하기도 한다. 내년에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배관공사라고 한다. 2022년 올해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530여 개의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였다. 기존의 CCTV는 화질이 낮아 주차나 방범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메라를 교체하면서 모니터도 보완하였다. 사각지대에도 추가로 설치해 아이와 노인이 많은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이것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 CCTV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2022년 7월 21일 새벽, 한 주민이 술을 마시고 단지 내에서 가방을 분실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그 가방 속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주민은 경찰서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상시 대기 중이었던 관리사무소의 두 직원이 몇 시간 동안 CCTV를 추적해 가방의 흐름을 뒤쫓았다. CCTV에 등장한 가방은 아파트 경비원의 손에 대롱대롱 붙들렸고 바로 쓰레기 수거함에 던져졌다. 경비원 또한 가방 속 현금 천만 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CCTV를 교체한 덕분에 가방은 제 주인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고 관리사무소의 두 직원은 곧 표창장을 받게 되리라는 훈훈한 이야기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이 에피소드는 시설 교체의 성공 사례이기도 하지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가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협업으로 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어 가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3.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기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 바로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이다. 2단지는 1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황골'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2단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101동부터 단지가 시작된다. 그렇기에 택배기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주소를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두 단지가 별개의 단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4살 때부터 1단지에서 자라 현재 27살이 된 이지은은 "1단지랑 2단지, 이 둘은 황골 세트야. 둘은 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운명공동체처럼 존재하던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가 아파트 명칭을 '센트럴파크뷰'로 변경함에 따라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당혹감에 빠졌다. 물론 영통동 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시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같은 이름을 공유하던 2단지가 명칭을 변경하니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 얼마 후 1단지 내에는 "아파트 명칭 변경,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도 함께 해봅시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래 황골은 마을 지형이 큰 봉황(鳳凰)이 앉아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황골이 정감 가고 편안한 인상을 준다는 주민들도 있는 반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주민들도 있다. 사실 황골이라는 것보다 문제시되는 것은 아파트 명칭에 '주공'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주공이 주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부동산 가치 상승을 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시도인 것이다. 하지만 변경된 명칭에 대한 의견은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명칭 변경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 추세이며 소유주의 동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명칭 변경을 제안하는 현수막



영통센트럴파크뷰로 이름이 바뀐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김진석 아무리 한자의 뜻이 좋아도 내가 내 이름이 안 좋으면 바꾸듯이, 아파트 이름도 안 좋으면 바꿀 수 있는 거고. 유행처럼 번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라고 못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 (중략) 주공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사회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주공! 하면 사실 지금 주공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나도 휴먼시아 많이 쓰고 또 바뀌잖아요. 나도 시대가 변하면서 이름을 계속 바꿔 왔거든요.

이진서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건 좋은데 영문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있어요. 그냥 숲소리 아파트 이렇게.

홍은아 굳이 바꿔야 하나 싶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황골로 불리던 곳에서 살았고, 익숙한 곳인데. 이름 바꾼다고 아파트 값이 확 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은 황골인 거 다 아는데. 근데 주공은 좀. 이해는 돼요.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발맞춰 걷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2022년 8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안은 11월에 준공 예정인 '미로어린이공원'이다. 1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김진석은 이 사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주민 중 하나이다. 세 살이었던 김진석의 두 아이는 현재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었고 더 이상 놀이터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1단지의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자신의 아이들이 놀 공간이 단지 내에는 마땅하지 않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이들과 차를 몰고 광교호수공원까지 가야 했다고 한다. 광교신도시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잘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 단지 아이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웃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싶었다.

그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간 후에 그의 바람은 실행으로 옮겨졌다. 그는 지역구 의원을 만나 이런 저런 고충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제안하였다. 다만 그의 제안은 생생했다는 점에서 특별하였다. 지역구 의원과 인근 단지들의 어린이공원들을 직접 돌며 그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진석 의원님한테 직접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여기(황골 주공/단지아파트) 어린이공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진짜 한 세 명인가 네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 명 네 명도 까르르 웃고 있는 거예요. 동 시간대에 의원님하고 의원님 차로 박지성 어린이 갔는데 정말 한 200명 300명 있는 거예요. 의원님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집에서 격리되는 이런 아이들, 더군다나 우리 일동은 어린아이들이 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통계적으로 더 많을 걸로 추산되는데, 소형평형이다 보니까 은데 이 어린아이들이 다 집에만 있다.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여기에 좀 시에서 좀 이게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니까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도비나 국비나 시비를 좀 유치해 줘서 6단지처럼 박지성 어린이공원처럼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권유 드렸거든요.

2022년 10월 현재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어린이공원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니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진서는 아이들에게 직접 놀이기구를 투표하도록 했다. 단지 내를 다니며 이진서는 아이들에게 스티커 표를 주고 자신이 원하는 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진서는 여자아이들이 생각보다 "와일드한 기구를 선호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에게 놀이기구에 대한 투표권이 생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들이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 줄 때 비로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공원 조성을 기획하면서 아이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지만 주민들은 세대통합형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구상도 세심하다. 김진석과 황골 주민들이 희망하는 화장실은 부모가 아이들





완공된 미로어린이공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다는 것은 꼭 다른 아파트에는 있지만 우리 아파트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고령인 동네인 만큼 기존의 것들을 '개성 있게', '트렌디하게' 혹은 '새것'처럼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전개되기도 했다. 아파트의 명칭 변경과 외벽 도색이 집단적인 작업이라면 실내 인테리어와 상권 이용 등은 입주자 개인의 선택이자 변화의 시도였다. 인근에 위치한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차이가 디자인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비교적 젊은 주민들은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3살 때부터 이 아파트에서 산 이지은은 요즘 이사 오는 집들은 입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필수로 한다고 말한다. 전에는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지만 요새는 소음과 이웃에 대한 예의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양해를 구하는 글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게시된다고 한다.

20대인 이지은은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에 위치해 있지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와 도보 10분 거리인 '프리미엄 아울렛'의 쇠퇴가 안타깝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손잡고 브랜드 옷과 운동화를 사러 가던 유일한 곳이었던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자 추억이 희미해지는 기분이라고 한다. 현재 이지은은 온라인 쇼핑몰을 애용하기도 하지만 수원역의 애경백화점과 롯데몰에서 필요한 것을 산다고 한다. 하지만 집 근처에 '올리브영'과 같은 화장품 가게와 "감성 카페"가 하나도 없는 건 20대의 이지은에게는 불편한 점으로 다가온다. 또한 그는 황곡초등학교 근처 상권이 더 발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동네 상권인 만큼 브랜드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오기보다 동네만의 특색 있는 무언가를 바라기도 한다.

이지은 물론 이제 수원역(백화점)도 가깝고, 옷도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같은 어플로 사는데. 그래도 적어도 올리브영 하나 정도는. 브랜드 화장품 가게 하나 정도는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급할 때 주변에서 살 데가 없으니까. 영통까지 나가야 하잖아요. 20대가 그렇게 없는 동네가 아닌데. 아니 심지어 그럴 장소도 많은데. 카페도 그나마 메가커피 들어오고 하면서 좀 요즘 동네 같은 느낌. 그래도 개인 카페. 인스타 감성 카페 좀 들어오면 좋은데.

홍은아 막 저기 있는 스타벅스, 빽다방 이런 거 말고. 복희네 커피, 멜라카, 와우 커피 이런 데도 커피 맛도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만 있는 거니까 더 의미도 있고. 저기 돈가스 집도 우리 동네 맛집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만의 그런 곳들이 생기면 좋은 일이죠.



황골마을 근린상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상가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인동선 환기구 설치 반대 현수막

청명마을(3단지) 근처에 생긴 영흥공원도 처음에 주민들에게는 집 주변에 큰 공원이 생긴다는 희소식으로 다가왔지만 공원의 축구장이 습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듣고 단숨에 좋지 않은 소식이 되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영흥공원 설명회 때 맹꽁이 등 생태계를 고려해 보존되리라고 약속된 습지가 다음 보고서에서는 누락된 걸 발견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하였다. 공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맹꽁이들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었는데 근처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여기서 20년을 살아왔는데 6월이 되면 얘네들이 운다."고 말하면서 힘을 보탰다. 그러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고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가세하면서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 집회로 번지게 되면서 결국 영흥공원 사건은 주민들의 승리가 되었다. 습지는 보존되고 축구장은 무산되었던 것이다. 그때를 이진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이진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영통 사람들 되게 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집회하는 거 처음이라고. 우리도 참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시위를 하면 뭔가 되는구나, 하는 승리의 기억.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영통 사람들이 순하다는 말을 이제 참지 말자. 우리는 순하지 않아.



광역버스 정류장

이렇게 주민들에게 영흥공원 사건은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흥공원 사건은 맹꽁이와 생물들의 터전을 보호하는 문제기도 했지만 행정과 주민들 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했다.

이후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지하철 환풍구 문제에도 "우리는 순하지 않아"라는 자세로 임하였다. 인동선의 환풍구 설치 예상 후보 장소가 황곡초등학교 주변이 되면서 주민들은 "영통입구역을 여기다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해 준 것도 없으면서 그런 시설들은 다 여기다가, 안 좋은 거 다 처박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실제로 2012년 분당선 청명역이 영통입구 쪽에 개통될 것이라는 소문과 달리 바로 옆 역인 영통역과 운행시간이 1분 미만 거리에 개통되면서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명역의 개통은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었으나 이게 곧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버스 만차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다.

한태일 우리 동네가 다 좋은데 교통도 좋고, 조용하고. 애들 키우는 데는 학교도 가까이 있으니까. 뭐, 저기 청명역도 생겼고. 근데 서울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아무래도 서울 가는 버스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청명역 입구(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저기 아래서 다 만석이니까. 우리 딸도 나 출근할 때 아침마다 저기 경희대까지 태워다 달라고 해. 집 앞에서 타면 출근 못 한다고.

안효은 서울역이랑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침이면 정류장에 줄 쫙 서 있거든요. 어떤 때는 버스 한 세 대 보내고 나서야 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이제 난 늦잠 잔 것도 아니고. 내가 게을러터진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눈칫밥 먹고.

수인분당선의 노선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강남역과 서울역을 직통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바로 건너편 정류장에서 서울행 광역버스와 지방행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정류장이 고속도로를 타기 바로 직전의 정류장인 탓에 자주 만석이 되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은 버스를 놓칠세라 1시간 일찍 출근하기도, 아예 전 정거장에 가서 기다리기도 한다. 주민 김진석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모든 광역버스들이 영통 '입구'인 이곳을 지나가지만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출퇴근 시간대에 영통입구에서 출발하던 노선 이 두 세대 정도 운행되었지만 그마저도 없어지자 주민들에게 '영통입구역'은 더욱 절실한 것이 되었다.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주민 안효은은 집 앞에 직통 버스가 있는데도 버스를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지하철이 개통되어도 번거로움이 배가 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안효은 집 앞에 바로 강남 가는 버스가 있는데 굳이 청명역까지 가고. 청명역에서 선릉까지 갔다가 또 2호선으로 환승하고. 아니 근데 청명역도 집에서 걸어가면 한 15분 걸려요. 애매해 가지고. 근데 강남 가는 버스는 신호등만 건너면 되거든요? 뭐랄까. 동선 낭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청명역의 위치는 다소 애매하다. 대단지이다 보니 청명역에서 집까지 가까운 곳은 도보로 3분, 먼 곳은 15분이 걸리기도 한다. 청명역을 둘러싼 잡음은 지역 의원들도 알고 있는 듯하다. '영통입구역'은 매번 지역 선거 때마다 소비되는 단골 공약으로 선거철에는 영통입구라는 단어가 동네에 쩌렁쩌렁 울리기 때문이다. 주민 한태일의 말처럼 "영통입구역 문제는 더 이상 편리한 교통을 위한 투쟁"이 아닌 "지역 주민과 행정가들의 신뢰의 문제"가 되어 버린 듯하다. 따라서 주민들은 일방적인 방식으로의 문제 해결을 희망하지 않는다.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며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을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승리의 기억"도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행정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압도의 기쁨이라기보다 함께 연대하고 화합하면서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인식된다. 그렇기에 주민들에게 이 기억은 앞으로 다가오는 안건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행정의 구도는 대립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협력하고 서로 돕기도 한다. 주민 김진석은 미로 어린이공원 계획 수립 과정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김진석이 단지 내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안했을 때, 지역구 의원과 영통구청, 수원시 관계자들이 진행에 앞서 주민 참여를 중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다.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두 집단 간에 충분한 논의가 오갔으며, 시설물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선정하였다.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자 수원시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 방문해 3일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였다.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나의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매일 아침 쌓아 올라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4. '우리'가 만들어 가는 아파트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묘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그 매력이 아파트를 녹슬지 않게 한다. 아마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많은 존재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주민들의 '우리'에는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들, 경비원과 미화원, 인근 단지 입주자, 지역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아파트를 만들지 않는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를 방문하고 이용하고 쉬어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주민들의 손길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애착을 아파트라는 공간에 담아내는 작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한 주민의 말마따나 "황골 1단지의 엄청난 단합"의 역할이 컸다. 단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갈등을 빚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도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되면서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이러한 경험들은 주민들에게 있어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를 단순히 '나의 집'이 아닌 '우리의 집'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까지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존에 주민들이 지니고 있던 '우리'에 대한 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가족에서 이웃, 이웃에서 주민, 주민에서 지역사회까지 우리라는 공동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쩌면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은 여타 단지들보다 가장 '큰 단지'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간의 갈등들을 건강하게 해소해 나가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이웃과 단절된 채 삭막한 아파트 숲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주민들은 이곳을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곳으로 유지할 것이다. 늘 그래 왔던 대로.

김진석 황골 /단지가 살기 좋아지면 영통구가 살기 좋아질 거고 그러면 수원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죠. 이런 활동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기쁨을 찾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을 생각하면. 기쁨을.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2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강신혜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영통신도시는 수원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1997년 12월 '영통지구' 첫 입주가 추진되었다. 주공1단지, 4단지, 5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총 11개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 9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두세 개의 단지를 묶은 단위로는 황골마을, 청명마을, 신나무실마을, 살구골마을, 벽적골마을로 다섯 마을이다.[1] 영통신도시는 개발계획 당시부터 전체 가구의 98%가 공동주택이었으며, 이는 광교신도시 개발 전까지 수원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영통지구 동쪽으로 용인시와 경계를 접해 있는데 그 경계에는 청명산이 있으며, 동쪽 1.8㎞ 지점에는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한다. 남쪽에는 망포동이,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도 인접해 있다.[2] 이렇게 형성된 영통지구는 삼성 등 대기업 직장인들의 주거주지가 되면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수도권 남부에서 주목받는 신도시로 성장하여 수원의 상업과 교육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추가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 분당선 청명역과 영통역 개통으로 수원 시내뿐만 아니라 성남과 용인 등 인접 도시로 가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도 더 편리해졌다.

2022년 현재 신도시를 빼곡하게 채우는 아파트들이 더 생겨났지만, 1·2단지 황골마을부터 3·4단지 청명마을, 5·6단지 신나무실과 7단지 살구골로 내려오는 대로변에 터를 잡은 아파트 단지들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영통동의 주거와 생활권을 대표하는 곳이다. 특히 영통지구 3단지는 학교 및 학원가가 시작되는 상가들과 인접하고, 도서관과 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병원, 공원이 모두 가까운 곳이다. 덕분에 주민들로부터 '살기 좋은 동네'로 불리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벽산삼익아파트 공사현장
(수원박물관 제공, 1996년 3월 19일)



벽산삼익아파트(영통에듀파크) 전경(2023년, 김승일 제공)



벽산삼익아파트(영통에듀파크) 단지 상가



청명마을(3단지) 벽산삼익아파트(영통에듀파크)

영통동 시내로 들어와서 봉영로를 타고 쭉 내려오거나 청명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육교를 마주하고, 건너편에는 영통사(사찰)이 보인다. 육교 우측은 3단지 아파트의 사잇길이다. 이 사잇길부터 큰길을 더 걸어가 학원가가 시작하는 느티나무사거리 우측이 3단지 벽산삼익아파트(2023년 영통에듀파크로 명칭 변경)가 위치한 구역이다. 영덕중학교에서부터 아파트 단지로, 느티나무 사거리 학원가 쪽으로 길을 건너는 학생들을 지나쳐, 아파트 입구에 가까워지면 초창기부터 있었던 상가가 먼저 반긴다. 아파트 진입로와 보도에는 사람들이 편히 오고 간다. 등·학교 시간이면 노란 차들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태운다. 정자에서는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쉬기도 한다. 그런 모습이 아파트의 삭막함보다는 정감을 느끼게 하고, 활기가 있어 보인다.



청명마을(3단지)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배치도
(영통벽산삼익아파트 홈페이지 제공)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주민 채서연에게서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에 있었던 빵집에 관한 에피소드를 들어 보니,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가가 품은 기억은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를 잠시 걷기만 해도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을 옆에서 함께 경험하는 듯했고, 여러 번 방문해도 첫인상은 바뀌지 않았다. 주민 개개인은 속속들이 복잡함을 안고 살더라도 아파트 환경이 제공하는 편안함은 모두가 공감하며 누리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신도시에서의 삶이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것들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의 공간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32'이다. 건설사에 따라 321동부터 327동까지는 삼익아파트, 331동부터 337동까지는 벽산블루밍아파트로 14개 동이며 총 1,24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17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이고, 29평(73.79㎡)과 33평(84.96㎡)의 두 평수만 있다. 아파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침실 3개, 거실, 주방, 전·후면 베란다가 있고, 지역난방을 가동하고 있다.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❶ 96㎡(벽산) ❷ 96㎡(삼익) ❸ 109㎡(벽산) ❹ 109㎡(삼익)



2007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표지석

아파트 내 시설은 단지 중앙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 룸이 한 건물에 있다.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이 있으며, 게이트볼장 겸 공터에는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다. 놀이터와 쉼터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지상·지하주차장, 쓰레기수거장은 아파트 건물마다 배치되어 있어 편의성을 더한다.

아파트 단지 테두리에는 주출입구에서 나와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유치원, 길을 따라 더 가면 중학교, 교회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에서 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붙어 있다. 입구 건너편에는 등기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영덕중학교 맞은편에는 영통도서관이 있다. 영덕초등학교 건너편에는 영흥숲공원이 있고 그 건너에는 3단지 대우동신아파트 경계 지점에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있다. 아파트 주 출입구 좌측과 교회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청명육교에 인접한 332동과 333동의 진입로를 이용하면 청명역이 도보 5분 정도로 매우 가깝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는 2007년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곳곳을 돌보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일 것이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비결일 것이다. 필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재학을 만나 아파트 단지의 주민 구성과 생활, 관리 업무, 주변 현안 등을 여쭤보았다. 그는 아파트 관리소장 임기가 대체로 짧은 편인데, 영통 단지 관리소장 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이 많다고도 하였다.

박재학 주민들이 다 만족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할 때(보람을 느껴요). (중략) 영통 단지 관리소장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3년 근무하고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또 어디는 입주 때부터 계신 경리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20년. 오래된 거지. 그분들은 산 증인이죠.

SK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벽산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벽산삼익아파트 324동 앞 놀이터



벽산삼익아파트 내 늘푸른유치원



영덕중학교 앞길

아파트 단지를 오고 갈 때마다 정자와 벤치, 쓰레기집하장 주변이 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파트가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아파트 입구에서 중앙으로 조금만 걸어오면 갈림길 중앙 인도로 들어가는 길에 폭·높이 3m가량의 목조 아케이드를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이것을 '파고라'[3]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것은 별 뜻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시설물일 수 있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매우 특별한 공간이 된다. 학교나 유치원의 통학 버스나 학원 버스가 올 때쯤에 맞춰 이 앞으로 아이들이 우르르 서 있는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에도 버스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아이들을 태워 간다. 또한 이곳은 만남의 공간이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채서연은 이곳이 특별해지는 시간을 '파고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짧은 시간차로 다양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이 교차하는 가운데, 몇 년간 스치는 다른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게도 되고, 다른 유치원 엄마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한다."[4]고 회상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채서연 실생활이니까. 거기는 여전히 지금 저희 아이가 늘 아침마다 가는 곳이죠. 출근하는 곳. 천문대 가는 버스도 오는 데가 여기. 차 타는 데가 한 군데예요.

조사자 그럼 모든 학원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 여기로 멈춰 서는 거예요?

채서연 네네네. 저희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대형 버스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거지, 다시 들어온 자리로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사자 역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웃음) 출구가 많아서 좋아. 그래서 이거를 (글로 남기셨구나) 늘 아이들이 오갔던 곳이기 때문에.

채서연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딱히 만날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많이 만나요.

박재학은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로 전근한 후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쪽에 서 있는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장소이다 보니 이곳에서 파고라를 설치하게 된 경위를 말해 주었다.

박재학 아침에 한 9시 내외 정도에 가면 애들 보내는 부모님이 거기서 이별의 장소예요, 거기가. 몇 시간 헤어지는데도 손 빠이빠이 하고 난리가 아니야. (웃음)

조사자 보니까 애들 막 엄청 많던데요. 거기 기다리는.





파고라의 정면과 후면





아파트 건물 연결 통로

박재학 이제 거기 이제 학원 가는 애들 줄 서 있는 거고 또 이제 학원 끝날 되면 또 부모들이 와서 또 애들 또 데리고 가고. 뭐 요즘 저 표현을, 지난번에 시에서 한 거 보니까 '맘스스테이션'이라고 하대? 들어봤어요?

조사자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박재학 아이고. 엄마들이 애들 학원 보내고 이게 뭐야 뭐야 오고 할 때 잠깐 대기하는 장소를 '맘스스테이션'이라고 한대. 우리 저 파고라가 '맘스스테이션'인 거죠. (중략) 비 안 맞게 한 것(지붕)도 그때 만들었고, 벤치도 만들었지요. 아이들이 처량하게 비 맞지 않게. 주민들이 원해서.

아파트 동마다 중앙 연결통로가 있다는 것도 벽산삼익아파트의 구조적 특징이다. 아파트를 돌아서 가지 않아도 뻥 뚫린 통로 덕분에 곧바로 출입구나 다른 동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의 외부인 차단시설이나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들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이기도 하다.

정자에서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과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이자 담소 공간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를 기다리거나 놀기도 한다. 주민들의 편안한 표정 속에서 이곳이 쉼터로 잘 이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단지 안팎에는 이런 정자와 벤치가 배치되어 있어 오가는 동안 언제든지 몸을 맡길 수 있다.

상가 뒤 공터는 본래 게이트볼장이었던 곳인데, 단지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데 현재는 열리지 않는다. 야시장이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소음과 냄새로 불편을 겪은 경우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개되지는 못하였다. 현재 공터 북측에는 운동기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이들의 작은 운동장처럼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는 공터에 대신 주차를 하기도 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내 정자(상)와 게이트볼장 및 운동시설(하)



3단지 사이 산책길(상)과 산책길 옆 농구장(하)

SRI
수원세명노무법인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세명노무법인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의 생활환경을 그린 그림(『청명로 132』 1쪽 및 표지 일부, 그림 서혜진)
산책길과 정자, 놀이터, 학교 등이 보인다.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와 영덕중학교 방향으로 가는 길 등은 걷기 좋다. 대로변 보도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로 오가기도 편리하다. 3단지 벽산삼익아파트와 대우동신아파트의 경계에 조성된 산책길은 주민들이 편안히 오고 가는 산책로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나 아빠의 표정, 희로애락을 나누는 노인들의 발걸음이 교차하는 곳이다. 또한 아파트에서 보이는 '뒷마당'에는 그 사잇길로 나가는 길 말고도 아파트의 오른쪽을 빙 돌아 단지 입구에 이르는 비정형의 샛길이 있는데, 꼭 쭉 뻗은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이나 샛길이 주는 재미가 있다.[6]

2.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

1) 교육 시기에 맞추어 전입·전출하는 젊은 입주자들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젊다."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게 있어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지이다. 결혼과 동시에 영통신도시로 이주하여 몇 번의 이사를 거쳐 2014년부터 벽산삼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채서연은 아파트 평수에 맞춰 이사하게 되는 분위기와 생활환경, 결혼과 육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채서연 /단지, 2단지는 한 25평 정도, 8단지 9단지도 그 정도 되고요. 중간으로 올수록 평수가 늘어나요. 애가 둘이고 하니까 여기로 이사 온 거죠. 여기가 29평 30평이니까. 그래서 저희 단지에서 좀 살다가 방이 모자라다 그러면, 옆에 단지는 이제 60평까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거나. (중략) 아파트 앞 사거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3단지로 이사 오고, 8~9단지 사람들은 7단지로 이사 오고 약간 이런 느낌. (중략) 최근에는 단지별로 엄청 금액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대출 더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면 되고. 전세로 살아도 잠깐만 살 거니까 그냥 수리 안 하고 살고.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면서 /0년 이상을 전세로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조사자 계속 연장하시면서. 오히려 자가인 분들이 덜 있으신 편인지.

채서연 그렇지는 않아요. 자가 비율이 저금은 옆에 단지는 거의 100프로는 아니지만 그렇고. 저희도, 한 1,400가구 중에서 300가구 정도가 세입자고 나머지는 다 자가예요.

아파트 단지에 젊은 입주민이 많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는 이야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 학구열이 높다는 평을 듣고 학군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이유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동네는 학군이 좋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특히 영덕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교이다. 2022년 4월부터 입주자대표를 맡은 강풍희는 아파트 생활과 환경에 대해 소개하며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풍희 영덕초등학교는 수원시 교사들이 (전근) 오고 싶은 /위예요. 그리고 또 영덕중학교는 수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국 50위예요. 대단하지요. 그만큼 여기가 그래요.

SW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에 참여한 벽산삼익아파트 젊은 주민들

한편 다양한 인프라들이 젊은 층이 영통신도시 거주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벽산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는 경로당(노인정)이 있는데, 젊은 입주민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활발하게 모임을 이어 가는 곳이다. 간단히 소개를 하고 아파트 생활에 대해서 여쭙자, 모여 계신 할머니들이 주신 답변은 이러하였다. "교통이 좋아." "보건소도 가깝지, 도서관도 가깝지." "전철 타기도 가깝고 버스 타기 좋아. 서울 가는 것도 그렇고 부산 가는 것도 타기 좋아." "병원도 많고" "여기 살기 좋은 데라고 테레비 나왔잖아." "젊은이들이,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 영통이래요."

그래서 벽산삼익아파트는 전입률도 높지만 전출 비중도 높은 편이다. 자녀의 학령기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 주민들도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다.

채서연 특히나 영통, 저희 아파트는, 딱 그 특정 나이까지만 살다 다 떠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 이사 오는 사람들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다른 데로 이사 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살고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박재학 여기는 다른 단지보다 좀 전출입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문에 (왔다가). 애들이 이제 커서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고등학교는 조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 전출입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편이죠.

영통동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풍경은 '4인 가족'이다. 직업군은 삼성이나 현대에 종사하는 전자·IT계열 직장인, 공무원의 비중이 높다. 1단지에서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시작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들이 많은데, 3단지에서는 그 연장선처럼 한 가정의 인생 주기가 이어진다. 혼자 살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은 영통이라는 도시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채서연은 이야기하였다. 그가 결혼 전 시끌벅적한 곳에서 살다가 영통동에 처음 왔을 때 '유모차를 밀고 있는 어떤 아줌마'를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뇌리에 남았다고 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에 최근 1인 가구가 비중이 높아지는 도시와는 다른 영역과 지역적 특성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2) 입주 초창기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정

물론 젊은 입주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 노인회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얼마나 사셨냐?"는 질문에 한 93세 어르신은 24년간 살아왔다고 하였다. 대체로 20년 넘게 살았다는 분들이 많았다. 자녀들이 결혼해 낳은 손자 손녀들이 대학생이 된, 현재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 살았던 곳은 수원 내 다른 지역이거나 다른 지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로운 이곳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벽산삼익아파트와 신도시 생활은 편리함과 안정감을 주는 곳으로 바뀌어 갔다. 따로 분리해 살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도 좋은 곳이다. 앞다투어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신 어머님들의 말에서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현재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노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허정훈은 첫 입주인 1997년부터 거주하고 있다. 그는 동대표, 입주자대표를 거쳐 은퇴 후에도 노인회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동네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청명단오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지역문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애썼다. 허정훈의 이야기를 통해 3단지 아파트, 영통에 살아오면서 쌓아 온 삶의 흔적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입주 초창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의 분위기나 기억들, 변화한 것들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벽산삼익아파트 노인회 회원과 회장 허정훈

허정훈 그때만 해도 여기 이제 입주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영통 이쪽에 공기가 좋고 야산이 있었고 여기가 들판이 있었고 가운데 연못이 있었고 여기다가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배수가 좀 높았어. 그래가지고서 여기가 당첨됐으면 했어. 아주 다들 좋아했고 그럴 정도로 딱 입주를 했는데. 나는 지방 근무를 하다가 3년 후에 올라왔지. 여기가 점점 살면서 좋아지는 게 뭐냐면 첫째는 교통. 전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여기서 서울로 가는 버스도 그냥 한 번만 환승하면 그냥 (갈 수 있어). 그리고 일개 동에 관공서가 그렇게 많은 수가 (있어). 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방서. 우체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편집중국. 또 중소기업청, 그냥 세무서가 아니고 남부세무서. 또 전화국, 또, 등기소, 가정법원. 지금 또 수원 전체를 총괄하는 세무서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청사가 들어오는데 도서관 옆에. (중략) 지금은 이제 광교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쪽) 집값이 더 비싸지. 그래도 서울 가서도 "너 어디 사냐?" "수원 어디 사냐?" 그러면 "영통 살아." 그래. 옛날에 한참 분당 개발되어가지고 "너 어디냐?" "분당 산다." 그러면 "어유 거기 사냐."(라는 반응). 그런 식으로. 영통이 그래도 괜찮은 도시고.

2000년대부터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에 거주해 온 이경순은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고 독립한 후에도 부부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

이경순 몰랐는데 운동할 때 보니까 /단지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지대가 좀 오르막이더라고요. 시원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겨울에 조금 추워. 그런데 공기가 좋아. 우리도 처음에는 6단지를 살까 했거든요. 여기가 좋다더라고. 구조도, 이제 여기가 3베이 구조고. 옛날에는 다 2베이잖아요. 근데 여기 3베이 구조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음, 그래서 나는 또 여기 나무도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앞에서, 딱 앉으면 바로 숲속이에요. 아주 그냥.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제가 이제 산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걸 보고 사는데 공기가 진짜 너무 좋고. 여기는 노인 분들이 좀 많이 살아.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옛날에 20 몇 년 전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의 사는 거야. 원래 학생들이 더 많이 살아야 하는 곳이야, 위치로는. 학군이 좋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사를 어떻게 가겠어. 병원 다 걸어서 가고. 전철 있고 버스 있지. 차 없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사를 안 가지. 그래서 노인정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젊은 사람은 많이 살겠나.

조사자 어르신들은 또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하시던데. (웃음)

이경순 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좀 살기는 살지.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은 세를 줬으니까. 세를 줬는데 새는 누가 들겠어, 애들 다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들지.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애 공부 다 시켰으니까 사실 여기 살 이유가 없어 비싼 땅에. 나도 사실 이거를 월세를 주고 다른 데 그냥 전세로 팔까 이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와 인근 시설(김승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과 산책로

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귀찮은 거야 그게 이사하기가. 이제 교통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 나는 친구들이랑 모든 게 다 여기에다 이렇게 형성이, 여기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략) 우리도 이제 남편 정년 이후로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것 같은데 이사를, 나는 안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웃음) 먼 거리 출퇴근을 하시더라도. (중략) 나는 내가 맨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여기처럼 좋은 데는 없다." 그 정도로. 또 서울 생활권이에요. 그냥 버스가 한 방에 다 가니까 40분, 50분이면 다 가니까 서울 생활권이야. 전철 좋지 공기 좋지. 마트 다 있지. 여기가 프리미엄 아웃렛 있지, 학교도 (근방에) 경희대 있고.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운동하는 공원도.

주민들은 아파트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이제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와 영통동은 살기 가장 좋은 곳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자치활동과 지역의 민속 행사, 경제 활성화와 교류를 위한 명물 축제 같은 일로도 연결된다. 아파트 단지의 환경이 발전해 온 과정을 보면서 초창기 입주민들이 느끼고 있을 자부심이 전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3) 주변 기업과 학교에 종사하는 외국인 주민들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내 안내 현수막에는 가끔 영어로 된 것도 함께 달린다. 입주민 중에 외국인 주민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예전에 비해 그 수가 줄기는 했으나, 인접한 외국인학교의 교사 가족이나 삼성SDI 등 기업 연구원 소속·파견으로 근무하는 주재원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입주민들은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왔다, 박재학 관리소장에 따르면 2022년 10월 현재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일본, 그리고 영어권에



라디오영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2022년 10월 영통커피축제)

환경을 주제로 진행한 비정상회담 코너(서지은, 린, 김은하)이다.

서 온 입주민들이 있고, 15~20가구 정도이다. 이경순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남편의 직장 상사였던 일본 가정과의 교류를 말해 주었다.

이경순 나는 일본 분. 그분이 이제 부장으로 이제 오셨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에어컨 기술자. 근데 이제 이쪽으로 고문으로 이제 삼성에서 초빙했지. 근데 이제 남편이 일을 잘하니까 제 가이드 하고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랑이 그렇게 하고 식사도 일요일 같을 때 같이 식사했어요. 우리 집에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합격했을 때 선물도 갖고 오고. 방학 일주일간을 일본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애들을 관광도 시켜주고. 그런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생략) 우리도 자주 가고. 그분 가족 사모님도 우리 집에 오고. 이제 퇴직하신 이후에는 못 갔지.

채서연의 경우에도 후술할 마을미디어 활동인 '라디오영통'을 통해 외국인 여성 주민과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류하였다. 이분들은 외국인학교 교사이거나 남편을 따라 온 일본 분이었다.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조사자 (사진을 보며) 외국인 분도 계시네요.

채서연 지금 거기 진행하셨던 분이 지금 수지로 이사 가셨는데, 이분이 이주 여성들과 함께 방송을 만드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주 여성조차도, 앞에 있는 분은 이분은 영어 강사고. 이분은 일본인이신데, 여기에 무슨 이사분이시고,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던 분인가.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 여성, 옛날 생각하는 이주 여성(과는 달라요).

3.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주민자치와 교류

1) 입주자대표회의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민자치 활동으로는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 기존에 동대표를 했거나 입주자대표를 했던 분들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1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전히 아파트의 대표적인 주민 자치 활동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제반 사항, 주민들의 의견 전달, 아파트 내외 현안을 놓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조직은 각 동대표, 회장 1인(동대표를 겸함), 감사 2인, 총무이사, 기술이사, 건축이사, 환경이사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경순은 10여 년 전 동대표를 하며 했던 활동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경순 우리 아파트 제가 할 때는 여기 색칠(했죠). 동대표들이 엄청 열심히 일해요. 매일매일 아파트에 대해서. 뭐라 할까. 저는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따라갔는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회의를 해가지고 아파트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때 이제 페인트를 이름에도 들어가는 걸 했고. 그때 몇 억이 들어갔나. 그렇더라고요. 단지가 지금 여기가 조금 조금씩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싹 고치고. 작년인가 고쳤어요.

시간이 흘러 없어진 것 하나는 바로 '부녀회'이다. '반상회'도 옛날에는 열렸지만 현재는 없다. 2010년대 들어서는 주민 자치가 부녀회를 통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큰 사안들을 논의·운영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허정훈 옛날에는 부녀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제 동대표들이 이제 부녀회에 웬만하면 동의를 넘기고 '우리 자체에서는 그냥 그 업무가 있는 거라면 통장들이 해라' 그래서. 점점점점 부녀회가 (역할이) 줄어들고. 봉사단체였는데, 없어지고. 통장이 이제 그 임무를 거의 대신하고.

강풍희 부녀회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원래 야시장 이런 것도 부녀회에서 비용을 할 수 있고, 아파트 광고지, 이런 것도 부녀회에서 했었어요. 그렇게 기금이 모이고 해서 운영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없어졌을걸요? 야시장도 옛날에는 부녀회에서 했던 것을 최근에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측에서 했지요.

최근의 아파트 내 현안으로는 주차공간 증설, 아파트 명칭 변경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을 진행했다. 2022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강풍희에 따르면 현재 동대표는 세 동의 공석이 있지만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다. 동대표의 연령대는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지만, 11명 중에 8명이 60대 이상이다. 그는 앞으로 동대표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 노인회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자치활동 중에서, 노인회는 타 단지와 비교해도 활발하다. 조사자가 문화프로그램 참관과 인터뷰를 하러 방문했을 때, 회원들은 프로그램 시작 30분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점심식사를 준비하시는 임원들은 미리 나와서 준비한다. 그래서 계신 분들과 잠시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현재 노인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웃음치료와 생활요가(월요일), 스마트폰 교육과 노래교실(수요일)이 있다. 이것은 노인회 회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반영했고, 참여하는 회원이 시간마다 20명 이상으로 많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잠시 모이지 못하기도 했지만 평소 20명 이상은 꾸준히 참석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이 중 웃음치료 수업을 하러 온 강사에게 간단히 참관 소개를 드리자, 곧바로 기분 좋게 말씀하셨다.

이경애(웃음치료 강사) 여기 노인회장님께서는 리더십이 대단하세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세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많이 참여하세요. 원래 오늘은 안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쉬어서 보강하는 거예요. 여기 분들은 정말로 참여하시려고 하고, 변화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잘 따라하세요. 평소 출석률도 높은데, 특히 아버님들 참여율이 높아요.

노인회는 바로 옆 청명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행사, 명절 덕담과 선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벽산삼익아파트 노인회 활동 프로그램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



벽산삼익아파트 노인회 활동 프로그램인 요가와 웃음치료

물을 나누기도 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설날 세배와 세뱃돈을 주고받는 모습은 여느 가정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삭막하고 단절된 관계가 일상적인 요즘,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이 서로가 웃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 허정훈 애들도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때 인사 오고. 우리도 어린이날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고. 딱지치기, 줄넘기 이런 거, 각종 놀이를 애들하고 하는 거야. 명절 때는 다 와서 세배하면 세뱃돈 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쥐어 줘. 그리고 사탕, 과자, 떡 이런 거 사 놨다가 나가는 애 하나하나 이렇게 손에다가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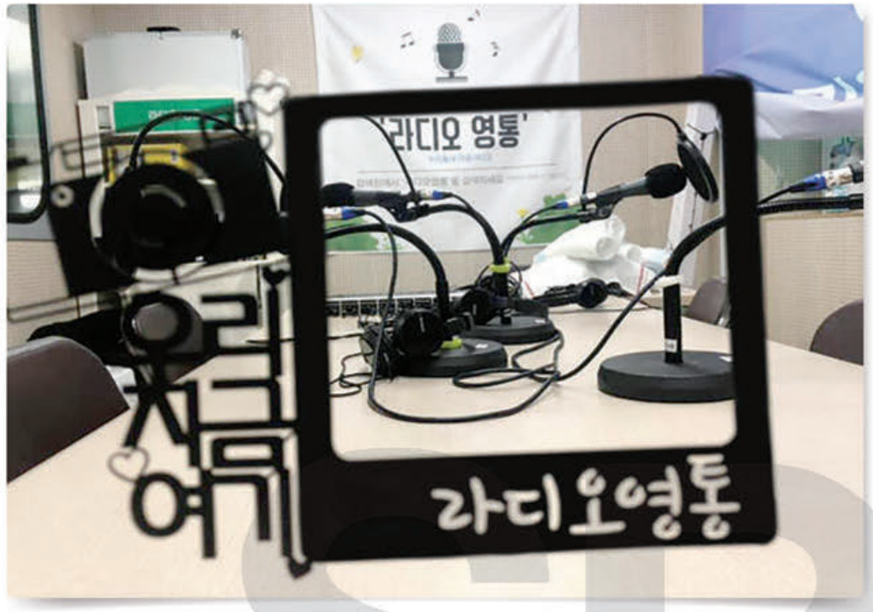
허정훈은 앞으로 노인회 운영과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회비는 회원당 4,000원이다.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한 달 3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매번 식사의 재료비로 쓰기도 빠듯하다. 회비를 더 걷는 방법도 있고, 이전에 아파트 단지 행사 등으로 은행이나 마사회 등에서 후원을 받았던 것처럼, 노인회 활동도 앞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더 편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3) 마을방송국 '라디오영통'

'라디오영통'은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수원시 마을미디어 활동이다. 원래 벽산삼익아파트 독서모임으로 소소하게 모였던 멤버들이 참여하면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맘카페에 가입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활동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대표인 채서연을 비롯한 주부들이 주 활동자이다. 당시 이 아파트 공동체 이름을 '한뼘'이라 지었는데, 여기에는 "공동체 이름처럼 삭막한 도심에서 주민들과 한 뼘씩 이어 가고 싶었던" 바람이 담겨 있다. 2017년에는 마음에 맞는 아파트 주민 15명에게 지지 차원에서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고, 때마침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주민 몇 명과 마을미디어 교육도 받았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을미디어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꿈을 키워 나갔던"[7] 것이 라디오영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활동을 이어 가다가 2019년에는 수원도시재단 주민제안공모사업(미디어분야)에 선정되면서 마을방송국으로 개국하였다. 현재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인정받아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수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제는 수원시미디어센터로 시민 대상 '팝업교육' 강좌를 나가서, 방송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라디오영통 방송국

현재 라디오영통이 활동하는 공간은 벽산삼익아파트 관리소 지하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 룸'이다. 현재는 이렇게 탈바꿈한 공간이지만, 이전에는 부녀회 공간으로 쓰던 곳이었다. 기존 모임과 행사 때 사용했던 여러 집기들이 있었지만, 부녀회 활동이 축소되면서 차차 쓰지 않게 되면서 창고처럼 되었다. 그렇게 쓰이던 곳에 주민들이 모여 영통동의 현안을 나누고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지하창고는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과 영통동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된 것이다.

이 공간의 반은 교육·놀이 공간으로, 반은 라디오 부스로 꾸며져 있다. 입주민 대상으로 취미활동 수강도 했고, 배우신 분이 다음에는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이들 그림책도 읽어 주기도 했다. 이렇게 '라디오영통'의 공간은 또 다른 모임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채서연 '영통주민모임터'(인터넷 카페)가 있고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는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치원, 초등학교 엄마들 외에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 (초·중학교 이후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아 거주 기간이 짧다는 언급) 그래서 아파트에 살다 가는데 애들한테 별 추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여기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된 거죠. (중략)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해서 '땅 속 카페' 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라디오영통 간다."라고 하지만.



라디오영통 개국식

'라디오영통' 활동은 주민들의 교류, 동네의 현안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통로가 된 그리고 여성들이 주부로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과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한데 모아 사진과 다. 간단한 디자인을 넣어서 2019~2020년에 만든 기념 책자도 있다.

채서연 직장 다녔던 엄마가 잠깐 애기 때문에 휴직하면서 라디오 방송 활동했는데 이 축제 때 친정 엄마가 와서 디제이(하는 것을 보고), 딸이 바깥에서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은 아니지만 딸이 어떤 활동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친정 엄마랑 통화할 일이 보통 잘 지내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라디오 녹음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링크를 톡방에다. 그러면, 친정엄마는 딸의 전혀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감동 포인트예요.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라디오 영통의 '보이는 라디오'

채서연은 코로나로 라디오영통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곳을 추억하는 글과 그림을 엮어 『청명로 132』라는 책자를 내기도 했다. 책에 들어가는 그림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그린 것들이다. '우리 동네 풍경 이야기', '우리 동네 라디오영통 이야기', '우리 동네 일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 작성한 라디오 대본을 넣기도 했다. 한편 라디오영통은 유튜브 영상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아파트 공간, 영흥공원을 촬영하여 나름의 생각들을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영통커피축제가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로 모이는 라디오영통 팀원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10월 22일 제7회 영통커피축제가 열린 반달공원을 찾았다. 올해는 제로웨이스트(zero-weist)를 알리며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로 개최되었다. 코로나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 행사였고, 날씨가 좋은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렸다. 라디오에서 사연을 읽어 주고 음악을 틀어 주어 축제의 분위기가 더 살아났다. 축제를 공동 주관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도 스텝으로 함께하였다. 특히 경품 추첨과 퀴즈를 풀 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주민들이 몰려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오랜만에 모여 코너를 진행하는 라디오영통 멤버들은 분주하지만 에



라디오영통
기념 책자

너지가 넘쳤다. 채서연은 라디오영통 활동이 갖는 가장 큰 의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 채서연 애정을 가지려고, 이런 활동을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애정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라디오 대본도 쓰고 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다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중에 녹음을 하고 나면, 좀 더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나 개인의 기록이 되는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나의 역사를 내가 쓴다.

이렇듯 영통 주민들의 모임이 활발하고 활동이 많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자, 허정훈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젊고" "삼성전자나 SK 등 직장인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고, 생각하는 차원이 높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주었다.

4.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현안과 전망

1) 주차공간 추가 확보

아파트 평수에 따라 주차대수가 정해지는 만큼 3단지아파트에서는 가구당 1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주차공간 추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 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구 테니스장



현 주차장

지가 오래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이런 민원을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테니스장 하나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강풍희 주차공간을 위해서 이번에 테니스장을, 두 개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주차장으로 바꾸게 됐어요. 승인이 나서 이제 공사 들어가요.

조사자 테니스 회원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강풍희 사실 그게, 물론 그분들은 반기지는 않으셨지. 그런데 아무래도 주차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공사 후, 326동 테니스장이 주차장으로 바뀐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깨끗하게 주차공간이 만들어졌고 30대 정도가 더 주차할 수 있게 되었다.

2) 영덕초등학교 증축과 영흥푸르지오·영흥숲공원 건립

영덕초등학교는 신도시 형성 이후로 '콩나물 교실'이라 불리며 과밀 학급을 계속 유지해 왔다. 1998년에는 4·5층 증축, 2008년에는 급식소와 창고 등을 더 마련하는 등 두 번의 증축공사를 거쳤다. 그러다 2022년 들어 영흥공원 건너 원천동에 '영흥대우푸르지오'(1,509세대)가 준공, 해당 입주 예정자들이 영덕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증축 비용 일부를 투자하면서 공사에 들어갔다.

3단지 학부모들은 계속 교실이 부족해 공부 환경이 열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서명을 내고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증축은 그대로 진행되어 교실 10개, 특별실 8개, 체육관과 급식실, 연구실 2개 등을 준공하기 위한 3차 공사가 시작되었다. 운동장의 반 정도의 면적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공사는 2023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영덕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영흥숲공원의 경우 본래 습지와 숲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고 야트막한 동산이 어우러진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아파트 신설 및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새롭게 정비를 거쳐 2022년 10월에 재개장하였다.

공원 근방의 도로가 재정비되고 넓어지는 한편, 공원 자체도 접근성이 좋게 변화하였다. 이로서 편리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살아있는 자연체험장이었던 환경이 사라지고 어디에나 있는 공원이 된 것 같아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공사 중인 영덕초등학교



영흥숲공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3)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관련 주민들의 의견

영통도서관 뒤편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쓰레기 처리 시설로서 2000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3단지와 인접해 있다. 이곳은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22년 9월 말 공론화를 거쳐 이전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대체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청명벽산아파트 내에서 이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아파트 베란다에 '소각장 OUT'라고 작은 현수막을 걸어놓은 집들이 몇 보인다.



소각장 OUT 현수막

소각장에 대해 주민들의 견해는 조금 다른 편이다. 젊은 층의 경우는 "소각장의 존재 여부도 몰랐다."면서 소각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 알고자 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채서연은 2020년에 라디오영통에서 처음 소각장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을 유튜브 채널로 알리게 되면서, 한 주민의 1인 시위가 시작되고 영통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대체로 소각장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는 반응이다.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지내 왔기 때문에 아파트의 환경이나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더 발전시키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4) 영통에듀파크 명칭 변경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는 새로운 변화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는 아파트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1단지 황골마을 주공아파트가 '황골빌리지'로 이름을 변경하자, 3단지에서도 아파트 이미지를 살려 이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명칭 변경 제안이 나왔다. 2022년 8월과 9월에 두 번의 전자 투표를 진행하였다. 명칭 변경이 통과되려면 단지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2년 11월 현재 투표는 진행 중이다.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명칭 변경 찬반투표 안내 현수막

강풍희 (이름을 바꾸자는) 아이디어는 제가 제안했어요. 20년 넘게 같은 이름을 잘 쓰는데 왜 바꾸려고 하냐고 듣고 있기도 해요.

조사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명칭 변경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강풍희 아파트 명칭은 주위 환경하고 매치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삼익건설 없어졌어요. 벽산건설도. 이제 없는 건설회사 브랜드를 왜 써야 해요? 경영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여기 주위에 교육 얼마나 좋아, '에듀', '파크'도 바로 옆이고. 이제 잘 어울리는 걸로 바꾸면 우리 아파트가 좀 필 수가 있죠. 이 가치가 더 올라와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박재학 투표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조사자 보니까 좀 의견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지난번 주민 분들 뵈면서 생각이 든 게 젊은 분들은 찬성을 한다는 의견이 있고 노인 분들은 대체로 반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재학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는 생각이 있고, 없어도 있는 대로 살자는 생각도 (있으니까.)

3단지를 아파트를 둘러싼 내부적·외부적 현안들은 주변 학군의 지위와 외부 신설 아파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다. 또다시 새로워질 학교의 풍경, 이미 새 단장을 마친 공원, 그리고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아파트의 미래를 점칠 새로운 네이밍까지 생각하다 보면 무언가 벅차게도 느껴진다. 하지만 이웃이 금세 바뀌면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기존의 사람들이 계속 어울려 살아왔기에, 3단지 주민들이 모색해야 할 방향성은 결국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통에듀파크 명칭이 붙은 단지 안내도

3단지 아파트를 몇 번씩 오고 가는 동안 필자는 어느 새 이 동네와 친밀감이 쌓여 있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소위 '오래된 신도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기에, 아파트 동네의 일상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공감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25년이 넘게 사람들이 살아온 집이었고, 자녀들의 가장 치열한 시기를 보냈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사람들의 역할이 지속되는 곳이 영통지구 아파트가 아닌가 한다.

주

1. 수원시, 2019,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0쪽.
2.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영통,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51쪽 및 53쪽.
3. 본래 파고라란 돌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따위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서양식 정자나 길. 장식과 차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규범 표기는 '퍼걸러'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4. 라디오영통, 2021, 『청명로 132』, 3쪽.
5. 'Mom's Station'이라는 신조어로, "엄마가 아이의 통학버스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부르는 말이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 이러한 표기가 많다. 영어이기도 하고 꼭 엄마만 아이를 바래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승하차장'으로 명칭을 바꾸기를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안받기도 했다.(「[우리말 바루기] '맘스스테이션'은 '어린이승하차장'으로」, 『중앙일보』 2019년 7월 1일)
6. 라디오영통(서혜진, 아파트의 위로가 되는 공간), 2021, 『청명로 132』, 1~2쪽.
7. 「전국 최초 아파트 속 마을방송국, '라디오영통' '201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에서 영상부분 최우수상 받아」, 『e수원뉴스』 2019년 12월 24일.(https://news.suwon.go.kr/?p=40&viewMode=view&reqIdx=201912230613432323)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3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설명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1.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입지와 살기 좋은 주변 환경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수원시 동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주택단지인 영통지구에 위치한다. 살구골이라는 이름에서 유추 가능하듯이 988번지에서 989번지 일대에 있었던 마을로 살구나무가 많아서 살구골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영통지구의 남동쪽에 있는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영통구 매영로 366에 위치한다. 아파트는 대형 쇼핑몰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근접해 있고 단지 주변에는 살구골공원, 풀잎어린이공원, 영통중앙공원, 영흥공원 등이 위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특징적이다.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1998년 준공되었다. 아파트 단지는 721동에서 730동까지 10동이며, 총 612세대가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간다. 평수는 37평, 50평, 62평의 중대형으로 1인보다는 가족 단위의 생활이 주를 이룬다. 2022년 현재 25년차에 접어든 아파트이지만 유지보수 등의 관리가 매우 잘 이루어져 쾌적한 환경과 시설을 자랑한다. 준공 당시 아파트는 최고의 아파트 기술로 설계되어 살구골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준공 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낡은 문구가 아니다.

살구골 현대아파트가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아파트의 위치와 근린 환경도 한몫을 차지한다. 특히 주민들은 서울역과 강남 등의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뛰어난 것과 10분 정도 거리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수원신갈IC가 있다는 것을 큰 편리함으로 꼽는다. 이수진(가명) 동대표는 아파트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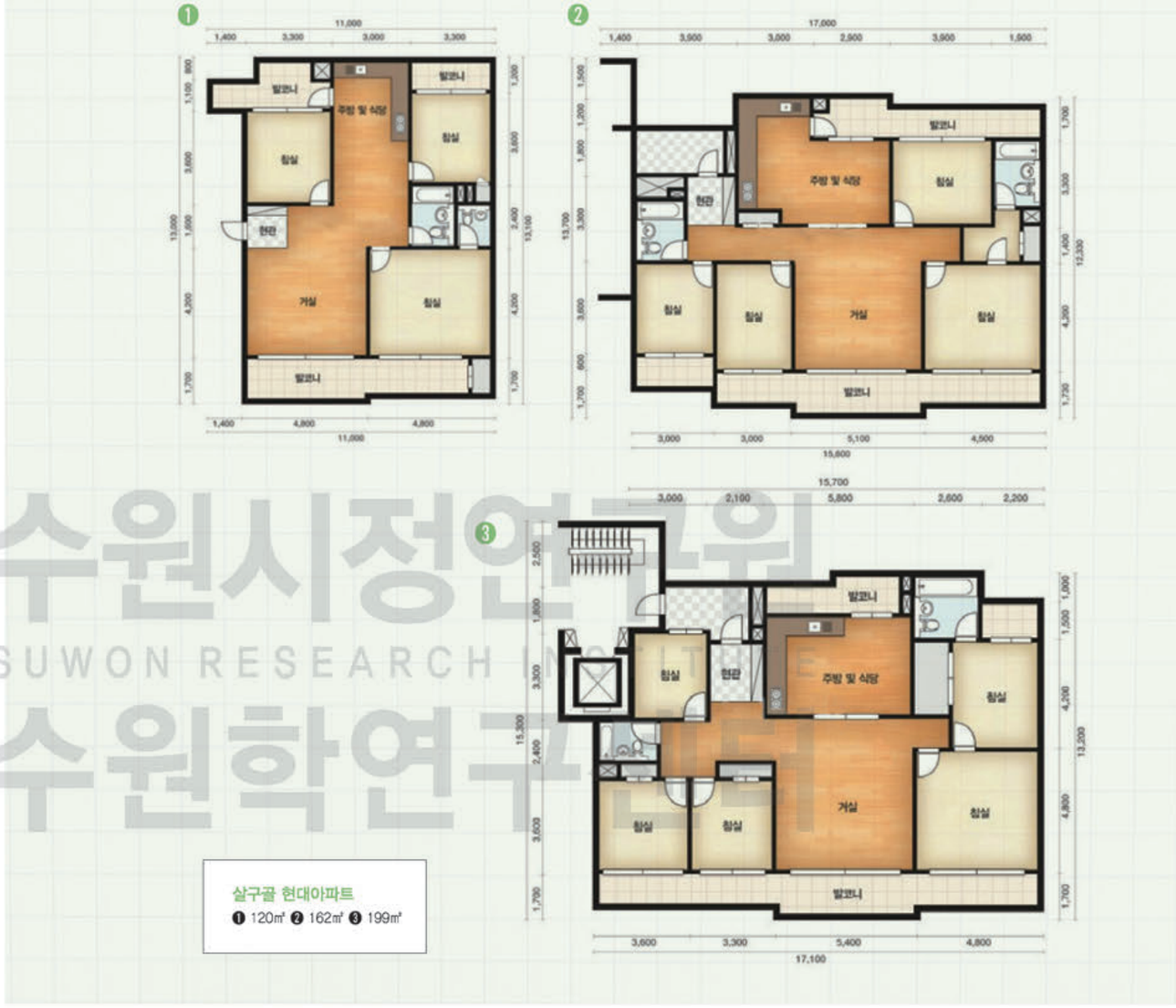


살구골 현대아파트 분양 광고

교통편이 얼마나 편리한지 설명하면서 특히 서울 진입이 용이함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 영통역 지하철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권 진입도 용이하고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많다. 광역버스를 타면 살구골 현대아파트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데 10분 내로 짧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낮에 교통체증이 없으면 40~50분 정도로 가능하고 명동이나 서울역으로 가는 직행도 있다. 이러한 서울 접근성은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권에서 일을 보면서도 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 전 회장 이재춘도 살구골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큰 장점 가운데 하나로 서울로의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함을 꼽았다.

마찬가지로 심재수 노인회 회장은 현대아파트가 분양되던 1998년 당시 입주해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주민이다. 심재수 노인회 회장도 아파트의 교통을 큰 장점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1998년에 매탄동에 살다가 영통이 수원의 명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 교통을 포함해 모든 것이 더욱 발전하겠다는 판단으로 이곳으로 입주했다며 당시를 소회하였다. 입주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의 경관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분당선이 생기면서 이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주민들이 후회하기도 할 정도로 현재는 교통이 어느 곳보다 편리하다.

이처럼 살구골 현대아파트가 살기 좋은 공간으로 꼽히는 것은 교통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접한 공원도 한몫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원에 차량이 통제되며 단지에서 바로 연결되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 아파트와 맞닿은 공원의 장점은 이수진 동대표도 크게 공감한다. 자신이 여기 살면서 가장 좋은 장소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중 하나가 바로 옆에 위치한 살구꽃공원이라 말한다. 살구꽃공원은 나무가 매우 울창하여 여름에도 시원한 곳이다. 처음 이수진 동대표가 이사 와서 얼마 되지 않아 2014~2015년 메르스사태가 있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를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2주씩 학교를 못 갔지만 그동안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원에 갔다고 회고했다.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싸서 먹이고, 유치원생 초등학생인 아

살구골 현대아파트 전경(김승일 제공)





현대아파트 인근 영통역 출구



현대아파트 인근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장

이들은 거기서 공을 차고 즐겁게 놀았다. 그리고 아파트 근처의 롯데마트 뒤에는 독침산이 있다. 그곳은 수원의 둘레길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다. 그 둘레길까지 가지 않더라고 독침산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기분 좋은 운동과 휴식이 된다. 작은 산을 한 바퀴 돌면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린다. 동네에 있는 작은 산이지만 들어가면 깊은 산 같은 느낌이 들어 좋다는 이수진 동대표의 소감은 아파트 주변의 공원이나 산과 같은 자연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파트 근처에 자연이나 생태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너무 힘들지 않게 산책이 가능한 산은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바로 앞으로 사회복지센터가 있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댄스 수업도 있고 수영장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스마트 구센터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아파트 인근 살구골공원 산책로

김현순(관리소장) 자녀가 어릴 때 이사 와서 이제 다 키운 50~60대 되신 분들도 (이사를) 안 나가세요. 다른 곳은 공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단지는 앞에 살구골공원이 있고 옆에 풀잎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두 공원이 이쪽(아파트)으로 다 연결이 돼서 영통을 쭉 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또 공원에는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고 운동 헬스기구가 있고 정자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애들이 다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편, 쾌적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큰 장점을 가진 곳이다. 이수진 동대표는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대치동에서 살았다. 결혼을 하면서 용산으로 이사와 살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수원으로 오게 되었다. 이수진 동대표는 서울 생활에 만족했지만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서 아이 둘을 키우기에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처음 수원에 왔을 때는 서울 출신인 남편도 친구들을 만날 때 계속 서울로 다니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고 아이들 다 키우면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굳이 서울로 돌아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용산에서 오래 살았던 이수진 동대표는 처음 집을 팔고 현대아파트를 사서 들어왔다. 그러나 이후 용산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큰 변화가 없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 면에서 서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수진 동대표는 주거만족도가 높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도 제공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 물론 아파트 주변의 학원들을 서울 대치동에 비할 수는 없지만 대형 브랜드학원에서부터 보습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선택 폭이 넓고 교육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좋고 부담도 적다.



잘 정비된 가로수와 현대아파트 내 메인 도로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본 주민들은 살구골 현대아파트 생활에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모두 아파트에 근접한 편리한 교통과 공원이 아파트 내에서 연결되며, 아파트 근거리에서 쇼핑이 가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처럼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잘 충족시키면서 주민들을 만족시킨다.

2.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민 구성과 활동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1998년 분양 이후 2022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는 초기 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아파트 거주민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다가 최근 2~3년 전부터는 초·중등학교 자녀를 둔 40~50대의 연령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살구골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3년 전에 유입 인구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김현순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연령층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젊은 1970년대 생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많은 경우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부들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혹은

SRI 수원시정연구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현대아파트 내 조경



현대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상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았다. 또한 보통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 나이가 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다시 들어와 부모와 함께 사는 사례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의 특별한 광경 가운데 하나는 휴일이나 명절이 되면 오히려 매우 북적이는 곳이기도 하다. 또 다른 주민 구성의 특징은 다른 아파트와 달리 살구골 현대아파트에는 동별로 각각의 다른 전문직군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김현순(관리소장) OO동에는 의사 분들이 다 사세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앞에 있는 OO동은 교수 분들이 또 많이 사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사를 안 가시고 계속 사시고 잠깐 아이들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데 보낼 때는 잠깐 집을 비워 놓고 다른 곳에서 한 2년 정도 거주하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 동탄이나 광교 등 인근 지역에 분양을 받아 놓고 자녀분들이 거기 살고 부모님은 그냥 여기 살다가 또 잠시 바꿔서 살다가 그런 경우도 보고 그랬어요.

이처럼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이후 계속해서 거주하는 세대 비율이 높고 또 최근 젊은 세대의 유입이 급격히 늘었다는 사실은 살구골 현대아파트가 갖는 여러 장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의 유입은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변에 좋은 학군과 학원가 등의 교육 시설이 매우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다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아파트 구성원의 연령대가 젊어지는 주요 원인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한 예로 서울에서 살다가 2014년부터 현대 아파트로 이사 온 한 주민은 큰아이가 중학교 갈 때가 되자 학교를 알아보다가 영일중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것을 알고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학업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학교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적은 편이라고 만족을 보였다. 게다가 대형 브랜드 학원들을 포함해 작은 보습학원들이 아파트 근처 상가에 모여 있어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어 편리하고 이동에 버리는 시간이 없어 좋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지적 장점으로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40~50대의 젊은 세대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와 같은 주민 구성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8명의 대표가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단체 카톡방을 통해 평소에도 필요한 아파트 관련 사안들을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이 같은 방식은 대표들이 현안을 더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현대아파트와 영통동 중심상가(김승일 제공)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와 광고(설명희 촬영)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입대의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회의실에 모여 이런저런 현안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 현재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 중인 이수진(가명)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했다. 이수진 동대표는 작년 8월 달부터 동대표 일을 맡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통 셋째 주 월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준비한다. 모임은 보통 7시에 시작해 한 시간 이내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제 시간에 끝난 적은 없고 보통 1시간 30분이나 길게는 2시간까지도 걸릴 만큼 열의가 대단하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이수진 동대표는 아파트 살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전 세대가 납부하는 장기 수선충당금의 이용 체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모래를 한 번씩 갈아 낸다든지 아스팔트는 언제 깔고 도로 포장은 언제하고 이런 것들을 연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 알게 되었다. 이수진 동대표는 자신이 이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파트 시설은 늘 있었던 것이기에 특별히 인식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 일을 통해 그것들이 몇 년에 걸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수진 동대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또 다른 예로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당시를 소개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각 경비실 앞에 알리고 스티커를 붙여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색과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경비실에서 배포한 명단에 자신의 동과 호에 서명을 하고 스티커를 받아서 디자인을 선택했다. 이수진 동대표는 "저희 집은 막내가 그 담당이 됐거든요. 막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투표하고 왔어요."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면서 아파트 유지와 보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지하주차장을 도색할 때는 아파트 주민이 직접 디자인한 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들은 시설물 교체 등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기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 회의를 통해 아파트의 문제를 나누고 해결한다. 각자의 일상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아파트의 현안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입대의 구성원들은 특별히 해외 출장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다른 어떤 일보다 입대의 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간단한 현안 처리에서부터 장기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전반의 일처리를 다룬다. 회의 참석률이 높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회의의 진행이 순조롭다. 필요한 수리 사항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진행방식을 결정하며 5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이수진 동대표는 이처럼 입대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파트 운영과 관리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고 아파트 단지 내의 건물과 환경 등에 훨씬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오고가면서 지금 어디가 부실한 거 같다는 것이 포착되면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려 준다. 그러다 보니 입대의 활동 전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아파트를 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활동 중인 입대의 8명의 연령대가 40~50대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입대의 활동에만 전념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현순(관리소장) 입대의가 (40~50대)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저한테 좀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업무에 대한 의결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 안건이 많아지는 거죠. 주로 카톡을 이용해서 의견을 좀 받는 편이기는 하고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안건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막 딴지 거는 이런 분들은 없으시고 아파트에 애정을 갖는 게 느껴져요.

한편, 현대아파트의 동대표의 선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

하면 희망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대부분 바쁜 생활로 희망자가 쉽게 나서지는 않는 어려움도 있다.

> 이수진(동대표) 아파트에 공지가 붙어요. 밴드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전에 아파트 /층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했는데, 보통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다들 생활이 바쁘시니까, 전 오며 가며 관리소장님이랑 친분을 쌓다 보니까 관리소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됐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죠.

아파트 주민들은 바쁜 일상 탓에 선뜻 입주자대표에 지원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단 입주자대표로 선출되면 매우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활동하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계획이나 결정들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나 사업에 대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만족한다. 이것은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에는 주민안전대책위원회도 있다. 이후 아파트 현안과 관련해 더 언급하겠지만, 현재 아파트 현안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인동선 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아파트의 피해 및 대책 마련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주민안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도 이것을 공유하고 협력한다. 이수진 동대표는 주민안전대책회의 내 의사결정이 매우 민주적이라며 만족해한다. 주민안전대책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의견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주민안전대책회의가 오늘의 회의 안건이나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면 입대의 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자연스럽게 의견이 수렴되다 보니 그 실행력은 높아지게 된다. 최근의 아파트 현안 가운데 주요 이슈인 지하철 관련 문제의 경우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면서 연대할 수 있었다. 의견 수렴이 적극적인 가운데 운영방식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집단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건의함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2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건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올리는 규정이 있다. 500세대 이하는 10가구가 제안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살구골 현대아파트에서는 한 사람이 제안한 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김현순(관리소장) 이번 안건에서 한 주민 제안이 이렇게 카톡으로 온 거예요. 홈플러스 쪽 횡단보도가 좀 위험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보내 주신 것을 회의에서 제가 주민 안건으로 올려요. 그러면 입대의에서 어쩌됐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해요.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한 주민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지나쳐 버리지 않고 경청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그 건의가 처리가 안 된 이후 다른 주민으로부터 동일한 건의가 다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 주민에게 그 논의가 왜 부결되었는지 정확하게 전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경청하려는 노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건의가 들어오면 김현순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활동이 원활하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과 활동으로 주민들은 서로가 좋은 이웃으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아파트 생활을 만들어 간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중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체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주민들 간에 협의로 끝나기 때문에 더 확장되지는 않는다.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신뢰하고 또 그만큼 관리사무소도 열의를 다함으로써 물리적인 편리함뿐만 아니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3.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살구골 현대아파트 단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있다. 커뮤니티 활동이 처음부터 활발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주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은 요가나 줌바 그리고 탁구장 같은 시설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자 주부들은 몇 명씩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 바둑, 줌바 등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넓은 지하 공간에는 탁구대 3대와 탁구채도 구비되어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주민전용 테니스장이 마련되어 있어 야간에도 테니스가 가능하다. 김현순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보하니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좋다.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체육 공간



현대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SRI 수원세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김현순(관리소장) 요가나 줌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탁구장 같은 거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주부들이 몇 명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아파트 관리소 내 다목적 공간)에서 바둑도 한 번씩 하시고 줌바는 여기 아래층 지하에 있어요(웃음). 지하의 홀이 엄청 넓어요. 지하 건물의 반은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줌바와 요가방으로 만들어져있고 반은 탁구장으로 해서 탁구대가 3개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옆에 주민 전용 테니스장이 있어요. 요즘 아마 아파트에 테니스장이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수진 동대표는 살구골 현대 아파트가 1998년 준공되어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 전한다. 현재 다양한 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지하 시설은 원래 골프 연습장이 있었다. 그러다 골프 연습장이 나가게 되었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체육 공간이 탄생하였다. 주민들이 오고 가며 잠깐씩 들러 탁구를 치기도 하고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다. 줌바와 요가 강의는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수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를 섭외한다. 보통 다른 곳으로 운동을 가려면 옷을 챙기고 화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단지 내 강의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자칫 방치되기 쉬운 지하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세심한 배려와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더욱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4. 노인회와 어르신들의 생활

현재 총 2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노인회 활동을 하신다. 심재수 노인회 회장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현재 행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특히 노인들은 코로나에 취약점이 많아 현재 봉사 활동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실시하고 아파트 근처의 공원 쓰레기 줍는 정도로 활동 중이다. 그래도 평소 단지 내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

김현순(관리소장) 경로당에 어르신들 중에 활동을 원활하게 하시는 좀 젊은 어르신이 있고 밤에 좀 많이 누워계시는 분들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들 있어 방이 2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편의공간인 '현대사랑채'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경로당 간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한 번씩 식사는 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인가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구청 지원금이 있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한 달에 15만 원씩 지원을 해드려요.

한편, 2년 전 어르신들의 더 즐거운 아파트 생활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어버이날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단지 내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남녀 각각 한 분씩 찾아 케이크나 꽃을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관리소에서 조사한 결과 89세 어르신이 최고령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9세인 분이 부부이며 연세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부가 나란히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는 더욱 특별한 행사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70세가 넘는 고령의 어르신들 가구를 파악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자녀들 연락처 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김현순 관리소장은 작은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어르신 부부를 언급했다. 할머니는 키가 크고 통통한 편이신데 할아버지는 작은 체구였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항상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며 지극 정성으로 보살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데리고 공원을 다니고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데리고 다니셨다. 할머니는 치매가 있어 화단에 심어 놓은 것들을 자꾸 뽑아 가셨는데 김현순 관리소장이 그걸 가져다 드리니 너무 좋아하셨다고 한다. 김현순 관리소장은 아직도 그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소개하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이사를 가시고 더 이상 노부부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같이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한편, 심재수 노인회 회장은 살구골 현대아파트가 1998년 준공된 당시에 입주해서 2022년 현재까지 25년 동안 거주 중이다. 심재수 회장은 살구골 현대아파트와 함께했던 자신의 인생 궤적을 소개하였다. 1998년 영통 택지개발이 이루지고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온 심재수 회장은 처음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를 전해 주었는데, 지금 광교가 뜨듯이 당시에는 영통지구가 뜨고 있어서 매탄동에 살다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교통의 요지가 되고 분당선 전철이 생기면서 더욱 그 가치가 올라갔고 점점 더 살기 편리한 아파트가 되었다. 그는 입대의 임기가 2년인데 2년씩 다섯 번을 하고 영통지역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회장을 그리고 수원시 입주자대표협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코로나가 점점 약화되는 분위기에서 노인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지하철 출구와 환풍기 위치 변경 요구 현수막

5. 아파트 현안과 앞으로의 전망

현재 아파트에서 가장 큰 현안은 지하철 관련 사항이다. 2026년 완공 예정인 인동선(인덕원-동탄)의 지하철 출입구와 환풍구가 정문 앞에 건설될 계획이다. 지하철의 출입구와 환기시설이 아파트 바로 앞으로 설치되면 여러 문제와 불편함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출구의 위치를 공원 쪽으로 조금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지하철 문제는 2년 전부터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는 공사가 들어가거나 가시적인 것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아서 본격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공사는 2022년 2월부터 진행이 되었고 그때부터 공사의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복잡한 정문으로 출구와 환풍기가 생길 예정인데 정문은 이미 복잡하고 통행량이 많다. 그런데 출구가 정문 앞쪽으로 많이 올라오게 설계되면서 그에 따른 인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현재 아파트 앞쪽의 녹지 공간이 많이 깎이게 된다. 그렇게 되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 지하철 출구로 인해 거의 반 정도의 녹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에도 복잡한 정문 공간과 많은 녹지를 깎아 가면서 설계하는 것보다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주민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김현순(관리소장) 인동선 때문에 만든 거죠. 인동선에 관련된 그것들을 주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 50명 정도 구성되었어요.

조사자 집회가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김현순(관리소장) 엄청 많이 했죠.

조사자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김현순(관리소장) 지금은 현재(2022년 8월)는 소강상태죠. 7~8월에 소강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중순부터인가 그때부터는 거의 날마다 했어요.

이처럼 50여 명의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토론을 거쳤다. 대책위의 회의가 끝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련된 서류를 만들거나 공문을 보낼 때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논의된 내용이나 민원 내용을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법적인 것이 관여되다 보니 공문을 만드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어서 자문을 받기도 했다. 자문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 관련 전문 상담이 가능한 아파트 주민들의 도움으로 훨씬 수월하게 공문 등의 서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집회를 할 때도 피켓이나 현수막 문구 등 필요한 부분들도 아파트 주민들이 도움을 주었다. 관리사무소는 집회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집회 가능 선을 안내하고 안전하게 집회가 진행되도록 도왔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현수막과 문구를 만들고 제작해서 집회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현수막을 만들어 각 세대의 창문에 부착했다. 현수막은 자율적으로 붙였는데 창문 외부에 부착이 쉽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설치를 도왔다. 그렇게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되었고 무더운 여름 날씨인 8월 현재에는 소강상태에 있다. 집회 초기에 주민들은 거의 매일 집회에 참여하면서 아파트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갔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 중인 이수진 동대표는 이 현안의 대응 과정과 방식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두드러짐을 꼽는다.

이수진(동대표) 일단은 사실 저는 동대표이고 입대의는 아파트 전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라 지하철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다 일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희망하시는 주민 분들이 모여서 주민안전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관여를 해주시고 있고요. 처음에 사업주체에서 얘기한 아파트와 관련한 환풍구 위치라든지 지하철 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시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검토 중이고 그러다 보면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아 약간 열려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고 현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 정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다. 관심이 매우 높은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들도 있어 아파트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하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 밴드에 공지를 올렸다. 밴드에는 아파트에 있는 현안이 공유가 되었고 주민들은 대응 방식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달았다. 그 댓글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안전대책위원회(비대위)가 탄생했고 그러다 보니 지원자들이 많았다. 주민들은 지하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구와 환풍기 시설이 바로 정문 앞에 설치되었을 때 안전과 환경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은 자율적인 참여와 민주적으로 열린 방식을 통해 모든 주민과 소통하면서 빛을 발했다. 이런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5월부터 거의 매일 많은 주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아파트 소장에 따르면 초기에는 한 1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매일 참석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매일 모든 주민들이 나올 수는 없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 가기 위해 주민들은 한 번에 다섯 동씩 함께했다가 다음에는 37평과 50평대 주민들이 함께하기도 했다. 그런데 37평형은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주 나오기가 어려워 50평형에 있는 두 동을 함께 묶어 집회를 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갔다. 집회를 진행하면서 아파트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동의 이웃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 친밀감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현안을 함께 헤쳐가려는 노력 속에 주민들은 서로 유대감을 쌓으며 즐겁게 시위를 이어 갔다. 아파트 현안을 함께 풀어 가는 노력 속에서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졌다. 자연스레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음료수를 사거나 현금을 내기도 했다며 김현순 관리소장은 그때를 회상하였다.

이수진(동대표)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 사 놓고 이제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음료수를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가 받을 수는 없고 총무님 계좌로 하나 개인 계좌로 만들

SRI 수원세상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인동선 지하철 출입구와 환풍기 공사

었어요. 원래는 주민안전대책위원회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총무님 계좌로 해서 돈을 받다 보니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내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민안전위원회에서도 그 돈을 막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종시에도 집회를 가고 서울로도 집회를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대절할 때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쓰는 거죠. 주민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면 안 쓰고 남은 돈은 쓴 거를 빼고 내가 낸 거 대비 비율 적용해서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만나도 먹는 것도 개인 비용으로 쓰세요. 그 돈을 안 써요. 그렇게 쓰라고 주셨는데 안 써요.

지하철 문제에 대응하면서 주민안전대책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회를 응원하기 위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모두를 위해 나온 일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안이 처리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후에 잡음이 생길까 하여 처음부터 비용 처리를 비롯해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민들 간의 신뢰를 높이면서 집회는 또 다른 화합의 장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문제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방식,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을 모두 중요한 가치로 두었다. 그렇다 보니 비대위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현안 전반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지하철 확장 공사가 국가사업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사계획이 수정될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수진(동대표) 시나 철도공사에서 좋은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돈이다 보니까 그게 다들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바꾸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결정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어 있어서 법으로 뭐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기준치를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본인들도 이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방음벽도 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편, 아파트 주민들은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당국이 좀 더 깊게 고민해 보길 바라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고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규정'이라는 최소한의 안내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 출입구와 여러 개의 환풍구로 인해 생길 파장이 어떨지 한 번 더 생각해 주기를 원한다. 게다가 국가 기반시설인 지하철 공사는 대도시의 기반이자 10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주요 사업이다.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시설을 디자인 하면서 그것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일상에 정책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히 살펴보길 바라는 것이다. 즉 딱딱한 관리의 측면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재춘 전 회장은 이번 현안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인상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20년 넘게 살구골 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금처럼 반발한다거나 시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었다.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확장인 인동선 개통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주민들은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다시 집회가 계속될 수도 있고,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되면 서로 협의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살구골 현대아파트 전경

이재춘(전 회장) 의견 반영에 따라 앞으로 또 집회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잘 진행되면 서로 협의해가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 분들은 대체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뭘 얻기 위해 이 투쟁을 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좀 지나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좀 정상적으로 돌리라고 하는 정도지 심하게는 안 하시죠.

이처럼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철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하면서 유대와 신뢰를 쌓고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손을 잡고 고민하고 노력한 경험은 귀한 자산이 되어 살구골 현대아파트에서 삶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끝으로, 1998년 준공된 영통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현재 세대의 편중 없이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여 주요 고속도로나 서울로 연결이 매우 수월하다. 고속도로 IC가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광역버스와 지하철도 바로 연결된다. 아파트에서 연결되는 공원은 아파트 모든 주민들에게 바쁜 일상의 휴식과 여유를 제공한다. 쇼핑, 병원, 은행 등의 편의시설도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게다가 아파트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과 활기를 더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체적 모임을 통해 줌바, 요가, 탁구, 테니스 등을 개설하고 건강도 증진하며 이웃들과 친밀감도 쌓아가고 있다. 노인회의 활동은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지만 쓰레기 줍기 등의 꾸준한 자원봉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와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현재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현안이 있다. 하지만 인터뷰한 주민들은 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과 신뢰가 높아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얻는 주변의 새 지역의 새 아파트에 비하면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30%가 넘는 주민이 입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고 최근에는 젊은 층의 유입이 급격히 늘었다. 이처럼 2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아파트의 인기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화합이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생활과 주거문화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역 상업지역의 공간과 문화

Ⅳ

01 영통역 상업지역의 공간구조
02 영통역 중심상권의 형성과 변화
03 영통동 학원가의 형성과 운영
04 영통동 대학가와 지역사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영통역 상업지역의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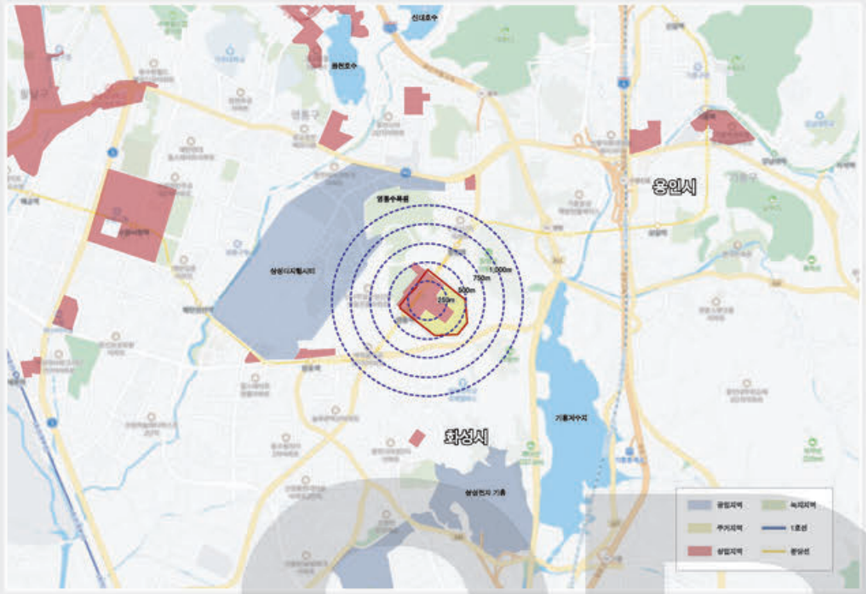
김용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차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영통역 상업지역의 입지

수원시 영통지구 중심상업지역은 간선도로(봉영로)와 지하철 분당선(영통역 및 청명역)을 중심으로 광역·대중교통체계가 발달된 지역이다. 영통역은 현재 인동선(인덕원–동탄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광역 교통여건이 향상되어 영통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영통동 중심상가는 풍부한 주거 및 공업 수요가 있으나, 주변 상권(수원역·인계동 상권·광교 상권 등)의 발달로 수요자가 분산되면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영통역 상업지역은 황골마을(1·2단지), 청명마을(3·4단지), 신나무실(5·6단지), 살구골(7단지), 벽적골(8·9단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대규모 주거지역을 배후 수요로 조성된 중심상권이다. 영통역 중심상업지역에는 판매시설(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공공업무시설(동수원세무서, 수원우편집중국, 중소벤처기업청, 행정복지센터 등), 주거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등) 등이 집적되어 영통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녀광장 정비를 통하여 구름광장–반달공원까지 보행로를 연결하는 등 보행친화상권으로 조성이 추진되었으나, 유흥시설과 교육시설(중학교, 학원)이 복합적으로 산재하여 있어, 영통 일대 많은 유동인구와 함께 쓰레기, 불법주정차, 불법입간판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영통역 상업지역의 광역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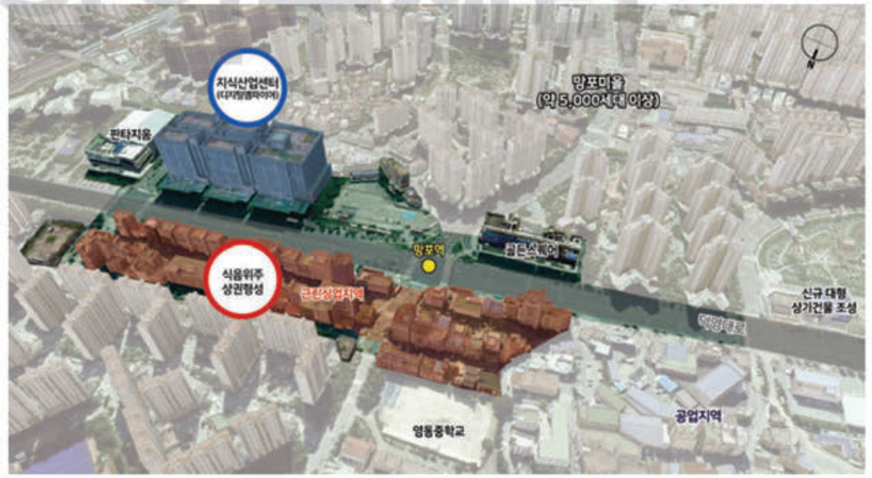


영통역 상업지역 주변 현황

<표 1> 영통역 상업지역 배후단지 현황

배후단지	세대수	배후단지	세대수
황골마을 1·2단지	7,071세대	살구골 7단지	1,866세대
청명마을 3·4단지	3,311세대	벽적골 8·9단지	6,527세대
신나무실 5·6단지	5,780세대	계	24,555세대

영통역 상권과 함께 망포역 일대에는 병원, 학원, 식음 위주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덕영대로 변으로 대규모 업무시설(디지털엠파이어 등) 및 대형상가(판타지움, 골드스퀘어 등)가 입지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는 학교 주변 상권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근린상업지역 내 카페, 음식점 등이 집적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원룸촌이 형성되어 있다. 영통중앙공원 일대는 다수의 공공시설(수원가정법원, 동수원등기소, 영통도서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입지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의료부지가 10년 넘게 장기 방치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개발을 검토 중이다. 또한 서쪽으로는 지역난방공사,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망포역 일대 현황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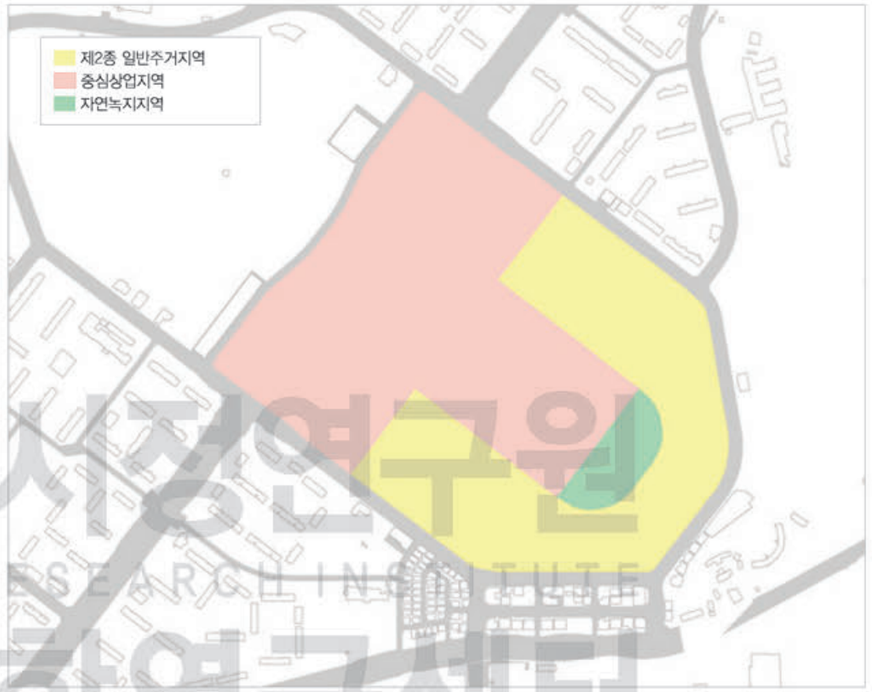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 현황



영통중앙공원 일대 현황

2. 영통역 상업지역 도시계획 현황



용도지역 현황도

<표 2> 용도지역 현황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448,000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8,130	39.8
중심상업지역	250,570	55.9
자연녹지지역	19,300	4.3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상업지역이 약 55.9%,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39.8%, 자연녹지지역이 약 4.3%로 구성되어 있다.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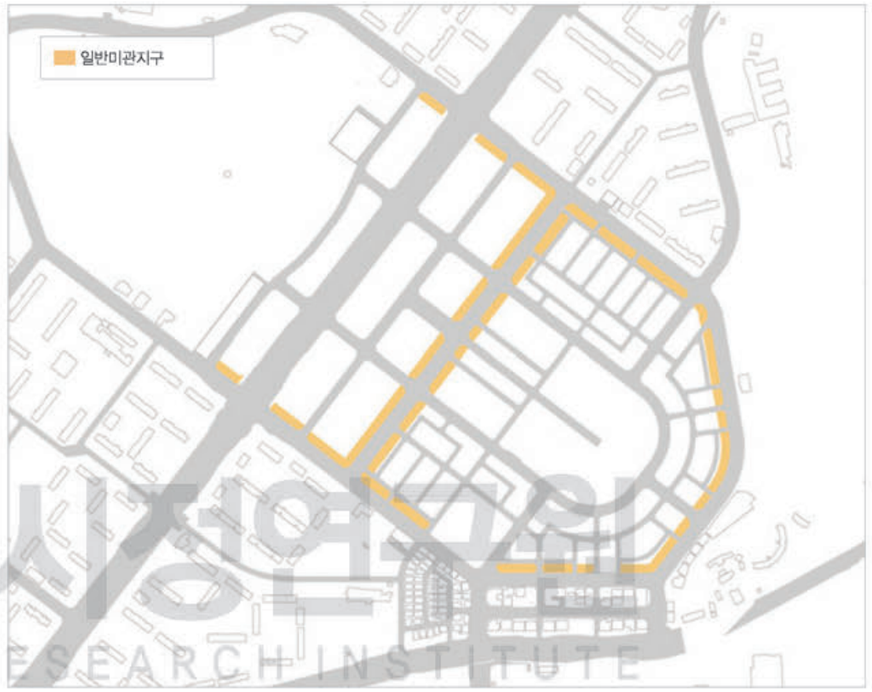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미관지구 현황도



일반미관지구(김승일 제공)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외곽은 일반미관지구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로변의 미관을 관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정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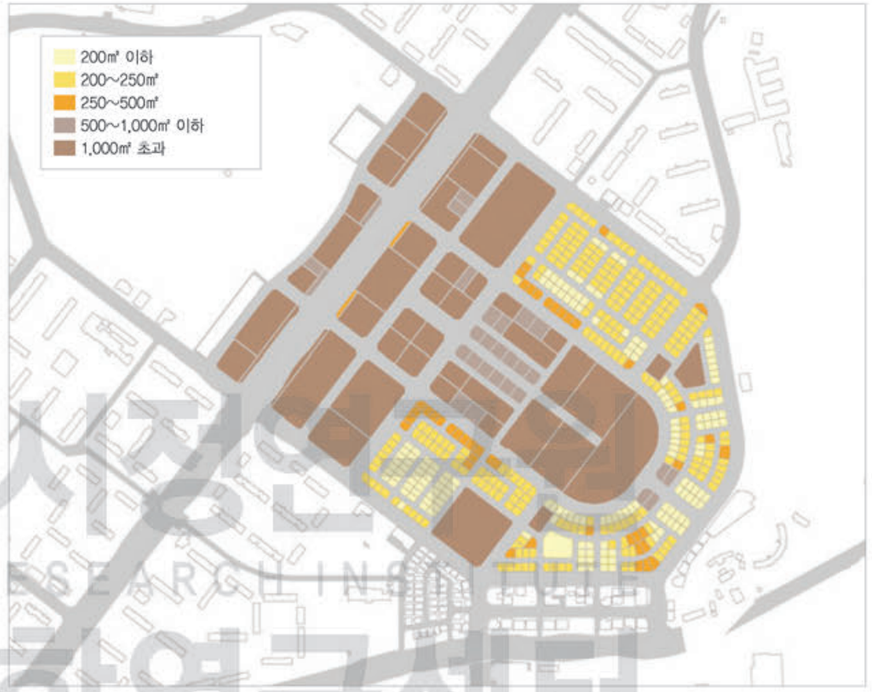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표 3>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개소	비고
도로	31개소	광로, 대로, 중로, 소로
공공시설	6개소	영일중학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동수원세무서, 수원우편집중국
공원	3개소	반달공원, 수정어린이공원, 으뜸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31개소, 공공시설 6개소, 공원 3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공청사 4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3. 영통역 상업지역 토지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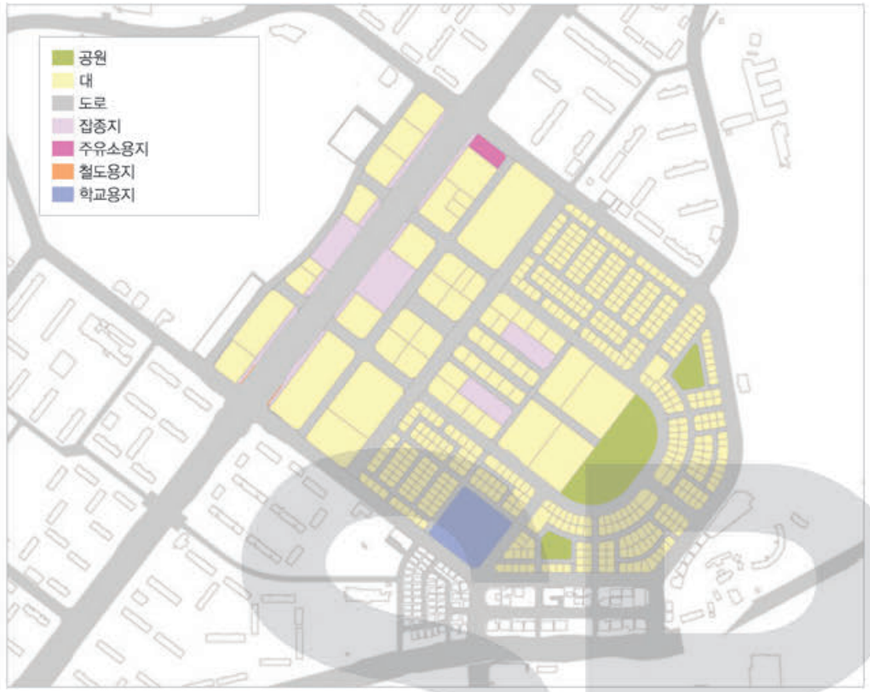
토지 필지 규모별 현황도

<표 4> 토지 필지 규모별 현황

구분	필지수(개)	구성비(%)	구분	필지수(개)	구성비(%)
합계	530	100.0	250~500㎡	45	8.5
0~200㎡	160	30.2	500~1,000㎡	28	5.3
200~250㎡	251	47.4	1,000㎡ 초과	46	8.7

필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의 경우 작은 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며, 중심상업지역은 큰 필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총필지의 개수는 463개이며, 공원과 중학교 부지를 제외한 평균 필지 면적은 약 211㎡이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총필지의 개수는 66개이며, 부지의 평균면적은 약 2,592㎡이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1개 필지로 면적은 1만 6,015㎡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토지 지목별 현황도

<표 5> 토지 지목별 현황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448,000	100.0	주유소	1,809	0.4
대지	245,600	54.8	학교용지	10,774	2.4
도로	144,970	32.4	철도용지	192	0.0
공원	20,745	4.6	잡종지	23,910	5.3

대상지의 지목은 대부분 대지(54.8%)와 도로(32.4%)를 차지하고 그 외 잡종지(5.3%), 공원(4.6%), 학교용지(2.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상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주유소와 영통역의 상부 철도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유소



철도용지



공원



학교용지

토지 지목별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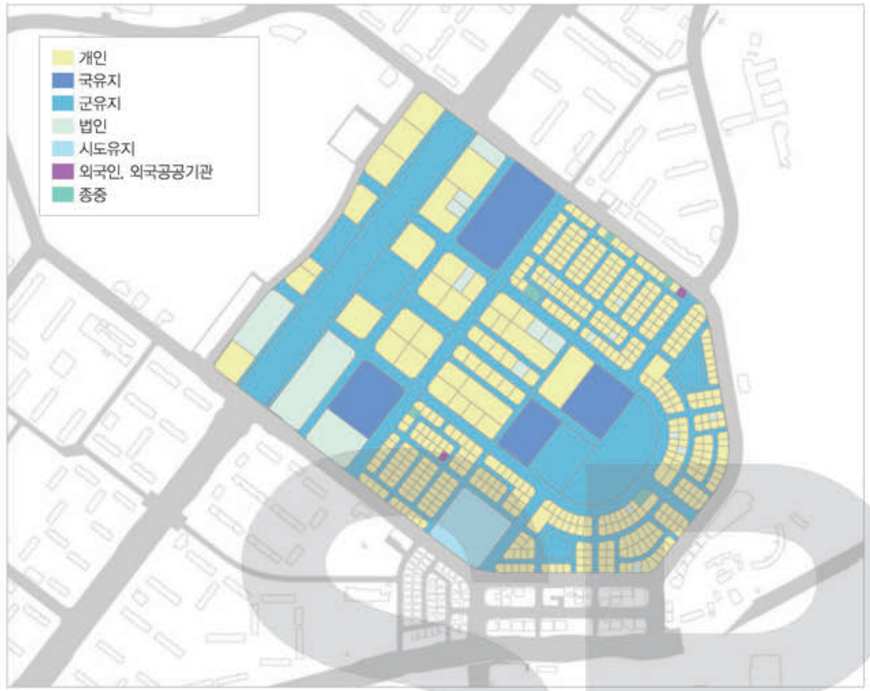
KT영통지점(법인)



수원출입국 외국인청(국유지)

토지 소유자별 시설 현황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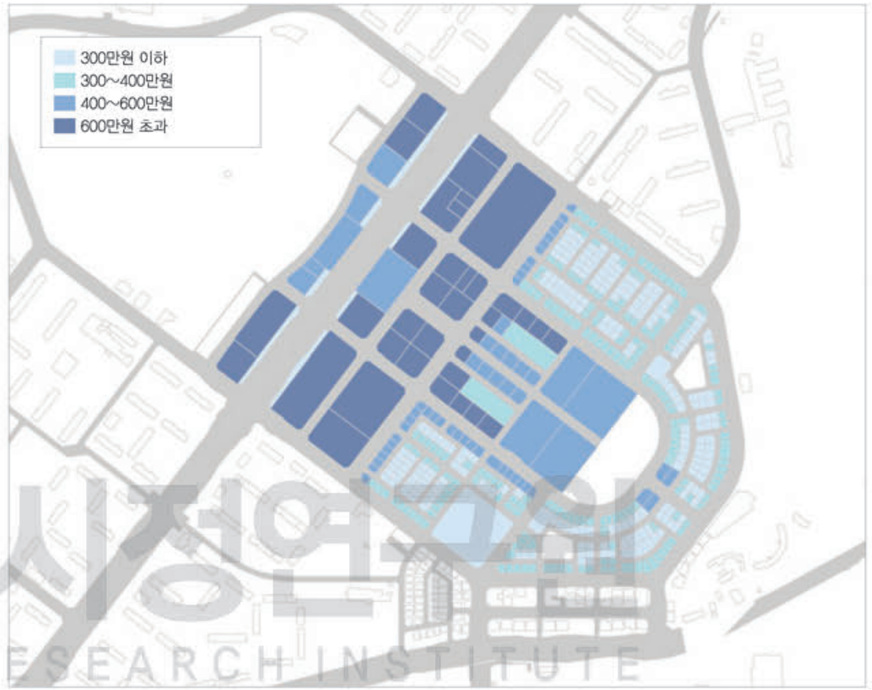


토지 소유자별 현황도

<표 6> 토지 소유자별 현황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448,000	100.0	법인	31,473	7.0
개인	172,565	38.5	시·도유지	10,774	2.4
국유지	40,915	9.1	외국인	446	0.1
군유지	189,992	42.4	종중	1,835	0.4

대상지 내 토지 소유자는 군유지(42.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38.5%), 국유지(9.1%), 법인(7.0%), 시·도유지(2.4%), 중종(0.4%), 외국인(0.1%)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공원은 대부분 군유지이며, 수원세무서,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부지는 국유지이다. 영일중학교는 시·도유지, 대상지 내 대형마트와 KT는 법인소유이다.



토지 공시지가 현황도

<표 7> 토지 공시지가 현황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448,000	100.0
300만 원 이하	231,299	51.6
300만~400만 원	49,111	11.0
400만~600만 원	63,702	14.2
600만 원 초과	103,888	23.2

비고 : 으뜸어린이공원은 공시지가 자료가 없어 300만 원 이하에 포함하여 작성함.

공시지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따라 다르게 형성이 되고 있으며, 상업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은 대부분 1㎡당 300만~4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지역은 1㎡당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간선부는 300만~4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면부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영통역 상업지역 건축물 현황



건축물 주용도 현황도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영통종합사회복지관)



노유자시설(영통동경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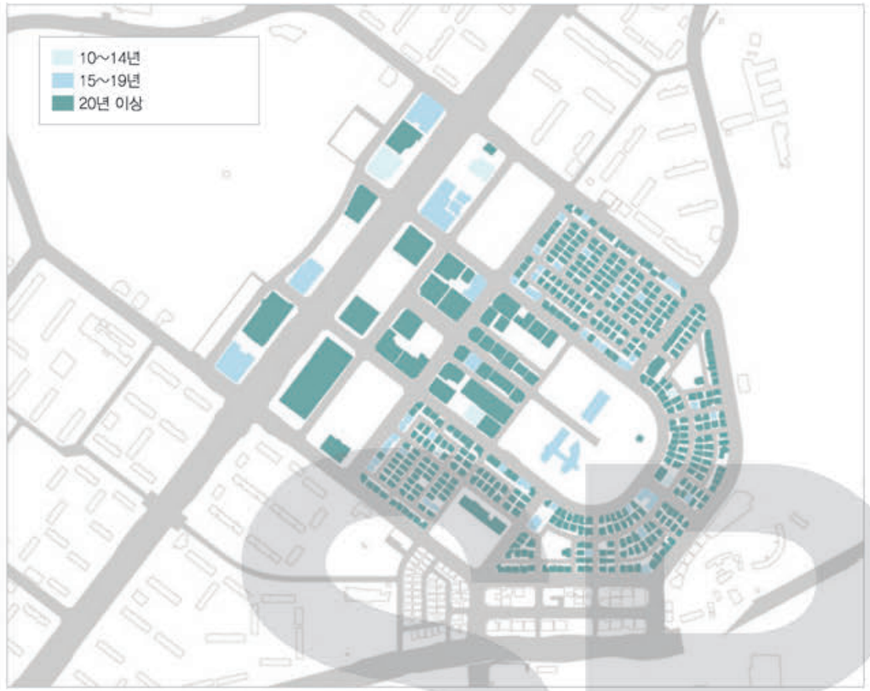
판매시설(홈플러스)

용도별 건축물

<표 8> 건축물 주용도 현황

구분	동수(동)	구성비(%)	구분	동수(동)	구성비(%)
단독주택	381	75.3	공동주택	2	0.4
제1종 근린생활시설	16	3.2	의료시설	2	0.4
제2종 근린생활시설	66	13.0	업무시설	1	0.2
근린생활시설	9	1.8	방송통신시설	1	0.2
숙박시설	9	1.8	자동차관련시설	1	0.2
교육연구시설	7	1.4	위락시설	1	0.2
판매시설	4	0.8	문화 및 집회시설	1	0.2
노유자시설	4	0.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0.2

대상지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따라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주용도는 단독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선부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상업지역은 판매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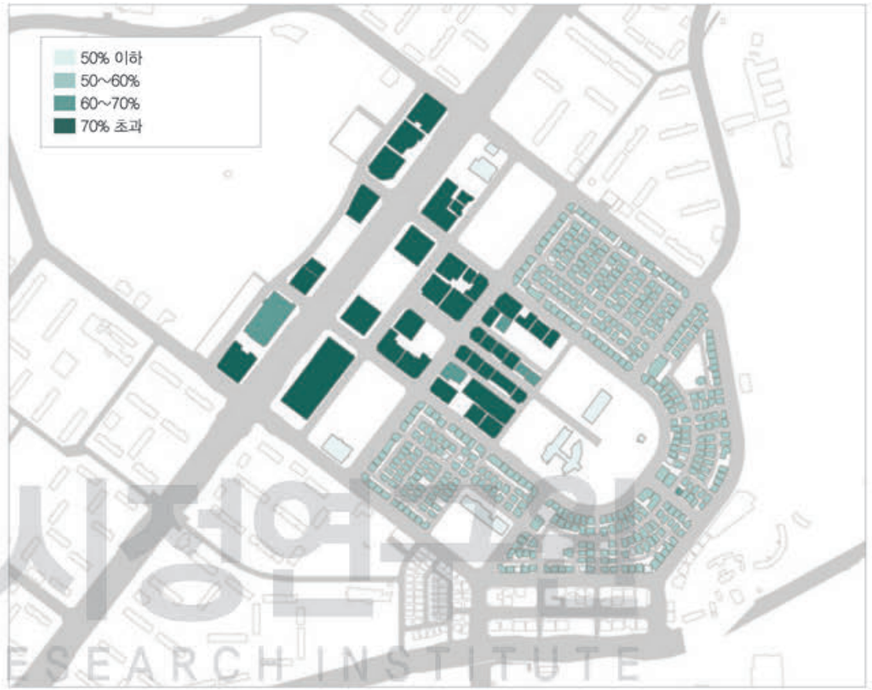
건축물 노후도 현황도

<표 9> 건축물 노후도 현황

구분	동수(동)	구성비(%)
합계	506	100.0
10~15년	6	1.2
15~20년	54	10.7
20년 이상	446	88.1

비고 : 해당 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를 활용(2022년 10월 기준)하였으며, 영통테라스가든 주차빌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대상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1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80%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영통 개발시기인 1998~2001년에 가장 많은 건축물이 조성되었으며, 그 형태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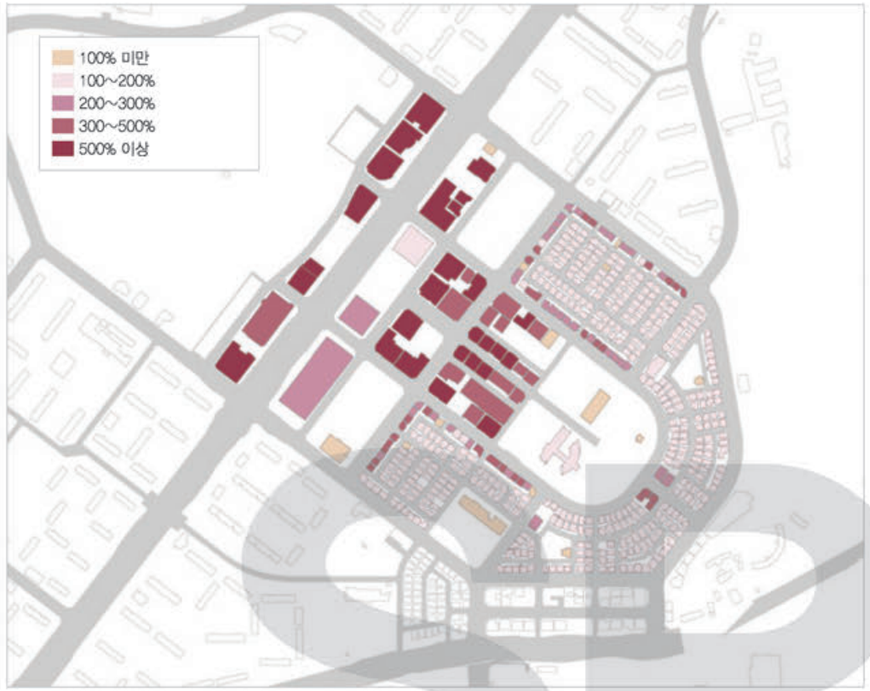
건축물 건폐율 현황도

<표 10> 건축물 건폐율 현황

구분	동수(동)	구성비(%)
합계	506	100.0
50% 이하	18	3.6
50~60%	443	87.5
60~70%	6	1.2
70% 초과	39	7.7

이 지역 건축물의 건폐율은 50~6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의 용도별에 따라 다르게 분포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건폐율이 50% 미만이며, 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 50~60%이다. 또 상업지역의 경우 건폐율 70% 이상인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하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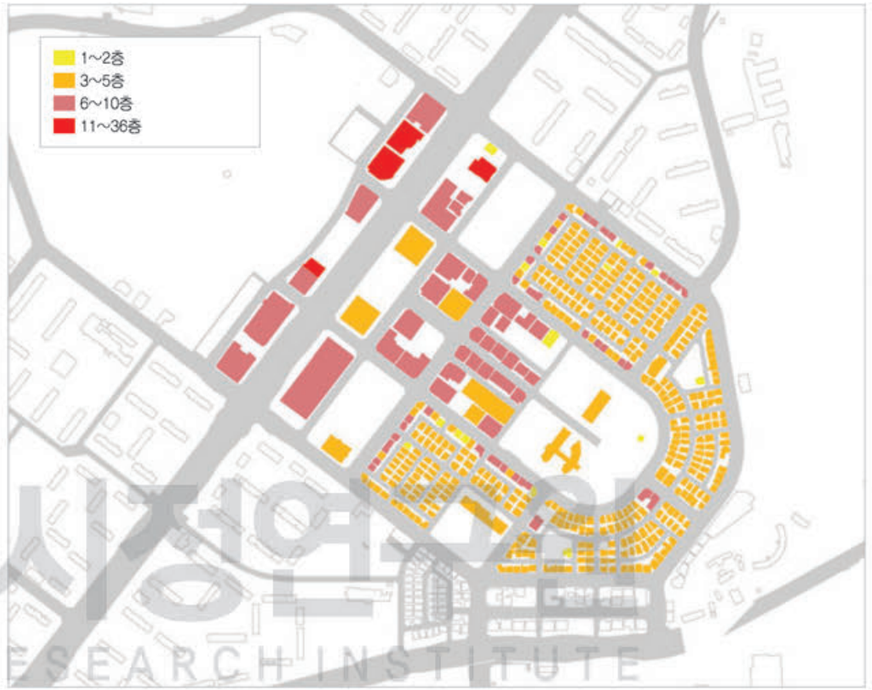


건축물 용적률 현황도

<표 11> 건축물 용적률 현황

구분	동수(동)	구성비(%)
합계	506	100.0
100% 미만	14	2.8
100~200%	389	76.9
200~300%	36	7.1
300~500%	40	7.9
500% 이상	27	5.3

이 지역 건축물의 용적률은 평균 약 210%이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용적률 200% 미만이 약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와 공공시설이 입지한 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500% 이상의 건축물은 대부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건축물 층수 현황도

<표 12> 건축물 층수 현황

구분	동수(동)	구성비(%)
합계	506	100.0
1~2층	15	3.0
3~5층	416	82.2
6~10층	71	14.0
11~36층	4	0.8

대상지역 건축물의 평균 층수는 약 4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업지역과 간선부가 층수가 높게 나타났다. 3~5층 건축물이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층 이상의 건축물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2층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시설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하연구센터

5. 영통역 상업지역 상권 현황



영통역 상권 현황



영통동 상업지역(김승일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에 따르면 영통역 일대는 5개 상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반달공원 주변(영통역-①), 동수원세무서, 영일중학교 주변(영통역-②), 수원곱창골목(영통역-④), 수원우편집중국 주변(영통역-⑤), '롯데마트'(구 그랜드마트 일대) 상권이다.

대상지가 입지하고 있는 영통3동에는 약 852개소의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수원시 전체의 약 1.8%, 경기도의 약 0.2%에 해당한다. 숙박·음식 업종이 가장 많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도소매 업종과 수리·개인서비스 업종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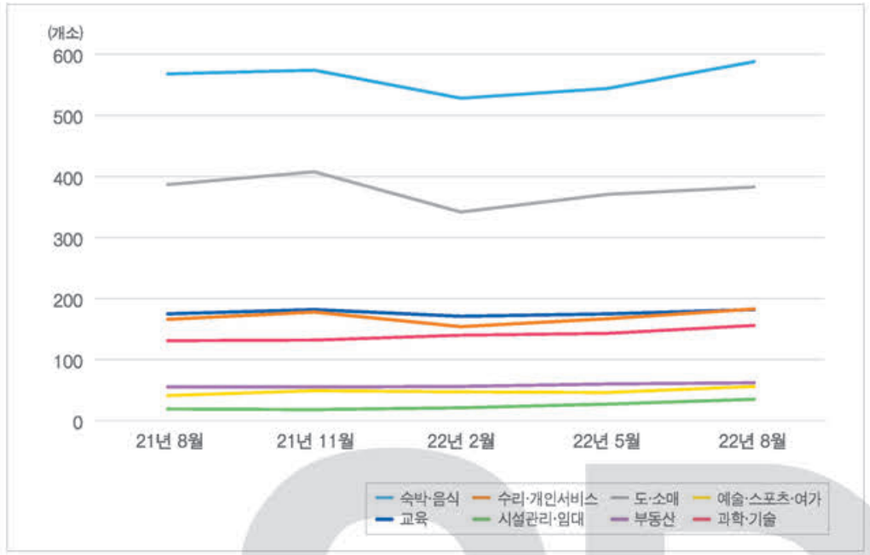
<표 13> 영통3동 점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숙박·음식	도소매	수리·개인서비스	교육
영통3동	380	160	95	77
수원시	15,500	14,904	6,393	4,157
경기도	201,062	177,045	66,925	45,210
구분	과학기술	부동산	예술, 스포츠, 여가	시설관리, 임대
영통3동	48	45	36	11
수원시	1,542	3,157	1,693	893
경기도	13,680	35,790	18,517	8,372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행정구역별 업소현황 자료)

비고 : 해당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업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참고용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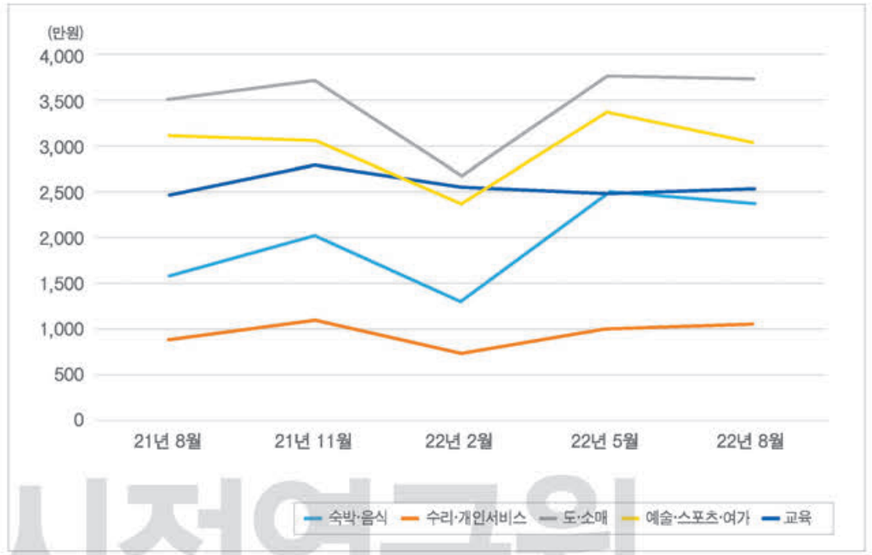
영통역 상업지역 점포 현황 변화

<표 14> 영통역 상업지역 점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1년 8월	2021년 11월	2022년 2월	2022년 5월	2022년 8월
숙박·음식	568	574	528	544	588
수리·개인서비스	166	178	154	167	183
도·소매	387	408	342	371	383
예술·스포츠·여가	41	49	47	46	56
교육	175	182	171	175	182
시설관리·임대	19	18	21	27	35
부동산	55	55	56	60	62
과학·기술	131	132	140	143	156
합계	1,542	1,596	1,459	1,533	1,645

대상지 내 점포는 숙박·음식 관련 점포가 가장 많이 입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종이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소매의 경우 감소하였다가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점포 현황 또한 2022년 2월에는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업종별 평균 매출액 변화

<표 15> 분석 업종별 평균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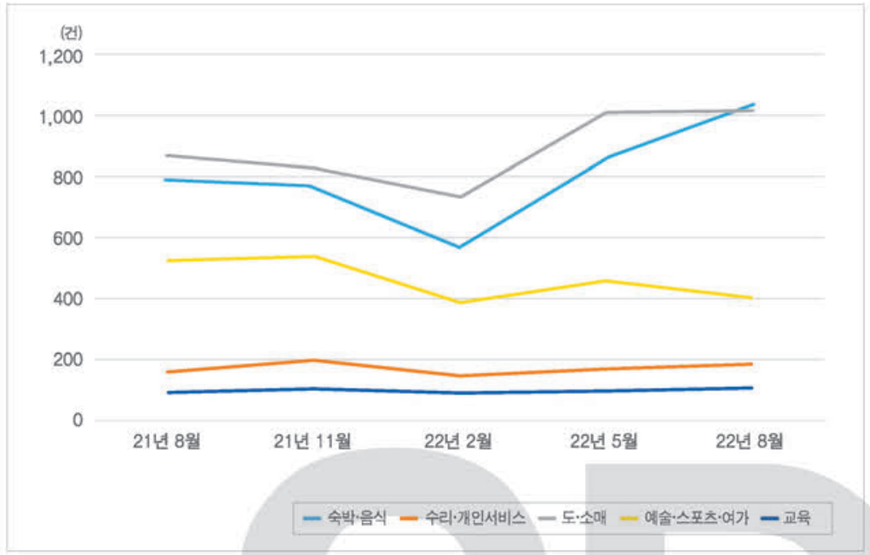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2021년 8월	2021년 11월	2022년 2월	2022년 5월	2022년 8월
숙박음식	1,597	2,042	1,319	2,497	2,384
수리개인서비스	904	1,089	729	1,009	1,051
도소매	3,520	3,725	2,678	3,769	3,741
예술스포츠여가	3,106	3,050	2,389	3,378	3,046
교육	2,477	2,808	2,550	2,506	2,534

비고 : ① 해당 자료는 매출액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시설관리·임대, 부동산,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함. ② 관련 자료의 매출액은 업소수가 2개 이하일 경우 행정동 평균데이터 또는 수원시 평균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됨.

분석 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도·소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예술·스포츠·여가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 비하여 2022년에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분석 업종별 매출건수 변화

<표 16> 분석 업종별 매출건수

(단위 : 건)

구분	2021년 8월	2021년 11월	2022년 2월	2022년 5월	2022년 8월
숙박음식	796	775	566	863	1,037
수리개인서비스	160	205	147	173	179
도소매	869	834	737	1,006	1,016
예술스포츠여가	520	545	390	459	409
교육	96	107	92	102	104

비고 : 해당 자료는 매출액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시설관리·임대, 부동산,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함.

분석 업종별 평균 매출건수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2년 2월에 매출건수가 감소하였다가 2022년 8월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상권정보 업종 구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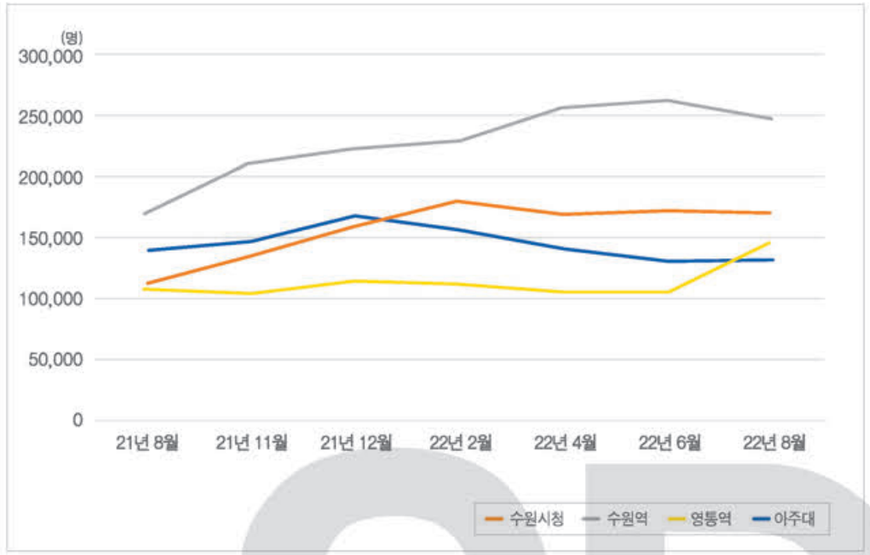
구분	세부 분류	업종수(개소)
숙박·음식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117
수리·개인서비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
도·소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179
예술·스포츠·여가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3
교육	교육 서비스업	52
시설관리·임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23
부동산	부동산업	2
과학·기술	전문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

비고 : 대상지 내 점포 현황 분석은 상권정보(https://sg.sbiz.or.kr)에서 구분한 477개 업종으로 수행함.



상권정보(https://sg.sbiz.or.kr)를 활용하여 8가지 유형별 477개의 업종별 업소수 및 업소당 매출액, 월평균 매출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한연구세미



수원시 주요 상권별 유동인구 변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SKT 지역별 유동량 조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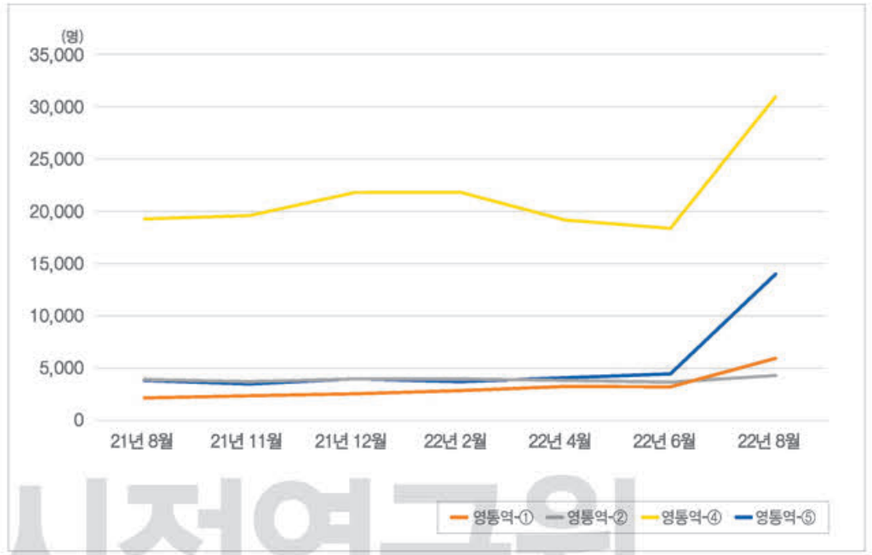
<표 18> 수원시 주요 상권 유동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8월	2021년 10월	2021년 12월	2022년 2월	2022년 4월	2022년 6월	2022년 8월
수원시청	113,834	135,851	160,736	180,196	168,551	172,697	170,064
수원역	171,739	211,111	223,716	228,786	256,607	262,246	247,290
영통역	106,984	105,856	113,642	112,936	105,365	106,321	147,842
아주대	141,696	149,707	167,848	156,220	141,741	131,365	132,820

비고 : 유동인구 데이터는 해당 상권의 중심에 입지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반경 1㎢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영통역 주변 상권은 월 평균 약 11만 명의 유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상권이지만, 수원역, 수원시청, 아주대학교 상권보다는 낮은 유동인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8월에는 다른 지역보다 유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영통동 주요 상권별 유동인구 변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SKT 지역별 유동량 조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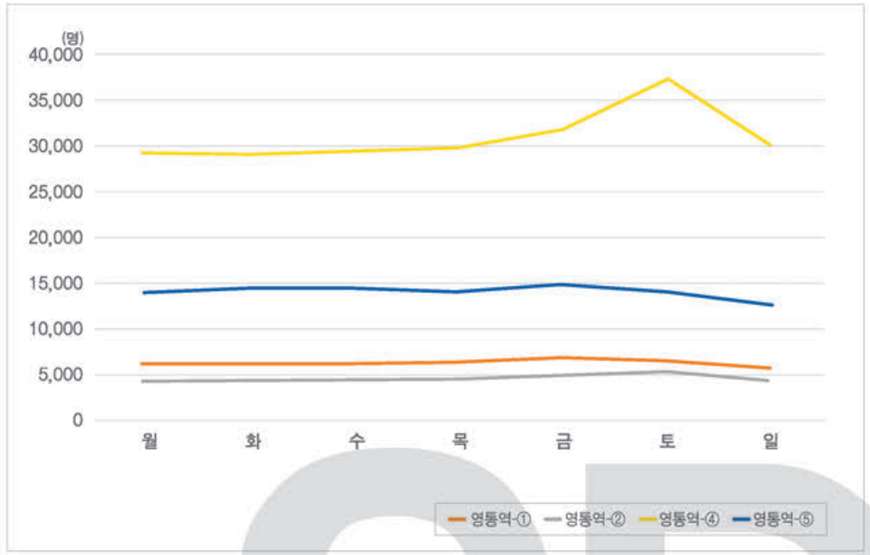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19> 영통역 상권 유동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8월	2021년 10월	2021년 12월	2022년 2월	2022년 4월	2022년 6월	2022년 8월
합계	29,348	29,338	32,455	32,509	30,490	29,865	55,123
영통역-①	2,236	2,441	2,629	2,929	3,323	3,287	5,994
영통역-②	3,990	3,789	4,036	4,044	3,899	3,731	4,365
영통역-④	19,220	19,545	21,733	21,757	19,119	18,328	30,782
영통역-⑤	3,902	3,563	4,057	3,779	4,149	4,519	13,982

영통역 주변 상권 중 영통역-④ 지역의 유동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통역-①, 영통역-②, 영통역-⑤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전체 유동인구와 마찬가지로 영통역-④, 영통역-⑤의 경우 2022년 8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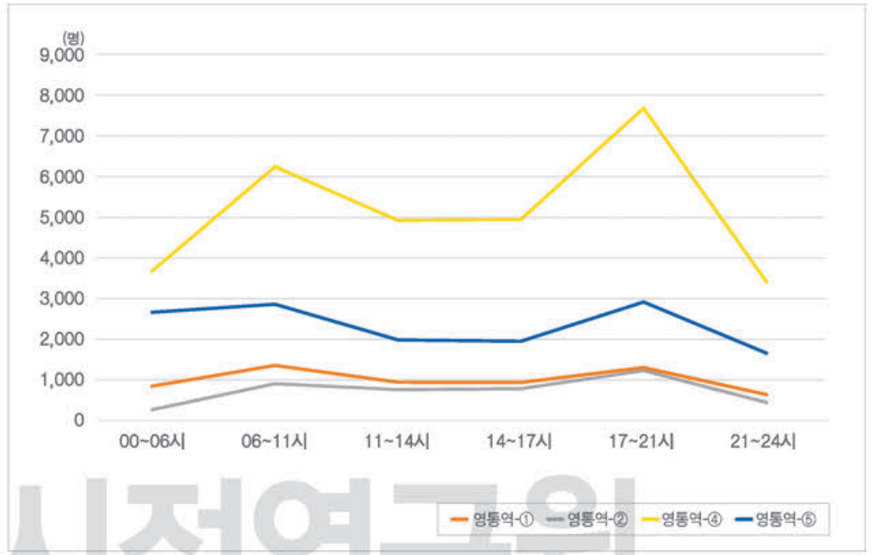
요일별 유동인구 변화

<표 20> 요일별 유동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주중/주말		요일별						
	주중	주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영통역-①	6,085	5,776	5,849	5,978	6,064	6,084	6,452	6,177	5,376
영통역-②	4,278	4,651	4,133	4,109	4,303	4,269	4,579	5,077	4,227
영통역-④	29,874	33,602	29,080	29,176	29,666	29,663	31,790	37,180	30,027
영통역-⑤	14,246	13,285	13,709	14,362	14,177	14,151	14,835	14,013	12,558

주중과 주말 유동인구는 영통역-①과, 영통역-⑤의 경우 주중 유동인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영통역-②와 영통역-④는 주말에 더 높게 나타났다. 영통역-①과 영통역-⑤는 금요일에 유동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통역-②와 영통역-④는 토요일에 유동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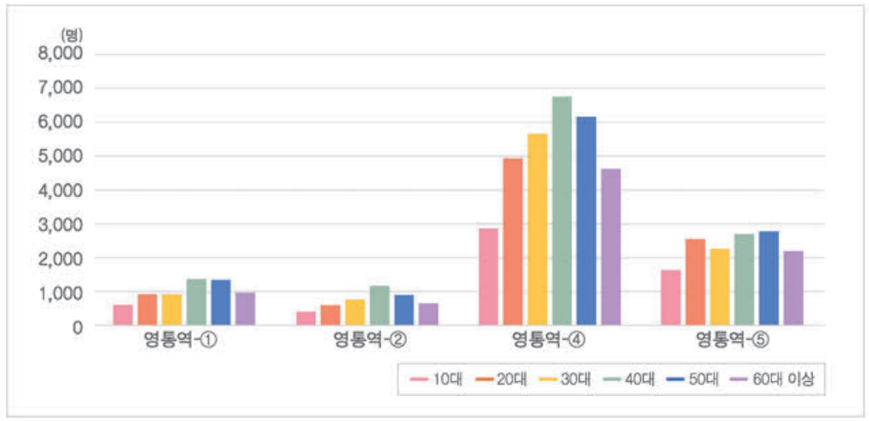
<표 21>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00~06시	06~11시	11~14시	14~17시	17~21시	21~24시
영통역-①	842	1,350	939	932	1,298	635
영통역-②	263	902	756	779	1,223	440
영통역-④	3,666	6,225	4,910	4,931	7,651	3,398
영통역-⑤	2,654	2,851	1,977	1,942	2,906	1,651

시간대별 유동인구는 4개 상권이 다 출근(6시~11시), 퇴근(7시~21시) 시간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통역-②와 영통역-④는 출근시간대보다 퇴근시간대의 유동인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연령대별 유동인구 현황

<표 22> 연령대별 유동인구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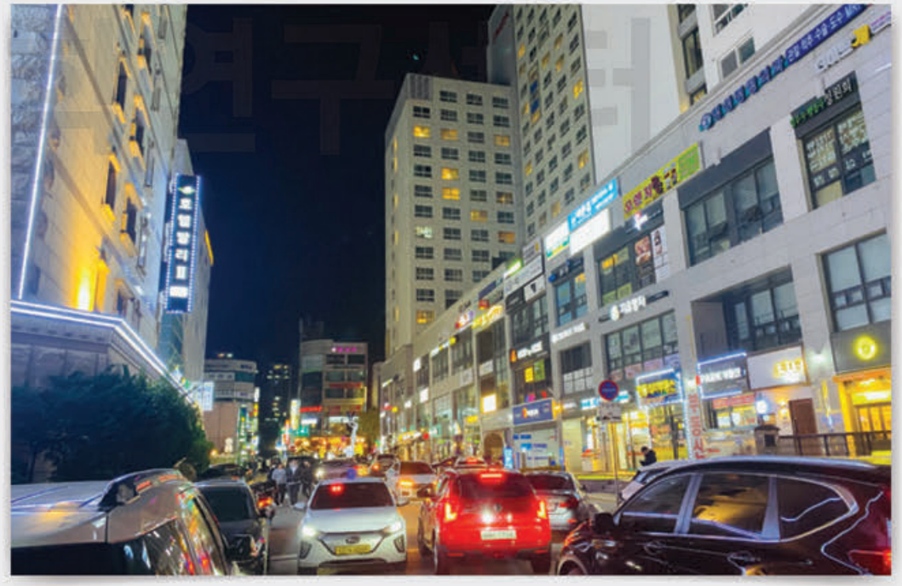
구분	일일	연령대별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여성
영통역-①	5,994	548	922	925	1,332	1,305	964	3,446	2,548
영통역-②	4,365	378	571	754	1,125	889	649	2,484	1,881
영통역-④	30,782	2,839	4,907	5,601	6,674	6,157	4,606	17,089	13,693
영통역-⑤	13,983	1,615	2,544	2,251	2,686	2,732	2,155	7,411	6,572

연령대별 유동인구는 영통역-①은 40~50대, 영통역-②는 40대, 영통역-④는 30~5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통역-⑤는 20~60대가 고르게 나타났다. 성별 유동인구는 모든 상권이 남성의 유동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영통역 상업지역 교통 현황

지역 내 차량 통행 현황은 상가 방문차량과 노면주차, 통과차량 등의 중첩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의 혼잡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구역 내 모든 도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불법주차 및 통행차량으로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밀집으로 인한 방문차량이 다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차량통행을 관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주·야간 차량 통행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차량통행체계

대상지 내 전신주는 전선 지중화가 되어 있으며, 구름광장–반달공원 간 보행 중심축을 연결하여 보행을 통해 대상지 중심을 관통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간선·집산·국지 도로변은 볼라드가 적절히 설치되어 보행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



보행 현황

그러나 모든 가로변에 불법주차 및 도로 점유시설물이 있어 보행 및 가로환경을 훼손하여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다세대 상가주택 밀집지역은 보차혼용도로 구역으로 보행통행 불편 야기 및 보행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도 설치 유도 등 정비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보행지장물

대상지 내 일평균 유동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주중과 주말이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요일별 유동인구도 비슷한 규모의 유동인구가 나타났다. 시간대별 평균 유동인구는 17~21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저녁시간에 식음료매장이 다수 분포한 상권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일평균 유동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주말/주중		요일별						
	주중	주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구	122,390	121,882	117,283	120,061	122,343	122,180	130,089	134,039	109,728
비율	50.1	49.9	13.7	14.0	14.3	14.3	15.2	15.7	12.8

<표 24>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00~06시	06~11시	11~14시	14~17시	17~21시	21~24시
인구	13,944	26,467	19,022	19,569	29,821	13,214
비율	11.4	21.7	15.6	16.0	24.4	10.8





보행환경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7. 영통역 상업지역 가로경관과 보행경관

이 지역은 정리되지 않은 광고물과 오래된 건물로 노후화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간판 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봉영로 주변은 대규모 상업시설(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고층의 주상복합(월드마크, 하우스토리 등)이 입지하여 간선도로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느티나무골 육교(광장) 및 왕복 10차로 주변으로 개방감 있는 경관을 형성하지만, 난발된 광고물로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봉영로 보행환경

보행경관도 불법주·정차, 도로변 불법점유물, 정리되지 않은 광고물, 오래된 건축물 외관 및 색채 등 보행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소 위치해 영통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와 경관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봉영로 주변은 난잡한 옥외광고물 및 색채 등으로 도시경관 훼손 및 시각공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공유자전거 및 공유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환경이 불량한 상황이다. 반달로와 청명남로 주변은 사거리 구간 내 불법 주정차로 자동차 통행환경 저해로 우회전 시 보행자와의 접속차고 위험 존재 등 체계적인 통행환경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불법주정차, 가로영업, 옥외광고물 등으로 보행경관이 불량한 상황이다. 지역 내 이면가로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및 보행의 혼재,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점유물 등으로 보행환경이 불량한 상황이며, 보차혼용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편보도 등 설치를 통해 보차분리를 유도하고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정비가 필요하다. 유해광고물, 무분별한 옥괴광고물 및 배전 등으로 안한 보행경관이 불량한 상황이며, 차량통행의 규제, 불법주정차 개선,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반달로 및 청명남로 보행환경









이면가로 보행환경

02 영통역 중심상권의 형성과 변화

안종수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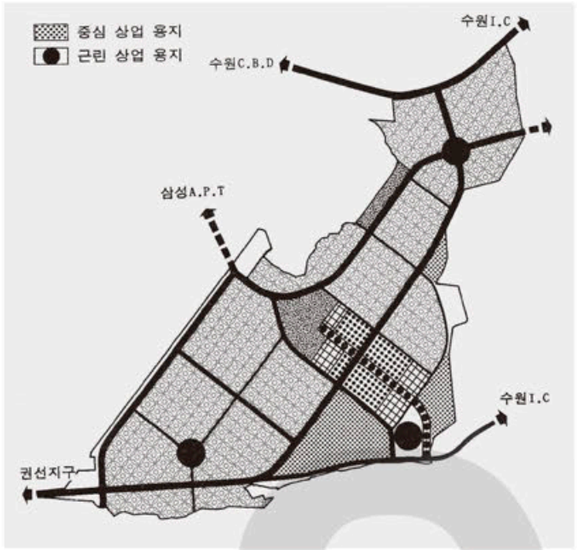
1. 영통지구 상업용지 개발계획과 영통역 상권

1) 영통지구 상업용지 개발구상과 계획

인구 100만 명을 훌쩍 넘는 수도권의 거대 도시 수원은 그 규모만큼이나 오랜 역사와 형성 과정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수원에서 영통동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새로운 도시, 즉 신도시에 속한다. 주변에는 대기업 삼성으로 대표되는 첨단 공업단지가 존재하는 영통동은 초창기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다. 신도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마을이나 초창기 대도시와는 달리, 철저한 계획에 따라 입지, 공간구획 및 기반시설 등이 결정된다. 그 가운데에는 도시의 자급 및 소비를 담당하는 상업지역의 설계와 건설도 있다.

영통지구 개발계획[1]에 따르면 영통지구는 지리적 여건상 광역적인 구매 유인력을 흡수하기 어려우므로 자체 생활권을 위한 상업용지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에 상업지역별 입지조건과 성격에 부합되도록 적정 상업시설의 입지 선정과 규모 배분을 통하여 도시구조상 핵을 형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내에 공공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상권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생활권별 이용거리를 감안하여 근린상업용지를 배치하였다.

또한 주변 여건 및 위치에 따라 상호보완성을 갖는 업종은 적정한 입지와 규모를 감안하여 배치하였다. 숙박 및 유기장 시설은 집단화하여 배치하고, 상권의 부분적·파생적 형



영통지구 기본구상에 나타난 중심상업용지와 근린상업용지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영통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85쪽)

성을 막기 위해 블록별 특징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형 시설은 간선도로변에 분산 배치하여 주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획지 규모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공간적 위치와 주변 접근도로의 성격·폭원, 인접한 시설에 따라 용도를 규정하고, 그 용도에 적합하게 획지를 분할하도록 계획하였다. 중심상업지역 내 광장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한 쇼핑몰을 유도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다양한 규모의 획지를 배치하였다. 중심상업지역에는 백화점, 금융기관, 대형 숙박시설을 등을 유치할 수 있는 1,000평 이상의 획지를 간선도로변에 배치하고, 다양한 상행위가 일어나도록 중심상업지역 내부에 200~500평 규모의 필지를 배치하였다. 근린상업지역에는 150평 미만의 필지 위주로 획지분할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영통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두었는데, 근린생활시설용지 4곳 중 3곳은 중심상업 및 공공시설 주변에 입지함으로써 주거 지원기능 외에 중심상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나머지 1곳은 영통지구 남측(현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북단)에 배치하였는데, 이곳은 근린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 광역적인 시설인 아파트형 공장, 전시시설, 대형 획지를 요구하는 판매시설 등을 유도하게 하였다.

이처럼 영통역 상업지역은 신도시 인구와 주변 공단의 각종 행정적 서비스와 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형성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통역 상권은 '영통역 중심상가'라 불리며 신도시 중산층의 트렌드와 젊은 직장인의 기호에 맞는 '젊은 상권'으로서 호황을 맞이하였다. 비록 규모 면에서 수원역 주변의 상권을 넘어설 수는 없었지만, 분당·용인과 밀접한 수원 동부의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로서 오늘날까지 신도시 중산층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상권으로 자리를 잡았다.

<표 1> 영통지구 상업지역별 개발구상

구분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상권		광역상권 형성	지역, 근린상권 형성
성격		1차 중심지역으로 하위단계에 다수의 상업지를 포함	2차 중심지역으로 지구, 근린형태
입지 형상		집핵형 구조, 선형 구조	균점 구조, 분산 구조
접근성		차량 및 보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교통 중심지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하여 보도접근 강도가 높음
중심기능		관리기능, 선매 및 전문별 판매기능, 전문서비스기능, 위락기능, 문화기능, 중심업무기능	저몰입도 선매전문품 판매기능, 주민편익서비스기능
적정 업종	자생적 업종	판매시설(선매소매, 전문소매), 숙박시설, 일반업무, 유기장, 유흥음식점, 사설강습소	대중음식점, 판매시설(일반소매)
	개발전략 업종	백화점, 호텔, 스포렉스, 금융기관	근린상업시설, 근린서비스시설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영통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73쪽.

<표 2> 영통지구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계획)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A	18	11,194	근린상업	D	41	16,848	근린생활시설
B	57	23,856	근린상업	E	18	4,706	근린생활시설
C	40	17,779	근린상업	F	18	4,693	근린생활시설
H	20	85,404	중심상업	G	2	2,172	근린생활시설
계	135	138,233		계	79	28,419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영통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35~136, 140~142쪽.

<표 3> 영통지구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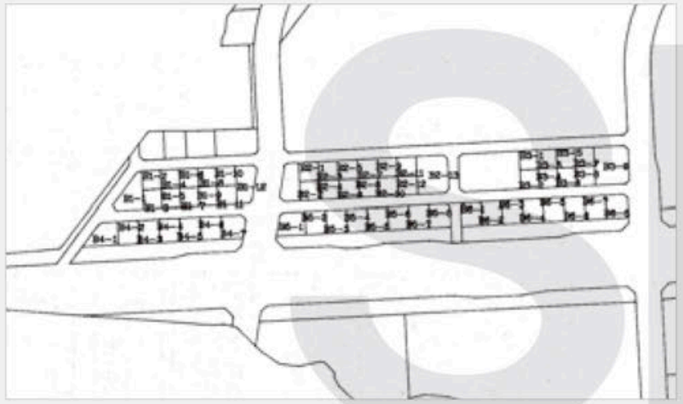
구분		면적(㎡)	필지수
상업용지	근린상업	48,199.5	114
	중심상업	85,384.7	44
	계	133,584.2	158
근린생활시설용지		28,092.1	106

자료 : 한국토지공사, 1997, 「수원영통지구택지개발사업 준공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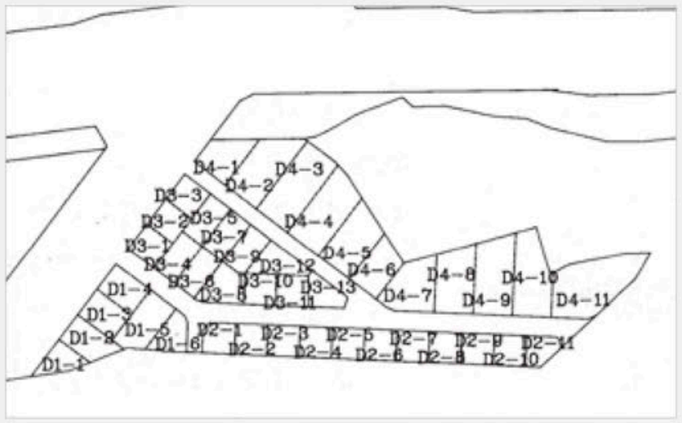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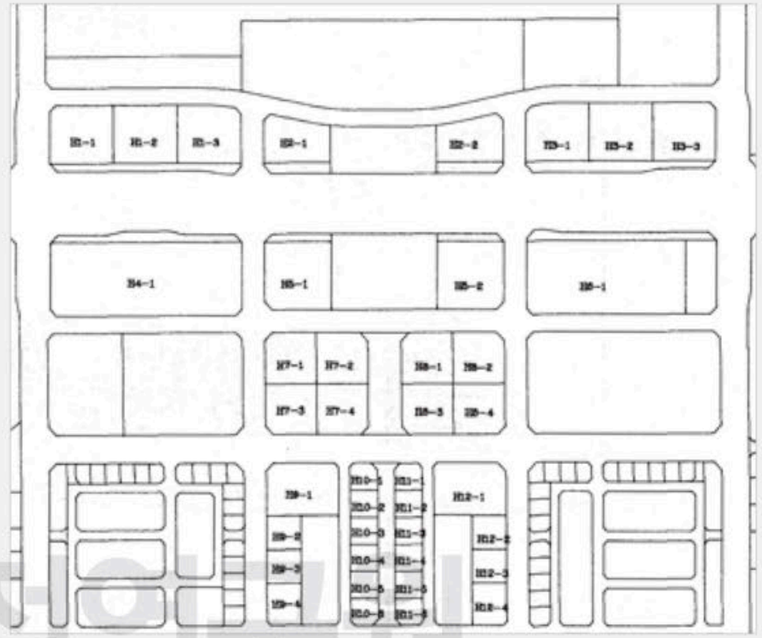
근린상업용지 A(황골 주공2단지아파트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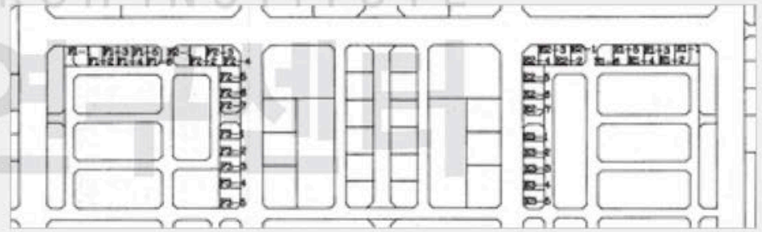
근린상업용지 B(망포역 북단)



근린생활시설용지 D(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북단)



중심상업용지 H



근린생활시설용지 E, F



근린상업용지 C



근린생활시설용지 G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지구 중심상업용지·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1994년)

영통역 중심상가는 가까이는 영통동의 대단지 아파트와 공업지역의 소비수요에 부응하고 수원의 다른 지역, 멀리는 용인 일부의 소비자들까지 끌어들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화관은 물론 백화점과 대형 마트, 대형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대형 매장들은 영통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병원, 은행, 관공서와 같은 생활편의시설들과 함께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다. 대형 매장들 뒤편으로 영통역 상권의 밤거리를 밝히는 유흥상가들이 높은 밀집도를 자랑하며 자리하고 있다. 각종 주점, 노래방 등이 들어선 유흥상권은 인근의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삼성전자 직원들의 놀이, 회식 장소로 애용되어 왔다. 한창 때의 영통동 유흥상권은 말 그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였으며, 지금은 폐관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나이트클럽이 영통역 유흥상권의 호황을 상징하였다.

2) 영통역 상권의 현황과 특징

영통역 상업지역은 영통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직사각형 모양의 대규모 구역으로 지역에서는 '영통역 중심상가'라 일컬어진다. 북으로 독침산, 남으로 아람산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이 상업지역의 지리적 경계이며, 동쪽과 서쪽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영통동은 1990년대 후반에 수원 최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개발된 신흥도시로, 새롭게 형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기업의 대규모 연구단지가 입주해 있어 상업적인 수요가 상당한 지역이다. 이들 수요자들은 기존에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새로 이주한 주민과 주변 공업지역 사업체 직장인과 공무원, 그리고 주변 대학에 재학·종사하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적 특성상 젊은 세대가 다수를 이룬다.

젊은 세대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다. 먼저 젊은 세대가 인구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재생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거나 잠재적으로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가족 구성원을 바탕으로 의식주를 위한 필수 소비는 물론, 교육 및 복지와 관련된 소비수요가 크다. 또 유흥을 비롯한 문화 소비의 수요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층의 소비 욕구는 아동층과 노년층의 그것보다 강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영통역 상업지역에는 학원, 은행, 병원, 도소매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가족 단위에서 직장인에 이르는 다양한 소비층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통역 상업지역은 넓은 배후 소비지를 중심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근린상업지인인 동시에 그 규모나 업종의 다양성이 큰 복합근린상업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행된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영통의 상권을 6가지로 분류하였다.[2] 이에 따르면 영통역에 인접한 주변부를 '롯데마트'(구 그랜드마트 일대) 상권으로, 반달공원 일대를 '영통역-①', 영일중학교 일대를 '영통역-②', 직녀광장을 중심으로 한 유흥상권을 '영통역-④'로, 수원우편집중국 일대를 영통역-⑤로 하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역 상권의 분포

<표 4> 영통역 상권 주요 정보

(2020년 현재)

상권명	상권 유형	면적(㎡)	가구수	인구수		주요 시설수	집객 시설수	상가수			
				주거	직장			전체	음식	서비스	도소매
영통역-① (반달공원)	주택 상업	68,800	1,326	3,398	1,071	5	11	237	142	44	51
영통역-② (영일중학교)	주택 상업	32,754	571	1,464	969	6	5	334	188	55	82
롯데마트 (그랜드마트)	주택 상업	95,085	335	859	1,726	98	28	755	248	132	368
영통역-④ (직녀광장)	주택 상업	64,328	166	425	1,582	58	41	1,080	602	169	300
영통역-⑤ (우편집중국)	주택 상업	48,096	777	1,992	1,014	11	11	418	270	56	88
경희대 상권	주택 상업	44,613	553	1,630	1,142	12	29	204	117	33	54
합계		353,676	3,728	9,768	7,504	190	125	3,028	1,567	489	943

출처 : 수원시정연구원,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10-128쪽.

영통역-①, 영통역-②, 영통역-⑤는 지리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며, 롯데마트 상권과 영통역-④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 상권에 해당한다. 이들 상권은 롯데마트와 영통역-④에 밀집된 학원과 유흥시설을 일부 공유하는 한편, 주거시설도 존재하며 주거인구가 많은 편이다.롯데마트 상권은 영통역과 대로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최근 개청된 '수원가정법원'과 호텔·웨딩홀 등의 주요 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영통역-④는 '중심상가의 중심'에 해당하며 높은 층수의 상업건물들이 대거 위치한다. 상가수도 1,080여 개(2020년 기준)에 달하며 주점, 노래방, 모텔 등의 유흥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롯데마트 상권에는 오랜 기간 영통역 상권에 영향을 미쳐 왔던 그랜드마트(현 롯데마트)를 비롯하여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마트, 영화관, 관공서들은 주변의 주거촌뿐만 아니라, 교통입지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의 소비수요까지 불러일으키는 상권이라 할 수 있다. 또 과거 전국적인 규모의 나이트클럽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 상권으로 영통역 상권의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권이라 하겠다.

영통역-④ 상권은 영통의 밤거리를 책임지는 상권으로, 저녁 시간대에 대부분의 손님이 마감되는 다른 상권과 달리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른바 '유흥상권'이다. 이들 유흥시설들은 5층 이상의 층고를 갖는 대형 건축물에 입주해 있으며 상당한 밀집도를 자랑하며, 주변 주거촌의 젊은 세대는 물론, 인근 경희대학교 학생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변 공업단지 직원과 관공서 공무원들의 모임 및 회식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게 될 영통역-④ 상권과 롯데마트 상권은 주거지역이 혼재된 다른 상권에 비해 집객시설[3]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020년 기준, 롯데마트 상권의 주요 시설은 총 130개소로, 금융기관 18개소와 의료·복지시설 80개소, 대형 유통 27개소, 숙박시설 1개소 및 교통시설 4개소로 집계되었다. 영통역-④ 상권의 경우에도 총 99개의 시설 중, 금융기관이 10개소, 복지시설이 48개소, 대형 유통 27개소, 숙박시설 10개소로 나타났다. 각각 18개소, 11개소, 23개소로 집계된 영통역-①, 영통역-②, 영통역-⑤ 상권과 큰 차이를 보이며, 영통역-④ 상권과 롯데마트 상권을 제외한 상권들은 이들의 주변 상권으로 취급될 수 있을 정도라 할 수 있다.

영통역-④ 상권과 롯데마트 상권은 유동인구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수원시정연구원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영통역과 가장 밀접한 롯데마트 상권은 하루 최대 3만 3,670명, 영통역-④ 상권은 1만 5,122명으로, 3,108명을 기록한 영통역-② 상권과 2,633명을 기록한 영통역-⑤ 그리고 2,069명의 영통역-① 상권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4] 이를 통해 영통역-④ 상권과 롯데마트 상권을 영통역을 통해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주로 찾는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역 상업지역(김승일 제공)





영통역 상업지역(김승일 제공)





영통역 상업지역(김승일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롯데마트



수원가정법원



동수원세무서



수원우편집중국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상권으로, 다른 상권들은 주택과 밀착되어 일상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 영통역 중심상권의 형성

서울과 수도권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거주 인구도 이촌향도의 시기를 지나 베이비붐 세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각종 주택문제와 도시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국가 주도로 대규모 택지의 조성, 이른바 신도시 계획이 수립, 진행되었고 서울, 수도권의 경관은 점차 아파트 중심의 경관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중심의 택지개발은 수도권 곳곳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원 영통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때문에 비록 정보의 신도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종종 '영통신도시'로 불리게 되었다.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는 여러 면에서 구도심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먼저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으로 인한 면적 대비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늘어난 인구는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교통 등 여러 환경의 개선 및 변화로 이어졌다. 이는 상업적인 측면으로도 이어지는데, 전통시장, 동네매장이 소비의 중심이 되었던 과거의 도시와 달리, 대형 매장, 백화점, 할인마트 등이 주요 소비지로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소비지들이 지역별, 동네별로 산재되었던 것과 달리 이들 신도시의 소비지들은 집중된 지역에 거대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입주가 시작된 영통역 중심상가는 신도시의 거대 상권으로서 주변의 소비수요를 흡수하며 복합근린상권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영통역 중심상가는 처음부터 계획된 상업지역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되어 접근 편의성을 의도하였다. 또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영통중앙길(봉영로)을 중심으로 한 쪽은 관공서, 병원, 은행 등의 편의시설이, 반대쪽으로는 음식점과 주점, 노래방 등의 유흥시설이 형성되어 있다.

영통역 중심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국내의 소비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성장했고 또 그 성장이 가속화되던 시기였다. 당시의 신도시 주민들은 '새로운 주거환경을 찾아 신도시로 입주한 중산층'으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흡수하는 적극적 주체들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발맞출 수 있는 대형 매장, 즉 백화점·할인마트, 대형 상가와 외국에서 들어온 각종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중심상가에 줄지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대형 매장들은 과거의 시장을 '단순히 대체'하지 않는다. 이들은 새로운 소비욕구에 발맞추어 기존의 시장과 소매점 중심의 유통체계에서는 들여오기 어려웠던 '새로운 상품'을 들여온다. 새로운 먹거리와 가전, 가구, 의류 등의 상품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형태의 커피숍, 레스토랑, 주점 등 라이프 스타일과 직결된 소비장소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소비욕구에 부응하고 또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기도 한다.

소비시장 확대의 흐름은 IMF 금융위기를 넘긴 200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고, 특히 이른바 신도시 상권은 승승장구해 나갔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2000년대 초반 영통역 중심상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 수원시 영통신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보보스플라자가 패션과 문화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갖추고 영통을 대표하는 새로운 쇼핑 특구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타겟으로 한 보보스는 부르주아적 보헤미안의 약자로 실용적인 구매를 하면서도 원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이중적 패턴을 가진 구매층을 겨냥하고 있다. (중략) 또한 이곳은 삼성전자단지를 비롯한 협력업체 2천여 개와 삼성반도체 제1공장 제2공장의 중심에 있어 첨단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2007년 분당선 연장구간 최종 확정으로 역세권의 부가가치까지 더해 있어 거대 중심업지구로의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영통 보보스플라자」, 『수원신문』 2003년 3월 18일)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영통역 중심상가에 들어서는 대형 쇼핑몰들은 신도시의 성장하는 소비수요에 기대를 하고 또 그 수요의 성격에 발맞춘 컨셉을 지향하고 있었다. 여기에 영통역 중심상가의 또 다른 기대점도 언급되어 있는데, 주변 대규모 공단에서 나오는 수요와 지하철 개통을 통한 상권의 확장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처럼 영통역 중심상가는 도시계획을 통한 상권 구획, 신도시와 공단이라는 강한 소비수요 그리고 미래의 확장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는 '성공이 예정된 상권'이었다. 영통역 중심상가에서 20년 이상 주점 운영하고 있는 김태호(가명, 50대 후반)는 2000년대 초반 영통역 중심상가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김태호(가명) 여기는 초기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상권이 완전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소비나 뭐 이런 거 상권 자체도 괜찮았던 거 같아요. 떠오르는 상권이었죠 영통 자체가. 그 당시에 유동인구가 그렇게 싹 많지는 않았었는데, 예 여기가 좀 교통이 이제 (싹 좋지 않다.) 여기 또 대학교가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50대 후반, 중심상가에서 주점 운영)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0년대 영통역 상업지역
(수원박물관 제공)

그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 초기 영통역 중심상가의 또 다른 특징은 '적당히 불편한 교통'이었다. 이는 영통역 중심상가의 교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통동 전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통동은 비교적 서울로의 통근과 통학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2015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영통구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은 약 9.6%로, 장안구의 11.6%보다 낮고, 경기도 전체 평균인 1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결과는 영통동 인근 공업지역에 사업체가 많은 편이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못한 영통동의 교통 상황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러 호조건 속에서 영통역 중심상가에는 봉영로를 중심으로 대형 매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러한 대형 매장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른 업체들의 입점을 통해 매장을 채우는 플랫폼형 대형 매장으로, 보보스플라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영통역 중심상가에 자리한 대형 상가의 대부분은 이러한 플랫폼형 매장이다. 이곳에 입점하는 업체는 브랜드 업체나 프렌차이즈 매장도 포함되지만 대다수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점포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대자본에 의한 대형 매장이다. 이들 대형 매장은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으로, 자영업자들의 입점을 허용하더라도 주로 브랜드 중심의 통제된 입점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형 매장은 비교적 수비수준이 높은 상품을 취급하거나 브랜드 상점, 영화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대형 매장 자체가 집객시설로 취급된다.

<표 5> 영통역 중심상가 일대 집합건물 및 시설

(2009년 11월 기준)

구분	개수	건물명·시설명
상업용 집합건물	25	밀레니엄프라자, 미네시티, 드림시티, 키라, 플러스타운, 플래티넘, 모던타운, 월드프라자, 동양프라자, 메가텔5, 뉴월드, 성우테마21, 아이텐텐, 센타프라자, 아셈프라자, e-폴리스, 르네상스, 호원빌딩, 매직프라자, 드림피아, 거성빌딩, 럭셔리프라자, 평익빌딩, 다모아프라자, 보보스프라자
상업용 개인건물	6	
판매 및 영업시설	2	홈플러스, 그랜드백화점
숙박시설	6	프라자호텔, 모텔(5개동)
공공기관	6	전화국, 우편집중국, 수원출입국관리소, 사회복지회관, 중소기업청
문화·집회시설	1	키넥스극장, 메가박스(그랜드백화점 내)
오피스텔	1	훼미리타워
주상복합시설	2	남광하우스토리, 대우월드마크
합계	49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

<표 6> 영통역 중심상가 상업용 집합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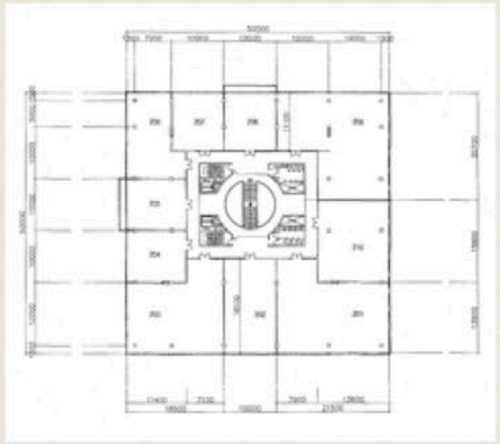
(2009년 11월 기준)

연번	건물명	소재지	준공 연도	호수	대지면적(㎡)	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1	키라	영통동 998-8	1998	50	2,061.80	8,617.80	2	4
2	월드프라자	영통동 1010-1	1998	27	580.80	4,412.64	2	7
3	동양프라자	영통동 1010-2	1998	20	603.40	4,961.10	3	7
4	거성빌딩	영통동 1010-13	1998	34	582.00	6,730.92	4	10
5	모던타운	영통동 959-1	1999	70	2,262.70	19,475.98	3	6
6	르네상스	영통동 998-2	1999	197	2,058.30	19,439.54	4	8
7	호원빌딩	영통동 1009-3	1999	33	1,170.40	9,837.12	2	9
8	매직프라자	영통동 1009-6	1999	55	1,509.10	13,826.75	4	9
9	평익빌딩	영통동 998-1	1999	168	2,058.20	15,054.08	3	10
10	밀레니엄프라자	영통동 995-5	2000	54	3,570.50	9,986.23	1	3
11	아이텐텐	영통동 1009-1	2000	50	1,509.50	9,056.24	2	8
12	미네시티	영통동 995-2	2001	48	3,570.70	9,988.04	1	3
13	성우테마21	영통동 1010-4	2001	20	604.00	5,431.72	3	8
14	센타프라자	영통동 998-5	2001	87	2,051.30	16,068.60	2	8
15	e-폴리스	영통동 998-4	2001	106	2,056.00	18,840.66	4	8
16	플러스타운	영통동 1009-2	2002	48	3,318.70	12,682.24	0	5
17	플래티넘	영통동 1011-6	2002	26	850.40	4,286.66	2	6
18	아셈프라자	영통동 998-6	2002	83	2,056.90	16,264.09	2	8
19	뉴월드	영통동 960-3	2003	86	2,864.10	22,567.94	2	7
20	드림피아	영통동 958-1	2003	117	2,948.30	27,452.52	3	9
21	다모아프라자	영통동 959-4	2003	60	1,568.20	16,433.73	3	10
22	보보스프라자	영통동 996-4	2003	168	3,628.30	37,551.44	3	10
23	메가텔5	영통동 1010-12	2005	13	608.10	4,995.90	3	7
24	럭셔리프라자	영통동 998-9	2005	63	1,201.60	12,552.14	3	10
25	드림시티	영통동 1009-4	2009	20	928.30	3,778.02	1	4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

그렇다면 이러한 대기업 또는 대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대형 매장은 집객시설로서 영통역 주변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대형 마트 출점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 연구[6]에 의하면 대형 마트와 주변의 상권의 관계는 양가적이다. 대형 매장의 집객능력은 주변 상권의 도움을 주는 한편, 경쟁되는 상품을 파는 다른 매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형 매장 주변의 상점에는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상점이 입점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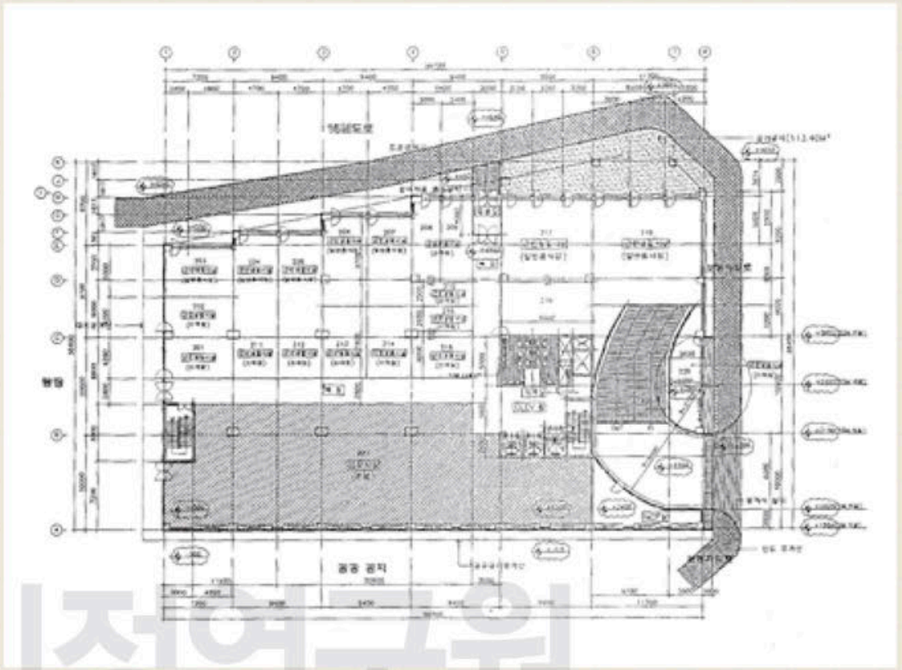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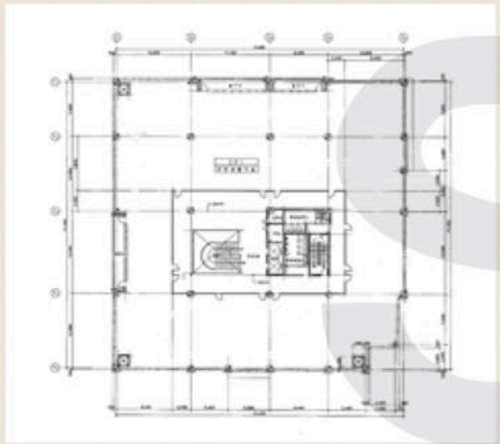
미네시티(수원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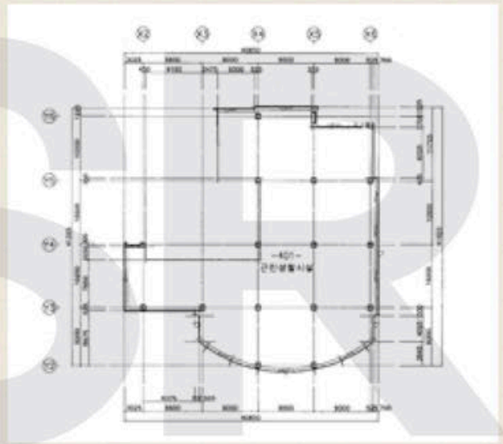
르네상스 시티프라자(수원시청 제공)



모던타운(수원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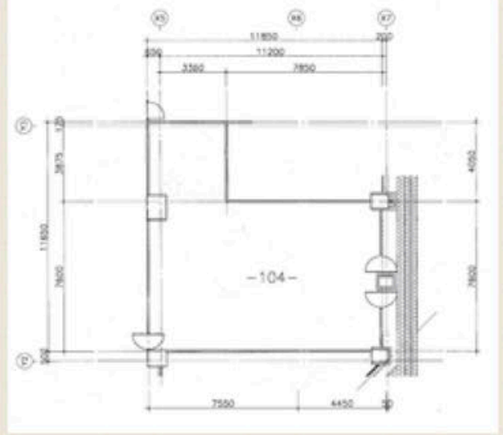
키라레스토아(수원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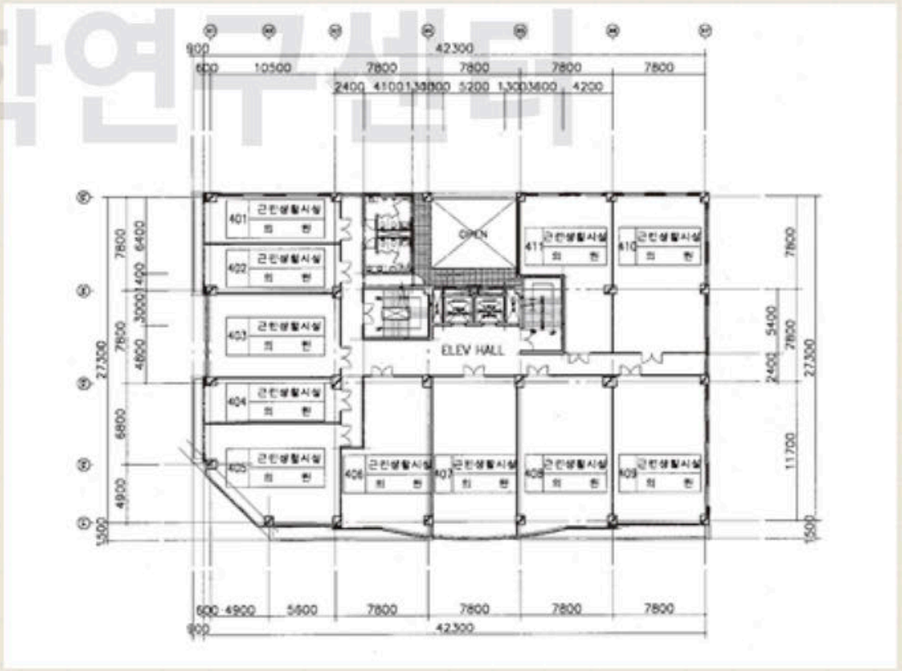
훼미리타워(수원시청 제공)



뉴월드프라자(수원시청 제공)



아이텐텐빌딩(수원시청 제공)



매직프라자(수원시청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모던타운



키넥스빌딩



미네시티플라자



호텔발리 II

수원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2004년 영통대로 전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23년 영통대로 전경

수원시정연구원 INSTITUTE

대형 매장으로 인한 집객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대형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대형 매장을 방문하는 전후로 하여 주변 매장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소비환경이 동시에 따라주어야 한다. 즉 매장과 매장 사이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동선과 더불어 대형 매장을 찾는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들이 주변에 입점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영통역 중심상가의 대형 매장 주변에는 대형 매장과 다른 성격의 서비스 업체들이 입점해 있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브랜드 상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식으로 그 균형점을 맞추고 있다.

3. 영통역 유흥상권의 호황과 침체

1) 2000년대 영통역 중심상가 형성기의 유흥상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영통역 상권의 특성상 유흥상권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봉영로가 대형 매장 중심의 집객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권이라면, 봉영로



육교 뒤로 보이는 나이트클럽 건물들
(200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나이트클럽과 홍보 전단지



동남쪽으로는 유흥상권들이 밀집해 있다. 영통역 중앙상가의 유흥상권은 주로 젊은 세대, 즉 주변 대학의 학생, 공단 노동자 등이 많이 찾곤 했다. 지금은 폐관했지만 상권 초기에는 '샴푸나이트'라는 무도회장이 초기 영통역의 화려한 유흥상권을 상징하였다. 샴푸나이트는 당시 영통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이름이 날 만큼 규모가 컸고 타지에서도 많이 찾았던 유흥소비의 집객시설이었다.

> (샴푸나이트가) 예전엔 수원 지역 70~80% 소비자들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최대 규모니까 그만큼 시설도 완비돼 있고 한때 잘 나갔죠. 관광나이트이다 보니 20대에서 30대 후반 중년층도 많이 찾았어요.(「나이트클럽 신장개업에 뚜껑 열린 사람들」, 『브레이크뉴스』 2007년 9월 28일)

영통동은 물론 주변의 유흥 소비수요까지 끌어당기는 집객시설을 필두로 영통역 중앙상가의 유흥상권은 불야성이었다. 나이트클럽을 찾기 전에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뒤, 2차와 3차로 주변의 술집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 주변의 숙박업소들도 성행했고, 밤새도록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로 중앙상가는 불이 꺼질 틈이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활황이었던 영통역 유흥산업은 2007년을 전후로 하여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다. 영통역 중심상가는 대단지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거지와 인접해 있었다. 이 때문에 밤늦도록 소음을 만들어내는 유흥상권은 주변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게다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은 유흥상권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통동이 교육열이 높은 신도시였던 만큼 영통역 중심상가 내에는 많은 학원들이 입주해 있었다.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 주변의 유흥가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유흥상권에 대한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주민 민원 외에도 2007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흥상권 침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환율 폭등과 사회 전반의 경제침체는 유흥 소비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옛 영광을 찾기 위해 대형 나이트클럽들은 리모델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곧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쳤다.

> 22일 오후 4시께 아직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원지법 행정3부(정영훈 부장판사) 판사들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중심상가에 있는 샴푸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갔다. 이 나이트클럽 인근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일명 '뚜껑 나이트클럽'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에 나선 것이다. 입주민들은 이 나이트클럽이 개폐식으로 지붕구조를 바꾸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허용하자 지난해 11월 도를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법, 영통 '뚜껑 나이트클럽' 현장검증」, 『수원일보』 2009년 1월 22일)

경기침체와 주민 민원이라는 벽 안에서 결국 대형 나이트클럽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한 채, 하나둘씩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대형 나이트클럽보다는 소규모 클럽을 찾기 시작한 당시 젊은 세대의 유행 변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형 나이트클럽의 폐점은 주변 지역의 수요를 끌어 오던 유흥 집객효과의 감소로도 이어졌다. 이는 다시 주변 상점에도 영향을 미쳤고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점포들이 생겨났다. 게다가 예전의 활황으로 높아진 영통역 상권의 임대료는 이러한 좋지 않은 흐름을 가속하는 역할을 했다.

2) 2010년대 영통역 개통 이후의 유흥상권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유흥상권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영통역 개통이었다. 영통역이 개통되고 나면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 유동인구도 늘어 상권에 활력





분당선 연장으로 개통된 청명역과 영통역(2012년 11월 30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유흥상권이 들어선 거리

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분당선의 연장으로 2012년 11월 30일에 개통된 영통역은 서울 왕십리에서 성남 분당, 용인 기흥 그리고 수원의 다른 주변 지역인 망포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영통동을 수원 남부의 지역에서 서울·수도권과 직결되는 지역으로 입지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봉영로에 설치된 영통역의 8개 출입구는 주변 상권과의 연결을 극대화한다. 각각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직결되는 출구는 물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등의 주요 시설과 연결되는 출구가 있으며 공항리무진 버스 정거장과도 밀접해 있다. 한국철도공사 수송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통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개통 초기(2012~2013년)에 8,700여 명이었으나 분당선 수원 연장이 완료되면서 1만 9,000여 명(2014~2022년)으로 증가하여 수인-분당선의 급행이 정차하지 않는 역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이 되었다.[7]

이렇듯 당시 주민들과 상인들의 기대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영통역의 개통 이후 중심상권 일대의 유동인구는 크게 늘었다. 주변에 큰 상권이 없는 인근 망포동에서의 접근성은 더 좋아졌고, 용인 등지에서도 영통의 상권을 소비지로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유흥상권이 들어선 거리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특히 중앙로 주변 대형 마트와 대형 매장들의 매출이 올랐고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도 상승하였다.

> 15일 에프알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입주 15년째에 접어든 수원 최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영통신도시가 지하철 개통(기흥-망포 구간, 2012년 12월)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역 출구 주변 상가들이 늘어난 유동인구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를 비롯해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영통역 일대의 점포들은 대부분 매출이 오르면서 권리금과 임대료도 상승 중에 있다. 실제로 영통역 1번 출구와 8번 출구 대로변 점포시세는 1층 전용 45㎡ 기준 보증금 4000만~1억 원, 임대료 250만~420만 원, 권리금 6,000만~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개통 이전과 비교해 20%가량 상승했다.("분당선 연장 개통' 영통-왕십리 상권, 희비」, 「서울파이낸스」 2013년 1월 15일)

그러나 이러한 매출 상승은 상권 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대형 나이트클럽의 폐관 등으로 호황기 수준의 집객력을 잃어버린 영통역 유흥상권에게 영통역의 개통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오히려 편리해진 교통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방문객

을 빼앗기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지하철로 접근이 쉬워진 수원역과 인계동 유흥상권으로 유흥 소비인구가 이출되었다.

> 김태호(가명) 여기 젊은 층들이 밤새 지하철 타고 서울 가서 놀고 수원역 가서 놀고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고 한참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통이 좋아지니까 영통에서 안 놀고 서울이나 뭐 인계동도 가고, 지하철 첫차 타고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 소비패턴이 야행성이니까 밤새 그쪽에서 놀고,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 들어오고 나서 상권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좀 어렵더라구요 처음에는. '지하철 생기면 상권이 좋아지겠구나.'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혜택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좀 회복이 된 거죠.(50대 후반, 중심상가에서 주점 운영)

앞서 언급했듯이 영통역 일대 유흥업은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을 그 대상으로 해 왔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에게 서울로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편이 생겼다는 것은 지역 상권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게다가 영통역 유흥상권은 그 안 집객 역할을 톡톡히 해 왔던 대부분의 유흥 집객시설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역에 밀접하게 위치한 대형 마트와 대형 매장들과 달리, 유흥상권에는 오히려 영통역 개통에 따른 일종의 '빨대효과(straw effect)'[8]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통역 중심상가의 유흥업소들은 한동안 불황을 더 견뎌야 했다.

물론 영통역 개통 이후 유흥상권의 불황을 빨대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상인들이 당시 느낀 감각은 영통역 개통의 기대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당시 음주, 유흥문화의 변화도 불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과 직장인들이 주로 찾았던 영통역 유흥상권의 특성상, 대학과 직장 내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모임과 회식의 감소도 상권 약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4. 글로벌 팬데믹과 영통동 중심상권

> 김태호(가명) 아마 여기는 당분간은, 영통 상권 괜찮을 거예요. 이게 박스라 그러잖아요?(다른 지역으로 소비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배후지가 확실한 상권) 인계동도 박스라 그러고. 영통도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 박스 안에서 좀 더 옮겨가면 또 있고 경희대 앞에도 있고 상권들이. 조금만 더 가면 팔달, 망포역 그쪽에도 상권이 있고. 영통(중심상가)은 늘 중심(지역권에서)이고 제일 유동인구들이 많고.(50대 후반, 중심상가에서 주점 운영)

형성 초기 화려한 부흥의 시기를 맞았던 영통역 중심상가는 몇 번의 부침을 겪었지만, 풍부한 배후 소비지, 편리한 접근성 등의 기본 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9]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영통역 중심상가의 상점수는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유흥업이 밀집된 영통역-④(직녀광장 일대) 상권의 상점수는 2016년 426개였던 것이 2020년 1,029개로 58.6%라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안정과 회복세를 보이던 중심상가의 유흥상권은 2020년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례 없는 극심한 위기를 맞이한다. 2019년 말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2020년 초에 들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선언을 한 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지책으로 대응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대규모 집합 행사의 금지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높은 전염성을 특징으로 하는 탓에 사회 전반에 학교, 종교기관, 직장 등에서의 대규모 전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영통역 주변 풍경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출퇴근 시간대를 전후로 하여 여전히 붐비기는 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낮 시간 중앙상가 거리에 눈에 띄던 학생들도 학원, PC방 출입을 자제하였다.

유흥업은 식당, 카페와 함께 밀집도가 높은 지역,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운영되는 특성 탓에 특정 인원 이상 집합금지로 규제를 받는 등,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심야까지 운영되는 유흥업의 특성상, 집합금지와 함께 이루어진 영업시간 규제는 유흥업에 이중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 김태호(가명)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짧아지니까 영업시간 제한에 걸리니까 장사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심때부터 하는 게 아니니까. 6시간 장사해가지고 타산이 나오냐고. 그렇다고 기존에 우리 가게 일하시는 분들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영업시간이 주니까 일하는 시간도 줄어서 그분들도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분들도 힘들었고 우리도 힘들었죠.(50대 후반, 중심상가에서 주점 운영)

저녁시간에 주로 영업을 하는 유흥업에 영업시간 규제는 업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직원을 고용하는 업장의 경우, 고용인들 역시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또 팬데믹 이전까지 상승세에 있었던 영통 상권이었기 때문에 업주들의 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낮 시간대 유흥상권 골목 풍경



유흥상권 업종

대표의 부담도 상당하였다. 팬데믹 초반까지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며 버텨 왔던 유흥상권이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소비 스타일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방역 대책으로 인해 이른 귀가를 하게 된 사람들은 유흥상권에서 하던 소비의 대체재로 편의점이나 배달음식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식품시스템연구부(KREI)의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후반부인 2021년 10월까지의 배달앱 사용시간은 3,371만 시간으로,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의 사용시간인 1,554만 9,000시간에 비해 116%라는 급증세를 보였다.[10]

유흥소비를 위해 업장에 가는 대신에 집안에서 해결하는 일이 빈번해 지면서 배달시장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구책으로 조금이라도 매출을 늘려보고자 배달을 시작하는 영통 유흥상가 상인들도 늘어났다.

김태호(가명) 원래 배달을 안 했었어요 저희 집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시작했죠. 지금도 배달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원래 예전부터 테이크아웃을 하긴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배달 건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기존에 우리는 와서 싸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달을 마음 같아서는 해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더라구요. 코로나 때는 살아남으려면 배달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50대 후반, 중심상가에서 주점 운영)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던 업체가 아니라도 비교적 쉽게 배달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도 진입에는 비용 장벽이 존재한다. 서비스 사용료와 광고료, 배달 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인데, 준비 없이 뛰어들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업체 간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경쟁이라

GRI 국토연구센터

는 면에서 영통역 유흥상권은 배달을 계속해 오던 업장, 주택가와 밀접한 업장에 비해 불리한 점도 많았다. 유흥상권의 경우, 임대료도 비쌀뿐더러 주택가와 거리가 있고, 또 배달을 통한 주류 판매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상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배달을 시도하기도 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가족들을 동원하는 등, 가용한 자구책들을 동원하며 버텨 나갔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대출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다.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기약이 없다는 것이 버티는 데 가장 힘든 점이었다고 한다. 해소 기간이 눈에 보인다면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견디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손해를 계속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장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김태호(가명) 결국 버틴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거죠 장사도. 그냥 마음을 비우고 견디면 끝나겠지, 정상화되겠지. 그나마 지금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와서.(50대 후반, 중심상가에서 주점 운영)

2~3차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차츰 바이러스의 기세도 수그러들었다. 정부의 제한조치도 완화됨에 따라 상인들의 숨통도 점점 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를 낳았다. 그나마 다른 곳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하지만 영통역 유흥상권 곳곳에도 폐업하는 업장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장소에는 또 다른 시대적 트랜드에 맞춘 다른 상점들이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

5. 영통역 중심상권의 성장을 위하여

김태호(가명) 내가 알기로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걸로 아는데, 장사들 안 되어서. 물론 영통도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나마 다른 지역의 상권보다는 좋고, 장사를 접은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가게로 채워지는 건데, 최근에 체인점들 프렌차이즈 메이저들이 몇 개씩 들어오는 거 보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옆에 바짝바짝 긴장들을 하죠. 한 건물에도 맥주 집이 몇 개씩 있는데 이제 메이저 맥주 집이 들어와 버린 거죠. 요즘 들어 다 그런 형태들이더라구요. 체인점 아니면 장사가 힘드니까, 다들 체인점에 의존들을 많이 하죠.(50대 후반, 중심상가에서 주점 운영)



시민들과 영통역 상권 전경(2023년)

영통역 중심상가는 신도시 상권으로서 초창기의 호황과 몇 번의 부침을 지나 지역 중심상권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대형 마트, 대형 매장들은 안정적인 생필품의 소비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외식, 유흥상권은 최근에는 회복세에 들어섰고 비록 과거 호황기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다시 중심상가 거리의 밤을 밝히고 있다. 상권의 전반적인 모습은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영통동 상인들 개개인에게는 희비가 엇갈렸다. 어떤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떠났고, 어떤 상인들은 견뎌낸 끝에 다시금 매출의 상승을 끌어냈다. 그리고 누군가가 떠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점포가 다시 들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모습은 과거에는 비교적 영세상인 중심이었던 유흥상권에 새로이 입점하는 프렌차이즈 업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새롭게 자영업에 도전하는 상인이나 다시금 뛰어드는 상인 모두, 실패가 없는 안정적인 사업을 원한다. 때문에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 하는 유흥업에서 프렌차이즈화는 일종의 흐름이기도 하다. 힘든 시기를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버티고 살아남은 주변 상인들은 이렇게 새롭게 상권에 진입하는 프렌차이즈에 손님을 빼앗길까 긴장도 하고 견제의 눈초리를 보낸다. 너무도 빠른 변화와 더불어 인터넷 뉴미디어 기반의 홍보가 중요한 '핫플레이스 경쟁'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상권의 회복기는 또 다른 경쟁의 장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공실 없이 새로운 경쟁에 돌입하는 영통역 유흥상권이 보여 주는 것은 그만큼 영통역 중심상가가 풍부한 소비지를 배후에 두고 있는 안정적인 입지임을, 그리고 안정적인 입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음을 방증한다. '영통 상권은 박스'라는 영통동 상인의 말처럼 영통역 상권은 앞으로도 굳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경쟁의 확산 속에서 임대료, 프렌차이즈 계약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상권 전체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박스'라 불리는 안정적인 상권도 예외가 아니다. 모처럼의 회복세에 들어선 영통역 상권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지역경제 주체인 상인들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서진형·조춘한, 2019, 「대형 마트 출점이 주변 점포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통물류연구』 6(3), 5~19쪽.

「나이트클럽 신장개업에 뚜껑 열린 사람들」, 『브레이크뉴스』 2007년 9월 28일.

「'분당선 연장 개통' 영동-왕십리 상권, 희비」, 『서울파이낸스』 2013년 1월 15일.

「영통 보보스플라자」, 『수원신문』 2003년 3월 18일.

「수원지법, 영통 '뚜껑 나이트클럽' 현장검증」, 『수원일보』 2009년 1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한국토지개발공사, 1995, 『영통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원시정연구원, 2016, 「수원시 지역경제(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원시정연구원,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농식품시스템연구부(KREI), 2021, 「코로나19 발생 전후 배달/온라인 소매유통 애플리케이션 사용시간 변화 분석」.

통계청, 2015, 「현 거주지별/성별/통근통학지별 통근통학 인구」, 『인구총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505&conn_path=I2).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통계 자료실(http://www.kric.go.kr).

주

1. 한국토지개발공사, 1995, 『영통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73쪽.
2. 수원시정연구원,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24~134쪽.
3. 집객시설이란 병원, 영화관, 백화점 등 다수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을 의미한다.
4. 수원시정연구원,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29쪽.
5. 통계청, 2015, 「현 거주지별/성별/통근통학지별 통근통학 인구」, 「인구총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505&conn_path=I2).
6. 서진형·조춘한, 2019, 「대형 마트 출점이 주변 점포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통물류연구』 6(3), 5~19쪽.
7.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통계 자료실(www.kric.go.kr).
8. 새로운 교통수단의 연결로 지역 간 교류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소비, 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10. 농식품시스템연구부(KREI), 2021, 「코로나19 발생 전후 배달/온라인 소매유통 애플리케이션 사용시간 변화 분석」.

03 영통동 학원가의 형성과 운영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영통동의 지역 특성과 교육 인프라

1) 지역적 특징 : 빠르게 성장한 젊은 신도시

이 글에서 다루는 영통동 지역은 수원시 동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지역인 '영통지구'를 지칭한다.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 가격 상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추진, 대규모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5개의 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이후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영통지구이다. 영통지구는 대부분 공동주택지로 개발되었으며, 영통역을 중심으로 봉영로를 따라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대형 마트와 쇼핑몰이 위치한 영통역사거리를 중심으로, 영통동 중심상가에는 식당가와 학원가가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 사이마다 반달공원·영흥공원 등의 공원시설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입주가 시작된 1997년 12월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영통지구는 상업, 여가, 교육 시설이 복합적으로 잘 갖추어진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영통지구도 초기 분양률이 다소 저조했으며, 입주 초기에는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영통지구

는 1990년대 말 경기 회복과 더불어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입주를 기점으로 하여 2000년대 초중반 대형 마트 및 멀티플렉스 개점, 분당선 개통 등 빠르게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반적인 신도시의 경우 지역 개발과 아파트 건설 이후 상권 형성 등 정주여건의 안정화까지 10~15년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해, 영통동은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지역 전체의 개발과 입주가 이루어졌으며 입주한 주민들의 사회 계층적 특성이 균질하여 이 지역의 안정성도 빠르게 갖춰질 수 있었다고 한다.[1]

2) 균질한 주민 구성과 교육 인프라의 발달

영통지구 개발에 따라 영통동에는 1997년 첫 입주 시기를 전후로 하여 1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 2022년 현재 초등학교 8개소에 5,000여 명, 중학교 5개소에 3,000여 명, 고등학교 4개소에 3,2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표 1> 2022년 영통동 소재 초·중·고등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개교일	소재지	학급수	학생수(명)	학급당 학생수(명)
초등학교	신성초등학교	1997.12.01.	청명북로 42	17	359	21.1
	신영초등학교	1997.12.01.	영통로 266	20	460	23.0
	영덕초등학교	1997.04.01.	영통로 438	31	825	26.6
	영동초등학교	1997.12.01.	봉영로1517번길 40	46	1,128	24.5
	영일초등학교	1997.03.03.	덕영대로1673번길 17	24	590	24.6
	영통초등학교	1997.12.01.	영통로 328	21	463	22.0
	청명초등학교	1997.01.04.	봉영로1744번길 41	22	511	23.2
	황곡초등학교	1996.12.01.	영통로 518	32	728	22.8
	계		8개소	213	5,064	
중학교	영덕중학교	1997.12.01.	청명로 146	32	971	30.3
	영일중학교	1998.03.01.	매영로 393	22	680	30.9
	영통중학교	1997.12.01.	영통로 316	12	248	20.7
	청명중학교	1997.12.01.	청명북로 118	19	516	27.2
	태장중학교	1997.12.01.	봉영로1517번길 45	22	612	27.8
	계		5개소	107	3,027	
고등학교	영덕고등학교	1998.01.15.	매영로 334	37	954	25.8
	청명고등학교	1998.01.15.	영통로 466	39	910	23.3
	태장고등학교	1998.03.04.	영통로 250	38	954	25.1
	수원하이텍고등학교	2000.03.06.	청명북로 56	24	443	18.5
	계		4개소	138	3,261	

비고: 수원외국인학교 제외



영통동 학교 현황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일중학교



영덕중학교

한편 공교육 시스템과 결합하여 영통동 상업지구에는 '수원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학원가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즉 영통동은 입주 시기 및 지리적 위치, 주변 지역과 연결된 교통망 등의 외부 환경 요건이 학군으로서의 가치를 높였고, 특히 영통동 소재 중학교들은 자사고 및 외국어고·과학고 등 명문대 진학의 발판이 되어 줄 고등학교 진학에 좋은 성과를 내왔다.

영통동 학원가가 '수원 지역 최대 학원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 전후였다. 이즈음 영통동 거주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등 주변 대학 재학생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통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영통지구 인근의 삼성전자 본사 및 연구원과 사업체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 부부들의 교육열은 영통동 학원가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에서 수원역 방향 대로변에 보습학원이 밀집해 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신설되었던 영통동 소재 중학교들은 '수원의 명문'으로 손꼽히며 이 지역을 경기 남부권의 핵심 학군으로 부상하게 만든 주요 요소가 되었다. 특히 영덕중학교와 영일중학교는 2010년대 이후 수원시에서 학업성취도 최상위권을 줄곧 유지해 온 명문으로 손꼽힌다.[2]

8년가량 이 지역에서 국어논술학원을 운영해 온 최원용 원장은 이 지역 중학교가 어떻게 영통동을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의 중심 학군으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 짧게 설명하였다.

연구자 영통 지역이 경기도에서도 최고의 학군으로 손꼽히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주변 중학교들을 명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원용 여기 영일중이랑 영덕중이 가장 유명한데요, 자사고나 외고를 많이 보내기로 유명해요. 학생들이 워낙 출중하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요. 사실 대입은 중학생 때부터가 중요하죠.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대학 입시 결과도 결정되고. 고등학생 때부터 하려고 하면 늦어요.

즉,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학업 분위기 및 내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나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일명 '특목고' 진학은 상위권 학생들의 명문대 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에서의 성과 관리가 무엇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학원 홍보로 내세워지는 과학고·외고·영재고 진학자

그렇다고 해서 영통신도시 내 고등학교들의 학업 분위기나 입시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00년대 중후반 영통동과 망포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박유진에 따르면, 고등학교별로 집중적으로 내세우는 과목이 있었고, 영재반을 운영하여 상위권 학생들을 따로 관리했다고 한다. 태장고등학교는 수학과 과학 교육에 중점을 둔 '과학중점고등학교'라는 특징이 있으며, 영덕고등학교는 '입결(입시결과)'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또한 영통구에 상대적으로 소득과 학력이 높은 중산층 가정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은 높은 교육열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영통동으로 하여금 수원시 교육의 메카라는 명성을 쌓아 가는 바탕을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의 통계를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평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종합적으로 측정한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이 중 사교육비 지출 및 사회적 계층 의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는 최근 5년(2017~2021년)의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참조하면 영통구의 주민들은 다른 3개 구에 비해 응답자의 교육정도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사회적 계층 의식 또한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1년도 사회조사를 참고할 때, 영통구 지역 가구의 학력 분포와 소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사교육 전문가의 견해와 학부모의 견해가 일치하는 지점을 보였다. 청명마을(3단지) 벽산삼익아파트에서 동대표로 일한 이력을 지닌 이경순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학 입시의 승부 시점을 중학교로 간주하는 학부모들이 영통 지역 중학교의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이경순 이제 여기가 왜 학군이 좋다고 하느냐, 학군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는 중학교 학군이 좋아요, 이제 고등학교는 안 좋아. 왜냐하면 (…) 여기가 주로 삼성(전자) 사무실, 연구원이 있는데 (…) 아무래도 남편, 아빠들 머리가 좋으니 자녀들도 머리가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열도 높고. 중학교는 전국으로 쳤을 때 시험 성적이 좋다, 그러는데 중학교에서 잘한 애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안 가고 다 외고니 뭐니 빠져서 고등학교는 (명문이) 없어요.

먼저 교육 정도에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영통구 주민이 55%로, 주민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머지 3개 구에서 대졸 이상 학력 보유 주민들이 40% 이하(장안구 37.9%, 권선구 40.5%, 팔달구 36.1%)인 것과 비교하면 고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영통구 지역에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9.5%에 달하여 다른 3개 구(장안구 23.6%, 권선구 19.8%, 팔달구 18%)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 영통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층 의식에서 자신을 상류층 혹은 중상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37.1%)은 다른 3개 구(장안구 20.1%, 권선구 26.7%, 팔달구 18.6%)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4]

수원시의 4개 구 중 영통구 주민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통신도시가 수원시 내 사교육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젊은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만족시키며, 이 지역으로의 이주 또는 지속적인 거주를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영통구는 권역별 교육환경 만족도에 관한 3개의 항목에서 모두 평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먼저 보육환경 만족도에서 경기도 평균 76.6%, 수원시 평균 80%와 비교하면 영통구는 81.6%로 각 평균값을 상회하며, 공교육 환경 만족도에서도 영통구는 76.8%가 보통 또는 만족한다는 대답을 하며 장안구를 제외한 다른 구들 및 경기도와 수원시의 만족도를 뛰어넘었다(〈표 2〉, 〈표 3〉 참고).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즉 사교육 부문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영통구는 다른 3개 구 및 경기도와 수원시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고).[5]

<표 2> 보육환경 만족도(미취학 아동의 부모만 응답)

(단위 : %)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경기도		23.3	45.8	30.8
수원시		20	48.6	31.4
권역별	장안구	28.7	36.5	34.9
	권선구	17.6	53.2	29.2
	팔달구	21.8	48.6	29.5
	영통구	18.4	48.6	33.0

자료 : 수원시, 2021, 「19-1. 교육환경 만족도」, 『2021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S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표 3> 공교육환경 만족도(초중고 학부모만 응답)

(단위 : %)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경기도		27.3	49.8	22.9
수원시		25.7	47.0	27.2
권역별	장안구	18	42.6	39.4
	권선구	33.5	47.2	19.3
	팔달구	28.1	40.7	31.2
	영통구	23.2	50.6	26.2

자료 : 수원시, 2021, 「19-1. 교육환경 만족도」, 『2021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표 4> 학교교육 이외 교육 만족도(초중고 학부모만 응답)

(단위 : %)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경기도		41.2	40.6	18.2
수원시		40.5	34.4	25.1
권역별	장안구	33.1	31.9	34.9
	권선구	51.7	32.8	15.4
	팔달구	59.1	24.4	16.6
	영통구	31.7	39.1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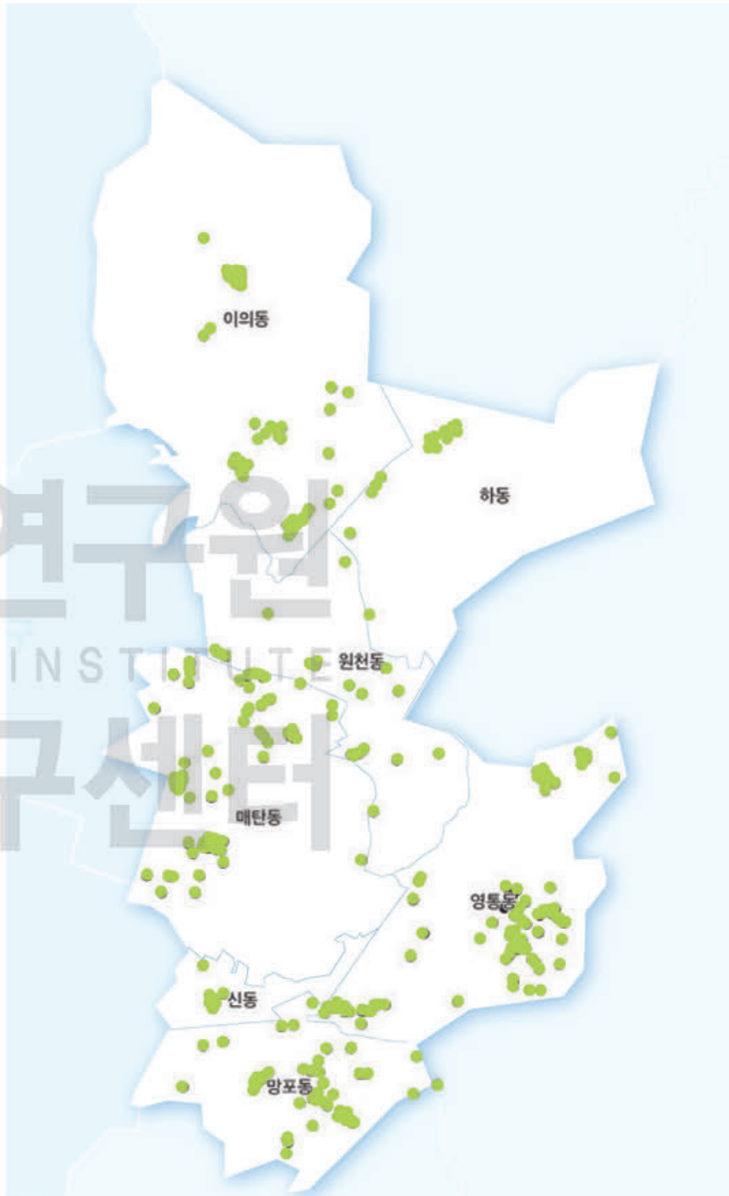
자료 : 수원시, 2021, 「19-1. 교육환경 만족도」, 『2021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2. 영통동 학원가의 현황과 운영

1) 영통동 학원가 현황

영통동 학원가의 현황 및 운영에 대해 살피기 전, 먼저 본문에서 주로 언급되는 '학원'에 대한 정의를 짚고자 한다.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근거, "개인이나 사적인 재원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기술, 지식, 예능, 기능을 교육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 정의된다. 학원의 유형은 크게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뉘는데 본문에서 다루는 학원은 주로 학교교과 교습학원 유형이다.

『경기교육통계』를 참고하였을 때, 1998년 수원시 내 사설학원은 모든 분야를 아울러 총 1,465개였으며, 그 중 학교교과 중심으로 가르치는 입시·보습(문리계) 분야는 274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2년 자료에 따르면 입시·보습(문리계) 분야 사설학원은 511개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그 중 당시 영통동이 속해 있던 팔달구의 문리계 학원의 수는 196개로 수원시 내 3개 구 중 가장 많은 학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2022년 8월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전체 학원수(보습소 제외)가 2,297개소에 달하며, 그 중 영통구 소재 학원은 983개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통구 소재 학원의 34.3%인 337개소가 영통동에 개설되어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중심상업지역에 소재한 15개 건물에 밀집되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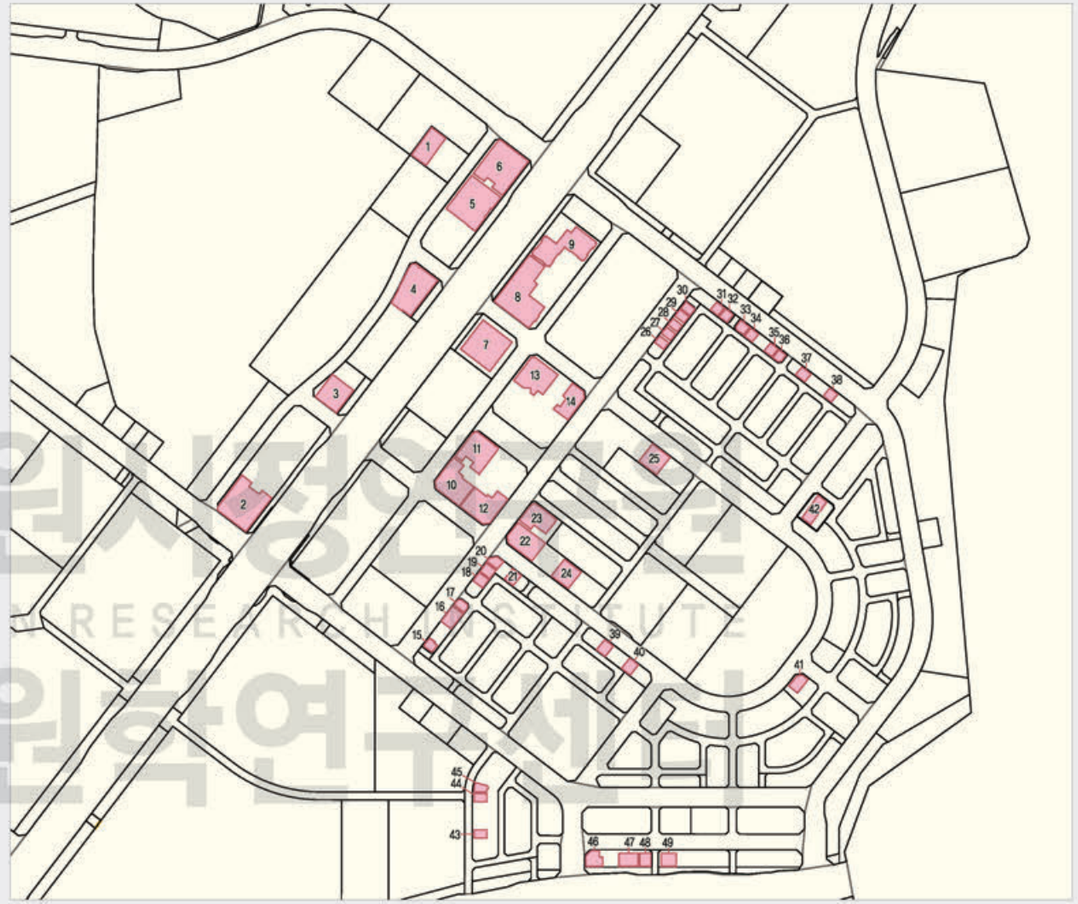
영통구 학원 분포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5> 영통동 중심상업지역 학원

(2022년 8월 기준)

1	**매영로345번길 111** 피켈바른공부자습전용관독서실, 피켈학원, 수학에미친사람들학원
2	**봉영로 1569** 청아원수학학원, 프라미스영어영통학원, 씨앤케이영어전문학원, 이프랩영어전문학원, 크레아미술학원, 대치김태호삼학원, 대치학원, 에스에스엠실용음악학원, 영통바리스타커피전문학원
3	**봉영로 1587** 맥티스교육학원, 위즈아일랜드영통학원, 이자경수학영통학원, 영통중상이언어학원, 더나은학원, 영통경기간호학원, 이플러스영어전문학원, 이플러스제사관영어학원, 스카이최상학원, 피에스투영어학원, 영통요미요미미술학원, 청담어학원, 리체움독서실, 이자경수학영통이관학원, 에픽아카데미학원, 영통서울음악학원, 이플러스제이관영어학원, 마스터청담어학원, 청담주니어영어학원, 영통에이프릴어학원
4	**봉영로 1605** 수학여행학원, 그랜드음악학원, 엠코드수학하이모던학원, 엠코드수학모던학원, 와이즈만영재교육수원영통학원, 이투스투포세븐학원, 유피수학학원, 알케미스트이언학원, 영통이언학원, 이안서가학원, 지니어스학원, 영통더웰간호학원, 미술로생각하기영통학원, 아담리즈수학학원, 아발론교육영통어학원, 하우스터디영통센터독서실, 수원영통에이닷영어학원, 디와이비최선어학원, 이강학원입시센터학원, 온더데스크영통독서실, 가온학원
5	**봉영로 1617** 위니외국어교육원격학원
6	**봉영로 1623** 모던실용음악학원, 피켈영통학원, 국어팩토리학원, 엠코드학원, 사과나무피아노전문학원, 혜윰영어전문학원, 매쓰코드학원, 로봇영재과학학원, 엠코드하이학원, 매쓰그랑제꼴학원, 러셀영통학원, 러셀바른공부자습전용관독서실, 영통모던케이댄스실용음악학원, 영통모던케이실용음악학원, 와와학습코칭학원, 더엠코드학원, 나비발레학원, 혜윰국어논술전문학원, 이챕터스학원, 예스어학원, 학습능력개발학원, 희망보습학원, 폴리어학원
7	**봉영로 1606** 오감랭귀지영통점학원
8	**봉영로 1612** 이자경수학영통고등관학원, 수학의아침사이언스카이영통프리미엄캠퍼스제2학원, 수학의아침사이언스카이영통프리미엄캠퍼스제1학원, 김종호수학학원, 이자경수학영통고등본관학원, 봉쌤과학학원, 봉쌤과학고등관학원, 김문호수학학원, 탑벤에듀영통점학원, 블루플래닛어학원, 씨엠에스학원, 십칠층의기적영어학원, 엠플수학학원, 수원영통아이들의작업실미술학원, 튜관현악전문학원, 피케이수학전문학원, 전문가집단학원, 리드인문따국어학원, 와이키즈수원영통학원, 아트파이브학원, 영통시사어학원, 영재교육학원, 소마수학학원, 윤혜경음악학원
9	**봉영로 1620** 엠코드고수전문관학원, 경선식에듀학원, 엠코드프리미엄학원
10	**반달로7번길 6** 단소야국악학원, 렘브란트의풍차미술학원, 웰쓰리학원, 최용훈국어전문학원, 리디튜드영어학원, 에리카어학원, 나무기둥학원, 키즈스피치마루지영통학원, 포스영어전문학원, 영통이화발레학원, 마루게임학원, 미래수수학학원, 기파랑문해원수원영통학원, 아카데미라운지수원영통독서실, 영통이화무용학원



영통동 중심상업지역 학원 밀집건물

11	**반달로7번길 16** 영통백석학원, 와이즈리더영어학원, 천일문라이브러리영통점독서실, 수원영통박문각행정고시학원
12	**청명남로 21** 멘사사고력교육학원, 명인학원, 국대초중등학원, 매쓰플랜수학학원, 나다고등국어논술학원, 공감입시학원, 트리탑스과학전문학원, 영통대찬학원,
	명인스카이수학학원, 국어의대표학원, 국대국어학원, 아이엠아이영어학원, 파이드로스영통수학학원, 영통대찬플러스학원, 나다논술학원, 펜타스과학전문학원, 코치미학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13	**반달로7번길 40** 경기아이티디자인학원, 사랑애실용음악학원, 리틀보이스스피치영통점학원, 카툰시드미술학원, 매쓰온수학전문학원, 영통애플부동산경매학원
14	**청명남로 39** 넥스텝어학원, 카이댄스학원
15	**청명남로 4** 나다움미술학원, 루트수학의대관학원, 한스레벨업학원, 생각하는황소영통수학학원
16	**청명남로 8** 대치본수학제이관학원, 제이엠시스템영어전문학원, 새봄수학학원, 새봄수학고등관학원, 엠오엠수학학원
17	**청명남로 10** 상상그이상수학학원, 엠오엠수학전문학원, 상상그이상수학고등관학원
18	**청명남로 14** 케이튜터수학영통관학원, 보니타네일미용전문학원, 스텝영어학원
19	**청명남로 16** 엘탑영수전문학원, 로뎀수학학원
20	**반달로 22** 최강수학전문학원, 수원한박사논술학원
21	**반달로 26** 큐브문예창작논술학원, 제이홀릭영어학원
22	**반달로 21** 오하운플댄스영통망포점학원
23	**청명남로28번길 2** 스터디플래닛수원영통독서실, 경기반려동물실용전문학원, 에스입시영어학원, 에듀코치개별지도영통학원, 토즈영통스마트독서실, 일본명문대학으로가는길일공학원, 더마에스트로수학전문학원, 울림연기학원, 셀프스터디독서실
24	**반달로 29** 전형각수시논술학원, 강남플러스학원, 창언어논술학원, 씨큐브코딩수원영통학원, 늘푸른수학학원
25	**반달로 105** 잇올스파르타관리형프리미엄독서실, 잇올스파르타독학재수학원, PK대치스파르타독서실
26	**청명남로 52** 인트엔터테인먼트학원
27	**청명남로 54** 문지영영어학원, 아트그로우미술학원, 아우라댄스학원
28	**청명남로 56** 영통위너스학원, 행복한학생학원
29	**청명남로 58** 엘디제이영어학원, 연세랑학원
30	**청명남로60번길 2** 그루학원
31	**청명로 87** 김창훈수학학원
32	**청명로 85** 피그마리온학원, 안스바이올린학원, 국어팩토리제이관학원, 권인재수학아카데미학원
33	**청명로 83-1** 인트엔터테이먼트학원
34	**청명로 83** 황선생영어학원, 유레카수학과학전문학원, 대치스마트에듀영통점학원
35	**청명로 79** 줄리영어전문학원
36	**청명로 77** 영통명진학원, 올리더스학원
37	**청명로 73-1** 아이아트영통미술학원
38	**청명로 69** 하우스바이타운학원
39	**반달로 40** 오일러학원, 골드방수기능사전문학원
40	**반달로 44** 지혜의숲사고력논술전문학원, 겨자씨자라큰나무미술학원
41	**청명로1번길 19** 해담에듀케어센터학원
42	**청명북로 6** 영통이오에스외국어학원
43	**덕영대로1673번길 16** 영일연세음악학원
44	**덕영대로1673번길 26** 에리카학원
45	**덕영대로1673번길 28** 미소음악학원
46	**덕영대로 1689** 아키온미술학원
47	**덕영대로 1693** 초중등목우미술학원
48	**덕영대로 1695** 영통목우미술학원
49	**덕영대로 1699** 오지댄스학원

영통동 중심상업지역 학원가의 범위는 크게 두 구역, 즉 영통동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상업지구, 그리고 영통역이 위치한 봉영로를 따라 길게 뻗은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업지구 및 대로변 학원가는 양 옆으로 아파트 대단지와 학교들을 끼고 있으며, 주변에는 수원가정법원, 수원우편집중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동수원세무서 등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분포하고 있다. '학원가'로 통칭하는 구역은 아파트 단지처럼 완전한 구획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종류의 사설학원들이 상가 건물 내 병원이나 식당, 유흥업소와 함께 뒤섞여 공존하면서 불규칙한 형태로 위치하여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통동 중심상업지역 학원 밀집건물의 입점업체 안내판

일견 학원들은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립된 구역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도시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와 같이 상업지구 내에서 다른 상업시설들과 혼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영통지구처럼 20년 이상의 시간을 간직한 도시공간은 도시 구성원들의 움직임과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분명해 보였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섞여들어 어느새 그 도시만의 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의 시선에서 볼 때 학원과 음식점, 술집 및 노래방 등이 뒤섞여 있는 도시 경관은 낯설게 느껴지면서 동시 에 이곳이 과연 '학원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당연한 풍경이다.

연구자 학원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돌러보니 유흥가도 제법 많던데요,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최원용 그건 아시겠지만 여기 법원이나 세무서 등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유흥업소가) 많았어요. 손님도 많이 오고 접대도 해야 하니까. 하지만 (시간대가) 겹치지도 않고, 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거랑 그런 곳들에 사람들이 가는 때랑 달라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2) 영통동 학원가의 운영과 변화

이와 같은 현재의 학원가 경관은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2000년대부터 지역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학원과 상점들이 혼재한 상가(반달로7번길 16, 이폴리스)



학원이 위치한 복합상가(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내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함께 변형되어 온 결과이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인 김희영은 과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영통에서 학원을 다닌 바 있다. '영통 토박이'답게 김희영은 학원가의 변천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풀어 놓았다.

김희영 영통역 뒤에 지금 유흥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학원가였는데 이제 거의 유흥가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학원들이 밀려난 게 사실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그 건너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연구자 지금 가정법원 있는 그쪽(길 건너) 편?

김희영 네. 그쪽엔 원래 소규모, 중소규모 학원들이 많았고,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이 차리는 학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최선어학원이나 메가스터디 이렇게 굵직굵직한 학원들이 그쪽(길 건너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유흥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건물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대로 건너편) 같은 경우 거의 다 병원을 상대로 지어진 건물들이었거든요. 그 병원들이 빠지고 나니까 그 부지를 대형 강의실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다 학원이 들어섰던 거예요. 그런 곳들의 좋은 점은 학원 차들이 기다릴 수가 있기도 하고요. 원래는 그 장소(주: 대로 건너편 가정법원과 병원 건물들이 위치한 부지)는 공항버스랑 마을버스들이 정차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도 끊기고 공항버스도 정류장이 따로 생기면서 거기가 교통이 원활해지고 어쨌든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로 대형학원들이 들어온 거죠.

즉, 2000년대 중반에는 지금의 상업지구에 위치한 학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중소 규모 학원들이 상가 밀집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부터 기업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점진적으로 진입하였고, 2022년 현재 영통동 소재 학원 337개소 중 23.4%인 79개소가 60개의 주식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법인들이 운영하는 대형 학원들은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병원 용도로 새롭게 지어진 좀 더 크고 넓은

ORI 수원학연구센터



영통동 학원의 학부모 설명회

건물을 찾아 이동하게 되었다. 마침 이 시기에 지역 내 환경 정비를 통해 마을버스나 공항버스 등이 서는 정류장의 위치도 바뀜으로써 대로변에 가까운 건물일수록 학원 버스들이 주정차하기에도 용이하다는 것도 학원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성장한 고유 브랜드 학원과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한 건물에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그려내며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영통동 학원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통동 학원가의 특징은 특정 학원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원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학원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소규모 보습학원부터 대형 입시학원까지 각각의 역할을 고르게 분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통동 학원가의 공존과 다양성이 가능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유 있는 선택들이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유진 영통에는 공부방도 많고 학원도 되게 많아서, "이 학원 잘한대."라고 소문이 나도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한다." 유명하다고 추천해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보다는 친구들 가는 곳에 같이 가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은 곳. 왜냐하면 그 학교 학생들이 많다는 건 해당 학교 맞춤형 수업을 잘 해 준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많이 없었고, 이제 막 들어와서 붐을 일으키던 시기였어요.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에게 "너도 같이 최선어학원 다니자. 여기 한송이 선생님 있어."라고 하니까 친구 어머니가 공장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그(대형)학원의 커리큘럼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는 영어 못 해, 집중 케어해야 돼."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대형 학원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학원이 너무 커서 학생들에게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할 것이라는. 중소형 학원은 어쨌든 한 반에 5명이 넘지 않으니까 집중 케어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취향에 맞게 학원을 갔던 거예요. (…) 이름은 없지만 노하우가 있고 연륜 있는 학원을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체계적이지만 전문적으로 잘 가르치는 곳을 가느냐 하는 그런 느낌.

영통동 학원가는 한국 사교육 주체들의 변화된 모습, 즉 오래된 소규모 학원들과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의 공존을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사교육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사교육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교육 영역이 본격적인 자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대 초반부터 경쟁력 있는 사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가진 기업화된 대형 학원들이 영통동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영통신도시 형성기부터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소규모 학원들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파악하고 분석해 온 지역 교육 및 소비자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학원들의 공격적 진입에도 굴하지 않고 각자 세부적으로 분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표 6> 2022년 영통동 소재 법인 운영 학원

연번	법인명	학원명	연번	법인명	학원명
1	(주)612어학원	육일이어학원	16	(주)이강에류	이강학원입시센터학원
2	(주)경선식에듀	경선식에듀학원	17	(주)이언에듀케이션	영통이언학원, 영통중상이언어학원
3	(주)나다논술학원	나다논술학원	18	(주)인재	가온학원
4	(주)넥스큐브코퍼레이션	셀프스터디독서실, 에듀코치개별지도영통학원	19	(주)창의와탐구	와이즈만영재교육수원영통학원, 와이키즈수원영통학원
5	(주)대교	눈높이러닝센터청명학원, 수원영통신나무실러닝학원, 눈높이러닝센터영통학원	20	(주)칠드런스뮤지컬퍼니	글리트영어원영통브릿지어학원
6	(주)대치김태호학원	대치김태호삼학원	21	(주)펜타스과학	펜타스과학전문학원
7	(주)디쉐어	수원영통에이닷영어학원	22	(주)플리이에스씨	플리어학원
8	(주)리딩홀딩스	맥티스교육학원	23	리체움교육(주)	리체움독서실
9	(주)마스터	마스터청담어학원	24	린스쿨 주식회사	허린음악학원
10	(주)메가스터디교육	러셀바른공부자습전용관 독서실, 러셀영통학원, 피켈바른공부자습전용관 독서실, 피켈영통학원, 피켈학원	25	메이플라워 주식회사	수학의아침사이언스카이영통프리미엄캠퍼스제1학원, 수학의아침사이언스카이영통프리미엄캠퍼스제2학원
11	(주)메인엔터테인먼트	사랑애실용음악학원	26	베리타스주식회사	집현전독서실
12	(주)세종앤컴퍼니	영통세종학원	27	새로남영통이씨씨어학원 주식회사	새로남영통이씨씨어학원
13	(주)쎄듀	천일문라이브러리 영통점독서실	28	에스지청운 주식회사	에스지청운학원
14	(주)오일러	오일러학원	29	엠오엠교육주식회사	엠오엠수학학원
15	(주)위너스에듀	영통위너스학원	30	주식회사 김문호수학학원	김문호수학학원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연번	법인명	학원명	연번	법인명	학원명
31	주식회사 더명인	명인스카이수학학원	46	주식회사 영통경기간호학원	영통경기간호학원
32	주식회사 동화세상에듀코	와와학습코칭학원	47	주식회사 영통모던케이 실용음악학원	영통모던케이실용음악학원
33	주식회사 매쓰그랑제꼴	매쓰그랑제꼴학원	48	주식회사 울림	울림연기학원
34	주식회사 명인에듀	명인학원	49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웅진씽크빅학습센터 영통학원
35	주식회사 봉쌤과학학원	봉쌤과학학원	50	주식회사 이자경수학 영통학원	이자경수학영통이관학원, 이자경수학영통학원
36	주식회사 블루플래닛	블루플래닛어학원	51	주식회사 지원에듀	일본명문대학으로가는길 일공학원
37	주식회사 슬로우라이프	오하운폴댄스 영통망포점학원	52	주식회사 창의와공감	위즈아일랜드영통학원
38	주식회사 아발론교육	아발론교육영통어학원	53	주식회사 케이수학	케이튜터수학영통관학원
39	주식회사 에스지홀딩스	영통청운학원	54	주식회사 크레버스에프 영통에이프릴	영통에이프릴어학원
40	주식회사 에오스	영통이오에스외국어학원	55	주식회사 크레버스에프 영통청담	청담어학원, 청담주니어영어학원
41	주식회사 에픽	영통대찬플러스학원	56	주식회사 티엔스에듀	이플러스영어전문학원, 이플러스제이관영어학원
42	주식회사 에픽플러스	에픽아카데미학원, 영통대찬학원	57	주식회사 포인트입시미술학원	포인트입시미술학원
43	주식회사 엠코드에듀	엠코드고수전문관학원, 엠코드수학모던학원, 엠코드학원	58	주식회사 프라미스	프라미스영어영통학원
44	주식회사 엠코드하이에듀	엠코드수학하이모던학원, 엠코드프리미엄학원, 엠코드하이학원	59	주식회사 행복한학생	행복한학생학원
45	주식회사 영가에듀	영가스파르타센터수원독서실, 영가스파르타센터수원학원	60	주식회사 잇올	잇올스파르타독학재수학원

한편 대규모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당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사교육 시장 내에서 그 규모를 더욱 확장해 나갔다. 대표적인 사교육 기업 '메가스터디'는 2000년 당시 대치동 학원가에서 인기 있는 대형학원 소속 강사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적극적으로 온라인 강의 모델을 도입하여 전국의 학생들을 거대한 사교육의 세계로 끌어들이며 확장 일로를 걸었다.[6]

최원용 영통에서 대형 학원들은 2013년 이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전에 여기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학원



영통동에 위치한 엠코드학원

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엠코드학원이 있구요. 수학 과목이에요. 규모가 크기로는 청상어학원이 제일 규모가 있고.

영통동 학원가를 대표하는 자생적 브랜드 학원 중 하나인 엠코드(m-code)학원은 2009년 '힘수학학원'으로 시작하여 2013년 'm-code'로 학원명을 바꾸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학 전문학원"을 자처하면서도 이 학원이 강조하는 것은 "한 반 인원이 많아서 대형(학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엠코드학원은 초등·중등·고등 모든 과정에서 반을 세분화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끝까지 개별지도, 관리"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7]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270여 개 과정의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관·중등관·고등대입관·영재대비반·입시관·과학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과정반이 한 건물 내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 영통동 학원가의 특징 중 하나는 이처럼 대규모 학원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가능한 상가건물에 각 용도에 맞는 분관을 배치한다는 점이다.

한편, 특정 시간대가 되면 학원 앞 도로변에서는 각 권역별로 학생들을 태워 가기 위한 노란색 셔틀버스들이 건물 앞에 가득 정차해 있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엠코드학원도 대규모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수원 및 주변 지역의 사교육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아래의 사진은 한가로운 주말 정오에도 바쁘게 운영되는 학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셔틀버스들의 군집이다. 학원 블로그의 공지에 따르면, COVID-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의 경우 여름방학 몰입기간 중에는 셔틀버스가 최소 15대 이상 운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밤 10시 이후 하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추가로 5대의 차량이 운행되었으며, 도로변의 셔틀버스 주정차로 인한 정체현상을 방지하고 승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엠코드 고3 프리미엄관(좌)과 초등관(우)

"2분 전에 도착하여 대기후 안전하게 승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8]

영통동 학원가는 주변의 후기 신도시 지역의 부족한 사교육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사교육 1번지',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대치동과 유사한 지점을 공유한다. 대치동이 한국의 대입 중심 입시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거주지의 '전국화'에 있다. 서울시역사박물관의 2017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에 따르면, 대치동의 학원가 수강생들의 거주지는 강남, 송파와 같은 서울의 다른 지역은 물론, 분당, 용인(수지), 일산, 부산, 대구, 강원 등 전국적인 권역을 가진다고 한다. 대치동 및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소화 가능한 이동거리에 있어 그에 맞춰 매일 등원하며, 각 지역 학생들을 위해 대치동의 수학학원과 분당의 수학학원 시간표가 연동되어 있는 등 학원 간 지역 네트워크가 연계하여 작동하기도 한다. 한편 그 외의 권역(서울·경기권 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로 대치동에 단기간 거주하며 방학이나 연휴 특강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처럼 대치동은 소비자(학생)의 다양한 요구 및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방면의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운영한다.[9]

영통동 학원들도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는 주변 지역과 연계된 대중교통(수인분당선, 광역버스 등), 촘촘한 도로



벽삼삼익아파트 단지 앞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학원 셔틀버스



학원 강의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하차시키는 학원 셔틀버스

SRI 수원리서치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많은 학원이 입점해 있는 영통역 주변 상가 건물(반달로7번길 6 센타프라자)

망 등의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원들의 셔틀버스 연계 서비스가 작동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영통신도시의 아파트에 살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영통동에서 다닌 '영통 토박이'이자, 현재는 망포동의 태장고등학교 인근의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영은 현재 자신의 직업 특성상 접하게 되는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에 따르면 지금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피아노나 태권도 등 예체능 분야나 영어 교습을 받기 위해 영통역 주변의 학원가로 온다고 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영통 학원가는 수원시 주민들의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연구자 지금 유치원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영통에 아이들이 많나요?

김희영 너무 많죠. 아이들 정말 많고. 일단 여기가 교육의 메카이기 때문에, 특히 영통 여기에 학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학원 진짜 많으니까 광고에서도 동탄에서도 영통역으로 학원을 (다니러) 와요. (…) 광고에는 학원이 없어요. 거기는 거의 다 돈 있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고, 애들은 영통역으로!

연구자 영통은 원래 학원이 유명한가요? 사실 유흥가가 반이잖아요.

김희영 그렇죠. 그런데 유흥가로 치면 인계동이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영통은) 일단 밀리고. 학원은 인계동에 (그만큼) 없잖아요. 아이들 학원은 무조건 영통이지.

연구자 망포와 영통, 광교가 모두 집값이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김희영 광교죠. 아이는 제가 영통역으로 운전해서 학원에 데려다 주면 되니까.

엠코드학원과 같은 대형 학원의 경우 20인승 셔틀버스를 대규모로 운행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학원들의 경우 15인승 봉고차를 학원 셔틀로 운행하여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다. 야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은 물론, 야간 교습이 어려울 경우 등교 전 0교시 수업을 개설하여 각 아파트 및 구역별로 학생들을 봉고차에 태워 학원에서 아침 수업을 수강하게 한 다음, 각 학교별로 등교할 수 있게 하는 유기적인 등하교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원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의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영통동 학원가에서도 '대치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타이틀이었다. 또한 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학원마다 학생들의 역량과 필요에 맞추어 각각의 특성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유진 최선어학원이 되게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송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대치동 스타 강사가 영통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한창이었어요. (…) 그 건물에 폴리어학원, 완전 그거였죠, 외국에서 살다온 애들만 가는. 싱가포르에서 살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걔네랑, 해외 생활을 좀 하던 애들이 폴리어학원을 많이 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국내파가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애들 상대로 입시를 하던 학원이었죠. 폴리어학원은 외국 살다온 애들이 다니는 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학원별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최선어학원은 한송이 선생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렸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고등학교 마칠 때쯤(2014~2015년경으로 추정) 한송이 선생님도 대치캠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최선어학원이 죽었죠. 그전까지는 최선어학원이 갑이었어요. 학교별로 내신을 대비하니까, 반이 다 비슷하거나 레벨별로 나누는 데가 있어서, 시험대비반이면 고등학교별로 나눠 주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기 다니고. 중학교 때는 청담어학원도 다녔어요. 둘 다 내신 준비해 주는 곳인데 한송이 선생님 오고 나서 이제 여기(최선어학원)가 입시 때문에 빵 뜬 거예요. 이 선생님은 수능대비 대입 강사 느낌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최선어학원)서 같은 학교 애들이 많으니까 (내신이랑 수능) 둘 다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다녔죠.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박유진은 2009년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꾸준히 영어학원을 다녔던 경험을 떠올리며, 당시 영통 지역에 분포해 있던 다양한 중대형 브랜드 어학원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위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 해외파 학생들의 내신과 입시를 담당하는 경우, 국내파 학생들의 내신을 담당하는 경우 등 학원들은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학생 고객들을 유치하였으며, 비슷한 역할을 맡아 서로 경쟁하는 경우 한국 최고의 사교육 지역 '대치동'의 스타 강사를 영입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만들어내며 지역 내 1인자의 위치를 점하고자 노력하였다.

김희영 어학원은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전문적으로 보유한 학원들이 몇 개 없었어요. 그 예가 청담어학원인데. 워낙 대형 학원이니까. 여기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부 문화를 너희에게 알려 준다, 할로윈이 있다, 할로윈 파티할 거니까 너희들 다 분장하고 와, 하고 파티 준비를 해요. 원어민 선생님들도 다 분장하고 학생들도 꾸미고 오고. 그러니 애들에게 있어 여기는 그냥 학원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하나의 작은 '문화원'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청담어학원은 저에게 좀 더 약간 캐주얼한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부터 다닌) 최선어학원은 그런 건 안 했어요. 여기는 진짜 입시 준비하는 곳.

한편 수학이나 국어 등 여타 과목들과 달리 영어학원은 외국어를 다루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영미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다고 한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도 영통 지역에서 원어민 강사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았고, 원어민 강사를 영입할 역량을 보유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은 그러한 이점을 살려 영어(회화)에 대한 욕구가 높았던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원어민 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은 할로윈 파티 등 영미권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가깝게 느끼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역시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었으며, 고등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대비에 집중하는 다른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한국 교육제도 및 지역,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영통 지역 학원들은 나름의 위치와 역할을 찾고 그에 맞추어 적응해 나갔을 것이다.

3) 지역 학원가의 대응 및 변화 : 수원시학원연합회의 결성

영통동 학원가의 형성과 발전에 지리적 위치와 주민 분포, 학령인구의 수나 공교육 인프



영통동 학원들의 홍보

수원시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라 등이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나,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학원가의 위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사교육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는 단순히 정태적인 장소와 인구통계학적 분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특정 지역 소재 학원의 수나 개별학원의 규모만으로 그 지역 사교육의 위상을 파악해서도 안 된다. 학원은 그 지역에서 중요한 사교육 공급주체로서 교육 소비 주체인 학생 및 학부모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학원들 간에도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사교육의 형성과 발전에서 행위 주체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원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순간적이고 유연한 연결망을 작동시킨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연결만이 아니라 공급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도 포함될 수 있다.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을 통틀어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한 수원시의 학원들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자 결성한 학원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수원시학원연합회는 1972년 11월에 창립된 단체로 수원시 내 학원들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경영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학원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학원법 지도점검 활동 및 분야별 교육 연수를 시행하여 학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나눔 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0]

2022년 수원시학원연합회 사업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학원연합회는 관내 2,300여 개 학원장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4가지 분야의 사업을 통해 u-Value service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로서 학원 경영 상담, 민원업무 대행 및 교육청 단속 적발 시 업무 지원, 경진대회 개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꾸준한 학원 지도 점검 및 학원법 교육, 강제 야간자율학습 실시 학교 고발, 불법과외·불법 교습소 고발 등의 감독·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학원의 경영 이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학원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여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와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수 및 경영, 티칭스킬 등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1] 무엇보다 현 회장이 강조하는 연합회의 활동은 재능기부 교육 나눔 사업이다. 연합회는 20년 이상 꾸준히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해마다 100개소가 넘는 학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학원비를 받지 않고 전액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원용 상임위원장은 연합회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정책 취지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상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며 "수원시, 특히 영통 지역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다 보니 그렇다."고 했다.

4) 팬데믹 상황에서도 식지 않는 교육열

한편 최근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불러온 COVID-19의 유행은 학원들의 경영 상황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쳤다. 매년 변화가 심한 교육 제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원들의 운영 과정이 결코 평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COVID-19의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및 학원 이용 제한 조치 등은 학원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집행해왔는데, 그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정책의 경우 2021년 12월 기준 총 4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정책으로,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이 해당 정책 지원 대상이 되었다. 학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α 단계' 이후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12]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충분하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것 같다.

> 최원용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줄기도 하고, 한번 확진자가 나오면 검사도 해야 하고 한동안은 학원을 열 수가 없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은 꾸준히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소상공인 대출 지원 같은 국가의 지원 제도에서도 학원들은 제외가 됐어요. 나라에서는 우리를 무슨 악의 축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컸고 힘들기도 했죠.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다행이지만.

조정훈(2021)에 따르면 한국의 사교육은 "공공성의 외부에서 오로지 시장의 논리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성장"한 것으로, 애초에 공공성을 결여함으로 인해 시장의 부정적인 효과를 고스란히 갖게 되는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오랫동안 사교육을 사회악으로 규정,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앞서 학원법의 학원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교육은 학원, 온라인 교육, 개인 과외뿐 아니라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홈스쿨링),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까지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적용된다. 조정훈은 이와 같이 학교 내 활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교육을 감시·감독의 범주에 넣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13]

S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팬데믹 시기 영통동 학원 강의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사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통계상 2017년과 2019년, 2021년의 추세를 살펴보면 4개 구에서 교육비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1년 각 구별로 4~8%p 가량 교육비 지출 비중이 대폭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학원이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나 확진자 발생으로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등 COVID-19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들에게도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통구의 경우 교육에 대한 열망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수원시의 시민 생활을 상세히 조사한 사회조사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포함된 생활비 지출항목 통계 결과, 2017년부터 영통구는 생활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세 개 구들에 비해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의 경우 수원시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 평균 월 53만 원을 상회하는 액수인 월 60만 원을 평균적으로 교육비 지출에 사용하였다(〈표 7〉 참조).[14]

<표 7> 수원시 구별 생활비 지출 중 교육비 비중

구분	2017년(%)	2018년(만원)	2019년(%)	2021년(%)
장안구	21.9	52.5	17.6	13.3
권선구	17.2	47.8	17.3	10.9
팔달구	12.9	41.5	10.4	5.7
영통구	30.1	60.0	25.3	17.1

비고 : 월별 지출 기준. 2018년은 액수로 표기되고,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조사되지 않음.

이와 같은 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고학력·고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영통구가 갖는 특성인 동시에, 자녀들의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와 상위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한국 교육 정책의 잦은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2000년대 들어 교육 당국은 교과 성적 외 비교과 영역의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발 방법이나 전형 기준, 전형절차, 모집 시기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2008년부터는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의 자율화,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수능과목 축소 등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15] 또한 2022년도 대입 개편안에서는 정시 비율을 높이는 한편 수능과 EBS 연계 비율을 줄이고 문·이과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16]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사 1인당 15~20명 이상 많은 수의 학생들을 감당해야 하는 학교에 비해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누어 담당할 여력이 있는 학원가는 변화하는 제도에 더욱 발 빠르게 적응하며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인 한국 교육 시스템 속에서 더욱 더 핵심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일상 속 사회문화적 공간

영통동 학원가는 단순한 교육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핵심적인 사회문화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영통신도시에 한정되지 않으며, 망포동과 같이 주변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일상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박유진은 어릴 때부터 망포동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개통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망포동의 친구들과 함께 영통동 학원가의 영어학원을 다녔다고 말한다. 영통동 학원가는 망포동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매일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곳이었다. 반대로 영통동에 살면서 망포동에 있는 학원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망포역-영통역-청명역을 아우르는 지역은 화성시나 용인시에 비해 상당히 근거리 권역으로서 학생들의 사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유진과 김희영은 2003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영어 및 예체능 분야 위주로 사교육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2009년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는 학교 교과 중심으로 보습 및 입시학원을 일상적으로 다니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대입 준비를 했던 자녀를 두었던 이경순의 경우, 자신의 자녀가 똑똑하고 독립적이어서 자신은 그의 공부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자녀도 적당히 학원을 한두 군데 다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기도 했다. 그 경우, 뛰어나고 독립적인 자녀의 서사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데 비해 다른 자녀의 입시 서사는 크게 부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이경순 큰애 같은 경우는 공부를 되게 잘해서, 알아서 학원을 선택하고 데스크를 자기가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챙기는) 재미가 없었지. 그애는 어릴 때부터 되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다녔어요). (…)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최선어학원 다니면서 거기서도 외고를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붙었어요. 그때만 해도 완전 난리가 났을 때예요. 외고만 가면 모든 인생이 그냥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시절이었어. 전부 다 거기 도전을 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정작) 붙는 건 한두 명이잖아. 근데 우리 딸이 최선어학원 다니면서 붙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그래도 인터뷰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 이제 나는 사실 전화를 받고 해 준 건 별로 없다고, 이 딸이 워낙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알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 엄마로서 해준 것은 없다고.

그의 자녀가 영어학원만 줄곧 다녔고 종합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명문대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터뷰 중 거듭 언급되곤 했다. 이는 상당히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2000~2010년대 학생들에게 학원이나 공부방은 대입을 위한 실력 향상의 목적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공간이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가는 학원과 공부방이라는 장소는 학교 밖에서 학교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이어나가는 친목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도 접하며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만남의 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박유진 초등학생일 때는 그냥 영어학원만 다녔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거의 안 다녔던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통에는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8단지나 9단지 그런 데는 전 과목 공부방이라고 해서 개별 가정집에서 공부방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단과별로 수학이나 영어 수업하는 곳도 많았고 전 과목을 해주는 데도 있었죠. 제가 처음 갔었던 공부방은 전 과목 커버해 주는 곳이었고 1년 반 정도 친구들과 거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전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부모님이 생각하셔서 이제 단과 공부방, 수학으로 옮겼고요.

여기서 언급되는 '공부방'은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단체 과외'와 같은 방식으로, 학원처럼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통동 학생들의 교육을 보완하고 방과 후 돌봄의 기능도 수행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숙제를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친구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유진은 공부방 안에서 한 친구가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와 싸우는 바람에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선생님들이 화해시켜 주느라 애썼다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은 학원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특히 학원은 공부방과 달리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만나게 되는 좀 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친목의 경험도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진 학원에서 싸움도 많이 나요. 다른 학교 애들을 만나잖아요. 고등학교 때야 한창 공부할 때니까 덜 한데, 중학교 때는 좀 싸워요. 수업 후에 자습하는 시간에 어쨌든 친목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니까, 이제 서로 각 학교에서 아는 애들을 만나고, '나 A중 다녀' 이렇게 말하면 '나 그 학교 누구 아는데, 너도 그 애 알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애가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애인 거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학원이라는 게 학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렸을 땐 학원은 공부를 하는 장소이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친구 네트워크가 내가 다니는 학교를 떠나 더 연장되고 더 넓어지면서도, 또 그 안에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죠. 사실 학원은 학교의 연장이었다고 봐요.

김희영 영통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학원이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고, 스케줄이고, 그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학 가면 그 시간에는 무슨 수업이든 일단 들어야 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들을 지 선택하는 것처럼, 학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학원 안 가면 뭘 할 거야, 친구들이 다 학원을 가는데 저 혼자서 뭘 할 것인가, 그런 상황이면 결국 학원을 가게 돼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살기 좋은 하나의 도시, 영통 신도시에서 학원은 이 지역 학생들에게 있어 같은 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 만나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며 인적 네트워크의 경계와 경험치의 한계를 확장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립 관계로 설정하고 교육 불평등과 학벌주의가 모두 사교육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도 교육당국은 잦은 교육 제도 변경으로 인해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교를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 특히 COVID-19의 유행 이후 국가는 각급학교의 대면 수업을 전면 포기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고, 그러한 격차를 메우는 역할은 결국 지역의 학원들의 몫이 되었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기도 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아래 빛바랜 영통동 학원 간판들은 그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강의 시간에 맞춰 학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러한 긴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해 왔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훈장은 학원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권역 내 학원들 간 20년 이상 맺어 온 네트워크의 끈끈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김은영, 2013,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박해천, 2019, 「낀 신도시의 사반세기 생애 : 영통 지구에 대한 메모」, 「100만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수원시정연구원.

송인호, 2018, 「2017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대치동, 사교육 1번지」, 서울역사박물관.

윤용헌, 2021, 「학원의 교육서비스 품질 및 학원강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조정훈, 2021, 「대치동 : 학벌주의와 부동산 신화가 만나는 곳」, 사계절.

수원시, 2017, 「2017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수원시, 2018, 「2018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수원시, 2019, 「2019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수원시, 2021, 「2021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수원시학원연합회, 2019, 「2019년도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자료」.

수원시학원연합회, 2022, 「2022년 사업 추진 계획」.

「[인터뷰] 고진석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 「수원신문」, 2022년 9월 26일.

「코로나19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연합뉴스」, 2020년 12월 29일.

「[EBS공동기획] 2022 대입 대비전략」, 「베리타스 알파」, 2020년 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법령정보(https://www.law.go.kr).

엠코드 수학학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26leebora).

주

1.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영통,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59쪽.
2. 박해천, 2019, 「낀 신도시의 사반세기 생애: 영통 지구에 대한 메모」, 「100만 도시 성장기 :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수원시정연구원, 178~179쪽.
3. 수원시, 2021, 「2021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42쪽.
4. 수원시, 2021, 「2021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54쪽.
5. 수원시, 2021, 「2021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39쪽.
6. 송인호, 2018, 「part 5. 대치동 사교육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2017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대치동, 사교육 1번지」, 서울역사박물관, 256~258쪽.
7. 엠코드학원 블로그 중 「[영통엠코드] 원장님 인사말」 참조(https://blog.naver.com/26leebora/222080890813).
8. 엠코드학원 블로그 중 「2019 여름방학 몰입기간 셔틀버스 시간표」(https://blog.naver.com/26leebora/221588146201).
9. 송인호, 2018, 「part 4. 대치동 학원가의 위상과 형성과정」, 「2017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대치동, 사교육 1번지」, 서울역사박물관, 177쪽.
10. 「[인터뷰] 고진석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 「수원신문」, 2022년 9월 26일; 수원시학원연합회, 2019, 「2019년도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자료」, 9쪽.
11. 수원시학원연합회, 「2022년 사업 추진 계획」 5쪽.
12. 「코로나19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연합뉴스」, 2020년 12월 29일.
13. 조정훈, 2021, 「대치동: 학벌주의와 부동산 신화가 만나는 곳」, 사계절, 329쪽.
14. 수원시, 2017, 「2017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216쪽; 수원시, 2018, 「2018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211쪽; 수원시, 2019, 「2019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209쪽; 수원시, 2021, 「2021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44쪽.
15. 김은영, 2013,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1~16쪽.
16. 「[EBS공동기획] 2022 대입 대비전략」, 「베리타스 알파」 2020년 1월 13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4 영통동 대학가와 지역사회

안종수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형성과 지역사회

수원시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명문 대학들이 위치한 지역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통은 대형 종합대학교가 산재한 명실상부 수원의 대학가라 하겠다. 1970년대 들어서 아주대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경기대학교가 서울에서 이전해 왔으며, 영통동과 상권을 공유하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용인시)가 설치되었다. 대학은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과 도시의 인적, 물적 인프라의 확충과 관계가 깊다. 국내 대학 캠퍼스는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비교적 단조로운 대칭축 형태의 시설 배치가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1980년대 이후 도심지 대학의 경우 거대화 및 고밀화가 진행되었다.[1] 이러한 변화는 대학이 수업 중심의 형식적 교육에서 종합교육과 연구 중심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사회적 영향력 또한 확장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들 종합대학은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학습은 물론, 다양한 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는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의 서비스, 상업 인프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주변 주택가를 비롯한 영통동 상권은 그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이들 종합대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들 대학교 주변으로는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 교통 인프라와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인 대학촌이 형성되었고, 이들의 생활 및 활동과 연계된 주변 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까지 흡수하며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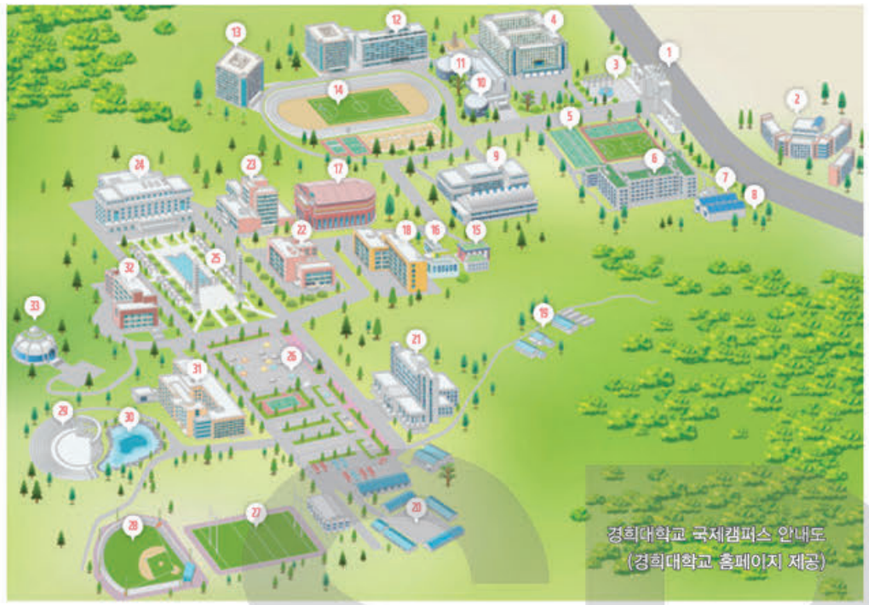


1981년 영통지구 개발 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



2022년 영통역 중심상업지역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

수원
SUWON
수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안내도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제공)

1	정문(새천년기념탑, 네오르네상스문)	12	멀티미디어교육관·글로벌관	23	학생회관
2	애지원	13	제2기숙사	24	중앙도서관(대학본부)
3	르네상스공원	14	대운동장	25	사색의 공장
4	우정원	15	도예관	26	주차장, 노선버스종점
5	인조잔디구장	16	원예생명공학 온실	27	종합운동장
6	공학관	17	선승관	28	야구경기장
7	원자로센터	18	생명과학대학간	29	평화노천극장
8	공학실험동	19	한방재료가공(경희보감)	30	연못
9	체육대학관	20	실험연구동	31	전자정보, 응용과학대학관
10	외국어대학관	21	예술·디자인대학관	32	국제학관
11	경희공원	22	국제·경영대학관	33	천문대

경희대학교는 1911년 설립된 신흥무관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학으로, 1954년 서울 회기동으로 이전, 1960년 경희대학교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온 국내 명문 사립대학 중 하나이다. 1970년대 서울 인구의 급증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정부당국의 정책과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의 지방캠퍼스 설립이 추진되었다.[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설립 당시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는 이러한 당시 기조 속에서 계획된 곳으로 1979년에 수원시 외곽인 영통동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용인시 기흥구에 자리를 잡았



2015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풍경
(https://blog.naver.com/kumu_/220342464686)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김승일 제공)

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서울캠퍼스의 공과대학, 산업대학, 체육대학, 문과대학의 일부 등의 단과대들이 이전해 오면서 이원화 캠퍼스의 모습을 갖추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위치한 행정구역은 용인시 기흥구이지만, 용인시에 속한 구역은 캠퍼스 뒤편 산과 호수에 속한다. 학교 정문 지역부터는 수원시 영통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캠퍼스 접근부터 학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들은 수원시 영통구의 교통·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는 학교의 초기 명칭부터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원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위치한 곳은 설립 초기에는 도시 외곽지역에 해당했으며, 접근성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수원 시가지의 확장과 영통신도시의 개발로 현재는 도심과 바로 접해 있으며, 과거에 비해 접근성과 인프라 환경 등에서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다.

종합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사회 연계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3] 먼저, 인구 효과는 학생을 비롯한 대학 종사자들이 지역에 유입됨으로써 늘어나는 인구를 의미한다. 경제적 효과는 대학에서 육성된 인적 자원, 지역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일어나는 지역소득 증대, 대학의 직간접 고용에 따른 지역 고용 증대를 포함한다. 사회문화적 효과는 대학에서 파급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이미지와 자긍심 등을, 지역사회 연계 효과는 지역과 연관된 세미나·포럼 등의 학술행사와 연극·음악 공연과 같은 예술행사에 따른 효과를 의미한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김승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처럼 대학은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서울 소재 대학 지방캠퍼스 설립'의 당초 취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경우 이러한 영향력이 초기부터 발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립 당시 캠퍼스의 위치는 연계할 만한 규모의 지역사회가 전무했고, 캠퍼스 접근성도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80년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다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지역사회 양쪽에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휘된 것은 영통신도시가 들어서고부터라고 볼 수 있다. 신흥 개발도시로서 영통동은 과거부터 형성된 주택지역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성장, 수원시 최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성장한다. 또한 관공서·병원 등 각종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인근에 대기업의 대규모 연구단지가 소재해 있어 고용수요가 창출되었다. 여기에 영통동 상권에 들어선 학원가들은 지역 대학과 시너지를 내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어 주었다.

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의 현황과 특징

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대학가 상권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희대역으로도 불리는 영통역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상권이다. 대학가 상권은 상시적으로 학교를 통학하는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트렌드 소비의 중심지로 성장하곤 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식당과 주점을 시작으로 PC방, 고시원 등의 시설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 트렌디한 카페와 옷가게들이 대학가 상권의 주류를 이룬다. 여기에 지역적 특성, 교통과 지역 소비성향이 더해지면 각 지역별 개성 있는 대학가 상권이 탄생한다.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은 캠퍼스 정문 주변 4만 4,613㎡의 면적에 해당하며, 영통역과도 가까운 입지적 특성상 영통역 상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4]

이 때문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은 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학가 상권에 해당하는 한편, 영통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 주변에 다수의 주택과 아파트들이 있다는 점에서 근린상권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자료에서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을 주택 상업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 주거인구도 2016년에는 1,630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93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음식점은 2016년 117개에서 2020년에는 221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서비스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33개에서 66개로, 54개에서 93개로 증가하였다.

<표 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 주요 정보

(단위 : 가구, 명, 개소)

연도	면적(㎡)	가구수	인구수		주요 시설수	집객 시설수	상가수			
			주거	직장			전체	음식	서비스	도소매
2016년	44,613	553	1,630	1,142	12	29	204	117	33	54
2020년	44,613	755	1,935	1,108	6	12	390	221	66	93

자료 : 수원시정연구원,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경희마을(기존 대학촌)과 영통신도시 개발 시 조성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정문 앞 상권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2> 2020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 유동인구

(단위 : 명, %)

일일	주중/주말		연령					
	주말	주중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4,323	7,303	22,794	316	661	782	1,042	904	618
	24.3	75.7	7.3	15.3	18.1	24.1	20.9	14.3

자료 : 수원시정연구원,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을 일반적인 대학상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유동인구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하루 평균 4,323명이 방문하며, 연령대별 비율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대학상권이 주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실제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이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으며, 주변의 직장인과 지역 거주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도 학교 주변의 상권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통동 일대 또는 다른





경희마을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정문 앞 상권(김승일 제공)



우정원 일대 경희마을 상권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통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권들을 자연스럽게 거쳐 오는 등,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밖 상권도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하철과 버스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10분 거리인 영통역 주변을 거쳐 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반영하듯 영통역에는 경희대역이라는 부역명이 붙어 있다.

결과적으로 공단과 신도시라는 풍부한 배후 소비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을 포함한 영통동 상권은 대학가 상권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 구매력이 높은 직장인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높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가 상권들은 박리다매의 전략을 취하는 저렴한 점포가 많은 반면, 영통동 상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점포가 많기 때문이다.

이현우(가명) 밥은 주로 학교 앞 마을(경희마을)이나 학교 안에서 먹죠. 길 건너가면(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 비싸고, 술 마실 때는 아무래도 좀 싼 데 찾아가는 편이죠. 치킨집 같은 데 자주 가죠. 영통 쪽은 비싸고, 돈 더 쓸 거 같으면 차라리 서울로 나가는 게 낫고.(20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

저렴한 식사를 찾는 학생들은 주로 학교 안 식당이나 매점, 그리고 '경희마을'을 찾는다. 경희마을은 정문 길 건너편을 경계로 획정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기숙사 건물인 우정원 주변에 붙은 좁은 공간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영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 전경(김승일 제공)



경희마을에 위치한 상가

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구획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 오래된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편의점, 카페, 코인노래방, 치킨집, 주점, 식당, PC방, 당구장 등, 학생들이 주로 찾는 소규모 점포들이 자리하고 있다. 길 건너 상권에 비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강하지만 캠퍼스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3. 대학촌과 상권 그리고 대학문화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여러 이점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대학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주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의해 물리적으로 대학 주변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대학촌이다.[5]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대학촌의 역사는 중세 유럽의 대학도시, 성균관의 반촌 등과 같이 대학과 그 시작을 함께하였다.

한국사회도 대학과 그 시작을 함께한 대학촌들이 존재한다. 서울의 대학로, 신촌, 안암골



영통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정문 상권

등과 더불어 국가거점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각 지역의 종합대학들은 각자 주변에 하숙, 자취, 식당, 주점 등, 일상생활 및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 등을 보조하는 대학촌이 형성되었고 상권을 형성해 나갔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도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기 전부터 주변에 대학촌이 형성되었으며, 개발이 이루어진 현재에도 그 흔적을 경희마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통신도시의 개발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대학촌의 형태와 구성은 물론 그 성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대학의 수요를 담당하던 변두리 상권에 불과하던 대학촌은 새로운 도시 구획에 따라 신도시 주거공간으로 바뀌는 한편, 한층 더 확장된 범위의 수요를 처리하는 상권의 일부분으로 변모하였다. 또, 교통조건의 변화는 과거 대학촌이 담당하던 주거기능의 상실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변화로 기본 대학촌은 전반적인 쇠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대학과 대학문화의 변화도 대학촌 쇠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5년 국토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대학 내 상업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허용됨으로써 대학 내 모습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 캠퍼스 내 상업시설 입주가 허용된 데 대해 각 대학은 대학 자율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앞 다퉈 상업시설 모색에 나서고 있다.(「대학들 반색… 앞다퉈 상업시설 모색」, 『한국대학신문』 2009년 4월 20일)

새롭게 들어서는 대학 내 상업시설들은 대학과 대학 밖의 경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대학 밖에서 해결하던 많은 일들이 대학 내에서 가능해지는 한편, 상업적 수요도 대학 내부에서 흡수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에 들어서는 새로운 민자기숙사도 대학촌에서 담당하던 주거기능의 상당 부분을 캠퍼스 안으로 편입시켜 지역사회로부터 대학의 고립을 가중시켰다.

이영섭(가명) 요즘에 맨날 대학이니 지역이니 하면서 상생, 상생하잖아요? 옛날에는 굳이 상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 쓸 필요가 없지 이미 상생이니까. 상생이 안 되니까 상생이라고 하는 거지.(50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에서 주점 운영)

대학의 이러한 변화는 학생의 복지와 편의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또한 수업료를 내고 각종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대학이 가졌던 본래의 다층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대학 문화의 변화는 이러한 대학의 변화와 흐름을 함께한다. 대학 공동체 문화 쇠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직적 위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는 대학은 물론, 직장 안팎에서도 저항에 부딪혀 온 결과,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사회 전반적인 경쟁의 심화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중심의 대학 교육이 맞물려 대학 문화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현우(가명) 과모임 같은 게 있긴 한데, 꼭 가야한다 뭐 이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공지사항이나 연락 같은 거는 보통 카톡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 간다고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고, 같은 과라서 모여서 논다기보다는 친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모이는 거죠 친한 사람끼리.(20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정문 맞은편 경희문고와 경희요가필라테스 앞 상권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이 줄어든 것은 이미 주변 상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다. 문구점, 복사집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던 점포들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 오던 식당과 주점들도 사정이 좋지 않다. 대학 친목 모임들이 많이 줄어든데다가 그마저도 교통이 편리한 영통동의 특성상 상권 밖으로 이동하는 모임이 많다. 이 때문에 여러모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는 것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를 지는 일이다.

이영섭(가명)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놀고 하는 건 많이 없어졌죠. 늦게까지 놀 거 같으면 여기서 안 놀죠. 집 근처로 가거나 서울 가거나. 단체 손님? 그건 옛날이죠. 과에 따라선 다르긴 할 거 같은데, 옛날처럼 단체 손님 받아서 장사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50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에서 주점 운영)

대학촌의 쇠퇴, 대학가 주변 상권들의 성격 변화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만이 겪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상권들이 직장인들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통동의 특성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한층 가속시켜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4. 글로벌 팬데믹과 대학가의 위기

2020년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은 상권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은 물론, 대학 문화 전반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초기부터 학교는 병원, 식당 등과 함께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집합 시설로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대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집합 시설이기도 하다. 때문에 코로나 초기부터 대학의 도서관, 기숙사 등은 직접적인 대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폐쇄 조치까지 취해지기도 했다.

> 24일 전국 전문대학가에 따르면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이 평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다중이용 시설 '대학 도서관'들이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학 도서관의 휴관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결정도 내리고 있다.("'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대학 도서관도 휴관 연장", 『한국대학신문』 2020년 3월 24일)

방역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높은 강도의 조치가 선행되었지만, 차츰 사회적 인식과 방역 수칙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일상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도서관은 소독기준을 강화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마련하여 기능을 유지하였다. 학내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수업을 위한 태블릿 PC 대여 정책을 시행하여 대안적 운영을 해 나갔다.

> 이현우(가명) (학교생활은) 그냥 포기했죠. 처음에는 한 학기, 그 담엔 일 년 지나니까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줌(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익숙해지니까 다시 대면 수업하는 하는 거죠. 다시 적응하고 학교생활 다시 시작한 거죠. 차라리 군대라도 갔으면 모를까 전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고.(20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안으로 시작했던 비대면 수업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졸업을 맞았던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대면적인 대학 생활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적응의 문제 외에도 팬데믹의 장기화는 대학 문화에 있어 여러 변화를 야기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에 비해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편리함이라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엔데믹 이후에도 일부 학생의 경우 오히려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팬데믹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부근 폐업한 상점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금지를 비롯, 대학과 대학 밖의 경계를 강화하다 보니 대학의 경계 또한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과 대학문화 전반에는 여전히 팬데믹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학가 상권의 경우에는 대학보다 타격이 더 심하다. 대학의 경우 비대면 수업 등, 대부분의 기능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상권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처음에는 버티던 상인들도 쌓여 가는 적자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 상업을 포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은 영통통 상권에 속한 탓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업종으로 변경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긴 어려웠다.

> 이영심(가명) 그나마도 학생 장사하던 곳들도 많이 (장사를) 접었죠. 직장인들은 거리 두기 때도 인원 맞춰서 온다고. 그런데 학생들은 뭐,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 (팬데믹)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해외여행은 가도 여기서 돈 안 써. 학생 장사 잘된다는 건 완전 옛말이야.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건 학교 안에서 하고, 본격적으로 노는 건 딴 데 가니까.(50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에서 주점 운영)

글로벌 팬데믹은 이미 벌어지고 있던 대학가와 대학 사이의 간극을 확실하게 분단하는 역할을 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을 학생들도 찾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상권을 찾는 수요의 일부를 구성할 뿐, 학생에 맞춘 상품을 팔거나 영업을 하기에는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의 점포들은 일반적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희마을 전경









경희마을 내 점포

도심 상권의 점포, 프렌차이즈 점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가격적인 이점도 없다면 학생들이 굳이 이곳을 찾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가 상권에서 주택상업지역'이라는 점포와 상권의 정체성 변화로 이어진다. 이미 '박스'라는 명칭으로 표현되는 주거지의 배후 수요에 의존하는 영통동 상권의 특성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도 예외가 아니며,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권이라는 명칭은 상권의 위치를 의미하긴 하지만 상권의 성격과 특성을 설명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주변에서 고전적인 대학가 상권의 형태와 역할은 경희마을이라는 과거의 대학촌에서 이어지는 좁은 범주로 한정된다. 경희마을에는 영통 상권에서 주류를 이루는 프렌차이즈나 규모나 큰 점포가 없는 대신,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저렴한 점포가 주류를 이룬다. 또 최근에는 디저트 카페와 샐러드 가게 등, 학생들의 기호와 유행의 흐름을 반영한 특색 있는 상점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경희마을 맛집 블로그'라는 홍보페이지도 생겨나는 등, 경희대학교라는 종합대학의 규모와 위상을 생각했을 때, 크지는 않지만 대학가 상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정책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5.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하여

> 대학의 형태와 기능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적인 자발적 요구로 형성된 대학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도시 내의 지역 구분, 도시와 떨어진 캠퍼스 개발 등의 이유로 사회와의 단절되었다. (중략) 경계가 분명할수록 대학은 고립된다.[6]

대학과 지역사회 간 관계의 중요성은 한국에서 종합대학이 자리를 잡은 이래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주요 대학들의 지방분교 설립 정책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 종합대학이 설립된 데에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발전'이라는 정책적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글로벌시티, 스마트시티 등의 첨단 의제들이 등장한 현재에 와서도 대학은 지역사회가 첨단 의제들의 실행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 대학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는 한층 더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과 행사는 수시로 대학에서 열리며 대

학과 기업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기업이 대학에 입주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창업보육도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양해진 대학의 상호관계에서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과 지역민들은 과거보다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으며 일상적인 활동 영역에서는 오히려 그 경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학의 운영 과정에도 권리를 주장했던 학생들은 이제 대학이 운영·관리의 수동적 대상으로 여겨지고, 대학 교육은 교육의 서비스 측면, 즉,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교육을 받는 상품적 측면이 강조되곤 한다. 서비스가 강조되는 대학에서 권리는 대향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자율적인 운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지식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의 편의성 등에 의해 평가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학을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곳으로 변모하게 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가의 지역상권은 대학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주요한 고리 역할을 해 왔다. 학생들은 지역상권을 통해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민들에게 지역대학은 자랑스러운 정체성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대학가 상권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불황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대학과 지역, 학생과 지역민 사이의 관계 및 향후 방향이 얽혀 있는 문제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통동 대학가의 사례는 현재 대학과 지역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시너지 효과가 더 넓은 영역,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퍼져 나가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사이의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참고자료

이대준, 2009, 「캠퍼스 경계부 계획을 통한 지역사회 교류·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일, 1988, 「서울지역 소재 대학교의 지방대학 캠퍼스 현황과 전망」, 『연세논총』 24.

권영섭, 1992, 「서울 소재대학 지방분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8(1).

장성준, 1992, 「수도권대학 신규캠퍼스 학생주거와 대학촌 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7).

「대학들 반색…'앞다퉈 상업시설 모색'」, 『한국대학신문』, 2009년 4월 2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대학 도서관도 휴관 연장」, 『한국대학신문』, 2020년 3월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수원시정연구원, 2016, 「수원시 지역경제(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원시정연구원,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경희 마을 맛집 블로그(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tlry2018&categoryNo=1).

주

1. 이대준, 2009, 「캠퍼스 경계부 계획을 통한 지역사회 교류·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16쪽.
2. 김수일, 1988, 「서울지역 소재 대학교의 지방대학 캠퍼스 현황과 전망」, 『연세논총』 24, 122쪽.
3. 권영섭, 1992, 「서울 소재대학 지방분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연구」, 「지역연구」 8(1), 53~54쪽.
4. 수원시정연구원,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09~113쪽.
5. "대학촌은 캠퍼스 시설이 미처 공급하지 못하는 기능을 인근에서 담당하는 곳이다. (중략) 대부분의 대학은 직접교육시설과 제한된 규모의 지원시설만을 갖추게 되므로 캠퍼스 외부에 대학촌 또는 지원기능을 갖춘 시설을 요하게 된다."(장성준, 1992, 「수도권대학 신규캠퍼스 학생주거와 대학촌 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7), 60쪽).
6. 이대준, 2009, 「캠퍼스 경계부 계획을 통한 지역사회 교류·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7쪽.

더 나은
영통동을 위하여

V

01 살기 좋은 주거·생활환경을 가꾸는 일
: 영통동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02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 활동
03 영통동 주민들의 소통마당, '영통주민모임터'
04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
05 푸른 쉼터, 영통동 공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살기 좋은 주거·생활환경을 가꾸는 일

: 영통동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이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석사 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영통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역할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이 연일 텔레비전(TV) 뉴스와 신문 지면을 오르내린다. 아파트에서의 갈등은 층간소음, 간접흡연, 주차면 부족, 부실한 관리비 운영 등 수많은 이유로 일어나며,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늘어가고 몇몇 갈등들은 폭력과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진다. 1980년대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 벽식 구조, 개별 배관방식 등을 채택한 점이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곤 한다.[1] 건설 당시의 공법이나 기술로 인해 발생하게 된 아파트 공간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을 다시 짓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입주한 주민들만의 노력으로 이를 실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이 많다.

공동주택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광명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3년 7월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해 갈등 민원을 상담·조정하고, 갈등 방지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해 왔다.[2] 수원시는 2006년부터 10여 년간 물리적 성능 유지·보수에 중점을 둔 공동주택 관리 지원제도의 목표를, 물리적 유지·관리부터 지역공동체 측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웃 간 소통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3]

이러한 시도는 주민 간 소통을 지방자치단체가 중개하는 조정이 아닌 갈등 주체인 공동

주택의 주민 간의 협의와 신뢰를 통해 공동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계기를 마련하고 그 역량을 키워 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내부 안의 여러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일까? 수원시에서 원활히 아파트 운영이 잘 이뤄진다고 손꼽히는 곳이 있다. 바로 영통신도시이다. 1기 신도시의 후발주자로 탄생한 이곳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아파트 운영과 관리 면에서 관록이 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통신도시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영통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를 통해 영통신도시 지역의 여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의미한다. 각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정해진 자치규약, 즉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로 삼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아파트의 환경과 사정을 반



입주를 앞둔 영통신도시
(1997년 8월 29일, 수원박물관 제공)



간·급·점·검 10만 수용 수원 영통지구

도로확포장 미비 교통난 예상

동사무소 이제 신축중…백화점·대형병원도 없어

입주를 앞둔 영통지구의 교통, 공공시설, 상업 및 의료시설 등을 점검하는 기사(「한겨레」 1997년 12월 16일)



입주보름전

수원 영통지구 점검

입지좋고 녹지많은 '未完의 신도시'

100만평 10만명 수용… 연말까지 58% 입주예정

입주를 앞둔 영통지구 점검 기사(「조선일보」 1997년 12월 1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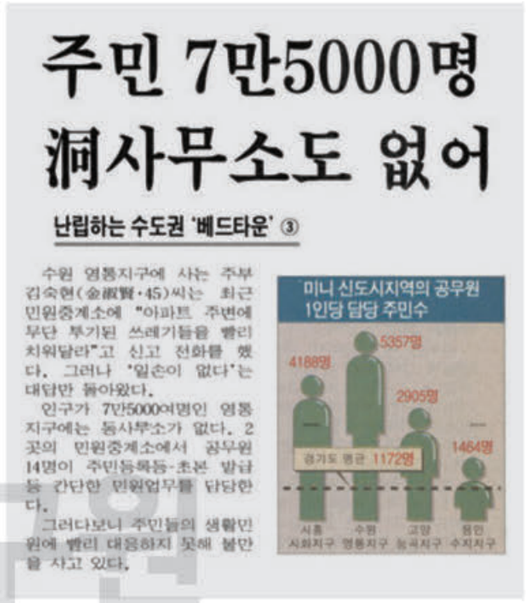
영하여 정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인 이상의 개별 아파트 동호수에 비례한 선출된 대표자인 동별 대표자(소위 동대표)로 구성된다.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의 회장, 2명 이상의 감사, 1명 이상의 이사가 선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회의를 대표하며, 아파트 관리 방법을 결정, 변경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는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의 회계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4]

그럼 영통신도시 안에서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되고, 개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통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운영되고 있을지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정부는 1기 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수도권 남부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수원 영통, 용인 영덕 일대 100만 평 규모의 대지 위에 10만 명을 수용하는 여러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방향을 세웠다. 그 결과, 영통신도시에는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9개 단지, 5개 마을에 걸쳐 23개의 아파트가 자리하게 되었다.[5] 1997년 12월 10일 벽적골 주공아파트(8단지)가 가장 먼저 준공되었고 이어 청명마을(4단지) 주공아파트, 벽적골(9단지) 삼성아파트와 태영아파트, 청명마을(3단지) 벽산삼익아파트 등이 뒤를 이었다.[6] 적게는 470세대, 많게는 3,000여 세대에 이르는 개별 아파트 단지에 1998년부터 초부터 주민들이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전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영통동으로 이주하는 지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등 다양한 목적을 둔 사람들이 영통동에 모였다.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지어진 용인, 수원, 고양, 김포 등 택지개발지구들에 초기 입주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신문기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로, 병원, 학교, 상업지구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초기 영통신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노선버스는 하나에 불과하였다.[7] 1998년 수원환경운동센터가 영통지구 입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68%가 주거환경에 불만을 느꼈으며, 그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공원과 휴식 공간의 부족 등을 꼽았다.[8] 7만 5,000여 명이 입주했음에도 영통동 내에 수영장과 백화점이 없었다. 『조선일보』 1999년 8월 30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통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최씨는 영통 내에 백화점이 없어 분당을 오가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9] 동사무소 대신에 2곳의 민원중계소에서 14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해 생활민원에 빨리 대응치 못해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10] 소방서와 파출소 설립도 늦어져 영통1파출소의 담당 주민수는 경기도 평균 2만 3,460명의 2.5배인 6만 6,000여 명에 달하였다.[11]

입주민이 늘어가는 속도에 따라가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영통의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조금씩 채워져 갔다. 1999년 1월, 그랜드마트(현 롯데마트)가 문을 열었으며,[12] 7월에는 수원시립 영통도서관이 개관하였다.[13] 같은 해 9월에는 기흥IC부터 태안 반월리를 연결하는 338번 지방도가 개통되었다.[14] 한때는 수원-영통-기흥-수지-분당을 잇는 순환 전철 건설 등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전철 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여러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다.[15] 주민들의 긴 기다림 끝에 2012년 12월 분당선의 연장선인 기흥-청명-영통-망포역 구간(7.4㎞)이, 2013년 12월에는 망포역에서 수원역을 잇는 구간(5.2㎞)이 개통되어 수원역에서 성남 분당을 거쳐 서울 왕십리까지 1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해졌다.[16] 이후 신설된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과도 연결되며 영통신도시와 수원시, 서울 간을 잇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주민 7만5000명 洞사무소도 없어

난립하는 수도권 '베드타운' ③

수원 영통지구에 사는 주부 김숙현(金淑賢·45)씨는 최근 민원중계소에 "아파트 주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을 빨리 치워달라"고 신고 전화를 했다. 그러나 '일손이 없다'는 대답만 들어왔다.

인구가 7만5000여명인 영통지구에는 동사무소가 없다. 2곳의 민원중계소에서 공무원 14명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간단한 민원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빨리 대응하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

미니 신도시지역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4168명 5357명 2905명 1464명

경기도 평균 1172명

시흥 시화지구 | 수원 영통지구 | 고양 능곡지구 | 용인 수지지구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신도시의 문제점을 다룬 신문기사 (『조선일보』 1999년 9월 1일)

이남옥 (그래도) 매탄동과 비교해 보면 영통은 신도시니까 생활환경이 나았죠. 문만 열고 나가면 단지 상가에 슈퍼마켓, 부동산, 미용실, 정육점도 있죠.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점점 더 살기 좋아졌어요. 조금만 더 나가면 영통 중심상가에 먹자골목도 크게 형성되어 있었고요. 때마침 배달 문화가 형성될 즈음이어서 마트에 가서도 장 봐놓고 아파트 동호수 적어 놓으면 집 앞에 딱 배달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정말 편해졌죠.(황골 주공/단지아파트 동대표,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 역임)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삶을 꾸려 간다는 것은 한 세대, 한 가족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신축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다는 것은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터전을 다지는 작업은 처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머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리와 손을 맞대야 한다는 계기를 심어 주기도 했다.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의 초기 동대표를 역임한 이남옥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일부터 하자보수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일까지 하나하나 품이 드는 일이 산적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세한 분야마다 관리업체를 찾고 소통하는 일도 여러 세대의 일이 되니 큰일이었다. 나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려는 마음들이 모여 초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구성되었다.

이남옥 주공/단지가 3,/29세대가 있으니 세대당 등기비만 해도 얼마나 큰돈이에요. 법무사 선택부터 큰일이었죠.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를 주민들이 결정하기로 하면서 부랴부랴 동대표가 모집됐어요. 저는 '내 돈을 내 손으로 지켜야한다'고 생각해서 동대표에 출마했지요. 조금씩 살면서 개별 동, 호마다 타일이 떨어졌다, 화장실 문이 안 닫힌다 하며 수리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초기 동대표들은 재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보수 처리를 담당했어요.(황골마을 주공/단지아파트 동대표,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 역임)



이남옥
전 황골 주공1단지
아파트 동대표

2. 함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력

공동의 생활터전을 가꾸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입주 초기에는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다. 아파트의 구조와 장비,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나서다 보니 적확한 해결책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의사결정에 전문성이 없으니 주민 간의 반목도 일어나곤 했다. 그간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발판삼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발 벗고 나서자 차차 아파트 단지 주민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다. 청명마을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냈던 백종헌은 이 과정은 배움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한다. 입대위원들은 주민들의 일상과 의견에 귀기울이는 것은 기본이고, 관리업체들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는 일부터 시작해 어떻게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지를 배우고 또 배워 나갔다. 배움의 또 다른 이름은 관심과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만난 영통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누구보다 주민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빠른 실

행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기에 주민들과 신뢰관계가 자연히 쌓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만들어 가는 아파트의 삶을 모두가 기대하게 만들었다.

백종헌 청소업체, 소독업체, 엘리베이터 관리, 주택 관리 등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 할 업체들도 많아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알기 쉽지 않으니 입찰 금액만 보고 결정하게 되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죠. 초기 입주했을 때 혼란을 겪었던 이슈 중 하나가 지역난방이에요. 게다가 아파트 내에 지역난방을 아는 관리자도 흔치 않았죠. 동보신명아파트에서는 세관작업을 할 때 과도하게 염산을 써서 관이 녹아 버린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의 관계자들이 꼼꼼히 배우고 확인해야 해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할 때도 배우고, 업체가 관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를 배워 나가는 거지요.(청명마을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주자대표협의회 대표 및 수원시의원 역임)



백종헌
전 청명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아파트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등 여러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 비결이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비 운영내역도 꼼꼼히 정리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지출되는 다양한 용처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영통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를 결성해 여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아파트 운영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들을 공유하였다. 이때의 불문율은 다른 아파트의 사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임원진 모두가 이해하고 있기에 가능하였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을 지키며 친목을 다져 갔다. 2005년에는 25개 단지가 결합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구성되었으며, 동(洞)별[17]로도 끈끈한 우정을 이어 갔다. 영통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운영회비를 모아 도서 기부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좋은 일에도 앞장섰다.

입주한 이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텔레비전 시청권에 관한 이야기다. 각 단지별로 시청하는 수원유선방송 및 케이블TV의 공급자가 (주)한국케이블TV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모범 우수아파트에 선정된 신원미주아파트 백길현 회장의 사례발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표창을 수상한 백종헌

수원방송(현재 T-broad)[18]으로 일괄 통합된 후 2002년부터 세대당 수신료가 인상되거나 세대 개별 계약으로의 변경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주민들이 독점공급으로 인한 부당함을 피력하자 영통 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연합회가 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아파트연합회가 수원방송과의 협상을 맡고, 2005년 12월부터 주민공청회 개최, 주민 설문조사 진행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갔다. 유선케이블 회선을 유지하지 않고 입주 초기에 설치했던 TV공동시청설비(이하 공청)을 유지·보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몇 천 원대의 수신료 대신 월 500원 전후의 공청유지보수비를 부담해 자신들의 시청권과 채널선택권을 지켜내고자 했다. 2006년 1월 25일 공청 안테나와 모듈레이터를 사용해 독자적인 공청방송이 시작되었다. 청명마을(4단지) 주공아파트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1개 채널을 화보해 가칭 '아파트 방송위원회'를 통해 꼭 필요한 정보나 강좌(진학, '화성'문화 소개)를 입주민들에게 알리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영통동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의 환경과 단지를 넘어서 생활권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갔다. 입주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었던 자원회수시설(소위 소각장)이 2000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하였다. "소각장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 연기 때문에 목이 따갑다. 냄새가 난다." 등의 이유로 여러 민원이 생기자 영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연합



1999년 11월 영통소각장 가동반대 시위(수원박물관 제공)



소각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입주자대표회의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협의해 나갔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아이들이 자라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지 인근에 여러 유해시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힘을 합쳤다. 2006년 벽적골 롯데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규모 성인오락실이 개점을 준비하자 입점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19] 2007년 상점가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이 개폐식 지붕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인근 아파트에 미칠 소음과 빛 공해 등이 우려된다며 민원과 소를 제기해 공사를 저지하기도 했다.[20]

3. 입주자대표회의와 영통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가 만들어 갈 미래

함께 의견을 모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주민들이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가 공감하고 교류하기 위한 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행사들은 많이 줄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장터, 기념일 행사, 주민축제, 청명단오제 등 아파트 주민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같은 단지, 동 안에서 살고 있어도 데면데면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 단순히 주거공간이 넘어서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등은 행사들이 열리게 되는 출발점이었다. 주민들이 반복적인 일상에 지칠 때 힘을 보탤 작은 활력을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아파트 주민들이 선호할 만한 행사를 기획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주민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했는데, 행사 일정을 정할 때는 단지 인근 학교에 시험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등 주민의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려 노력하였다.

> 이남옥 한번은 어린이 사생대회를 열었어요. 찾아올 주민들을 위해 과자들, 요구르트, 학용품도 준비해 놓고 그날 하루 장이 서게 했죠. 저녁에는 영화상영회도 했고요. 앞집, 옆집 이웃은 알아도 단지 이웃을 알기도 어렵죠. 행사를 열고 나니 이 동 저 동에서도 모이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찾아와 서로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죠.(황골마을 주공/단지아파트 동대표,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 역임)

하나의 단지이기보다 하나의 '마을'이 되고자 했던 청명마을 주공아파트의 사례를 살펴보자. 청명마을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먼저 세대별, 관심사별 다양한 주제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



주민 화합의 자리인 청명단오제(2008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는 소모임 활동들을 지원하였다. 주부역사모임, 영화모임 등 여러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대보름축제, 주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주민화합축제와 소모임을 계기로 쌓인 주민들 간의 끈끈한 관계는 아파트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갖게 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와 주변 환경에 관심으로 이어졌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세대민원부터 자재관리 업무를 진행해 '종이 없는 관리업무'를 실현하는가 하면, 어린이 생태교육, 생태교육공간 조성, 갯벌체험 및 유적기행 등 환경과 생태를 몸소 경험할 장을 만들어 갔다. 입대위의 노력 끝에 2004년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각각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과 2006년에는 에너지 절감 우수단지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원칙과 아파트 단지의 주민, 관리업체 등의 의견 사이에는 충돌하는 지점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곤 한다. 이때 빛을 발한 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과 단지 내 구성원들이 쌓아 온 '신뢰'였다. 이는 단지별로 비슷한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비슷한 생활환경을 꾸리고 있다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이기에 아파트 생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아파트 운영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등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1년 수원시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1년 수원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월례회의(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발 벗고 나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줬기에 가능하였다. 수원시 내에서도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이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과 신뢰를 쌓기 위해 임원진들은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백종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몇 년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해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알아가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표자가 나서야 해요.(청명마을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입주자대표협의회 대표 및 수원시의원 역임)

선대찬 공동주택 재무제표, 회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지요. 단지관리매뉴얼도 꼼꼼히 살폈고요. 비용 산정부터 개별 업체가 관리해야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애쓰지요. 회계와 운영이 투명하도록 관리해야한다, 관리사무소와 입대위 간의 소통을 일원화하고 그 외의 업체들의 연락을 차단해 부정을 방지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지키고 있어요.(벽적골 롯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영통신도시가 개발된 지도 25년이 지났다. 세월이 흐른 만큼 영통동 내 아파트와 상가

의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다. 엘리베이터와 녹물, 유리, 난방 온수 배관 등의 시설이 노후화되는 경우에는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10년여마다 보수할 수 있지만, 운행 차량에 비해 주차면수가 부족한 점, 관리사무동 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 등 수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로 따라 최근 영통동 아파트 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주민들의 의견과 바람에 귀기울여 가며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입대위의 바람은 한층 더 새로운 터전을 만들기 위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앞으로의 영통신도시 주민의 삶이 기대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

「수원영통도서관 개관」, 『경향신문』 1999년 7월 20일.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 예방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진행」, 『뉴스피크』 2022년 10월 26일.
「기흥IC-태안 반월리 연결 338번 지방도 오늘 개통」, 『동아일보』 1999년 9월 18일.
「수원-용인 아파트입주권 가격 폭락」, 『매일경제』 1998년 1월 5일.
「수원-분당 순환전철 조기 착공을」, 『매일경제』 1999년 4월 2일.
「영통A주민들 아름다운 나흘로 방송」, 『수원시민일보』 2006년 2월 11일.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개통후 승객 폭발적 증가」, 『연합뉴스』 2013년 12월 19일.
「아파트 계약포기-미입주 속출」, 『조선일보』 1998년 1월 5일.
「영통지구 학교 운영 차질」, 『조선일보』 1998년 1월 14일.
「관심 높아진 임대주택사업, 미분양-신도시 부근이 유망」, 『조선일보』 1998년 3월 23일.
「영통지구 그랜드마트 열어」, 『조선일보』 1999년 1월 21일.
「난립하는 수도권 '베드타운'① 집만 빼곡…학교-공원 없어 서울 외곽길 '숨막히는 체증'」, 『조선일보』 1999년 8월 30일.
「난립하는 수도권 '베드타운'② 직장도 병원도 학교도 서울에…"미니 신도시에선 잠만 잡니다"」, 『조선일보』 1999년 8월 31일.
「난립하는 수도권 '베드타운'③ 주민 7만5000명 동사무소도 없어」, 『조선일보』 1999년 9월 1일.
「법정으로 간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 『중앙일보』 2008년 11월 26일.
「아파트 단지내 성인오락실 안돼」, 『쿠키뉴스』 2006년 5월 16일.
「영통지구 주민 68% "주거환경 불만"」, 『한겨레』 1998년 3월 26일.
「아파트 구조, 층간소음의 비밀」, 『KBS NEWS』 2016년 7월 21일.
수원시, 「수원시, '아파트 민주주의' 실현 위한 계획 세워-2017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수원시 보도자료 2017년 2월 8일(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170208171531883&).
수원시의회, 2009, 『수원시 공동주택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3-4쪽.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 2022년 2월 11일 시행.
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https://www.suwon.go.kr:38083/citizenIntranetMain.do).
공동주택정보 관리시스템(https://www.k-apt.go.kr/cmmn/knewMapView.do#this).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경기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portal/mainPage.do).

주

1. 「아파트 구조, 층간소음의 비밀」, 『KBS NEWS』 2016년 7월 21일.
2.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 예방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진행」, 『뉴스피크』 2022년 10월 26일.
3. 수원시의회, 2009, 『수원시 공동주택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3-4쪽; 수원시, 「수원시, '아파트 민주주의' 실현 위한 계획 세워-2017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수원시 보도자료 2017년 2월 8일
4.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 2022년 2월 11일 시행.
5. 주거단지를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서부터 황골마을(1단지와 2단지)과 청명마을(3단지와 4단지), 산내무실마을(5단지와 6단지), 살구골마을(7단지), 벽적골마을(8단지와 9단지)이라는 5개 마을에 9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정헌목, 2023, 「영통 택지개발사업의 전개」, 『영통동』,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162쪽 참조). 2022년 12월 현재는 총 32개의 단지형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현황」(2022년 3월 8일). 경기데이터드림).
6. 수원학연구센터 제공 아파트 단지별 현황자료 기반
7. 「난립하는 수도권 '베드타운'② 직장도 병원도 학교도 서울에…"미니 신도시에선 잠만 잡니다"」, 『조선일보』 1999년 8월 31일.
8. 「영통지구 주민 68% "주거환경 불만"」, 『한겨레』 1998년 3월 26일.
9. 「난립하는 수도권 '베드타운'① 집만 빼곡…학교-공원 없어 서울 외곽길 '숨막히는 체증'」, 『조선일보』 1999년 8월 30일.
10. 「난립하는 수도권 '베드타운'③ 주민 7만5000명 동사무소도 없어」, 『조선일보』 1999년 9월 1일.
11. 「난립하는 수도권 '베드타운'③ 주민 7만5000명 동사무소도 없어」, 『조선일보』 1999년 9월 1일.
12. 「영통지구 그랜드마트 열어」, 『조선일보』 1999년 1월 21일.
13. 「수원영통도서관 개관」, 『경향신문』 1999년 7월 20일.
14. 「기흥IC-태안 반월리 연결 338번 지방도 오늘 개통」, 『동아일보』 1999년 9월 18일.
15. 「수원-분당 순환전철 조기 착공을」, 『매일경제』 1999년 4월 2일.
16.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개통후 승객 폭발적 증가」, 『연합뉴스』 2013년 12월 19일.
17. 2022년 현재 영통1동과 영통2동의 협의회가 운영 중이며, 영통3동 협의회는 임원진 구성 중에 있다.
18. 「영통A주민들 아름다운 나흘로 방송」, 『수원시민일보』 2006년 2월 11일.
19. 「아파트 단지내 성인오락실 안돼」, 『쿠키뉴스』 2006년 5월 16일.
20. 「법정으로 간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 『중앙일보』 2008년 11월 26일.

02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 활동

황의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과 변천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 영통구에 자리 잡은 지 20년이 넘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이곳은 근처에 영통구보건소와 수원체육문화센터,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있어 주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구역이기도 하다. 영통로를 사이에 두고 들어선 주민복지시설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에는 영흥숲공원이 상당한 면적으로 녹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보다 약간 동쪽으로는 영통역과 청명역을 거점으로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며 수원과 용인을 연결하고 있다.

이렇듯 녹지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조성된 자원회수시설은 흔히 '소각장'이라 불린다.[1] 이곳은 영통구를 비롯하여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모아 소각하고 처리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통한다. 도시의 곳곳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결집되는 곳이지만 자원회수시설의 외관은 사뭇 고요하고 평온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당 시설이 '쓰레기 소각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민들에게 일종의 생활시설로서 다가가고자 노력해 왔음을 드러낸다. 주민복지시설과 공원도 주변에 함께 입지함으로써 시설에 쾌적한 느낌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영통 주민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소각장'에 쉽사리 익숙해지지 못하였다.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은 상당히 뿌리 깊은 것이었다. 이는 지상으로 4층까지 올라가는 건물 너머로 보이는 긴 굴뚝의 외관 때문만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터 잡고 살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전경(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자원회수시설 관리동(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아가는 주거공간의 바로 인근에 '쓰레기 처리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은 불편함을 느껴 왔던 것이다. 더불어 많은 주민들은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불안은 영통이 개발됨에 따라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갈수록 심화된 측면이 크다.

1996년에 착공하여 1999년에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이 상당한 잡음을 야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당시 새로운 주거지구로 떠오르던 영통신도시는 불과 몇 년 전에 입주한 주민들로 차츰 북적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입주민들은 근처 자리한 자원회수시설의 존재를 그리 수월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영통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건설되리라는 고지를 미리 받은 주민들도 있었지만, 입주하고 나서야 그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각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1999년에 이르러 집회와 항의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주민들과 수원시 간의 갈등은 2000년 4월에 주민협약서를 맺음으로써 잠시나마 봉합되었다. 곧이어 소각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며 이를 두고 벌어진 대립도 한동안 가라앉은 듯 보였다.

<표 1>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과 가동

시기	내용
1996.06.24.	수원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 기공식
1996.07.04.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경기도)
1996.07.29.	건설공사 착공
1996.09.19.	건축허가 취득
1997.09.09.	기술설명회
1999.02.25.	기술공청회
1999.10.01.	시운전 결과보고
1999.10.02.	건설공사 준공
1999.10.28.	사용개시 허가(경기도)
2000.01.	주민 대표와 수원시 합의로 쓰레기소각장 시설 점검 및 성능검사 용역 실시(용역기관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환경과 공해(NGO), 아주대, 광운대 합동) : 다이옥신 등 오염정도 측정결과 이상 없음
2000.04.17.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 체결(수원시장 심재덕, 주민 대표 박종명)
2000.04.24.	정상 가동 시작

자료 : 수원시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쓰레기소각장 건설 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96년 1월 11일



1997년 8월 28일



1998년 8월 17일



쓰레기소각장 청소차량 진입일(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1999년 8월 11일







쓰레기소각장 점화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1999년 8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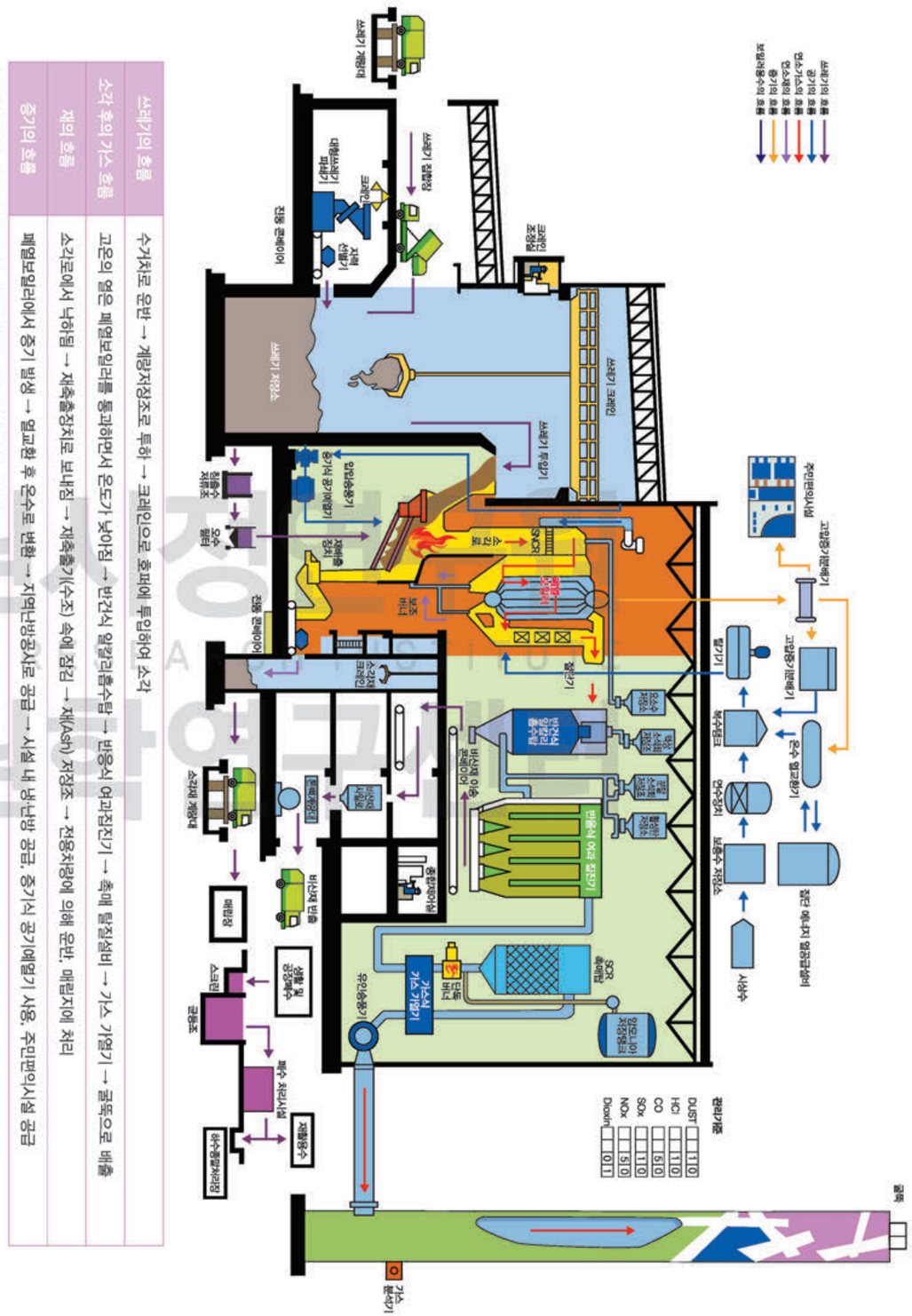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시설물 배치도(수원시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제공)

그러나 이때 체결된 주민협약서는 소각장의 영구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약속은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2015년을 전후로 하여 해당 시설은 다시금 영통동 내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영통동 주민들은 이제껏 시설을 가동해 온 부담과 더불어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2010년 후반을 지나면서, 소각장의 이후 거취를 수원시 차원에서 다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갈수록 힘을 얻게 된다. 이때껏 가동한 시기가 결코 짧지 않았으므로 소각장의 대보수 문제가 마침 공론화되던 참이었다. 이에 영통동 주민들 가운데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담을 인근 구의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여론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의 시설을 이전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였으므로, 수원시와 주민들 간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에서 대보수 문제에 이르는 오랜 시간 동안, 영통동 주민들은 시설에 관심을 꾸준히 지니고 수원시 측의 대응을 꼼꼼히 감시해 왔다. 자원회수시설 역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견학을 마련하는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힘을 써 왔다.



쓰레기의 흐름 — 수거차로 운반 → 계량/저장조로 투하 → 크레인으로 호퍼에 투입하여 소각

소각 후의 가스 흐름 — 고온의 열은 폐열보일러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낮아짐 → 반건식 알칼리흡수탑 → 반응식 여과집진기 → 촉매 탈질설비 → 가스 가열기 → 굴뚝으로 배출

재의 흐름 — 소각로에서 낙하됨 → 재축출장치로 보내짐 → 재축출기(수조) 속에 잠김 → 재(Ash) 저장조 → 전용차량에 의해 운반, 매립지에 처리

증기의 흐름 — 폐열보일러에서 증기 발생 → 열교환 후 온수로 변환 → 지역난방공사로 공급 → 시설 내 냉난방 공급, 증기식 공기예열기 사용, 주민편익시설 공급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시설물 배치도(수원시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세차동과 계근실 일대(202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자원회수시설(202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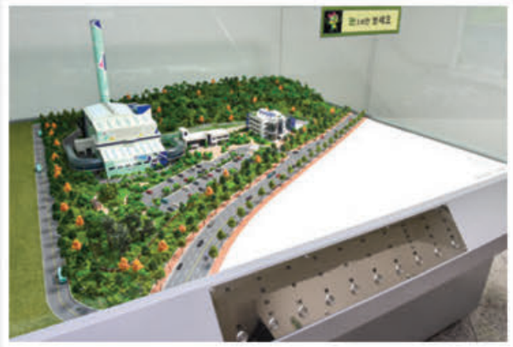




수원시자원회수시설(202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세일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내 자원순환체험관
(2016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내 자원순환체험관
(2016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수원시와 주민 간의 갈등은 흔히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거취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영통동 주민들의 활동은 시설을 이전하라는 단순한 요구로 귀결되지만은 않았다. 20년에 걸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민들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더 좋은 방법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논의하고, 거듭된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며 수원시와의 소통 경로를 모색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모임도 여럿 생겨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왔음은 물론이다. 최근에는 영통동 주민들의 바람대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원시 구성원들과 보다 폭넓게 의논하는 자리도 마련된 바 있다. 소각장 문제는 소모적인 갈등과 반목으로만 남는 대신, 수원시와 주민들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2. 영통신도시의 성장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이슈화

영통동은 1990년대를 거치며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영통지구'로, 영통지구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이어 추가로 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영통신도시는 2만 6,000여 호의 주택과 1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되었으며 1998년 비로소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었다.[2]

현재 수원 내에서 영통동은 중산층의 거주공간으로 통한다. 단시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개발 과정에 이어 대부분 중산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입주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영통지구는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며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말끔한 신도시로 자리 잡았다. 학군이 발달해 있으며 인근에 삼성전자 단지가 입지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특성에 한몫을 했다. 다만 2010년대 이후 인근에 위치한 광교와 동탄이 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 고급 주거지로서의 위상이 다소 옮겨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영통동은 안정적이며 살기 좋은 수원시 내부의 대표적인 주거지라는 명성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다.[3] 특히 1990년대 말 입주하여 지금껏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통동은 오랜 시간 정을 붙이며 지내 온 보금자리와 같다.

개발 이후 거듭된 변화를 겪어 온 영통신도시에서 소각장을 둘러싼 문제는 한결같이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다.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한 이후로 주거지로서의 영통신도시는 차츰 그 모습을 바꾸어 왔다. 개발 초기의 영통은 말끔한 아파트 단지와 벌판이 다소 이질적인 형태로 섞인 공간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주거지와 교육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 각종 주민복지시설과 상가가 들어서고 수원의 안팎을 잇는 지하철이 마침내 개통하면서 영통의 경관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은 20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를 지켜 왔고 자연스레 주민 생활과 관련한 논쟁의 중심에 놓여 왔던 것이다.

1990년대 말,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미처 가동되기도 전에 주민들은 여러 불안과 우려를 품고 반대를 표명하였다. 물론 당시만 해도 영통신도시에는 새로운 입주민들이 막 들어오던 시기라 그러한 움직임이 곧장 체계적으로 조직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입주 초기에 산발적으로 표출되던 주민 의견은 아파트의 하자 보수와 같은 개별적인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 한두 해가 지나며 주거가 다소 안정되고, 소각장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차츰 알려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영통신도시 입주민 이남옥은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회상한다.

> 이남옥 영통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제 입주가 막 진행되고 개발이 되니까 이게 우리 단지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 영동 신도시 쪽에 개발 지역에 관련된 이슈들도 좀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단지별로 다 똑같아요. 입주 때는 하자 보수 그거는 다 똑같은데 이슈가. 이제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2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생활이 정착이 됐잖아. 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소각장이 이제 문제야. 이제 [주민들이] 가동 못 한다, 시험 가동도 못 한다, 이제 이게 이제 막 들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각장도 입주 전에 완공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입주 전에 완공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겨울 되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제 온도 차이로 굴뚝에서 연기처럼 보이는 거지. 거기는 뜨거운 열기가 나오고 대기는 차갑고 그러니까 이게 연기처럼 보이니까 소각장에서. (중략)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또 막 이제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되는 거지.

영통신도시의 아파트에 당시 막 입주한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을 보고 적잖이 당황하였다.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시설의 건립 계획을 미리 알고 동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의 입주민 가운데는 소각장이 지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영통의 새로운 주민들은 곧 가동을 시작할 소각장의 존재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였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굴뚝에서 연기처럼 보이는" 물질이 목격되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졌다. 이렇듯 긴장 어린 분위기는 영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입주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영통신도시에 소각장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은 가동을 막기 위해서 하나 둘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즈음 결성된 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을 비롯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라든지 기타 조금 핵심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들, 그다음에 기타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쓰레기소각장 점화식 반대 주민 시위
(1999년 5월 21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쓰레기소각장 가동 반대 주민시위(1999년 3월 30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쓰레기소각장 가동 반대 주민시위(1999년 3월 30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주민들에게 수원시쓰레기소각장 가동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심재덕 시장(1999년 3월 30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자연스럽게 자원회수시설이 처음 가동하는 날은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과 수원시 측의 대립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시범 가동이었지만 정문 앞에 모인 주민들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집회는 아파트의 동대표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한 다음 진행되었다. 당시 아파트 동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던 이남옥의 말에 따르면, 그는 소각장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면서도 "가동을 하되 감시를 철저히 해서 산업용 폐기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내심 수원시와 주민들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때의 분위기는 대단히 팽팽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주민들은 우선 시범 가동을 막음으로써 수원시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다.[4] 주부들은 아이들을 태운 '유모차 부대'를 결성하여 앞장을 섰다. 수원시 측에서는 '용역'을 고용하여 집회를 해산하려 했으므로 충돌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 이에 전 심재덕 시장은 처음으로 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민들은 "차 못 들어가게 밀고, 유모차가 앞에 서고, 차는 이렇게 오고 뒤에 주민들이 있고 이 양쪽에는 용역 업체들 무지하게 와 있고" 하던 상황이 소각장을 둘러싼 첫 번째 대립의 풍경이었다.

이남옥 첫 번째 못 들어갔어 차가. 심재덕 시장이 못 들어갔어. 첫날은 못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차가 들어오는 거지. 대문 하고 있고 심재덕 시장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쓰레기차가 들어온다, 이러니까 막 영통에 아파트마다 막 몇 시까지 이 소각장으로 더 와라 이래서 또 막 사람이 막 몇 백 명이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날 택시 기사였어. 총각이야. 그 바로 앞에 OO아파트 25평짜리거든. 그 아파트에 살아. 주유소 가서 신나를 사갖고 와가지고 제 몸에다가 부어갖고. (중략) 우리 보는 앞에 뿌렸잖아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쫙 뒤집어썼어. 라이트를 다 켜고 들고 "나 불 켠다. 소각장 가동하면 내가 피땀 흘려서 벌었던 돈, 아파트 여기다가 구입을 했는데. 이 아파트 떨어지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다, 나 불 붙인다." 이러다 자기도 모르게 (라이터가) 탁 켜져 버린 거. 절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중략) 그때 영통구보건소 차량인가 보건소 차량이 하나 와가 있었어요. 봉고가. 그래서 불이 날 때 이제 그걸 이제 이송시켰어."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각장 가동에 항의하다 한 주민이 분신하기에 이르자 상황은 더욱 격화되었다. 다행히 다친 주민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날 수원시와 주민 간의 충돌은 뼈아픈 기억으로 남고 말았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집회가 열렸다. 모인 사람들은 가동 첫날 분신을 시도한 주민에 대해 수원시의 책임을 묻고 소각장 가동에 다시 한 번 항의하였으나, 수원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대립각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5]

이러한 상황이 다소나마 봉합된 것은 2000년 봄, 수원시와 주민들 간에 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였다. 늦춰진 가동을 빨리 개시하고자 하는 수원시와, 계속된 반목에 지쳐가던 주민들은 일차로 협상을 맺기에 이른다. 협약서에는 주민과 협의하여 가동 방식을 정하고 환경영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6] 이로써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은 같은 해 4월 24일부터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항의 집회도 얼마간은 잠잠해진 듯 보였다.

영통동에서 소각장이 다시금 커다란 이슈로 떠오른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였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내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소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러한 논쟁에 앞서, 자원회수시설이 다시금 공론화되는 상황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시설이 가동된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 시점의 영통동은 여러모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수원시의원이었던 채명기는 1997년에 영통신도시로 이사해 들어와 지금껏 살고 있다. 그는 이사 당시와 현재 시점에서의 영통동이 상이한 경관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다. 1990년대 말의 영통신도시는 이후 20년 동안 인구 과밀화와 기반시설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이다. 영통동은 한창 신도시로 탈바꿈하던 시기를 지나 거듭된 개발로 점차 북적이게 되었으며, 지금은 주거지구와 상가, 교육시설이 밀집한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면 반가운 것이기도 했으나 최근 영통동 주민들에게 대기오염이라는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 주기도 했다.

채명기 영통1동, 2동, 3동 인구 여기 [과밀한] 상황에 (중략) 굴뚝이 5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도로. 도로 같은 경우가 거기 영통의 도로가 10차선[봉영로]인데 엄청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도심이 생성돼 갖고 10차선이 있는 데가 수원 전역에 아무 데도 없었어요. 여기가 영통 생기면서 그 대로가 엄청 사람들이 편하게 다녔던데 지금은 주차장화 돼갖고 지금은 완전히 주차장화 돼갖고 차가 겁나게 밀려요. (중략) 이 넓은 차선이 옛날에요. 1997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만 하나도 정말 영통이 참 살기 좋은 상황이[었는데] ……. 지금은 완전히 그 차량들이 주차장화되었다는 거면은 계속 도로에 계속 서 있으면서 매연을 계속 뿜다 보니까, 그 매연과 그다음에 소각장과 지역난방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갖고 여기가 대기오염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소각장이나 지역난방 있는 데 일대가 전부 학교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다 거기가 일대가 지금 아마 학교 수만 해도 거기가 열 몇 개가 거기가 다 밀집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애들이 수업을 받는데 이게 애들이 수업을 받는데 창문을 열어. 창문을 열고 이거 하는 것 자체 오염 자체가 이게 지금 애들한테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학부형들이 또 그렇고, 여러 가지[문제]가 만들어지는.

한때 수원 전역에서도 넓은 도로로 손꼽히던 10차선 도로, 봉영로는 오래지 않아 줄지어 선 차들로 북적였다. 영통신도시가 수원 내에서 두드러지는 소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인구도 갈수록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통동이 화성과 용인을 잇는 교통상의 중간 지대로 자리 잡으면서 해당 지역의 도로 풍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처럼 '봉영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붐비고, '차 매연과 소각장과 지역난방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자' 적지 않은 영통동 주민들은 과거와 같은 깨끗한 공기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학교가 여럿 들어서 있었으므로 어린 학생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기오염은 심각한 문제였다.

자원회수시설은 이렇듯 영통동 변화와 맞물려 다시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0년 동안 자원회수시설은 수원 시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왔지만 동시에 영통동 주민들의 작지 않은 걱정거리이기도 했다. 특히 소각장이 야기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두고 영통동 주민들은 2010년 후반에 들어 소각장 문제를 다시 뜨겁게 공론화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갈등조정관을 맡고 있는 황인웅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한다.

황인웅 이제 영통구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히나 이제 지금 소각 시설 주변에 있는 영통1, 2, 3동 이쪽이 사실 수원에서 비교적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 학부모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사회 참여 욕구가 굉장히 크고 기존에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주인의식도 강하고, 자치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이 영통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소각장] 문제 해결에도 제가 기대하는 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원회수시설은 199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곡점을 겪으며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또는 걱정거리로 여겨져 왔다. '소각장 문제'는 영통구 안팎의 갈등을 여럿 내포하며 오랜 시간 이어졌다. 그러나 황인웅의 말처럼 자원회수시설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둘러싼 논쟁은 지역사회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실제로 소각장을 두고 나타난 지난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상호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도, 즉 "영통 지역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엿볼 수 있다.

3. 주민의 결집과 목소리, "투명하게 소통합시다."

최근 자원회수시설은 영통구, 그리고 더 나아가 '수원시 모두의 문제'로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배경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온 주민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자원회수시설이 지난 20년 동안 영통구 내에 같은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곳은 주민과 수원시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소각장을 어떻게든 '해결'하고픈 주민들, 그리고 소각장을 쉽사리 치워버릴 수 없는 수원시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많은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수원시에 전달하고자 각종 단체와 모임을 꾸려 왔다는 사실이다. 자원회수시설이 영통 내부에서 가동해 온 지난 20년은 영통신도시의 주민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물론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을 시작할 무렵부터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소각장이 거주지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낀 주민들은 뜻을 같이 하는 이웃과 결집하기 위해 외부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때 소각장 반대 운동에 동참했던 이남옥은 초기 주민들의 움직임을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고 있다. 이남옥은 환경운동에 잠시 관여한 전력도 있다. '소각장 문제'라는 지역의 문제를 피부로 접하면서부터이다.

조사자 어떻게 환경운동센터에서 일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남옥 소각장에 하다 보니까 △△△라는 분이 군포의 소각장, 그쪽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분인데. 이제 와서 수원 소각장에 대해서 막 설명 많이 했어요. 영통 입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우왕좌왕하니까 이제 그 △△△라는 분이 와서 하고. 거기에 이제 이게 환경문제니까, 수원환경운동센터가. (중략)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경운동센터에서 어쨌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중략) 이 시민단체에 내가 회비를 내서 그러면 이 시민단체를 좀 도와준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 갖고 했던 거고. 그래서 소각장에 대해서도 많이 자문을 받았죠."





수원시쓰레기소각장 가동 반대 시위(1999년 11월 23일,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쓰레기소각장 가동 반대 시위(1999년 11월 23일,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쓰레기소각장 가동 반대 시위
(1999년 12월 14일, 수원박물관 제공)

소각장에 대응하는 주민행동을 꾸리는 과정에서 특정 아파트가 이러한 반대운동의 중심이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물론 자원회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서 소각장이 주는 부담감을 달리 느끼기도 했지만, 영통신도시 내부에서 '소각장 문제'는 상당히 널리 공론화된 편에 속하였다. 초기 자원회수시설 설립을 우려했던 주민들 역시 한 아파트의 입주민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보다는 여러 아파트의 동대표가 모여 영통신도시의 입주민들을 대변하고자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항의 모임을 조직한 것에 가까웠다. '소각장에 대응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모으고 표출하는 거점으로 작동하였다.

이남옥은 당시 소각장비대위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원래 한 아파트의 동대표를 역임했지만,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 동대표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대위에도 깊게 관여하게 된 것이다. 당시 동대표 모임은 소각장 의제를 다루며 아파트에 공고를 붙이고 집회에 참여할 인원을 모으는 실천으로 분주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소각장비대위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남옥이 위원장 자리에 추천을 받은 것이다.

이남옥 동대표 회장들끼리(소각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하면서 이제 그 여자 동대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나는 이제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 가동은 하되 감시 철저히 하고 실리를 찾자. 그때는 보건소도 없었고 영통체육문화센터도 없었고 (중략) 도서관도 없고 첨에 [영통에] 가니까 그런 게 없었어.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이런 게 다 없어서 그래서 그 저런 걸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겠다. (중략) 우리 팔달구 보건소나 권선구 보건소로 다녔었거든요. 초창기에요. (중략) 옛날 시청 건물이잖아, 거기가 보건소였었는데 그 뒤에 거는 나중에 지었고. 거기로 애를 들쳐 업고 차를 갈아타면서 다녔던 거지. 예방접종도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여기 보건소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수영장도 만들고. 이제 사설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중략) 소각장에 열 나오고 지역난방공사 근처에 있고 지으면 저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나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막 생각을 했었죠. 바꿀 생각으로. 나는 그래,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3명이었어요. 한 명이 어용될까 봐서 3명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중에 이제 내가 한 명이었던 거고. 또 한 명이 하기에는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3명이 돼서 막 돈 걷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1990년대 말은 한창 개발되던 영통신도시에 입주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통동 내부에는 보건소나 도서관처럼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하였다. 당시 동대표로 일하던 이남옥은 바로 이 점을 포착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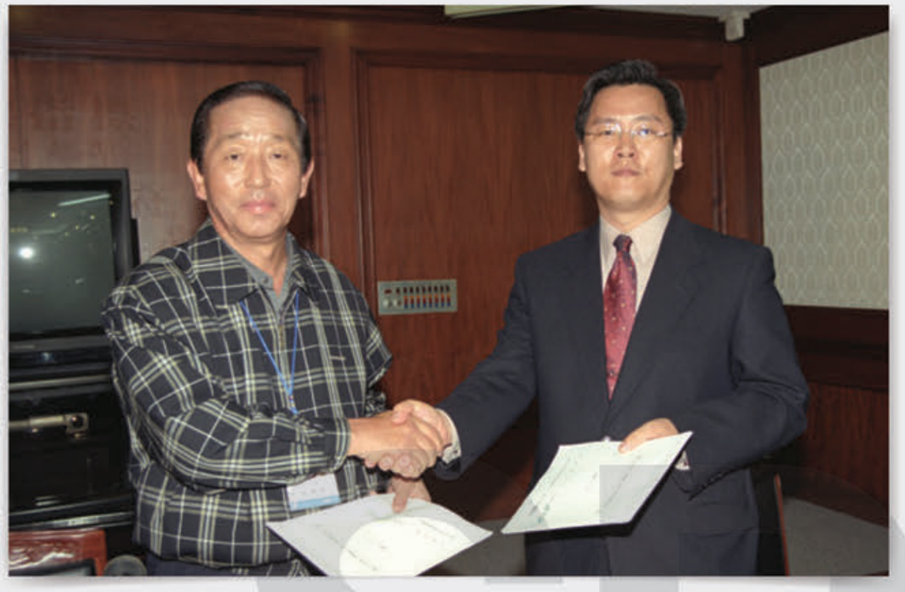


수원시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협정식(1999년 12월 23일, 수원박물관 제공)

했다. 소각장비대위에 참여하면서도 "[시설] 가동은 하되 감시 철저히 하고 실리를 찾자."고 주장하면서, 시설 철폐를 원하는 다른 주민들의 입장과 어긋난 적도 있었다. 소각장비대위에는 소각장을 없애고자 하는 주민들, 그리고 시설을 가동하되 그 관리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한데 섞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소각장에 반대하는 영통동 주민들의 모임은 이후 여러 갈래로 분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은 수원시와 영통동 주민 간에 협약을 맺은 2000년도 이후에 가속화하였다. 이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왔던 비대위가 해산되고, 그 자리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채우게 된 것이다. 이즈음부터 수원시는 영통동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협의체를 지목해 왔다. 그러나 협의체의 구성원들은 자원회수시설에서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전 비대위가 포섭했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기는 어려웠다. 반면 수원시는 협의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시도하며 보상 정책을 제공하고자 했으므로 협의체 바깥의 주민들은 수원시 측에 자신들의 의견이 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한 영통동 주민의 말에 따르면,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심재덕 수원시장과 주민 대표 박종명(2000년 4월 17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쓰레기소각장 협약식(2000년 4월 17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05년 3월 23일



2007년 4월 9일



2011년 4월 8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2011년 4월 8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주민A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아마 간접 영향권에 300m 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법이 그게 만들어져요. 그때 당시에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냥 300m로 묶어 버린 거야. 300m 묶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의 대표인 양 해왔는데 이거는 조직이 다른 거예요. (중략) 왜 그러냐면 주민대책위[비대위]는 영통 전역에 있는 대표성을 갖는 단체고 주민지원협의체는 300m에 있는. 300m 내에 있는 아마 세대가 한 1천 몇 세대나 되나? 하여튼 그 세대만을 위한 그 조직이에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수원시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조직이 그 조직이라고 (중략) 하는데 사실 이게 다른 조직이에요. 이건 법에 의해서, 300m를 위한 조직이지 영통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통 전체를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중략) 수원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협약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의 지역 주민과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협의체가 영통동 주민에 대해 지니는 '대표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데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각장에 관한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았으므로 상황은 다소 복잡해졌다. 소각시설이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자원회수시설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바깥의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의 상황과 달리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갈등은 이전과 달리 다소 잦아든 듯하였다. 몇 년 동안 이슈를 이끌어 온 주민들로서는 소각장 문제에 다시 뛰어들기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다. 게다가 영통동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반면, 영통동에 살던 사람이 이사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했으므로 하나의 문제를 한결같은 강도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였다. 한 주민은 이에 관해 2000년을 기점으로 "협약이 됐고 해결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소각장) 생각을 안 하고 영통에서 계속 살았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며 '소각장 문제'는 다시 주민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주민들 사이에서 자원회수시설의 내구도가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채명기 의원은 오랫동안 소각장 문제에 관해 영통동 주민들을 대변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한이 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의 내구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2015년을 기점으로 소각장의 거취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민들은 시설을 보수하여 계속 가동하고자 했던 수원시의 입장과 부딪혔다. 주민들은 2015년 내구연한이 만료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시 측에서는 기술진단을 거쳐 시설의 가동 시기를 연장했기 때문이다.[7] 이에 주민들은 이러한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였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갈등은 이렇듯 새로운 국면을 맞아 다시금 생성되었다. 특히 2018년에 시행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각장 문제는 정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시의원 후보에게 소각장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따져 질문했으며, 여러 후보들 역시 주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각기 다른 대안을 공약으로 걸기도 했다.[8]

영통동 주민인 김영진이 주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기도 이즈음이었다. 주민연대는 다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통동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주로 영통동의 현안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곤 했다. 김영진은 주민연대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해 온 구성원이었다. 그가 소각장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지역 활동을 통해서였다. 영통동 주민들 사이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마침 김영진은 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던 차였다. 따라서 그가 지역 차원에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이후 결성된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정식명칭 '수원시소각장 운영 중단 및 폐쇄를 위한 비상행동위원회')에서 고문 역할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2020년부터였다. 김영진에 따르면 이때 사진 한 장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다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각장 굴뚝의 연기

아닌 김영진의 집에서 소각장 굴뚝을 찍은 사진이었다. 당시 소각장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김영진 *그 이후로 이제 그러면 이 소각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비상행동에서.) 그게 언제였나면 20년도 5월 달인가. 그게 그때, 이 소각장에서 이렇게, 집에서 소각장이 너무 잘 보여요 굴뚝이. 5월 달이면 [원래] 연기가 안 보여요. 백연(白煙), 하얀 연기가 안 보여요, 날씨가 따뜻하면. 지금 연기 안 보이죠. (중략) 저기[굴뚝]에서 시커먼 연기 나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5월달에 연기가 나오면 이건 문제 있는 거다. 검은 연기는 곧 불완전 연소고, 불완전 연소하면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야. 내 집에서 또 보니 검은 연기가 나와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영통 주민 모임터 카페에다 올렸어요. 한여름에 시커먼 연기가 왜 나오냐? 5월 달이면 뜨거울 때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게 안 나와요. (중략) 5월 달에 연기가 보인다는 것은, 검은 연기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 갖고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면 우리 모이자고 그래갖고 모이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모이신 거예요, 2020년?) 5월, 5월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5월 6월에 이제 그때 아까 영통 주민연합 연대가 있었죠. 영통 주민연대. 그 사람들이 이제 피켓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시위, 소각장 주변에서. 이제 점점 커진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됐냐. 5, 6월, 7월 이렇게 계속 릴레이 피켓이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3회를 그 이후에 했나? 하여튼 뭐 하고 집회하고 그러면서 20년 /월에 또 집회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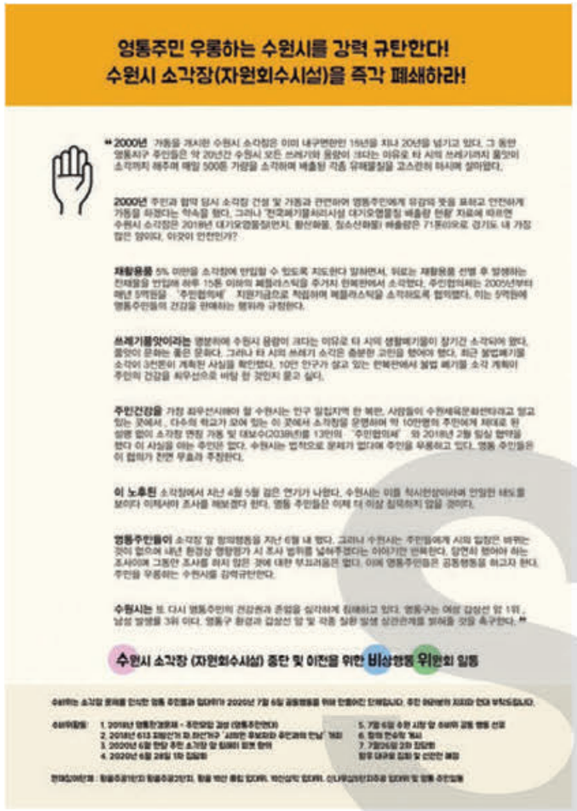
김영진은 자택에서 찍은 사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놀라면서도 분노하며 소각장이 위험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는 빠르게 움직임에 나섰다. 먼저 영통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돌려 소각장의 중단과 폐쇄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의 집회와 시위는 2020년 11월까지 이어졌으나 그럼에도 수원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다 2020년 이후 확산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모임과 농성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아파트 알뜰시장에 들러 소각장 가동 중지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고, 단지 내부에 전단지를 붙이는 등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이처럼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영통동 주민들은 뜻을 같이하는 이웃들을 찾고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에서 오래도록 운동을 함께한 주민들은 더욱 그랬다. 소각장 반대를 위해 한동안 이어온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의 한 구성원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9]

> 많은 주민들이 영통 한복판에 꽁꽁 숨겨 둔 소각장 실체에 많이 놀라셨어요. 저도 그랬구요.
> 68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 새로 깐 아스콘으로 인해 두통을 호소할 때 방수포 깔아준 분.
> 예상치 못한 추위에 너도 나도 온열기와 핫팩을 가져와 주신 분.
>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캠핑용 전등과 난방기를 가지고 달려와 주신 분.
> 덕분에 너무 따스했고, 밤이 밝았습니다. 전열기, 형광등 주인분 챗 주세요. 돌려드릴게유~~
>
> 농성장 정리 순간까지 넘쳐나는 간식들
> 너무도 감사한 분들이 많네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 오늘도 농성장 철거 작업에 힘 보태 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 혼자 했으면 일 년은 걸릴 꺼였는데 금방했네요^^*
>
>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인해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해 내린 결론이지만
> 코로나 19 방명록을 보니 어려운 시기에도 600명 정도의 주민 분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 (후략)

글쓴이는 소각장 반대 행동에 함께 참여해 준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물론 당시 영통동 주민들 모두가 농성에 나서 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이웃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수원시소각장 중단 및 이전을 위한
비상행동위원회 전단지(김영진 제공)

들은 농성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바닥에 방수포를 깔아 주고 핫팩을 가져다주는 등,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비상행동에 함께하였다. 농성을 마무리할 시기에는 텐트 철거를 도와주러 농성장에 들르는 주민들도 있었다. 글쓴이가 위 글을 올린 것은 2020년 12월 말로 한창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글에는 어쩔 수 없이 활동을 접게 되었다는 아쉬움도 묻어난다.

이처럼 소각장 반대운동에 돌입한 것은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뿐만이 아니었다. 수원시의 소각장 가동 의지를 꺾고 시설 철폐를 현실화하고자 주민소송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 한편으로 시의원 채명기도 소각장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채명기 지역의 의원들하고 저하고 그때 당시에 이미경 의원하고 이 TF 구성을 한 거예요. (중략) 의원들 중에서는 이 대표로 두 사람이 끼고. 그다음에 지역에,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소각장 주민들 대표, 회장들.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 회장들 해서 구성[하고]. 그다음에 갈등전문가, 또 그다음에 교수 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 소각장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팅을 해 왔던 거죠.

소각장의 가동 연장에 대응하기 위해 채명기 의원은 영통동에 거주하는 주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들, 갈등전문가와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를 두루 만나고 모임을 가져 왔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책위원회, 또는 지역구 시의원과의 회의 등이 꾸려졌다. 이 같은 노력은 앞서 살펴본 단체들이 꾸렸던, 영통을 배경으로 한 보다 실천적인 차원의 활동들과 병행하는 것이었다. 소각장에 우려를 품고 있던 주민들도 채 의원의 활동에 호응하며 많은 관심을 보내왔다.



수원 시내의 한 떡집에 붙은 '굿바이 소각장' 스티커

자원회수시설의 가동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부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만 나오지는 않았다. 몇몇 영통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거나 건물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이는 개별적인 방식으로 소각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다. 지금도 수원 시내를 걷다 보면 '소각장 반대'라 적힌 노란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인 가게들이 종종 보인다. 다만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실천을 결집하는 구심점으로서 지역 단위의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은 물론이다.

덧붙이자면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거나 뜻을 같이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비교적 거리를 두고 살고 있거나 그도 아니면 시설의 가동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과 불만을 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영통동에 거주하는 한 익명의 주민은 수원시에서 직접 보상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소각장 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 주민B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피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 그런 저기로 그런 열로 수영장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나는 그냥 그렇게 피해 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략) 이제 한 300m인 500m 저기에는 많이 그래서 거기는 또 많이 혜택을 받아요. 거기들은 그[자원회수시설]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애들 학자금 나온다는 데도 있고 거기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혜택을 줘요. 받는 게 많은데. [제가 살고 있는]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을 못 느끼겠는데. (중략) 그 안에 그런 시설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쓰레기는 처리되어야 하고. 저 쓰레기 그거 하는 데도 들어가 봤는데 하는 데도 들어가 봤는데. 저걸 도대체 여기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해주면 저건 어디로 갈 거고. 지금껏 했는데 근데 이제 보면 그 앞에 있는 대표자 저기 회장들이나, 그전에는 부녀회가 많이 했는데 지금 부녀회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아니면 그런 인터넷 카페에 뭐 이런 저기들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보면 불편을 못 느끼거나 나는 [자원회수시설 근처에 체육시설이 생겨서] 혜택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2021년 7월 7일, 채명기 의원 제공)



수원시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지역구 시의원 소각장 회의(2021년 11월 12일, 채명기 의원 제공)

> 을 받고 있으니까. (중략)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소각장 열로 수영장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금 막 어마어마해요. 거기 태우는 열 그걸로 물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싸게 해 놓은 거잖아. 지금 다른 데[체육시설] 얼마나 비싸요.

이처럼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보이지 않거나 무관심으로 바라보는 주민들도 있다. 시설에 함께 들어선 체육관 등의 주민복지시설을 즐겨 이용한다면 특히 그렇다. 어렸을 때 영통동에 들어와 오랫동안 살아온 익명의 주민(20대)도 자원회수시설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원회수시설이 "워낙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몸의 일부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잠깐 스쳐가는 거주민이 아니라 오랫동안 영통신도시에 정을 붙이고 살아온 주민들조차 소각장을 지역의 일부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각장에 대한 의견은 이처럼 저마다 갈리곤 했다. 수원시 갈등조정관을 역임해 온 황인웅도 이 점에 주목한다. 소각장 바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은 시설 가동에 우려를 표하는 반면, 시설에 멀리 떨어져 살거나 영통동에 잠깐 머물다 떠날 예정인 주민은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처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심이나 불만의 정도가 서로 크게 다르므로 주민들의 의견은 분산된 채로 나타나기 쉽다. 황인웅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측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00년 초반에 잠시 소강되는 듯했던 '소각장 문제'가 2010년 후반 들어 다시 불거지면서, 주민 사이에서 공공의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대화가 더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각장의 유지 여부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초기에 관심을 지녔던 주민들이 각기 다른 시선을 지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 역시 단순히 소각장을 철폐하자는 주장으로 귀결되지만은 않았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되, 그러한 처리의 부담을 지역 차원에서 다시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에 못지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경우건 주민들은 소각장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서는 일치를 보았다.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의견은 때로 엇갈리기도 했지만 시설의 운영에 관해 수원시가 보다 투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결국 문제는 영통신도시 내부의 쓰레기를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묻는 데에 이르렀다. 자원회수시설에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조차 해당 시설이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영통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영통신도시의 주거 밀집도는 자원회수시설의 새로운 거취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논의의 중심은 이제 쓰레기 처리의 부담을 지역, 정확히는 수원시 내부에서 어떻게 고르게 분배할 지에 놓였다.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환경에 보다 이로운 쓰레기 처리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야 하는 공동의 과제에 직면하였다.

4. 수원시자원회수시설과 영통 주민 사이의 아슬아슬한 관계

최근 자원회수시설이 다시 공동의 이슈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2020년 11월 발간된 『영통마을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통마을신문』은 2018년에 창간한 지역 신문이다. 신문의 관계자는 영통신도시가 생긴 지 20년이 됐는데도 이웃과 모이는 일이 거의 없음을 아쉬워하며 발간을 결정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영통동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입장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작고, 예쁜 이야기"를 주로 싣곤 한다.[10]

그런데 『영통마을신문』 제7호는 소각장을 둘러싼 다소 첨예한 갈등을 담고 있었다. 당시 기사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중단과 폐쇄를 위한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의 활동을 여러 면에 걸쳐 자세히 다루었다. 다음은 「20년이면 충분하다. 영통 주민!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11]

> 소각장 비상행동은 2020년 6월 22일 제1차 집담회, 7월 27일 제2차 집담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소각장 연장 가동 사실들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2차 집담회에는 영통구 주민 50명과 수원시 관계자(시의원, 수원시 환경국장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참석했다. 집담회 과정은 '라디오영통'의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되었다.
>
> 소각장 비상행동은 두 번의 집담회와 여러 번의 시장 면담 요청, 일인 시위, 수원시청 앞 수비위 공동행동 선포식, 소각장 가동 중단을 희망하는 어린이 그림 공모전, 소각장 중단을 원하는 주민 1만 3천 376명의 서명 (중략) 전달, 조무영 제2부시장 면담, 영통지역 현안토론회를 진행했다. (중략) 소각장 중단에 서명한 영통 주민이 13,376명이고, 시민 농성장 지킴이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60여 명이다. 영통주민모임터의 글을 통해 현 상황을 알고 있는 회원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더 많은 주민이 그곳이 소각장인 줄 모른다. 왜 소각장 후문에서 주민들이 농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권리도 책임도 스스로가 나서서 알고자 할 때 알게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주민이 제대로 알고 함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통마을신문』의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영통동 주민들은 소각장 비상행동을 꾸려 활동해 왔다. 기사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각종 집담회를 개최하고 1인 시위에 참여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대다수의 영통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를 비롯한 주민 단체가 시설 가동에 반대하는 뜻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마을 미디어'가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 방송국인 '라디오영통', 그리고 인터넷 카페 '영통주민모임터', 그리고 위 기사가 실린 계간지 『영통마을신문』이 그것이다. 영통동 주민들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모임을 꾸리고 소식을 알리며 서로와 돈독함을 다져 왔다.

11월 26일자 『영통마을신문』에서는 소각장 이슈를 알리기 위해 이러한 마을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설도 실렸다. 라디오영통 대표가 집필한 이 글은 지역 언론들조차 소각장 이슈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2020년 10월 17일에 열린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의 선포식을 앞두고 취재요청서를 지역 언론사에 여럿 보냈지만 "언론사 단 한 곳도, 단 한 명의 기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선포식을 취재한 것은 "라디오영통의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유일"했으며 "수원시민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정보 공유의 수단조차 되어 주지 않는 언론에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토로하였다.

반면 라디오영통은 "농성 현장의 소식을 지역 주민에게 전하고 있으며 현장의 기록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논설은 마을 내부의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라디오영통 같은 마을 주민들의 미디어를 통해 "우리 동네의 일상과 이슈들이 지역 내에서 공유될 수 있어야" 지역 내 사회 관계망이 공고해지며, 따라서 시민들의 힘이 되어 준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소각장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영통동 주민들에게 적잖은 피로를 안겨 주면서도 지역민들이 모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라디오영통이나 영통마을신문, 그리고 온라인 카페 '영통주민모임터' 등의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요긴한 통로로 기능해 왔다. 주민들은 이러한 통로를 오가며 소각장의 존폐를 둘러싼 공동의 문제에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영통 마을'의 구성원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영통동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간다. 자원회수시설의 처리라는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주민들은 때로 충돌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뜻을 함께하는 이웃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통 마을'의 주민들은 한데 모여 소각장 문제를 토의하고 공동의 의지를 다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대상은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영통동 주민들의 전단지(김영진 제공)

당연하게도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수원시이다. 사실 적지 않은 주민들은 소각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도 '영통 마을'이 처리해야 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들은 소각장에 관한 논의가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대화를 넘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각장비상행동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김영진도 이 점을 강조한다.

김영진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협의체나 이런 구성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상 영통 /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통 /동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장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이것은 마을에 하나의 문제였고, 전체의 건강상이나 또 삶의 질에 영향들을 미치는 부분이 강한 요소가 크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예전하고 다르게[다뤄야 한다]. 지금 [영통] 주변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즉 주거지로서 이렇게 고밀도 주거지가 흔히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거고 주민들에게 여론 형성한 거고. (중략) 이게 [자원회수시설의] 600톤이라는 규모는 (중략)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론 실질적으로 하루에 600톤을 더 태울 수도 있고 덜 태울 수도 있는데 평균 한 500톤 좀 넘거나 그만큼은 많이 배출한다는 뜻이죠. 우리들이 그건 주민이 배출한 거고 우리들이 좀 덜 배출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영진의 말처럼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럼에도 영통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고밀도 주거지'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김영진은 주민들도 생활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그러한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수원시의 생활쓰레기가 한데 모이는 소각장의 6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영통동 주민들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문제는 '협의체'나 '영통 마을'의 주민들 사이에 국한되면 곤란하며, 수원시를 구성하는 다른 구의 주민들도 함께 관심을 지니고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통동 주민들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수원시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주기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수원시도 이러한 요청에 무응답으로만 일관해 온 것은 아니다. 물론 이는 주민들의 요구를 시 측에 전달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다만 수원시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지역의 공공연한 '골칫덩이'로 자리 잡아 온 자원회수시설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은, 수원시 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묘수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5. 갈등과 토의의 장, 그 이후의 모색

소각장을 둘러싼 주민과 수원시 간의 갈등은 크고 작은 변곡점을 맞으며 때로는 비교적 잔잔하게, 때로는 가시적인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TF팀(현 자원회수시설이전 TF팀)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TF팀의 관계자는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비판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가동을 멈추고 시설을 이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여럿 있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한편 그 자신도 영통에서 오랫동안 지내 왔으므로, 관계자에게 '소각장 문제'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지는 않았다. 그 역시 영통 주민으로서 동네에 정을 붙이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오면서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우려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각장 문제'는 수원시와 주민들의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하연구센터

부단한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마련하는, 다소 더딘 과정을 거쳐야만 풀어 나갈 수 있는 과제였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거주지역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자원회수시설은 영통동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즈음 도시계획에 따라 지금의 자리에 지어졌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영통은 물론 수원 내부의 다른 지역에도 거주민들이 늘어났으므로, 시설을 옮기기는 어려워진 반면 처리해야 하는 생활쓰레기의 총량은 전에 비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문제와 함께 수원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가파른 증가도 차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어디서 처리하며 또한 어떻게 줄일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원회수시설 TF팀의 관계자도 강조하듯 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노력은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보다 긴 호흡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지역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공감을 필요로 한다.

자원회수시설 TF팀 관계자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발생하는 폐기물들, 이제 제가 이제 생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워서는 안 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재활용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쓰레기 자체를 줄이면은 태우는 데가 이제 그게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으면 해요. (중략) 다른 구 주민들께서 (중략) 내가 발생하는 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로 인해서 영통 주민들께서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인 감량을[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사이클 자원 순환, 전에는 이제 폐기물 처리라고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자원 순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으면 해요. 수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주민들과도 그렇고 또 관(官)과 민(民) 사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주민들께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중략) 어딘가는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불편해하실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감량에 대한 공감대.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같이 좀 이제 공감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중략) 적극적인 [생활쓰레기] 감량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

이처럼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문제는 수원시와 영통동 주민, 또는 주민들 간의 갈등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생활쓰레기 처리가 지역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협동의 필요성도 점차 뚜렷해졌다. 생활쓰레기의 증가가 지역의 생태환경에 머지않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처리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토의하고 협상하는 동시에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자원순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공동의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한편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갈등은 2022년 9월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9월 말 두 차례에 걸친 집담회를 통해 '소각장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원회수시설 TF팀의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밝혔듯, 집담회의 개최는 영통동 주민들의 오랜 요구에 수원시가 응답한 결과였다.

자원회수시설 TF팀 관계자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 서울을 빼고 제일 규모가 커요. (중략)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게 이제 수원이에요. 그래서 영향이 큰 것도 맞고 또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 것도 맞으니까 분산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런 것도 이제 공감을 하는 거고. (중략) 이전을 하는 거는 이제 추진을 하겠지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저 쓰레기를 어떻게 … 그것도 이게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부재한데. 그동안은 이제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론화를 좀 추진을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영통 분들만 모셔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이전 대상지가 되는 분들이 [불만을 지닐 수 있어서]. 시 전체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4개 구를 다 이제 인구에 배분을 해서 이제 영통은 조금 가중치를 더 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00분을 모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공론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2022년 8월 2/일 인터뷰)

이처럼 집담회에서는 200명의 수원 주민들이 모여 소각장의 존폐와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소각장은 수원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옮길 부지를 새로 모색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어야 할 과제에 또다시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제껏 지속되어 온 '소각장 문제'의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의미한다.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논쟁은 영통동 내의 분쟁을 넘어, 주민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정비하고 '우리 쓰레기'를 처리할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묻는 더 근본적이면서도 커다란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원회수시설의 거취를 둘러싼 영통 마을과 수원시 간의 오랜 논박은 소통의 방향과 합의점이 좀처럼 맞닿지 않고 엇갈리면서 증폭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통동 주민들은 크고 작은 단위의 모임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 소각장을 둘러싼 지난한 갈등은 해소될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 시민공론화 숙의토론
(2022년 9월 24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결과 및 민선8기 갈등해소 방안 언론브리핑(2022년 9월 29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결과 및 민선8기 갈등해소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
(2022년 9월 29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반목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주민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는 '풀뿌리 정치'의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영통동 주민들은 지역 단체를 만들어 서로와 만나고 운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꾸준히 활동해 왔던 것이다. 이들은 수원시, 그리고 시 내부의 다른 동이나 구에 거주하는 여러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시도하며 '영통 마을'의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는 이처럼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계기로 논의와 협의, 때로는 갈등을 거쳐 구성된다. 자원회수시설의 이전이 결정됨으로써 지난 20년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앞으로 자원순환, 그리고 환경 보전이라는 지역 차원의 과제도 이제껏 다져 온 활발한 공론의 장을 거쳐 협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주

1. 수원시소각장이라는 명칭은 2000년 4월, 수원시와 영통동 주민들 사이에 주민협약이 체결되면서 '자원회수시설'로 바뀌었다. 그러나 '소각장'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통 주민들 사이에 널리 쓰이는 이름이다. 이후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주민 활동에서도 '소각장'이라는 명칭이 폭넓게 쓰임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소각장'과 '자원회수시설'을 혼용하였다.
2.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 영통,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51쪽 참고.
3.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 영통,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59~63쪽 참고.
4. 「수원 영통단지 주민들 소각장 가동 반대 집회」, 『연합뉴스』 1999년 3월 30일.
5. 「영통소각장 인근 주민 항의집회」, 『연합뉴스』 1999년 12월 21일.
6. 「수원 소각장 가동위한 주민협약서 체결」, 『경기일보』 2000년 4월 18일.
7. 「[6·13 이슈] 수원 영통구 자원회수시설」, 『인천일보』 2018년 6월 6일.
8. 「[6·13 이슈] 수원 영통구 자원회수시설」, 『인천일보』 2018년 6월 6일.
9. 「[영통소식] 소각장 비상행동(수원시 소각장 운영 중단 및 폐쇄를 위한 비상행동 위원회) 공식활동 마무리 인사♥」, 2020년 12월 24일, 『네이버카페-영통주민모임터』(2022년 10월 26일 접속).
10. 「수원 사람 인터뷰-마을신문 대표들」, 2020년 10월 28일, 『네이버 포스트-수원의 재발견』(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9807221&memberNo=610560, 2022년 10월 27일 접속).
11. 기사 포함 이후 인용 내용은 『영통마을신문』 제7호(2020년 11월 26일)에서 발췌 및 참고하였다(https://pf.kakao.com/_dxhlfj/60656889, 2022년 10월 27일 접속).

03 영통동 주민들의 소통마당, '영통주민모임터'

송지영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공론화로 출발한 모임

영통동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영통주민모임터'는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6만 4,024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이다. 네이버 카페의 단계 중 가장 높은 '나무 3단계'가 영통주민모임터의 위상을 알려 준다. 영통주민모임터에는 2022년 12월 2일 기준으로 전체 글수만 22만 6,145개가 게재되어 있어, 영통주민모임터에 접속하면 영통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실 영통주민모임터는 2007년 3월 7일에 네이버에 개설된 '영통리모델링' 카페를 모태로 한다. 이후 영통리모델링은 2008년 (구)영통리모델링-영통아파트주민연합, 2009년 영통아파트주민연합, 2011년 영통주민연합을 거쳐 2019년부터 영통주민모임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영통리모델링에서 영통주민모임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들이 영통 지역에서 활동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네이버 '영통주민모임터'에 남아 있는 글을 검토하여 재구성하였다.

2007	영통리모델링
▽	
2008	(구)영통리모델링, 영통아파트주민연합
▽	
2009	영통아파트주민연합
▽	
2011	영통주민연합
▽	
2019	영통주민모임터

영통주민모임터의 변천



2000년 영통동 아파트 전경(수원박물관 제공)

2006년 10월 26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로 지은 지 15년이 경과되는 공동주택의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기존의 아파트 전용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면서 평촌, 일산, 분당 등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을 벌여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영통동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007년 1월 부동산뱅크[1]의 '우리아파트 게시판'에서 영통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2] 2007년 1월 31일에 작성된 황골 쌍용아파트 주민의 "영통 소형의 가치와 리모델링"[3]이 호응을 얻으면서, 2007년 2월 1일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의 "영통 소형 리모델링만이 살길이다!"[4]를 통해 본격인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부동산뱅크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임 구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2007년 2월 3일 영통동 4단지에 거주하는 초영아빠가 "각 단지별 영통 소형 리모



영통리모델링 카페 첫 글

델링 추진위원회 사전 준비 work shop 제안"이라는 글에서 "세 분 이상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총무가 되어서 주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5] 2007년 3월 11일 벽적골 한신아파트 주민이 리모델링 카페를 제안하기도 했다.[6]

네이버 카페는 idofmine[7]에 의해서 2007년 3월 7일에 만들어지고, 2007년 3월 12일 부동산뱅크 게시판에서 공개되었다.[8] 카페 주소는 http://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였다. 당시 idofmine은 "일반인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론화는 그만큼 빨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부동산뱅크 게시판은 전문적인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으로 그 가치가 계속되어야지요."라며 카페를 개설한 이유를 밝혔다.[9] 1대 카페지기가 된 그가 2007년 3월 7일에 작성한 "영통리모델링 까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에는 "본 까페는 영통 주민들의 리모델링 공론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까페입니다."라고 카페를 설명하고 있으며, 카페 개설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0]

> 안녕하세요? 8단지 한신아파트 살고 있는 영통리모델링 까페지기입니다.
> 우선, 기존에 가입하신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구요. 대신 이 글을 통해 인사 올립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까페를 통해 영통 소형 리모델링이 공론화가 되어 저나 여러분 모두 더 이상 부동산 강남-경부라인에서 소외받지 않고, 부~자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까페는 만들어 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원수도 아직 적으며, 더우기 까페지기인 저 자신도 아직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통에 거주하시는 수많은 부동산 고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님들께서 계속해서 가입해 주시고, 현재 회원수가 늘어나는 속도로 볼 때, 향후 본 까페가 영통리모델링의 대표 커뮤니티로 활성화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며, 그리하여, 영통 거주민뿐만이 아닌 모든 분들에게 분당, 평촌 못지않은 영통 소형의 힘을 보여주게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통동의 문제점을 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점으로 영통동 주민들이 영통동과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리모델링 정보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통동의 인지도가 약하며, 지역에 특별한 이슈가 없고 지역사회 이익단체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idofmine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페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각종 부동산 사이트의 영통 게시판에 네이버 '영통리모델링' 카페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카페에 올라온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통, 영통리모델링, 리모델링 등과 같은 태그를 달아서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을 알리고자 했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 부동산 뉴스 등 각종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최신 뉴스에 영통 리모델링 관련 댓글을 달자는 제안도 했다. 웹상에서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아파트 건축 10년이 지나면 각 단지 부녀회와 연합하여 리모델링 설명회를 갖게 하자는 전략을 세웠다.[11]

2022년 현재 영통구 영통동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속도가 빠르다. 아파트 단지의 준공연도가 대부분 1997년으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 지역은 용적률이 최저 196%에서 최대 220%로 재건축 사업성이 높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발하였다.[12] 이렇게 영통동에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통리모델링 카페가 있었던 것이다.

2. 카페의 새로운 정체성을 고민하다

영통리모델링은 아파트 리모델링과 지역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주로 했을 뿐만 아니라 태그달기, 포털사이트나 뉴스의 답글 달기, 부동산 사이트에 글쓰기 등을 독려해서 아파트 리모델링 문제를 공론화시키고자 했다.[13] 이들은 자신의 아파트만을 고민하지 않았다. 지하철 조기 완공 등을 위해서 민원 올리기 등을 하며[14] 영통동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했다.

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산되면서 카페의 정체성도 점차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카페의 이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2008년 3월 29일 (구)영통리모델링-영통아파트주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idofmine은 2008년 3월 31일에 올린 글[15]에서 카페의 성격, 규모, 운영방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카페의 성격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카페가 증축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각종 on-line 활동, 민원운동, 총선TF 등 간접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영통인 모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명시적(Explicit)인 활동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둘째는 카페 규모의 확대입니다. 영통의 절대가치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회원 수 2,000~3,000명 수준이 아닌 영통 주민 전체가 우리 커뮤니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는 카페 운영방식입니다. 영통의 대표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통의 모든 거주민(실소유주,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으나, 타 지역 대비 영통의 상대적 저평가 탈출이라는 상당히 전투적인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실소유 주가 중심이 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운영자 위임입니다. 영통 커뮤니티가 보다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능력있는 운영자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카페는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아닌 영통동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시켰다. 2008년 총선에 대비하여 '영통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아이러브 영통' 카페와 연대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총선 출마 후보의 경력과 공약을 공유하며 영통동 지역 주민모임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카페는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창구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카페의 근본적인 성격은 개설 당시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온라인 중심의 활동을 오프라인까지 확대시키고 계속해서 카페 규모를 키우되 실제 아파트 소유주 중심의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통해 당초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고자 했던 개설 목적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영통사랑(bout114)이 2대 카페 매니저를 맡았다. 2년차에 접어든 카페는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확대해 갔다. 2008년 6월 19일 영통사랑이 올린 글을 통해 카페의 중요한 목적이 부동산 가치 올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1. 카페를 이원화하다. 우선, 교통(분당선 조기 완공, 광역 교통 체계, 경전철 등)과 교육(학교 환경 개선, 명문 학원가 조성 등), 문화 업무를 맡고 추진하게 될 기획단과 부동산 허위매물 없애기, 회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원 확보 등의 기존의 카페 활동으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기획단의 활동은 오프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프 활동을 위해서 카페의 대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공식 명칭을 기획단장(케이님)을 카페매니저로, 저(영통사랑)는 카페운영자로 정하였습니다.

2. 다음 주 수요일에 영통 내 각 단지, 부녀회/입대위 관계자와 미팅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입수된 주소를 통해, 미팅을 알리는 우편물이 발송되었고, 일부 단지는 내일 중으로 우편물 발송을 완료할 것입니다. (카페 스탭 '거칠마루'님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비용의 일부는 회비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3. 다음 주부터는 허위매물에 대한 대응이 바뀝니다. 현재까지는 허위매물 발견 시, 해당 부동산에 수정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허위매물이 발견되는 즉시, 집단 민원, 신고토록 할 것입니다.
4. 현수막 게시건 : 현수막 게시는 기획단에서,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영통 입구에 초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카페의 규모와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 2008년 9월 8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17] 1만 명의 회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재테크, 교육 등 지역민들이 관심 있을 콘텐츠를 보강해서 회원 증가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다. 지역구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위원회, 부녀회 등과 연계사업을 통해 영통의 가치를 찾고 카페 인지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평가를 올리는 게시판도 만들었다. 경희대학교가 영통역을 경희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에 의견을 낸다든지,[18] 카페 지정 인테리어업체를 지정하여 카페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자영업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광고게시판을 만들었다.[19] 광고게시판은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뤄졌는데, 그렇다 보니 신청을 늦게 했거나 게시 글을 보지 못한 회원이 참여하지 못해서 섭섭해 하기도 했지만, 카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자 했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카페의 성격이 모든 회원들에게 공감을 샀던 것은 아닌 것 같다. 2009년 2월 3일에 사과나무가 올린 "카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20]는 당시 카페의 회원들이 카페의 방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21]

안녕하세요. 영통에 신혼집을 차린 2년차 신랑입니다. 보건소, 홈플러스, 도서관, 중심상가들이 잘 정리된 영통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의 글과 정보를 보며 나름 생각을 정리하며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의 글들을 보며 약간의 충격과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통 실소유분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악질 부동산을 정리하는 이곳의 방향성이 걱정됐습니다. 악질 부동산의 정리는 당연히 공감이 갑니다. 집을 구하거나 세놓으면서 눈물 한번 흘려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소유분들 위주로 카페를 운영하는 취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글들을 보면서 대부분 실소유주 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호재 및 부동산 가격에 관한 글들을 작성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통의 제 가치를 찾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영통의 제가치가 소유주 분들의 아파트값을 떠받치는 것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나 예비 세입자 혹인 예비 구매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였습니다. 주식도 작전세력에 의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 결국 개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윤을 남겨 다른 곳으로 갈지도 모르는 실소유분들을 위해 카페가 말하는 영통의 제 가치를 찾기 위해 전체 주민이 시세담합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큰 고민의 줄기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으시고 많이 불편한 분도 계실 꺼라 생각됩니다. 제가 결코 이 카페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도 있음을 너그러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름 해답은 영통주민연합과 더불어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통의 제 가치를 부동산 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통에 존재하는 이야기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통의 가치는 부동산 가격이 아닌 영통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까페가 저의 생각까지 아우를 수 있을 때, 제가 만든 까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카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좋은 토론꺼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혹시 운영진들의 판단에 이 글이 부적합하다고 느끼시면 삭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과나무는 '영통이야기'라는 카페를 만들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사과나무의 글은 일부 회원들로부터 공감을 받았지만, 당시 운영진을 비롯한 대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 회원 '민서아빠'는 "이 커뮤니티의 주인은 … 운영진과 스텝입니다."라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다.[22] 하지만 이후 카페 이름을 영통아파트주민연합으로 바꾸고 이후 영통신도시주민연합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23]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던 카페는 영통동 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가치를 올리고자 했다. 2009년 5월 운영진 회의에서는 영통 소식지 발간, 부동산업체의 허위매물 단속 아르바이트 모집, 직거래 게시판을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다.[24] 물론 이 중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로서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은 당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업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세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낮은 가격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실거래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였다. 2009년 4월 30일 영통맨은 실소유 회원들에게 허위매물 신고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25]

>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상의 중개 허위매물로 인하여 매도자, 매수자 모두 많은 심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모든 부동산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영통지역부동산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허위저가매물(정상가 허위매물도 포함)을 발본색원하여 신고하여 불법적인 허위매물 인터넷 게시를 억제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것이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니 별도로 운영진에서 모아서 작업할 수도 있으니, 근거자료(허위매물 화면 캡쳐)만이라도 확보해주십시오. 각 단지별로 일반 시세는 알고들 계실 겁니다. 일반시세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은 1차로 의심을 해주시구요. 동일단지, 동일한 동, 동일 층에 여러 개가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100% 허위매물입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참여해주셔야 중개업소들의 불법적인 허위매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운영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5월 1일) 구청 건축과에 관련 통화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별다를 할 일 없는 것 같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하는군요.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많이 신고해야 할 듯합니다. 아래 답글 참조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허위매물 신고는 카페와 중개업소 간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운영진은 카페 운영원칙을 정립하고 허위사실, 법적인 분쟁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 글, 비방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26] 영통맨은 "중개업소 탓 그만하고 스스로의 활동으로 영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자고 했다.[27] 2009년 6월 15일 영통맨은 매니저 자리에서 사임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실소유주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셔야지만 영통이 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당부를 남겼다.[28] 운영진의 사퇴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카페 부동산 관련 허위매물 신고는 계속되었다. 급기야 2009년 12월 24일 영통맨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피소를 호소하며 카페를 탈퇴하였다.

이 사례는 비록 카페에 분쟁의 역사로 남았지만, 영통동 부동산 거래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월 16일 한성익의 글 "영통구 공인중개사협회 분임장회의 내용"[29]에 따르면 구내 520개 중개업소 대상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과장광고 등을 근절"할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카페의 활동이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 상황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2011년에 카페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처음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케이였다. 케이는 카페 회원수가 9,000명이 된 것을 축하하며 2011년 2월 25일 "축, 9,000명 … 그리고 우리 카페의 자화상"이라는 글을 올렸다.[30] 그는 "카페 정체성이 모호하고 부동산 외에 정보가 부족하다. 등업이 어렵고 운영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케이는 카페 회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카페를 이용해서 "재미있게"와 "잘" 활동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결국 2011년 6월 24일 카페는 영통주민연합이 되었다.[31]

3. '영통주민모임터'의 탄생

2018년 11월 카페는 분리되었다. 부동산 정보 위주의 영통지구 발전톡(ttps://cafe.naver.com/skyblueuzsr2) 카페와 일반 지역 정보 카페인 '영통주민모임터'로 분리하였다. 영통지구 발전톡 카페에는 영통지구(1~9단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각 지역별 부동산카페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분리 과정에 대한 글은 남아 있지 않다.

카페 매니저를 맡은 오렌지바나나가 2018년 11월 7일에 올린 글에는 새로운 카페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카페는 "주민 여러분들이 주인임"을 선포하고 회원들에게 "훌륭한 카페는 운영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라는 당부를 올렸다.[32]

모임 이름부터 카페가 추구할 방향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2018년 11월 1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름과 카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조사하였다. 카페 명칭으로는 287표를 얻어 '영통주민모임터'로 결정되었으며, 카페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정보 공유가 162표, 소통 129표, 상호존중 74표를 얻었다. 농수산물 판매는 289표로 무산되었지만 홈쇼핑 공동구매는 206표, 업체 닉네임 사용은 228표의 찬성을 받았다.[33]

영통주민모임터의 운영방식은 다른 지역 카페와 차이가 있었다. 홍보는 매월 정해진 날만 가능하다. 교육기관과 식당·카페·먹거리는 1일에, 병원·약국과 판매 및 서비스, 뷰티·패



영통주민모임터 카페 배너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주민모임터 카페 내 홍보 게시판과 드림 게시판

션·인테리어는 15일에만 홍보할 수 있다. 벼룩시장의 이용도 제한이 있다. 드림과 무료구함은 주 1회, 판매와 교환, 유료 구함은 1일 1개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업체로부터 일절 광고비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게시판에 제한을 둔 것은 부동산 정보카페로 시작되었다가 업체 홍보카페로 변화되었던 과거 상황을 반영하여 이뤄진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이용자들에게 좋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 금지된 홍보도 있다. 눈썹문신 홍보 및 후기는 불법시술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고 회원의 투표를 통해 스타벅스 프리퀀시 무료구함과 판매도 금지되었다.

운영자는 네이버 카페 시스템적 권한과, 합의된 이용 규약을 기반으로 한 관리를 제외하곤 최소한의 참여만을 원칙으로 한다. 카페에서 분쟁 발생 시 운영자가 개입하지 않고 분쟁이 심화될 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이다. 업체 홍보의 경우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인격성 비난을 제외한 비판적 댓글에 대해서는 카페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진은 업체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제공받지 않으며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카페 관리를 공공 영역으로 만들어냈다. 오렌지바나나는 2018년 11월 8일 카페 이용 규정-운영자 규약에서 "카페 이용자들은 운영자의 카페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며 규정 위반 사용자와 게시글이 발견되면 회원들이 규정을 알려 줄 것을 권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만 운영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34] 이전에 운영자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카페 운영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4. 살기 좋은 영통구 만들기 프로젝트

2019년 1월 16일 영통주민모임터는 2018 네이버 알찬부문 대표 카페로 선정되었다. 대표 카페는 다른 카페와 구별될 수 있도록 명함을 달아 주고, 카페의 오프라인 활동을 위한 모임 공간을 지원한다. 매니저 명의로 네이버 머니와 토즈카페 이용권이 주어진다. 영통주민모임터 운영진은 이러한 혜택을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쓰기로 했다.

영통주민모임터에서는 네이버로부터 받은 혜택을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영통동 주민 모임은 '살기 좋은 영통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19년 1월 19일 운영자인 오렌지바나나가 올린 "[공지] 살기 좋은 영통구 만들기"에 따르면 지역경제 발전, 소외계층 지원, 생활불편 개선 세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각 프로젝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st Project 지역경제 발전 :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 광고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 분들이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며 카페를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 2nd Project 소외계층 지원 : 영통구에는 평소에 잘 몰랐던 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앞서 공지 드렸던 바와 같이 네이버 대표 카페 지원금으로 자선 활동을 할 예정이며 부매니저인 맹달님을 통해 봉사 활동 일정을 미리 공지 드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
> 3rd Project 생활 불편 개선 : 길을 걸어가다 "아 이건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유게시판]을 통해 글을 올려주시거나 [영통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진이 돕겠습니다.

영통주민모임터는 아파트의 자산적 가치보다는 영통동 지역 생활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네이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독거 어르신 식사지원'을 실시하였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명의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말이나 연휴가 낀 날에는 식사 지원이 쉽지 않아서, 비비고 설렁탕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영통주민모임터 이름으로 164개의 비비고 사골곰탕을 지원하였다. 2019년 2월 19일 부매니저인 맹달오렌지의 글에는 후원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복지관 후원 및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를 올리기도 했다.[35]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주민모임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미로공원 새 단장 축제(영통주민모임터, e수원뉴스 제공)

2019년 3월에는 "'베이비트리와 반갑다 친구야'가 함께하는 가방 기부"를 진행하였다. 자녀가 사용하지 않는 가방을 모아서 캄보디아나 제3국의 어린이에게 보내는 것이다. 3월 11~12일 이틀 동안 회원은 사용하지 않는 가방을 세탁해서 현관 손잡이에 걸어 두거나 경비실에 맡기고 단지별 스태프에게 쪽지를 보내면, 스태프가 가방을 수거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반갑다 친구야' 사무실로 보내져서 필리핀으로 갔다. 2019년 3월 13일 맹달오렌지는 당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36]

> 우리 영통주민모임터 회원님들이 모아 주신 소중한 마음들이 오늘 경북 영덕에 있는 '반갑다 친구야' 사무실로 보내졌어요. 마음들이 모아졌다고 사무실에 말씀드리니 가방이 빨리 도착하면 이번 주 토요일 필리핀 친구들에게 물품을 보내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원래는 가방 포장 작업하고 금요일 발송을 하려 했으나 우째야겠어요. 모여야쥬 … 아이들 등원시키고 부랴부랴 어제 돌지 못한 가방을 수고했어요.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고 38동인데 36동 가서 초인종 누르고 잡상인 몽타쥬인지 경비아저씨가 함부로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문 안 열어주셔서 발 동동하기도 했죠. 가방을 수거하러 갔는데 허탕 쳐서 속상했다는 이야기, 가방과 함께 들어있는 손편지에 감동받았다는 이야기, 애들이 하원해서 피곤한데 가방 안에 있는 달콤한 간식 등등 몸은 힘들었지만 스탭 분 모두 감동사연 이야기하면서 힘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모두 감사해요. 온 집에 가방이, 차 안에도 가방이, 모든 스텝 분들이 그러셨어요. 오전 10시 30분에 영통1동 우체국에 1차 집결. 으헝, 이걸 어떻게 정리하쥬? 정리하는 데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도 넣어 보고, 저렇게도 넣어 보고, 저처럼 정리 유전자 자체가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멘붕이었어요. 꼼꼼하신 로렌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방 안에 가방을 넣고 가방을 요리조리 넣으면 공간님이 테이프를 착착 붙이고, 저는 다음 상자를 준비하고, 그렇게 우체국 한쪽에서 정리를 했네요. 로렌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하원이 빠른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1차 팀은 점심도 못 드시고 가시고, 2차는 11시 30분~1시 8단지 우체국에서 진행이 되었네요. 꼬꼬님은 이른 아침 서둘러 미리 보내셨구요. 함께 마음 내주신 영통주민터 회원님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날씨도 너무 고왔고, 우리 회원님들의 마음도 따스했고, 하늘도 너무 청량해서 모든 것이 행복했던 하루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도 라디오에서 나오고 완벽한 하루였어요. 우리가 모은 가방은 토요일 필리핀 친구들에게 출발한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가방 고르는 친구들 얼굴이 그려지네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고생하신 스탭 님들께도 사랑을 전해요.

이들의 지역 기부 활동은 계속 이어진다. 2019년 5월 10일 영통에 위치한 미혼모, 미혼부를 지원하는 러브더월드를 찾았다. 운영진은 방문 전 필요한 물품을 물어봐서 분유를 지원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후원 소식과 함께 러브더월드에서 필요한 기부물품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네이버 대표 카페 지원금 사용이 완료되었으며,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카페의 '살기 좋은 영통구 만들기 프로젝트'도 수행되었다.



영통입구역 신설과 지역난방공사 연료전환을 위한 주민 성명

공동 민원 요청 및 민원 결과 공유는 영통주민모임터에서 여전히 중요한 활동이다. 2022년에는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12번 수직구 공사지 이전, 영흥공원 내 지하철 환기구 공사, 영흥숲공원 공사 및 명칭 변경, 신갈저수지 산책로, 수원지역 난방공사 LNG교체 사업 등과 관련 등과 관련된 민원을 공유하였다.

특히 영통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별도의 메뉴가 있을 정도로 영통주민모임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이다. 소송 및 각종 설명회,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을 빠르게 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 있다. 2021년 초 소각장 이슈에 대해 불편하다는 회원들의 건의로 당시 오렌지바나나는 본 카페가 "소각장 폐쇄를 위한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의 불편함을 조율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각장 글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지만 너무 연속적으로 올리시는 등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라고 했다.[37] 결국 소각장 이슈는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었고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영통주민모임터는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가치를 고민하던 개인들이 모여서 영통 생활의 가치를 고민하는 모임으로 바뀌었다. 현재 카페는 자유게시판, 여가활동, 생활정보, 교육정보, 영통정보, 벼룩시장, 홍보정보, 기타정보로 크게 나뉘어 있으며 안에 다시 세부 메뉴가 정해져 있다. 지역정보를 아우르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통동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모임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알 수 있다. 한 블로거는 "영통에 살면 가입해야 할 네이버 까페 추천"으로 모임터를 추천하였다. 추천의 이유는 광고를 받지 않는다. 사는 얘기가 있다. 현실적인 후기 및 질문에 답변이 성의가 있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38]

오늘날 모임터가 이러한 자리에 서기까지는 영통동 주민 개인이 나 혼자 사는 법이 아니라 영동동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이뤄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 영통동 주민들은 그것을 잘 알기에, 모임터를 통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주

1. 1988년 개설된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https://www.neonet.co.kr).
2.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는 영통만의 일은 아니었다. 부동산뱅크에서는 과거 수지, 분당, 평촌 등에서도 리모델링을 공론화하고자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https://neonet.co.kr/novo-rebank/view/community/CommunityDetail.neo?board_gbn=A&page=11&lcode=02&mcode=038&scode=273&id=1035110.
4. https://neonet.co.kr/novo-rebank/view/community/CommunityDetail.neo?board_gbn=A&page=11&lcode=02&mcode=038&scode=273&id=1036187.
5. https://neonet.co.kr/novo-rebank/view/community/CommunityDetail.neo?board_gbn=A&page=11&lcode=02&mcode=038&scode=273&id=1037895.
6. https://neonet.co.kr/novo-rebank/view/community/CommunityDetail.neo?board_gbn=A&page=10&lcode=02&mcode=038&scode=273&id=1063096.
7. 삼성 직원인 그는 3월 5일에 리모델링에 대한 질문을 올리며 참여하기 시작했고 3월 7일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3월 12일에 부동산뱅크에 카페를 알리며 공론화를 주도하였다.
8. https://neonet.co.kr/novo-rebank/view/community/CommunityDetail.neo?other_gbn=other&board_gbn=A&id=1063276.
9. https://neonet.co.kr/novo-rebank/view/community/CommunityDetail.neo?other_gbn=other&board_gbn=A&id=1063491.
10.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0.
11.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3.
12. 『이코노미스트』 2022년 7월 13일, "대형 건설사 수주고된 수원시 영통구 리모델링 시장" https://economist.co.kr/2022/07/13/realEstate/erection/20220713174756931.html).
13. 「영통리모델링 공론화를 위한 획기적 방법 제안」(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3).
14. 「지하철 조기완공 독촉하기 위해서는」(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8).
15.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2122.
16.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6744.
17.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8769.
18.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0003.
19.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8869.
20.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0524.
21.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0524.
22.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0852.
23.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2014.
24.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2013.
25.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1869.
26.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2539.
27.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2706.
28.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12792.
29.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20239.
30.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26731.
31. 2009년 5월 9일 당시에는 카페 이름 변경을 위한 투표가 있었고 영통주민연합이 60표, 영통신도시주민연합이 194표를 얻어서 카페는 '영통신도시주민연합'이 되었다. 2011년 6월 24일 '영통주민연합'이 된 것은 카페 연혁에만 남아 있을 뿐 그 과정은 찾을 수가 없었다.
32.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248375.
33.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248775.
34.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248379.
35.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260383.
36.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263315.
37. https://cafe.naver.com/youngtongremodelin/350985.
38. https://blog.naver.com/blue11448282/222917296656.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04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

김민수
도시상공업연구네트워크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최근 영통동에서는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22년 12월 현재 수원시에서 총 8개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6개 아파트 단지가 영통동에 소재해 있다. 이 외에 영통동에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 중인 아파트 역시 다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市) 단위도 아니고 동(洞)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영통동의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열기[1]는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렇게 영통동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자연스레 영통동이 가진 사회·문화·경제적 요인과 이들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원시 정책에 주목하게 한다. 영통동에서 불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인기는 이를 추진하는 행위자와 이 행위자에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 등의 다층적 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영통동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주목하며, 이 사업이 영통동에서 활기를 갖는 이유를 파악한다.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된 영통동의 물리적 환경과 한때 수원시의 강남이라 불릴 정도로 중산층과 좋은 학군이 조성되었던 인구 및 사회적 환경, 더불어 수원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과 지원 등을 두루 살피며 이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힘들을 파악하고, 리모델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이에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정의, 조건, 재건축과 차이점 등을 우선 살피고 아파트 리모델

2002년 영통동 아파트 단지(수원박물관 제공)

2020년 영통동 아파트 단지(김승일 제공)

링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이것이 위에서 얘기한 영통동의 장소성과 접합하며 활성화되는 맥락을 파악할 것이다.

1.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란?

1)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정의와 시장 현황



신나무실 주공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신축 행위로 규정한다. 즉, 건물의 노후화를 막고, 현재 요구되는 건축물의 상태로 물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에서 정의하는 물리적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성격을 다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공간의 물리적 기능 향상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의 향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낡은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여 쾌적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2]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 도입되었다.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도입되며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고, 2003년 '주택법'에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에 사업에 대한 조합제도, 동의율 등을 규정하며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의 규정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재규정되어 왔다. 예를 들면 2007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허용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었고, 2012년에는 세대 주거전용 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를 30%에서 40%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최대 3개 층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되었고, 세대수의 증가범위는 10%에서 15%로 확대되었다.[3]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한 결과 2021년 1월 현재 전국에서 조합설립을 완료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94곳(6만 9,085가구)으로 2020년 58곳(4만 3,155가구)과 비교해서 60% 이상 늘었다. 2019년 37곳(2만 3,935가구)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증가한 수치이다.[4] 또한 초기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구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비교


2020년 3월 7일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공청회
(https://blog.naver.com/wini224/221858846260)

최근까지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에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면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용적률 등의 문제로 재건축을 통해 많은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되자 전국적으로 리모델링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이목이 높아지자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갖고 주민들이 갈등과 충돌을 겪는 일도 생기는 등 어느 때보다 두 사업의 차이와 진행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5]

주지하듯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낡은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그 땅에 새로 짓는 방식이냐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기존 구조를 활용하여 고쳐 짓는 방식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뉜다. 이 사업 방식의 극명한 차이뿐만 아니라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제도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사뭇 다르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준공연한이나 안전진단, 추진 절차 등이 재건축의 규정보다 느슨한 편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지어진지 30년 이상 되어야 하고 안전진단 등급은 D나 E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리모델링은 준공연한 15년 이상과 안전진단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아파트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재건축은 주민의 4분의 3(75%)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3분의 2(66.7%) 이상이면 된다.[6]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재건축과 리모델링 절차 비교

<표 1>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차이

구분	재건축	리모델링
방식	전면 철거 후 신축	대수선 또는 부분 철거 후 증축
허용연한	30년 이상	15년 이상
안전진단 등급	D·E등급	B·C등급(수직증축 B등급 이상)
법적 용적률 상한	있음	없음
증축 범위	용적률 한도 내	가구별 전용면적 30~40% 이내
가구수 증가	제한 없음	기존 15% 이내
임대주택 건설 의무	있음	없음
초과이익환수	3,000만 원 초과 시 최고 50% 환수	없음
조합원지위양도제한	조합설립 후	없음

자료 : 「리모델링이 '대세'된 이유」『이코노믹리뷰』 2021년 8월 16일.



리모델링과 재건축

또 재건축은 개발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적용받는다. 반면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환수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가 생략돼 절차가 더 빠르다. 이 외에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고, 공사 기간도 더 짧으며, 자원의 경제적 낭비나 환경에 대한 부담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용적률 규제가 없던 시절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하면 용적률 제한이 적용돼 바닥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리모델링은 건축 심의만 통과하면 법정 용적률 초과도 가능하다.[7]

이렇듯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제도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며 주민들은 상황에 맞게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 바로 용적률이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200%를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말한다. 즉, 용적률이 200% 미만이면 재건축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00% 이상이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상한용적률은 300%이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이 200% 미만인 경우는 재건축을 통해서 상한용적률 300%까지 받는다면 재건축에서 요구하는 기부채납과 공용공간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약 70%의 용적률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새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유분을 신규 분양한다면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용적률이 220~250%인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해서 300%의 상한 용적률을 받는다 해도 여타 기부채납 등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증가할 수 있는 용적률이 거의 없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인 아파트들은 재건축보다는 용적률의 제한 없이 전용면적을 최대 40%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8]

2. 영통동에 부는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의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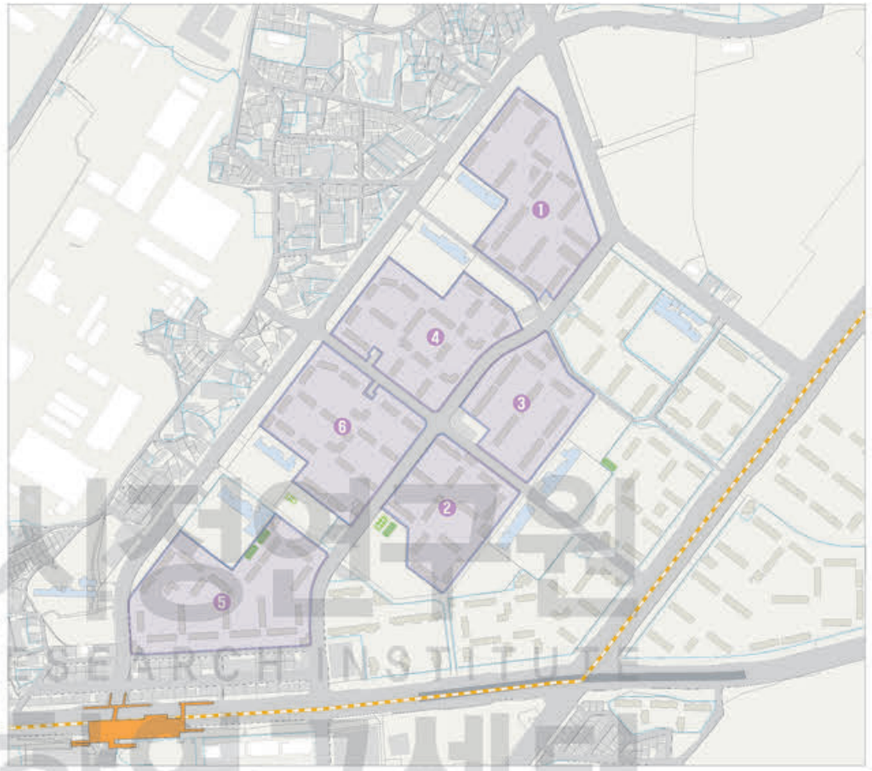
1)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 현황

영통동은 수원시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2022년 현재 총 8곳의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7곳이 영통구에 속해 있으며, 7곳 중 6곳이 영통동에 위치한다. 영통동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 12월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시작하였다. 이후 삼성태영아파트가 2021년 3월, 신나무실 주공아파트(5단지)와 신명동보아파트(6단지)가 2021년 5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영통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꿈틀대기 시작하였다.

<표 2>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2022년 8월 기준)

연번	단지명	추진단계	준공연도	세대수	용적률
1	신나무실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안전진단 완료	1997	1,616	223%
2	벽적골 삼성태영아파트(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안전진단 완료	1997	832	218%
3	신나무실 신명동보아파트(6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안전진단 완료	1997	836	219%
4	신나무실 주공아파트(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안전진단 완료	1997	1,504	219.7%
5	벽적골 두산우성한신아파트(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안전진단 진행 중	1997	1,842	220%
6	벽적골 주공아파트(8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안전진단 진행 중	1997	1,548	220%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

이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 안전진단 조건을 통과하며 영통동의 리모델링 사업은 본격화되었다. 2022년 4월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가 안전진단 B등급을 받으며 조건을 통과하였다. 이후 한 달 사이에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총 세 곳으로 늘어났다. 신명동보아파트는 5월 안전진단 B등급을 받으며 리모델링 사업 조건을 통과했고, 바로 삼성태영아파트도 C등급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인근 신나무실 주공아파트(5단지)도 같은 해 8월 안전진단 B등급을 받으며 영통동 리모델링 사업의 활기를 이어 갔다.

2022년 현재 이 일대 다른 단지들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산우성한신아파트는 2021년 12월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안전진단 등급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벽적골 주공아파트(8단지)도 202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9]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신나무실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김승일 제공)



벽적골 삼성태영아파트(김승일 제공)

2)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통동에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 동네 아파트 단지의 준공연도가 대부분 1997년 이후로 2022년 현재 재건축 연한인 30년에는 못 미치고 있다. 물론 5년을 더 기다려 재건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다. 35년 이상 된 아파트도 재건축 최소 조건인 안전진단 D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10]에서, 30년이 경과한다 해서 D등급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영통동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5년 후에 안전 진단 D등급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25년이 지나 노후화된 아파트는 여러모로 주민들의 불편과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고 있다. 노후 배수관으로 인한 동파 및 역류 문제, 가구 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아침마다 겪는 화장실 전쟁,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 좁은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문제, 커뮤니티 시설 부족 등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비하면 기반 시설이 꽤 열악해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않고도 기반시설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리모델링에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영통동 A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저기다가 저희가 이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 동절기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세탁기를 못 돌려요. 저희는 동파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고층이니까 돌리면 아래층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 세탁기 틀려면 혹시 아래층이 어는 날씨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난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은데 그런 오래된 아파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난 여기를 떠나서 이사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근데 여기가 새 아파트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너무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리모델링밖에 없었어요.

영통동 C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저희 같은 경우는 소형이에요. 24평형 단일평형인데 화장실 한 칸,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신나무실 신명동보아파트(김승일 제공)



신나무실 주공아파트(김승일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방 두 칸 아니면 방 세 칸에 화장실 하나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인 가구, 2인 가구는 충분히 사실 수 있지만 요즘은 근데 2인도 출근하려면 또 씻고 준비하려면 욕실이 두개여야지 좋잖아요.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욕실 써야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이면은 진짜 화장실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전쟁이 나면서 관리사무소까지 뛰어가거나 아니면 경비 초소에 있는 화장실까지 뛰어가거나 어쨌든 생리 현상은 또 어떻게 참을 수가 없으니까~ 씻는 거는 순서를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세대당) 0.8대. 저희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이에요. 근데 (세대당) 0.8대니까, 요즘은 거의 신혼부부들이라고 해도 차가 /대에서 2대 꼭 갖고 있잖아요. 또 아이들까지 있는, 좀 성인이 된 아이들까지 있으면 3대가 있는 댁들도 있고. 저런 소형 평수에서도 거의 지금 2대, 3대가 기본이거든요. 그걸 다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이 수시로 빵빵 터져요. 얼지 않아도 노후가 돼서, 노후가 돼서 중간, 중간에 빵빵 터지기도 하고요. (중략) 그다음에 전기 용량이 예전에는 전기들은 인덕션 레인지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로 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차단기가 내려간 세대들도 많아요. (중략) 저희는 층간 소음뿐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양쪽 집에 대화하시는 말씀이 다 들려요. 싸우는 소리가 아닌 그냥 일반 대화, "누구야 밥 먹자. 이리 와" 다 들려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니까 비밀스러운 얘기는 귓속말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해도 밖에서 다 들리니까~ 어떻게 말을 좀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아파트 그리고 조금만 발걸음 좀 세게 하면은 아래층에서 스트레스 받고, 핸드폰 진동으로 해 놓으면 그 음이 다 라고 내려가지고 저 밑에 사시는 층에도 그 진동이 느껴져서 "제발 좀 진동 좀 해놓지 마라!"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둘째, 영통동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부분 220% 전후로 형성되어 있어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이 높지 않다. 영통동은 1988년 1기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로 1997년에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하나다. 이 지역은 당시 국내 대부분 신도시가 그렇듯, 개발계획부터 전체 가구의 98%를 아파트로 채울 만큼 절대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20층 내외의 고층 높이로 균질하게 조성된 곳이다.[11]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해도 이미 높은 용적률 때문에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용적률이 매우 적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영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발대식 플래카드(2019년 12월 19일)

예컨대 현재 리모델링이 예정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23%에 달한다. 이 아파트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서 재건축을 한다 해도 최대 300%의 용적률만 허용된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300%를 다 허용하지 않고 280% 내외로 허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기대할 수 있는 용적률의 증가는 50% 내외이다. 따라서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분양할 수 있는 가구가 적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건축에서 요구하는 기부채납, 그리고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커뮤니티시설 등을 고려하다 보면 재건축은 오히려 아파트 각 세대의 전용 면적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재건축보다는 용적률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최대 40%를 증가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에 쏠리는 상황이다.

영통동 A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저희는 용적률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저층 아파트거나 그러면 재건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다 이미 19층, 20층 그래요, (용적률이 대부분) 200~220 사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거는 안 될 거라는 생각, 그것도 있으시고. 거기다 여기가 97~98년도에 준공 했는데, 저희 안전 진단한 것도 저희가 거의 다 B등급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재건축을 기다리려면 거의 내 생애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저희 다음 세대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선 내가 새 아파트를 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자체는 없었어요.

셋째, 현재 영통동 아파트 단지들의 브랜드가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영통동은 1997년 후반에 비슷한 평형의 고층 아파트들이 일괄적으로 준공되면서 생겨난 신도시이다. 구술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 시 영통지구는 소위 우리가 1군 건설사라고 부르는 유명한 브랜드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지 않고, 그 당시 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견 건설사의 컨소시엄으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삼성태영아파트, 신명동보아파트 등 여러 건설사 브랜드가 겹친 다소 낯설고 긴 아파트 명칭은 바로 이런 신도시 영통지구의 역사를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 광교신도시와 망포지구 등에 들어선 1군 건설사의 아파들은 영통동의 다소 인지도가 낮은 건설사 브랜드와 비교되며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영통동이 수원의 중심이었지만 망포역 주변에 현대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며 거기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 버렸다."(영통구 주민, 여성, 30대)라는 주민의 언급은 건설사 브랜드 차이에서 오는 동네 위상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통조건 및 교육환경은 영통동이 더 좋지만 단지 1군 건설사의 브랜드라는 이유로 망포지구의 아파트가 더 많은 경제적 가치의 상승과 위상을 갖는 것에 대해 영통동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신나무실 주공5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설사의 플래카드

이런 경제적 가치와 위상 차이뿐만 아니라 다소 낯설고 긴 아파트 명칭은 주변 인지도 면에서 많은 불편으로 작용한다. "지금 (아파트) 이름에 한이 맺혔죠."라는 구술자의 언급은 현재 영통동 주민들이 가진 아파트 브랜드의 불만과 이로 인한 불편을 다층적으로 표현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재 영통동 아파트 브랜드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더더욱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가 1군 건설사로 바뀐다면 자신이 사는 곳의 경제적 가치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수원의 강남이라는 과거의 명성도 인근 신도시로부터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수원정보문화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설사들의 플래카드

영통동 A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지금 이름에 한이 맺혔죠. 되게 다들 이름을 한 번에 못 알아들으세요. 다들 없어진 시공사다 보니까 두 이름이 다 좀 흔한 이름은 아니다 보니까 다들 (주민들이) 똑같은 얘기하세요. 저희 이제 무슨 주문하거나 뭐 할 때 주소 불러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 이름에서 뭘 달아도 이것보단 낫겠다."라고 하시고. (조합) 추진위 때부터 그걸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어떤 시공사를 가장 선호하십니까?"라는 걸 했을 때, 저희 조합원분들의 /위가 OO건설이었어요. "그것만 해도(브랜드만 바꿔어도) 솔직히 이제 달라질 것 같다."고 말들을 하시죠.

<표 3>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시공사 현황

(2022년 8월 기준)

단지명	시공사
신나무실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5단지)	DL이엔씨/현대엔지니어링
벽적골 삼성태영아파트(9단지)	포스코건설
신나무실 주공아파트(5단지)	GS건설
신나무실 신명동보아파트(6단지)	현대건설
벽적골 두산우성한신아파트(9단지)	대우건설
벽적골 주공아파트(8단지)	포스코건설

수원시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넷째, 영통동의 양호한 근린환경과 교육환경은 주민들의 정주성을 높이며 리모델링으로 관심을 갖게 했다. 1990년대 후반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영통동은 수원 최초의 신도시로 인기를 끌며 당시 이 지역 중산층의 이주를 이끌었다. 또한 영통동 바로 옆에 삼성전자 단지가 위치함에 따라 이 회사 직원들의 다수가 영통동으로 이주하기도 했다.[12] 신도시라는 양호한 주거 환경과 삼성전자와 인접한 지리적 환경은 영통동을 수원시를 대표하는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자리 잡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산층 거주지라는 인구·경제 환경은 영통동의 상업지역과 각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 학원가의 형성을 유발하였다. 현재 영통동의 학원가는 수원에서 가장 큰 규모로 형성·발전되어 수많은 학원들이 일종의 클러스터를 이루는 형태가 되었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 및 주변 지역에서 학생들을 끌어 모으는 사교육 중심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13]

이렇듯 양호한 물리적, 경제적, 그리고 교육적 환경은 영통동을 수원의 '강남'으로 위치지우며 주민들의 삶의 만족감과 정주성을 높였다. 그러나 최근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상술했듯이 1990년대 후반 일거에 개발이 이루어진 영통동의 아파트는 현재 약 2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전체적으로 노후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0년대 이후 인근에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망포지구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1군 건설사의



벽적골 두산우성한신아파트(김승일 제공)



벽적골 주공아파트(김승일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수원시의 강남이라는 상대적 우월성마저 상실한 상황이다.[14]

그러나 영통동의 좋은 교육환경과 신도시로 조성된 훌륭한 교통, 공원, 상권과 같은 기반시설은 아파트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주성을 높이며 지역에 대한 애착감을 형성하고 있다. 즉, 노후화된 아파트로 인해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곳의 훌륭한 교육환경과 근린환경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상쇄하며 정주 의식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영통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실소유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영통동의 양호한 근린환경이 실소유자의 비율을 높이고, 지역의 만족감과 애착, 그리고 정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주민들의 욕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노후화된 아파트를 개선해 삶의 만족도와 정주성을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쏠릴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이 되면 떠났던 주민뿐만 젊은 세대도 이곳에 정착할 것"이라는 구술자들의 기대감은 그만큼 이곳의 주변 환경과 기반시설에 갖는 만족도와 높은 정주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영통동 A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여기가 다~ 너무 살기 좋은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고, 주차난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인프라가 떨어지더라도 신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렇게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통은 수요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새 아파트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좋은 곳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구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공통적인 생각이라서 여기에 리모델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영통동 C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지금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살기가 힘들어서 나가셨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지금 너무 좁은 24평 화장실 한 칸에 살 수 없던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여기가 평형이 이제 커지고 새 아파트처럼, 신축처럼 화장실 2개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진다고 하면은 여기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다시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러한 영통동의 높은 정주 의식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리모델링 사업을 단지 지금 사는 곳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좌초되거나 관심이 한풀 꺾였을 것이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많은 영통동 주민들은 현재 사는 곳의 불편한 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만족도와 정주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당장 리모델링 사업이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아도, 혹은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더라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통동 C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솔직히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가격대가 2억 이상이 빠졌어요. 2억 이상이 빠졌는데도 (리모델링) 이슈가 없는 게,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내 돈 들여서 내가 살고 싶은 공간 내 돈 들여서 내가 개선해서 살겠다.'라는 마음들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돈 아깝긴 하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나한테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노후한 아파트의 불편함, 높은 용적률로 인한 낮은 재건축의 실효성, 낮은 아파트 브랜드로 인한 지역 위상의 하락, 그리고 양호한 교육환경과 기반시설로 인한 높은 정주의식이 상호 교차하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리모델링 사업에 쏠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지역적 맥락은 영통동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어긋났지만 하나하나 맞춰 가는 행정

1) 주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행정

영통동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의 욕구가 어느 곳보다 높지만 수원시가 행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많은 애를 먹기도 했다. 심층면접에서 만난 영통동 리모델링 조합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행정의 지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원시의 리모델링 지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최근에는 수원시에 리모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주민공람 자료(수원시청 제공)

델링 전담팀이 신설되어, 리모델링 심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정책을 실험도 하고 있고, 2022년 12월 말에 '수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재정비하며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2022년 중반까지만 해도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영통동 A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리모델링이 이게 처음이에요. 조합 설립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행정적인 게 준비된 상태에서 저희가 조합이 된 게 아니고, 시하고 조합하고 같이 일어난 상태다 보니까 서로 성장기를 같이 보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행정적인 준비도 돼야 되는데 이제 인원(지원 인력) 구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책적인 준비가 시도 필요하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준비들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힘들었던 거죠. 준비가 서로 안 돼 있는 과정들에서.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위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지만 2022년 중반까지 타 경기도 지자체에 비해 전담 인력이나 행정적 지원이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타 지자체들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원시의 리모델링 지원 인력은 당시 한 명뿐이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부터 안전진단 절차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가 다른 지역보다 몇 개월씩 지연되었다.[15]

<표 5> 수원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안전진단 관련 처리일수

조합명	신청일	입찰공고일	업체선정통보일	소요기간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2021.04.12.	2021.06.10.	2021.09.24.	165일
삼성태영아파트	2021.05.11.	2021.08.31.	2021.12.03.	206일
신명동보아파트	2021.10.15.	2021.11.10.	2022.01.14.	91일
매탄동남아파트(매탄동)	2021.10.21.	2021.11.29.	2022.02.08.	110일
신나무실주공5단지아파트	2021.10.25.	2022.01.25.	2022.02.14.	112일
평균 소요일				143일

출처 : 수원시리모델링연합회 내부 자료.

예를 들어 '수원시리모델링연합회'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진단을 받는 절차가 평균 143일 걸렸다고 한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 절차가 두 달 정도면 끝나는데, 수원시의 경우 거의 5달 정도가 걸린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연에 따른 손해와 부담은 오롯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조합원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수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재정비되지 못해 건축심의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수원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2016년에 제정이 되었고, 2021년에 타당성 검사를 해 이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말이 되어서야 타당성 검사를 통한 기본계획이 재정비되었다. 새롭게 기본계획이 재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수원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건축심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건축심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진행되는데 이를 참조할 기본계획이 아직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통동에서 초기에 리모델링을 시작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사업이 정체되는 난관에 부딪혀야 했고, 조합원의 고충과 불만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영통동 C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 받기도 힘드셨지만 시청에서 인허가 과정에서도 많이 힘드셨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담당하시는 주무관들이 모르시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 찾아야 되고, 다른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보셔야 되고 하는 과정들에서 또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무관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중간 중간에 계속 바뀌시잖아요. 바뀌시면은 또 갑자기 리셋돼서 달라지고. 또 주무관마다 또 해석하시는 게 다 달라서 어느 정도 법적인 적용 그런 기준들을 이분은 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또 바뀌시니까 이분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혼선을 많이 빚기도 했죠.

수원시의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소극적 지원과 이에 따른 고충과 손해는 결국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수원시리모델링연합회'[16]는 2022년 5월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리모델링 지원조직 및 인력 즉각 보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그동안 불만과 고충을 토로하며 수원시에 리모델링 지원조직 구성과 인력 보충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2,413건에 달하는 민원서를 전달하였다. 더불어 현재 수원시의 리모델링 대상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30.6% 수준에 이르며, 전체 아파트의 50.2%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하며 수원시에 적극적인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강조하였다.[17] 다행히 이 집회가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기와 겹치며 연합회 주장이 효과적으로 행정과 시장 후보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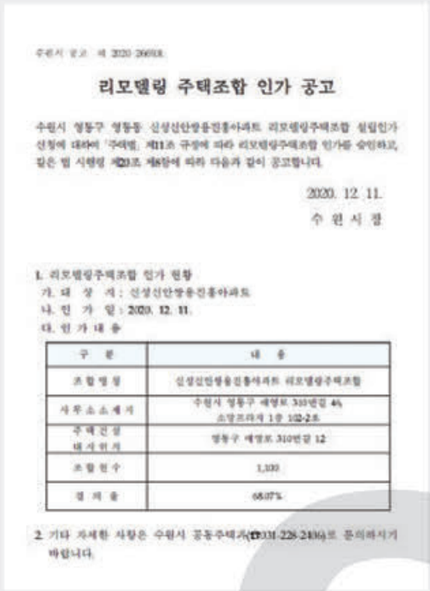


수원시리모델링연합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개선 촉구 결의대회
(『하우징헤럴드』 2022년 5월 27일)

2)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리모델링 사업의 탄력

'수원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요구는 새로운 수원 시장의 리모델링 사업 관심과 맞물려 그동안 병목처럼 막혀 있던 리모델링 절차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 공고 제 2020-26918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 공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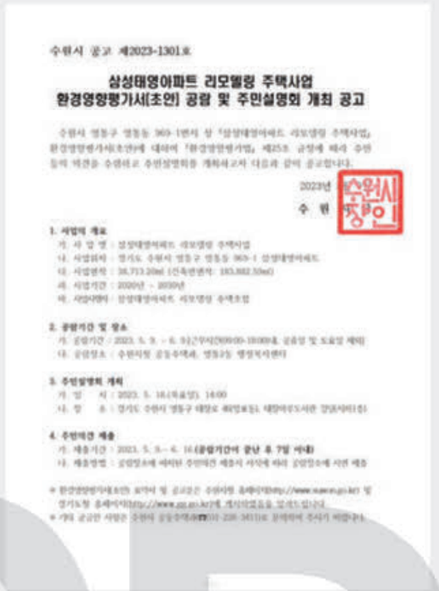
수 원 시 장

1.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 현황
   가. 대 상 지 :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나. 인 가 일 : 2020. 12. 11.
   다. 인 가 내 용

구 분	내 용
조합명칭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무소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45, 쇼앙프라자 1층 102-2호
주택건설 대지위치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
조합원수	1,100
경 비 율	68.07%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주택과(☎031-228-2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 공고



수원시 공고 제2023-1301호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9-1번지 일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수 원 시 장 (수원시장인)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나. 사업위치 : 영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9-1 삼성태영아파트
   다. 사업면적 : 36,713.20㎡ (건축면적적: 183,882.50㎡)
   라. 사업기간 : 2020년 ~ 2030년
   마. 사업시행자 :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3. 5. 3. ~ 6. 9.(근무시간09:00-18:00)
   나. 공람장소 :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3. 5. 16.(목요일), 14:00
   나.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정로 869(영통2동 대정마루도서관 강당(지하1층))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5. 3. ~ 6. 16.(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및 공고문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주택과(031-228-3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신명동보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무소



사업시행(리모델링) 후 증축계획(「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4)



배치도(「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4)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에 물꼬를 텄다. 우선 수원시는 국내 최초로 2022년 12월 공동주택리모델링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 리모델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민관협의체에 '수원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가 참여하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리모델링 정책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식 등을 협의하며 수원시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상술했듯이 같은 해 12월 말에는 '수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안정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담 인력을 한 명 더 배치해 리모델링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였다. 또한 수원시는 향후에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약속하며 더욱 적극적인 리모델링 지원을 예고하였다.

이런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보는 최근 리모델링 건축심의 과정을 선검토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검토는 리모델링 건축심의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안을 수원시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이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심의절차가 수개월간 지연되는데, 수원시가 이를 사전에 검토해 리모델링 조합에게 보완토록 알려주는 것이다. 이 선검토 제도를 통해 수원시의 리모델링 절차는 최대 10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18] 그동안 리모델링 정책의 미비와 소극적 지원으로 몇 개월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영통동 리모델링 조합에게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하는 단비와 같을 것이다.

> 영통동 C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조합장 그러니까 타 시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과 추진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케이스예요. 저희 수원시가~ 단합도 잘 되고, 연합회 활동도 잘하면서, 또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정체돼 있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 시장님께서 이제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저희가 (시장) 공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면서 아예 수원시 모든 행정이 다 스톱이 되면서 저희 지방선거 때문에 거의 7~8개월은 그냥 올스톱이 됐으니까. 근데 현 시장님이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리모델링) TF팀을 만드시면서 준비를 해주셔서 그나마도 빠르게 저희는 정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조합장님들이나 조합원은 "부럽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 이런 전향적인 수원시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노력이 일궈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원시의 리모델링 사업 지원이 소극적이고 미비할 때, 먼저 적극적인 행동을 펼친 것은 리모델링 조합원들이었고, 이들의 노력은 당시 수원시장 후보들이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정책을 자신들의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현재 수원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타 지역보다 더 열심히 지원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나오며

영통동에서 불고 있는 리모델링 바람은 주민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물리적 주거환경, 그리고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행정의 지원이 겹치며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5기 신도시로 1997년에 동시적으로 준공한 현재 영통동 아파트들은 유사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준공한 지 25년이 넘는 노후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지만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상황, 이미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지어져 높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의 수익성이 낮은 상황, 낮은 아파트 브랜드로 인한 위상의 하락, 그리고 이 지역의 훌륭한 교육환경과 근린환경,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애착과 높은 정주의식은 빠른 시간 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게 했고, 이는 많은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엇박자를 내며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이 부족했던 수원시가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이후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상황과 겹치며 영통동의 리모델링 사업은 더욱 가속이 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영통동의 리모델링 사업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고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영통동 C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라는 구술자의 언급처럼 유사한 주거환경과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영통동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이 행정의 지원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리모델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을 본다면 더 많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겠지만 영통동이 처한 사회, 경제, 인구, 물리적 환경 등은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의 관심을 꾸준히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영통동에 부는 리모델링 바람은 수원시를 넘어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 영통동이 국내 리모델링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대가 크다. 기대에만 그치지 않고 이 흐름이 좋은 선례가 되어 재건축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국내 주택건설 시장에 좀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주택건설 방식과 주택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주

1. 「집값 떨어져도 정비시계는 돌아간다…수원 영통 리모델링 '혼풍'」, 『서울경제』 2022년 8월 18일(https://www.sedaily.com/NewsView/269UHDREXS).
2. 명다미 외, 2018,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쟁점 및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쪽.
3. 명다미 외, 2018,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쟁점 및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8쪽.
4. 「리모델링 시장 규모 연 9조 첫 돌파…전국 94곳서 조합설립」, 『땅집고』, 2022년 1월 11일(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11/2022011101871.html).
5. 「'리모델링' vs '차라리 재건축'…폭행 시비까지 번진 주민 갈등」, 『연합뉴스』 2022년 2월 3일(https://www.yna.co.kr/view/AKR20220202045400004).
6. 「현집 주고 새집 받는 법…"재건축 하지" vs "리모델링이 낫다"」, 『한국경제』, 2021년 10월 4일(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00437801).
7. 「리모델링이 '대세'된 이유」, 『이코노믹리뷰』, 2021년 8월 16일(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512).
8. 「내 아파트는 재건축? 리모델링?」, 『한국주택경제』 2022년 8월 12일(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93).
9. 「수원도 리모델링 바람… 한 달 새 안전진단 통과 단지 3곳 '탄력'」, 『아시아경제』 2022년 5월 23일(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2309201226299).
10. 「노후 아파트단지 잇단 재건축 안전진단 퇴짜… 주민들 볼만 폭발」, 『하우징헤럴드』 2021년 8월 23일(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6).
11.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 공간적 특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68쪽.
12.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 공간적 특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59쪽.
13. 「특급 학군·교통 '수원의 대치동'」, 『매일경제』 2012년 6월 17일(https://www.mk.co.kr/news/realestate/5213404).
14.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 공간적 특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61쪽.
15.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 강화… 인력충원·조직신설 속도」, 『하우징헤럴드』 2022년 6월 21일(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3).
16. 2022년 1월 수원시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15개 아파트 단지가 모여 구성된 단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하였다.(「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공식 출범」, 『한국주택경제』 2022년 1월 26일)
17. 「수원시 리모델링 연합회, 행정개선 촉구 결의대회 개최」, 『하우징헤럴드』 2022년 5월 27일(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3).
18. 「수원 매탄동남 리모델링, 수원시 '선검토' 최초 적용」, 『하우징헤럴드』 2023년 2월 27일(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78).

05 푸른 쉼터, 영통동 공원

손예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 1990년대 영통택지개발사업과 공원·녹지계획

새롭게 생겨나는 도시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이다. 1980년대 이후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여가 시간이 증대되었고 사람들은 곧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여유로움과 쾌적함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가 변하자 이에 맞추어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다양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이 계획·개발되었다.

주거단지 조성 계획에 포함되는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녹지공간이다. 녹지공간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조성하거나 지정한 공간으로 풀과 나무 등이 있는 숲, 공원 등의 공간을 뜻한다. 주거단지 내 녹지공간은 거주자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은 거주자들이 쾌적함을 느끼게 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1] 실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확인하는 지표로 도시면적당 녹지면적 또는 거주인구당 공원면적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거주지 인근의 녹지공간은 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해 단순한 휴양 공간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2]

녹지는 예로부터 우리 삶에 산과 숲, 공원 등으로 함께해 왔고 따라서 과거엔 굳이 녹지공간을 찾지 않아도 이를 도처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발생한 지역개발과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녹지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현대 시민들은 시간이 갈

수록 점점 심해지는 도심 내 인구 밀집현상으로 공해와 혼잡 등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어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계획 및 개발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필수요소가 되었다. 시민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와 선호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은 도시계획이나 주택단지 설계 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주거공간과 밀접하게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개발 시 계획에 포함되어 함께 개발되는 녹지공간은 대부분 도시공원에 속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개발지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은 바로 도시공원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간을 뜻한다. 2022년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은 그 기능과 주제에 따라 분류되고 있고, 신도시 혹은 택지개발지구 개발 시에는 각 지역의 자연 지형, 특징 등을 고려하여 공원을 계획한다.

1990년대 영통택지개발지구도 여느 택지개발지구들과 마찬가지로 공원 설계계획이 포함되어 개발이 추진되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간한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1994년)에 영통택지개발지구 내 공원 개발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어 이를 통해 당시 영통동 공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공원·녹지계획

구역		1994년(계획)		1997년(준공)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63	520,141	63	546,489.2
공원	소계	21	314,711	23	342,689.0
	근린공원	7	225,021	8	256,807.0
	어린이공원	13	67,909	14	68,410.7
	자연공원	1	21,781	1	17,471.3
녹지		42	201,930	40	203,800.2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한국토지공사, 1997, 『수원영통지구택지개발사업 준공보고서』

1993년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먼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영통지구 공원녹지 계획도

의 향상을 목적으로, 자연공원은 자연경관지 보호,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이 분류 기준처럼 영통동의 공원도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세 가지 종류의 공원이 개발되었다.

영통지구 공원 개발계획은 영통동이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기존 영통동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사업지구 중심에 중앙공원을 조성하였다. 공원과 사업지구의 중심광장,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한 축으로 연결되게 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하나의 녹지축을 이루도록 개발하였다.

근린공원은 반경 약 500m마다 1개소씩 확보하되 사업지구의 자연 지형 여건을 고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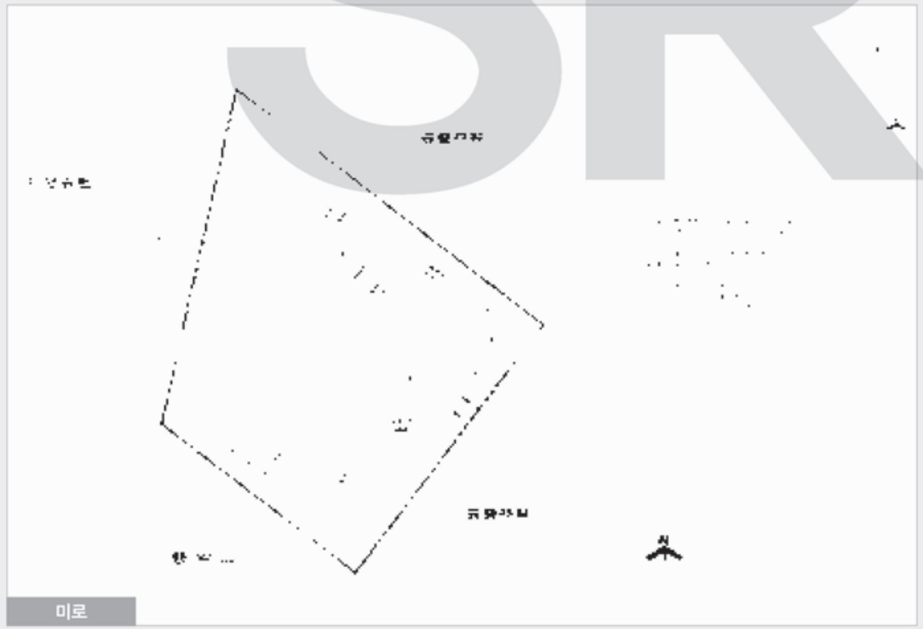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오름



푸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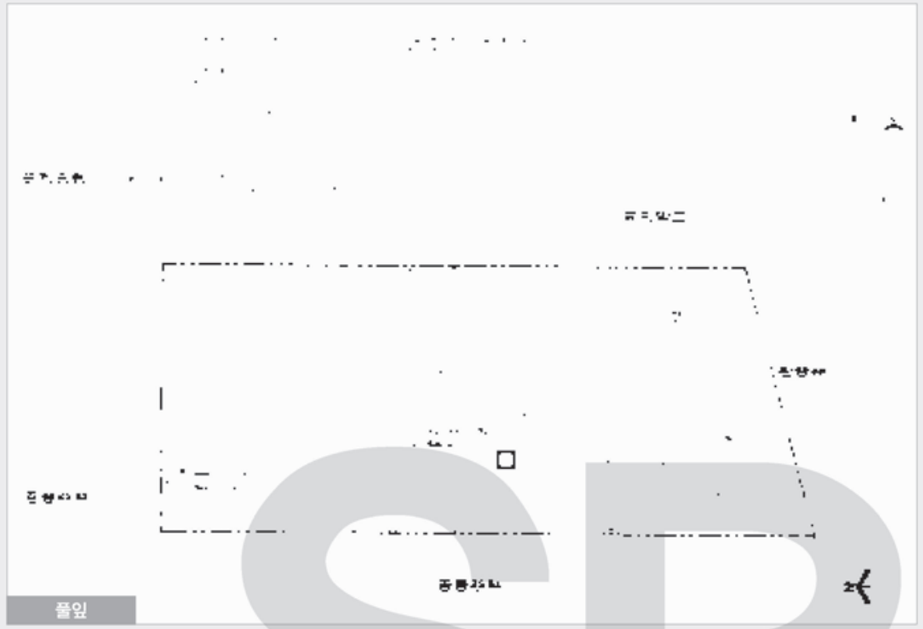


미로



벽적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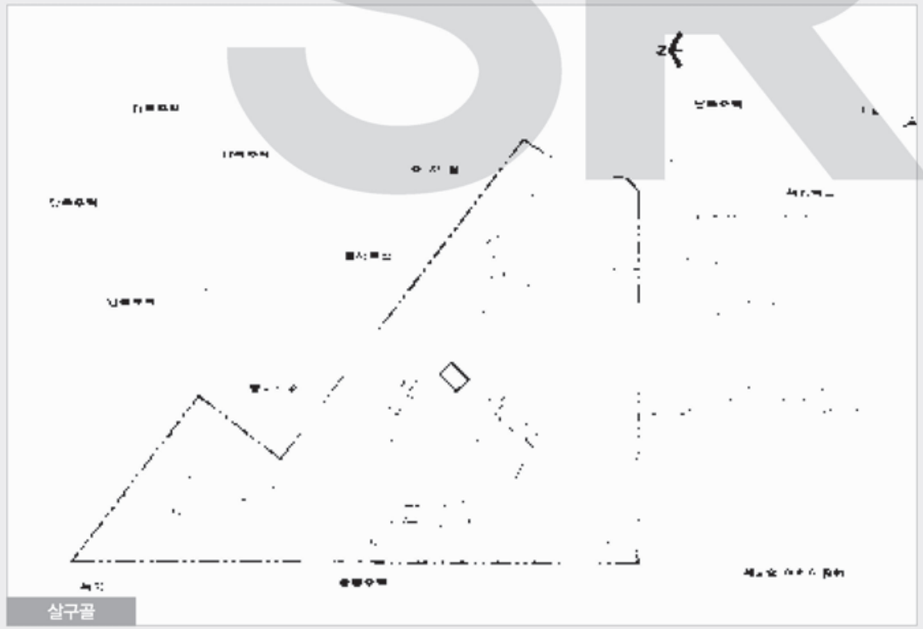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풀잎



으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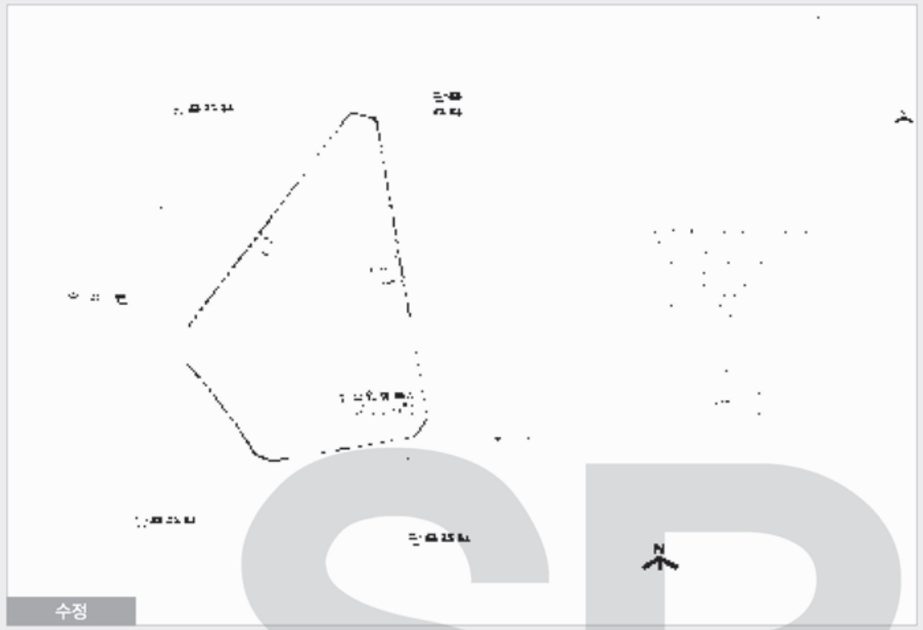


살구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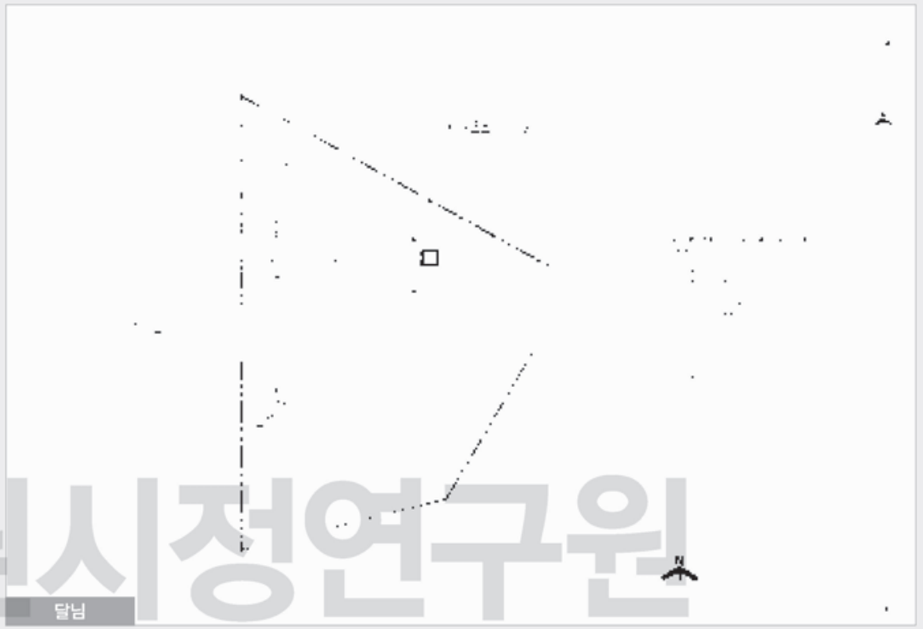


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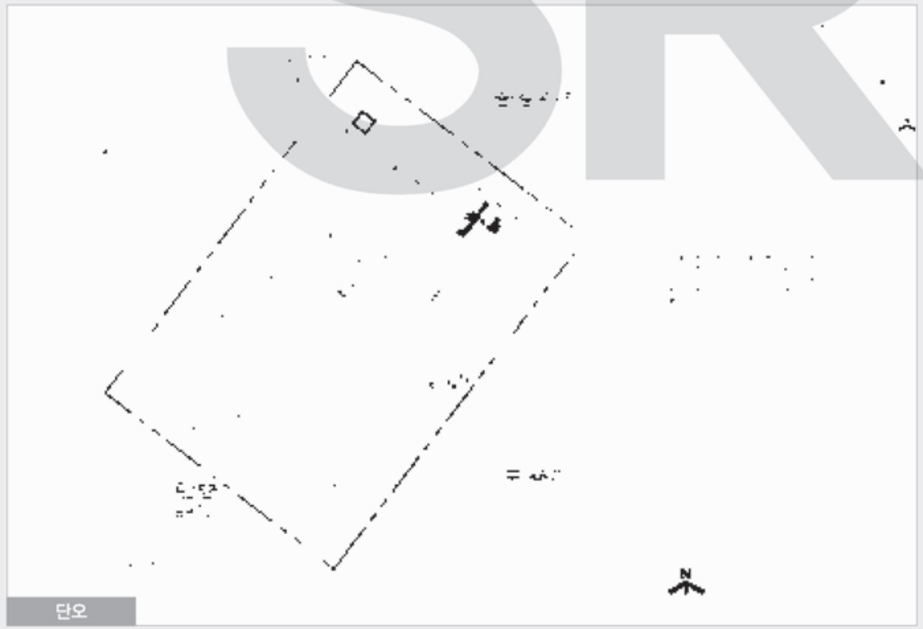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정



달님



단오



달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여 공원으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였다. 이에 사업지구 중심부에 중앙공원, 북측 및 남측 구릉지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지공원을 확보하는 계획에 맞추어 공원이 조성되었다. 면적은 기존 지형을 이용할 경우 보존에 필요한 규모만큼, 평지가 확보되는 공원은 법정 최소면적인 10,000㎡ 이상으로 개발되었다.

어린이공원은 250m마다 1개소씩 배치하고 주거지 내부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조성하여 보행 접근성을 향상,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의도하였다.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계획인구당 0.6㎡ 이상 확보해야 했으므로 당시 계획인구 10만 명에 대해 필요한 영통동 어린이공원의 합계 면적은 6만㎡ 이상이다. 따라서 유치거리 250m당 1개소씩을 배치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에 12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1개소의 면적은 5,000㎡로 계획되었다.

자연공원의 개발은 기존 토지의 효율성 및 공원계획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사업지구 내 별도의 자연공원 계획 없이 영흥자연공원과 접하는 잔여지를 영흥도시자연공원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2. 20년간 제자리에 머무른 영통동 공원

시간이 흘러 도시공원법도 개정되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의 분류 기준과 명칭에도 변화가 생겼다. 도시공원은 기능과 주제에 의하여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누어진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으로 분류된다.

생활권 공원에 속하는 소공원은 도시 자연환경 보호, 시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면적의 일부 내에 계획된 공원이고, 근린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즉 영통동 내에는 생활권 공원인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만 조성되어 있었다.[3]





반달공원(2023년, 김승일 제공)

2022년 기준 수원시 공원 면적은 838만 4,748.2㎡이다. 영통구는 그 중 413만 6,590.8㎡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공원 개수는 총 90개로 수원시 행정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 중 영통동에는 총 24개(소공원 2개, 어린이공원 14개, 근린공원 8개)가 자리하고 있다.

영통동에 조성된 24개 공원 중 16개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다. 법적으로 근린공원 조성 규모는 1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소공원은 조성 시 최소 공원 면적에 제한이 없고, 어린이공원의 최소 조성 규모는 1,500㎡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비율이 높은 영통동 내 개별 공원의 면적은 다른 공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작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2022년 영통동 공원 현황

분류	공원명	주요 시설
소공원 (2개소)	17호	휴게쉼터
	88호	휴게쉼터
어린이공원 (14개소)	해오름	조합놀이대1, 다목적구장(농구)1, 휴게쉼터
	달래	조합놀이대1, 다목적구장(농구)1, 휴게쉼터
	미로	다목적구장(농구)1, 휴게쉼터
	달님	조합놀이대1, 다목적구장(농구)1, 휴게쉼터
	푸른	조합놀이대1, 다목적구장(농구)1, 휴게쉼터
	단오	조합놀이대1, 보호수1, 휴게쉼터
	수정	조합놀이대1, 휴게쉼터
	으뜸	노인정1, 조합놀이대1, 휴게쉼터
	풀잎	조합놀이대1, 다목적구장(농구)1, 휴게쉼터
	보리수	조합놀이대1, 다목적구장(농구)1, 휴게쉼터
	솔찬	조합놀이대1, 다목적구장(농구)1, 휴게쉼터
	박지성	조합놀이대1, 휴게쉼터
	한울	조합놀이대1, 다목적구장(농구,게이트볼)2, 휴게쉼터
	미리내	조합놀이대1, 휴게쉼터
근린공원 (8개소)	청명	화장실1, 휴게쉼터
	황골	농구장1, 다목적구장1, 화장실1, 휴게쉼터
	영통사	인공폭포1, 휴게쉼터
	영통중앙	도서관1, 화장실4, 휴게쉼터
	반달	조형분수1, 농구장1, 야외무대1, 화장실1, 휴게쉼터
	살구골	농구장1, 화장실1, 휴게쉼터
	벽적골	물놀이시설1, 농구장1, 배드민턴장1, 족구장1, 화장실1, 휴게쉼터
	교통	바닥분수1, 교통안전교육장1, 화장실1, 휴게쉼터

2022년 영통동 공원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단오어린이공원(2018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동 주민들도 작은 공원 규모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영통동에서 15년 동안 살아온 주민인 보리스(카페 활동명)는 동네에 산책할 만한 큰 공원이 없다고 말하였다.

보리스 그냥 대로변을 따라서 산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미로공원) 거의 아이들 놀이터니까 어른들이 가서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엔 적합하지 않았고 (…) 원천호수 근처, 거기는 거리가 있어서 정말 어쩌다 한 번 가게 되고. 영흥공원 개발 전에는 그냥 능선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정도로 산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영흥공원이) 공원의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능선을 따라서 한 바퀴 돌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거기가 이제 논밭이었어요. 약간 그냥 산처럼 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주로 유아들을 동반한 가벼운 산책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놀이터 정도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걷기 운동은 공원이 아닌 인근 야산의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근처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공원까지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꽤 멀었기에 광교호수공원을 산책이나 운동의 목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일초등학교 서쪽 풀잎어린이공원과 북쪽 살구골공원(김승일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또한 영통동의 공원들은 영통지구 택지개발 당시였던 1990년대 후반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며 공원 내의 많은 부분이 노후화된 상태였다. 주민들은 공원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2021년 발표된 수원시 자체 민원 조사에 따르면, 3년간 수원시 영통구 공원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 중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시설 관련 민원이었다.[4] 접수된 민원을 핵심 주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설 정비, 시설 설치 요청, 조명 정비, 바닥 정비 등 노후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 설치 민원이 약 50%에 달하였다. 영통동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인 맹달오렌지(카페 활동명)도 시간이 지나며 영통동의 공원들이 상당 부분 노후화되었다고 말하였다.

맹달오렌지 여기 미로 공원이 13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 리모델링을 하며 주민 의견들을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공원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어르신들도 무릎 운동하시려고 멀리까지 가는데 여기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전 세대가 의견을 전달해 주셨어요. 이전에 미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됐고, 시설도 너무 없고. 농구장, 벤치 몇 개 있고. 여기 바로 앞 2층이 노인정인데 어르신 분들이 노인정에서 식사하시

고 공원에 나와 앉아 계시고, 산책 가끔 하시는데 그늘막도 없고.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엔 보도블록이 튀어 나와 있고, 바닥이 정비도 잘 안 돼 있고. 약간 허허벌판, 공허 느낌?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영통동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다. 영통동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수백 번, 영통동 공원은 그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영통동 주민들은 오래된 공원들에 대한 변화를 원했고, 영통동 내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가깝고 넓은 공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3. 영통동 주민들의 숙원, 영흥공원 만들기

영흥공원은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산지형 근린공원이다. 1969년 6월 총면적 59만 3,311㎡의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일부(6만 2,826㎡)가 체육시설로 조성되었으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공원면적의 90% 이상이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영흥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영흥공원 미조성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해당 부지는 난개발될 가능성이 높았고, 영흥공원은 시민들의 공원으로 남아야 한다는 수원시의 의지에 따라 영흥공원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수원시는 영흥공원 개발을 위해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성, 재정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30% 미만의 부지에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시설을 개발해 해당 수익으로 공원 조성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2000년대 영흥공원(수원박물관 제공)

이에 수원시 측에 9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사업설명회와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영흥공원 부지의 86%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가 아닌 나머지 14% 부지를 비공원시설(공동주택)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산림 훼손의 최소화와 기존 지형의 보전을 위해 민간개발 면적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시는 공원 조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 방안을 주제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원의 테마와 시설, 효율적인 공원 관리 방법 등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의 청사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영흥공원 개발은 영통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들려온 공원 조성 소식이었기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컸다. 2019년 8월 20일,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다. 2017년부터 영흥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3년 가까이 부동의 결정을 받았다. 신축 예정 공동주택 부지와 기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존 자원회수시설 간의 거리가 가까워 이로 인한 피해와 공원 기능의 축소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수원시는 계속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이어 온 끝에 자원회수시설과의 거리를 고려해 남쪽으로 예정되어 있던 기존의 공동주택 부지를 북서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후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이전하기로 결정한 공동주택 예정 부지는 기존에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위치하는 곳이었다. 체육시설 부지가 공동주택 예정 부지와 약 5만 6,000㎡ 정도가 겹치게 되었고, 시는 해당 시설물을 이전키로 결정하였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처음 상황을 알게 된 영통동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체육시설이 이전될 부지는 영흥공원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천연습지가 있는 장소였다.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들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인 맹꽁이와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살고 있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에 영통동 주민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축구장 이전을 반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입구에 생기는 4차로로 인한 인근 초·중·고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 교통약자에 대한 공원 접근성 등의 문제점을 수원시 측에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관련된 축구장 이전 반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고 영통동 내 주민교류회를 개최하며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 맹달오렌지 그날 처음 갔는데, 축구장에 대한 얘기를 그날 처음 들은 거예요. 축구장 규모도 엄청 크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자리에 원래 습지가 있어요. 습지를 덮고 그 위에 축구장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 분들께 이 사실을 알렸죠. (당시) 주민설명회에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아파트) 입대위 분들께 알리고, 카페에 글 올리고 그렇게 했죠.

2020년 1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원시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영통동 주민들을 주축으로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공문 발송, 반대 집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수원시 측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1월 18일, 1차 집회가 열렸다. 영통동 소각장 건설 반대시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열린 주민 시위였다. 이후 진행된 서명운동도 오프라인 8,000명, 온라인 1,600명이라는 인원이 모이며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공청회 무산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 결과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시에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 나갔다.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 집회(2020년 1월 18일, 오마이뉴스 제공)

반면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 이용자들과 인근 체육회, 체육인들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기존 체육시설이 없어질 경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체육시설 무산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체육시설 인근에 체육시설 철거 반대 현수막을 붙이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처럼 상반되는 민원들이 접수되고, 계속해서 의견들이 대립하자 영흥공원 개발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수원시와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교환하였고 마침내 2020년 3월 협의안이 도출되었다.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교류에서 나온 협의안은 ①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 철회 ② 계획 부지 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잔디마당 조성 ③ 4차선 진입도로 3차선으로 축소 ④ 공원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한 수원시는 공사 기간 안전 펜스 설치, 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와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유색포장,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로 학생들의 안전도 확보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맹꽁이와 천연습지에 대한 식생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다시 실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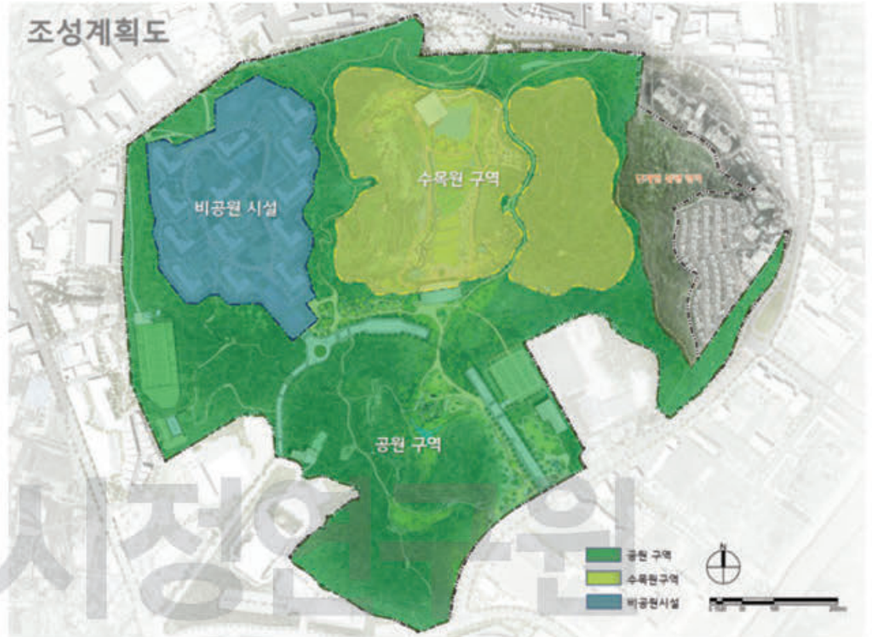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하면 연세대



개발 전 영흥공원(2020년 6월 5일, 보리스 제공)

맹달오렌지 (조사한) 식생도 다 엉망인 거예요. 여러 동식물이 있었는데 다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 '아닌데요, 맹꽁이도 있는데요?', 하면서 다시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조사하시는 분들과 영흥공원 안에 벌 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다시 찾아가서, '할아버지, 여기 맹꽁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할아버지는 '맹꽁이 있지. 맹꽁이가 말이야~' 하면서 말씀하시고.

협의안이 나온 이후 수원시는 중단되었던 사업을 재개하였다.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문화재 시굴조사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마치고 2020년 8월, 영흥공원 조성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영흥공원 개발공사가 다시 추진되었다. 이 소식은 다른 누구보다도 영흥공원을 기다리고 있는 영통동 주민들을 기쁘게 했다. 의견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영흥공원은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주민들의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 이는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영흥공원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주민들이 공원에 애정을 갖지 않았다면 영흥공원은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없었을 것이다.



영통지구 공원녹지 계획도

4. 넓고 푸른 숲, 영흥숲공원

영흥공원의 공사 기간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2년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8월 30일 이후 약간의 보수공사가 추가로 시행되며 공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 시간이 흘러 2022년 10월 1일, 영흥공원은 영흥숲공원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우리 앞에 첫 모습을 선보였다. 정식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된 시설은 2.7㎞ 길이 산지형 산책로, 건강 마당(바닥형 분수), 실내 체육관, 숲 놀이터, 공원 내 도로 등이었다. 임시 개방이었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과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 달여간의 임시 운영을 마치고 2022년 10월 26일 마침내 영흥숲공원 개장식이 열렸다. 이로써 2014년에 시작한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1단계 공사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완료되었다. 개장 직후부터 많은 시민들이 영흥숲공원을 찾아오고 있다. 영통 주민들의 관심을 증명하듯이 영통동 내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인 '영통주민모임터'에는 개장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흥공원 조성공사(2021년 2월 20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흥숲공원 지도(수원시청 제공)

부터 영흥숲공원에 대한 글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50만 1,937㎡, 축구장 70개 넓이의 규모로 완공된 영흥숲공원에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조성되었다. 영흥공원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영통마당은 영흥체육관과 연계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시설과 순환트랙을 갖추고 있다. 그 뒤로 입구에서부터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보이는 인라인장과 시민참여마당에는 자연 경관과 연계되어 있는 숲놀이터가 함께 조성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자와 평상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모임의 장이 되어 주고 있다. 비지터센터 근처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평상과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도란마당이 위치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공간에서 숲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생태테마숲인 참나무이야기도 조성되어 있다. 공원 내 곳곳에 산책길과 보행교가 설치되어 전보다 편리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전망 데크,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되었다.

영흥숲공원의 가장 특별한 점은 수원시에서 처음 시도한 수목원형 공원이라는 것이다.

수목원형 공원이란 내부에 수목원(영흥수목원)과 공원이 함께 있는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수목원은 언뜻 보았을 때 공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목적에서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수목원은 식물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수목, 관목 및 초화류 전시 감상, 종 보존, 연구가 그 목적이다. 영흥수목원은 아직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았고,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23년 4월 임시 개방을 거쳐 2023년 5월 정식 개장 예정이다.

영흥수목원 내부는 많은 종류의 식생들과 생태체험을 위한 시설물 그리고 관람객들이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조성되어 있다. 비지터센터를 통해 수목원으로 들어가면 잔디마당과 블루밍가든이 넓게 펼쳐져 관람객들을 반겨 준다. 그 뒤로 숙근초원, 습지초화원, 계절초화원 등 꽃과 들풀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생태 체험이 가능한 전시숲과 생태숲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제일 안쪽에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인 전시 온실과 수연지가 자리하고 있다.

생태숲과 전시숲은 관람객들이 숲을 거닐며 직접 생태체험을 할 수 있게끔 조성된 공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0년 9월 13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1월 10일



2021년 2월 13일



2021년 5월 1일



2021년 7월 24일



2021년 9월 4일



2021년 10월 16일



2021년 11월 13일



2021년 12월 11일



2022년 3월 5일



2022년 6월 4일



2022년 7월 25일



2022년 9월 10일



2022년 10월 29일



2022년 12월 16일

영흥수목원 건설 과정(보리스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영흥숲공원 전경(김승일 제공)

영흥수목원 비지터센터
(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흥수목원 조형물(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흥수목원(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이다. 생태숲은 수목원 동쪽에 위치한 숲으로 기존 영흥공원에 서식하고 있던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며 관람로를 설치하였다. 이에 숲 내에 기존 수림을 최대한 살린 소나무림, 아까시나무림, 리기다소나무림, 상수리나무림 등 중부 온대수림의 천이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생태숲으로 조성되었다. 전시숲은 수목원 서쪽에 위치한 숲으로 기존에 서식하고 있던 대형목과 두층나무림을 보존하고 도복목을 포함한 훼손된 수목을 제거한 후 전시 수종을 식재하였다. 이처럼 영흥공원은 생태숲과 전시숲 두 가지의 숲 체험공간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다양한 층위의 숲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5]

영흥숲공원은 수목원을 품은 공원인 만큼 식생의 종류가 타 공원에 비해 매우 풍부하다. 수목원 내에 1,000여 종의 나무와 꽃이 식재되어 관람객들이 계절마다 변화되는 자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끔 하였다. 수목원은 기존 산지 지형을 살린 정원형 수목원으로 조성되었다. 수목원 내 정원은 전시정원과 수집정원 두 가지 테마로 나뉘어 있다. 전시정원에는 블루밍가든, 암석원, 정조효원, 휴게정원 등이 위치해 있고, 수집정원에는 무궁화원, 비비추원, 수국원, 희귀초화원 등이 조성되어 다른 공원보다 다양한 정원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영흥숲공원 내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유리 온실이다. 1,980㎡의 규모로 지어진 유리 온실은 대만 고무나무, 망고, 커피나무, 홍피초바나나, 파파야, 극락조화, 덕구리난 등 아열대 지역 수목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거기에 살짝 기울어진 듯한 모습으로 지어진 유리 온실의 특이한 외관은 호기심을 자극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향하게 할 것이다.

구 국립축산과학원 부지에 방치되어 있던 반송 1주를 영흥공원에 식재하기도 했다.[6] 이 반송은 국립축산과학원이 1969년 수원으로 이전하였을 때 정일권 전 국무총리 방문 기념 식수로 심은 것이었다. 또한 수원시의 국내외 자매도시·우호도시·결연도시들의 대표식물을 수목원 내에 식재할 예정이다.[7] 수원시의 국제 자매, 우호도시는 일본 아사히카와시, 중국 지난시, 호주 타운즈빌시, 미국 피닉스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등 18개 도시이고, 국내 자매, 우호도시는 제주, 포항, 전주, 논산, 거제시, 태안군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영흥숲공원의 식생 다양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수원시가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천연습지와 맹꽁이와 원앙을 포함한 야생동물도 영흥숲공원과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원시 측은 본격적인 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흥수목원 카페(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흥수목원 전시온실 내부(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발공사 이전 조사를 통해 산새류 21종, 물새류 6종, 양서류 4종, 파충류 2종, 포유류 3종, 나비류 6종, 잠자리류 11종이 공원 부지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8] 기존의 영흥공원 부지는 천연습지가 자리하고 있던 곳으로 인근의 인공림, 자연림, 경작지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이에 각 동식물들의 습성과 서식지를 파악하여 해당 부지들을 보존하며 개발하거나 서식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 주는 등의 방향으로 공원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공사 시 습지를 보존, 물가 주변 생활공간과 월동지를 보존하여 맹꽁이와 원앙의 서식처를 확보하였고, 논 습지를 남겨두어 왜가지, 해오라기, 흰빰검둥오리 등 물새류가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초화류 및 꽃나무 식재로 기존에 서식하고 있던 나비와 벌이 그대로 서식할 수 있게 노력하였으며 산림 경계부에 왕잠자리류가 서식할 수 있는 소규모 습지를 만들었다. 이처럼 영흥숲공원은 최대한 기존 야생동물들이 삶을 이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실제로 '영통주민모임터'에서는 개장 이후 영흥숲공원 내에서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보았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수원시의 노력으로 개발 이전부터 발견되었던 고라니와 토끼 등의 야생동물이 영흥숲공원 개발 이후에도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영흥숲공원은 수원시민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영통동의 주민들은 10년 넘게 기다려 온 집 앞 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인다. 영통주민모임터 카페에서는 2019년 11월 주민설명회가 열린 이후로 영흥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는 영흥공원에 대한 영통동 주민들의 애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통동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환경, 동네와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공원을 매우 아끼고 있다. 공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체적으로 공원 내에서 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맹달오렌지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공사장 볼 수 있게 해 달라, 습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이러면서. (…) 그리고 중간 중간에도 맹꽁이 소리 들린다고 해서 환경부에도 전화하고, 아이파크 사시는 분들이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 주기도 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흥수목원 전경
(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흥수목원 공간 구성



영흥공원에 우겨져 있는 숲(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셨어요.

보리스 처음 아파트 분양받을 때, 영흥공원 광고를 봤어요.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걸 보고 들어왔거든요. 공원에 둘러싸인 아파트.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 그래서 새로 생겨서 너무 좋죠. 데크도 잘 깔려 있고, 걷기도 너무 좋고. 가까운 데 이렇게 큰 공원이 생겼다는 게 제일 좋죠. (…) 오픈하고 나서 저희가 돌면서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건 사진 찍어서 수원시에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시민의 품으로, 시민의 숲으로 우리 곁에 자리할 영흥공원. 그러나 영흥숲공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여전히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한다.

영흥숲공원을 산책하다 고개를 들면 하얀 연기를 내뿜는 소각장 굴뚝이 보인다. 깨끗한 청정지역이어야 할 공원에서 소각장 연기를 발견한 일부 관람객들은 당황을 금치 못하기도 한다. 소각장과 영덕동 인근의 시멘트공장 이전 문제는 영통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공원 옆에서 가동되고 있는 굴뚝을 매일같이 눈에 담고 있는 영통동 주민들은 영흥공원이 청정지역으로 보존될 수 있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현재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수직구 공사로 인해 영통동 내에 '수직구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인동선 12번 환기구 및 수직구 공사 예정 위치가 영흥공원 내부로 결정되었다. 이에 최소 5년간 이어질 발파 작업과 중장비 작업 등이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공사 예정지가 협소한 도로인데다가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옆이라 안전에 관한 문제도 존재한다. 영통동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리스 제 표현으로는, 영흥공원은 기형을 두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선천적 기형. 소각장. 이게 사실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공원 옆을 돌다 보면 마치 담배꽁초 꽂아 놓은 것처럼 연기가 계속 나요. 제가 매주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그 소각장 기둥이 나와요. 그러면 연기가 이렇게 찍히거든요. (동네)사람들이 서로 소각장 없으면 정말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후천적 기형은 이제 수직구.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비대위(수직구비대위)에 건설사 사장님이 계신데 저희끼리 나름 분석을 한 게 뭐냐면 수직구 직경이 약 15m정도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원 내의 1,500평 정도의 녹지가 훼손이 된다는 거죠.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흥숲공원에서 개최된 영통구 그린하모니 콘서트
(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도시센터

주

1. 김철수·정병두·이원수, 2007,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주거만족도 분석」, 국토연구원.
2. 김우주, 2019, 「신도시 내 근린생활권 공원녹지와 커뮤니티 형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세종시 첫마을 주민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원'(https://encykorea.aks.ac.kr).
4. 「수원시, 구 국립축산과학원에 있던 '반송' 52년 만에 영흥공원으로 이식」, 『아주경제』 2022년 4월 18일.
5. 수원시청 도시개발과 내부자료.
6. 「수원시, '2021년 공공빅데이터 공모전' 최우수상」, 수원시 보도자료, 2021년 12월 9일.
7. 「[김우영 광교칼럼] 일월수목원 영흥수목원에 식재되는 자매도시의 식물들」, 『수원일보』 2022년 7월 12일.
8. 수원시청 도시개발과 내부자료.

집필

강신혜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 과정
김민수 도시상공업연구자네트워크 연구원
김용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차장
김진희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 과정
김형아 설낭 대표
설명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손예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송지영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안종수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원
이승언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이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석사 과정
정헌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교수
정혜빈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석사 수료
조항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 과정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허현태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사업부 부장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황의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 과정

기획·편집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20 –

영통동

수원시 최초의 신도시

발 행 일 : 2023년 12월 30일
발 행 처 :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디자인 및 인쇄 : 경인M&B(전화 031-231-5522~7)
ISBN 979-11-6819-123-5
ISBN 979-11-90343-99-2 (세트)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